

2017年

京畿鄉土史學

특집 : 경기도 장시

第22輯



京畿道文化院聯合會

京畿鄉土史學

第22輯

 京畿道文化院聯合會

발간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염 상 덕

올해로 스물두 번째 경기향토사학이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열 네 분의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들께서 경기도의 장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장시의 역사와 특성을 조사, 연구하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사라져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넉넉함과 푸근한 정서를 이 한권의 책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연구하신 자료들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책과 문화관광 및 지역학연구의 소자(素子)가 될 것입니다. 흙 한줌, 돌맹이 하나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여 글로, 자료로 가치를 만들어주신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경기향토사학을 발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들의 열정과 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향토사학 제22집>이 발간되기 까지 열정적으로 조사, 발굴해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차

남양주 장시(場市)에 대하여	엄중오	7
동두천 5일장의 유래	이명수	43
소사우시장 고찰(素砂牛市場 考察)	양경직	73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이병권	121
안성의 장시문화(場市文化)	홍완표	165
양주의 장시	홍정덕	185
경기동부 한강유역의 장시사(場市史)	이복재	215

우리나라 최초의 장터 수무수(橢無橢)장터	이준용 249
오산장(烏山場)의 변천과 장세	남경식 259
경기물산의 중심지, 의정부	최영희 293
용인 백암장과 백중문화제	김장환 329
파주지역 장시(場市) 변천사 연구	이윤희 351
포천장시의 발달 과정	최창근 379
화성의 교통과 장시(場市)	정찬모 405

남양주 장시(場市)에 대하여

엄 중 오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목 차

I. 들어가며

1. 장시의 배경과 발달과정
2. 장시의 시대별 고찰

II. 남양주시의 장시에 대하여

1. 장시권
2. 남양주시의 연혁 및 지리적 특성
3. 남양주시 장시 권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III. 남양주시 장현·광릉·마석상권 활성화 방안

1. 장현상권 현황 및 상권분석
2. 광릉상권 현황 및 상권분석
3. 마석상권 현황 및 상권분석

IV. 맺음말

집필자

엄 중 오

남양주 문화원 향토 문화연구 소장

I. 들어가며

1. 장시의 배경과 장시의 발달 과정

○ 장시(場市)라 함은 조선시대 지방에서 보통 닷새마다 열리던 사설시장, 보부상(褓負商)이라는 행상이 있어 주로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제 따위를 유통시키는 장소이면서 자연히 사람이 모이게 됨으로 농촌사회의 사교와 오락장소의 구실도하였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사람들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한 영역으로 존재하여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시장은 우선 “모이는 장소” 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인적, 물적, 시간적 요소들이 한데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가 바로 장시이다.

따라서 장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물화교역(物貨交易)의 장소를 뜻하는 구체적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형성 기능이 강조된 논리적 범주로서의 추상적 장이라 할 수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각전조(各塵條)에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는 물리가는 것을 장(場)이라고 이룬다라고 하였는데, 이 때의 장이 구체적 시장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즉 주로 역사적 경험 속에 존재 했던 이러한 구체적 시장이며, 이 경우의 시장은 ‘장터’ 또는 ‘장판’의 의미가 강하다 하겠다.

전통적으로 시장을 장(場) 또는 장시(場市)·시상(市上)등으로 불러 왔는데, 이들 모두가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던 한정(限定)된 장소, 즉 장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장터로서의 국지적(局地的) 시장 개념은 장터를 상호간의 작용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에 따라 유도되기 때문에 장시는 산업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된다 하겠다.

○ 장시는 모여서 교환하는 곳이므로 서로모여 교환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필요는 느끼지만 같이 모일 수 없는 곳에서는 장시의 발달을 기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물론 폐쇄적 자급자족 경제나 필요한 물품을 배급 또는 증여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일방적 거래는 있을 수 있어도 평화로운 가운데 대등한 교환이 규칙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장터가 마련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환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역시 장시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시가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겠다.

첫째 : 잉여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둘 이상의 경제주체가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분업 등을 통해 생산력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둘째 : 잉여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려는 자발적의사가 있어야하고, 이 사실을 또한 모든 교역 대상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교환의사로부터 약속 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장시 윤리가 성립되고 장시윤리가 준수 될 때 평화로운 장시, 장시의 평화는 달성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 자발적 교환의사가 원활하게 실천 될 수 있도록 교통, 운반, 통신 시설 등이 갖춰져야만 할 것이다.

2. 장시의 시대별 고찰

1) 상고시대

우리의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장시는 490년(신라 소지왕 12)에 개설된 경시(京市)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이 해에 “처음으로 서울에 장시를 열어 사방의 물화를 통하게 하였다 즉, 초개경사시, 이통사방지화(初開京師市, 以通四方芝貨)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세워진 최초의 관설장시를 뜻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최초 장시의 효시(嚆矢)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삼한(三韓) 시대에 들어오면서 곡물재배와 양잠(養蠶) 그리고 각종 방적(紡績)과 직포(織布)가 널리 행하여 졌다고 한다.

삼한의 땅은 스스로 나라(國)라고 칭한 78개의 작은 마을(邑)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 진한(辰韓)의 땅에서는 철(鐵)이 생산되어 장시(場市)에서의 매매나 무역에 화폐처럼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진한의 철과 기타의 산물(產物)은 마한(馬韓), 변한(弁韓) 등의 한역(韓域)에서만 거래가 되었던 것이 아닐 것이고 주호국(州胡國:지금의 제주도)과 예(濊) 그리고 왜(倭)에 까지도 널리 교역되었을 것이다. 그 후 삼한이 분리 통합되어 삼국시대를 연 것은 생산력에 따른 장시와 화폐 문화의 진전과 무관 할 수가 없다 하겠다.

통일된 신라의 서울 경주에는 전성기에 18만에 가까운 호구가 있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는바와 같이 695년(신라 효소왕 4)에 이르러 서쪽과 남쪽에 두 개의 장시를 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신라상인들의 적극적인 해외 활동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장쑤성(江蘇省)에 신라인들의 자치구로서 설치된 신라방(新羅坊)과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 장보고(張保皋)의 활약을 빼 놓을 수 없다 하겠다.

2) 고려시대

신라와 발해의 뒤를 이어 고려가 들어선 이후에도 크게 장시발달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환경적 요인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주조된 화폐는 철전(鐵錢)으로 996년(고려 성종15)의 일이며, 그 뒤 숙종 때에 이르러 다시 해동통보(海東通寶), 해동중보(海東重寶), 삼한통보(三韓寶) 등이 만들어진 것 같고 고려말에 이르러 삼한중보(三韓重寶), 동국통보(東國通寶), 동국중보(東國重寶) 등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1391년(공양왕 3)에는 자섬저화고(資贖猪貨庫)를 설치 화폐발달의 최후 단계인 지폐 즉 저화(楮貨)를 인조(印造)하기에 이른다.

고려시대의 장시는 크게 방시(坊市)와 향시 그리고 호시(互市)로 나눌 수 있다 하겠다. 방시는 신라의 경시와 같으며, 호시는 외국인과의 거래가 행하여진 모든 장소를 정기는 상설 장시이었으며 향시는 정기 장시 호시는 비정기 장시 이었다 하겠다.

〈방시〉태조왕건은 고려를 세운 다음해 송악(松嶽:지금의 개성)에 수도를 지으며, 한편으로는 시전을 세우고, 또 방(坊)과 이(里)를 구분했는데, 방은 상인들의 거리이고 이는 일반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방시는 관설장시임과 동시에 상설시장이라는 점에서 지방의 향시와 다르다 하겠다.

〈향시〉방시에 반해 향시는 잉여생산물의 처분과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 시간 속에 자연발생적으로 열린 지방장이다.

따라서 농민, 수공업자 등과 같은 직접 생산자들이 판매자임과 동시에 구매자로서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상호교환의 장소가 향시라고 할 수 있다.

〈호시〉고려에 들어와 외국과의 접촉이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대외무역도 증대되고, 특히 송(宋)나라와의 교역이 대종을 이루었고 그 밖에 일본, 거란, 여진, 원(元)뿐만 아니라 일부 서역나라와도 교역을 행 하던 일이 있으며, 이 교역장소를 호시라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성에는 회동관(會同館), 영빈관(迎賓館), 청하관(淸河館), 조종관(朝宗館) 등 10여개의 객관이 차례로 증설케 되었다 한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장시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토지 중심적 중세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억상정책(抑商政策)이 취해지고, 따라서 화폐의 유통도 저조하여 저화의 전용(專用)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세종 때에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여 보급하기도 하였으나, 곧 중단되고 만다.

따라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초기에도 미포가 화폐의 기능을담당할 수밖에 없는 자급자족적 단순 재생산경제 구조가 유지 되었다하겠다. 1466년(세조 12)에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시전을 관리 감독하였으나, 크게 시전 발달은 기하지 못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을 겪고나서 경작지의 황폐, 높은 전세(田稅) 공물부담에 따른 농민들의 수세체제의 혼란을 가져와 자연 새 세원으로 떠오른 것이 상공업 분야였다.

개국이래 억상정책은 물러서고 대신 상공업 육성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해 1608년(선조 41)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고 대동법(大同法)이경기 일원에 시작되고 대동법의 점진적 실시는 해당지역에서의 모든공물을 쌀로 통일하고 필요한 관수 품은 공인(貢人)으로 하여금 시전및 향사에서 구입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농촌의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게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공업의 발달은 자연적으로 화폐사용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게 되어 17세기 후반기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상공업의 발달 및 화폐의 유통증대는 임진왜란 이후 개혁적 사회경제사상으로 나타난 실학의 형성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제개혁을 통해 전통적 재생산구조의 혁파를 주장하며, 신분사회의 수직적 사민사상(四民思想)을 유교적인 틀안에서 수평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하겠다.

〈향시〉고려시대부터 점차 그 모습을 정비하기 시작한 향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향시는 전성기를 이룬다. 향시는 매일 열리는 상설시, 아침저녁으로 열리는 조, 석시 일정기간을 두고 열리는 정기 시로 나뉜다. 정기 장시는 2일장, 3일장, 5일장, 연시(年市)등이 있었으나, 가장 보편적인 날짜는 한 달에 여섯 번 열리는 5일장이었다.

임원 경제지보다 20여년 앞서 편찬된〈만기요람〉에 따르면 8도에 걸쳐 모두 1,061개의 장이 서고 있다고 부록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서는 광주의 사평장(沙坪場)과 송파장(松坡場), 안성읍내장(安城邑內場), 교하공릉장(交河恭陵場) 등이 가장 큰 장들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향시를 무대로 크게 활약한 상인들 행상(行商)인 부상(負商:등짐장수)과 보상(裸商:벗짐장수), 그리고 좌상(坐商)으로서 객주(客主)와 거간(居間)등이었다.

보상과 부상은 원래 서로 다른 단체를 형성하고 있던 행상조합으로 1883년(고종 20)에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고 두 상단을 합쳐서 군국아문에 부속시킨 다음부터 보부상(裸負商)이라 통칭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항을 차례로 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토 연안의 측량권과 조선내에서의 일본화폐의 사용권 등을 획득하기에 이르러 자주 독립적으로서의 조선과 일본은 동등한 최고 권리를 보유한다 라는 강화도 조약이 무너지고 조선의 장시도 일본장시 권내로 편입되 1910년을 기하여 일단락되고 말았다.

4) 일제 강점기

1910년 근대화된 상업자본을 앞세운 열강의 장시 확장싸움에 희생된 조선은 일본의 장시론리에 따라 재편되고, 시장 규칙 등을 제정 장시를 급진적으로 육성시킨다.

○ 1910년 12월 고전적 식민지 개발이론에 따라〈조선회사령 朝鮮會社令〉을.

○ 1914년 9월 장시의 정비를 위하여〈시장규칙 市場規則〉을.

○ 1920년 1월 유가증권거래를 위해〈조선취인소령 朝鮮取引所令〉을 제정되기도 했다.

시장규칙이 실시된 이후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시장들이 개설.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상은 일제의 조선시장 지배와 일본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한 것에 치중하였다.

1910년 부산의 부평동에 세워진 부평정시장이 공설시장의 효시라고 하는데, 그 뒤 전국의 큰 도시에 하나둘씩 개설되어 1938년에는 모두 29개 이르렀다고 하며, 그해의 지역별 종류별 시장 현황은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

시장종류\지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계
상설시장	14	1	4	8	1	3	4	39	74
재래시장									
5일장	88	149	177	305	147	112	239	167	384
제2호공설	7	-	4	8	-	2	7	-	29
신식시장 시장 제3호 어채시장	4	5	7	12	-	-	2	5	35
계	113	155	192	335	148	117	252	211	522

자료: 朝鮮의市場 (文定昌, 日本評論社, 1941).

II. 남양주시의 장시에 대하여

1. 장시권

역사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면서 지역간 물자의 유통과 소비도 활발해 지는데, 물자의 유통장 소인 장시는 교통망을 따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각지의 물산이 집결 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자연 발생한다.

우리 남양주의 전통적인 장시는 농촌에서 자주 접하였던 정기 시장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는데 정기시장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기시장에는 3일장, 5일장, 10일장, 월시(月市) 연시(年市)등 개시 간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하겠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은 5일장인데, 5일장은 주변의 다른 장과 함께 하나의 장시권을 형성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우리 남양주의 경기 동북지역의 장시권 형성과 발전의 밀접한 조건인 조선시대의 주요도로를 보면

첫째 : 동북쪽으로는 함경도 경흥에서 경기 포천 송우와 누원을 거쳐 서울 수유리로 들어오는 길 송우는 우시장으로, 누원은 어물집 산지로 명성이 났고,

둘째 : 동쪽으로는 강원도 평해(平海)등지에서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로 들어오는 길로 우천장은 한강 포구로서 상업중심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광주 경안장과 양수리장, 광주 분원에서 생산된 사기(砂器)의 임운업(賃運業)과 관련하여 장세를 유지하고,

셋째 : 강상교통로이다 여기에는 북한강 상류부터 대성리 새터앞 사기 막나루, 서종면의 수입나루, 화도읍 금남리 내이면나루, 조안면 진중리 앞 용진나루, 능내 응암나루, 와부읍 팔당리 팔당나루, 덕소나루, 수석동 미음나루 등이 여러 물류 운송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임원 경제지」를 통해 조선시대의 경기 동북지역 장시권을 살펴보면 예규지에 실린 장시는 임진강, 진위천, 서해안, 한강의 4개 유역으로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한강유역의 장시는 다음과 같다.

1) 한강 유역의 장시

군 현	장시명	군 현	장시명
여 주	곡수,억억교,읍내,신은천,궁리	음 죽	장호원
파 주	봉일천	양 근	사탄,가좌곡,심리,미원리
교 하	신화리,삽교	지 평	전곡,곡수,유평,부연,신원,휴암,사포
광 주	성내,송파,사평,경안,곤지암,우천,낙생	고 양	덕수천,이패리,행주,염포,하패리
부 평	발아	가 평	군내,신북
죽 산	부내,이실,배감 주천	용 인	현내, 김량
통 진	원통리,오라리	양 지	개천
김 포	신장	과 천	군포, 안양
이 천	부내,군량,판교	양 주	마석우

2) 남양주 및 양주지역의 장시

조선후기 장시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문헌들을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데 각종 읍지에서 장시 관련 항목이 보이는것은 대부분 18세기 이후이다.

조선 후기 장시

문헌명	제작연대	장 시 명	
『임원경제지』	1827	가라비장(加羅非場:3·8일) 동두천장(東豆川場:이담면 5·10일)	신천장(新川場:진담면 1·6일) 마석우장(麻石隅場:하도면 2·7일)
『경기지』	1842~1843	가업장(加業場:광석면 3·8일) 화천장(華川場:어등산면 1·6일) 구곡장(仇谷場:상도면 1·6일)	동도천장(東道川場:이담면 5·10일) 대탄장(大灘場:청송면 4·9일) 미호장(漢湖場:독음면 3·8일)
『여도비지』	1851~1856	가라비장(3·8일) 고주내장(古州內場:5·10일) 구곡장(1·6일) 신천장(5·10일)	동도천장(5·10일) 북도천장(北道川場:1·6일) 대탄장(4·9일)
『경기읍지』	1871	가업장(광석면 3·8일) 화천장(어등산면 2·7일) 광릉천장(光陵川場:진별면 3·8일)	동두천장(이담면 5·10일) 덕소장(德沼場:와공면 1·6일)

비고 : 괄호 안은 시장의 위치와 개시일이다.

3) 일제시기 남양주, 양주지역 장시

문헌명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거래액(원)
『朝鮮의 市場經濟』	광릉천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	1·6일	
	마석우	화도면(和道面) 마석우리(磨石隅里)	5·10일	
	의정부	시둔면(柴屯面) 의정부리(議政府里)	4·9일	
	동두천	이담면(伊淡面) 동두천리(東豆川里)	3·8일	
	추교	광적면(廣積面) 가납리(佳納里)	5·10일	
	평구	미금면(湊金面) 삼패리(三牌里)	2·7일	
『朝鮮의 市場』	광릉천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	2·7일	
	마석우	화도면(和道面) 마석우리(磨石隅里)	3·8일	
	의정부	양주면(楊州面) 의정부리(議政府里)	3·8일	
	동두천	이담면(伊淡面) 동두천리(東豆川里)	5·10일	
	덕정	회천면(檜泉面) 덕정리(德亭里)	2·7일	
	가납	광적면(廣積面) 가납리(佳納里)	1·6일	
	금곡	미금면(湊金面) 금곡리(金谷里)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의 市場經濟』, 1929: 文창시, 『朝鮮의 市場』, 東京: 日本評論社, 1941.

2. 남양주시의 연혁 및 지리적 특성

1) 연혁

- 남양주시의 선사문화로는 조안면 능내리, 상봉리 등 구석기 유적지가 있으며, 빗살무늬 토기인 수석리 유적, 금동 유적 등 신석기 유적지가 있으며, 수석리와 가운데동의 선사집자리 등 청동기 유적지가 있고,
- 고대 사회 유적지로는 삼한시대의 한강유역-남양주 지역은 당시 마한 지역에 속했으며, 삼국 시대는 백제도성과 접했으며, 통일 신라시대에 남양주는 이 때에 한주 한양군 황양현으로 개칭되었고,
- 고려시대에는 양주가 고려 지방통치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983년(고려 성종 2)이다. 성종은 처음으로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는데, 이 때의 양주(楊州)는 12목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방행기관으로 승격하였다.
- 조선시대 1394년(1394 태조 3) 10월에 한양 천도시 양주 일부지역을 한성부(漢城府)로 정하

면서 지금의 남양주 지역도 새로운 지역 편제의 대상이 되었다.

- 1980년 4월 행정구역상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 지역은 군사적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임.

2) 장시 세력권 위치 및 인구 현황

- 위치 -

-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동북부에 자리하며, 수도 서울에서 동(東)으로 26km 시점에, 그리고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동북방으로 65km지점에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1특별시, 5시 2군(8시군)과 접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동(東)으로 양평군과 가평군, 서(西)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南)으로 하남시와 광주시 북(北)으로포천시와 접하고 있음
- 또 한 남양주시는 크게 3개 생활권역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동부권」은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으로 「서부권」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으로 「남부권」은 와부읍, 진건읍,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으로 구분된다.
- 접근체계를 살펴보면 남양주시는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북부 교통의 관문으로서 경춘선, 중앙선을 비롯하여 서울 춘천고속도로 서울외관순환고속도 서울~덕소간 한강 복단 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울 도심접근성이 우수하고,
- 또한 남쪽의 한강변을 따라 중앙선 철도와 양평으로 통하는 6번국도가 나란히 지나며, 이 국도에서 분기한 국도가 동쪽 북한강변을 따라 가평 춘천방면으로 통하게 됨.

- 인 구 -

- 남양주시의 인구는 2016년 12월말 현재 662,154명으로 화도읍이 104,816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진접읍이 96,312명이나, 세대수는 남양주시 전체 251,335세대로 나타남.
- 전월대비 인구증가율을 보면 화도읍 104명, 호평동 67명 등이 증가했으며, 특히 장현상권이 속해 있는 진접읍도 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으로 상권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임.

- 남양주시의 인구현황 -

읍면동	인 구 수			세대수
	계	남	여	
총 계	662,154	330,749	331,405	251,335
소 계	419,906	211,121	208,785	160,916
와 부 읍	69,264	34,209	35,055	25,295
진 접 읍	96,312	48,577	47,735	35,434
화 도 읍	104,816	52,796	52,020	41,339
(동부출장소)	(11,356)	(5,859)	(5,497)	(4,898)
진 건 읍	27,428	14,162	13,266	11,337
오 남 읍	55,206	27,642	27,564	20,422
별 내 면	21,165	10,524	10,641	8,324
퇴계원면	32,192	16,126	16,066	12,176
수 동 면	9,110	4,779	4,331	4,616
조 안 면	4,413	2,306	2,107	1,974
소 계	242,248	119,628	122,620	90,419
호 평 동	50,256	24,638	25,618	18,132
평 내 동	41,788	20,576	21,212	15,181
금 곡 동	21,912	11,190	10,722	9,450
양 정 동	5,297	2,934	2,363	2,696
지 금 동	19,288	9,548	9,740	7,429
도 농 동	39,181	19,062	20,119	13,688
별 내 동	64,526	31,680	32,846	23,843

※ 참고자료 : 남양주시 통계자료 (2016년 12월 인구현황)

3) 남양주의 역사적 장시 변천사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남양주에는 조선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입시하던 장시가 마석우장(磨石隅場), 구곡장(仇谷場), 미호장(溟湖場), 덕소장(德沼場), 광릉천장(光陵川場) 등이 있었고, 일제시기(1941년)의 남양주 장시 명은 광릉천장(진접면 부평리), 마석우장(화도면 마석우리), 금곡장(미금면)으로 되어 있음.

그 후 8.15해방을 전후 한 때에 남양주시에는 현재 장시가 개설되고있는 광릉(光陵) 5일장, 장현(長峴) 5일장, 마석(磨石) 5일장 외에 덕소장, 금곡장, 진건장, 퇴계원장이 입시하였으나, 덕소장은 1960년대에 4·9일장이 섰으나, 1980년대에 사라졌고, 우시장(牛市場)도 같이없어졌다. 진건면의 진건장, 퇴계원의 퇴계원장, 미금면의 금곡장은 일제시기에 형성되었다가 1960년대 초에 폐지되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5일장) 현황

시장명	위치	면적(m ²)	상인회명	점포수	장날(일)	비고
장현 5일장	진접읍 장현리 380-15 일원	1,063	대명상인회	18	2일, 7일	1964년~
			중앙로5일장	42		
			민속5일장	40		
			소계	100		
광릉 5일장	진접읍 부평리 513-1 일원	1,581	광릉민속상인회	27	4일, 9일	
마석 5일장	화도읍 마석우리 314-2 일원	4,993	4개 상우회	196	3일 8일	

- 현재 남양주시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없으나, 진접읍 장현과 광릉에 각각 5일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화도읍 마석에 5일장이 열리고 있음

3. 남양주시 장시 권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남양주시에는 기술한바와 같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장시가 장현장, 광릉장, 마석장 등 3개의 시장이 입장되고 있다. 장이서고 있는

○ 장현상권, 광릉상권, 마석상권 모두다 현금의 소매 유통구조와 경쟁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형성된 대형점포들이 포화 상태 이르게 되면서 대형 할인점에 집중하던 대형유통업체들이 주택가 주변에 지역 밀착형 기업형 슈퍼마켓 (SSM)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상권을 크게 잠식해 가고있어 위 3개 상권도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 최근 저성장시대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시 지역의 상권 매출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으며,

○ 또 한 남양주시는 서울 수도권으로의 진입의 교통수단이 개선되고있어, 수도권으로 고객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3개 권역상권 5일장 무질서하게 전근대적으로 산재해 있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위에 대한 발전 방향을모색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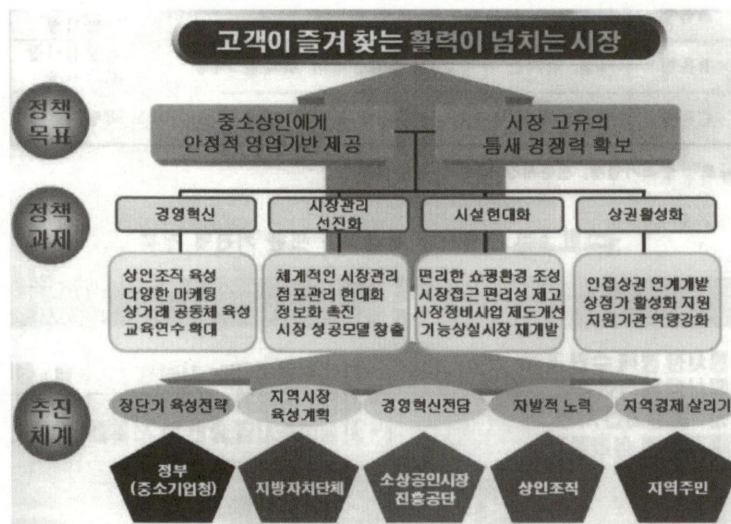
○ 한편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지원 정책 및 활성화 사례를 아래와 같이밝힌바 있다.

2)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 정책목표

국내 전통시장 정책 목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평가 및 대책마련을 지시’ (2006. 1. 6)함에 따라 “특성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성공모델을 창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할 것” 이라고 지원의지를 밝혔음.

□ 정책운용기조

○ 시장의 특성별 육성지원

- 경쟁력 취약요인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
- 시장특성을 유형별로 분류, 성공모델을 창출, 확산
- 성과분석을 통해 경영능력 등 취약요인을 집중보완
- 상권특성별 육성전략 차별화

시장의 특성별 육성 지원

유형별	맞춤형 지원	시장 컨셉
A유형	경영능력, 시설수준이 모두 취약한 시장	골목시장 / 지방시장
B유형	시설, 입지는 우수하나 경영능력이 취약한 시장	지역중심시장 / 전문시장
C유형	경영능력은 우수하나 시설이 취약한 시장	대형시장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정책수립조정 ○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 시설 · 환경개선지원 ○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 수립 · 집행 ○ 시장 · 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지정 ○ 시장정비사업승인 및 시설현대화지원
○ 시설 · 경영현대화사업자문 ○ 선진유통기법교육 · 연수 ○ 시장 전문가 양성 및 파견 ○ 조사 · 연구 및 요역수행	○ 시장 · 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신청 ○ 상인 주체적 조직 육성 · 의식개혁 ○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신청 ○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활성화추진
지원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인조직/건물주

○ 경쟁력 수준별 지원체계 구축

- 전국시장 실태조사 및 지원성과 평가(매 2년 마다 실시, 평가결과를 시장에 피드백)
- 시장의 특성과 경쟁력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경쟁력 수준별로 육성전략 수립 시행

○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기관 간 효율적 역할 분담
- 시설현대화 지원예산 편성 집행절차 개선
(사전 검토제 도입 등 제도개선)

□ 정부의 주요 지원정책

-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지원분야	추진과제
1. 경영현대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 상인조직 역량강화(매니저) · 공동마케팅, 우수시장 상품권전시회, 온누리상품권, 시장지문, 점포지도사업 등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 시장별 3년간 최대 50억원 · 문화관광형시장: 시장별 3년간 최대 18억원 · 골목형시장: 시장별 1년간 최대 6억원
3. 시설 현대화 /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비가림시설 · 주차장 · 고객센터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등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 노후화된 시설, 위험시설 시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 추진가능
4. 상권활성화구역 / ICT전통시장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인접 소상공인이 포함된 상권구역의 활성화 지원(경영혁신 중심) · 구역당 3년간 18억원 이내, 국비 100% 지원 · ICT전통시장: 고객과 상인간 소통촉진을 위한 ICT융합 인프라구축 지원 (시장당 3천만원 내외)

자료: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Ⅲ. 남양주시 장현·광릉·마석상권 활성화 방안

1. 장현상권 현황 및 상권 분석

1) 장현상권 5일장 역사 등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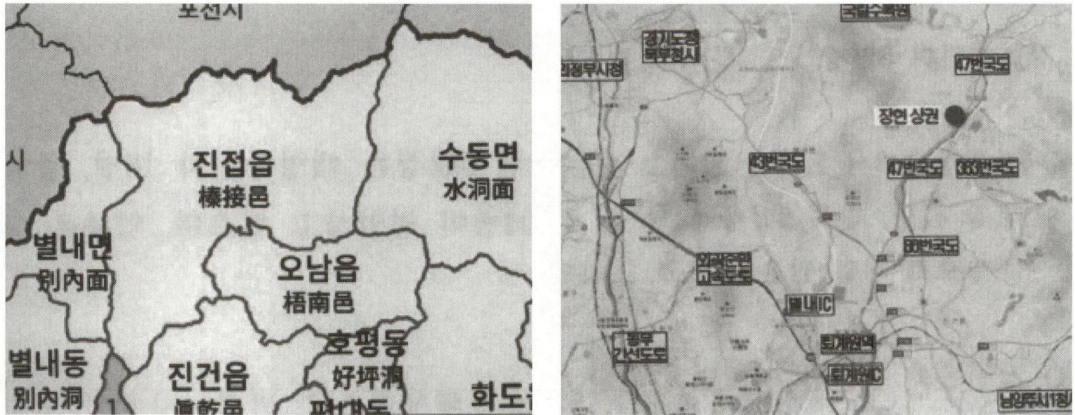
가. 장현리(長峴里)의 유래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접동면 지역으로 1914년 장승리의 장(長)자와 봉현리의 현(峴)자를 따서 장현리라고 진접면에 편제 되었다.
- 봉현(蜂峴)이라는 이름은 벌우개, 비리개, 버리개, 보루개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동쪽에 조그마한 고개에 벌집이 많아 이러한 연유로 그 고개를 벌우개, 비리개, 버리게 등으로 불렸으며,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벌이 많은 고개 마을이라는 의미의 봉현(蜂峴)이 되었다고 한다.
- 장승리라는 지명은 장승이서 있었기 때문에 유래하였는데 장승, 장승배기, 매봉제 라고도 하는데, 아직도 장승뜰판 장승배기보, 장승벌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전하고 있다.

나. 장현상권의 개요

- 진접읍의 소재지인 장현리는 남양주시 별내면, 진건읍, 오남읍, 수동면 등 과접해 있으며, 북으로는 포천시와 접해 있음.
- 장현상권의 교통 접근성 장현상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I.C에서 10k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청에서 11km,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에서 15km 거리에 있으며, 장현상권과 접하는 주요 국도로는 47번국도(6차선 도로)가 장현상권 동남측 300m 지점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383번국도 (4차선 도로)는 장현 상권 동남측 350m지점으로 통과하고 있음.

진접읍 위치 및 교통 접근성



진접읍의 일발현황

세대수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35,434	96,312	48,577	47,735	2016.12.31현재

법정리	행정리	반	비고
8	73	607	

걷기 연맹	주민자치 위원회	방위협 의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이장협 의회	체육진 흥회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32	25	50	40	15	56	70	70

공공 기관	학교	금융 기관	병원	약국	마을 회관	사회복지 시설	종교 시설	기타
19	18	11	48	22	35	19	30	

다. 장현상권의 5일장

- 장현상권에서 2, 7일 열리고 있는 장현 5일장은 대명상인회 18명, 중앙로 5일장 42명, 민속 5일장 44명 등 총 104명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업종은 야채가 20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상인들의 불편한 점으로는 장날 인도 통행불편으로 민원·마찰이 있고,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고, 자동차 등의 위험이 있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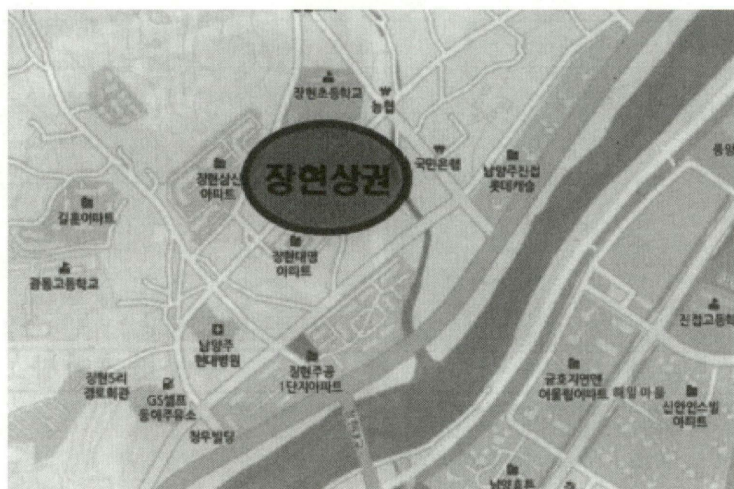
장현상권의 5일장 현황

상인회명	점포수	업종	불편 및 바라는 사항	비고
대명상인회	18	도소매13, 음식5		1964 ~
중앙로5일장	42	야채15, 생선2, 기타25	통행불편 민원·마찰(시장이전), 화장실, 자동차 위험	중앙로거리
민속5일장	44	야채5, 의류5, 기타34		농협맞은편

2) 장현 전통시장 위치 및 시장구역도

- 장현 전통시장은 장현상권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등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며, 시장 구역도 전통시장의 등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말함
- 장현 전통시장의 위치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7 장현프라자로부터 진접농협까지 장현로이며, 남양주시청에서 11km,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에서 15km 거리에 있으며, 강변역에서 28km, 구리시청에서 18km 거리에 있으며, 장현 전통시장 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상인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남양주시청에 상인회 및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

장현 전통시장의 위치



3) 장현 전통시장의 일반현황

- 장현 전통시장의 일반현황은 장현 전통시장 추진위원회에서 장현프라 자료부터 진접농협까지 전통시장의 등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의 현황임으로 정확한 현황은 시장이 등록한 후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장현 전통시장의 점포수 및 업종 현황

- 장현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130개이며, 업종은 서비스업이 36개 점포로 27.7%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류신발업이 30개 점포로 23.2%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업이 22개 점포로 16.9%를 나타내고 있는 등 주로 주민들의 생활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장현 전통시장 점포수 및 업종 현황

품목	축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서비스	기타소매업	합계
점포수	2	5	30	20	22	36	15	130
비율(%)	1.5	3.8	23.2	15.4	16.9	27.7	11.5	100

장현 전통시장 점포관련 현황

항목	성별연령		영업 년수	점포		점포 면적	종사 자수	1일방문 자수	1일평균 매출액
	남	여		임대	자가				
수치	52세	48세	10년	111명	19명	16평	286명	33명	38만원

□ 장현 전통시장 상권특성

- 장현 전통시장의 상권특성을 분석해보면 업태의 특성은 소매 중심시장이고, 생필품 및 서비스 종합시장이며, 주요품목은 의류신발, 서비스, 음식, 가정용품, 기타업종이며, 상권특성은 읍지역 중심지, 주택가 및 상점가 중심 시장이며,

- 장현 전통시장 상권의 경쟁점포로는 홈플러스 진접점이 700m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 진접점이 1km 거리에 있으며, 홈플러스익스프레스진접점이 2.4k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 근접한 거리에 3개의 대형 및 준대형 점포가 있음으로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심화되고있다고 볼 수 있음.
- 장현 전통시장 상권은 저밀주거지역으로 상업, 업무시설 밀도가 매우낮으며, 주거시설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주로 소규모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장현 전통시장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소매 중심시장, 생필품 및 서비스 종합시장
주요 품목	의류신발, 서비스, 음식, 가정용품, 기타
상권의 특성	읍지역 중심지, 주택가 및 상점가 중심 시장
경쟁점포 현황	홈플러스 진접점(700m), 이마트 진접점(1k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진접점(2.4km)

4) 장현 5일장 문제점 분석 및 근본적인 대책 방안

가. 장현 5일장의 문제점

- 5일장 날 노점으로 인해 인도가 협소함
- 주변 상점가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함
-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5일장 이전이 적절할 것임
- 상품, 서비스 질, 청결 등에 대한 방문객 불만
- 자구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미비

나. 장현 5일장의 근본적인 대책방안

- 장현 5일장은 무질서한 노점으로 이해 인도가 협소하여 주민 및 주변 상점가와의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소비자나 방문객들로부터 상품, 서비스질, 청결 등에 대한 불만들이 일부 있는 것은 장현상권 중심지 인도와 차도에서 5일장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장 등 상인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장현상권이 명품의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상생하고, 고객들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5일장 이전을 검토 하는 진행과정에서 상점가 상인, 5일장 상인, 건물주, 주민, 시청관 계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중장기적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5일장 이전을 급하게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한 다음 이전 타당성 검토, 부지매입 및 시장배치 방안 등 단계별 절차와 준비를 거치고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임을 판단 할 수 있었음

2. 광릉상권 현황 및 상권 분석

1) 광릉상권 5일장 역사 등 일반 현황

가. 광릉의 유래

◎ 부평리(富坪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진별면과 접동면 지역으로 1914년 부동리의 ‘부(富)’자와 후평리의 ‘평(坪)’자를 따서 부평리라 하여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부동은 ‘분토골’이라고도 하며 ‘후평’은 뒷벌을 한자화한 것이다.
- 부평리에는 ‘능내(陵內)’·능내동·능안’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는데, 조선 제7대 세조의 능인 광릉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능내’ 혹은 ‘능내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능안쪽에 있다고 해서 ‘능안’이라고도 불린다.

◎ 팔야리(八夜里)(여덟밤이,팔야)

- 조선시대에 태조가 함흥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 곳에 이르러 여덟밤이 되었으므로 태조가 ‘아, 여덟 밤이로구나.’ 하여 ‘여덟밤이’ 또는 ‘팔야’라 하였다고 한다.

나. 광릉상권의 접근성 및 진접읍 인구 현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I.C에서 1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청에서 14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18km 거리이며, 광릉상권에서 동북측으로 3km에 위치하고 있음.
- 광릉상권 부지와 접하는 주요 국도현황은 광릉상권 서북측 150m 지점에 47번국도(6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광릉상권의 위치 및 교통 접근성



다. 광릉상권의 5일장 현황

- 광릉상권에서 4, 9일 열리고 있는 광릉 5일장은 27명의 상인 영업하고 있으며, 업종은 야채 3명, 의류 3명, 음식 2명, 생선 2명, 청과 2명, 잡화 2명, 기타 15명 등으로 조사됨.

- 상인들의 불편한 점으로는 주차장이 없고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비가림시설, 전기, 수도 시설이 없어 불편함.

광릉 5일장 현황

상인회명	점포수	업종	불편 및 바라는 사항	비고
광릉5일장	27	야채3, 의류3, 음식2, 생선2, 청과2, 잡화2, 기타15	비가림, 전기, 수도	

광릉 5일장의 모습



5일장 모습



5일장 모습



5일장 모습



5일장 모습

라. 광릉 전통시장 위치 및 시장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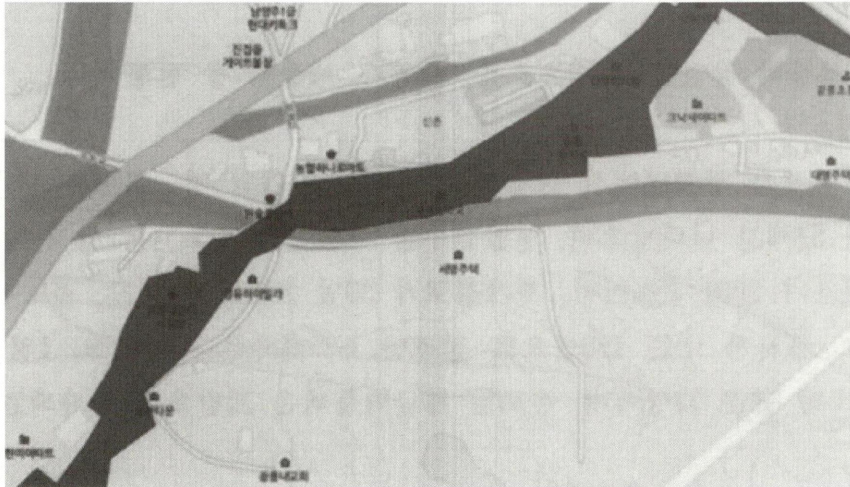
- 광릉 전통시장은 광릉상권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등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며, 시장구역도 전통시장의 등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말하며, 2017년 2월 21일 상인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등록 신청서를 보완하고 있음.
- 광릉 전통시장의 위치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7 장현프라자로부터 진접농협까지 장현로이며, 남양주시청에서 11km, 경기도청 북부 청사(의정부)에서 15km 거리에 있으며, 강변역에서 28km, 구리시청에서 18km 거리에 있으며, 광릉 전통시장 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상인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남양주시청에 상인회 및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

광릉 전통시장의 위치



- 광릉전통시장의 구역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와 팔야리에 걸쳐 있으며, 부평리 롯데슈퍼부터 팔야리 광릉초등학교 후문까지 광릉내로 좌우건물들의 점포들이 시장구역에 속함.

광릉 전통시장의 구역도



2) 광릉 전통시장의 일반적 현황

- 광릉전통의 일반현황은 광릉전통시장 추진위원회에서 롯데슈퍼부터 팔야리 광릉초등학교 후문까지 전통시장의 등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의 현황임으로 정확한 현황은 시장이 등록한 후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광릉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120개이며, 업종은 서비스업이 47개 점포로 39%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업이 35개 점포로 29%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소매업이 17개 점포로 14%를 나타내고 있는 등 주로 주민들의 생활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릉 전통시장 점포수 및 업종 현황

품목	축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서비스	기타소매업	합계
점포수	1	6	1	12	35	47	17	120
비율(%)	1	5	1	11	29	39	14	100

광릉 전통시장 점포관련 현황

항목	성별연령		영업 년수	점포		점포 면적	종사 자수	1일방문 자수	1일평균 매출액
	남	여		임대	자가				
수치	52세	54세	11년	90명	30명	22평	150명	31명	35만원

- 광릉전통시장의 상권특성을 분석해보면 업태의 특성은 소매 중심시장이고, 생필품 및 서비스 종합시장이며, 주요품목은 의류신발, 서비스, 음식, 가정용품, 기타 업종이며, 상권특성은 읍지역 중심지, 주택가 및 상점가 중심 시장이며,
- 광릉 전통시장 상권의 경쟁점포로는 홈플러스 진접점이 700m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 진접점이 1km 거리에 있으며, 홈플러스익스프레스진접점이 2.4km 거리에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 근접한 거리에 3개의 대형 및 준대형 점포가 있음으로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광릉 전통시장 상권은 저밀주거지역으로 상업, 업무시설 밀도가 매우낮으며, 주거시설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주로 소규모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광릉 전통시장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소매 중심시장, 생필품 및 서비스 종합시장
주요 품목	음식, 서비스, 기타 소매업, 가정용품, 기타
상권의 특성	2개의 리가 인접한 지역 중심지, 주택가 및 상점가 중심 시장
경쟁점포 현황	롯데슈퍼 진접점(0m), 이마트에브리데이 광릉점(0m), 홈플러스 진접점(4km), 이마트 진접점(4.7k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진접점(4km)

광릉 전통시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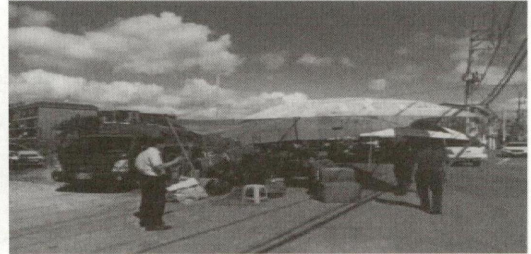
광릉 5일장 앞 부평리 거리



팔야리 거리 입구



팔야리 거리



광릉 5일장 입구

광릉상권의 주요 정보 요약

- 광릉상권은 저밀주거지역이며, 면적은 제2상권으로 볼 때 7,021,537㎡이며, 가구 수는 5,364세대이며, 주거인구는 14,700명이며, 주요시설수는 35개소이며, 접객시설 수는 57개소이며, 상가/업소수는 음식이 290개, 도소매가 256개, 서비스가 90개로 전체 636개로 나타남.

광릉상권의 문제점 분석

- 광릉상권은 상인회 및 시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권 점포들의 공동마케팅 등 일치된 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없고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 광릉상권의 주요 문제점은 공설 주차장 부재 및 시설 열악, 화장실, 휴식공간 등 고객편의 시설 부족, 장현 및 구리 등으로 고객 유출심화, 시장 미등록으로 지원여건 불비, 상인조

직 미흡 및 친절서비스 저조, 강력한 브랜드 먹거리 상품 저조, 2개의 준대형점이 상권 내에있어 경쟁이 심하고,

- 현재도 광릉상권으로 고객유출이 심하지만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서울, 구리 등으로 상권의 유출이 염려되는 점 등 구조적 문제점, 상인들의 친절서비스와 고객 고품격 욕구 증대에 대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광릉상권 활성화 필요성 및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

- 활성화 기본방향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로는 상인회 및 전통시장 등록추진, 상인들의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 개선 교육, 상인조직 활성화 및 단합으로 일관된 마케팅 방안 강화, 5일장 등 상인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상권과 관광지 버스 연계 운행, 공용 주차장 개설, 광릉상권(전통시장) 홍보안내 조형물 및 간판 설치, 장기적으로 주민·상인들의 협의를 거쳐 5일장 정비 검토 등이 있음.

광릉상권 상인회 구성 및 시장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지원

- 광릉 5일장은 해방 후에 형성되어 우시장으로 이어져 오다가 1985년 폐쇄되었다가 1996년에 재개장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전통시장 추진구역 내에 혹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건물주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여 2월 21일 상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남양주시청에 상인회 및 전통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음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임.

상인의식혁신 및 상인조직 활성화

- 상인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향후 광릉상권을 효율적으로 혁신하여 상권의 기능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인과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광릉상권의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상권 경영현대화의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3. 마석상권 현황 및 상권분석

1) 마석상권 일반현황

가. 마석우리 지명 유래

- “맷돌머리 · 마석우” 라는 마을은 심석중합고등학교 남쪽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맷돌이 많이 생산되었고, 마을의 길이 돌아서 생겼다고 해서 “맷돌머루” 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함. 한자로 “마석우(磨石隅)” 라고도 불리고 있음
- 그리고 마석우리에 있는 마을로 “아래 닭계 · 계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풍수리지적으로 이 지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즉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지형이라 하여, “아래 닭계” 또는 “계전” 이라고 불림

나. 마석상권 개요

- 화도읍 마석우리는 남양주시 호평, 평내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서울과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청평, 가평, 춘천과 남쪽으로는 와부읍과 접하고 있으며, 46번국도변에 위치하고, 철도는 경춘선 마석역이 위치하고 있음
- 마석우리 상권은 46번 국도가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으면, 지역의 생활이 2개 권역으로 발전하여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 완료된 후 수용층이 꾸준히 유입 중에 있음
- 화도읍은 46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경춘선 북쪽 방향으로 신주거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상권도 형성되어 있음

다. 마석 전통 5일장 현황

- 위치 : 마석우리 314-2번지의외 12필지 (2013. 7. 18 이전)
- 부지면적 : 4,993㎡(마석공원 2,083㎡, 화도 제1공영주차장 2,910㎡)

- 장날(일) : 3일 8일
- 시장규모 : 점포 수 196개, 상인 수 300여명

① 개설일자

- 1964년 4월 15일

② 소유자

- 코레일

③ 부지 사용계약 기간

- 2010. 03. 05 ~ 2017. 12. 31

④ 관리단체

- 상호 : 화도회
- 법인격 : 단체등록(경기도)
- 회원수 : 108명
- 주요역할 : 마석공원 및 마석 5일장 관리

⑤ 상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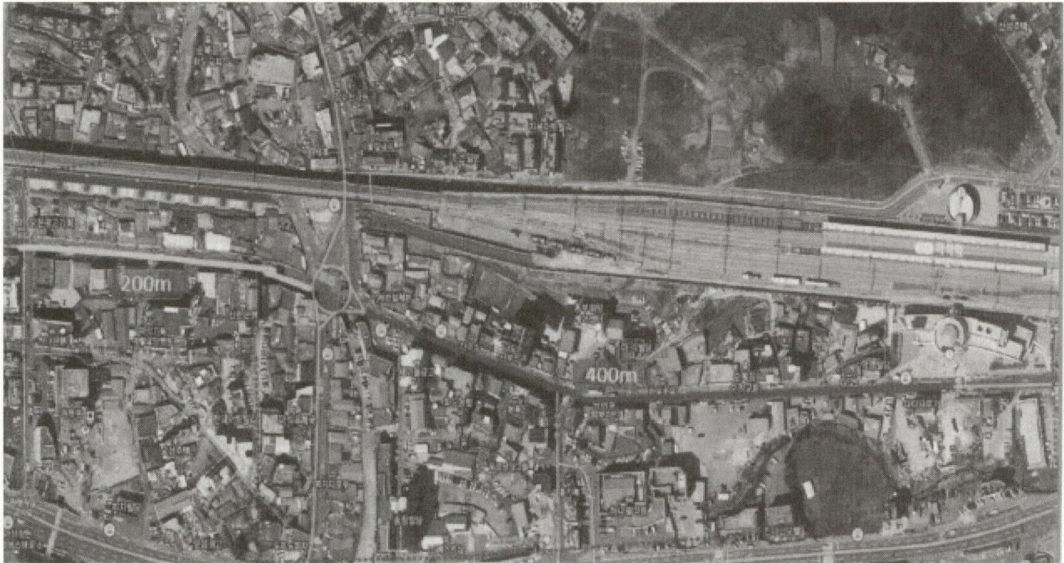
- 시장 내 4개 상우회 활동
- 안장상우회, 굴다리상우회, 복개상우회, 상가번영회

라. 위치 및 접근성

- 마석상권은 마석로와 마석중앙로가 십자형태로 교차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마석역에서 부터 마석5일장이 서는 마석 중앙로 37번 길까지 1km 정도 형성되어 있음
- 남북으로는 경춘로가 지나는 마석사거리부터 수동방향으로 올라가는 마석로 46번길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남북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동 서로 북부간선도로, 수석-호평간고속화도로, 서울춘천간고속도로가 있으며, 일반 국도는 6, 43, 45, 46노선이 지나고 있음

마석 구상권 위치 및 구역



마. 주변 신 주거단지 현황

- 경춘선 북쪽 방향으로 신주거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 젊은 층의 소비인구 유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신명스카이뷰아파트가 약 1,500가구, 주공아파트 1,000가구, 중흥클래스아파트 1,800가구,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가 800가구, 대림이 편한세상 1,000가구 등 약 7,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들이 군집해 있음
- 경춘선 철도와 서울 도심과의 버스 교통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상권 형성 및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바. 마석상권 공영주차장 현황

- 화도읍에는 현재 4개의 노상 공영주차장과 5개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노상 공영주차장 3곳을 제외하고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71대이며,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 면 수는 총 315대의 주차가 가능함.

화도읍 노상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합계	무료	유료
화도 노상제1	화도우체국 앞	창현리 488-10	3	3	0
화도 노상제2	창현리(두산A)	창현리 740(도)	19	19	0
화도 노상제3	화도 마석택지상가	마석우리 391	40	0	40
화도 노상제4	화도읍 용진빌라	마석우리 307-1	9	9	0
소계	4개소		71	31	40

- 2014년 남양주시 기본통계에서 시민 2.9명당 1대의 차량(217,110 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도읍은 2015년 9월 말 기준 총 38,084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남양주시 전체 차량 대비 주차장의 면수는 전체의 2.4% 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화도읍은 1% 수준에 그쳐 남양주시 주차장 비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 도로교통량 현황

- 마석민속 5일장 관련 도로인 지방도 387노선(화도읍-수동면)의 평균일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마석 교차로를 중심으로 수동방향 쪽 마석중앙로는 길이 협소하여 지방도 387노선에 비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아. 배후 세력권

- 마석상권은 (구)화도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왔으며, 현재 마석중앙로와 마석로가 십자 형태로 교차하여 만나는 교차점인 마석 회전 교차로 중심의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음
- 마석우리 거점상권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학교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며, 신규지구 개발로 인해 9,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음
-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편의, 집객시설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마석우리 거점상권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1개의 대형마트(롯데마트 마석점)가 위치하고 있음

자. 마석 상권별 분석

구분	분석의견
마석 A 상권	○ 화도읍사무소 맞은편 대규모 점포가 밀집한 구역 ○ 마석구 상권과는 별도의 상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신규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권 ○ 요식업을 중심으로 상인회가 구성
마석 B 상권	○ 심석중 · 고 맞은편에 위치한 상권으로 학원 등의 수가 밀집 ○ 하천 복원을 통해 외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
마석 C 상권	○ 옛날 우시장과 5일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으로 회전 로터리에서 수동 방면으로 형성 ○ 장날이 아니더라도 다리 부근부터 채소, 묘목 등 다양한 잡화를 팔고 있는 상인들이 있음 ○ 화도농협 송라지점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상가들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5일장이 있는 날이면 많은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음
마석 D 상권	○ 마석 우체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으로 마석중앙로와 마석로가 상권의 주 접근로로 이용 ○ 대부분이 근린생활 업종으로 새롭게 조성된 상가가 크게 발견하기 어려움 ○ 정석한의원 앞의 유동인구는 낮 시간대 약 150여명, 저녁시간대의 경우 약 230여명으로 일반적인 상권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유동인구에 다소 못 미치는 곳

구분	분석의견
마석 E 상권	○외부 고객을 흡입할 만한 상권으로는 보기가 어려움 ○역 주변이 일반적 주거 지역 위로 구성되어 있어 교통수단 이외에는 특별한 소비시설이 없어 이른바 흐르는 상권의 유형을 띄고있음 ○새마을금고 앞은 이 상권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낮 시간 1시간 평균 200여명, 저녁 시간은 350여명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상권으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좁은 인도와 버스 정류장,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
마석 F 상권	○마석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상권 ○아파트단지와 학교를 끼고 있으며, 도서관, 119센터 등의 주요시설 이 위치하고 있음

종합 분석 및 대응방안

강점	약점
○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풍부한 지역 내 수시장 존재 ○ 폭 넓은 배후시장 보유 ○ 마석 전통 5일장의 운영(마석우리의 대표 상권 브랜드로 활용) ○ 남양주시의 거점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	○ 상인회 부재 및 참여도 저조 ○ 마석상권 건물 노후화 및 빈 점포 증대 ○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의 부족(편의시설 및 주차 공간 부족) ○ 소규모 경영의 한계와 판매 상품의 다양성 저하 ○ 마석 5일장의 부지 활용 한계(코레일)
기회	위협
○ 수도권의 지속적인 확장 추세와 함께 마석지역 내의 대규모 신도시(주택 및 아파트단지) 건설 예정 ○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 연계 가능한 풍부한 지역 문화관광자원 및 인적자원 개발	○ 인접 도시의 기능 확장에 따른 지구개발에 따른 생활권의 이동 ○ 주변 도시로의 상권이동을 촉진하는 교통 여건의 발달 ○ 대형마트/체인점의 공격적 마케팅 전개 ○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구매패턴의 변화

강점강화	약점보완
○ 편리한 접근성을 활용한 수도권 소비자들이 찾는 지역 특화시장으로 육성(정부 지원사업 유치) ○ 마석 5일장의 전통성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 ○ 마석지역 농·특산물이 거래되는 직거래 장터 육성 ○ 남양주시 문화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발굴 및 지역 인적 자원 연계 특화 상품개발 ○ 마석 전통 5일장 브랜드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 상인조직의 재정비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유희공간 및 빈 점포를 활용한 소비자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문화콘텐츠개발 및 운영) ○ 소비자 편의를 위한 추자 공간 확보 ○ 주변 대형마트와의 상생 프로그램 ○ 코레일과의 부지 활용 협약 ○ 전통 5일장 내 가설 점포 개설
기회활용	위협극복
○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패턴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 추진 ○ 전통시장의 통합 브랜드 구축 : '마석 상권&마석 전통 5일장' ○ 일반 소비자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 ○ 거점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전략적 계획 수립을 통한 정부/남양주시 지원 사업의 접목	○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 상시 운영(상인 중심 동아리 운영 등) ○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동종업종의 특화거리 조성 ○ 전통시장 만의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볼거리와 특화 이벤트 추진

IV. 맺음 말

-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중심부 서울동부의 한 자락을 차지한 자연환경이 어울어지고 상공업 등 경제 활동이 왕성한 인구 67만의 큰 도시이다.
- 예로부터 남한강, 북한강 수로의 발달과 경강, 경춘국, 철도 개설로 여러 농축산물 임목 광산 물들의 물류 유통로로서의 역할을 크게해 일찍이 장시의 발생을 가져왔다.
- 뿐만 아니라 남양주의 진산인 천마산(812m)이 중심부에 장엄하게 자리하고 있고, 왕숙천, 수동천 등 하천들이 지역을 갈라 자연히 시 전체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등 3대 생활권역

으로 구분되어 옛 부터 장시도 이 지역별 형성 이루어졌다.

- 옛 기록에 의한대로 남양주에 성시를 이루던 장시 중 진건장, 금곡장, 덕소장이 없어지고, 장현장, 광릉장, 마석장 등 3개장만이 남아 영세하고 빈약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 조선시대부터 일반시장(5일장)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운영되던 가축시장(우시장)으로 1980년까지도 왕성하게 입시하던 마석, 덕소, 광릉내 가축시장도 모두 폐쇄되었다.
- 이러한 큰 이유는 유통시장 개방이후 현대적인 유통시설이 도입되고, 유통산업이 거대화되면서 지역중심의 상권과 전통장시의 상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서 온 것으로,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상권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소비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갖추어야만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인회의 결성·운영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상인회의 지구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지자체의 정책이 결합되어야 자치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단이 마련될 것이다.
- 그래야만 예로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단순히 이익을 위한 상품 매매의 경제적인 기능이 외에 지역 사회의 문화역사 문물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훈훈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양주군지 (양주군지 편찬위원회 1978)
- 남양주시지 (남양주시지 편찬위원회 2000)
- 가축보호법(1954) 가축보호법 시행령(1954)
-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2013)

동두천 5일장의 유래

이 명 수 (동두천 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1. 머리말
2. 장시(場市)의 유래(由來)
3. 동도천장(東道川場)과 북도천장(北道川場)
4. 동두천 장날(東豆川 場日)
5. 송내시장과 생연2동시장
6.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7. 경북 안동시장의 성공 사례
8. 맺는말

집필자

이 명 수

동두천 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1. 머리말

옛날부터 장시(場市)는 행상인(行商人)들이 지방 농촌 큰 마을을 순회(巡廻)하면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해 왔다. 당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생필품 구입은 거의 5일장에 의존하고 있던 농촌에서는 보부상(褓負商)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장날에는 장이 선다고 말한다 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선다는 것은 장꾼과 장돌림이 분주하게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장날만은 풍성하다 어쩌면 물건 사고 팔면서 서로의 소식과 마음을 주고 받는 곳이 장터였다. 오랜만에 만난 사돈끼리 장국밥에 막걸리 한사발 너털웃음 속에 온정이 오고 갔다. 시집살이 매운맛에 장터에서 자매가 뜻밖에도 만나 친정 걱정애 눈시울을 적시는 애잔한 삶의 모습에 슬픔이 묻어난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목도리 하나로 겨울 찬바람을 견디는 아주머니 무엇이 아주머니로 하여금 매서운 겨울날에 장터로 내몰렸을까 그것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색깔의 비닐 장바구니 그 위에 주저 앉아 잠시 몸을 맡긴 채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 얼마큼 더 기다려야 버스가 올까 장날 얼마나 오랜시간 이 길을 다녔을까 오늘의 장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그런데 승객중 젊은이는 한명도 없다. 장터 어디에도 젊은 얼굴은 볼 수 없다 엄마 손을 잡고 따라 나온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다.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IT세상 클릭 한번이면 많은 상품들이 넘쳐나며 편리하게 해결 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무언가 쓸쓸히 비어 있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골 장터에 가보면 시끌벅적 흥정소리 하루가 힘들지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친 발걸음을 머물게 해주는 대포집 약주 한 사발에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저물어 가는 장날 파장을 알리는 듯 사람들 예전에는 할아버지 호루라기 소리와 뽕이여 하며 강냉이 튀는 평 소리에 귀를 막는 아이들에게 강냉이를 한 움큼 쥐어주는 인정애 또 하루의 장날이 끝나고 있다. 전통 5일장은 이제는 거의 사라져 지방에서도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좀처럼 옛 모습을 보전하고 있는 장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오랜 세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속에 구멍가게가 상점이 되고 슈퍼마켓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형 매장인 마트가 등장하면서 시장도 안돌아 가고 있다. 인터넷 가정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편리한 세상에 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이웃 마을에서 모여들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온갖 소문속에 울고 웃던 곳이 장터였다. 시끌벅적하고 몸과 몸이 부딪치고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장터 서민들의 정이 물씬 풍기는 장날의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2. 장시(場市)의 유래

장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5세기 말이었다. 16세기 이래 장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의 1천여 곳에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북부산간 지대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에서 장시가 섰다. 농민들 대부분이 하루내에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만큼 장시가 성행(盛行)했다 처음 초창기에는 한달에 두세번 열리는 장이 많았지만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5일 간격으로 열리는 5일장이 일반적이었다. 장시를 돌면서 장사를 하게 되자 행상(行商)인들은 종전처럼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구매자(購買者)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상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 졌다. 행상은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유통 상인이었다 특히 장시가 서지 않았던 조선 전기에 행상들은 지역 차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값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역 특산물을 파는 상인은 더욱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은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모험을 무릅써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상업 활동을 하였다. 전국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물건을 파는 행상들의 활동 양상(樣相)이 장시가 바뀌면서 농촌의 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처에 산재(散在)하여 행상들은 집집마다 방문 할 필요없이 장시만을 돌면서 장사할 수 있었다.

1) 행상인(行商人)

조선팔도를 돌아 다녀야 하는 행상들의 삶은 고달팠다 험준한 산을 넘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도적들에게 행상 꾸러미를 빼앗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 마을 저 마을 장 따라 다니다 보면 집 떠난지가 해를 넘기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는날은 언제일지 기약이 없었다. 병이라도 걸리면 누구하나 간호해 줄 사람도 없었고, 타관 객지 행상에 고향의 애경사((哀慶事)도 모른 채 가가호호 방문하여 물건 파는데만 여념이 없었다. 조선 전기의 행상은 나라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인 행장을 지녔고 또 조직을 갖추어 활동했다. 전국을 다녀야 하는 행상들은 험준한 도로와 도적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조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행상단은 조선 후기에도 있었다. 행상은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유통상인이었다. 특히 장시가 서지 않았던 조선 전기에 행상들은 지역적 차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값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역 특산물을 파는 상인은 더욱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은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모험을 무릅써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상업 활동을 하였다.

2) 보부상(褓負商)

보부상들 사이에는 리(里)를 보고 5리(里)를 뛴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억척스러웠다는 사실도 말하지만 죽도록 뛰어봤자 다리품도 안되는 돈벌이었다는 역설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만큼 그들은 몇푼 벌어 장사 밑천을 모을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정약용의 경제유표(經世遺表)의 기록을 보면 지방특산품을 싣고 가는 상인들로부터 진(津)과 관(關)마다 세금을 걷으니 천리를 가면 빈수레만 남겠다고 개탄하고 있듯이 보부상은 탐관오리의 표적이 되었다. 태어나면서 보부상은 아니었지만 일구어 먹을 땅이 없고 수중에 몇푼의 돈으로 그 길로 들어서면 평생 장사(場事)만 하다가 죽어야 했다. 어렵고 힘든 사람끼리 모여 들어 서로의 슬픔을 달래주었고 힘 센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뿔뿔 뭉쳤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은 보부상의 상인 조직체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계기가 결속의 의례 관습을 낳았다 보부상은 보부 상단(商團)이라는 독자적인 조직체 안에서 상권의 풍속을 계승해 왔다 그들의 객주 거간 생산자인 농민과 어민을 만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 활동을 해 온 것이다. 보부상은 상민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으나 교역 민속의 특성상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여 다룬다. 그만큼 보부상은 전통 사회의 상거래 관행인 교역 민속의 중추적 구실을 했던 것이다 행상으로 대표되는 보부상은 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지만 가정 방문을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보통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범위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들을 돌면서 각 지방의 물품 교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짐을 보따리에 싸서 들거나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상행위를 하였다. 붓집 장수인 방문 고리에 주로 세공품이나 화장품을 팔았고 등짐 장수인 부상은 생선, 목기, 소금, 토기(土器)와 같은 생활용품을 팔았다.

3) 상인의 의미와 가치

상인에 대한 개별적인 상행위를 하지만 소비자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일정한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 수렵 또는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띠어 상인의 존재가 사회적 역할로 부각되지 않았다. 상인은 생산물의 증대와 도시의 발달로 교역활동이 요구되자 점차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상인의 유형에는 객주 여각 향상 사전상(事前商)의 보부상 등이 있는데 그 유형마다 생활 방식이나 장사 관행이 다르고 풍속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상업사적 접근은 풍속 재구의 기술이 미흡하고 경제 활동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흔히 객주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준말이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드는 객상들에게 거처 할 곳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일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물건 판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윤을 챙겼

다. 객주의 업무는 위탁 판매인데 그 실무는 거간이 담당했다. 거간은 매매자 쌍방간에 개입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거간은 객주에게 장터의 상거래 정보를 알려주고 매매자의 신용을 조사해 주는 등 객주가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 여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육의전(六矣廛)앞에서 지나가는 장꾼을 끌어 물품을 사게 하는 여리꾼도 거간의 일종이다. 거간들 중에서 객주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내거간(內居間)이라 한다.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장사꾼은 외거간이라 한다. 내거간에는 객주와 함께 돈을 대어 동업을 하는 동사거간(同事居間)이 있다. 또 미곡 거래의 되쟁이와 승간꾼이 있고 부동산 집주름이 있으며 이외에도 환전거간 당화거간이 있다. 객주와 거간은 시장에서 보부상이나 장꾼 소비자에게 신용을 전제로 하여 서로간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매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객주는 거래된 물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만 거간은 매매자들을 붙여 주고 거래가 일단 성사되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각은 손님들의 숙소라는 의미로도 쓰였으나 본래 많은 돈을 가진 객주를 말한다. 여각은 강이나 바다 각포에서 활동하였으나 대개 큰 창고를 가지고 우마를 재울 수 있는 마당을 설치한 사람들이 많았다. 알짜돈과 떼돈은 이들이 차지하였다 하는 일이 객주와 유사하지만 어염곡물 수산물 등의 위탁판 판매 또는 매입을 주업으로 해서 살았다. 이들 여각은 상인들 물건을 보관해 주고 수수료도 곡물대금 3%중개도 2%를 받았다. 여각의 이용은 숙박과 물건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물건주보다 대부분 그들의 대리인이나 하인들이 하였다.

4) 시장과 주막(酒幕) 집 점말(店村)

그 옛날부터 주막집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 마을 입구나 삼거리 입구에서 오가는 나그네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이름도 다양하게 여점(旅店), 야점(夜店), 탄막(炭幕:탄광촌 주막) 그리고 보부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막을 술막 또는 숯막 등으로 불렀다 먼 길을 떠나는 주민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곳도 주막이었다. 그리고 주막은 주로 술을 팔았으며 하룻밤 쉬었다 가는 곳이었다. 주막에는 대개 봉긋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공간은 주막집 옆방임 여러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큰 칸방이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옆으로 깔잠을 청하며 혼숙을 하였다. 장이 열리는 날이면 시장 상인들의 증가로 호황을 이루었고 음식을 제공하는 일 외에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이곳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간 역할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와서 서울 근교의 시장 가운데 양주의 누원점(樓院店)이 위치한 곳이며 중간 역할로 인하여 상품 유통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었다. 특히 서울(한양), 개성, 철원을 연결해 주는 요충지였다. 누원은 본래 서울 외곽의 한적한 원촌(院村)은 조선 시대에 역과 역 사이에 있던 국영여관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동두천 지역에 점말은 예전에 동

두천 창말고개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상품 화폐가 유통되면서 경제가 발달하면서 최대의 소비지인 서울과 각 지방의 물자가 공급되면서 그 중간 지점인 점말에서 상인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5) 비(雨)내리는 장날

기우제(祈雨祭)를 지내지 않았는데도 동두천 장날만 되면 비가 내린다. 서쪽 저 멀리 봉암리 하늘가에 먹구름이 짙게 깔리면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마의 소낙비가 내린다. 지나가는 소낙비는 소(牛)등 반쪽은 떨어지고 반쪽은 그냥 지나간다는 우스개 말도 있다. 논두렁 사이에 두고 온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소 등에 떨어진다는 말은 못 들었다. 아무튼 산봉우리 넘어 뿌옇게 밀려 들어오는 소나기는 신천교 넘어 안개비 내리듯 하더니 강변로 길을 사이에 두고 5일장이 열리는 공설 시장에 어느새 장대같은 빗줄기가 쏟아진다. 갑자기 일기 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지자 기상청만 욱하며 이리저리 뛰어가며 투덜댄다. 동두천 장날이 비 오는날 기상 예보인 것이다. 요즘도 가끔 장날에 맞춰 비가 오긴 온다 장보러 나왔던 사람들은 어느새 흩어져 보이지 않는다 좌판을 깔아 놓았던 상인들은 재빨리 준비해온 비니루를 씌워 놓는다. 그리고 투덜댄다 제기랄 장날만 되면 비가 오지 먼 하늘만 쳐다본다 다행히 잠시 왔다 지나가는 소낙비는 그래도 속은 상하지만 이미 소낙비 따라 가버린 사람들은 다시 올 줄 모르고 오전 장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그래도 오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펴 놓았던 비닐을 다시 걷어 들인다. 천둥 번개 소리와 동반한 비가 있는가 하면 그칠 것 같이 내리다 말다 감질나게 온종일 오는 비도 있다. 그래도 장꾼들은 장날만 되면 비가 온다고 한다. 아마 장날 비에 걱정이 앞서는가 보다 장날만은 화창한 날씨여야 하지만 하늘의 뜻은 거역 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보면 곡식이 타들어가는 심한 가뭄에는 시장을 옮기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 옛날에는 백성들이 많이 모여 드는 장날에 소나 돼지 머리 놓고 약주 뿌려가며 하늘에 제를 올렸다. 광해군 일기에 보면 장시 여러곳에 기우제를 이미 다섯차례 지냈는데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만 더욱 심하다. 비록 약간의 비를 얻기는 했으나 쟁기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 농사가 이미 결단 나 몹시 걱정스럽다. 그러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면 시장을 옮기는 일 역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시장을 옮길 경우 비 내릴 때까지는 옮긴 장터에서 계속 장을 열었다 비가 오면 농사에 좋고 비가 안오면 장날에 좋을텐데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자주 있어 장날에도 비가 내려야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어야 장시도 활기차게 돌아가고 농산물도 풍부하여 많은 농민들이 장보러 온다고 했다.

6) 화폐(貨幣)의 가치

조서 후기 상업을 발달시킨 중요한 원인은 17세기 후반부터 금속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금속 화폐의 유통정책으로 추진해 왔지만 16세기경까지 쌀과 배 그리고 소금이 화폐를 대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들어서 명목으로 화폐인 엽전(동전)을 법화(法貨)로 유통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효종(孝宗)2년에는 김옥(金堉)의 발의에 의해 상평통보가 유통되었고, 숙종(肅宗)4년에는 상평통보가 국폐(國幣)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동전을 매개로 한 상품의 매매와 나라 수입 지출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야 했다. 동전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화폐의 공급 부족과 동전 주조의 원료(놋쇠)부족으로 인해 화폐 유통량 부족으로 급속한 유통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다. 숙종기록에 의하면 동전 유통 이후 나타난 사회적 폐단의 원인을 다음 3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가) 한번 돈을 발행한 날로부터 그 무역이 편리함을 가지고 이를 가볍게 써서 재물을 절약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 보면 옛날 동전보다 화폐가 편리하지만 수백 수천 화폐를 갖고 다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장수를 줄인 것이 수포였고 어디서나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만큼 낭비가 심하고 피해도 있을 것이다. (나) 상업을 숭상하는 풍속이 날로 성장해 농민들이 농사일보다 몇배 이익이 남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므로 농업 생산이 많은 피해를 가져 왔다. (다) 고리대금업자가 성행하여 가을에 곡식이 풍부할 때 싸게 사들여 보릿고개때 쌀을 장려하여 농민들에게 이자까지 붙여서 비싼 값에 높은 이자로 가을 추수때 받아들이고, 다음해 봄일 때 다시 장려 쌀을 꾸어 주는 악순환 때문에 농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폐단이 되풀이 되었다. 결국은 장려쌀 때문에 얼마 안되는 농토마저 고리대금업자에게 넘어가는 신세가 되고 농민들의 애환도 있었다.

7) 18세기 이후 곡물의 상품화

농촌에서 서민들에게 쌀은 귀한 금(金)이었다. 쌀하면 현찰과 같아서 유통이 편리하였다. 그 다음 곡물은 참깨, 들깨, 콩, 수수, 밀, 보리였다 입맛을 돋우는 것이 참기름이었고 콩은 된장, 고추장, 간장 부식물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고, 밀은 빵이나 수제비 칼국수 등으로 다양한 식생활을 하였다. 보리는 묵은 곡물이거나 소비될 때 생산지역에 따라 남쪽지방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여 다른 곡물보다 풍부했다. 이양법(移讓法)의 보급과 더불어 18세기 이후에 농민들이 상품화를 위해 재배하는 미곡량은 점차 증가하였다. 쌀은 다른 곡물에 비해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리(修理)관계 공사를 하여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이 성행하였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 바

람이 불면서 필자의 고향 연천 그 넓은 황토의 밭 벌판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기개설(電氣開設)과 함께 밭을 논으로 형질 변경하여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연천벌을 기름진 옥토(沃土)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연천군민의 쌀 생산을 창조한 것이며 당시 오치성 국회의원의 공적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간파(看破)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연천의 들녘을 황금들녘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쌀이 현찰화 하는 시대는 가 버리고 젊은층의 식생활은 밥보다 빵으로 우리 입맛이 서양식으로 넘어 가면서 쌀이 남아돌기 시작하여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 현찰이던 쌀이 잡곡에 밀려나고 빵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누가 알았으랴 잡곡이 쌀보다 비싼 상품이 될 줄이야 잡곡이 옛날에는 못사는 사람들의 주식(主食)이었는데 요즘은 있는사람들의 건강 다이어트(Diet)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8) 일제 강점기의 동두천 산업

일제강점기에 동두천 지역에 나타나는 산업은 기본적인 농업외에 일부 일본인들에 의하여 점유된 금융 및 판매 운송업이 있었다. 자료에 나타나는 일제 시기의 동두천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명 : 동두천 운송합자회사(東豆川 運送 合資)

(가)자본금 : 3000원 (나)목적 : 운송 및 운송 취급업 (다)사장 : 대표 김병호(金炳浩) (라)업종 : 운수창고 (마)설립일 : 1927년 9월 10일 (바)본점 주소 : 경기도 이담면 동두천리

2) 회사명 : 동두천 금융조합(東豆川 金融組合)

(가)자본금 : 2120원 (나)적립금 : 18000원 (다)사장 : 대표 한정석(韓鼎錫) (라)중역 : 우라가와(浦川數之助) (마)업종:금융조합 (사)설립일:1919년 9월 13일 (아)본점 주소: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동두천 금융조합은 사업이 번창하여 덕정리에 지점을 내고 있는데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 지점의 대부가 저금액을 초월하여 1인당 평균 저금액이 11원인데 대부액은 1인당 평균 80원에 이른다는 당시 사회상의 일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3) 회사명 : 길문상점(吉門商店)합자

(가)업종 : 상업 (나)설립일 : 1930년 9월 17일 (다)대표자 : 나이토(內籙正二) (라)목적 : 신탄(薪炭) 제조 도소매 (마)자본금 : 8000원 (바)본점 주소 : 경기도 이담면 동두천리

4) 회사명 : 동광주조(東光酒造)합자

(가)업종 : 양조주(釀造酒)업 (나)설립일 : 1941년 1월 9일 (다)대표자 : 오오쿠라(大倉德藏) (라)목적 : 조선주의 양조 판매 (마)자본금 : 20000원 (사)본점 주소 : 경기도 양주군 이담

면 동두천리 아올리 1930년 대 후반에 이르러 갑자기 동두천 각마을 여러 지역에 광업권이 설정되고 광산 사업에 착수하는데 이는 당시에 일어났던 금광 개발 붐과 관련이 있다. 당시 기록에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 광산개발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채굴 대상 광물을 보면 금, 은, 아연, 구리, 유황석이며 광산의 위치는 이담면 각 마을 안흥리 86번지 마차산에 가동금광사무소를 설치 채굴에 착수하였으며 송내리 칠봉광산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그 외 상봉암동 금광 채굴현장이 지금도 현존(現存)해 있으며 송내리에도 유황 광산이 남아 있다. 탑동 동점마을에 구리를 채굴했던 광산은 구전으로 내려올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9) 동두천 장날 3.1만세운동

3.1만세운동 상황을 보면 동두천장의 규모로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동두천 지역의 기미년 만세 시위 사건이다. 이담면 사무소 앞 광장에서 빈양마을(미2사단 골프장)로 장을 옮긴 그해 1919년 기미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서울 탑골공원에 일어나고 부터 동두천 장날인 3월 25일 송내리 지행리 좌기골 빈양말 하봉암 상봉암 안흥리 창말 싸리말 기촌 등 10여개 부락 주민 1,000여명은 가슴속에 태극기를 품은 채 동두천 장 마당에 모여 들었다. 일제에 항거(抗拒) 만세운동 사건을 보면 다른 곳과는 달리 학생과 청년들이 주동이 되었고 서울 배제학당에 다니던 정원이(鄭元伊) 학생은 탑골공원에서 3.1만세운동을 하다 고향 동두천에서 청년층의 지도급인 한원택이 거사준비를 완료하고 각 부락마다 책임자를 정하여 거사일을 3월 25일 정오 12시 장마당에서 거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학생과 청년들이 주동한 관계로 선두에서 군중을 지휘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때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홍덕문 선생이 앞으로 나서며 내가 선봉에서 지휘하겠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 하며 앞으로 돌진하면서 만세 삼창을 하니 군중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복창하며 뒤를 따르는데 그 수가 어느새 1,000여명 넘어 갔고 모두 만세를 부르며 이담면 사무소로 물러가면 장 신공보(申公甫)를 끌어내어 군중앞에 세우고 만세를 부를 것을 다구쳤고, 면장은 군중들에 의해 만세 삼창을 선창하고 선두에서 홍덕문 선생과 같이 군중을 이끌고 만세를 외치며 윗장거리 현미2사단정문 앞까지 올라왔다. 군중은 더욱 늘어났고 다시 만세를 부르며 동두천역까지 내려왔는데 그때가 오후4시경이었다. 한편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제 헌병 분견소에서는 자체로 진압하지 못하고 주내(州內)에 있던 본대에 증원을 요청하였고 지원대로 기마 헌병들이 경원선 기차를 타고 내려와 동두천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만세를 부르며 군중들이 내려오자 대기하고 있던 일본 헌병들이 칼을 빼 휘두르며 앞으로 나오자 군중속에 있던 박경필과 고복돌이 다가

오는 일본 헌병의 말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쳐 쓰러뜨리니 일본 헌병들은 더욱 발악하며 총개머리로 선두에서 있는 홍덕문, 정원이, 한원택, 박창배 등을 후려치고 발길로 차며 무력으로 짓밟으며 구타하니 갓끈은 끊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하였다. 헌병들에 의해 지도자 지휘자들은 체포되고 주내 본대로 끌려간 정원이 학생과 한원택, 박창배, 박경필 등은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났으며 홍덕문 선생은 당시 양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갇은 고문을 받고 몇십일 후에 풀려난 후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 동도천장(東道川場)과 북도천장(北道川場)

동두천 장시에 관하여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에 동도천장(東道川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이다. 동도천은 북도천장(北道川場)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북도천장이라는 지명은 현재 동두천을 관류(貫流)하는 신천(莘川)의 옛 이름이다. 왜냐하면 신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북류(北流)하는 내천으로 조선시대부터 북도천으로 기록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동천장이 지금의 동두천역 앞에 이담면 사무소 앞 광장에 있었다. 그리고 북도천장은 현재의 봉양리(사귀)에서 각각 열렸다고 되어 있어 이 추론이 신빙성을 더해준다. 당시에 동도천장은 5일마다 열리는 5일 10일 15일로 이어져 열렸는데 이장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솔모루장, 다락원장, 가래비장과 함께 규모가 큰 장날로 손꼽혔다.

(1) 북쪽으로 흐르는 신천(莘川)

원류(原流)인 신산리(莘山里)에서 흘러내리는 냇강인 신천(莘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탄강이 보이는 북쪽으로 흐른다 예전에는 북으로 흐르는 강이라 하여 북도천이었다. 그래서 신산리에서 흘러오는 강이라는 뜻으로 비록 강의 연원은 알 수 있지만 동두천 시내를 가로질러 관통하는 하천의 동두천지역 하천 지명으로는 맞지가 않다. 옛 자료에 등장하는 신천의 본래 이름은 모래에 즉 사천(沙川)이다. 사천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사천현(沙川縣)이 되었다.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신천(莘川)은 사천(沙川)으로 표시되었다. 후대에 이르러 사천이 신천이 된 것이다. 또 다른 이름은 북쪽으로 흐른다 하여 한때는 북도천은 양주땅이었으며 신산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신천으로 불려지고 있다.

(2) 장시의 발달

농업이 대중을 이루던 사회에 새로운 호구책을 열어주었다. 장시는 물건의 산지와 소비자를 잇는 새로운 길이 뚫리도록 촉진하면서 농수산물 수공업이나 유통업 같은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였다. 장시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날짜를 정하여 열리는 정기시(定期市)로 이은 조선후기에 들어와 기존의 관영 수송업이 사양화(斜陽化)하고 난전(亂遷)규모가 시전(市塵)을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아울러 화폐의 유통이 일반화되는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동두천 지역의 예전의 마을은 자연 지명에 의해 불리었으며 가장 오래된 송내리, 지행리, 탑동, 동점마을, 쇠목, 장림, 생골, 좌기골 내촌, 걸산동, 보안리, 빈양말, 창말, 상봉암리, 하봉암리, 동막리, 안흥리, 황말음, 샛골 등 크고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5일마다 장(場)서는 날이 돌아오면 농산물을 갖고 나와 물물교환 및 팔아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였다. 동두천 지역에 형성된 동도천장이었다. 예전에 동두천장은 지금의 미군2사단 골프장으로 이용하며 미군행사 때 만 사용하는 연병장이 되고 말았다. 왕방산 왕방리에서 흘러내려오는 동두천천(東豆川)은 장림계곡, 세목계곡, 걸산계곡의 실개천들이 모여 동두천천을 이루었다. 장시가 서는 빈양말(濱陽末)마을인 그곳에서 장(場)이 섰다 당시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였다.

(3) 북도천장

동두천장외에 또 하나의 동두천 지역 장시는 북도천장(北道川場)이었다. 이장은 은현면 봉양리(사귀)지역의 명칭으로 주목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북도천(北道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쪽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로 현재 동두천의 신천(薪川)을 말한다. 예전에 동두천장은 5일장이었고 인근 지역인 덕정리와 전곡, 어유지리, 청산 등지에서 보부상과 장꾼들이 모여 들었다. 대동지지 임원경제지 양주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 동두천장의 본래의 명칭은 동도천장(東道川場)이었으며 동쪽에 머리를 두고 흘러내려온다 하여 동녘동(東)자에 머리두(頭)자였으나 어쩔 일인지 일제 강점기 때 머리두(頭자)를 약자로 쓰기 위해 콩두 또는 제기두(豆)자로 써 내려와 지금은 동두천(東豆川)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다.

(4) 양주읍지에 나타난 인근 지역의 장시

통상적으로 장(場)은 일일생활권내 20~30리 거리에서 장이 선다.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서 사람과 말(馬)이 지치지 않고 걷거나 달릴 수 있는 거리다 대개의 역(驛)은 1식(式)마다 설치

되었으나 일부 산악지대 즉 결산리 고개 너머 열두개울인 삼정리는 거리가 너무 길어 장꾼들이 관아에 불편을 호소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식(式)은 일일생활권의 단위라는데 의미가 있다. 16세기 이후 생산력 발전은 전국 단위로 장시의 발전을 가져 온다 식은 5일 주기로 하는 장시의 개시 지점관 거리에 매우 근사하다. 조선 후기의 장시는 대개 면 단위로 썼는데 면 사이의 거리는 대개 30리 남짓이다. 이 거리는 걸어서 한나절 이내 가능한 거리다 예를 들면 사방 팔방 옛 광적면의 가업장 이담면의 동도천(동두천)장 옛 어등산면의 회천장 옛 청송면의 대탄장 옛 상도면의 구곡장 독음면의 미호장 와부면의 덕소장 옛 진별면의 광릉내장이며 장날은 5일마다 열리는 1일~6일 3일~8일 4일~9일 5일~10일이다. 후일 동두천장은 동두천 지역의 중심이 되어 상권으로 성장이 되었으며 양주 포천 연천을 이어지는 곳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5) 장날가는 길고 긴 턱거리 고개

고개 넘기를 한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고된 삶을 비유(比喻)한 말이다. 어찌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운명의 길인 줄도 모른다. 옛날 조상들은 불평불만없이 주어진대로 그냥 앞만 보고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힘들면 힘든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하늘에 한점 부끄럼없이 살았다. 턱거리 고갯길은 굽이굽이 2km의 긴 고갯길이다 비포장 도로에 몇 번을 쉬어야 넘는 고갯길이다. 지금은 산의 언덕을 많이 깎아 내려 4차선의 쪽 뺨은 아스팔트 길을 많은 차량들이 서로 경주나 하듯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다. 예전에 길은 꼬불꼬불 열두길을 돌아가며 머리에 이고 등짐지고 그렇게 힘든 고개였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세목을 거쳐 결산동 고갯길이 있었고 장림으로 올라가는 조산마을과 건너편 왕방천을 끼고 흐르는 계곡천 따라 탑동과 동점마을에 장보러 동두천장까지 거리는 20~30리의 한나절 거리였다.

(6) 향토길

향토(鄉土)란 우리 옛 조상들이 닦아 놓은 생활의 터전을 말한다. 향토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 것이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한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를 마음속에 감정은 그만큼 깊고 가득찬 것이다. 장이 설 때마다 어머니는 무거운 보파리를 이고 피곤한 다리도 쉬지 못한 채 오늘도 장에 나간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지만 또한 스치는 발걸음에 이웃 마을 옛 동무를 만나서 장터국수 한그릇에 정담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다. 이와 같이 향토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었다. 자연속에 향토길 도시에선 짜여진 길만 있다. 자연이 없는 도시 생활 마음이 단혀짐으로서 마음의 여유가 없

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구해보자. 도시 생활에서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간다 향토속에 철학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자연에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

(7) 암울(暗鬱)했던 시절의 장날

6.25전쟁은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모두가 폐허가 되어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폐허속에 가슴만 쥐어뜯고 있지만 아무소용 없었다.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 부모를 잃고 장터에 모여들어 구걸(求乞)을 하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꿀꿀이 죽으로 연명(延命)해 가며 쇠잔해진 허리는 허기에 지쳐 땅은 꺼지고 하늘은 어지러운데 모진 목숨 살아보려 또 하루가 저문다 손님이 뜸한 시간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 세상 살이 모진 풍파를 함께 헤쳐 왔을 노부부는 지난 얘기를 안주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일까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얇은 비닐 장바구니 방석삼아 몸을 맡긴 채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 얼마나 오랜 시간의 이 길을 다녔을까 얼마나 많은 동갑내기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냈을까 얼굴에 주름살만 세월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다. 궁금한 소식들 묵었던 매듭 풀리지 않는 날이면 장날에 나와 시집간 이모 소식 장꾼들 입으로 들을 수 있고 편찮으셨다는 건너 마을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등 소식을 알려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약장수 구경에 계란 한줄 들고 나서야 했다 한달에 여섯 번 열리는 장날마다 놀러나오는 사람들 만나면 으레 막걸리며 소주를 마시며 싸움하는 사람들 어쩌면 방탕한 생활에 장날마다 쫓아다니며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8) 거지(乞人)들의 5일장

거지 옷 해 입힌 썸 치라는 말이 있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남에게 빌어먹고 업신여기고 멸시받으며 어렵게 사는 사람 5일장 귀 동냥에 잔치집 초상집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 찾아다니는 거지들은 보리 타작 벼 타작에 곡식 얻어가는 거지 미군부대에서는 흘러나온 빈깡통 철사줄로 손잡이 만들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밥 얻어 어린 동생 배 채워주던 목메인 보릿고개도 있었다. 다리 밑에 움막짓고 산 밑에 토담지어 밥 데워 먹곤 하였다 실성한 어른거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시장만 배회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신이 있는 거지들은 시장 바닥을 돌며 한푼 두푼 모아 시장 모퉁이의 장국밥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추석과 설날에 찾아오는 거지들은 일자나 한자나 들고 보시로 시작하는 구성진 노래를 대문앞에 부르며 혼자 집보고 잇는 처녀는 누가 볼세라 쌀 한바가지 행주치마에 숨겨 얼

른 거지에게 건넨다. 벼들피리 보릿고개 짓무른 손가락과 일그러진 얼굴로 거지 행세(行勢) 했던 문둥병 환자들은 텅구는 낙엽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 다녔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었다. 없으면 없는데로 주어진 환경에 팔자려니 체념하고 적응해가며 살아야 했다. 휩쓸고 지나간 6.25전쟁은 그때를 앞으로서 어려웠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힘들고 외로워 오는 걸음 가는걸음 얼마나 많은 발걸음이 장터를 스쳐갔을까 왁자지껄했던 옛 풍경을 뒤로한 채 이제는 드문드문 오가는 발걸이 반가울 뿐이다.

○ 동두천 장날

동두천 5일 장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바뀌어도 장시는 장소만 바뀔 뿐 동두천 5일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 장날의 행정 연혁을 보면 현재 미2사단 영내로 가로지르고 있는 동두천 주변에 여러마을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동두천역 동쪽 광장에는 이담면(伊淡面)사무소가 있었으며 건너편 창말고개 마루터에는 동두천 초등학교(초등학교)가 있는 이담면(동두천)의 중심지였다.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이담면 편제도 이때 이루어졌다. 수백년이 흐르는 동안 조직 편제도 여러번 바뀌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1177호로 양주군 이담면이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승격되면서 이담이란 지명은 안타깝게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동두천은 예전부터 타지방(他地方)과 다름없이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을 장날로 정해 주민들의 생산된 농산물 팔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생활화 되었다. 주민들은 의례 장날까지 참고 기다리다 매매(買賣)가 이루어졌다. 읍내 일반 상점들은 장날을 기다리고 장돌림 상인들은 상품을 등에 지고 어김없이 장날에 찾아 들었다. 주민들은 곡식이나 손수 만들 수 있는 명석 돗자리 싸리빚자루 삼태기 등 돈이 될 만한 것들 가지고 나와 석유 등잔 고무신에서 빨래비누 등 의류 생활용품을 구하고자 모여드는 것이 5일장이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다양한 물건을 생산할수록 교환과 유통의 필요성은 커지고 시장이 발달로 인하여 예전부터 내려오는 동두천 자유시장과 바다상가가 없어지고 제일상가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양키시장도 예전만큼 상업이 활발하게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에 생겨난 공설시장과 중앙시장도 대형 마트가 상권을 이루면서 시장 상인들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다.

(1) 공설시장과 같이 하는 5일장

월사이 없이 바빠 움직이는 시장 상인들 동두천 단위 농협이 이른 새벽부터 경운기와 용달차

의 엔진 소리에 배추, 무 대파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여름이면 상추, 풋고추, 참외, 수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점심때 썬다면 다 팔려 나가고 장보러 온 주민들의 발걸음도 뚝 그친다.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이 돌아오면 편리한 교통으로 이웃 군면(郡面)에서 주로 농민들이 모여든다. 은현면 하패리, 선업리, 봉암리, 남면 신산리, 전곡읍, 어유지리 등 도착하는 버스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 5일장으로 찾아든다. 공설시장 장날이 돌아오면 4차선의 시장도로는 좁을 세라 좌판(坐板)에 상품(商品)들을 벌려 놓고 철따라 달라지는 농산물에 수산물까지 판매에 여념이 없다. 공설시장에서부터 전화국 사거리까지 I자형으로 긴 꼬리같이 연결되어 있다. 도로 옆 보도블럭에는 런닝셔츠, 반바지, 츄리닝, 반팔셔츠며 여름용 의류가 있으며 겨울에는 겨울 의류가 줄지어 있다. 지금은 성공하여 포목 이불 소매상을 하고 있는 송백상회 상인은 전형적인 보부상이었다. 자전거며 리어커에다 포목 이불 싣고 다니며 하루 100여리의 농촌마다 돌아다니며 때로는 곡물과 교환해가며 어렵고 힘든 장사를 하였다. 예전에 고생한 생각에 장돌뱅이 장수들에게 가게앞에 장터를 내어 주곤 한다. 농협을 끼고 돌아 삼성제재소 앞을 지나면서 신시가지 사거리 양쪽 가축시장에는 개오리 고양이, 닭 등 예전에 비해 수가 많이 줄었다. 가을, 겨울이 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기구 등 많은 용품을 팔다가 봄, 여름이 오면 많은 종류의 화초와 과일 묘목을 파는 상인은 일년에 두 가지 업종의 장사를 한다. 사계절 따라 네 가지 업종을 하는 상인은 무대가 주로 성남 모란시장이다 5일마다 장날에 찾아와 부인정육점 앞에서 봄이면 난(蘭)과 꽃나무 묘목 상자를 하고 늦은 봄이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때 이른 딸기를 팔고 있으며 여름이면 사과, 천도복숭아, 포도장사를 한다 가을에는 밀감과 수입 오렌지 겨울에는 생선장수와 등굴레와 천식에 특효인 백도라지의 분말을 팔고 있다. 이들은 장돌뱅이 경력20~30년 이상된 상인들로 봉고 차량을 주로 이용한다.

(2) 공설시장의 장돌뱅이

예전의 보부상들은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라 해가 떠서 저문 저녁까지 걸어서 다녀야 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창말고개 덕거리고개, 장림고개, 마고개 등 사방에서 등짐을 지고 모여 들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 차량을 이용하여 쉽게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심성이 착한 공설시장 상인들은 자신의 상가 앞에 외지(外地)에서 온 장돌뱅이들에게 자리를 내 주어 이웃인 양 마주보며 하루의 장날을 보내고 있다. 기본 상가 앞에 널판을 놓고 장사를 하다 보면 4차선은 어느새 편도1차선이 되어 도로가운데까지 장이 들어서게 된다 언제나 장돌뱅이 상인들에게 가게 앞자리를 내어주는 모습들이 어우러진 인정속에 흐뭇하게 보

인다. 장류와 반찬은 주로 5일장에서 구입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생선류와 밑반찬에 젊은 주부들이 찾아들어 매상을 올리고 있다 한낮이 긴 여름철에는 조금 늦은 아침부터 장을 펴지만 오전10시가 넘어야 주민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여 오후3시까지 절정에 이른다 장보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한두 보파리씩 비닐봉지에 담아 바쁜 걸음으로 되돌아 간다. 이제는 아침부터 떠들던 약장수도 가윗소리의 옛장수도 짐을 챙기기에 바쁘다 북적되고 시끄럽던 놀이마당도 언제부터인가 장터를 떠나고 말았다. 이제는 농촌의 농사 이야기도 좌판에 달아놓고 콩이며 깨, 수수 매주 팔며 수다 떨던 아주머니들도 보이지 않는다. 땀이요 땀이요 하며 파장에 이르는 소리치며 지는 해를 원망이나 하듯 과일장사 아저씨 몸빼장사 아줌마도 정들고 기다려지는 장돌뱅이 상인과 동동구루무 장수들 이제는 머언 전설속에 이야기인 듯 기억속에 남아 있다. 장보고 머리에 이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모습에 오솔길은 산넘어 멀기만 하다.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저녁 연기 자넉끼니 걱정해 발을 재촉해 보지만 힘겨운 산고개가 숨이 차오른다. 옹기종기 모여사는 초가지붕 늦은 저녁 연기속에 밤하늘 은하수는 등불을 켜고 사람의 세월은 애잔한 강물이 되어 또 하루가 어둑속으로 흘러들고 있다. 흰 고무신 치마저고리의 힘들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영영 보이지 않는다.

(3) 길고 긴 턱거리 시장 길

광암동 턱거리 고갯길은 은현면 봉암리 가는 새말고갯길 만큼이나 길다. 장날이 서면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 아저씨들 등짐지고 머리에 이고 긴 고갯길을 넘으려면 몇 번을 쉬어야 넘었다. 꼬부랑 고개를 앞에 둔 새말 아낙네들은 새벽 4~5시만 되면 밤새 빛은 두부를 머리에 이고 아침 찬거리 사러 나온 주부들에게 팔기 위해 일년 열두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넘어야 했다. 꼬불꼬불 열두 꼬불을 돌아 넘던 고개는 턱거리 주민들이 주로 땀감인 장작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날에 나와 팔았다. 장날만 되면 이웃과 약속이나 한 듯 긴 행렬로 이어져 넘은 고개였다. 어찌면 고개 넘기를 한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고달픈 삶의 고개였다. 삶의 무게는 그만큼 높은 고갯길이 었다.

(4) 우리의 삶속의 장날

시장은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들기 때문이다. 장날만큼 서민들에 있어 물건을 팔고 사는 생산 교환은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어찌면 시장문화 생활이었다 헌옷 가지에 힘들어 일을 하다가도

장날이 돌아오면 읍내장에 가기 위해 평소 아껴 두었던 옷을 꺼내 입고 거울 한번 보고 그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머리에 이고 청장년들은 등짐을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서는 주민들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 알곡식 팔아 일상생활에 요긴하게 쓰일 빨래비누 호롱불 석유 호미며 낫이며 사들고 나서면 집에서 고깃마루 쳐다보며 어머니 모습 보일 때만 기다리는 자식들을 위해 뽕튀기며 누깥사탕 먹일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한다. 필자의 어릴적 생활이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미국인 선교사 WE그리피스는 조선이 저물어가는 일제 강점기 폐쇄된 나라의 시골 장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사람들의 최대 즐거움은 장보러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조선에는 상점이 거의 없고 5일마다 돌아오는 장시 그곳에서 자기가 지은 곡물이나 손수 만든 물건을 바꾸고 여러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장터에서는 물건을 팔고사는 행상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 이외 기분풀이로 술을 마시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허다했다. 아이들 고무신 사러 왔다 한잔 두잔 술 마시고 빈털털이가 되어 돌아오는 농부의 고무신은 어디로 가고 흥얼대며 서산에 지는 해를 보며 집으로 가는 그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빈털털이가 되었는데 즐거울리 없다. 나라 잃은 설움에 각박한 세상살이 소유의 애착을 버릴 수 밖에 없는 후조(候鳥)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애달픈 인생살이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인데 그렇게 살다 갔다.

(5) 전설속에 황하(黃河)장시

소요산을 마주 바라보는 서쪽의 마차산 아래 상봉암 옷봉마을의 큰 바위가 마을을 굽어보고 마루턱에 자리하고 있음은 여기서 마을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땅 전체를 지키는 의지였다. 세종(世宗)때 이름을 날렸던 조선시대 초 명상(名相) 황희 정승(黃喜 政丞)은 고려 말 공민왕(1363)14세때 음관(蔭官)으로 안복궁녹사(安福宮錄事)가 되었고 21세에 사마시 23세에 진사시 27세 문과에 장원급제 이듬해 성균관학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종에 극진한 예우를 받고 그 뒤에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역임을 하는 등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1413년(태종13년)세자제의 폐립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내 놓아 태종의 노여움으로 좌천되었다가 관직을 박탈 당하고 축출되었는데 그때 황희 정승은 왕자난으로 인하여 태조 이성계의 별궁을 소요산 자락에 짓고 은거할 때 당시 재상으로 있던 황희는 이성계의 입궁요청에 한몫을 하기도 했다. 이때 황희는 상봉암 마을에 여장을 풀고 심신을 달래며 그동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농민들과 어울리며 담소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

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황회를 기념하기 위해 넓은 마당을 만들어 민속놀이를 하였다 청렴(淸廉)했던 황회는 사람의 세상에는 반드시 옳고 바름이 그르고 틀림을 누르는 것만이 존재하지 않고 때로는 그르고 틀림이 옳고 그름을 능욕(凌辱)하고 흰소리치는 일이 있음과 비교해 볼 때 흙에서는 그런 엉터리와 거짓이 통하지 않는 다고 했다. 상봉암 주민들과 어울리며 담소를 나누며 보낸 곳이다. 그 후 황회가 조정의 명령을 받고 전라북도 남원의 유배지로 떠나게 되니 그의 나이 78세의 고령이었다. 그 후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 황회터라 부르며 그 넓은 마당에 자연스레 장시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큰시장은 이니었고 주변 초성리 열두개울 삼정리 결산동 서산 마차산 너머 어유지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장이었다. 황하 또는 황아터라 전해오는 큰마당은 동두천의 최초의 장터라 부르고 있다.

(6) 빈양(濱楊)말 장터와 미군 골프장

소요산을 등지고 햇별이 내려찍는 남쪽 빈양마을에는 앞들 냇가따라 윗마을 결산 왕방 세목 장림마을에서 계곡따라 내려오는 맑은 물에 논밭을 가꾸며 풍요롭게 살던 농촌이었다. 물이 풍부하다 하여 물가빈(濱)자에 양지 바른곳이라 하여 별양(楊)자를 붙여 빈양마을로 불렸으며 우(牛)시장도 같이 서는 큰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웃마을과 오순도순 평화롭게 모여 살던 마을은 6.25의 동란으로 이들의 터전은 미군부대 주둔으로 현재 미2사단 골프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때 이곳은 3월 25일 일제에 항거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동두천의 5일장을 중심으로 여기 저기 모여있는 새말, 창말, 안흥리, 상봉암, 하봉암, 능말 내촌, 탑동, 동점 싸릿말 덕수네비 좌기골 송정, 결산, 장림, 생골, 연못골, 송내리, 지행리, 등 3천여명의 이담면(동두천)인구가 5일장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새말 선곡리 송내리 에서는 콩 농사지어 밤잠 잊어가며 땀물에 콩알아 두부 만들어 머리에 이고 10리길 윗머리 빠지고 허리 굽어 늙으신 어머니 그 모습에 새벽 찬 이슬 맞으며 장에 내다 팔아 자식들 학교 보내는데 보태곤 했었다. 이제 없어진 빈양말 그 자리엔 푸르런 잔디밭에 여유있고 배부른 사람들의 골프장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산과 들녘가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텅빈 빈양말을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6.25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이기에 더욱 가슴 아픈 것이다 동두천의 아늑하고 넓었던 빈양말 선조들이 살아왔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언젠가는 빈양말의 그 땅이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언제나 그랬듯이 빈양말을 감싸주고 있는 소요산 옛 정취를 그리워하듯 한숨쉬인 산들바람만이 나뭇잎에 걸려 여름만 깊어 가고 있다.

(7) 화전민(火田民)의 장날

화전민하면 동두천의 마차산 소요산 왕방산 중턱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어 살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조상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하며 그 험한 산속까지 들어와 살아야 했던 그 사연들 무거운 명예와 아픔과 인내로 모진 세월을 견디어야 했던 화전민들 소중한 불씨에 마음을 달래야 했다. 하늘에서 가까운 곳 하늘 아래 첫 동네 애당초 길이 있었던 곳도 아니고 있었던 길도 없어진 곳 빈손으로 산간벽지 들어와 화전밭을 일구었다. 통나무 베어 흙을 빔어 토담집을 지어놓고 매년 조금씩 고쳐가며 살고 있었다. 여름날 장대같은 소낙비에 허물어지면 흙땀질을 해가며 살았던 안식처였다. 낮이면 잡목 잘라 수풀과 함께 불을 질러 재를 만들고 거름이 되어 씨뿌려 끝날 무렵이면 어느새 깊은 산중에 해는 서산에 벌써지고 산짐승 울음소리에 어둠이 깊어간다. 외(外) 소요산 계곡 덕수골은 걸산마을 산안으로 넘어가는 험준한 좁은 고갯길이 있다. 청산 산안의 삼정리 주민들은 이 길을 넘어 빈양말 장터까지 왔던 것이다. 마차산 화전민은 마차산 아래 윗 안흥리와 독터골 자락에 자급자족을 하며 자연과 같이 화전밭 일궈 꾸려가며 살아야 했다. 봄이면 고비며 고사리 두릅 더덕에 취나물 뜯어다 5일장이 돌아오면 10리길 멀다 않고 나서야 했다 가을이면 참깨며 들깨 메주콩을 팔아 겨우살이 준비에 바빠 움직여야 했다. 잡곡 팔아 밀가루 사오고 산나물 팔아 새우젓에 아지한섬 호통불 석유에 성냥통 사들고 온다 갈 때는 무겁게 한 짐 지고 가지만 올 때는 가볍게 생활용품 사오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산 그림자 저녁 연기속에 또 하루가 저편으로 떠나가고 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주어진대로 열심히 살았던 화전민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오지였다. 6.25 전쟁과 땀감으로 황폐한 산을 살리기 위해 화전민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가 화전민들의 생활 대책과 국토 보존을 내세워 화전을 정리 작업을 한 것이다. 1966년 제정된 화전 정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公布)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우리가 술하게 들은 치산녹화와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화전민들은 조금씩 산밑으로 내려오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산림청은 1980년 12월에 간행한 화전 정리사에는 화전민의 생활 안전과 치산녹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안보 협동정신의 발휘는 화전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함으로서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을 이루기까지 국민 여러분과 사업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적 봉사 정신과 굳은 신념 그리고 값진 땀이 밑받침 되었다고 확신하며 그 공적은 후세에 길이 남겨질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화전민 그들의 삶은 일반 땅주인 없는 나라 땅을 밟고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살았다. 치산녹화로 화전민은 떠나고 잡풀만 무성하게 그들의 삶의 애환을 말해 주고 있다. 화전민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들은 살 수가 없어 산속까지 들어와 배고픔에 허리띠 졸라매고 눈물속에 살아왔다. 숲에 불을 질러 밭을 갈아 먹고 살았던 이들이기 보다는 어두운 시절 존재 깊숙한 곳에 불을 질러 가슴앓이를 하면서 불로서 삶을 이어간 이들은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 송내시장과 생연2리 시장

6.25전쟁은 동두천의 대대로 내려오는 옛날 시장의 장터까지 바꾸어 놓았다. 빈양마을에 있던 시장과 우시장은 휴전(休戰)과 함께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동두천 남쪽 끝 송내리 마을로 옮기게 되었다. 3번 국도가 지나가는 도로 옆 밭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천막을 치고 전쟁 후 피난갔던 주민들이 모여 들면서 5일장이 서게 되었다.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의 옛집들은 폭격에 불타거나 반파되어 미군 나무 박스나 식량박스 주어다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였다. 임시 시장을 위주로 피난민들이 북적되던 그곳은 피난 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는 생활하기에 불가능 하였다. 더 넓은 시가지로 나오기에는 전시 휴전중이라 미군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피난지에 있던 송내리 임시 장터는 피난민들이 신천변인 모랫말로 한집 두집 하꼬방(나무판자)집을 짓고 급속도로 늘어나 어느새 모랫말은 한동네 마을이 되고 있었다.

(1) 동두천 중심지 생연2동

송내리(동)에서 생연2리(동) 신천을 끼고있는 모랫말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피난민들은 미7시단에서 나오는 사과박스 레몬박스 C레이손 박스 각목 등을 활용하여 조그만 판자집을 지어야 했다. 돌궂어 낡은 양은술에 죽이라도 끓여야 했던 어머니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자식들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 애 쓰셨다. 이 세상에 온갖 생물을 살게 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신(神)이 계시다면 그 신은 우리곁에서 신의 마음을 닮은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안텔센 동화의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잃어버린 아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진주보다 아름다운 두 눈을 바치고 검고 윤나는 머리칼을 백발과 바뀌주고 온몸과 가슴을 가시덩굴에 찢리며 죽은 아기의 뱃이나마 만나보고자 소원하는 어머니 정을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음독(飲毒)한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아들의 입을 빨아 독을 없애려 씻어내다 죽은 강원 두메산골의 어머니 아침 저녁 파도를 헤치고 나룻배를 저어 6년을 하루같이 어린 딸을 학교에 실어 나른 어느 섬마을의 어머니 이들은 모두 자식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며 자식의 괴로

움이 곧 자신의 괴로움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6.25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장날10리길 고갯길을 넘어 돌아오시던 어머니의 장바구니 속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 흐려진 추억들 도시의 아파트 숲에서 자라난 아이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의 보금자리이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그리운 것은 어머니란 말속에 묻어나는 추억일지도 모른다 전기불도 없던 그 시절에는 밤만 되면 캄캄한 암흑의 시간이었다. 6.25가 만들어낸 판자촌 창문사이로 희미한 등잔 불빛만이 어려운 인생사를 말하여 주었다. 미군부대 막노동으로 돈 벌러 나간 아버지는 얻어 입은 미군복 옷차림은 사계절 구별없이 더우나 추우나 때에 찌든 옷을 일년 열두달 입어야 했다.

(2) 동두천 생활의 중심이었던 생연2리(동)

동두천에는 원주민과 실향민들이 모여 들면서 모랫말은 포화(飽和)상태에 이르렀다. 인구는 미군부대 종사자(從仕者)까지 늘어났다. 실향민들도 피난 갔다 이북이 가까운 동두천으로 이주하였다 송내리에 있던 면사무소, 우체국, 경찰지서, 금융조합도 하나 둘씩 자리를 생연2리로 옮겨 왔다. 이때부터 생연2리가 기점이 되어 오늘날 동두천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송내리 입구에 있던 장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생연2리 11반을 중점으로 빈양말에서 송내리 그리고 생연2리 3번째로 장터를 옮기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무조건 생연2리 쪽으로 모여들어 신천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늘어나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었다. 동두천에는 실향민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미군 부대로 인한 취업의 생계 문제로 자고 나면 인구가 늘어 난 곳이 생연2동과 생연1동, 생연3동, 생연4동이며 지금은 행정 개편으로 인해 3~4동이 중앙동이 되었다. 생연2동은 1959년 처음으로 시장다운 시장으로 자유시장의 100여개의 점포시장이 생겼으나 1970년대 중앙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하향(下鄉)길로 접어들어 지금은 폐쇄되었다.

○ 시장과 농경문화

동두천 향토사료전시관을 공설시장이나 중앙시장으로 연계 관람 할 수 있도록 옮겨야 한다. 하루에 행인50여명도 지나가지 않는 외딴 동네(예전 생연1동 사무소 건물)에 사료관이 있어 향토 사료관이 제 역할은 물론 사장(死藏)되어 가고 있다. 전통시장과 연계(連繫)하여 전통(傳統) 농경 문화를 한 눈에 보면서 시장 스토리를 같이 엮어 나가야 한다. 논밭 갈아 사용했던 쟁기 농경생활

의 필수였던 손수레 바퀴 발을 이용하여 탈곡한 벼 탈곡기 곡식의 빈쭉쟁이를 날려 보냈던 풍차 곡식을 돌려 가루를 냈던 맷돌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농기구가 곳곳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전통 농기구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현대 기계식 농기구만 보면서 자라온 젊은이들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아득히 먼 과거 생산 현장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까지 들게 해 옛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애환이 담긴 전통 농기구들이 소리없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필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직접 재현해 보았다. 오랜 옛 농촌 펼쳐진 농기구 사용과 함께 어려운 생존 경쟁에서 창조해 낸 전통 농기구들은 편리한 기계식 농구에 밀려 하나 둘 자연스레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기억에서 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전통농경 문화를 보존하고 조상들의 농경생활을 재현함으로써 기성세대에게 옛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고 신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의 땀이 뻗은 농기구를 통해 부지런한 삶의 지혜까지 알아 갔으면 한다.

(1) 전통시장 젊음의 새바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소평은 먹거리 문화를 개선하고 예스러운 볼거리로 승부를 봐야 하고 물품의 싱싱함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농촌 산지의 물류센타를 설치 직송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신세대 청년 상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휴식 공간을 만들어 전통문화 체험 등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옛날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참신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 강화 시장의 역사적 소재 단군 신화의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먹었다는 마늘을 재료로 단군(檀君) 햄버거를 내놓아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초밥과 제과류 등 먹거리와 드라이 플라워 가죽 소품 등 각종 공예품을 갖추고 있어 전통시장과 거리가 있는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올해 선정된 인천 신포 시장 역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청년들의 효과가 기대 된다 신포 시장이 과거 인천지역 중고생들의 주무대였다. 최근 쇠퇴한 동인천역과 인접해 있어 이곳이 인천에서 젊은층이 자주 찾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두천의 중앙역과 중앙시장이 인접해 있으므로 중앙시장 건너편 공원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우물터(御水)를 복원하여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여 관광지로 중앙시장과 연계해야 한다.

○ 시장사람들의 이야기

(1) 옛것에 정을 느끼는 만능(萬能) 재주꾼 아저씨

길목 장터에 군 작업복 검은 물감들여 입고 밝은 군화에 헤어진 장갑에 말없이 메꼬모자 눌러쓴 채 두 무릎에 가죽천 올려놓고 두 손을 바빠 움직인다. 시골 농민들이 가져온 구멍난 냄비 때워주고 찢어진 고무신 붙여주고 운동화 장화에 양산 우산 등 무엇이든 고쳐준다. 자주 오지않는 버스는 폐차된 미군 군용트럭에다 드럼통을 잘라서 망치로 두들겨 펴서 덮개를 만들어 마을 버스로 사용했었다. 떨어진 생활용품 갖고 나온 주민들이 고쳐주는 아저씨 모두가 장에 나오는 날이면 그래도 희망은 있고 즐거웠다 망가진 물건을 새것처럼 고치는 신기한 재주를 가진 50대 아저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손자 손녀 찢어진 신발 갖고 나와 기워주고 붙여주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며 몇일밖에 신지 못할 망정 새로 사지 못하고 고쳐 가지고 집에 가면 손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다. 어렵던 시절 소박한 생활에 옛정을 느끼게 한다.

(2) 빗자루 장수와 채 장수

할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싸리나무 빗자루는 마당을 쓸었고 갈대를 찌서 만든 빗자루는 마루와 방을 쓸었으며 수수빗자루는 주로 부엌을 쓸었다. 시장 끝에 자리잡고 빗자루를 팔았다. 그러나 장사는 예전같지 않았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러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기다린다 플라스틱 빗자루에 밀리고 있다. 채 장수 아저씨는 만들고 아주머니는 장에 내다 팔고 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그 자리를 플라스틱 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간편한 플라스틱에 밀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어찌다 주문하러 온 아주머니들은 아저씨의 채 만드는 솜씨가 워낙 좋아서 여간해서 망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3) 장국 밥집

장날에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장국밥 때가 되면 장손님들이 많이 모여든다. 멸치국물 냄새에 장국수 소머리는 밤새 우려낸 국물과 장국밥에 돼지순대에 구수한 맛 찜치주머니에 손이 간다. 국밥 먹고 집에 돌아갈 차비는 되는지 확인한다. 돈이 모자라면 다음 장에 갚는다고 외상을 한다. 인심좋은 아주머니는 메모를 해 놓는다. 국밥에 막걸리 한 대접 마시고 입을 손으로 쓱 닦고 나온다. 그래도 시원한 멸치국물에 쫄깃한 국수가 담겨 나오는데 장터를 구경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기에 딱 좋은 음식이다. 딸부자 국밥집은 많은 사람들의 단골집이라 한동네 이웃동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농사짓는 이야기에 금방 친해져 씨앗 이야기부터 나눈다. 자리가 없어 서서 먹는 사람 땅바닥에 주저 앉아 먹는 사람 주린 배에 아무데고 괜찮다고 한다. 정말 순진한 사람들 아스라이 생각나는 그 옛날 풍경이다.

(4) 생선장수

공설시장 5일장은 길다란 좌판(坐板)에 얼음 얹어가며 여러 가지 생선을 팔고 있다. 쫄치, 칼치, 고등어 비린내 안나는 이면수, 오징어 해물탕 거리는 고동 소라 등 여러가지 해물을 그릇에 담아 팔고 있다. 외지에서 온 장사꾼들이다. 서울 마장동 도축장에서 가져 왔다는 소머리 돼지 내장 등 커다란 양철다라에 담아 놓고 팔고 있다. 모퉁이를 돌아가면 임진강, 한탄강에서 잡았다는 붕어와 잉어가 커다란 물둥이에서 주둥이로 빼꼼거리며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그 옆에 작은 다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미꾸라지들이 서로 엉켜 분주히 움직인다.

○ 뽕이요 강냉이 튀김장수

요즈음도 설 때나 추석 때는 각 마을 장날을 돌며 뽕튀기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장작불에 뽕튀기를 했지만 요즘은 편리하게 가스불로 뽕튀기를 한다. 사람들이 땀한 장터 모퉁이에서 뽕이요 소리치며 쇠막대기로 주둥이를 틀면 틈새가 벌어지면서 칙하고 뜨거운 바람빠지는 소리와 함께 평하면서 압축되었던 옥수수 강냉이가 백배는 크게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다. 예전에는 참나무 장작에 바람 일으키는 풍로에 손으로 직접 돌려야 했다. 지금은 엘피지 가스에 자동 모터로 돌려 빠르고 편해졌다. 뽕 튀기 장수의 코밑은 항상 시커멓고 옷은 언제부터 입었는지 까맣다 못해 반들 반들 윤기가 흐른다 뽕 장수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어쩌다 뽕튀기 기계에 자루 주머니를 잘못 막아서 사방으로 튀어나가면 우~~ 모여든 아이들은 누가 볼 새라 주워 먹기 바빴다. 그래서 마음씨 나쁜 뽕 장수는 아이들부터 쫓아내고 뽕을 튀기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뽕튀기고 나면 한 움큼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아무튼 배고팠던 그 시절 구수한 냄새로 주위 사람을 끌어 모았던 곳 뽕이요 뽕 그 소리가 그리워진다.

(1)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관상 사주쟁이 할아버지

길 옆 가마니 깔고 돛자리에 창호지 펴놓고 쭈그리고 앉아 오가는 궁금한 행인들 마음을 풀

어주던 관상쟁이 할아버지 이젠 볼 수 없지만 으레 장날에는 그 자리에 앉아 중년(中年)사람들의 신수를 점(占)을 쳐서 팔괘(八卦) 육효(六爻) 오행(五行) 관상 수상(觀相 手相)점을 보아주고 복비(福費)로 몇푼의 돈을 받았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귀를 기울인다. 얼굴에는 어두워지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한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뒤를 뺑 둘러 선다. 옛날 순진했던 사람들은 사주쟁이 할아버지 말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리며 왔다 갔다 했다. 한 아주머니가 시장 본 보따리를 내려 놓고 딸의 생, 년, 월, 일 난시(時)를 불러 준다 사주쟁이 할아버지는 한문을 풀면서 중얼거리며 헛기침을 하고 나서 궁합(宮合)이 조금 안 좋은데 혼사(婚事)는 성사(成事)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 준다. 사주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으면 나쁜 말은 안한다. 우리네 살림살이 무엇이 그리 궁핍한 것이 많은지 무슨 얼어 죽을 사주야 하면서도 가난에 찌든 삶 혹시나 나아질까 그래도 요행(僥倖)바라며 사주쟁이 할아버지를 찾아 간다.

(2) 가마솔 장수 제비 아저씨와 수다쟁이 아줌마

공설시장에 유일하게 가마솔 파는 제비 아저씨와 수다쟁이 아줌마가 장사에 여념없이 살고 있었다. 삼광 철물점인 이곳은 농촌에서 필요한 농기구를 팔고 있다. 제비 아저씨는 성격도 깔끔하고 몇 개 안되는 머리카락에 포마드까지 발라 넘기면 반짝 반짝 빛이 났다. 수다쟁이 아줌마는 마음이 넉넉하고 그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다. 서로의 성격은 다르지만 부부가 장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가마솔은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라고 친절하게 닦아 준다. 다른 솔장수들은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데 깔끔한 제비 아저씨는 쇠수세미와 짚수세미로 쇠뿔이나 쇠부스럼을 썩썩 문질러 깨끗이 닦아 내는 동안 수다 아줌마는 지루할 새라 고객들과 대화를 나눈다. 할아버지는 요즘 장에 안 나오시는데 어디 편찮으신지 아들은 군에 갔느냐 딸래미는 시집갈때가 돼서 그런지 많이 예뻐졌다는 등 수다를 떠는 동안 어느새인가 제비 아저씨는 수다떠는 동안 솔을 닦아 놓는다. 오고 가는 사람들 걱정 다 해주고 무엇이 그리 궁핍한 것이 많은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이야기 하곤 한다. 세월이 갈수록 멀어져가는 인심속에 언제나 변치않은 수다쟁이 아줌마의 따뜻한 커피 한잔에 수다쟁이 아줌마가 있어 세상은 포근하고 즐거운 것이다. 돈은 벌어 놓지 못해도 부부의 정답에 그렇게 욕심도 없이 허허되며 장사 한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장사 할 때면 수다 떠는 아내가 못마땅하여 제비 아저씨는 심술을 부린다 한번 화가 나면 몇일을 간다. 그저 말없이 죄없는 솔뚜껑만 벗겨져라 문지른다. 옛날만 하더라도 가마솔은 만능의 솔으로 소(牛)여

물도 끓이고 두부 콩도 삶고 가을에 메주도 쑤었다. 작은 가마솥은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떡 시루 올려놓고 시루떡도 만들면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요즘은 소여물 대신 소사료가 나오 고 가마솥 대신 전기밥통이 나오면서 연료도 나무보다 가스가 나왔다. 밭을 가는 쟁기 대신 경운기 쟁기를 달아 쓰다가 트랙터가 나왔다 새로운 과학 문명속에 삼광 철물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7) 재래(在來)시장을 위기(危機)로 몰고가는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생겨나면서 전통시장이 하향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산업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시장까지 파고 들어 그들은 변화하는 대기업의 신선식품 및 신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 소비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콘셉트 점포와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싱싱하고 품질좋은 상품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잦은 식품사고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롯데슈퍼는 포장지에 담은 제품을 선 보였다. 생산자는 자신의 얼굴을 포장지 담은 제품을 선 보였다. 생산자는 자신의 얼굴을 걸고 농사짓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얼굴을 보면서 산지에서 구매하는 듯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또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상품인 한 끼 시리즈와 판매 당일 새벽에 수확한 새벽 야채 등 이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유통 시장을 이끌고 있다. 산지와 매장이 가까울수록 신선하고 저렴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별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장에 입고 판매하는 근교 산지 형 점포도 확대 하고 있다. 축산물 가공센터도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요소도 우유, 돈육, 계육 등의 원육을 직매하고 소분 포장 가공 등 상품화 작업을 직접 진행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침체된 시장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갈수록 콘크리트화 되어가는 아파트 빌딩 숲과 대형마트는 현대 고객들에 대한 쇼핑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홈쇼핑 다농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마트 등 대형매장이 늘고 있다. 아파트단지는 결국 대형마트를 몰고 왔다. 대형마트 매장을 보면 한눈에 다양한 상품들이 구매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상품에 매료되어 우리의 씹씹이도 자신도 모르게 커지게 된다 대부분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 판매가 마케팅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것에는 고객의 충동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향과 욕구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고

객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고객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물건을 놓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고객들에게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고쟁이 속옷에 씌주머니가 있었다. 돈을 꺼내려면 허리춤을 풀고 다시 바지속 주머니를 꺼내서 씌주머니끈을 풀고 다음 꼬깃꼬깃하게 네 번 접은 돈을 꺼내 물건을 샀다. 돈을 꺼낼 때에도 4번 생각하고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손에 돈이 쥐어졌다. 그만큼 심사숙고 한 끝에 모든 일을 처리했다. 이것이 절약형 시골 시장과 카드 충전형 대형마트의 구매 차이점이다 우리 생활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 안동 전통시장의 성공 사례(事例)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 혁신사업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안동 장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안동 구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50억원이 투자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1차년도 사업 마무리와 2차년도(2017년 7월~2018년 6월)사업이 시작돼 글로벌 명품 테마 거리 시범사업 글로벌 명품 랜드마크 조성사업 그리고 면세점 도깨비 시장 운영 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통해 안동의 관광자원과 안동원 도심 쇼핑 콘텐츠 연계로 글로벌 관광객 집객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 쇼핑 환경 구축 한류 문화 특화사업을 통해 안동 원 도심상권을 부활시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1) 일자리 청년몰 조성사업

지역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안동시의 노력은 그야말로 으뜸이다. 젊은층의 고객을 유입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상인의 입점 육성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앙 신시장 청년 상인 지원사업은 올해 4월 10개의 청년 점포를 탄생시켰다. 현재 안동 오고 가게 거리라는 이름으로 영업중이다. 이와 연계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청년몰을 조성중이며 청년몰에는 20개의 청년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상인 점포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젊은층 등 고객 유입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으로 침체돼가는 서부시장을 살리고 시민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 위해 서부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9월 안동 간고등어 축제와 맞춰 개장할 야시장은 서부시장이 밤 문화로 부흥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 안동의 밤을 바꾸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100개 정도로 추산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기대 된다. 실업률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동시의 노력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다.

(2) 전통시장 시설 사업

전통시장의 시설 하드웨어 지원 현대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서부시장 조성공사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주차장 확장공사가 완공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재나 각종 안전 사고 위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용산시장 증축 미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비 지원 사업 이외에도 구담시장 안내 조형물 설치 북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 등을 통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변모해 빛을 잃은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3) 주요 특산품을 연계한 전통시장

안동시의 주요 특산품과 연계한 전통시장 이색 축제 개최로 특화시장 개발과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안동 간고등어 축제는 제법 그 역사를 자랑한다. 2011년부터 개최된 축제를 통해 간고등어의 관광상품화 및 판매장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9월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안동 간고등어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중앙신시장에서 단오맞이 고객 감사 문어 축제를 개최해 안동 문어의 경쟁력 제고와 안동의 향토 먹거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지역 특산품과 연계할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해 상권 회복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4) 골목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동시에서는 현재 150여개의 골목 슈퍼(나들이 가게)가 있다. 최근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물의 발달로 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골목 상의 자생력을 도와주기 위해 안동시에서는 2017년 나들이 가게 육성 선도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세한 나들이 가게를 대상으로 조명교체 상품진열대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연 매출 5%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제2차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시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책사업으로 1개 업체당 7천원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년2%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500개 업체에서 170억원의 대출을 혜택 받고 있다. 이렇듯 안동시장(市場)의 활성화를 권영세 시장(市長)의 창의력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3. 맺는말

아침을 여는 장터에 장꾼들의 애잔한 삶속에 몸을 적시는 굵은 땀방울과 깊게 패인 주름사이로 힘든 삶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 때 묻지 않은 순진한 사람들 인성(人性)의 향기가 그립다면 장터에 나가보자 그곳은 어머니의 품속같은 따사로운 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장은 소박(素朴)한 사람과 사람이 모여 만나는 곳이다. 모든 일들을 직접 몸으로 움직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어야 하는 삶 자체가 생활이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만 모인곳은 아니다. 소일거리로 나온 사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 등등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데 어울리는 곳이 우리네 장터였다. 아리랑 고개만큼이나 굵은 할머니의 허리 소일 삼아 기른 푸성귀나마 팔아보려고 가져왔지만 비오는 한적한 장터에는 찾는 이는 아무도 없고 의 마음만 타들어 간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목도리 하나로 겨울바람 버티는 아주머니 무엇이 아주머니로 하여금 겨울날의 장터로 내몰았을까 그것은 그의 또다른 이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겨울날 들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버스를 기다린다. 오랜 세월 세파에 시달리는 동안 패인 주름 주름들 장에 간 를 기다리고 있을 손주 녀석 생각하면 눈괄사탕 하나라도 사가야겠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처럼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하루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전통5일장은 거의 사라져서 지방에서도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좀처럼 옛 모습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장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에게 이렇듯 다시 찾아가고픈 옛 장터

세월이 흐를수록 대형마트에 밀려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옛 고유(固有)의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아져 세상은 삭막(索漠)해져 가고 있다. 없이 살아도 오직 부지런과 장보러 가는 일이 그때의 낙이었다. 소박한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만나는 장날 선조들이 지켜보았듯이 먼 훗날까지 전통시장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 | | |
|--------------|-----|------|
| 1. 국어대사전 | 어문각 | 1973 |
| 2. 동두천시 향토지 | | 1988 |
| 3. 동두천시사 | | 1998 |
| 4. 동두천시 30년사 | | 2012 |
| 5. 한국의 보부상 | 밀알 | 2001 |
| 6. 한복사학 6집 | | 2009 |
| 7. 아시아일보 | | 2017 |

소사우시장 고찰 (素砂牛市場 考察)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II. 본론

- 일제강점기 부천군(富川郡)의 우시장(牛市場)
- 1930년대 쇠장(牛場)의 은어(隱語)
- 소사우시장(素砂牛市場) 설립
- 소사동(素砂洞)과 장고개(場古介) 지명 유래

III. 결론

IV. 참고문헌

집필자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 서론(序論)

부천(富川) 지역 장시(場市)로는 조선시대에 석천면(石川面) 신기장(新基場)이 유일하게 있었다. 석천면은 현재의 부천시 상동, 중동, 송내동(옛, 구지리(仇之里), 심곡동 지역이다. 신기장은 《부평부읍지》(1842)에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한 이후로 부천지역에는 장시가 없었다.

조선시대 부평군 지역의 장시(場市)

문헌	장시(場市)	비 고
《부평부읍지》(1842)	발아장(發阿場)	관아로부터 북쪽 10리 황어면(黃魚面)에 있다. 매순(每旬, 열흘)마다 3일과 8일에 열린다.
	기탄장(岐灘場)	지금은 없어졌다
	신기장(新基場)	지금은 없어졌다.
《여도비지》(1856)	발아현장(發阿峴場)	3일과 8일에 열린다.
	황어장(黃魚場)	3일과 8일에 열린다.
《부평부읍지》(1871)	발아장(發阿場)	도호부 북쪽 10리 황어면(黃魚面)에 있다. 매순(每旬, 열흘)마다 3일과 8일에 열린다.
	기탄장(岐灘場)	도호부 동쪽 10리 수탄면(水呑面)에 있다. 매순(每旬, 열흘)마다 4일과 9일에 열린다. 지금은 없어졌다.
	신기장(新基場)	도호부 남쪽 10리 석천면에 있다. 매순(每旬, 열흘)마다 2일과 7일에 열린다. 지금은 없어졌다.
《조선지리지》(1911)	새장터주막(新基場店)	옥산면 벌응절리. 현금(現今) 시장(市場)은 없다.
	황어장(黃魚場)	부평군 황어면 장기리(場基里)
	장터주막(場基酒幕)	부평군 황어면 장기리(場基里)

그런데 《조선지리지》(1911)에 “새장터주막(新基場店)-옥산면 벌응절리. 현금(現今) 시장(市場)은 없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부평부읍지》(1842)에 기록된 신기장은 석천면에 있었다고 하였고, 1911년에 나타나는 새장터주막은 옥산면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면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다. 아마도 둘 중 하나는 오류로 보인다. 어쨌든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부천 지역 소사우시장(素砂牛市場)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부천 지역에 우시장이 설립된 계기는 1899년 경인철도 소사역(현, 부천역)이 심곡리에 설치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물자 및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서 소사역 인근에 1922년 9월 16일 부천군축산동업조합이 인가되었고, 1923년 4월 8일 부평수리조합이 설립인가 되면서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1927년 소사시장이 설립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우시장도 생기게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23년 부평수리조합의 설립이었다.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조선총독부철도국, 1912)에 보면 1910년도 소사역 승차인원 17,315명, 하차인원 17,413명이었다. 또한 소사역 주변에 일본인 호수가 47가구에, 인구는 154명이나 살았다. 반면에 부평역의 경우에는 1910년도 승차인원이 4,509명이었고, 하차 인원이 4,239명이었다. 부평역 주변에 일본인 호수는 28가구에 인구는 71명이 살았다. 당시 소사역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음을 이로도 알 수 있다.

그림1) 지도에도 나타나듯 사천시장(蛇川市場)은 1.6일, 소사시장(素砂市場)은 2.7일, 황어시장(黃魚市場)은 3.8일에 개시(開市)한다고 하였다. 영종시장(永宗市場)의 경우에는 개시가 불규칙하여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천군 영역의 관할 면리(面里)는 15개면 160개리로 부평군과 인천부 땅 거의 대부분을 통합한 거대한 군이었다. 다만 부천군은 넓은 영역에 비해 시장이 매우 적었다. 《경기도지》(1956)를 보면 1954년 당시 경기도에는 총 89개소의 시장이 있는데 그 중 부천군에는 4개소의 시장이 있어 4.5%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상설시장으로는 소사읍의 소사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으로는 소래면의 뱀내장이 매월 1일·6일·11일·16일·26일에 장이 서고, 계양면의 황어장이 매월 3일·8일·13일·18일·23일·28일, 영종시장은 시장의 허가는 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개시(開市)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4개 시장의 총 매매액은 44,670원으로 경기도 전체 매매액 1,233,891천원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군의 4개 시장의 평균 매매액은 11,167원으로 경기도의 시장 1개소당 평균 매매액 13,863원보다 적은 규모이다.

부천군에 속하는 시장의 특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매매액은 거의 없고 가축이 99.44%를 차지하여 거의 가축 매매 전문 시장임을 보여준다.¹⁾ 이전 기록으로는 <소화4년(1928 경기부천군세일반)>에 보면 시장이 3개 있다고만 기록하였고 소 값은 5살짜리 일두(一頭) 가격으로 상우(上牛)는 120,000円, 하우(下牛)는 60,00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부천군 군세일반》(1930년 6월)을 보면 시장수 3개, 화물 실패고(實買高)로 농산

1) 《부천시사》(1988)

물 24,177원, 수산물 4,833원, 직물류 9,925원, 축류 455,816원, 기타 9,175원으로 계 630,354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 이익은 일인(日人)들이 모두 가져갔다. 일제는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시장규칙>을 반포하여 조선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은 제1호시장으로 묶어 놓고, 신식시장으로 제2호시장, 제3호시장을 추가 편성하였다. 제2호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며, 제3호시장은 지금의 도매시장 또는 경매시장과 같은 것으로 알짜배기는 모두 일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소사시장이 1927년 9월 6일 설치허가가 나서 영업을 개시 하였지만 아직 우시장(牛市場)은 없었다. 1925년 부평수리조합 완공 이후 옥토로 변한 부평평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농우(農牛)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여 우시장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계남면 심곡리 683-1번지 소재의 소사시장이 협소하다 보니, 1934년 경인국도 건너편 심곡리 673번지 일대에 2,000평의 소사시장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비로소 우시장 설립인가가 나게 되었다.

다만 지금까지 소사우시장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었다. 언제 설립되었고, 언제 이전하였으며 번지는 어디이고 평수는 얼마인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다. 필자 역시도 부천지역에 강의를 다닐 때 설립년도와 장소만 말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곤 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천시 재래시장의 초창기 역사를 재조명하여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이하 아래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本論)

1. 일제강점기 부천군(富川郡)의 우시장(牛市場)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인천 간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철도가 개통하였다. 이때 부천 지역에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부평군 석천면 심곡리 594번지 1,009평의 면적에 소사역(현, 부천역)이 설치되면서, 부천이 발전하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후 소사역 주변에 우편소, 소학교, 보



그림2) 1917년 지도로 1899년 허허벌판에 설치한 소사역(현, 부천역)

통학교, 부평수리조합, 주재소, 일제신사, 소사시장, 소신여객 등이 들어서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1914년 4월 1일 당시 부천군 관할 면리(面里)는 15면 160개리로 대단히 큰 군이었지만, 소사역 인근의 심곡리·중리·상리·조종리(현, 원미동) 일대는 벽촌(僻村) 지역이어서 딱히 역이 설치될 장소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이 설치된 것은 바로 부평평야와 김포평야에서 쌀 수탈을 목적으로 소사역이 들어선 가장 커다란 이유라 하겠다. 조선시대 부천 지역의 장시(場市)는 신기장(新基場)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1842년경에 사라졌다. 현 부천지역은 해안도 멀었고 인구도 적었고, 평야지대 이기는 하나 잦은 침수피해로 인하여 농산물 산지 또한 아니어서 장시가 새로 서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1914년 당시 부천군 관내에는 오로지 사천장(蛇川場)과 황어장(黃魚場) 2개뿐이었다. 일제강점기 초기 지방에 향시(鄕市)가 계속 늘어나자 일제는 재래시장을 보존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시장규칙>을 제정하여 시장에 관한 최초의 법적 관리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된 《조선의 시장》(192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301개소의 시장이 있었다. 그 중 경기도는 104개소(8.2%)를 점하고 있었고, 부천군에는 2개소²⁾의 1호 공설시장이 있었다. 당시 시장은 평균 1개소당 약 7~8方里 정도의 면적을 가지며, 평균 이용 인구는 약 1,000~2,000명 수준에 시장취인액(市場取引額)은 138,667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부천군에 2개소의 시장은 우시장이다. 먼저 장기리(場基里) 우시장은 부평역에서 북서쪽으로 3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시장의 정식 명칭은 장기리 우시장이었다. 시장이 열리는 날은 음력 매월 5일이었으며 주된 취급 상품은 소·곡류·잡화 등이었다.

그러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가 거래 대상의 주요 품목이었으며 다른 품목은 부수적으로 매매되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는 전속 소중매인이 11명이 있었으며 매매시 받는 중개수수료는 매가(賣價) 100원에 대해 조합인 3원, 중매인 1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시장의 규모는 장이 활발한 7·8·11·12월에는 매달 평균 약 500~600頭の 소가, 그 외에 장이 활발하지 못할 때에는 100頭 내외에 소가 거래되고 있었다. 또한 주된 상권의 범위는 김포·강화·부천·시흥 등의 각 군이었다. 당시 1년에 2만頭 이상의 소가 거래되는 시장은 대구·안주(安州)·오목(梧木)·태천(泰川)·철원의 5개소이며, 이 외에 1만頭 이상이 파주·개성 등 95개소이며, 부천의 장기리 시장은 5천頭 이상의 중급 정도의 시장이었다. 당시 장기리 시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번영기	농한기
기간	7, 8, 11, 12월	번영기를 제외한 달
개시일	음력 매월 5일(정기시)	
거래되는 소(牛)	500~600頭	100頭 내외
잡곡, 잡화, 상인수	30~40명	20명 내외
출장자	1,000명 내외	200명 내외
상권	김포, 강화, 부천, 시흥 지역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사천장(蛇川場) 우시장이다. 시장의 규모는 거의 장기리 우시장과 비슷하여 평균 5,000頭 이상이 매매되었으며, 이곳을 출입하는 상인과 구매자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상인은 100인, 구매자는 250명 정도였다. 하우 시장 내에서 소비되는 음식비는 2~3원에 불과하였다.

현 부천시 관내에는 소사동을 중심으로 하여 또 다른 우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부천지역에

2) 뱀내장, 황어장

우시장이 성한 것은 축산동업조합이 존재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³⁾ 또한,

“특히 소시장은 수원장, 소사장 등과 함께 경기도에서 손꼽혔다.....1928년 금이동 출신의 신현순(1895~1969)이 소신여객회사를 창설한 것도 뱀내시장과 소사시장의 상인과 소비자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장의 개설은 오늘날 신천동, 대야동 등이 시흥시의 중심가로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1970년대에 도시화로 폐장되었다.”⁴⁾

라고 하고 있듯이 대단히 번창했던 우시장이었다. 아래에서 뱀내장, 황어장, 소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뱀내장(蛇川場) : 1, 6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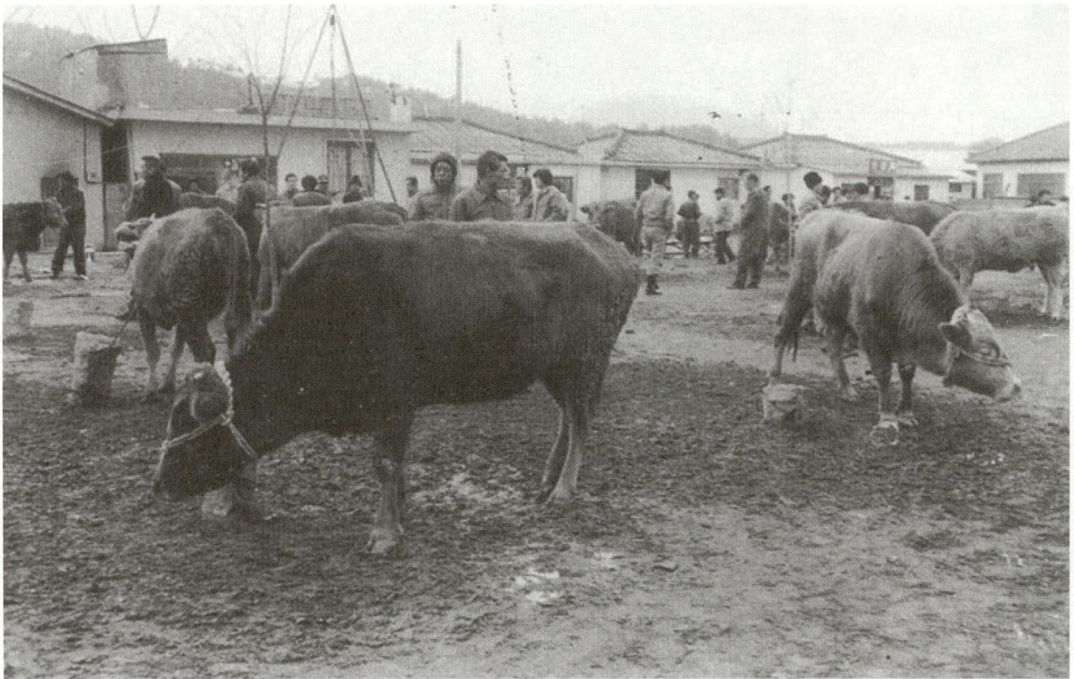


그림3) 1970년대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뱀내 우시장 풍경⁵⁾

3) 《부천시사》(1988)

4) 《시흥시사》(2007) 6권 〈1. 시흥의 장시와 생활권〉

5) 시흥시 사이버역사관

뱀내장은 본래 인천부 신현면(新峴面) 사천리(蛇川里)였는데, 1914년 4월 1일 신촌리(新村里)와 사천리(蛇川里)를 통합하여 부천군 소래면(蘇萊面) 신천리(新川里)라 개칭하였다. 현재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조선지지자료》(1911) 인천부 신현면 동리촌명과 시장명에 “뱀늬장(蛇川場)으로 기록하였고, 주막명에는 ” 뱀늬주막(蛇川酒幕)“으로 기록하였고 하천명으로 “뱀늬(蛇川, 현재의 신천)”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사천리는 곧 뱀내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뱀내장은 《동국문헌비고》(1770)에 기록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시장이다.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소를 거래하는 우시장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뱀내장은 황어장이 생기기 전까지 경서(京西) 유일의 가축시장으로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학교, 경찰주재소, 수리조합 등의 시설이 있는 곳일 뿐 아니라⁶⁾ 뱀내장은 1911년에 발행된 〈조선신지도〉에 표기될 정도로 큰 우시장이었다.

‘시장의 규모는 거의 장기리의 우시장과 비슷하여 평균 5,000頭 이상이 매매되었으며, 이곳을 출입하는 상인과 구매자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상인이 100인, 구매자는 250명 정도였다. 하루 시장 내에서 소비되는 음식비는 2~3월에 불과하였다. 1976년 신천리시장으로 개칭하였다가 1982년 소래우시장부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② 황어장(黃魚場) : 3, 8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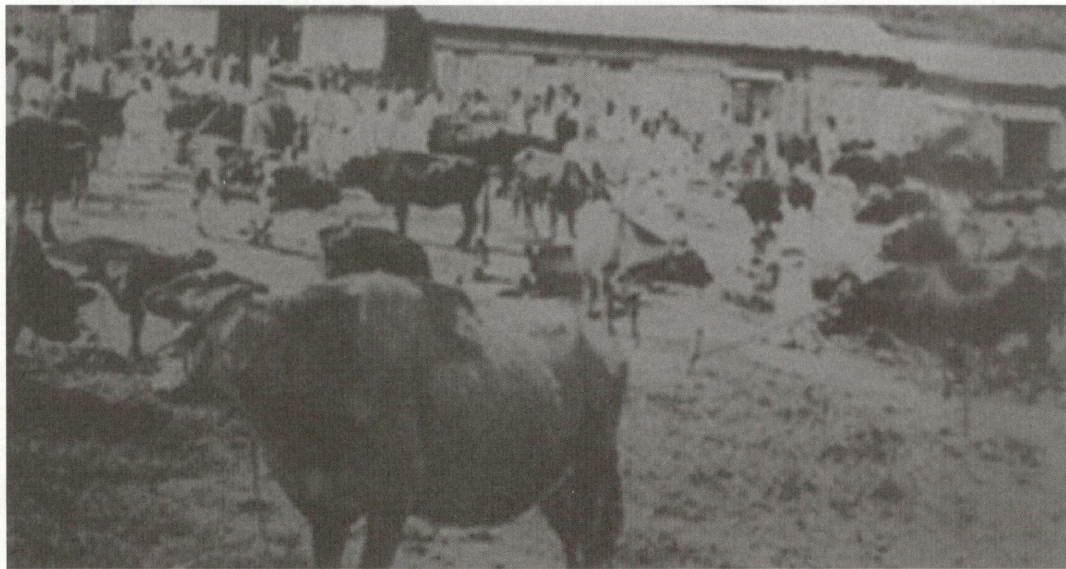


그림4) 일제강점기 황어우시장 모습 -출처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전시실

6) 1936.02.22. 동아일보

황어장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黃魚面) 장기리(場基里)였으나 1895년 인천부 부평군 황어면 장기리로 되었다. 1914년 부천군 계양면(桂陽面) 장기리로 개칭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 계양면 장기리로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場基洞)이 되었다.

황어장은 《여도비지》(1856)에도 기록되었고 이후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1909년 9월)에서는 장기리시장으로 기록했고, 《조선지리지》(1911)에는 황어장(黃魚場)으로 기록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24일 600여 명의 주민이 장날을 이용하여 3.1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하다가 이은선이 일본순사의 칼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으며, 40여 명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혁성·이담·임성춘·최성옥·전원순 등이 옥고를 치렀다. 황어장터의 만세운동은 인천 지역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천 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전국의 만세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장소이다.

③ 소사장(素砂場) : 2, 7일장



그림5)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소사우시장에서 1970년 부천군 제1회 가축품평회 모습⁷⁾

7) 《백 년 전의 미래》 부천탄생 100주년, 부천시 탄생 40주년(2013)

소사우시장은 본래 1934년 소사면 십곡리 676번지에 있었다가 1949년 소사읍 소사리로 이전하였다. 소사리는 부평군 옥산면(玉山面) 소사리(素砂里)였는데 1914년 4월1일 부천군 계남면 소사리라 하였다. 현, 부천시 소사본동이다.

소사우시장은 여우고개(如牛峴) 넘어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의 뱀내장과 계양산 아래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의 황어장 길목에 위치하게 되어 “옛부터 뱀내장 보고 소사장을 거쳐 황어장을 간다며 이 일대 5일장(2일과 7일) 소전거리로는 유명했다고 한다.”⁸⁾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였는데 1979~1980년 사이 도시화에 밀려 사라졌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 지역에,

벌응절리(伐應節里)에서 돈 벌어서
소사장(素砂場)서 소(牛) 사서
장말(張村)가서 잡아서
먹자골(牧自里) 가서 먹고⁹⁾
조마루(朝宗里) 가서 조졌다¹⁰⁾

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2. 1930년대 쇠장(牛場)의 은어(隱語)

장시(場市)란 조선시대 백성들이 물자를 사고팔던 시장을 이르는 말로 허시(墟市) 또는 향시(鄕市)라고도 불렀다. 장(場)이란 정기적으로 5일장, 10일장 날짜를 정해 놓고 열리는 정기시장을 이르는 말이고, 시(市)란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을 말하는데 그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시전(市廛)이라 하고 시전을 운영하는 상인을 일러 시민(市民)이라 칭하였다. 곧 평시서(平市署)에서 관할하던 서울 각전(各廛)의 상인 계층을 일러 시민이라 칭하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 단순히 도시에서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 부른다.

또한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요즘의 노점상처럼 벌이는 장을 난장(亂場)이라 불렀다. 붓짐장수(裸商), 등짐장수(負商)가 이 장 저 장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도 했다. 그들이 곧 장돌뱅이다. 1930년대 당시 쇠장(牛場)에서는 소를 팔고 살 때 자기들만의 언어 즉 쇠장수들의 은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937년 이창길(李昌吉)이 조사하여 《한글》(한글학회, 1937)제51호에 〈우가은

8) 《부천예총》(1977년 발행)

9) 증언자: 박병화 역곡2동 거주

10) 증언자: 이영호 소사본1동 거주

어(牛價隱語))란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

“여기 紹介하는 말은 현재까지도 牛市場에서 仲介人들 사이에 쓰이는 隱語로서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자기네끼리 소 값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모아 보니 꽤 組織的으로 되어 있어, 혹 우리 語文研究에 한 도움이 되지나 않을까 하여 이에 紹介한다(京畿道の 五十兩은 지금 돈 一圓임)

적은질러	五十兩	너머짜	百兩
너머자질러	百五十兩	명이	二百兩
명이질러	二百五十兩	팅이	三百兩
팅이질러	三百五十兩	적은절	四百兩
절질러	四百五十兩	질러	五百兩
두질러	五百五十兩	임자	六百兩
임자질러	六百五十兩	건너	七百兩
건너질러	七百五十兩	나무	八百兩
나무질러	八百五十兩	뽕뽕이	九百兩
뽕뽕이질러	九百五十兩	장수	千兩
큰명이	二千兩	큰팅이	三千兩
큰절	四千兩	큰질러	五千兩
큰임자	六千兩	큰건너	七千兩
큰나무	八千兩	큰뽕뽕이	九千兩
너머	萬兩	너머자	一萬一千兩
한줌-----	小牛엔 十圓		
	大牛엔 百圓		

어시장의 경매사들이 우렁차고 굵은 목소리로 경매를 진행할 때,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 먹지 못한다. 그런데도 신통방통하게 매우 신속하게 손신호로 낙찰이 이루어지듯, 쇠장수들 역시도 나름대로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정을 붙이고 구전을 받는 거간꾼(居間)은 요즘 말로 중개상으로 이네들은 밀천 없이 소의 말뚝만 옮겨 매서 돈을 번다하고 하여 속칭 ‘말뚝 베끼’ 라고 불렸다. 그 밖에도 소장수가 소의 배를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억지로 풀과 물을 먹이는 짓을 ‘각통질’이라 하고, 채꾼이라고 하는 소몰이꾼이 있어 소를 몰아서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다. 서너 명이 합작하여 자본의 규모가 큰 소장수들을 반출 상인이라 하며 소를 잡아서 파는 사람을 도축상인이라 한다.



그림6) 1956년 소래면 뱀내우시장에서 소 값 흥정을 끝내고 뭉치돈을 세고 있는 모습¹¹⁾

이동 상인들이 전날 맡긴 소에 먹이를 주어 체중을 늘려주는 일은 마방 주인이 했다. 수원의 우시장은 전국에 이름이 난 곳이었다. 장날이면 각지에서 소장수와 농민들이 몰려나와 언제나 성시를 이루었다.

값을 반으로 깎는 것을 ‘점는다’고 하고, 쇠머리는 게냥이라고 하는데 게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소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며 나쁘다고 하는 것은 고래를 숙이고 있어 사람을 치발을 자세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쇠발을 ‘딘음’이라 하고 눈은 ‘저울’이라 하고 기름진 소는 ‘색시 좋다’고 하고 그 반대는 색 ‘시 언짢다’고 한다. 농우(農牛)나 짐소(荷牛)는 성귀소, 식용소는 살소, 비육우(肥肉牛)는 ‘나남치’로 부른다.

또 값을 정하는데 모도라 하면 쇠살쭈¹²⁾에게 지불한 구변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 액수이고 차지라 하면 그것을 빼고 소를 판 사람이 실제 손에 될 수 있는 액수를 말한다. 소의 나이를 감정할 때도 역시 은어를 쓰는데 나릅은 네 살, 다습은 다섯 살, 막졌다는 여섯 살이 넘었다는 뜻이며 앞졌다. 또는 보졌다는 유치(幼齒)에서 영구치로 이를 간 두세 살 된 소를 말한다.¹³⁾

또한 송아지가 1년이 지나면 앞니 두 개를 갈게 되는데 소장수들은 그것을 ‘앞 텃다’고 말한다.

11) 《정범태 사진집 카메라와 함께한 반세기》(2006, 눈빛출판사)

12) 장에서 소를 팔고 사는 것을 흥정 붙이는 사람

13) 《문화원형백과》〈쇠장으로 불리던 특수시장인 우시장〉

2년째 되어 이 하나를 또 같면 ‘날입’ 이라 하고, 네 개째 이같이 하면 ‘집 날입’ 이라 한다. 또한 ‘수가 걸렸다’ 라는 말은 소의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다.

3. 소사우시장(素砂牛市場) 설립

① 1929년 당시 부천군내 시장 현황

시장별 취인고(富川郡 市場別 取引高)¹⁴⁾

시장면	사천시(蛇川市)	황어시(黃魚市)	소사시(素砂市)	비고
소재지	蘇萊面 新川里	桂陽面 場基里	桂南面 深谷里	
개시회수	72	64	72	
시일(市日)	1.6日	3.8日	2.7日	
농산물	829	9,944	12,550	23,323
수산물	3,0034	1,721	500	5,255
직물	2,253	3,624	2,870	8,747
출류	306,376	211,816	-----	518,192
기타	726	2,300	5,940	8,966
계	313,218	229,405	12,860	564,483

상기 기록으로 보면 소사우시장이 출현하기 전에 소사역(現 부천역) 앞에 소시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사시장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 이후 자연스럽게 역 주변에 생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시 심곡리에 소재한 소시시장에는 가축거래가 전무(全無)한 것을 볼 수 있다.

곧 소사시장은 현재의 자유시장과 부천청과물시장(깡시장)의 전신임을 이로 또 알게 된다. 어쨌든 부평수리조합 설립 이후 넓은 부평평야에서 논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소가 필요로 했을 것이므로 우시장 설립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34년 부천군 소사면장이 조선총독부에 〈소사시장부지 신청서〉를 보냈다.

② 소사우시장 설립 배경

일제는 부평평야, 김포평야 일대의 넓은 평야를 개간할 생각으로 1899년 경인철도를 부설할 때 심곡리에 소사역을 설치하였다. 이후 반전(半田), 수진(水津) 등의 일본인들은 조선총독부를 등에

14) 《朝鮮經濟雜誌》(京城商工會議所, 1929)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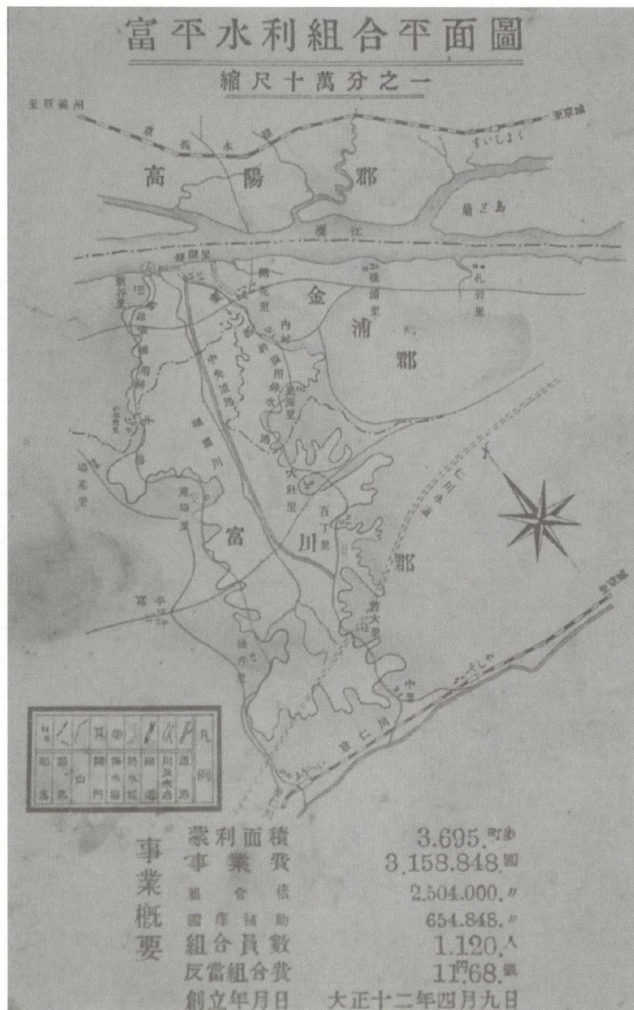


그림7) 부평수리조합 평면도

업고 산미증산계획에 편승하여 부평수리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일제는 1906년 4월 탁지부령 제3호로 공포·실시되던 전문 제13조의 〈수리조합조례〉를 발표하였다. 1923년 4월 9일 부평수리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1923년 10월부터 부평수리조합을 기공(起工)하여 이듬해 1924년 11월 부평수리조합을 완공하였다.

당시 몽리구역(蒙利區域)은 부천군의 부내면·계남면·오정면·계양면과 김포군의 고촌면·양서면으로 면적은 3,600 정보였다. 부평수리조합인가를 받은 즉시 착공하여 신곡리에 양배수(揚排水) 기관실과 한강변에 제방을 쌓았는데 부천 쪽은 동부간선수로라 하고, 김포 쪽은 서부간선수로라 명명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산미증산계획에 의해 부천지역에 부평수리조합이 설

치됨으로써 이 지역의 농지에서 안정적으로 미곡과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평수리조합은 부천군 계남면 심곡리 606-1번지에 위치하였다.

부평수리조합구역 내 지목별(地目別) 토지조사표

(단위:평)

구분	답	전	잡종지	합 계
부천군 계남면	443,250	4,022 특 84,646	308,042 특 181,267	1,021,227
부천군 부내면	962,701	81,966	683,734	1,728,401
부천군 오정면	2,157,012	75,681	339,316	2,572,009
부천군 계양면	2,772,122	90,952	609,967	3,473,041
계	6,335,085	252,621 특 84,646	1,941,059 특 181,267	8,794,678

조합 설립 당시 물리면적은 3641정보(3661정보라는 기록도 있음), 조합원수는 1371명이었다. 부평수리조합구역 내 지목별 토지는 논 633만5085평, 밭 33만7267평, 잡종지 212만 2326평 등 총 879만4678평에 이르렀다.¹⁵⁾

여기서 잡종지가 무려 212만2326평이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잡종지를 논으로 개간하면 어마어마한 차익은 뻔하다. 또한 일제는 식민지 수탈을 위한 축산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1935년 이후에도 일제는 전시 산업체제에 따라 식량자원과 더불어 가축 사육도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 중일전쟁 수행에 따른 군량미 공출로 미곡(米穀)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육도 감소하게 되었다.¹⁶⁾

이에 편승하여 일인(日人)들이 부천 지역에 많이 진출 하였는데 《경기도 부천군 군세일반》(1930년 6월)을 보면 “내지인(内地人)의 호수는 270가구이고, 인구는 남자가 576명이었고 여자가 504명으로 총 1080명이나 부천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벽》(제48호, 1924년 6월 1일 발행)에 일특과원(一特派員)이 쓴 〈일홈 조흔 부천군(富川郡)〉¹⁷⁾을 보면 그 실상을 여실이 알 수 있다.

15) 《부천시사》(1988, 2002)

16) 《부천시사》(2002)

17) 《개벽》(제48호, 1924년 6월 1일)

군내(郡內)에 분포(分布)된 외인(外人)의 세력(勢力)

생산 과잉의 인구는 이 고을에도 297戶 1,062口나 넘치어 발서 그들의 차지한 경지면적이 논으로 1,069정보(町步) 이상, 밭으로는 91정보(町步) 이상, 대지로는 54정보(町步) 이상, 지소(池沼) 및 잡종지 기타로는 490정보(町步) 이상이나 되고 과수(果樹) 재배원(栽培園) 1정보(町步) 이상을 차지한 자(者) 14명 중 12명이나 되는 그들의 년 수익은 소불하(少不下) 23만여원(圓)이나 된다 하고 부평수리조합의 몽리구역(蒙利區域) 중 부천 재주자(在住者)가 차지한 것만 하야도 600정보(町步) 이상이나 되고 삼면환해(三面環海)에서 그들만의 매년 5만원이라는 어획(漁獲)의 이익도 적지 안어 보인다.

가외(加外)에 중국인이 126호(戶) 680구(口) 내(內) 소채상인(蔬菜商人)이 近 100戶 되는 중 그들의 소득이 年 5만원이 된다는 것도 경시(輕視)키 어렵다. 이뿐 아니라 주(朱)??전(田)에 70여 명, 부평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에 1,200여명이나 되는 고력(苦力)의 무리는 그 움죽이는 힘이 엇더한가.

아아 싫어라. 가는 곳마다 삿삿이 밀고 들어서는 쪽발의 등쌀이 아니면 툴툴이 무지막지(無知莫知) 들어 덤비는 오랑캐 성화로 살수가 업시 업친데다가 덤치기로 복배수적(腹背受敵)하는 배달(倍達)의 역군(役軍) 장차 엇지 하라는가?



그림8) 1910년 부평군 석천면 중리 3번지 일대 지적원도(地籍原圖)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인(日人)들의 횡포와 폭리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중에 일본인 반전선사랑(半田善四郎)이 계남면 중리(현, 중동) 일대의 논을 매입하여 반전농림합명회사(半田農林合名會社) 일명, 반전농장을 설립하였다. 1910년 토지조사부를 보면 석천면 중리 3번지는 1필지로 되어있는데 무려 116,638평이나 되는 거대한 토지였다.

이후 반전농장으로 인하여 새로 생긴 마을을 농장말이라 불렀다. 중동 넘말의 북동쪽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은 약대동과 마을이 일부 접친다. 이 외에도 일본인들은 자신의 성을 따서 무전농장(武田農場), 영천농장(令泉農場), 우가농장(牛可農場)을 설립하여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소사역을 통해 일본으로 쌀 수탈을 해갔다.

③ 소사시장부지(素砂市場敷地) 차입금(借入金) 인가신청(認可申請)

〈소사면시장부지 구입비 기채의 건(경기도)(회의록첨부)〉(1934)에 보면 부천군 소사면장 원영상(元榮常)이 1934년 8월 9일 조선총독부에 〈소사시장부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기록은 아래와 같다.

가) 차입금인가신청(借入金認可申請)

一, 借入金：三千圓

二, 借入利率：年六分

三, 借入目的：市場敷地購入資金充當爲

四, 借入先：朝鮮殖産銀行

五, 借入期間：昭和九年(1934)內 一時借入

六, 償還財源：市場使用料 充當

七, 償還期間 及 方法：自昭和九年度(1934)至 昭和二十九年度(1954) 二十年間

나) 시장부지 기채구입(起債購入) 이유

소사시장은 소화(昭和)2년(1927) 9월 6일부로 설치허가를 받은 당시 처한 면 재정은 바로 시장부지의 매입을 허락할 상태가 아니어서 부득이 개인소유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방발전과 더불어 시장의 거래가도 점차 급증하여 소화(昭和)8년(1933)도의 실채(實債)가 18만 원 이상 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축시장(허가수속 중) 병설함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시장의 발전은 실로 현저하게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재촉한 바 있습니다.

다.....(중략)....현재의 빌린 땅도 조만간에 평당 월 10錢(시장부지 2000평에 대한 年 240원)의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 있어 앞으로 이것이 유료 임차를 만약 매년 240원과 같은 다액(多額)으로 빌린 땅 값을 지출하니 시장 경영불능에 봉착하고, 더구나 장래 현 땅값의 10배 이상 달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므로, 그 영향이 되는 바 매우 심대합니다.

이에 살펴보건대 수년 전보다 시장부지의 매입을 단행(斷行)하기도, 본 면의 재정이 전과 다른 없으므로 다른 적당한 재원이 없어 이번 회에 부득이 기채구입(起債購入)을 하고자 합니다.

다) 사용 목적별 면적조(使用 目的別 面積調)

사용목적	소요면적	적요
소옥부지(小屋敷地)	30평	각면(各面) 잡시장 및 미곡시장(米穀市場)
곡물(穀物)	372평	
잡화(雜貨)	178평	
가축(家畜)	1,450평	
계(計)	2,000평	

라) 시장부지일람도(市場敷地一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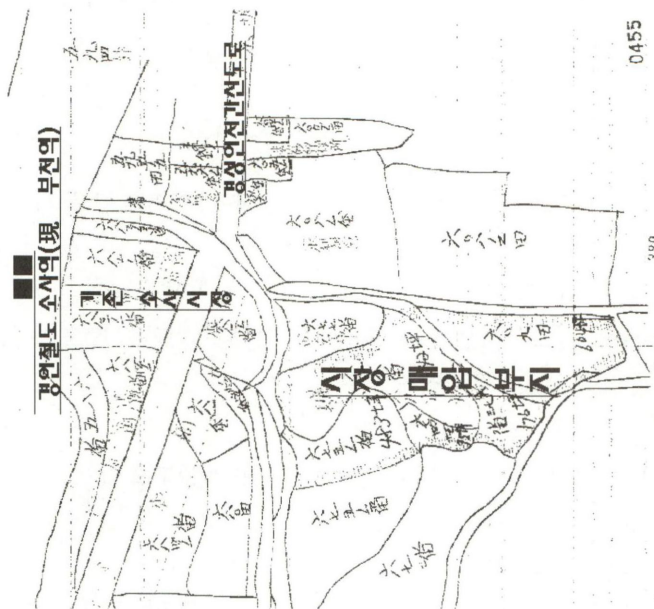


그림9) 1934년 시장부지일람도(市場敷地一覽圖)¹⁸⁾

18) <소사면시장부지 구입비 기채의 건(경기도)(회의록첨부)>(1934)

1912년 토지조사부를 보면 부천군 계남면 심곡리 683번지 畓 424평으로 소유자는 경성부 서부 반석방 자암동(京城府 西部 盤石坊 紫岩洞)에 거주하는 나지학(羅智學)이었다. 이 기록으로 보면 후에 683-1번지로 분할한 시장부지는 채 400평이 안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입시장부지조서(購入市場敷地調書)>¹⁹⁾에 보면 새로 매입하는 시장부지는 아래와 같다.

▲ 1927년 기존에 있는 소사시장 : 계남면 심곡리 683-1번지

▲ 1934년 소사시장부지 매입예정지 : 총 2,000평

소사면 심곡리 609번지 田 604평 / 평당가액 : 150円 / 소유자 : 富平水利組合

소사면 심곡리 673번지 田 176평 / 평당가액 : 150円 / 소유자 : 神部正雄

소사면 심곡리 674번지 田 95평 / 평당가액 : 150円 / 소유자 : 富平水利組合

소사면 심곡리 675번지 畓 483평 / 평당가액 : 150円 / 소유자 : 崔炳熙

소사면 심곡리 676번지²⁰⁾ 畓 642평 / 평당가액 : 150円 / 소유자 : 羅元和

마) 소사우시장(素砂牛市場) 설립허가

상기한 <소사면시장부지 구입비 기채의 건(경기도)(회의록첨부)>(1934)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소사시장은 협소한 관계로 우시장 설립이 어려워 길 건너편에 소사우시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아래는 당시 신문기사이다.

▲ 기사제목 : 신설(新設)된 소사시장(素砂市場)에서 부정(不正) 형기(衡器)를 사용(使用)

신문명 : 朝鮮中央日報

발행년월일 : 1934년 10월 30일

기사내용 : 신설(新設)된 소사시장(素砂市場)에서 부정(不正) 형기(衡器)를 사용(使用) 피 해농민의 밀고를 받고 인천서 조사 착수.

▲ 기사제목 : 출원중(出願中)이던 소사우시장(素砂牛市場) 26일부로 허가

신문명 : 조선중앙일보

발행년월일 : 1934년 11월 28일

기사내용 : 수년전부터 인천경찰서에 출원한 후 인가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부천

19) 《소사면시장부지 구입비 기채의 건(경기도)(회의록첨부)》(1934)

20) 심곡리 676번지는 소사우시장 부지이다.

군 소사면 우시장이 금 26일에 비로소 허가가 나왔는데 來 12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²¹⁾

▲ 기사제목 : 소사(素砂)에 우시장(牛市場)

신문명 : 동아일보

발행년월일 : 1935년 1월 10일

기사내용 : 경인선 소사(京仁線 素砂)에 가축시장이 인가 되었다 함은 기보 하였거니와 그 후 동면에서는 시민일동과 분망하였든바 제반의 설비가 완성되어 내 11월(음12월 17일)부터 개시한다는데 계수리조합에서는 일천오백(一千五百)원의 거금으로 내객을 위하여 경품(景品)을 하며 조선 음악의 연출과 곡예단까지 초빙하는 등 +여 년간 갈망 하든 그 성의와 힘을 다하여 우시장의 발전을 축하한다고 하며 경품권은 내객일인 매로 그 상품은 여좌하다.

▲ 기사제목 : 소사가축시장(素砂家畜市場)

신문명 : 동아일보

발행년월일 : 1935년 2월 6일

기사내용 : 경인선 소사가축시장은 지난 1월 21일에 개시하여 아직 한 달도 못 되었건만 소의 입장수와 매매수가 예상이외로 만해서 비상한 성적을 짓고 있는데,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나 앞으로의 발전은 매우 신속하리라고 한다.

▲ 기사제목 : 소사 시내전화(素砂市內電話)

신문명 : 동아일보

발행년월일 : 1935년 9월 27일

기사내용 : 경성(京城)과 인천(仁川) 양대 도시의 중앙에 처한 소사(素砂)는 교통을 비롯하여 산업적으로 장족의 진보를 보여오든 중 시내 전화도 개통하게 되어 25일에 가설 공사가 끝나고 동 28일에는 개통식을 하리라고 한다.

▲ 기사제목 : 각지에서 반탁데모

신문명 : 동아일보

발행년월일 : 1947년 6월 25일

기사내용 : 가랑비가 솔솔 내리는 단오날 하오 3시경 소사시장에는 조수가 밀리듯 남녀노소 만여명이 원치 않는 탁치정부를 반대하며 자주독립정부를 갈망하는 피 끓는 진

21)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신문자료

심에서 한데 뭉쳐 태극기를 휘두른 광경은 28년 전 기미운동과 같은 감을 주었으며 경
인가로에일시 대 혼잡을 이루었는데 경찰의 제지로 해산하고 말았다.

상기 자료를 보면 소사우시장은 1934년 11월 26일부로 허가가 나왔는데, 10월 30일에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시장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개시는 11월(음12월 17일)에 하였다.

개시(開始) 얼마 뒤 1935년 2월 6일 매매수가 예상 이외로 많다는 것으로 보아 매우 성황을 이
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달 뒤에 소사시장 내에 전화를 가설하여 1935년 9월 28일 개통식을 한
다는 신문기사로 보아 시장에는 사람과 소로 북적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사우시장 소사리(素砂里)로 이전

소사역(현, 부천역) 앞 심곡리 부천청과물시장(일명, 깡시장) 일대에 있었던 소사우시장은 이후
1949년 소사읍 소사리로 이전을 한다. 이전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천군 소사면에 관한 조
서>(1941)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시장 부지는 겨우 1,360평으로 계절에 의지하고 협소한 느낌이다. 장
래 주택지로 발전되는 장소이므로 이전을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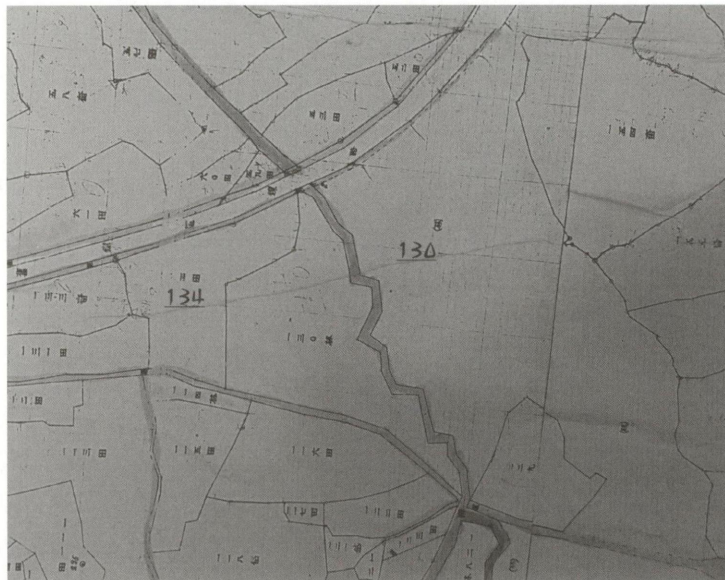


그림10) 1910년도 부평군 석천면 소사리 지적원도 130번지와 134번지가 우시장 자리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전세(戰勢)가 좋지 않아 그 해에 이전을 하지 못하고 1949년에서야 소사리로 이전을 하였다. 소사리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1949년 3월 30일 130-2번지에서 분할 등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시장 이전부지는 소사읍 소사리 130번지와 134번지인데 소유자는 모두 이계현(李啓賢)이었다. 1912년도 소사리 토지조사부를 보면 130번지는 임야 1,839평이었고, 134번지는 田 1,142평이었다. 이 중 130번지의 경우에는 130-2로 분할하여 우시장부지로 매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몇 분들로부터 증언을 들어 보았다.

“우시장은 해방 전 신천리에 소래장이 있었다. 부천에는 소시장이 있는데, 이게 본래는 심곡1동 민원실인가 깊은구지 민원실 하나 있었잖아, 그 자리가 원래는 우시장 자리다. 그게 이전해온 거다. 우시장에서 돼지까지 다 팔았다.”²²⁾ - 증언자 : 소사본동 김순화(84세)

“내가 젊었을 적에 이전하는 것을 보았고, 우시장 사진은 우리 집에 카메라가 있어서 1957년 여동생을 앞에 두고 찍은 것이다.” - 증언자 : 소사본동 임광인(76세)

“괴장나루에 다리가 생기기 전이니까, 6.25 전쟁 끝나고 50년대 중반일거여. 그때 외삼촌이 60년대 중반까지 나룻배를 했어. 다리가 없을 때니 수입이 좋았지. 하루는 안성에서 괴산 외가댁에 놀러 갔다가 소 수 십 마리가 나루를 건너는 것을 보았는데, 소 한 마리당 얼마인가를 받더라고. 소장수들이 경상도에 내려가서 소를 사서는 어디루 해서 올라 가냐면, 괴장나루에서 배로 건너서는 음성 무극으로 해서 이천 돌원을 지나서 이천 읍면 용산동으로 해서 죽산 미륵당을 지나 용인 백암으로 지나가는데 이 길이 옛날 영남길이여. 소장수들이 소를 끌고는 줄느러미를 길게 하고 사뭇 소를 끌고 가는데 볼만 했어. 경상도에 가서 소를 싸게 사와야 부천의 땀내장이나 소사장이나 수원우시장 그러구 서울 마장동 우시장에 가서 팔면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그 먼 데까지 가서 소를 사 온다는 거여.” - 증언자 :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양태석(86세)

22) 소사마을가꾸기기획단 신승직 단장이 2015년 12월 14일 김순화 씨와 인터뷰한 내용임.



그림11) 소사리에 있었던 소사우시장 1957년도 모습 -사진제공 임광인(1941년생)



그림12) 소사리 소사우시장에서 1970년 부천군 제1회 가축품평회 모습.
왼쪽에 보이는 나무가 수령 800여 년의 느티나무 가지 일부이다. -출처 : 부천시청



그림13) 소사리 소사우시장에서 1970년 부천군 제1회 가축품평회 모습. 출처 : 부천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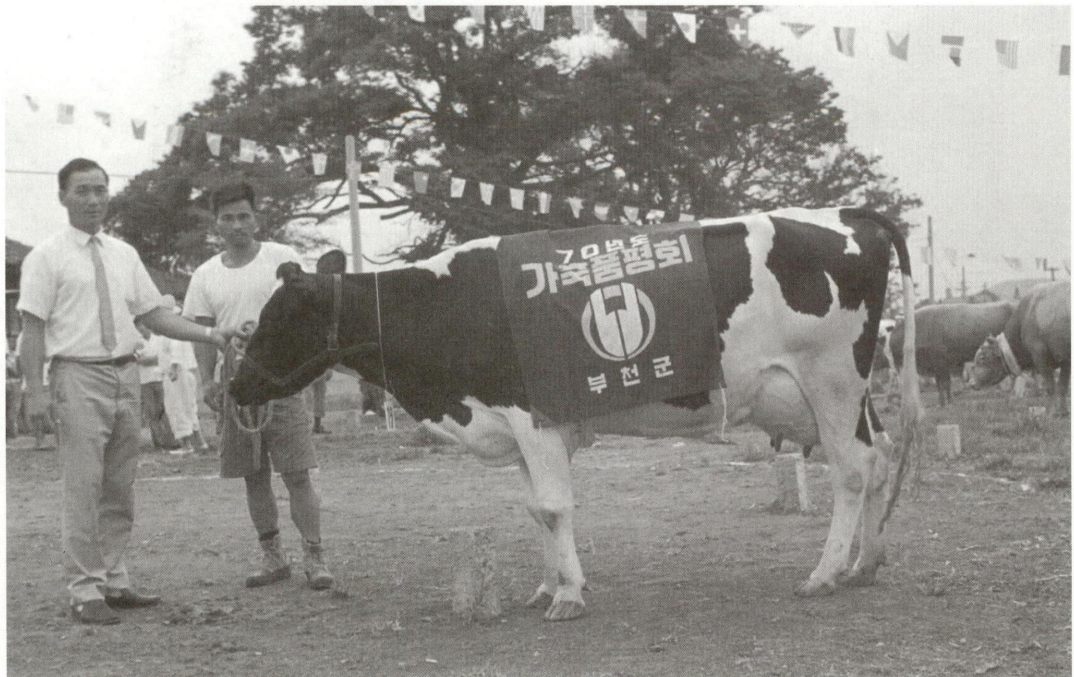


그림14) 소사리 소사우시장에서 1970년 부천군 제1회 가축품평회 모습. 출처 : 부천시청

가) 1970년 7월 29일 군유재산(소사리 가축시장)지목변경 및 합병등기

1949년 소사리로 우시장을 이전한 이후 1958년, 1960년 등 여러 번에 걸쳐 수 십 필지(匹地)로 분할하였다. 우시장이 성황을 이루자 주변에 선술집과 국밥집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12)의 사진에도 보이지만 용인옥이란 선술집 간판이 보인다. 당시에 있었던 선술집을 운영하던 집이 지금도 한 채 남아 있다. 이하 성남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문헌 자료이다.

기안용지

문서번호 : 1272

제 목 : 군유재산(소사리 가축시장) 지목 변경 및 합병 등기

년 일 : 1970년 7월 29일

군수서명 : 1970년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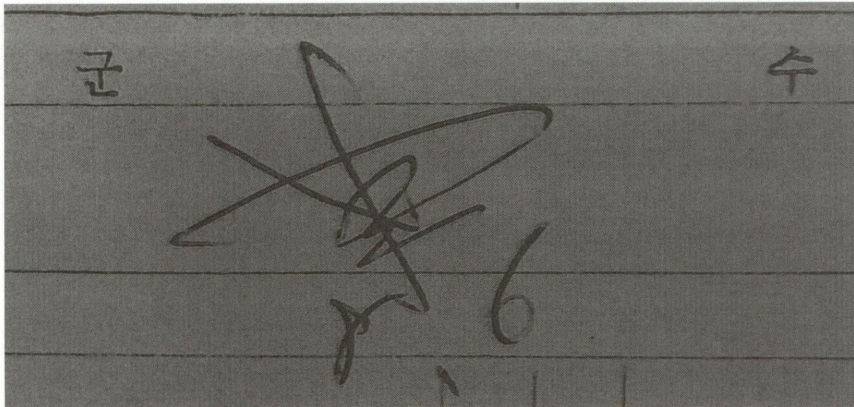


그림15) 부천군수 노창현의 서명

① 소사읍 소사리 130-30번지 잡종지 815.8평은 소사리 가축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상의 지목(地目)은 田 23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등기상의 지목을 변경 및 합병등기를 이행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② 지목 변경 및 합병 등기코저 하는 토지의 표시

소사읍 소사리 134-19 田 107평

134-20 田 74평

130-52 田 14평

130-54 田 14평
130-49 田 12평
134-34 田 24평
130-35 田 78평
130 33 田 52평
134-21 田 22평
130-30 田 41평
130-31 田 74평
130-32 田 13평
130-34 田 58평
130-36 田 68평
134-26 田 0.8평
130-45 田 10평
130-47 田 17평
134-23 田 19평
130-53 田 12평
130-55 田 13평
134-24 田 16평
134-25 田 11평
130-51 田 11평

총 23필지 815.8평

③ 지목 변경 및 합병등기 후의 표시

소재지 : 소사읍 소사리

지 번 : 130-30

지 목 : 잡종지

지 적 : 815.8평

첨부 : 토지대장등본 각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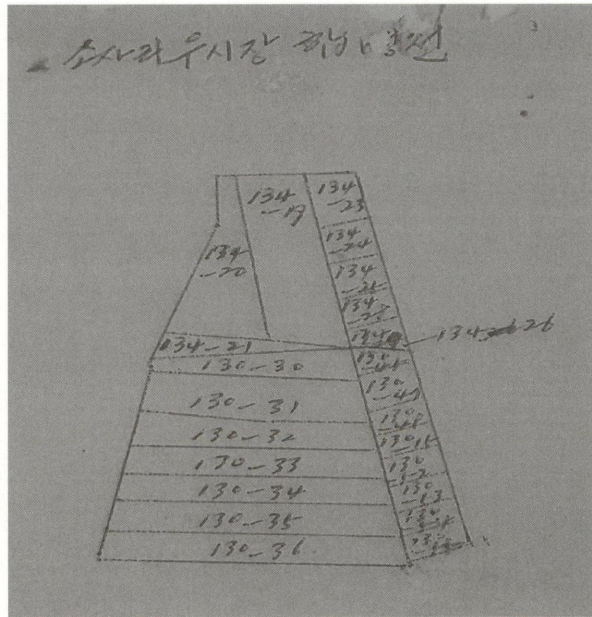


그림16) 소사리 우시장 합병 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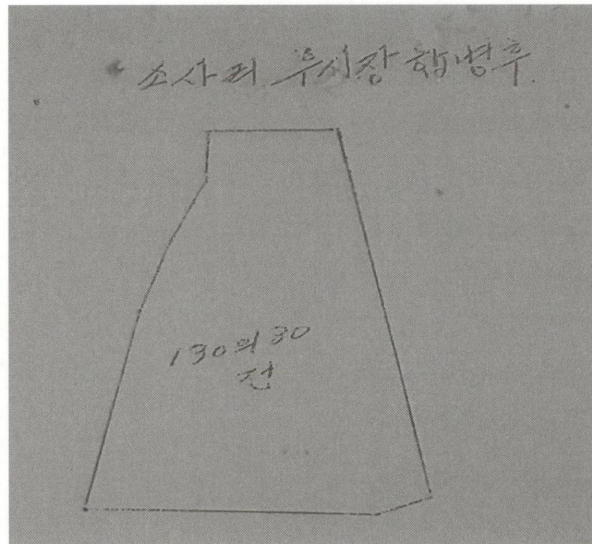


그림17) 소사리 우시장 합병 후 도면

나) 1976년~1978년 소사우시장(素砂牛市場) 자료

소사우시장과 관련한 자료가 많지는 않다. 다만 《가축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최승기, 1979 안성산업대학교) 부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논문에서 소사우시장 자료

가 약간이나마 기록되어 있다. 다만 최승기는 논문에서 “조사가 잘 되지 않은 수원, 포천, 부천 등의 가축시장에 대하여서는 농협 축산과에 비치한 경기도 가축시장 카드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천의 가축시장은 현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기간은 1978년 8월 10일~10월 30일까지, 2차 조사는 1979년 4월 1일~6월 30일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하 논문자료는 최승기(崔承基)가 1978년에 현지조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고찰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알려둔다.

〈表 I-1〉 지역별 가축시장 분포(地域別 家畜市場 分布)

본 조사는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한 센서스조사이므로 현재 경기도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40개의 가축시장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원을 비롯한 2-3개소는 부분적으로 조사가 불능이었다. 각 군시읍면별 표본의 수는 表 I-1과 같다.

시군	가축시장면	가축시장수	비율
이천	이천	1	2.5
양평	청평, 용무, 양서, 양평, 양동, 곡주, 용문	7	17.5
강화	강화	1	2.5
김포	계양, 양곡	2	5
평택	평택, 안중	2	5
안양 ²³⁾	소래	1	2.5
용인	김량, 백암	2	5
안성	안성, 주천, 죽산	3	7.5
연천	연천	1	2.5
여주	여주, 율촌	2	5
가평	가평, 신천, 현리	3	7.5
파주	금촌	1	2.5
고양	일산	1	2.5
양주	관능전, 입암, 마석, 덕소, 의정부	5	12.5
광주	경안	1	2.5
부천	소사	1	2.5
포천	가채	1	2.5
수원	수원, 오산, 발안, 사강, 조암	5	12.5
계	40	40	100

23) 시흥(始興)의 오류로 보인다. 소래는 시흥지역이다. 이하 안양은 모두 시흥으로 고치기 바람.

거래 규모별 분포는 1963년 가축법 시행과 더불어 1964년 당시 전국의 가축시장 수는 667개소에서, 그 후 폐쇄되거나 통합되어 1978년말 현재 480개소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축시장 수는 거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의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도 통폐합의 여지가 많으며 경기도의 경우 거래 규모별 가축시장의 분포 현황이다. 表 II-6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表 II-6〉 우매매두수별 시장 분포(牛賣買 頭數別 市場 分布)

郡	內容	50頭 以下		51~100頭 以下		101~250頭 以下		合計	平均
	區分	市場數	比率	市場數	比率	市場數	比率		
利川						1	100,00	175	175
楊平	6	85,71	1	14,29				196	28
江華	1	100,00						42	42
金浦	2	100,00						74	37
平澤			1	50,00	1	50,00		192	97
安養						1	100,00	144	144
龍仁			2	100,00				154	77
安城	2	66,67				1	33,33	301	100,3
漣川						1	100,00	105	105
驪州	1	50,00	1	50,00				83	41,5
加平	3	100,00						85	28,3
坡州						1	100,00	140	140
高陽	1	100,00						26	26
楊州	2	40,00	3	60,00				255	45
廣州	1	100,00						30	3012
富川	1	100,00						12	12
抱川						1	100,00	166	166
水原	---		---			---		---	---
計		20	57,14	8	22,86	7	20,00	2,150	61,4

〈表Ⅱ-2〉지역별 가축시장의 면적과 건평(地域別 家畜市場의 面積과 建坪)

郡	市場數	家畜市場 總數地面積		繫留場의 總面積		施設物의 總面積		總 말뚝數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利川	1	2,000	2,000	1,500	1,500	5	5	760	760
楊平	7	3,229	461,3	3,229	461,3	25	3,6	700	350
江華	1	1,000	1,000	800	800	6	6	200	200
金浦	2	1,389	694,5	1,389	694,5	16	8	400	200
平澤	2	5,500	2,750	5,500	2,750	160	80	516	258
安養	1	960	960	960	960	10	10	420	420
龍仁	2	2,010	1,005	2,010	1,005	130	130	470	235
安城	3	4,581	1,527	4,347	1,479	144,15	48,1	848	283
漣川	1	700	700	600	600	10	10	180	180
驪州	2	1,174	587	1,040	520	13	6,5	320	160
加平	3	1,660	553,3	1,580	526,7	11,5	3,8	284	94,7
坡州	1	2,000	2,000	1,500	1,500	30	30	500	500
高陽	1	725	725	500	500	650	650	350	350
楊州	5	6,907	1,381,4	1,396	465,3	37	7,4	384	128
廣州	1	1,377	1,377	1,377	1,377	7,5	7,5	300	300
富川	1	1,000	1,000	150	150	8	8	-----	-----
抱川	1	2,000	2,000	3000	300	10	10	-----	-----
水原	5	8,143	1,628,6	-----	-----	-----	-----	-----	-----
計	40	46,355	1,159	28,268	856,6	1,273,15	42,4	6,632	255,1

〈表Ⅱ-10〉 지역별 장당 평균 개시일수(地域別 場當 平均 開市日數)

郡	1976		1977		1978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利川	-----	-----	-----	-----	-----	-----
楊平	72	72	493	70.4	-----	-----
江華	72	72	72	72	72	72
金浦	145	72.5	146	73	144	72
平澤	140	70	142	71	140	72
安養	79	79	-----	-----	74	74
龍仁	-----	-----	-----	-----	-----	-----
安城	209	69.7	210	70	206	68.7
漣川	71	71	71	71	-----	-----
驪州	142	71	140	70	67	33.5
加平	216	72	216	72	216	72
坡州	72	72	72	72	-----	-----
高陽	72	72	72	72	36	36
楊州	360	72	360	72	285	71.3
廣州	-----	-----	-----	-----	-----	-----
富川	73	73	73	73	73	73
抱川	72	72	72	72	72	72
水原	-----	-----	-----	-----	-----	-----
計	1,795	71.8	2,139	71.3	1,385	66.0

〈表Ⅲ-1〉 지역별 가축의 출장두수(地域別 家畜의 出場頭數) --- (牛)

郡	1976(A)		1977(B)		1978(C)		備考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B/A	C/B
利川	----	----	----	----	----	----	----	----
楊平	36,478	5,211	23,895	3,143.6	20,645	2,949.3	▷34.49	▷13.60
江華	6,375	6,375	4,915	4,915	4,265	4,265	▷22.90	▷13.22
金浦	15,644	7,822	8,401	4,200.5	7,943	3,971.5	▷46.30	▷5.45
平澤	30,903	15,451.5	27,815	13,907.5	25,981	12,930.5	▷9.99	▷6.59
安養	14,016	14,016	15,977	15,977	8,026	8,026	+13.00	▷49.76
龍仁	----	----	----	----	----	----	----	----
安城	34,433	11,477.7	31,100	10,366.7	20,068	9,356	▷9.68	▷9.75
漣川	9,604	9,604	6,543	6,543	6,998	6,998	▷31.87	+6.95
驪州	8,622	4,311	9,407	4,703.5	8,792	4,396	+9.10	▷6.54
加平	13,405	4,468.3	11,088	3,696	9,766	3,255.3	▷27.28	▷11.92
坡州	13,148	13,148	11,659	11,659	10,683	10,683	▷11.32	▷8.37
高陽	4,277	4,277	4,160	4,160	3,300	3,300	▷2.74	▷20.67
楊州	28,071	5,614.2	35,413	7,082.6	30,487	7,621.8	+26.16	▷13.91
廣州	----	----	----	----	----	----	----	----
富川	3,955	3,955	3,015	3,015	1,767	1,767	▷23.77	▷41.49
抱川	12,865	12,865	14,764	14,764	12,246	12,246	+14.76	▷17.05
水原	----	----	----	----	----	----	----	----
計	231,796	7,447.3	208,052	6,711.4	178,967	5,965.6	▷10.24	▷13.98

〈表Ⅲ-2〉 지역별 가축 매매두수(地域別 家畜 賣買頭數)---(牛)

郡	1976(A)		1977(B)		1978(C)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B/A	C/B
利川	-----	-----	-----	-----	-----	-----	-----	-----
楊平	21,156	3,022.3	13,148	1,916.9	11,928	1,704	▷36.58	▷11.10
江華	4,787	4,787	3,707	3,707	3,013	3,013	▷22.56	▷18.72
金浦	6,476	3,238	5,600	2,800	5,309	2,654.5	▷13.53	▷5.20
平澤	15,828	7,914	14,349	7,174.5	13,481	6,740.5	▷9.34	▷6.05
安養	9,227	9,227	9,462	9,462	4,637	4,637	+ 2.55	▷50.99
龍仁	-----	-----	-----	-----	-----	-----	-----	-----
安城	23,061	7,687	21,024	7,008	20,924	6,974.7	▷8.83	▷0.47
漣川	3,968	3,968	3,389	3,389	3,651	3,651	▷14.59	+ 7.73
驪州	7,077	3,538.5	6,784	3,392	6,251	3,125.5	+ 4.14	▷7.86
加平	8,388	2,796	7,614	2,538	6,032	2,2010.7	▷9.23	▷20.78
坡州	10,113	10,113	8,550	8,550	8,532	8,532	▷15.46	+ 0.21
高陽	2,342	2,342	2,026	2,026	846	846	▷13.49	▷58.24
楊州	18,848	3,769.6	18,528	3,705.6	12,470	2,494	▷1.70	▷30.70
廣州	-----	-----	-----	-----	-----	-----	-----	-----
富川	1,204	1,204	889	889	860	860	▷26.16	▷3.26
抱川	11,795	11,795	10,821	10,821	10,319	10,319	▷8.26	▷4.64
水原	-----	-----	-----	-----	-----	-----	-----	-----
計	4,144,270	4,653.9	126,161	4,069.7	108,253	3,608.4	▷12.55	▷14.19

〈表Ⅲ-3〉 시장당 일평균 매매두수(市場當 日平均 賣買頭數) ---(牛) 1

郡	1976 (A)				1977 (B)			
	牛 (A)		豚 (A)		牛 (B)		豚 (B)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利川								
楊平	202	28,9	2	2	191	27,3	2	2
江華	66	66	109	109	52	52	108	108
金浦	89	44,5	16	16	76	38	29	29
平澤	226	113	52	26	201	100,5	63	31,5
安養	112	112	-----	-----				
龍仁								
安城	323	107,7	31	15,5	204	98	28	28
漣川	56	56	10	10	48	48	10	10
驪州	00	49,5	62	62	95	47,5	60	60
加平	104	34,7	-----	-----	104	34,5		
坡州	141	141			120	120		
高陽	35	35			32	32		
楊州	259	51,8	7	7	12	12	9	9
廣州								
富川	16,5	16,5	7	7	12	12	9	9
抱川	149	149	10	10	136	136	10	10
水原								
計	1,877,5	60,6	306	25,5	1,616	53,9	350	31,9

〈表Ⅲ-3〉 시장당 일평균 매매두수(市場當 日平均 賣買頭數) --(牛)2

郡	1978 (C)				牛		豚	
	牛 (C)		豚 (C)		(A/B)	(C/B)	(B/A)	(C/B)
	合計	平均	合計	平均	增減率	增減率	增減率	增減率
利川	175	---	---	---	----	----	----	----
楊平	196	28	---	---	▷5.45	+2.62	0	▷100.00
江華	42	42	154	154	▷21.21	▷19.23	▷0.92	+42.59
金浦	74	87	14	14	▷14.61	▷2.63	+81.25	▷51.72
平澤	192	97	41	20.5	▷11.06	▷4.48	----	----
安養	144	144	----	---	----	----	----	----
龍仁	154	77	---	---	----	----	----	----
安城	301	100.3	26.3	8.8	▷8.98	+2.38	▷9.68	▷6.07
漣川	105	105	---	---	▷14.29	+118.75	0	▷100.00
驪州	83	41.5	60	60	▷4.04	▷12.63	▷3.23	0
加平	85	28.3	----	---	0	▷18.27	----	----
坡州	140	140	----	---	+14.89	+16.67	----	----
高陽	26	26	97	97	▷8.57	▷18.75	----	----
楊州	225	45	14	14	▷1.54	▷11.76	+342.86	▷54.84
廣州	30	30	----	---	----	----	----	----
富川	12	12	40	40	▷27.27	0	+28.57	+344.44
抱川	166	166	15	15	▷8.72	+22.060	0	+50.00
水原	----	----	----	----	----	----	----	----
計	2,150	61.4	461.3	38.4	▷13.93	+8.86	+14.71	+31.42

〈表Ⅲ-4〉 지역별 가축매매율(地域別 家畜賣買率)

郡	牛					
	1976		1977		1978	
	전체매매율	장당매매율	전체매매율	장당매매율	전체매매율	장당매매율
利川	-----	-----	-----	-----	-----	-----
楊平	58,00	58,00	56,15	56,05	57,78	57,78
江華	75,09	75,09	75,42	75,42	70,64	70,64
金浦	41,40	41,40	66,66	66,66	66,84	66,84
平澤	51,22	51,22	51,59	51,59	51,59	51,59
安養	65,83	65,83	59,22	59,22	71,77	57,77
龍仁	-----	-----	-----	-----	-----	-----
安城	66,97	66,97	67,66	67,66	74,55	74,55
漣川	41,32	41,32	51,80	51,80	52,17	52,17
驪州	82,08	82,08	72,12	72,12	71,10	71,10
加平	62,57	62,57	68,67	68,67	61,77	61,77
坡州	76,92	76,92	73,33	73,33	79,87	79,87
高陽	54,76	54,76	48,70	48,70	25,64	25,64
楊州	67,14	67,14	52,32	52,32	40,90	40,90
廣州	-----	-----	-----	-----	-----	-----
富川	30,44	30,44	29,49	29,49	48,67	48,67
抱川	91,68	91,68	73,29	73,29	84,26	84,26
水原						
計	62,24	62,24	60,64	60,64	60,49	60,49

이상 상기한 《가축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최승기) 자료로 보면 부천시 소사우시장의 가축의 매매건수가 1976년 1,204두수에서 1977년 889두수로 1978년에는 860두수로, 매년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후 1979년 자료에는 소사우시장 자료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그 즈음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전통 벼농사에 농우(農牛)없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부천시도 당시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또한 농기구가 기계화 되면서 가축시장의 감소는 불가피 하였을 것이다.

다) 소사우시장이 사라진 이후 소사종합시장 등장



그림18) 점선 안쪽이 옛 소사우시장터이다.

우시장은 1979년~1980년 사이에 사라졌다. 그러나 기존 우시장 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던 소위, 골목시장 또는 도깨비시장으로 불리던 시장이 1981년 이후에 소사종합시장이 들어섰다. 그림16) 소사리 우시장 합병 전 도면에 보이는 20평 내외의 점포들은 국밥집, 선술집, 쌀집, 이발소 등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초창기에는 이름도 없이 우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소사종합시장이다.

그런데 1981년 9월 3일²⁴⁾ 우시장터 인근인 부천시 소사본동 78번지에 대보시장(현, 세영주상복합타워)이 건립되었다. 건물을 짓고 먼저 대보시장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보시장을 더 잘 안다. 그때 소사종합시장은 이름은 없었지만 우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점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시장 행색을 해왔는데, 대보시장이 먼저 생기게 되자 줄지에 골목시장 또는 도깨비시장으로 불렸다.

24) 《부천시사》(1988)

지금도 노인들은 골목시장이라 부르고 소사종합시장을 물어 보면 잘 모르는데, 대보시장이 어디냐고 하면 대변에 어디라고 위치를 알려준다. 아닌 게 아니라 시장 상인 임성준은 대보시장이 폐장된 이후 소사종합시장 명칭을 정할 때 대보시장으로 명명하려 했다고 하였다.

3. 소사동(素砂洞)과 장고개(場古介) 지명 유래

① 소사동(素砂洞)의 지명 유래

소사동은 고유어로 ‘소새’로 부른다. 《호구총수》(1789)에 보면 부평부 옥산면 소사리(素沙里)였는데, 1895년 ‘사(沙)’자에서 ‘사(砂)’자로 바뀌어 ‘소사리(素砂里)’²⁵⁾로 기록하였다. 이후 1914년 부천군 계남면 소사리가 되었고 1931년에는 소사면으로 개칭되었고 1941년에 소사읍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73년 부천시가 되면서 소사동이 되었다.

소사동은 과거 소사1리(윗소새), 소사2리(아랫소새), 소사3리(삼거리에서 쌍느티나무 부근), 소사4리(영신마을), 소사5리(철로변)로 나뉘어 있었다. 이후 1993년 2월 1일부터 소사구는 ‘본(本)’자를 붙여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으로 부르고, 원미구는 소사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원미구 소사동은 1번지부터 시작되고, 소사구 소사본동은 80번지부터 시작된다. 소사동 지명유래는 《부천역세조서》(1956년 12월 31일) 〈소사(素砂)란 지명(地名)〉²⁶⁾에서,

“소사리(素砂里)라고 언제부터 불리고 있는지 기록은 없다. 여기서 《부천역세조서》(1956년 12월 31일)의 기록을 보면 “역명(驛名)의 기원은 경인선이 부설되기 이전에는 역전(驛前) 가옥 수십 호에 불과한 벽촌이었고, 소사역으로부터 서울 방면으로 약 800m 가량 거리를 두고 소사천(素砂川)이 있어, 그 천변을 이용하여 부설 당시 ‘사리선(砂利線)’이 있어 ‘소사’라 하면 사리(砂利)를 연상할 만한 채굴과 소사리에 수호 부락이 있어 그 지명을 채택하여 소사역이라고 하였음”

이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후에 한자 뜻에 이끌려 흰 모래가 많은 지명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그러나 흰 모래톱은 주로 큰 하천이나 강가에 생기는 것인데 소사동에는 백사장이 형성될 만한 큰 하천이 없다. 또한 흰 모래라면 당연히 백사리(白沙里)로 써야 하는데 소사동의 소사

25)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조선총독부)

26) 《부천예총(富川藝總)》(1977년)

(素沙)는 한자 구조상으로도 모래와 맞지 않는다.

‘소(素)’ 자는 ‘본디’ 또는 ‘바탕’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양털이나 목화를 가지고 물레질로 옷감을 짜면 바탕이 하얀 무명천이 된다. 아직 물감을 들이기 전이니 당연히 흰김이 된다. 이로 인하여 하얗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는 의미로 질박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말이다. 소반(素飯)이니, 소찬(素饌)이니, 소식(素食)이니 하는 말들은 하얀 밥이나 하얀 반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나 생선 없이 소박하게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이다.

문헌을 조사해보니 <여지도>(1736~1767), <지승>(18세기 후반), <해동지도>(1750~1751) 등에 현재의 여우고개(如牛峴)가 새고개(莎峴)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소설가 이태준(1904~?)의 제3단 편집 <돌다리>(1943, 박문서관)에서 낚시를 주제로 쓴 <무록(無綠)>에 보면

“다음으로 가본 데가 소래저수지다. 경인선으로 가 소새(素砂)서 내려 마침 빠쓰가 있으면 대야리(大也里)까지 타고 없으면 장창 십리 길을 걸어야 하는데다 얕은 줄밭이 많고 깊은 데는 돌로 쌓은 둔덕에 앉게 됨으로 바닥도 좋지 못하고 사람도 너머 뜨거워진다. 그러나 가끔 손아귀가 번 붕어를 낚을 수 있는 맛에 공일날 같은 때는 무려 삼사십 명은 모이는데다.”



그림19) <여지도>(1736~1767) 부평부지도에 새고개(莎峴)로 표기되었다.

라고 표현하였다. 낚시를 좋아했던 이태준은 당시 정지용(1902~1950)이 1943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90-5번지로 이사 온 뒤에, 정지용을 만나러 왔다가 여우고개 넘어 소래저수리로 낚시를 갔던 모양이다. 어쨌든 소사동은 모래와 관련한 지명이 아니라 역새와 관련한 지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19,20의 지도에서 보듯이 현, 여우고개(如牛峴)를 한결같이 ‘새고개(莎峴)’로 표기하고 있다. 《호구총수》(1789) 이전의 소사리와 관련한 문헌을 찾으면 ‘소사리(素莎里)’로 기록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왜 새고개로 표기했느냐의 여부이다. ‘새고개(莎峴)’는 지명학에서 역새가 많은 고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사동은 하얀 역새꽃에 의미 부여를 하여 새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힐 소(素)’자를 써서 소사리(素莎里)로 이름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1973년 부천시로 승격할 때, 표절리(表節里)를 춘의봉(春意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춘의동으로 개칭하였다. 이때 ‘뜻 의(意)’자로 써야 하는데 공무원이 ‘옷 의(衣)’자로 오기하여 춘의동(春衣洞)이 된 것처럼, 소사동 역시도 후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사(莎)’자를 ‘사(沙)’자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역새와 관련하여 ‘사(莎)’자를 쓰는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 부천시 여월동에도 역새가 많이 자라는 둔덕진 곳이어서 유래한 새번덕이(莎番德)²⁷⁾가 있다. 경상도 문경 새재(鳥嶺) 역시도 역새가 많은 고개라고 하여 ‘새재’로 불렀는데 한자로는 ‘초점(草帖)’이라 썼다. 이후 ‘새 조(鳥)’자를 써서 ‘조령(鳥嶺)’으로 변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애초에 부르던 새재는 여전히 부르고 있다.

소사동 역시도 소사(素莎)→소사(素沙)→소사(素砂)의 변천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말로 여전히 ‘소새’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런데 여우고개 넘어 땃골(大谷)로 불렀던 시흥시 대야동 일대는 과거 인천부 신고개면(新古介面 / 新峴面) 지역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지리지》(1911) 인천부 신현면 고개명에 “소식고개(素砂峙)-땃골(大谷, 현재의 시흥시 대야동)”로 기록되어 있다.

한자는 비록 다르지만 사현(莎峴), 신현(新峴), 신고개(新古介)는 우리말로 모두 ‘새고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말 ‘새고개’에 방점을 찍어 놓고 보면 적어도 모래와 관련된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소사동의 지명 유래는 역새가 많은 고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소사본동에 설치되는 역명을 소새울역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다

27) 《京畿鄉土史學》제20집(한국문화원 경기도지회, 2015)

-양경직 〈富川地域 原州元氏 世葬地 鄉土地名 研究〉

행히 부천시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후 도시철도공사에서 소새울역명 지명유래에 대해서 필자에게 의뢰가 와서 역사와 관련한 지명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역의 전통성과 언어를 살리는 면에서 ‘소새울역’은 지극히 타당한 역명이라고 본다.

② 장고개(場古介) 유래

뱀내장 ↔ 소사장 ↔ 황어장
 (시흥 신천동) (부천 소사본동) (인천 장기동)



그림20) <해동지도>(1750-1751) 부평부지도에 나타나는 대산(大山)은 지금의 성주산(聖柱山)이다.
현재의 여우고개가 당시에는 새고개(莎峴)로 표기되었다.

뱀내장에서 황어장을 가든, 황어장에서 뱀내장을 가든 반드시 소사장을 거쳐 여우고개(如牛峴)를 넘어 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을 보러 넘어 다니는 고개라 하여 ‘장고개(場古介)’로도 불렀다. 그렇지만 지도에서 보듯 본래의 고개 이름은 역사가 많은 고개라고 하여 새고개(莎峴)로 부르다가, 산의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와우산(臥牛山)으로 부른 이후에 여우고개(如牛峴)로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한자가 어렵다고 우리말로 여우고개로만 부르다가 보니 진짜 여우(狐)로 둔갑을 하고 말았다.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삼거리에서 시흥시 신천동 신천육교삼거리에 이르는 도로명을 호현로(狐峴路)로 명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Ⅲ. 결론

소사우시장은 1934년 설립되어 1941년 이전을 추진하였다가 1949년에서야 소사리로 이전하여 성황을 이루다가 1979~1980년 사이에 사라진 시장이다. 이후 부천가축시장이란 명칭으로 가축 시장이 재편되면서 많은 문헌자료들이 사라졌다. 다만, 《가축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최승기, 1979)에 의하면 1976년~1978년까지 소사우시장의 평균 개시일수(開市日數)를 보면 73일로 나타난다. 1년에 73일을 영업했다는 얘기인데 1978년 이후에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소사우시장은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80년 1월 21일 부천시 중구 춘의동 66-1번지에 부천가축시장이 개장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3년 6월 25일자 경기도고시에 의해 부천시가축시장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가축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최승기, 1979)에서 최승기는,



그림21) 1980년 중구 춘의동 66-1번지에 부천가축시장을 개장하는 모습

“본 조사는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한 센서스 조사이므로 현재 경기도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40개의 가축시장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원을 비롯한 2-3개소는 부분적으로 조사가 불능이었다....(중략) 조사가 잘 되지 않은 수원, 포천, 부천 등의 가축시장에 대하여서는 농협 죽산과에 비치한 경기도 가축시장 카드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사우시장은 이미 폐장되는 과정이어서 현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승기는 “조사기간은 1978년 8월 10일~10월 30일까지, 2차 조사는 1979년 4월 1일~6월 30일까지”라고 하였듯이, 소사우시장의 경우에는 1979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1992년 5월 11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가축시장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되었는데 당시 회의기록을 보면,

“이 조례는 73년 7월 3일 제정되어 80년 1월 21일부터 중구 춘의동 66-1번지 상에 가축시장을 개장하여 소·돼지 등 주요 가축의 거래를 하여 왔으나, 급속도로 발전된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물결에 의해 전국 7대 도시라는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 하였고, 가축시장 일제 조사 결과 가축시장의 거래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 농가의 현격한 감소로 가축시장의 기능을 상실 하였으며, 부천시 가축시장 허가가 이미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83년 6월 25일자 경기도고시 제185호로 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중 다음과 같은 다수 위원의 질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된 9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동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 기관 측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중적이고도 심도 있게 질의 토론을 실시한 결과 실무자의 잦은 교체 및 민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인 관계로 지금까지 방치 상태에 있다가 이번 조례 일제 정비 차원에서 동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집행 기관 측에 강력하고도 따끔하게 질책을 가하여 차후로는 이런 무사안일의 그릇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부여해 주었으며,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근본 목적을 세세한 부분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충분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결과 현실성에 맞지 않는 조례로 간주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라는 부천시의회 기록이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부천시의 재래시장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부천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은 1947년 심곡리(현, 심곡동) 546-2번지에 건립한 자유시장과, 1947년 심곡리 663번지 일대에 건립한 부천청과물시장(일명, 강시장)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소사시장(素砂市場)이 1927년 9월 6일 부천군 계남면 심곡리 683-1번지에 설치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옛 소사시장 부지에 1947년 설립한 자유시장과, 1947년 옛 소사우시장에 건립한 부천청과물시장(깡시장)은 소사시장의 후신(後身)이 되는 것이다.

소사시장(1927) → → ○ 자유시장(1947) / 깡시장(부천청과물시장)

↓

↳ ○ 소사우시장(1934) → 소사리 이전(1949) → 골목시장 / 도깨비시장

↳ 소사종합시장(1981 이후)

따라서 상기와 같이 부천 재래시장의 초창기 역사를 기록하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소사우시장은 부평수리조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탄생하여 1979~1980년 사이에 도시에 밀려 폐장(廢場)되었지만, 한때 경인 서부지역 중간지에서 큰 우시장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던 시장이다.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고찰을 해보았다. 미진한 부분은 차후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

IV. 참고문헌

《시흥시사》(2007)

《조선경제잡지(朝鮮經濟雜誌)》(京城商工會議所, 1929)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조선총독부철도국, 1912)

〈군유재산(소사리가축시장)지목변경및합병등기〉(1970)

〈부천군세일반〉(1928/1958)

〈시장규칙(市場規則)〉(조선총독부, 1914)

〈여지도(輿地圖)〉(1736~1767)
 1910년 부평군 석천면 중리 3번지 일대 지적원도(地籍原圖)
 1917년 1:50:000 지도
 1982년 1:5,000 지도
 1992년 5월 11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가축시장조례 폐지조례안〉
 〈해동지도(海東地圖)〉(1750-1751)
 《개벽》(제48호, 1924년 6월1일)
 《경기도 부천군 군세일반》(1930년 6월)
 《경기도지(京畿道誌)》(1956)
 《경기향토사학》제20집(한국문화원 경기도지회, 2015)
 《돌다리》(이태준, 1943)
 《문화원형백과》〈쇠장으로 불리던 특수시장인 우시장〉
 《부천시사》(1988, 2002)
 《부천예총》(1977년 발행)
 《부평부읍지》(184/1871)
 《부평사》(1997)
 《소사면시장부지 구입비 기채의 건(경기도)(회의록첨부)》(1934)
 《여도비지(輿圖備志)》(1856)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9세기 초)
 《정범태 사진집 카메라와 함께한 반세기》(2006, 눈빛출판사)
 《조선의 시장》(1924)
 《조선의 시장경제(朝鮮の市場經濟)》(1929)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1909년 9월)
 《한글》(한글학회, 1937)제51호에 〈우가은어(牛價隱語)〉
 《호구총수》(1789)
 〈군유재산(소사리 가축시장) 지목 변경 및 합병 등기〉(1970)
 시흥시 사이버역사관
 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부천시 가축시장조례 폐지조례안〉

도움: 김순화, 이영호 부천시 소사본동 마을 원로

소사종합시장 대표 임성준

소사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광인

소사종합복지관 권민혁 팀장

소사마을가꾸기기획단 단장 신승직

전 역곡2동 시의원 박병화 부천시 역곡2동 거주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양태석

여 백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이 병 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I. 머리말

II. 시흥지역의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

1. 시흥지역의 장시와 기능
2. 시흥지역의 민족해방운동

III.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의 3·1운동

1. 시흥군 군자면의 3·1운동
2. 구(舊) 장터 만세운동의 의의

IV. 맺음말

집필자

이 병 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I. 머리말

시흥지역(始興地域)¹⁾은 대체로 중북부는 옛 인천(仁川)의 관할이었고 중남부는 안산(安山)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문헌에 따르면 조선후기에 장시(場市)들이 생겨났으며, 부침을 겪으면서 존폐(存廢)가 된 장시들이 지역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심상권이 바뀌면서 현재 시흥시의 재래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시의 기능은 전 계층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모이는 중심의 장이었으므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과 확산, 그리고 정보와 여론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장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장시가 1876년 일제에 의한 개항이후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이들에 맞서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흥지역에서 생겨난 장시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이들 장시들과 관련하여 시흥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민족해방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장시와 관계된 대표적인 민족해방운동은 1919년 전 계층에서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일어났던 3·1운동이다. 당시 시흥군(始興郡)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장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군자면(君子面)의 3·1운동이다. 군자면에서도 다양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시와 관계된 만세운동은 권희(權禧)와 장수산(張壽山, 순한) 등이 모의한 구(舊) 장터(석곡산대장) 만세운동이다.²⁾ 따라서 장시와 관계된 구 장터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군자면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구 장터 만세운동이 발발하게 된 역사적 사실과 장시와 관계된 민족해방운동으로서 구 장터 만세운동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1) 시흥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을 중심으로 1914년 군·면통폐합에 따라 거대 시흥군이 출범하고 여기에 속했던 과천, 군포, 안양 등을 포괄한 지역이 아닌 1989년 시흥시(市)로 승격한 현재의 시흥시지역에 국한한다. 다만 군자면에 속한 구 장터는 현재 안산시 선부2동으로 안산시의 과거 군자면에 속했던 원곡본동, 원곡동, 원초동, 선부동과 수암면은 중심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으로 당시 수암면을 이루던 행정구역이 현재의 시흥시(°)법정동) 목감동(조남, 물왕, 산현, 논곡, 목감), 연성동(광성, 하상, 하중, 장현), 능곡동(화정, 능곡)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암지역을 포함한다.

2) 시흥지역의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이병권, 2015「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3·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 『京畿郷土史學』 제20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이성학, 2011「독립운동」, 『안산시사』 1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이현주, 2007「시흥지역의 3·1운동」, 『시흥시사』 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연구총서』 1, 경기출판사

李延龍, 1988「日帝下の始興」, 『始興郡誌』 上

II. 시흥지역의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

1. 시흥지역의 장시와 기능

1) 장시의 출현과 기능

장시는 조선시대 농촌의 생활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상품유통의 중심지로서 물화의 집산지이자 최종 소비지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장시가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면서 농촌의 사회·경제생활이 크게 변모하였다. 상인들은 물론 농민이나 수공업자들도 장날을 중심으로 생활주기가 짜여졌다. 장시를 이용하게 되면서 농업·수공업 생산물 등 상품의 판매와 매입, 각종 생활정보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장시는 조선시대 사회·경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³⁾

장시는 15세기 중엽 전라도 지방(나주, 무안 등)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부정기적이던 시장 개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기성을 띄게 되었다.⁴⁾ 초기의 장시는 보름 간격, 한 달에 2회 열리고 16세기 접어들면서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도 개설되고 중종 15년(1520)에는 제도(諸道)에 장시가 개설되고 있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장시는 점차 한 달에 6회 개시하는 5일장으로 발전해갔

3) 장시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전기 장시의 성립기반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장시의 발달과 변화과정, 상품유통구조와 화폐경제의 발달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김대길, 1997 『朝鮮後期 場市研究』, 국학자료원, 「18·19세기 지방장시에 대한 일고찰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우인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이현창, 1994 「조선 후기 충청도 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

이경식, 1987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고동환, 1985 「18·19세기 外方浦口의 상품유통 발달」, 『한국사론』 13

방기중, 1984 「17·18세기 전반기 금남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45

한상권, 1981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김대길, 2012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12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88쪽

4) 김지경(金之慶)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인민이 그 고을 길거리에서 장문(場門)이라 일컫고 매월 두 차례씩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비록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고 하나,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르는 것이며, 물가(物價)가 올라 이익은 적고 해가 많으므로, 이미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시켰다.’ 하였습시다. (金之慶報云 道內諸邑人民 所在街路 稱場門 每月兩度群聚 雖曰以有易無 捨本逐末 物價騰踊 利少害多 已令諸郡禁止 請更令觀察使) -『성종실록(成宗實錄)』 권20, 성종 3년 7월 입술

5) 남곤이 아뢰기를, 지금 제도에 모두 장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철저하게 금지했는데도 지금은 전일보다 심하여 시장에 나오는 자가 몇 만 명에 이르니, 이는 모두 농사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으로 민사를 방해함이 심한 것입니다. (哀曰 今諸道 皆設場門 臣爲全羅道觀察使時 痛禁之 而今則又甚於前日 出市者幾萬餘人 此皆不務耕作之人 有妨於民事甚矣) -『중종실록(中宗實錄)』 권38, 중종 15년 3월 기유

다. 18세기에 이르면 대부분 5일장으로 통일되었다.⁶⁾ 18세기 말 자료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실린 1,062개 장시 가운데 5일장은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자료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실린 1,052개 장시 가운데 5일장은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⁷⁾ 각 지방의 장시가 5일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⁸⁾ 이러한 정기시장을 당시엔 장문(場門) 또는 장시(場市)로 불렀고, 서울의 시전과 비교해 향시(鄕市)라고도 했다.⁹⁾

장시는 경제적 기능은 물론, 생활정보 수집의 장이었다. 장시 이용자들은 장터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었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장날이다. 생활정보 수집과 세상 돌아가는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장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생활정보를 건문하는 시기가 장날이었고, 장소는 장터나 주막 등이었다.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장터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듣거나 장을 보러 가서 지인을 통해 편지를 전해 받는 등, 인근 시장을 이용하면서 친척의 안부를 전해 듣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된다.¹⁰⁾ 조선 시대에 농민들이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장시는 문화교류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장시는 인적·물적·문화적 풀(pool)을 형성함으로써 총체적인 의미로서의 문화교류가 실행되었고, 장시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장날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시는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 등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장날은 시간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날이다.

그리고 물화유통과 농촌경제의 추이를 파악하는가 하면 민심의 동태를 건문할 수 있는 곳이 장시였다.¹¹⁾ 이와 같이 장시는 암행어사나 위유사, 또는 수령 등이 개시일을 이용하여 윤음(綸音)이

6) 성호 이익은 18세기 후반 당시 “지금 군현에는 허시(墟市)가 점차 많아져 장시는 반드시 한 달에 6회 개설되어 무릇 20-30리 사이에 5일시(日市)가 하루도 비는 날이 없다” -김대길, 2012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12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92쪽 재인용 : 『星湖僊說類選』 권4 下, 人事篇 6 治道門 3 場市條

7)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의 장시 수는 1062개인데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나타난 1777년의 전국 고을 수는 339개여서 한 고을의 평균 장시 수는 약 3개가 되는 셈이다. 산간 고을의 경우는 그 수가 이보다 더 적었고 평지 고을은 많았다. 따라서 가령 한 고을에 5일장이 5개소 있고 장날이 서로 다르면 그 고을 농민들은 매일 장을 볼 수 있어 사실상 상설시장이 성립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만길, 1997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03쪽

8) 김대길, 앞의 논문, 88~92쪽 참조

전국적으로 한 달에 6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 발달(5일장)은 상인과 농민, 수공업자 등 시장을 이용하는 자들의 생활주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거주지역을 벗어나 상품교역에 참여하거나 여행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 농촌의 사회·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김대길, 앞의 논문, 95쪽

9) 중앙일보, 2007. 3. 20 기사 「조선시대 장시... 상품 거래뿐 아니라 문화·정보도 공유 지역주민 활력소로」

10) 김대길, 앞의 논문, 103쪽

11) 영조 4년 부교리 박문수는 자신이 잠행(潛行)할 때 평상복을 입고 각 고을의 장시를 돌며 민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657책, 영조 4년 3월 10일)

순조 8년 부응교 이면승(李勉昇)은 암행어사의 직무는 여항(閭巷)과 장시에서 민심의 동향을 채집하고 들어보아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승정원일기』 1954책, 순조 8년 9월 19일)

나 정령을 알리고,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소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리고 모역자나 반역자의 처형¹²⁾, 죄인의 회술레 같은 것을 행하는 장소¹³⁾로도 이용하였다. 한편 민인들의 입장에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회적 불만을 표출시키는 장소로 장시를 이용하였다. 조선 후기 괘서(掛書)나 벽서(壁書)가 나붙는 곳은 대개 장시였다. 그리고 농민봉기의 집결 장소 또는 배후지로도 활용되었다.¹⁴⁾ 장시의 대중성과 익명성, 여론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활용한 것이다.

이밖에 장시는 물자의 교환과 매매를 비롯하여 놀이와 유흥이 있었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문화가 형성되고 교류되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특히 농촌생활에서 활기를 불어일으켰다. 새로운 문화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시장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골패(骨牌)나 투전 같은 놀이가 벌어지고, 사당패(社黨牌)·결립패(乞粒牌)·남사당패(南寺黨牌)·광대(廣大)¹⁵⁾ 등의 풍물놀이 같은 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장시는 조선 후기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상과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었다.¹⁶⁾

2) 시흥지역 장시의 현황

시흥지역에 개설된 장시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시흥지역 장시(정기 시장) 현황과 변천

장시명	뱀내	방축두	상직곶리(광석장)	삼거리	산대	도일
조선후기 지명	인천 신고개 (新古介)	안산 초산(草山)	안산 草山	-	안산 대월(大月)	-
현재지명	시흥 신천	시흥 ?	시흥 물왕	시흥 능곡	안산 선부	시흥 거모

고종 즉위년 선전관(宣傳官) 정운구(鄭雲龜)가 올린 서계(書啓)에는 동학에 대한 내용을 탐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장시를 이용하였다. 『고종실록(高宗實錄)』 권1, 즉위년 12월 임진-김대길, 앞의 논문, 106~107쪽

12) 김대길, 앞의 논문, 107쪽 재인용: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5월 19일: 關西平亂錄 參, 壬申 4월 초 9일

13) 김대길, 앞의 논문, 107쪽 재인용: 『가림보초(嘉林報草)』 기미년(1739) 정월 16일

14) 진주와 개령의 농민봉기 때도 장시가 집결지로 이용되고 있다. -김대길, 앞의 논문, 107쪽 재인용: 『壬戌錄(嶺湖民變日記)』 嶺南 晉州按覈使查啓辭 嶺南 巡營狀啓 四月

15) 상품유통경제의 발달과 농촌사회의 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에서 이탈한 자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무리를 지어 사당패·결립패 등으로 불리는 민중놀이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근거지를 떠나 전국 각 지역의 장시나 물화교역이 활발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풍물이나 재주를 흡수하면서 연희(演戲)를 하고 그에 따른 돈이나 물품을 받기도 하였다.

16) 김대길, 앞의 논문, 106~108쪽 참조

장시명	뱀내	방축두	상직곶리(광석장)	삼거리	산대	도일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1770)	사천(蛇川) 1·6	방축두 (方築頭) 2·7	-	-	산대(山垆) 3·8	-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1830)	蛇川 1·6	-	상직곶리 (上職串里) 2·7	-	석곡산대 (石谷山垆) 3·8	-
조선산업지 (朝鮮産業誌, 1909)	신현(新峴) 1·6	-	-	-	-	-
조선의 시장 (朝鮮の市場, 1922)	蛇川 1·6	-	-	삼거리 (三距離)	-	-
시가지의 상권 (市街地の商圈, 1923) 조선의 시장경제 (朝鮮の市場經濟, 1926) 상공수산통계 (商工水産統計, 1931) 조선의 시장 (朝鮮の市場, 1938)	蛇川 1·6	-	-	三距離 5·10	-	-
1977	신천리 1·6	-	-	-	-	군자 3·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 5, 219쪽 <표 4>를 중심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251~252쪽을 참조

이 중 뱀내장은 『동국문헌비고』 시기에 개장되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방축두장, 상직곶리장은 20세기 이전에 폐시되었으며, 상직곶리장의 위치는 물왕동 월미에 해당한다. 안산군 초산면에 있었던 방축두장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명으로 보아 보통천 방축이 있었던 곳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1871)¹⁷⁾에는 안산군의 장시로 광석장과 산대장을 들고 있는데, 광석장의 위치는 현재 광석동 나븐들에 해당하며, 산대장은 시흥시 군자동과 안산시 선부동 경계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서안산나들목 부근)¹⁸⁾ 물왕동 월미와 광

17) 1842~1843년에 편찬된 『경지지(京畿誌)』는 경기도 34개 읍지와 영종진의 진지를 합한 책으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도지이다. 여기에 수록된 『안산군읍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장시(場市)·점막(店幕)·진공(進貢)' 등의 항목을 신설한 점이다.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251쪽 참조

18) 석곡산대장(石谷山垆場)은 산대장으로 불리며 단원구 선부2동에 위치하였다. 일부문헌에 따르면 현재 위치가 시흥시 거모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부2동과 거모동이 인접해 있으므로 같은 지역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석곡산대장은 조선시대 안산관내 최초로 들어선 5일장으로 3·8일에 장이었다. 1872년 지방지도에 산대장이 등장하는데, 위치는 안산 서쪽 대월면이다. 『안산군읍지』에 따르면 대월면에 산대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위치는 군자산 남쪽으로 석곡역과도 인접해있다. 간척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산대장에서 서해까지는 약 2km로 수산물과 내륙농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52쪽 참조



사진1. 뱀내 우시장(1970년대, 출처 : 시흥시 향토사료실)

석동 나븐들이 보통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상직곶리장과 광석장은 동일장이거나 지척에 두고 장을 옮긴 대체장이며, 방축두장도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석장과 산대장은 활성화 되지 못하여서 20세기 이전에 폐시¹⁹⁾ 되었다.

삼거리장은 <표 1>에서 1920년 대에 장이 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삼거리장에는 원래 우시장이 서지 않았으나 박경선과 정인섭이 우

시장터를 기부하여 1938년 10월 30일에 우시장이 들어섰다.²¹⁾ 그러나 1950년대 초반에 도일장과 안산시장이 신설되면서 쇠퇴하였다. 도일장은 산대장 부근 군자면소재지에 1953년에 신설²²⁾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장은 1954년에 수암면소재지에 신설되었고 개시일은 5·10일이였다.²³⁾ 안산시장은 1977년 자료에 나오지 않아 그전에 폐시된 것으로 보인다.²⁴⁾ 삼거리장은 안산시장의 설치로 상권이 위축되었고, 도일장이 자리 잡게 되자 폐시되었다. 안산시장과 삼거리장의 개시일이 5·10일로 같았기 때문이다. 폐시 이후 삼거리장 일대의 주민들은 서로 추렴을 하고 유지들의 기부 등 시장복원을 위해 노력하여 1956년에 다시 개장하였다.²⁵⁾ 장날은 2·7일로, 안산시

19) 장시 초산면에 광석장시가 있었으며, 읍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장시에 거래되는 물화가 부족하여 상인들이 오지 않아 저절로 없어졌다. 대월면에 산대장시가 있으며, 읍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장시가 벽처에 있어 달리 유통되는 물화는 없고 단지 토산물만 교역되다가 한낫에 파시가 된다. 가히 바닷가 구석진 곳의 순박한 풍속을 볼 수 있다.(場市 草山面有廣石場市 自邑西距十里 此市不足爲物貨賣買之地 故商賈不來而自廢 大月面有山垈場市 自邑西南距二十里 市在地僻處 別無通貨 只以土產交易 日中旋罷 可見海曲淳風.)-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1 『안산군읍지』

20) 삼거리장은 원래 방축장시(광석장시) 등으로 불리다가 1920년대 들어 3·8일장으로 개장하였고, 1938년에 우시장으로 다시 개시하여 5·10일에 개장하였다. 『금천지(衿川誌)』 (1950)를 보면 당시 삼거리장의 거래품목은 대부분 축산물로 약 1,252만원의 거래 규모를 보인 큰 장이었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 1, 296쪽 참조

21) 삼거리 우시장 개설과 관련된 기사는 『동아일보』 1934년 12월 19일과 1938년 9월 28일, 1938년 10월 26일에 실려 있다. 1934년 12월 9일 기사에는 박경선 및 여러 사람들이 우시장 개설을 위한 노력과 김포군 양동면 정인섭이 시장터 1,300여 평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1938년 9월 28일과 10월 26일 기사에는 삼거리장이 도인가를 받아 개장 하게 되었다는 것과 박경선이 토지 800 여 평을 기부한 내용이 실려 있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 5, 222쪽 참조

2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2쪽 재인용 : 시흥군, 1970 『통계연보』, 103쪽
도일장은 장순봉(張淳鳳) 군자면장이 우시장을 같이 개장하였다.

2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2쪽 재인용 : 시흥군, 1970 『통계연보』, 103쪽

2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2쪽 재인용 : 김성호, 1977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 그 사적고찰과 구조기능의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5)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3쪽 재인용 : 시흥군, 1970 『통계연보』, 103쪽

장 개시일을 피했다. 1970년대 전반에 폐시되었다.

『안산군읍지』에서 ‘벽처(僻處)’라고 한 것처럼, 시흥지역은 서해안에 접해있는 까닭에 각처에서 물자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었다. 뱀내장을 제외한 시흥지역의 정기시장들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한말에 들어서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장시들도 폐시되고 뱀내장만이 개시일과 소재지의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²⁷⁾ 이는 경기 서남부 일대의 주요 우시장으로서 뱀내장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관련된다.²⁸⁾

2. 시흥지역의 민족해방운동

1) 3·1운동 이전의 민족해방운동

19세기 후반기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로서 일대 사회변동기였다. 동양적 질서 속에 안주해 있던 한국 전통사회가 봉건적 양반지배체제의 해체와 구미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상황에 처하면서, 봉건적 모순의 극복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시흥지역의 경우 1883년(고종 20)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일간에 체결된 「조선국간행리정약조(朝鮮國間行里程約條)」로 인천항에서 안산, 시흥, 과천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치외법권까지 인정되어 일본인들의 불법행위의 대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²⁹⁾ 이러한 민중들의 처지는 갑오농민전쟁, 의병운동을 거치면서 반외세 항일정신이 되었고,

26) 시흥지역의 장시는 장시체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일제시기에 들어와 시흥인근에 있는 인천 및 부천, 안양의 상권이 커지게 되자 시흥지역의 주민들도 이들 상권 중 거주 지역에서 근거리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옛 소래면지역 중 서쪽지역은 인천과 부천상권에 속하며, 동쪽지역은 안양권에 속한다. 옛 수암면지역의 동쪽지역 역시 안양권에 속하나 서쪽지역에서는 삼거리장과 도일장을 많이 이용하였다. 옛 군자면의 내륙지역에서는 삼거리장과 도일장을 이용하였으나 해안가에 접한 지역에서는 인천방면으로 많이 가다가 1950년대 이후 도일장이 생기면서 여기를 이용하였다. 육상교통의 발달로 옛 소래면 지역의 동북쪽에 위치한 과림동과 무지내동에서는 오류동과 광명동에 있는 상설시장을 이용하였으며, 도일장을 출입하던 지역에서는 안산 초지시장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반면 인천과 부천을 이용하던 신현동, 대야동 등은 신천동에 현대적인상권(삼미시장)이 형성되면서 이곳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생활권이 축소되고 있다. 우시장은 시흥 전지역에서 뱀내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수원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빈도수는 낮으나 소사장, 황어장, 삼거리장 등도 주민들이 출입하였던 우시장이다. 특히 뱀내장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손꼽히는 우시장이었으나 소이외의 거래품목은 많지 않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른 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시흥지역의 정기시장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시흥 인근지역에도 시가 빠르게 성장해 나간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6~218쪽 참조

27) 뱀내장은 조선후기부터 문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큰 시장이다. 뱀내장의 연간 개장횟수는 1922년 74회였다. 품목별 거래 실적을 보면 우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축산물이 24만 7,743원으로 가장 컸고 농산물 2,219원, 수산물 93원, 직물 270원, 기타 2,221원으로 총 거래실적이 25만 2,546원에 이르던 큰 장이었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 1, 296쪽 재인용 : 조선총독부, 1924『朝鮮の市場』, 조선상공연구회, 1929『朝鮮商工大鑑』

2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 5, 216~223쪽 참조

29)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6쪽 참조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이 침체하면서 개화운동이 새로운 민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개항 이후 시흥지역은 동학세력을 형성하여 1893년 보은집회(보은취회)³⁰⁾에 참여하여 부패한 조선봉건정부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민중의 저항정신에 귀한 역사적 전통을 가졌다. 또한 1894년 수탈의 빌미가 되고 있는 대월면 거모포 명례궁(明禮宮, 덕수궁)의 독을 농민들이 무너뜨리는 등, 항조(抗租)와 항세(抗稅) 등의 항쟁이 지속되었다. 한편, 1907년 2월 대구의 김광제, 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의 일환으로 단연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안산군 초산면 목암리에서 총 7원 70전을 출연하고 이후 상직동, 화정리, 장상리, 장중리, 하중리 등에서도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한 『대한매일신보』의 사례³¹⁾는 시흥지역민의 자주독립을 바라는 애국심이었다.

이러한 시흥지역의 역사적 전통은 시흥정신으로 이어졌다. 시흥정신은 주체적인 역사참여 정신으로 애국(愛國), 애민(愛民), 애향(愛鄉)으로 그 역사적 의의는 갑오농민전쟁, 의병전쟁, 애국 계몽운동, 3·1정신으로 이어진 민중들의 반봉건, 반외세 항일정신이다.³²⁾

(1) 무장투쟁(武裝鬭爭)과 민족교육운동(民族敎育運動)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시흥지역 최초 의병은 을미의병(1895)이다. 단발령이 공포된 후 김하락(金河洛), 조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등이 ‘이천수창의소’를 조직하는데, 시흥지역(안산)은 김하락의 의병 모집에 참여하였다. ‘이천수창의소’는 경기도 연합의병으로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있던 광주 의병장 심진원(沈鎭元)의 구원을 받아들여 격전 끝에 점거(1896. 2. 28)후, 식량부족과 지휘부의 대립으로 함락(3. 22)되며, 일단락되었다.³³⁾

같은 시기 을미사변을 계기로 1896년 2월 개항장이었던 인천을 중심으로 안산, 파천, 수원 등지에서 4천 여 명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³⁴⁾ 이 소식을 접한 일본영사관에서 정세파악을 위해 안산으로 파견한 시바누마(芝沼一則)와 야자와(矢澤谷三郎) 순사의 보고에 의하면 “주민들이 안산관을 습격하고 관리들의 주택 8채를 공격하여 파괴시키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이 과정

30) “북면(北面) 구치(九峙)의 장리들이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이 달 초 2일 신시부터 초 3일 사시까지 동학의 무리로써 돌아간 사람은 경기 수원접(接) 840여 명, 용인접 200여 명, 양주와 여주 등 지역 사람이 270여 명, 안산접 150여 명”-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6쪽 재인용 : 『宣撫使再次狀啓 魚允中兼帶, 聚語』

31)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15~16쪽 재인용 :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의연금 수입 광고, 1907년 4월 7, 27, 28, 6월 18, 30일자

32) 이병권, 2015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3·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 『京畿郷土史學』 제20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273~274쪽

33)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9쪽 참조

34)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9쪽 재인용 : 「경기도 안산·파천·수원 등지의 의병 봉기 보고」, 문서번호 전수제일 78호, 발송자 인천 하기와라(萩原)영사관사무대리, 명치 29년 2월 22일 오전 9시 55분

에서 순검들이 부상하고, 안산군수 안옥상(安昱相)이 도주했다.³⁵⁾ 군중들은 산대(山岱)장터에서 인천관찰사에게 청원할 것을 결의하고 일단 해산하였다.³⁶⁾

또한 정미의병과 수적 활동도 활발하였다.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외교권에 이어 군대해산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의병들의 활동은 열악한 처지로 인한 군자금 확보와 관련되었다.³⁷⁾ 또한 서해와 맞닿아 대부도와 인근 섬들을 중심으로 ‘수적(水賊)’으로 불린 의병활동으로 일제의 해상통신과 교통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³⁸⁾ 특히 이곳은 1894년 풍도(楓島)에서 청·일합대가 맞붙어

35) 안옥상은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의 초명이다. 1881년 김윤식(金允植)을 필두로 69명의 기술유학생들로 구성된 영선사(領選使)로 선발되어 청나라 천진기독교에서 유학하였다. 당시 서국총판(西局總辦) 왕덕균(王德均)은 조선 유학생들을 높이 평가했는데, 안옥상에 대해서 “화도창(和圖廠)의 안옥상은 머리가 비상하여 점차 청나라 언어로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한 인물이다.(왕명(王萌), 2017『한국어 월간지 중국』 제3호, 인민화보사) 이 때 함께 했던 조석진(趙錫晉)과 평생의 벗으로 지내면서 화단의 쌍벽을 이루었다. 1902년 어진도사(御眞圖寫)에 조석진과 함께 화사(畫師)로 선발되어 화명을 높였다. 어진도사 이후 화실인 경묵당(耕墨堂)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1911년 이왕가(李王家)의 후원으로 서화미술원(書畫美術院)이 설립되자 조석진·김응원(金應元) 등과 후진을 양성하였다. 서화미술원 출신은 이용우(李用雨)·오일영(吳一英)·이한복(李漢福)·김은호(金殷鎬)·박승무(朴勝武)·최우석(崔禹錫)·노수현(盧壽鉉)·이상범(李象範) 등이다. 한국근대전통회화를 이끌게 되는 대표적인 화가들이다. 1919년 민족 서화가들을 중심으로 서화협회(書畫協會)가 결성되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으로 추대되기 두 달 전인 4월 초순 3·1운동에 관련되어 내란죄로 경성지방법원의 회부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옥상은 당시 안산군수로 있으면서 을미개혁의 일환인 단발령을 앞장서 시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36)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9~10쪽 재인용 : 「경기도 안산의 의병 정황 보고」, 문서번호 전수제일(電受第一) 125호, 발송일 명치 29년 2월 29일 오전 9시 45분, 「朝鮮國京城事變候ニ於ケル仁川港精況ニ関シ在同港領事館事務代理萩原守一ヨリ報告ノ件」, 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明治二十九年 三月 十八日, 公文雜纂・明治二十九年・第十卷

37) 1907년 10월 11일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에서 경찰대와 수비대의 공격을 받은 의병 19명 중 5명이 죽고 총기와 탄약 19점을 빼앗겼다. 의병 20명이 안양에서 초산면 논곡리(현 논곡동)로 와 민가에서 염종 3정과 육혈포를 수거하고 매약상이자 일본어학교 교사 일본인 모리시다(森下四方治) 부부를 결박한 후 이훈식(李勳植)과 인천군 이현으로 퇴각하자, 이를 탐문하기 위해 순검 2명이 파송되었다. 14일 정시촌에서 수원수비대의 척후와 2시간 동안 격전하여 주민 8명이 피해를 입었다. 11월 7일 의병 10여 명이 안산군 월입촌(月入村) 무곡리를 습격하여 군수를 결박하고 “인천항으로 행진할 터인데 군비가 부족하니 부민(富民)의 성명을 적어내라”고 명령하자 군수 이석재(李奭宰)가 서울로 도주하였다. 12월 경에는 의병 수십 명이 안산군아와 분파소를 습격한 뒤 군기를 탈취하였다.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17~18쪽 재인용 : 『독립운동사자료집』 3,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6, 18, 23, 31일 기사

이듬해 의병들은 9월 5일 성곶면 이리 이장 한원배 집과 10월 19일 무곡리(현 성곡동) 윤경의 집, 11월 21일 성곶면 구룡동 주막에서 현금을 빼앗아 갔다. 1909년 4월 하순 잉화면 능곡리 이장 이봉구(李鳳求)의 집이 의병에 의해 공격받았다.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17~18쪽 참조

38) 수적은 1900년 무렵 중부 이남 지역에서 활동한 활빈당과 연계된 것으로 강화에서 남양만에 걸쳐 전개된 항쟁이다. 신경춘(申敬春)과 10여 명이 1907년 9월 남양군 화령도와 대부도에서 활동 한 것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1907년 10월 11일 남양군 의병이 수원군 초장면(草長面, 현 화성시 장안면)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였고, 1908년 1월 4, 8일 의병 15명이 우편체송인을 공격하였다. 2월 21일 남양군 읍덕리를 습격한 의병 6명은 남양수비대의 토벌대 7명과 교전을 벌였다. 영종도·용유도·무의도 등의 각 섬에는 배 두 척의 수적 70여 명이 지나가는 상선을 수색하여 일본으로 미국 유출과 지주들의 도조(賭租)를 차단하였다. 일제는 제9중대, 12중대로 토벌대를 편성하여, 수원 수비대장 시모무라(下村) 대대장 이하 33명을 인솔하여 3월 17일 대부도·영종도·풍도를 수색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19일 퇴각하였다. 이후 5월 6일 영종도에 수적 수십 명이 들어와 민장들에게 군수전 5천냥 마편을 명령하였다. 10일에는 대부도 옆 선재도에 의병선 1척이 나타나 일본인 순사 2명, 한인 순사 2명이 총돌하였다. 24일에는 의병 12명이 남양 부근 해안에서 수원에 있는 한국 제1순사대 일부와 남양 주재 순사와 격돌하였다. 일제는 1909년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야만적인 ‘남한대토벌작전’을 벌여 의병활동지역 안의 촌락들을 소각하고 주민을 살육함으로써 의병항쟁의 예기가 꺾였다.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19~20쪽 참조

청나라 수송선인 고승호가 격침되어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일제는 식민지적 교육정책을 통해 조선의 민족교육을 억압하고 조선인의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4호「보통학교령」과「사립학교령」(1908. 8. 26),「교과용도서검정규정」(1908. 9. 1)을 제정하여 민족 사학을 통제하고 애국적인 교육내용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교육만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³⁹⁾이라고 판단한 각계각층의 사회세력에 의해 사립학교 설립은 계속 확대되었다.『황성신문(皇城新聞)』과『대한매일신보』등 민족 신문들도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유지들로 하여금 학교 설립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광학조칙(廣學詔勅)」(1906. 3. 26)이 반포되자, 각 지방에서는 군수가 봉칙(奉勅)의 의미로 학교 설립에 앞장⁴⁰⁾서고, 지방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⁴¹⁾

다음 <표 2>은 시흥지역에 설립되었던 사립학교 현황이다.

<표 2> 시흥지역 사립학교 설립현황

학교	설립자	시기	소재지	비고
미상	정윤영(鄭允永)	1906	황등천면 중림 (重林, 현 과림동 중림)	
세운창흥측량학교 (昌興測量學校)	전우태(全宇泰)	1908	황등천면 두곡리 (杜谷里, 현 과림동 두무절이)	
흥인의숙(興仁義塾)	엄선영(嚴選永)	1908	신현면 포동(국동局洞)	
진명의숙(進明義塾)	정형택(鄭炯澤) 정우택(鄭禹澤)	1909	신현면	노동야학과 부설
신영학교(新英學校)	함원식(咸元植)	1908	와리면 신각동(현 안산시 신길동)	신영주학교 병설(1909)
사립대성학교 (私立大成學校)	윤세영(尹世榮)	1908	와리면 원상리 (현 안산시 원곡동)	
초지보통학교 (草芝普通學校)	이민선(李敏善)	1907	와리면 초지리 (현 안산시 초지동)	
초동야학교 (樵童夜學校)	정규대(鄭圭大) 고진국(高鎭國)	1909	북방면(현 안산시 팔곡동)	
신안의숙 (新安義塾)	김용원(金容元) 송병섭(宋秉燮)	1909	북방면 노산동 (蘆山洞, 현 안산시 팔곡동)	

39) 1905년 일제의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이 흔들리자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국권회복운동이 일어나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애국계몽운동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당시 “교육과 식산(殖産)으로 실력을 양성한다”는 자강운동의 취지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40) “안산군수 심종(沈鍾?)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권면하여 학교가 점차 흥왕하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 군수와 같으면 나라의 문명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 하다” -『대한 매일 신보』 1907년 11월 15일 잡보

41)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의 근현대」,『시흥시사』3, 84쪽 참조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9일 잡보, 1907년 9월 19일 잡보, 11월 5일, 15일 잡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5월 22일 잡보, 7월 17일 잡보, 9월 8일, 12일 잡보, 11월 27일 광고, 12월 1일, 2일, 19일 잡보, 1909년 1월 1일 잡보, 2월 18일, 21일 잡보, 4월 27일 학계, 5월 16일 학계 참조

〈표 2〉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황등천면 중림에 사는 부호(富豪) 정운영이 세운 학교이다. 정운영은 1906년 6월 20일경 총검을 휴대하고 집으로 쳐들어 온 적한(賊漢) 10명으로부터 물건과 돈·미곡을 강탈당하자, 자선의무(慈善義務)로 학교를 설립하여 총준자제(聰俊子弟)를 모아 교육에 힘써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하였다. 전우택은 1908년 자신의 집에 학교를 세워 학생 류승렬(柳承烈)의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었는데, 측량기술을 가르치던 전문학교였다. 한편 전 주사 엄선영은 자신의 집을 학사(學舍)로 흥인의숙을 세워 30여 명의 학생에게 주로 신학문을 가르쳤다. 12월에 연말시험을 봐서 우등생에게는 공책과 연필을 주었다. 진명의숙은 정3품 정형택이 동생 정우택과 자기 집에 설립한 학교로 30여명의 학도가 다녔으며, 사재를 털어 각종 교과서를 구입하였다. 또 정우택은 주간에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동야학을 부설하였다.⁴²⁾

특히 안산군에서는 군수가 나서 학교 설립을 독려하고 지역 7곳에 야학교가 세워져 공립·기독교(基督)·양산(楊山)학교 학생들이 초등 등을 가르치는(『대한매일신보』, 1908. 5. 22) 등 민족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안산군에서 사립학교 설립⁴³⁾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와리면(瓦里面)이다. 와리면에는 〈표 2〉의 신영학교, 사립대성학교, 초지보통학교가 있었다. 이처럼 와리면에 학교가 집중된 것은 학교 설립자의 거주지와 관련이 있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 학교 설립자들은 대개가 재력을 갖춘 지역 유지들이 많았다. 감찰(監察)을 역임한 함원식은 신영학교를 세워 학교의 각종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전 주사 이민선도 초지보통학교를 설립하고 3년 동안 제반 경비를 혼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안산군 6개 면 중에서 와리면에 지역 유지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안산군양안』의 거주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와집(瓦家)의 분포가 군내면 76호, 와리면 164호, 잉화면 130호, 대월면 40호, 마유면 64호, 초산면 78호로 와리면과 잉화면에 집중되어 있다. 반촌(班村)인 와리면의 지역 유지들이 학교 설립에 적극

4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6쪽 참조

43) 이 시기 사립학교의 교과운영은 보통 1895년 7월에 제정된 「소학교령」을 따랐는데, 교과목으로는 신영학교의 예에서 보듯 국문, 한문, 산술, 체조 등을 두고 있어 이 시기 설립된 학교들이 대개 근대교육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각 학교에서는 한문과 같은 일부 전통 교육과 함께 외래의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수용함으로써 근대적인 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흥지역에서도 민족의 각성과 근대화를 역설하는 민족교육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8쪽 참조

적이었다.⁴⁴⁾

이와 함께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서 여전히 농촌에서 교육을 담당한 것은 서당이었다. 일제는 서당이 민족교육의 온상지, 나아가 민족운동의 진원지로 인식하였다. 서당의 규모는 조선 후기에 전국의 동·리수와 거의 같은 3만 개에 가깝게 있었다.(일본 통계)⁴⁵⁾ 1910년대 시흥지역의 서당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웃한 수원군을 보면, 1914년 150여 개로 1,144명의 학생이 있었고 1922년에는 238개로 늘어 2,355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안산군에도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와 유사할 것이다. 서당은 수원군의 3·1운동에서 민중을 의식화하여 민족적 각성을 갖도록 한 조직이었다. 이들 서당은 개량서당으로서 전통적 관념에 입각하기 보다는 근대적 민족주의, 만민 평등사상을 수용한 근대적 성격의 교육기관이었다. 수원군 발안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정근도 서당 훈장이었다.⁴⁶⁾ 서당은 1910년대 농민들에게 민족적 자각 및 의식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군자면 구 장터(산대장) 만세운동의 주모자 권희(權禧)는 집안의 가학서당을 통해 문중의 권연(權衍)을 스승으로 맞아 민족교육을 받았다.⁴⁷⁾ 이렇듯 3·1운동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농촌지식인들이 신문을 읽고 격문, 통문을 만들고 운동을 조직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당교육을 통한 의식화였다.⁴⁸⁾

이러한 서당을 일제는 1918년 2월에 「서당규칙(書堂規則)」을 제정하여 탄압하였다. 서당 개설의 경우 제반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국어(일본어)·조선어·산술 등을 교수할 때에는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법령을 위반할 경우는 물론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교육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는 서당을 폐쇄하거나 교사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립보통학교장으로 하여금 서당을 시찰, 관리하게 하여 반일교육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⁴⁹⁾

4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7~88쪽 참조

45) 3·1운동이 한참 지난 후인 1936년 당시 시흥군에 서당수가 17곳, 교사는 남교사만 17명, 학동 수는 237명(남 204명, 여 33명)이었다.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453쪽 재인용 : 京畿道, 昭和11年(1936)『京畿道ノ教育ト宗教』, 65쪽

46) 이정근의 손자 이신재는 이정근이 7개면(팔탄면, 향남면, 봉담면, 정남면, 우정면, 장안면, 남양면)에 서당을 세워 “에왕3년”, “일본은 3년을 못가서 망한다”를 외치며 민족교육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수원시, 2001『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 수원시, 301쪽 참조.

47) 김규성, 2016『시흥의 애국청년 권희(權禧), 이제야 다시 찾다』,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4집,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청어, 12~13, 25~28쪽 참조

48) 趙炳昌, 1971『水原地方を中心한 3·1運動小考』檀國大學校 大學院, 38쪽 참조.

49)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21~22쪽 참조

1919년 이후 조선인의 교육 행위의 지향점은 보통학교로 바뀌며, 1932년 이후 보통학교는 초등교육의 근간으로 확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서당교육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당시 서당은 일본어·조선어·산술 등 보통학교의 교과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른바 개량서당과 예전처럼 한학을 가르치는 전통서당이 있었다. 당시 상당수의 학생들이 서당에서 수학을 한 후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조선인이 서당과

2) 시흥지역의 3·1운동 전개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만세운동의 촉발은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침탈에 따른 것으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시작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하 ‘강점’)과 함께 식민지배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제(憲兵警察制)를 실시하는 등, 무단통치(武斷統治)를 펴며, 야만적인 탄압과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이 자발적이고 거국적으로 일어난 민족해방운동이 3·1운동이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의지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서 민족해방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군·읍·면소재지와 리·동 등지로 파급되었다. 각 지역의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 계층이 일제에 맞서 항일만세운동을 일을 킨 것이다.⁵⁰⁾ 경기도에서는 개성(開城, 3. 3)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경기도의 만세운동 경향은 대체로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3월 초에서 4월 하순까지 계속되어,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이 절정이었다.⁵¹⁾

특히 시흥지역이 속한 시흥군에서는 23회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7일 시흥군 영등포에서 보통학교 학생이 만세시위 후 동맹휴학을 결의한 이래 4월 말까지 연인원 1만여 명의 참여하였다.⁵²⁾ 3월 30일 수암면(秀岩面) 비석거리에서 수암면 내의 18개 리의 주민 약 2천 여 명이 윤병

보통학교를 서로 대립되는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양자에 모두 자녀를 취학시킨 조선인들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신식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통학교를 이용하는 한편, 여전히 보통학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 서당을 이용하였다. 식민지시기에도 조선인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한자 혹은 한문 해득(解得)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 보통학교 교과서에는 한문교과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한자 또는 한문 해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 또한 가족, 가문 혹은 촌락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습득시킬 필요도 있었다. 더구나 서당은 입학자격, 수업 연한이 강하게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에 학령 전 교육기관으로 조선인에 의해 활용되었다. 식민지시기에도 전통교육은 여전히 조선인의 의식과 행위 안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자연과 역사』, 『안산시사』1, 453~454쪽 재인용 : 오성철, 2000『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13~118쪽

50) 3·1운동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상층 부류조아계급인 ‘민족대표’ 33인 혹은 48인이 독립을 선언하여 시작된 단계다. 제2단계는 주로 청년, 학생, 교사 등 지식인, 도시 노동자 및 상인층에 의해 운동이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된 단계이다. 제3단계는 주요도시로부터 다시 전국의 농촌지방으로 확산된 단계다.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문에는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이나 농촌·농민 문제가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그 문장도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아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소작농으로, 농업노동자나 화전민으로 전락해간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시골 장터에서 거의 1년 동안이나 만세시위를 계속했다. -강만길, 1998『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44~45쪽 참조

51) 박은식은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경기도내 만세운동 현황을 25개 지역, 303회, 인원 6만8,100명, 사망자 1,469명, 부상자 2,677명, 체포 4,220명이라고 했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3, 250~252쪽 참조

52)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30~32쪽 참조.

소(尹秉昭), 홍순칠(洪淳七), 류익수(柳益秀), 윤동욱(尹東旭), 김병권(金秉權), 이봉문(李奉文) 등의 주도로 수암경찰관주재소의 서쪽밭에 모여서 대형의 태극기 2기를 세우고, 각자 작은 기를 들고 “수암주재소, 면사무소를 불태우자!” 라고 외치며, 그 일대를 돌며 만세운동을 불렀으나 일제 순사와 헌병들에 의해 해산되었다.⁵³⁾ 군자면(君子面)에서도 거모리(去毛里)의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 부근에서 다양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되는데 다음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이와 같은 시흥지역 3·1운동의 특징은 서울과 인접하여 3월 1일의 시위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고, 학교 등의 이유로 서울시위에도 참가했던 사람이 많았다.⁵⁴⁾ 또한 별도의 시위주도조직의 결성과 교회 및 천도교계통의 종단조직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았으나 구장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마을(里)조직이 기능하며, 통문과 격문 등, 사전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세운동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단발로 끝났으며, 모의와 진행에서 투쟁적 성격(수암면, 군자면 만세운동에서 면사무소 등의 공격을 주장)이 나타나지만 실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러한 만세운동을 연속해서 주도했던 인물은 수암면과 반월리(3. 31)에 참여한 류익수 뿐이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웃한 지역이 자극되어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군중을 조직했는데, 이는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시위계획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광범위하게 형성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⁵⁵⁾

Ⅲ.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의 3·1운동

1. 시흥군 군자면의 3·1운동

1) 역사 및 사상적 배경

시흥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주요 명문거족이 선산을 쓰고 동족이 모여 살아 충효와 애향심이 높았다. 이는 고려의 대몽항쟁, 정학적 사족의 동향 속에 사상의 유연성이 전개되는 한편, 정조 시대 중흥을 이끈 주역이라는 자신감 등이 이어져 3·1운동의 원류가 되었다.

13세기 삼별초(三別抄)를 중심으로 소래산, 영흥도, 대부도 지역에서 대몽항쟁⁵⁶⁾이 치열하였다.

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사법경찰관의 보안법 위반자 동행보고」,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280쪽

54) 시흥출신으로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면서 철도 통학생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 시흥과 안양, 군포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던 한흥리(韓興履, 1897-1979)는 서울시위에 직접 참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자면 구장터 만세운동을 모의한 권희도 3월 중순경 집을 찾은 손님을 통해 서울시위를 전해 듣고 있었다.

55)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 3, 259~261쪽 참조

56) 1256년(고종 43) 4월 19일 몽골군 차라대(車羅大)가 지휘하는 몽골군의 일부로 3월 27일 강화도 연안의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일어나 민족을 구하려는 시흥지역민의 충절이다. 세종 조 영의정을 역임한 하연이 소래산 자락에 묘(계란마을, 향토유적 제3호)를 쓰고 아들 하우명(河友明, 1413-1493)이 시묘살이하며, 효자로 칭송되었다. 숙종 때 안산의 이상기(李相夔, 1631-1686)는 지극한 효가 알려져 정려문(숙종 19)이 내려졌다. 이렇듯 시흥지역민은 유교적 덕목인 충효를 적극 실천하였던 전통이 면면히 자리한다.

조선시대 안산군은 1463년(세조 9)에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진헌부사로 명(明) 남경(南京)의 전당강(錢塘江)에서 연꽃씨를 가져와 하중동의 관곡지(官谷池, 향토유적 제8호)에 심은 후 널리 퍼져 1466년(세조 12)부터 별호(別號)를 ‘연성(蓮城)’⁵⁷⁾이라 하였다.⁵⁸⁾ 연지고사로 보듯 경세가(輕世家)였던 강희맹과 같은 사류와 인연이 닿았고 이후 사족들의 동향 역시 대체로 경학(經學)적 입장이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집안은 파평 윤씨로 성혼(成渾)의 문인인 윤민현(尹民獻, 1562-1628) 일가가 있다. 수암면 3·1운동을 주도한 윤동욱의 선조이다. 또한 서인의 거두였던 장유(張維, 1587-1638)가 장곡동에 내려와 해장정사(海莊精舍)를 지어 12년을 살며 인선왕후(仁宣王后, 1619-1674, 효종비)를 낳고 살았는데, 그의 사상은 성리학(性理學) 일변 속에서 양명학(陽明學)에 열려 있을 정도로 유연하였다. 그리고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인 정제두(鄭齊斗, 1649-1736)가 화정동 추곡(楸谷, 가래울)에서 20여 년간 살면서 양명학의 기틀을 다졌다. 셋말(하중동) 백상형(白尙瑩, 1705-1789)의 『오헌집(傲軒集)』에 따르면, 조중보(趙重普, 1705-?), 이태길(李泰吉, 1709-?)과 가까이 살며, 방화마을 강세황(姜世晃, 1713-1791), 포동 엄경웅(嚴慶膺, 1696-1784), 등, 남인·소북계 안산의 선비(安山八文章)들과 사로사(四老社)로 교유하였다. 이들은 안정복(安鼎福) 등을 길러낸 이익(李瀾, 1681-1763)과 청문당(淸聞堂)의 유경종(柳慶種, 1714-1784) 등과 교류하였다.

이처럼 시흥지역은 조선 초 경학이 중시되는 가운데 교조적 성리학을 탈피하여 양명학 등 사상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한편, 조선 후기 근기(近畿)지방 농촌을 근거로 민본적 경제치용(經世致

작량(窄梁)에 도착한 부대를 별초가 밤에 인주 인근의 소래산 아래에 있는 성에 가서 몽골군 100명을 쫓아냈다. 1270년(원종 13) 삼별초의 주력이 진도로 향하던 도중 영흥도에 정박하였고, 제주도에 들어가 마지막 항쟁을 벌이던 1272년(원종 13)에는 영흥도(靈興島)를 삼별초의 근거지로 삼아 개경 가까이 횡행하였다. 이에 조정과 원에서는 추토사 김방경(金方慶)을 시켜 삼별초를 쳐서 1천여 남녀노유(男女老幼)를 사로잡았다. 1271년 2월, 몽골병이 대부도에 들어가 주민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나자 관노 송겸(崇謙) 등이 이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수주부사 안悅(安悅)이 평정했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 2, 105~109쪽 참조

57) 안산의 별호인 ‘연성’은 『연지사적(蓮池事蹟)』(1846)과 『안산군읍지』(1871)에서 강희맹의 연지고사(1463)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산 김씨 김정경(金定卿)이 제2차 왕자의 난(1400)에서 태종을 도와 방간의 난을 진압하면서 좌명공신 4등에 책록 되고,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지면서 ‘연성’이란 군호를 받았다. 작호는 해당자의 출신지역으로 하는 특성에 따라 당시 이미 안산에 ‘연성’이란 별호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8) 故贊成 晉山君姜公希孟嘗奉使至 南京得錢塘蓮子曰錢塘紅 歸而種之下中里小池 古邑號蓮城- 『연지사적』

用)의 성호학파가 싹트었다. 또한 정조(正祖)가 1797년 8월 김포 장릉(章陵)에서 안산을 지나 현릉원(顯陵園)으로 간 행행(行幸)으로 시흥지역민들은 당대 민본적 정치사상을 수혜 하는 한편, 정조의 권농(勸農)정책에 호응하여 구한말까지 지속된 권농사(勸農篇)의 활동들을 통해 조선 왕조 중흥의 주역이라는 정신적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조선후기 진경문화(眞景文化)는 시흥지역민의 문화의식이었다.⁵⁹⁾

2) 사회적 배경

시흥지역은 경기도 중서부의 해안가에 위치하여, 남서쪽은 서해에 접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내륙에 접한다. 4세기 말까지 안정적인 백제의 영역에서 475년(장수왕 63) 고구려의 남진으로 수암·군자지역이 장항구현(獐項口縣), 소래지역은 매소홀현(買召忽縣)에 속하였다. 이후 신라 때 장항구현이 장구군(獐口郡), 매소홀현은 소성현(邵城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高麗) 때는 장구군이 안산현(安山縣)·안산군(安山郡)으로 승격 되었다. 소성현은 경원군(慶源郡)·인주(仁州)·경원부로 변천하였다. 조선시대 안산군에는 군내면(郡內面)·초산면(草山面)·잉화면(仍火面)·마유면(馬遊面)·대월면(大月面)·와리면(瓦里面) 6개 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날의 시흥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초산면·마유면의 전 지역과 잉화면·대월면의 일부이다. 경원부는 인천군·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시흥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신현면(新峴面)·황등천면(黃等川面)·전번면(田反面)이다.⁶⁰⁾

1721년(경종 1) 인천부 신현면 포동(浦洞)과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下中里) 돌장재사이의 바다에 호조방죽(결둑)⁶¹⁾을 쌓았다. 이로 인해 너른 농경지인 호조벌이 만들어졌다. 호조방죽은 진휼청(賑恤廳)에서 백성의 구휼을 위해 둔전(屯田)으로 간척되어 당시 권력자들의 진전개발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두 지역의 자연경계인 바다가 농경지인 호조벌로 이어지면서 시흥지역은 하나의 역사·문화·경제로 나아갔다.

1910년 일제가 강점하자 시흥현(始興縣, 1895년 시흥군 승격)의 금천을 중심으로 1914년 4월 1

59) 이병권, 2014 「1797년 8월 행행(行幸)과 정조사적(正祖史蹟) 고찰(考察)-시흥지역을 중심으로-」, 『京畿鄕土史學』 제19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240~242쪽 참조

60) 시흥문화원, 2006 『始興市地名由來』, 19~22쪽 참조

61) … 안산과 인천 두 읍의 경계에 제방을 쌓아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감관(감독관)을 정하고 군정을 고용하여 일을 시작하여 이제 완공하였습니다. 가까운 경기지역 내에 수백 석의 논을 얻어 실로 다행입니다… (又以賑恤廳言啓曰 本廳用度浩繁 蓄積匱竭 而元無稅入之物 牽補推移之際 極其苟簡 安山·仁川兩邑之境 有可以築堰作畝之處 故別定監官 雇軍始役 今已完畢 近畿之內 得此數百石缺畝 誠爲多幸) -『승정원일기』 제535책, 경종 원년 12월 6일

일 군·면 통폐합 때, 안산군을 없애고 거대 시흥군⁶²⁾이 되었다. 이때 통폐합으로 수암면(秀岩面)은 군내·초산·잉화의 3개면을 합쳤고, 나머지 와리·마유·대월의 3개면은 군자면(君子面)⁶³⁾이 되었다. 이러한 군·면 통폐합 조치로 ‘안산군’이 해체되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안산’이라 하였다.⁶⁴⁾

(1) 면제(面制) 및 주재소(駐在所) 설치에 따른 무단통치 강화

일제는 강점 후 전국을 13도(道), 12부(府), 317군(郡)으로 나누어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였다. 또한 1914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면의 명칭 및 경계획정」을 하고 1917년 제령 1호「면제(面制)」를 제정·시행⁶⁵⁾하였다. 식민지관료행정기구인 식민지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주요한 도구로 면은 지방행정의 최말단 기구였다. 당시 군자면장은 최준홍(崔俊鴻)이 1919년부터 1926년까지 맡았다.⁶⁶⁾

면은 통감부시기에 말단 징세의 단위로서 또는 의병탄압의 보조수단 역할을 하며, 강점이후 조선인 유력자들을 포섭해 면의 운영자로 임명하여 면구역 개편, 면유재산 확보 등을 통해 행정 말단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당시 면장은 헌병경찰의 물리적인 비호를 받으며, 하달되는 각종 법령의 주지, 징수금의 납입 고지, 징수 독려, 민적(民籍, 호적)의 이동 보고, 각종 청원 서류의 전달, 면내 정황보고, 통계자료 조사, 동장의 감독 업무 등을 수행했다. 따라서 면의 농민들은 각종

62) ‘시흥’은 지명(地名)이다. 현재 시흥시를 이르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금천구도 시흥이 들어간 지명을 사용한다. 이는 금천구도 시흥이기 때문이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 때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姜邯贊, 948-1031)의 기록에서 “강감찬의 옛 이름은 은천인데 금주 사람이다. 그의 5대조 강여청이 신라부터 옮겨와 사니 시흥은 즉 금주이다(姜邯贊舊名殷川衿州人 五世祖餘淸自新羅來居 始興郡即衿也-『강감찬전』, 『고려사』 권94)”라고 하여 시흥이 금주의 별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강감찬이 983년(성종 3)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한 것으로 볼 때, 늦어도 고려 성종 때부터는 시흥이 금주와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다. 1795년(정조 19) 2월 정조가 친부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릉원 행행(行幸)을 위해 ‘수원별로’를 새로 내면서 금천현감을 현령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금주의 별호인 시흥을 취해 시흥현으로 삼으면서 금천지역을 이르는 명칭이 되었다.-경기신문, 2015년 7월 1일 기사「‘시흥(始興)’과 시흥시(始興市)」, 『오피니언-문화지킴이마당』

63) 군자면에는 총 14개리로, 마유면의 장현리(長峴里), 장곡리(長谷里), 월곶리(月串里), 정왕리(正往里), 죽율리(竹栗里), 군자리(君子里), 대월면의 거모리(去毛里), 선부리(仙府里), 와리면의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신길리(新吉里), 성곡리(城谷里), 목내리(木內里), 원시리(元時里)로 편제하였다.

64) 하야시 토라조(林虎藏)는 1930년에 펴낸『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에서 “수암면은 옛 안산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암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보통 안산이라고 한다. 우편물도 대개 ‘시흥군 안산’으로 배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산 토박이인 1930년생 강희태의 구술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신대광 외, 2009 「안산동 일대 토박이의 구술 채록-전 수암면장 강희태」, 『안산의 농촌지역 조사연구』-안산 시사편찬위원회, 2011 「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431쪽 참조

65)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과 함께 그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1454호, 대정 6년 6월 9일(1917)

66) 최준홍에 앞서 면장직은 「직원록」의 1910~1918년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최준홍의 임면일 역시 알 수 없는데, 이는 「직원록」이 당해년 현황으로 명단만 나오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1919 ~ 194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조세 부담으로 지세, 호세, 지세부가세, 시장세, 도장세(屠場稅), 연초세, 주세, 면비(面費), 학교조합비, 기타 각종 조합비 등 갖가지 부세에 시달리며 식민지 통치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3·1운동 이전에 이미 1918년 철원군 마장면 농민들이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항의하며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농민들의 분노가 생존권 수호 투쟁 형태로 표면화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⁷⁾

군자면 3·1운동의 경우 ‘군자면사무소를 불질러 버리자’라는 격문이 돌고, 김천복은 “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 면사무소로 가라”⁶⁸⁾를 통해 면치(面治)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감과 달리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면사무소를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일제는 강점 후, 식민통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칙령 제343호「조선주차헌병대조례」(1910. 9. 10)를 발표하고「조선총독부 경찰관서 관제」(10. 1)를 시행하였다. 헌병경찰은 1910년에 전국 1,134개의 헌병경찰기관에 경찰 5,881명, 헌병 2,019명이었고 1918년 9월말 헌병대 1,048개, 인원 8,054명, 경찰관서 738개, 인원 6,28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헌병경찰은 조선의 경찰 및 위생사무 관리, 첩보 수집, 의병 토벌, 범죄 즉결처리, 민사쟁송 조정, 검찰사무, 세관업무, 산림감시, 민적업무, 우편호위, 검역·방역업무, 강우량 관측, 밀수입 등과 경제단속, 노동자 단속, 일본어 보급, 농사개량업무 등 통치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으로 관장했다. 또한 헌병경찰은 ‘범죄즉결처분권’을 비롯한 각종의 권한으로 주민들에게 멋대로 벌금, 태형, 구류 등을 부과하는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도 폐지된 태형제의 부활은 경범죄까지 적용하여 헌병경찰이 임의로 남용하였다. 더욱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도 감옥과 유치장에 가두고 마음대로 매질하였다.⁶⁹⁾

그리고 일본인 헌병경찰 말고도 1910년의 경우 헌병 인원 2,019명 가운데 조선인이 1,012명으로 꼭 절반이 헌병보조원(補助員)으로서 각 헌병관서에 배치되어 일본 헌병 앞잡이 노릇을 했고, 같은 해의 경찰요원 5,881명 중 조선인 3,493명이 포함되어 경무관, 경시, 경부 등 간부급 약 120명, 통역 58명, 순사 181명, 순사보 3,131명으로 조선인이 하급요원의 절반을 차지하며, 강점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 통치체제를 세워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6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연구총서』1, 경기출판사, 274쪽 참조

68)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36쪽 재인용 : 「鮮人の騷擾に関する件」密第号其160,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文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강은식·김천복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제5집, 277쪽

69) 이동근, 2014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8~9쪽 참조

었다.⁷⁰⁾ 헌병경찰제 아래서 일본인 순사 1명과 조선인 순사보 3명이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¹⁾ 1919년 당시 수암주재소에서는 조선인 순사 임건호(任健鎬)가 확인된다. 군자면이 속한 당시 시흥군 관할 영등포 경찰서관내에 시흥(始興), 노온사(老溫寺), 수암(秀岩), 거모(去毛), 과천(果川), 노량진(露梁津), 군포장(軍浦場)에 순사주재소(巡查駐在所)가 설치⁷²⁾되었다. 이중 거모주재소가 군자면을 관할하였다.

3·1운동에서는 식민통치 최하위 말단 행정기구인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공격⁷³⁾하였다. 경기도 내에서도 면사무소 4개소가 완전 파괴되었는데, 이중 수원지역에서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었다. 특히 면사무소의 모든 서류들을 파괴하거나 소각된 것은 일제 식민통치의 근거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수원지역에서는 순사 2명이 처단되었으며, 화수주재소와 발안주재소 등이 만세운동의 과정에서 파괴되었다.⁷⁴⁾

이러한 수원군의 만세운동과 달리 시흥지역의 수암면과 군자면에서는 면과 주재소, 순사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암면 3·1운동에서는 운동육이 순사 임건호를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일제 통치하부 기관의 회유와 보전을 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특기하다. 그러나 군자면에서는 4월 3일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불질러 부숴버리자”라는 격문이 각 동리에 배포되어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자고 분명히 밝혔고, 이를 입수한 일제는 순사와 헌병을 파견하였다.⁷⁵⁾ 결국 이로 인해 군중이 해산되고 공격이 무산되었으나 주민들의 반감과 공격성을 확인 할 수 있다.⁷⁶⁾

70) 강만길, 1998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1~22쪽 참조

71) 일제가 비밀리에 내린 훈령 「총독부 관제 조선인 관제규칙」에는 “·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 조선인을 관리에 임용치 않을 것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선인을 관리에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학 기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배제할 것 · 조선인 관리는 절대로 중요한 지위에 임용치 않을 것 · 조선인 고등관의 봉급은 100원에 그치며, 판임관은 봉급이 30원에 달하면 반드시 퇴직시킬 것 · 재판소 검사에는 일제 조선인은 임용치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연구총서』1, 경기출판사, 266~267쪽

72) 『조선총독부관보』 제1352호, 대정 6년 2월 8일(1917)

73) 전국적으로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격을 당한 관공서는 군청 5개소, 면사무소 47개소, 경찰관서가 45개소였다. 면사무소 47개소 가운데 전부 불탄 것은 19개소, 일부 파손된 것은 28개소이고, 경찰관서 45개소 중에도 전부 불탄 것이 16개소, 일부 파손된 것이 29개소였다. -이동근, 2014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사 역사는 삶이다』, 블루씨, 168쪽 재인용 : 國會圖書館, 1992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 其二 7~8쪽

74) 수원지역 주민들은 남세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했다. 일제의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말단 행정기구의 공격은 수원지역 3·1운동의 공격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동근, 앞의 책, 168쪽

75) 안산문화원 · 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 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36쪽 재인용 : 「鮮人の騷擾に関する件」 密第102号其160,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文書

76) 일제의 무단통치로 비참한 처지에 내몰아쳐진 농민들은 ‘독립만세’ 함성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토지수탈, 중과세, 소작료, 고리대, 각종 부역에서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촌시위는 주로 장날을 이용했지만 운동이 가열됨에 따라 평일에도 잇따라 일어났다. 시위는 대체로 독립연설을 하거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뒤 시위행진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는

3) 경제적 배경

(1) 식민지(植民地) 농정(農政)과 경제적처지

무단통치시기 주민들의 경제적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당시 군자면 3·1운동을 촉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중요하다. 먼저 강점 후 일본인의 진출상황과 그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일본인의 진출이 본격적인 식민지 수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자면의 다수 계층인 농민들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군자면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없으나 같은 시흥군이자 안산에 속하였던 수암면을 통해 유추해본다.

일제는 을사늑약이후 농촌침략을 강행했다.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⁷⁷⁾가 진출하고, 강점 직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1910. 9)하여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후, 1918년 말까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약 2천만 엔의 경비를 들여 토지소유권 조사와 토지가격 조사, 지형 및 지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완결 지으면서 우리의 전통적 사유권을 정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부분소유권으로서의 도지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작농민은 토지에서 자연이탈 되고 공장토, 역둔토, 목장토 등이 이미 총독 부화 하거나 민유지(民有地)가 되었다.⁷⁸⁾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되었으며, 당시 일

대부분 일제헌병, 경찰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강제 해산 당했으며, 이렇게 되면 농민은 돌맹이, 몽둥이, 죽창, 삽, 괭이 등으로 무장하고 헌병주재소나 면사무소, 금융조합 등 일제의 지배수탈기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같은 시위투쟁과 아울러 조선 후기 농민항쟁 때 자주 이용하던 햇불시위, 산상봉화시위, 산호시위를 배합하여 투쟁열기를 북돋았다. 이런 투쟁 형태는 효과적인 농민적 선동수단인 동시에 대단위 지역적 연대투쟁을 가능케 하였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만세꾼’이다. 만세꾼은 시위에 참가한 군중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삼배주머니로 도시락을 만들어 망태에 넣어’ 원거리 시위에 참여하는 의도적인 시위군중인 동시에 수십 명씩 때를 지어 다니며 봉기를 유도하거나 지역적 연계를 꾀하는 ‘바람몰이꾼’이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89년 2월 28일 기사(제246호) 「민족해방운동에서의 3·1운동」 심포지엄 요약 -전개양상 참가계승 공동집필 정연태, 이지현, 이윤상

77) 일제가 한국의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책회사(國策會社)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일제는 제24회회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통과(1908. 3)시키고 통감부가 순종의 재가를 얻어 한일합작회사로 창립(12. 28)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무를 개시(1909. 1. 29)하여 한국정부로부터의 출자분으로 토지 1만 7,714정보(는 1만2,523정보, 밭 4,908정보, 잡종지 283정보)를 인수받고, 이밖에 1913년까지 한국 내에서 매입한 토지는 모두 4만7,147정보(는 3만534정보, 밭 1만2,563정보, 임야 1,968정보, 잡종지 2,082정보)에 달하였다. 동척의 토지소유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뒤 국유지 불하의 혜택을 받아 더욱 확대되어 1920년 말 현재 소유지는 9만700여 정보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소유지는 일본으로부터 유치되어온 농업이민에 불하, 양도되어(招致事業 전개) 되었다. 또한 창립 때 “식산흥업의 길을 열고 부원을 개척하여 민력의 함양을 기도하여 한국민으로 하여금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한다.”는 것은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였다.-趙璣濬, 1978 「日帝의 經濟政策」, 『한국사』 21, 74~91쪽 참조

78) 토지조사사업은 국유지에서 소유권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여 총 분쟁건수 약 10만 건 중 99.7%가 소유권 분쟁이었다. 그 가운데 65%가 조선총독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특히, 역둔토 약 13만5천 정보와 민유지 약 4만 6천 여 정보가 총독부 소유지가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지세수입을 올려 1910년 600 여 만 엔에서 1918년 1,156만 9천 여 엔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인 이주자의 증가와 토지소유도 급격하게 증가했다.-강만길, 1998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22~123쪽 참조
시흥지역에도 1915년 5월 군자면 장현리 정동섭의 소유권분쟁과 10월 수암면 하중리 김응환과 김창석의 경계분쟁이 대표적이다. 정동섭의 불복신청은 토지신고서의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응환 등은 두 필지 답의 경계를

본인은 인천에 1만 2,000명, 수원군에 3,000 여 명 등, 경기도에 약 2만 3,000 여 명이나 거주⁷⁹⁾하고 있었다. 이주한 일본인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 진출 뿐 아니라, 재정, 금융, 화폐, 교통, 통신 등 전 방위에 걸쳐 일제 경제 수탈의 첨병이 되었다.⁸⁰⁾

〈표 3〉 1930년 국적별 인구구성

지역	일본인			조선인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시흥군	2,016	1,089	927	71,095	36,552	34,543
수암면	6	3	3	8,318	4,186	4,132
군자면	86(1.0)	41	45	9,873(99.0)	5,139	4,734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3, 185쪽 부분인용 : 朝鮮總督府, 1937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京畿道』제1권

〈표 3〉에서 시흥군 내 군자면으로 이주한 일본인의 수가 수암면에 비해 많다. 이러한 이유는 군자면 일대에 대규모 관영염전인 군자염전이 만들어져 운영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흥군 전체로 볼 때는 군자면에서 일본인의 수 역시 미비하다. 당시 군자면은 국적별 인구구성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이 없었다. 1930년을 기준으로 시흥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면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자면 71.1%, 수암면 70.8%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출신은 군자면이 7.5%로 최대였고, 수암면은 2%에 그쳤다.⁸¹⁾ 주민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산 농민이었다. 또한 식민지배가 20년이 지났지만, 일본인의 비율이 매우 낮다.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3 155~156쪽 참조 : 『조선총독부관보』 제832호, 대정 4년 5월 14일(1915), 제950호, 대정 4년 10월 4일

7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연구총서』1, 경기출판사, 274쪽 참조

80) 조선에서의 일본인 농업경영 규모 (금액단위: 천 엔, 면적단위: 정보)

연도	경영자수	투자액	논	밭	산림	미간지	기타	합계
1909	692	7,906	42,880	52,439	6,556	9,556		11,431
1910	2,254	13,737	42,584	26,727	13,867	8,918	3,773	86,951
1911	3,839	12,473	58,004	35,337	10,278	8,918	13,573	126,110
1912	4,938	29,662	68,376	39,605	8,254	9,407	5,156	130,798
1913	5,916	36,771	89,624	60,403	17,870	6,415	9,933	184,245
1914	6,049	38,820	96,345	63,517	19,414	9,213	9,446	197,935
1915	6,969	45,587	108,742	62,311	17,499	8,958	8,027	205,537

* 강만길, 앞의 책, 123쪽 재인용 : 小早川九郎 編著,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81) 군자염전의 축조(1925)와 운영에 따른 임노동을 추정할 수 있다.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3, 185쪽 부분인용 : 朝鮮總督府, 1937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京畿道』, 44쪽, 62~63쪽.

이는 조선후기 이래 곡창지역으로 소유관계나 계급·계층관계가 명확한 상태였으므로 일본인들이 토지조사사업이나 동척 등이 진출할 틈새나 이점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흥군과 부천군 단위로는 전체 2~3%의 일본인이 거주하였지만, <표 3>처럼 군자면은 거의 99%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이렇듯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적 갈등보다, 면사무소 등 지배기구 내에서는 일본인 관리가 중심이었기에 그들과의 상하적 위계질서로 인한 민족적 차별의식이 더 컸을 것이다.⁸²⁾ 이는 3·1운동과정에서 일제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수원군과 매우 대조적이다.⁸³⁾

1916년(3월 기준) 당시 수암면은 총 호수 1,592호, 인구 8,124명으로 전체 호수의 약 93%가 농업에 종사했다. 어업과 상업 등이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경지의 소유관계와 경작형태는 수암면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척도이다. 1916년의 조사에서 수암면의 경작지 중 답(畓)의 66.7%, 전(田)의 56.7%가 소작지였다.⁸⁴⁾ 따라서 군자면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자국민이주를 위한 철저한 계산된 정책 사업이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인 토지소유를 합법화하여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식민지주층의 토지수탈과 일본농민의 이주식민을 촉진하여 한국농촌의 일본화를 기하였다.⁸⁵⁾

따라서 전통적인 지주소작제가 일제의 정책에 힘입어 식민지 지주제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듯 일본인이 진출한 지역이나 군자면처럼 미비한 지역도 식민지 지주제로 인해 농민들의 처지는 매우 곤궁하였다. 더욱이 시흥지역이 경성부와 인접한 농촌이어서 전통적인 부채지주가 많았다.⁸⁶⁾ 구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희(權愾)도 후에 경성지주인 낭정호⁸⁷⁾의 소작인이 되었다. 대

8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84~185쪽 참조

83) 수원에는 약 3천명의 일본인이 거주하였고 일제강점기 경기도 여러 지역 중 동척 소유의 토지가 가장 많았다. 당시 일제소유의 토지는 답(畓)이 809정보, 전(田)이 381정보였다. 1,190정보의 일제토지에 2,117호의 조선인 소작인이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민족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다.-서광일, 2003 『화성지역 3·1운동의 지방사적 배경』,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학교 출판부, 370쪽

84)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483쪽 재인용: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小作年報』 第1輯

85) 신민정·전운성, 2006 『20세기 전반기 강원지역의 지주·소작관계 연구』, 『농업사연구』 제5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106~107쪽 참조

86) 하야시 토라조는 “경지의 대부분은 도회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부채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를 3호의 재촌지주와 자작농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8할은 소작농이라고 해도 좋은 상황”이라고 하였다.-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82~483쪽 재인용: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87) 낭정호(浪定鎬, 생몰년 미상)는 황해도 해주 근대식 사립학교인 해동학교의 영어과 졸업생이며, 피혁 제품의 원료와 부속품을 판매하는 유풍상회(裕豐商會, 합자회사로 1925년 6월 28일 설립, 경성부 황금정 1정목 181-3, 현재 을지로 일대)의 사장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동포에 대한 구휼금을 내는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매일신보』 1932년 12월 8일 기사에 “낭지주의 독지(소작인이 송덕비 건설)(영등포)경성부 다옥정(茶屋町) 74번지 낭정호(浪定鎬)씨는 거금삼십사년전부터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시흥시 능곡동 및 장현동 일대) 소재토지 십칠석두락(약 3만 4천평)의 소작인들에게 매년 궁춘(窮春)에 일으려 종곡(種穀)을

다수 소작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의 절반을 외지(대부분 경정부)에 거주하는 지주에게 주고, 매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야 했다. 당시 소작관행은 전통적인 병작반수의 타조법(打租法)이 일반적이었다.⁸⁸⁾ 한편 당시 수암면의 총 1,432호의 호별 수입 전체의 77%가 연간 수입이 300원이 채 안 되는 빈곤층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50원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⁸⁹⁾ 이렇듯 군자면도 다수의 농민들은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을 것이다.

(2) 시흥해역(始興海城)의 경제적 처지

군자면은 3면이 바다로 이어진 경기만의 드넓은 간사지가 펼쳐져 있어, 일찍부터 어업과 염업이 발달하고 간척을 통한 개간도 매우 활발하였다. 시흥해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를 알리는 오이도의 패총 유적(사적 제441호)과 조선시대 안산어소 사용원 분원(안산시 신길동)이 위치했었다. 1910년대 당시의 어업·어촌·어민·어종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9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한『한국수산지』이다. 여기에 안산군에는 총 548가구, 2,324명이 거주하였는데, 그 중 어업가구는 105가구였다. 군내면의 성곶포를 비롯하여 와리면의 원당포·이목동·성두리·적길리와 현재 시흥시에 속하는 마유면 오이도·정왕포 등이 주요 어촌이었다. 조기·새우·민어·송어·밴댕이·조개·굴·낙지 등이 포획되었으며, 판매지는 군포·수원·마포 등지였다.⁹⁰⁾

시흥해역은 서해안의 최대 조차가 남쪽이 4m 정도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커져 인천부근에 서는 약 9.3m로 가장 커지며, 충청 이북의 해안은 5m 이상이다. 시흥해역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조차가 심하다. 갯벌이 생성되기 적합한 천해의 자연조건이며, 대규모의 갯벌과 염습지가 발달할

무료배부할뿐만 아니라 소작료의 운반비를 자담(自擔)해야했으므로 그 소작인들은 항상 낭지주의 독지에 만흔 청송을 하야오든바 금반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권희(權禧)의 삼심칠명의 소작인들은 그 소작전답 일두락(2백평)에 대해하야 금오십전식을 각출하야 낭지주의 송덕비를 건설중이라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송덕비는 1932년 처음 삼거리장에 세웠는데, 현재는 일대의 택지개발로 인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 영모재 공원(능곡동 617)에 있다. 송덕비의 내용은 (앞면)낭공정호 송덕비(浪公定鑄 頌德碑), 유아낭공(唯我浪公) 춘경추렴(春耕秋斂) 금세활불(今世活佛) 보급주홀(補給周恤) 소작세민(小作細民) 만구공송(萬口共頌) 영보구명(永保軀命) 재차명비(載此銘碑) (뒷면) 소화칠년십이월일(昭和七年十二月日) / (해석-앞면) 낭정호 송덕비, 오직 우리 낭공만이 봄에 밭 갈고 가을에 거두시네 현재에 살아있는 부처님같이 도와주시고 두루 구휼해주시네 소작하는 영세민들이 입을 모아 청송하시네 영원히 몸과 목숨을 보전하시기를 바라며 이 비문에 신노라 (뒷면) 소화7년(1932년 12월) 12월-십우일, 2013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시흥문화』 제16호, 시흥문화원, 78-80쪽 참조

8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 3, 190쪽 참조

89)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483쪽 재인용 :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1932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90)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현대 안산의 변화와 발전」, 『안산시사』 6, 206-207쪽 재인용 : 조선총독부농상공부, 1911 『한국수산지』 제4집, 75-79·85-92쪽 참조

수 있었다. 서해안 갯벌이 지질사적으로 약 1만 년 전인 현세에 생성되어, 시흥의 갯벌도 1만 년을 넘지 못한다. 서해안에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의 약 83%인 1,980km²가 분포하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산재해 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기만이 35%를 차지한다. 시흥 갯벌은 시흥시 서쪽과 인천광역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는데, 소래 갯벌 또는 포리 갯벌로도 불렸다. 좁고 긴 갯벌이 내륙으로 들어와 있으며 깊고 넓은 전형적인 경기도 해안 갯벌의 모습이다. 그러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45km², 송도개발로 16km²에 달하는 갯벌과 시흥시 월곶, 배곧신도시 등의 매립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 정왕동에서 안산에 이르기까지도 너른 갯벌이었는데, 시화방조제 건설(1994)로 육지화 되었다. 이처럼 시흥해역에서 갯벌은 늘 역사적 변동과 함께, 일찍이 ‘농경지염전산업·도시단지’의 유혹을 받는 변동의 중심에 있었다. 천일염전, 즉 군자염전과 소래염전 축조⁹¹⁾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살 같은 정치어법으로 살아가던 시흥해역에서 대대적인 간척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후기부터다.⁹²⁾

1721년(경종 1) 호조방죽(호조벌)의 축조이다. 1917년 시흥해역 지형도⁹³⁾를 보면, 호조방죽 말고도 해안가에 방죽을 쌓아 형성된 농경지들이 즐비하다. 이를 통해 간척과 개간이 활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간에는 호조벌의 경우에도 민원(民怨)⁹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1900년대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 강점 후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직접적인 사례를 당시 군자면에서 찾을 수 없다. 군자면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



사진2.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출처: 시흥시 향토사료실)

91) 일제 주도의 천일염전 축조는 총 4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기 1907~1913년: 주안(99정보), 광양만(廣梁灣, 934정보), 제2기 1919~1920년: 주안(139정보), 덕동(德洞, 226정보), 제3기 1921~1924년: 남동(南洞, 300정보), 귀성(貴城, 149정보), 남시(南市, 217정보), 군자(君子, 575정보), 제4기 1934~1945년: 연백(延白, 1,250정보), 귀성(1,036정보), 소래(蘇萊, 549정보)이다. 소래염전 준공에 대해 1934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58만원으로 대염전 기공-부천군 소래면에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6, 282~283쪽 참조

9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6, 36~38쪽 참조

93)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대정6년(大正, 1917)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축척 1:50,000 / 인천, 군포장, 남양, 대부도 합본

94) “혜청(惠廳)에서 축조한 인천·안산의 해언(海堰)은 재화(財貨)만 허비하고 백성들의 전답에 피해만 끼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즉시 허물이 버리고 그 일을 맡은 자를 잡아 가두어 엄형(嚴刑)하게 하소서.” 하니, 최석항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호소(呼訴)가 사실이 아니니, 다시 적간(摘奸)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단지 그 일을 맡은 자만 가두어 치죄하라고 명하였다.(惠廳所築仁川 安山海堰 徒費財貨 貽害民田 請即毀破 任事者囚禁嚴刑 錫恒言 民訴非實 宜更摘奸 上只命囚治任事者)-『경종실록(景宗實錄)』 권12, 경종 3년 5월 계묘

사한 환경인 당시 수원군에는 일본인이 간척사업⁹⁵⁾을 많이 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지에서 온 인부⁹⁶⁾들도 많았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지인 인부에게 소작을 임의로 주면서 내지인과 외지인의 갈등을 부추겼고,⁹⁷⁾ 일본인 감독들의 횡포⁹⁸⁾가 심하였다. 장안면에서도 간사지 수축을 위해 주민을 동원하여 원성이 높았다. 우정·장안면 3·1운동 당시 장안면장 김현묵에 따르면, 석포리의 간사지 인부들이 만세시위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주도자로 징역 15년을 언도받은 이영쇠는 외지인이었다. 따라서 당시 개간이 활발하였던 장안면의 석포리나 장안리에는 많은 노동인들이 외지에서 들어왔으며, 그들 상당수가 고역에 시달리고 불만을 가져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군자면도 3·1운동 당시 지역에서 간척과 농경지 개간사업이 지역민들에게 있어 큰 고역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농경지 역시도 일제나 부호의 차지라서 여전히 대다수 지역민은 소작인 처지로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간사지 개간과 아울러 살펴 볼 것은 염업이다. 시흥해역은 너른 간사지가 발달한 천혜의 자연조건인데, 이는 전통염업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다. 1919년 당시 염업은 보편적인 서해안 제염과정인 전오제염(煎熬製鹽)과 천일제염(天日製鹽)이 있었다. 당시 시흥지역에서도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전오염(煎熬鹽), 화염(火鹽), 혹은 자염(煮鹽)이라 부르는 제염법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전오염은 일제에 의해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전까지 생산되던 전래소금이다. 중부 서해안에서

95) 수원군 장안면 석포리에는 간사지 개척사업으로 일본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시쿠라 겐이치(石倉憲一)와 나가노 후지소우(永野藤藏)이다. 그 중 나가노는 1918년 3월부터 석포리에서 간사지 경영사업을 하면서 우정, 장안면 3·1운동의 주도자인 차병혁의 아버지 차상문(車尙文)에 집에서 1916년경부터 살며, 차병혁과 친숙한 사이였다. -국사편찬위원회, 1996 「永野심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1, 10쪽 참조

96) 서울에서 온 인부는 1918년 4월 3일 당일까지 신주백(申周伯) 등 총 29명인데 그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고 4월 3일, 당일에는 12~13명이 있었다. 그들은 만세시위가 있을 거라는 소문과 4월 2일경부터 발안 쪽에서 주민이 많이 몰려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가노는 술을 마시려면 사다 마시고 주민과 일체 접촉 말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11쪽 참조

97) 간사지 공사는 지역민도 더러 있었다. 문춘식(文春實)은 1919년 7월 2일,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열린 심문조서 제2회에서 일본인 밑에서 일하여 다른 사람이 경작하던 소작지를 자신이 맡아서 경작했다고 진술하므로 일본인 고용주들은 소작을 임의로 자신이 고용한 인부에게 주고 있다. 우정면장 최중환(崔重煥)은 “석포리 사람이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주도자”라고 언급하여 이들 인부들도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소작권을 빼앗긴 사람들도 이에 불만을 가지고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박환, 2004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125~126쪽 참조

98) 장안리 방축공사 사업자는 사사카 도시키찌(佐坂利吉), 발안장터 정미소 운영, 제암리 학살 때 순사보 조희창과 길잡이를 함)의 동생 사사카 사이키찌(佐坂才吉)로 일본인 감독과 조선인 감독 박동현(朴東鉉), 홍사문(洪士文), 김익삼(金益三) 등과 다니면서 장안리, 홍원리(평택시 포승읍) 주위 마을에서 횡포가 심하였다. 당시 장안리에는 이들 공사장 인부를 상대하는 술집이 12개나 있었고 홍원리의 일본인 감독과 인부들이 드나들면서 마을의 아녀자를 희롱하는 등, 행패가 매우 심했으며, 우정면 석포리 역시, 주막에서 술을 마신 일본인 감독들의 횡포가 심했다. 또한 장안면에서도 간사지 수축을 위해 면민을 동원하여 그 원성이 높아 3·1운동 당시 군중 속에서는 “면장을 간사지에 처넣고 밟아 죽여 버리라”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 박환, 앞의 논문, 125~127쪽 참조

활발했던 전오염염법 가운데 오늘날 시흥지역의 전오염 생산에 대해 알려주는 문헌 기록은 없다. 하지만 인근에서 널리 전오염이 생산되고 있던 상황이『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고 있다.

『한국염업조사보고』(1908)에는 전래의 소금생산 실태가 전국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인천·부평·김포·통진·안산군(초산·마유·와리면)의 염전종류는 양빈식(揚濱式)⁹⁹⁾이었다. 당시 안산군 조사지의 경우 부옥(釜屋) 38개, 소정(沼井) 295개였다. 그리고 안산군 각 면의 염정(鹽井)구조는 조수의 차를 활용한 반원형의 염정으로서 마유면에 202개(염전면적 19.5819町), 초산면에 58개(염전면적 5.9304町)가 있었다. 채함(採鹹)시기는 봄·가을이었는데, 봄은 3~5월, 가을은 8~10월로서 1년에 6개월 동안 가능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함수를 가마솥에서 끓이고 졸여냈다. 생산된 소금은 중매인이 배를 통해 마포로 이출했으며, 1표(俵)운임은 35전(錢)이었다.¹⁰⁰⁾

일제는 일찍이 시흥해역에서의 대대적인 소금생산 가능성을 예견했다.¹⁰¹⁾『한국수산지』에는 “안산군 연안에는 염전개발을 위해 적당한곳이 적지 않다. 이미 조성된 염전이 약 30정보인데, 1년 생산액은 약 336만근”이라고 기록이 있다. 그리고 “초산면은 미산지로서 어업자가 한명도 없는데, 연안에는 염전이 약 6정보가량 있으며, 1년에 67만 근 남짓 생산한다. 성곶면내에 염전이 있는데, 모두 입빈식(入濱式)으로 1년에 약 40만 근 정도 생산된다. 마유면 연안에는 염전개척에 적당한 곳이 많고 이미 조성된 염전은 20정보 가량 되었으며, 1년 생산액이 230만 근에 달한다”¹⁰²⁾고 하여 한말까지도 다량의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염전의 운영은 자본주인 ‘벗주’가 큰 쇠술이나, 장작, 일꾼들의 식비 등 돈을 대고 구워진 소금의 40%를 가져갔다.

99) 양빈식 염전은 제방이 없는 무제염전(無堤鹽田)으로서 해수면보다 염전을 높은 곳에 조성하고 해변에서 염전부근까지 도랑을 판 다음 밀물 때 해수를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100)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현대 안산의 변화와 발전」, 『안산시사』 6, 297쪽 재인용 :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1908 『한국염업조사보고』 제편, 234~248쪽

101)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제는 1907년 염업에 관한 전면적 조사에 착수하여 5년만인 1911년에 조사를 완료한다. 당시 경기도는 부옥(釜屋) 815개, 염정(鹽井) 3,527개, 제조인원1,770명, 소작인원 667명, 종업자 5,725명, 염전면적 525.57정보, 생산량 5,248만 1,264근에 달하고 있었다.(朝鮮總督府專賣局, 1936 『朝鮮專賣史』 第3卷, 276쪽)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남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경기도·충청도 순으로 경기도가 전통적으로 염업에 매우 강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준다. 통계수치로 오늘날의 인천, 시흥, 화성, 안산 등지가 주요 생산지였을 것으로 비정된다. 20여년이 경과한 1936년의 자료에 의하면 전오염은 급격히 쇠퇴하여 경기도의 경우에 수원지역, 즉 오늘의 화성해안가 정도에나 일부 남았던 것으로 정리된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 6, 275쪽

102)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9쪽 재인용 : 조선총독부농상공부, 1911 『한국수산지』 제집, 85~92쪽

염부¹⁰³⁾ 대부분이 소작으로 삶은 매우 곤궁하였다.¹⁰⁴⁾

개항이후 일본염과 청국염의 수입은 조선염이 가격경쟁에서 도태되어 제염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안산군의 경우 주민들은 대부분 주업이 농업이고 부업으로 염업에 종사하였다. 전통적 방식에 전오제염법(煎熬製鹽法)은 일본이 인천 주안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천일제염 방식의 소금 생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 경쟁에 뒤처진 시흥지역에서는 염전산업에 타격을 받았다.

또한 1907년 통감부는 염업조사를 통해서 염세를 부과하여 제정수입의 확대와 종래의 한국인 제염업자를 해체하려고 하였다.¹⁰⁵⁾ 1906년 10월 「조세징수규정」의 제정이 그 전단계이며 면장, 임원에 의한 지세의 부과를 세무관=세무주사, 면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세수취구조로 바뀌자 염세 또한 그와 같이 부과되어 염민들은 염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생산 즉시 반출함으로써 염세미납을 통한 염세저항운동을 벌였다. 이웃한 남양군의 경우는 1906년 군수 방한덕과 염민 간의 염세마찰에 이어 1907년 5월 염민 수십 명이 부당한 염세로 인하여 탁지부(度支部)로 항의 집회를 전개하였다. 결국 이는 염세를 전부 내지 않는 염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조직적인 저항을 위해 염업회의소를 결성한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저항이 표출되기에 이른 것은 일제가 염전을 줄이고 소금의 수입을 늘려 염전주(鹽田主)를 더욱 곤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¹⁰⁶⁾ 위의 사례에서 보듯 전통염업이 발달한 군자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군자면 3·1운동

(1) 주도집단

군자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먼저 거모리에서 4월 4일 만세운동을 벌인 원

103) 소금물을 염뿔까지 저 나르는 일꾼을 ‘간장이(간쟁이)’라 부르고 가장 고돼 “간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으며, ‘염한이’는 땀감마련과 아궁이 불 지피기를 담당하였다.

104)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현대 안산의 변화와 발전」, 『안산시사』6, 296~302쪽 참조

105) 통감부의 염업정책은 식민지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염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조선염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일제는 자염의 개량을 통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보다 수세를 강화시키려 하였다. 1907년 염세규정은 자염 생산에 일차적인 통제책이자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식민지 건설의 중요한 재원으로 천일염 생산에 관심이 높았다. 당시 화학공업의 원료로서 천일염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일본은 지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조선은 천일염을 생산하기 마땅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천일염의 원료 생산지로서 매우 적합한 곳으로 여겼다. 일제는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장래와 조선 천일제염의 장래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선에서의 천일염 생산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관영 천일제염의 확산은 식민지적 생산력 발전과 종래의 생산 관계 재편을 염두 한 것이다. -이명성, 2017 「통감부의 염업정책과 조선염업의 변화」,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80-81쪽 참조

106) 수원군 우정·장안면의 3·1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도 염업에 종사한 사실이 김삼만(金三萬), 최경팔(崔敬八), 박경모(朴景模), 김성형(金成淳), 정순업(鄭順業) 등을 통해 확인 된다. -이동근, 2003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204쪽 참조

곡리 강은식과 주민을 동원한 죽율리 김천복이 있으며, 4월 7일 구 장터 만세운동을 사전모의 하고 결행하기 직전에 발각되어 무산된 장현리 권희와 장곡리 장수산이 있다.

〈표 4〉 군자면 3·1운동 주요 참여자

인명	나이	주소	직업	형량	비고
강은식 (姜殷植)	35 (1885)	원곡리(元谷里) 182	농업	징역 1년	4월 4일 시위 주도 건국훈장 애족장(2011)
김천복 (金千福)	23 (1897)	죽율리(竹栗里)	농업	징역 1년	4월 4일 시위 주도 건국훈장 애족장(2008)
권희 (權愐)	20 (1900)	장현리(長峴里) 417	서당 생도	징역 1년	4월 7일 구 장터 시위 모의 건국훈장 애족장(1990) 대통령표창(1986)
장수산 (張壽山)	20 (1900)	장곡리(長谷里) 614-2	농업	징역 10월	4월 7일 구 장터 시위 모의 건국훈장 애족장(1990)

* 경성지방법원 판사 아리사와 사쿠치(有澤作治), 대정 8년 5월 2일, 「조선총독부 관결(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 경성지방법원 가나카와 히로키치(金川廣吉), 대정 8년 5월 15일, 「조선총독부판결(朝鮮總督府裁判所判決)」,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공훈록) www.mpva.go.kr.,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참조

〈표 4〉에서 권희를 제외한 모두가 직업이 농업이다. 이는 향촌 사회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해 간 농민들이 대개 구래의 유교나 애국계몽운동의 세례를 받은 향촌사회내의 지식인 부류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천도교나 기독교도들은 반드시 표시를 하고 있으나 유생들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개 농업을 경영하고 예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으로 분류된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유교적 소양을 가진 계층이다. 이들은 당시 주요 근거지였던 향교가 강점을 전후로 와해되고 지역에서의 지위가 위축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있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의 수혜를 받거나, 직접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고 독립선언서, 조선독립신문 등을 개별적으로 입수하여 등사, 배포하거나 자체 통문, 격문 등을 제작하고 등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소양을 갖춘 향촌사회의 지식층이었다.¹⁰⁷⁾

107)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31쪽 참조

구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희만은 일제 측 자료에 서당 생도로 직업이 분명히 나와 있다. 권창(權滄)¹⁰⁸⁾에 따르면 권희는 군자면 장현리 안두일 마을의 안동 권씨 종손이자 양반가였다. 특히 할아버지 사랑방은 항상 도포 차림을 한 선비들이 많이 찾아 시조를 읊거나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토해내던 곳이었다. 권도령으로 불린 권희는 4살 때 이미 『천자문』을 깨우치고, 『소학』과 『명심보감』을 읽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권준영은 가정교육을 중시하여 집 별채에 가학서당을 열고 있었다. 이 때 권창의 양조부 선우장 권연(權衍)이 유학자로 수원 어천(현 화성시)과 함께 훈장을 맡았다. 8세 이후에는 권연으로부터 『사략』, 『대학』, 『중용』, 『맹자』, 『고문진보』 등을 배우고, 한시와 부(賦)를 지었다.

“우리나라는 한일합방 이래 일제치하에서 현재 삼천만 민족이 가혹한 고통과 막심한 치욕을 받고 있다. 일제에 의해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역사와 국어, 말과 재산과 우리의 름과 문화, 우리의 얼을 빼앗겼다. 이제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

이러한 권연의 가르침에 따라 권희는 “약한 우리민족은 강자의 손에 의해 빼앗긴 강토를 다시 찾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가 된다”라고 의식화하는 한편, 구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결국 일제에 의해 권희가 붙잡히자 사상적 배후로 지목된 권연 또한 피체되어 일제로부터 태형과 불인두 고문을 당하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던 개량서당도 폐쇄되었다.¹⁰⁹⁾

그리고 권희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3월 중순경 사랑채에 찾아온 선비를 통해 이미 듣고 있었다. 한학에 정통한 권희는 구 장터 만세운동 모의에서 대표로 ‘비밀통고(秘密通告)’를 작성¹¹⁰⁾ 하였으며, 만세운동 이후에는 가세가 기울어 소작농이 되어 여민동락(與民同樂) 소작인회 대표를 맡아 앞서 경성지주 낭정호에게 소작료 고정세율을 받아내 10년간 변동이 없도록 하여, 그의 선의에 보답하는 송덕비 건립을 앞장섰던 향촌지식인이었다.

또한 동지 장수산(초명, 순한淳翰)은 일제 자료에 평민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장수산은 효종(孝宗)의 국구(國舅)가 되는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 신평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 1587-1638)의 동생 덕창군(德昌君) 장신(張紳, ?-1637)의 11대손으로 장곡동에 세거한 덕수 장씨 가문

108) 권창(1930. 1. 25~)은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두일(밖뒤일) 166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안동 권씨 종중회장으로 권희와 같은 집안이다. -김규성, 2017 「황소처럼 일한 지역의 선구자」,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5집,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 · 청어, 174쪽 참조

109) 김규성, 앞의 책, 161~162쪽, 김규성, 2016 「시흥의 애국청년 권희(權禧), 이제야 다시 찾다」,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4집,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 · 청어, 12~13, 25~28쪽 참조

1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권희, 장수산 판결문」, 278~279쪽 참조

¹¹¹⁾이다. 특히 권희와 동문으로 서당교육을 받았으며, 지역의 한시동호회인 연성음사(蓮城吟社)에서 개최한 1927년 한시공모에도 입상¹¹²⁾하였던 유림이었다. 해방이후에는 군자국민학교 오이도간이학교(금호간이학교, 거모동 566)를 이전(1952), 현 장곡초등학교 설립에 앞장서 실력양성운동적¹¹³⁾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군자면의 3·1운동 주도자들은 유학을 매개로한 향촌내 지식인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향촌 내 유학적 지식인들의 반일성향은 충효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유학적 소양과 더불어 갑오개혁 이후 일제 강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학이라는 명분과 국가이념으로 유학의 상징은 유지되었지만, 사실상 신분제 철폐와 향교지위의 계속된 격하, 과거제도의 폐지, 신교육 실시로 인한 관로(官路)의 폐쇄가 지역유림에게 큰 좌절이었다. 더욱이 지역유림에 의해 운영되는 향교 재정권이 「향사리정(享祀釐正)에 관한 건」(1908. 7. 23)으로 향교 재산을 정부 소관으로 이속하는 한편, 학부령(學部令)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鄕校財産管理規程)」(1910. 4. 23)을 통해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학교 운영비로 전용시켰다. 안산향교의 경우 1899년 향교가 안산소학교로 이용되었고, 강점 직후에는 안산공립보통학교 교사가 있음에도 교실부족을 이유로 향교를 교사로 사용하였다. 1917년 8월 향교 고직실(庫直室)이 강우에 파괴되자 고재(古材)를 안산공립보통학교 비료사(肥料舍) 건축에 사용 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향촌사회에서 기록권을 가지고 유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일부 향촌지식인들에게 큰 불만을 가져다주게 되었다.¹¹⁴⁾

111) 이병권, 2016 「시흥시(始興市)의 한국양명학(韓國陽明學) 연구(研究)-장유(張維)와 정제두(鄭齊斗)를 중심으로-」, 『京畿鄕土史學』 제21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226쪽 참조

112) 3·1운동 이후 시흥지역의 인사들이 조직한 연성음사(蓮城吟社)는 1920년부터 1929년까지 활동한 시흥시의 한시 동호회이다. 특히 연성음사에서는 지역적 문화운동이 근대적 대중매체인 신문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현상시사업을 펼쳐 1927년 9월 21일 동아일보에 현상한시모집 광고를 냈고, 동년 12월 1일 연기 기사를 싣는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시공모를 주최하였다. 장수산은 4등으로 입상하였다. 아래는 입상작이다.
전당홍(錢塘紅) “어느 해에 사신 따라 전당을 떠났는가 흰 바탕에 붉은 꽃잎은 못꽃과 사뭇 달라 반도의 가을빛은 꽃잎 속에 숨어드는데 명나라 바람이 붉은 꽃잎에 살랑이네 그 향기 연못에 뿔쳐 글자에 걸렸으니 그 옆 숲속에서 갓는 시모임이 아름답고나 오래도록 꽃내에 심어 괴임을 받으니 연성의 꽃, 이웃고을까지 번지리라(何年隨使出錢塘 瓣白尖紅衆芳 半島秋光藏瓣屬 大明風氣葆尖房 香蓮太液縣題美 色近東林結社良久植花川逢愛護 蓮城可作并州鄕)”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 3, 262~288쪽, 이승언, 1995 「시흥의 인물과 행적」, 『시흥향토문화총서』 2, 시흥시, 219-220쪽 참조

113) 민족실력양성운동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표면적으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원칙에 따라 관제 개혁, 경찰제도 개정, 대중의 편익과 민의 창달, 한국인 임용 대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유화국면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과 개벽 등의 잡지가 발간되었다.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어 많은 단체가 생겨났다. 이들은 한말과 1910년대를 풍미하였던 ‘선실력양성론’으로 돌아가 이른바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초반의 문화운동이란 당시의 청년회운동, 신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문화적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시기 문화운동은 신문화 건설과 실력양성을 민족운동의 일차적 과제로 내세움으로써 결국 민족운동을 탈정치화시키고, 즉각독립, 절대독립의 요구를 유보하게 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307 ~ 308쪽 참조

114) 1895년 학부관제를 실시하면서 성균관 및 향교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이어 1907년에는 학부 내에 담당 부서마저 없애버렸다. 더욱이 1908년 10월에는 성균관제도를 개정하면서 각 부군 향교에 직원 1인을 두는 한편, 1910년 4월 26일에 향교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관할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종래의 자치적 운영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권회가 구 장터 만세운동을 모의 하면서 밝힌 것은 철저한 평화시위였다. 이는 4월 3일 시위 전 들었던 격문에서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불질러 부숴버리자”라는 민심과 달리 군자면 3·1운동을 평화적으로 하려는 등, 비폭력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하였다. 3·1운동이 민족대표들의 모의단계에서부터 비폭력을 일대원칙으로 한 것이었고,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서도 분명히 표명된 것이었다. 권회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수암면 3·1운동도 이점에 충실하였다.¹¹⁵⁾ 이러한 비폭력운동은 간디에게 영향 받은 것이 아니다. 간디가 무저항 불복종운동을 벌인 것은 3·1운동 이후로 손병희나 이승훈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비폭력 방법을 구상하였다. 이렇듯 3·1운동에서 비폭력을 내세웠던 것은 당시 우리가 촌철척인(寸鐵尺刃)조차도 없었던 현실에서 유일한 방법¹¹⁶⁾이었으며, 경술국치 전후까지 성행했던 의병투쟁의 한계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또한 3·1운동의 비폭력 원칙이 무장투쟁보다 평가 절하되기도 하지만 3·1운동과 같은 해에 일어난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진실에 대한 헌신) 운동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¹¹⁷⁾

한편 만세운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구장(區長)¹¹⁸⁾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들은 마을사람들의 동원과 사전 연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장은 전통적인 면리제에서 마을 단위 공동행동의 대표자이자 말단 실무를 관장하고 마을의 여론을 조절하는 역할이었다. 따라서 별다른 종교적, 이념적 조직 지도체계가 없이 농민을 규합하려면 리조직과 구장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¹¹⁹⁾ 김천복은 죽을리 주민 30명을 구장 집에 모이게 한 다음 이들과 함께 거모리를 향해 출발

이러한 일제의 유교정책은 조선 유교를 파괴하기보다는 일본화된 유교로 유도하고 유림계의 친일, 회유에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강점 직후 12,115명의 유생에게 ‘상치은금(尙齒恩金)’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하고, 76명에게는 작위와 함께 ‘합방은사금(合邦恩賜金)’을 지급하는 한편, 조선정부에서 효자·절부에게 주던 포상과 정표(旌表)와 기로상치(耆老尙齒)의 우대도 총독부가 이어받아 시행하였다.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20~23쪽 참조

115) 3월 30일 수암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때 이 정보를 입수한 시흥 헌병이 들이닥쳐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과 몽둥이로 대항하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려 하였다. 이에 운동유은 시위군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독립되면 관공서는 우리 국유재산이니 털끝만큼도 상하게 말라”고 외치자, 시위군중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고 행렬을 정돈하였다.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始興郡誌』 上, 419쪽

116) 일제는 1907년 9월 3일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 공포하여 한국인의 총기와 화약의 휴대나 운반을 법률로 철저히 금지하고 위반자를 투옥하였다. 박은식은 “한국인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寸鐵’도 갖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비폭력방법은 민중이 자기에게 무기가 없거나 무기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을 알 때에는 폭력운동에 따라오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건에서는 일제의 막강한 탄압무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비폭력 방법을 택하여 전체적, 구조적으로 일제에 대타격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신용하, 2006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134~135쪽 참조

117) 박성수 외, 2013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430~431쪽 참조

118) 구장은 일제가 1917년 「면제(面制)」를 시행하여 전통적 동·리장(洞里長)을 개칭하여 정(町), 동·리에 두고 무급으로 면장(面長)을 보좌하였다. (제령 제1호 「면제」, 부령(府令)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 제1장 면의 사무 제4조) -『조선총독부관보』 제1454호, 대정 6년 6월 9일(1917) 참조

119) 향촌 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을 표출되었던 것은 수원군의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이 대표적이다. 주도자인 백낙렬과 차병한 등은 각각 수촌리와 석포리의 구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리조직을 통해

했다.¹²⁰⁾ 권희와 장수산도 비밀통고라는 격문을 각 동리의 구장들을 통해 마을 사환이 돌렸다.¹²¹⁾ 반면에 이봉문은 수암리 구장이 3·1운동에 참여 하지 않아 항의¹²²⁾ 하였는데, 구장이라도 일제에 협조 내지는 비호 아래 있던 사람들은 3·1운동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2) 군자면 3·1운동의 전개

시흥지역에서 3월 30일 수암면 비석거리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군자면에서는 3월 29일 장곡리(長谷里)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다.¹²³⁾ 3월 31일 선부리(仙府里)에서도 다수의 주민이 모여 군자면사무소(현 군자초등학교 후문 부근)와 주재소(현 군자파출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벌였다. 4월 3일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불질러 부숴버리자”라는 격문이 각 동리에 배포되었으며, 이 첩지를 하루 전, 입수한 일본경찰이 영등포로부터 순사 6, 헌병 7명이 무장하고 파견되어 있었다.¹²⁴⁾ 4월 4일 오전 11시경 주재소 부근에 약 천 여 명이 모였다. 군자면(君子面) 거모리(去毛里)의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부근인 현재 도일시장 인근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강은식(姜殷植, 원곡리, 35세)은 군중 속에서 구 한국 국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군자면 죽울리에서는 김천복(金千福, 죽울리, 23세)이 죽울리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면사무소로 가라. 만약 불응하는 때에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리민 30명을 구(리)장 집에 모이게 한 다음, 함께 거모리로 출발하였다. 이때 시위군중이 일본경찰의 총소리를 듣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김천복은 다른 주동자 2~3명과 함께 거모리에 이르러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부근에 집결한 수백 명의 군중과 합세,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¹²⁵⁾ 격렬한 기세로 주민들이 달려들자 일본경찰이 총을 쏘아 이를 해산하였다.¹²⁶⁾

한편, 3월 장현리 권희(權禧, 20세)의 집에서 서당 동문인 장곡리 장수산(張壽山, 20세), 이종영(李鍾榮), 이종진(李鍾振), 이종형(李鍾亨), 이응수(李應洙)가 모였다. 권희가 서울에서 내려온 선비가 전해준 파고다 공원 만세운동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장수산이 “우리 백성이 남의 나라에 당

구장이 리민을 조직, 동원한 것이었다.-박환, 2004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128~129 참조

1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강은식·김천복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277쪽

121) 재판 중인 이종진(李鍾振) 증언-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권희, 장수산 판결문」, 278~279쪽 참조

1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사법경찰관의 이봉문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282쪽 참조

123)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35쪽 재인용 : 국사편찬위원회, 1968 『韓國獨立運動史』 2, 263쪽

124)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36쪽 재인용 : 「鮮人の騷擾に関する件」密第102号其160,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文書

1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강은식·김천복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77쪽

126)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36쪽 재인용 : 「獨立運動に関する件」, 高第10371号 第39報,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文書

하고만 살 수 없다. 우리도 무엇인가 나서야 하지 않겠니 나는 적극 찬동이다. 우리도 힘을 합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자”고 하자 권회가 반이 찢어진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면서 거사를 모의하였다. 그리고 ‘독립만세는 일본경찰과 조선인 밀정이 모르게 4월 7일 12시 정오 면사무소에서 한다. 비밀통고문은 권회가 작성하고 작성된 비밀통고는 구장에게 전달한다. 각자 구 한국기를 지참하고 권회가 대중에게 독립만세취지를 연설한다. 비폭력 평화적 시위 후 해산한다. 군중이 흥분하여 폭력이 나올 수 있으니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한다.¹²⁷⁾고 기본 계획을 합의하였다. 4월 초부터는 권회의 집 웃터골 장발머리 농막에서 비밀모임을 이어갔다. 6일 권회가 대표로 자신의 집에서 밤새 ‘비밀통고’라는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내일 7일 이 마을 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려고 한다. 각 주민은 구 한국 국기 1기를 휴대하여 모이라”

작성한 비밀통고문은 장수산과 먼저 검토하였다. 격문은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했다. 사전모의와 달리 거사장소가 구 시장, 즉 구 장터(현 서안산나들목 부근)로 바뀌는데, 부근이다. 격문은 장수산이 마을 구장의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두고 주민들이 서로 돌려보게 하여 참여를 독려 하였다. 권회와 장수산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진은 4월 5일 오후 3시경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君子里)에 가까운 장곡리 남쪽 고개길가에서 1통의 문서(격문)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봉투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해 이종형(李鍾亨)에게 읽어 달라고 했는데,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이었다. 이종진은 이것을 장곡리 구장 이덕중에게 전달했다. 이덕중도 4월 5일 오후 6시 경 리민 이용수로부터 이종형이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비밀 통고문 1통을 받았는데, “오는 7일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부를 터이니 구 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덕중은 사환을 시켜 이 격문을 다시 이웃 월곶리(月串里) 구장 앞으로 보냈다.¹²⁸⁾

4월 6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권회, 장수산, 이종영, 이종진, 이종형, 이용수 6명이 오후 3

127) 김규성, 2016 「시흥의 애국청년 권회(權僖), 이제야 다시 찾다」,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4집,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청어, 32~33쪽 참조

1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권회·장수산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78~279쪽
진술에서 거사장소가 면사무소와 구 장터로 혼동되고, 이덕중은 “구 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가 있을 것이다” 진술 등은 4일 거거리 만세운동 전에 돌던 격문과의 혼동으로 보인다.

시쯤 원두막으로 모여 태극기 등 준비상황 및 거사 장소를 점검하였다. 다시 원두막에 모여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옷터골 장발머리를 돌아오다 주재소 순사 7, 헌병 7명에게 포위되어 체포되었다. 다음날 수원경찰서로 이송¹²⁹⁾ 되면서 구 장터 만세운동은 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일제의 혹독한 고문과 형벌로 인해 이종진의 실태로 권희, 장수산, 이종영 등 4인은 「보안법(保安法)」¹³⁰⁾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대정 8년(1919)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 판사 가나카와 히로키치(金川廣吉)는 권희와 장수산을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이종영 외 2인은 무죄 석방하였다. 이에 권희와 장수산이 항소하여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 형사 제4부 판사 이토 준키치(伊東淳吉)가 기각하였다. 재차 항소하자 9월 15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와다나베 도루(渡邊暢)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 되었다.

앞서 군자면사무소와 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한 강은식과 김천복은 체포, 기소되어 대정 8년 5월 2일 경성 지방 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 사쿠치(有澤作治)에 의해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이후 항소하여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 판사 제4부 이토 준키치(伊東淳吉)가 기각, 재차 상고하여 7월 31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이시카와 마사시(石川正)가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¹³¹⁾

일제는 3·1운동에 참여한 많은 조선인들은 불잡아 갖가지 고문을 하고 감옥에 수감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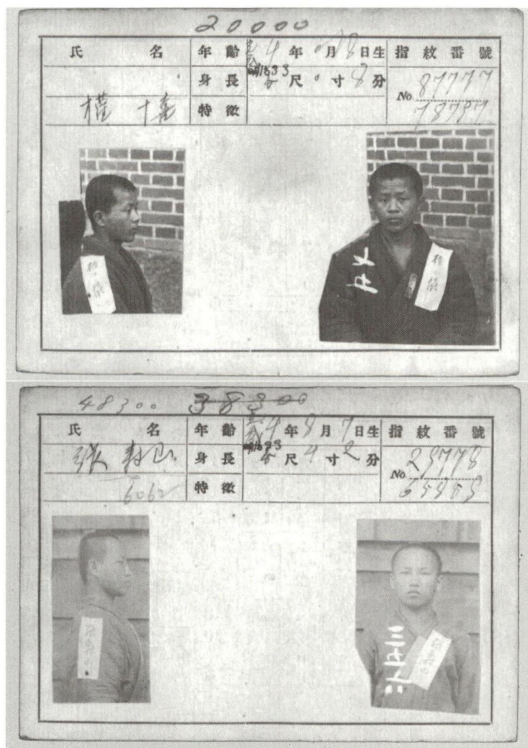


사진3. 권희, 장수산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129) 김규성, 앞의 책, 35~37쪽 참조

130) 1907년 7월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일제는 보안법만으로는 3·1운동 주동자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1919년 4월 15일 발령하여 보안법 제7조에 규정한 2개년 이하의 징역을 10개년 이하로 대폭 늘렸고, 범위를 제국 밖의 신민에게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넣어, 해외에서 발생한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도 가능하게 하였다. 1925년 이후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법으로서 기능했던 「치안유지법」으로 옮겨가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동근, 2014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7쪽

131) 3·1운동 발발 이후 10월말까지 일제에 구속된 수는 1만8천여 명으로 그 중 기소된 사람은 보안법위반 6,472명, 소요죄 2,289명, 내란죄 296명, 기타 범죄 232명, 모두 9,289명이다. - 이동근, 앞의 논문, 17쪽

때 행해진 가장 가혹한 처벌이 태형¹³²⁾이었다. 태형은 “태를 맞으면 절대 걸을 수 없고 사람의 등에 업혀 나오며”, “태 90에 죽음이 아니면 폐인” 이 될 정도로 외국인 선교사들도 “경찰, 감옥에서 행해지는 태형의 잔인함은 도저히 조선인들이 참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했다. 일제는 태형으로 절대적인 공포분위기의 조성과 최고의 ‘소송경제’¹³³⁾라는 이중효과를 거두었다. 태형의 집행은 감옥이나 즉결관서에서 은밀히 집행하도록 하여 헌병경찰은 태형을 가장하여 합법적으로 고문을 할 수 있었다. 「조선태형령」은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함에 따라 1920년 4월 1일 폐지되었다.¹³⁴⁾

특히 구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희는 1920년 5월 20일 만기 출소하였는데, 일제가 혹독하게 다뤄 몸이 상해 후사를 이을 수 없을 정도였다. 2개월 먼저 출소한 장수산이 권희를 찾아 울며, 굶병이타기 좋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이를 잡아 회복을 도왔다고 한다.

2. 구(舊) 장터 만세운동의 의의

군자면 3·1운동에서 구 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깊다. 특히 3·1운동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파급된 후 장날, 장터를 중심으로 거국적이고, 치열한 민족적 저항이 표출되었는데, 군자면에서도 구 장터 즉 석곡산대장터가 일제에 맞선 항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민족해방운동 측면에서 구 장터는 3·1운동 이전에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으로 일제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896년 안산군민들이 봉기하여 모였던 곳이다. 이렇듯 안산지역에서도 동학(東學)의 삼례·보은집회(1892,3)나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1898)와 같은 민중집회가 이루어진 역사적 장소이다. 따라서 산대장터가 3·1운동 과정에서 만세운동지가 되었

132) 조선총독부는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2호 「범죄즉결배중개정」, 제13호 「조선태형령」을 공포하고 3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0호 「경찰법치벌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4. 1) 특히「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법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자’, ‘100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자’로서 검사나 즉결관서의 장이 그 정상(情狀)에 따라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태형은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태 30을 기준으로 1일 1회 집행하도록 했다. 태형은 1일 또는 1원을 태 1대, 5대 이하는 없으며,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태의 규격은 길이가 1척 8촌(약 54cm), 무게가 약 102g(30돈), 타격부 끝의 폭은 7푼(2.1cm)이었다. 그밖에 태형 시설의 규격, 집행방법 등을 엄밀하게 규정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잔인하게 집행되었다.-이동근, 앞의 논문, 16~17쪽 참조

133)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징역처럼 감옥시설과 수형자의 생활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건강한 집행인과 최소리만 있으면 되었다.- 이동근, 앞의 논문, 16~17쪽

134) 이병권, 2015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3·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 『京畿道文化院聯合會』, 291쪽 참조

던 역사적 의의가 있다.

더욱이 산대장은 기록상 『안산군읍지』(1871)와 위의 1896년 민중집회까지는 정확히 확인되는데, 이 글 <표 1>의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1909)에서는 기록이 없어 이전에 이미 폐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십 수 년이 지난 이후인 1919년 구 장터를 장소로 3·1운동이 모의 되었다는 것은 기존 장시가 가지는 지역적 정체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렇듯 3·1운동이 농촌지역으로 파급되어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어가는데 장날과 장터는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5일장으로 정착은 장시를 통해 지역민이 각종 생활정보를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자 물화유통, 농촌경제의 추이와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대중성과 익명성을 통해 여론형성의 장이었다. 이러한 장시를 1890년대 선교사들이 선교의 최적지로 주목하였다.

한국의 시장 형태는 독특하다. 대략 다섯 개의 읍마다 장이 하나씩 선다. 장이 서는 읍은 평소에는 스무 가구도 되지 않는 한적한 곳이지만, 5일장이 서면 뻥뻥한 도회지처럼 붐빈다. 행상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옷가지들을 길바닥에다 펼쳐놓기도 하고, 농부들이 사방에서 수 마일씩 걸어오기도 한다. 고정된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서는 유대인들의 장과 유사하다.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자신의 말이 들리게끔 하려고 사람들마다. 고함을 지르며 법석이다 물건 값을 깎으려 하는 것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며, 노인들은 허세와 익살을 번갈아 부려가면서 서로 입씨름을 하기도 한다. “장터는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장소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안성맞춤인 곳이다.(A Market is a fine place to meet men and an excellent spot in which to preach the gospel)”¹³⁵⁾

이처럼 선교사들은 장시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같은 장시의 기능은 3·1운동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래 <표 5>은 경기도에서 전개된 3·1운동 중 장시(장터)와 관련한 만세운동 현황이다.

135) 황미숙, 2008 「초기 선교사들의 전도활동과 장시(場市)-장시의 선교거점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80쪽 재인용 : 윌리엄 블레이어·부르스 헌트 공저,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52쪽

〈표 5〉경기도 장시(장터) 3·1운동 현황

지역 / 장시	날짜	내용
안성군 안성장	3.11,31, 4.1	11일 50여 명 시위 30일 동리, 서리, 장기리 주민 5~6백 명 면사무소 습격 후 군청 앞 시위 / 31 3천여 명 군청 습격 / 4월 1일 5백 여 명 시위
가평군 가평장	3.16	2백 여 명 헌병분견소 시위
수원군 수원장	3.16,26~31	16일 장날 수백 명 시위 / 26일~ 철시
연천군 두일리장	3.21	백학면 두일리장터 수백 명 시위
김포군 군하리장	3.22,29	22일 월곶면 군하리 장날 4백 명 주재소 습격 / 29일 4백 명 시위
김포군 오라니장	3.23	양촌면 양곡리 오라니장날 3백 명 시위
양평군 용두리장	3.23	용두리 장날 청운면 2백 명 시위
부천군 황어장	3.24	계양면 오류리 황어우시장 6백 명 시위
양평군 양근장	3.24	양근읍 장날 1천 명 시위, 군청습격
양주군 동두천장	3.26	동두천 장날 1천 3백여 명 시위
광주군 분당리장	3.27~29	돌마, 낙생, 대왕면 등 3천여 명 시위
수원군 사강장	3.28	송산면 사강시장 시위 순사 1명 처단
용인군 김량장	3.28,30	수여면 김량장날 수여면 3백, 포곡면 2백 명 시위
김포군 통진장	3.29	통진장 4백 명 시위
수원군 오산장	3.29	성호면 오산시장 약 8백명 주재소 연행자(2명) 탈취, 면사무소, 우편소 습격
수원군 군포장	3.31	군포장 2천 시위 의왕면, 시흥군 남면 주민 합세
수원군 발안장	3.31	향남면 발안장날 시위 1천 명 주도자 이정근 순국
수원군 반월장	4.1	반월면 반월장날 기독교, 천도교, 주민 6백 여 명 시위 / 시흥군 수암면 시위 주도자 류익수 참여
이천군 이천장	4.1	이천읍 장터 시위 신문면 등 7개면 연합
진위군 진위장	4.1	병남면 진위장 3천 명 시위
포천군 신북장	4.1	신북면 신북장터 1천 명 시위
이천군 이천장	4.2	이천읍 장터 시위 3백 명
안성군 죽산장	4.2	이죽면 죽산시장 1천 명 시위
수원군 삼괴장	4.3	우정·장안면 조암장터 2천명 우정,장안면사무소 전소, 화수리 주재소 전소, 순사 1명 처단
여주군 여주장	4.3	여주읍 장터 북내면 2백 명 시위
장단군 하동리장	4.3	장도면 하동리 구시장거리 1백 명 시위
평택군 평택장	4.11	평택읍 장날 이도상의 주도로 시위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6『경기도사』 제7권 일제강점기, 149~161쪽 및 관계 시군 시사를 참조하여 작성

이렇듯 농촌지역에서의 장시를 통한 만세운동은 ‘민족대표’ 들의 독립선언문에는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이나 농촌·농민 문제가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그 문장도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식민지배 아래서 토지수탈, 중과세, 소작료, 고리대, 각종 부역에서 헤어날 수 없어 소작농으로 농업노동자나 화전민으로 전락해갔던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시골 장터에서 거의 1년 동안이나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만세운동은 보통 장날(장터)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른 뒤 거리행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제는 이러한 평화적 시위에 무력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몽둥이, 돌맹이,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면과 주재소 등을 공격하였다. 이렇듯 농촌시위는 주로 장날을 이용했지만 만세운동이 가열됨에 따라 평일에도 잇따라 일어났다.

IV. 맺음말

시흥지역에서의 장시(場市)는 <표 1>과 같이 분포하였고, 벽처(僻處)라고 불릴 정도로 물산의 왕래와 매매가 적은 특성으로 인해 부침을 겪었다. 이렇게 존폐(存廢)가 된 장시가 지역적 환경의 변화로 중심상권이 바뀌면서 현재 시흥시의 재래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일부 대체장이나 후신(後身)적 성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장터가 전 계층에서 많은 지역민이 모이는 공간이라 시간적으로 장날이라는 특성으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과 확산, 정보와 여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장시는 1876년 일제에 의한 개항이후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장시와 관계된 대표적인 민족해방운동은 1919년 전 계층에서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일어났던 3·1운동이다. 시흥군(始興郡)에서도 군자면(君子面) 3·1운동 전개 당시 권희(權禧)와 장수산(張壽山, 순환) 등이 모의한 구 장터 만세운동이 해당된다. 구 장터는 산대장 또는 석곡산대장(石谷山垓場)으로 불린 시흥지역에 있던 옛 안산군의 대표적인 장시였다. 산대장터에서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 1896년 안산군민들이 봉기하여 정부의 친일적 행태를 성토하는 동학(東學)의 삼례·보은집회(1892,3)나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1898)와 같은 큰 규모의 민중집회가 이루어진 역사적 장소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산대장이 1909년 이전에 폐시되고도 지역민들은 구 장터인 산대장터가 여전히 주민들이 공통으로 기억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구 장터 만세운동이 촉발되는 장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폭력 운동으로 전

개된 구 장터 만세운동이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지역의 중심 장소였던 산대장터의 기능 중, 지역민들이 쉬이 모일 수 있고, 주민 공통으로 기억하는 장소라는 이점에서 당시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촉발되었던 역사적 장소라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군자면 3·1운동이 발발한 이유는 1910년 경술국치에 따른 일제의 무단통치로 하부기관에 군자면사무소와 거모경찰관주재소가 있다. 4월 4일 거모리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들었던 격문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공격을 천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군자면민 다수는 농민이지만 60% 이상의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이었다. 봉건잔재인 지주소작제가 식민지 지주제로 강화되어 대다수의 농민의 처지는 연간 수입이 300원 이하로 매우 빈곤하였다. 더욱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간사지 개간과 전통염업인 전오염이 일제시대로 들어오면서 각종부역과 조선염에 대한 수세는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또한 군자면에는 지역의 높은 역사적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유학적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지역의 사류들이 강희맹 이후 경학중심의 동향에서 경세치용, 양명학이 발전하고, 1797년 정조의 행행으로 권농사를 조직하는 등, 당대 문화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따라서 구한말 일제침략의 위기 상황에서 인천과 서해안 등지를 거점으로 하는 항일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민족주의자들은 ‘선실력양성론’을 바탕으로 국채보상운동과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안산군의 독려와 함께 와리반촌 등에서 사립학교설립이 활발하였다. 더욱이 전통서당도 민족교육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 하었는데 구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희와 장수산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이들 유학적 지식인들은 향촌의 전통 리조직을 움직여 거국적인 3·1운동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군자면 3·1운동은 한말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 민족독립을 위한 3·1운동으로 나아갔던 애국애족애향의 시흥정신에 표상이다. 지역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3·1운동 당시 군자면사무소가 위치하였던 군자초등학교 후문에 ‘독립운동유적지’ 비를 세워 기념하는 한편, 97주년 3·1절을 맞아서는 군자동 3·1절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가 2015년에 ‘시흥시 삼일독립운동 기념비’를 군자초등학교 운동장에 세우고, 시흥문화원과 제막식을 열었다. 그리고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은 시흥지역의 3·1운동을 기려 매년 군자초등학교에서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성호사설유선(星湖僊說類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연지사적(蓮池事蹟)』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대정6년『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韓國 五萬分之一地形圖)』
國學資料院, 1999『三・一運動編(現代史資料-25,26-)』2
국가보훈처, 1995『독립운동유공자 공적조사서』
국사편찬위원회, 1994~6『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9, 21
國會圖書館, 1992『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其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獨立運動史資料集』5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명성, 2017 「통감부의 영업정책과 조선영업의 변화」,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이병권, 2016 「시흥시(始興市)의 한국양명학(韓國陽明學) 연구(研究)-장유(張維)와 정제두(鄭齊斗)를 중심으로-」, 『京畿鄉土史學』 제21집, 2015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3·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 『京畿鄉土史學』 제20집, 2014 「1797년 8월 행행(行幸)과 정조사적(正祖史蹟) 고찰(考察)-시흥지역을 중심으로-」, 『京畿鄉土史學』 제19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이동근, 2014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김대길, 2012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12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황미숙, 2008 「초기 선교사들의 전도활동과 장시(場市)-장시의 선교거점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신민정·전운성, 2006 「20세기 전반기 강원지역의 지주·소작관계 연구」, 『농업사연구』 제5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박환, 2004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서평일, 2003 「화성지역 3·1운동의 지방사적 배경」,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학교 출판부

이동근, 2003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한상권, 1981 「18세기 말 - 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趙炳昌, 1971 「水原地方을 中心한 3·1運動小考」, 檀國大學校 大學院

김규성 외, 2017『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5집, 2016『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4집,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청어

왕명(王萌), 2017『한국어 월간지 중국』 제3호, 인민화보사 시흥시 군자동, 2016『시흥시 군자동지-군자동의 전통과 미래』

이동근, 2014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사 역사는 삶이다』, 블루씨

박성수 외, 2013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시흥문화원, 2013 『시흥문화』 제16호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현대 안산의 변화와 발전」, 『안산시사』 6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 1,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 2,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 3,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 5,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 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6 『경기도사』 제7권

신용하, 2006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시흥문화원, 2006 『始興市地名由來』

수원시, 2001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

강만길, 1998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강만길, 1997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연구총서』 1, 경기출판사

이승연, 1995 「시흥의 인물과 행적」, 『시흥향토문화총서』 2, 시흥시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始興郡誌』 上

시흥장수신문, 2017년 7월 29일 기사 「봉분 없는 독립운동가의 묘비를 보면서-시흥의 독립운동가 권희 선생」, 『사는 이야기』

경기신문, 2015년 7월 1일 기사 「‘시흥(始興)’ 과 시흥시(始興市)」, 『오피니언-문화지킴이마당』

시흥장수신문, 2014년 3월 4일 기사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는 이야기』
 중앙일보, 2007. 3. 20 기사 「조선시대 장시... 상품 거래뿐 아니라 문화·정보도 공유 지역주민 활력소로」
 한겨레신문, 1989년 2월 28일 기사 제246호 「민족해방운동사에서의 3·1운동」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 www.library.kr/memory/index.do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www.mpva.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

부록. 시흥지역 3·1운동연표

연도	월/일	내용
1919	3/29	* 3·1운동이 발발하자 수암면(秀岩面)에서 비석거리 만세운동이 비밀리 모의 “30일 수암리 비립동에 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 모이라”는 격문 배포 * 군자면(君子面)장곡리(長谷里)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임 * 3월 군자면 장현리(長峴里) 권희(權禧)의 집에서 장곡리 장수산(張壽山), 이종영(李鍾榮), 이종진(李鍾振), 이종형(李鍾亨), 이응수(李應洙)가 거사를 모의
	3/30	* 수암면 비석거리에서 수암면 내의 18개 리의 주민 약 2천 여 명이 윤병소(尹秉昭), 홍순칠(洪淳七), 류익수(柳益秀), 윤동욱(尹東旭), 김병권(金秉權), 이봉문(李奉文) 등의 주도로 “수암주재소, 면사무소를 불태우자!” 라고 외치며, 일대를 돌며 만세운동을 불렀으나 일제 순사와 헌병들에 의해 해산
	3/31	군자면 선부리(仙府里)의 군중이 군자면사무소와 주재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벌임
	4/3	군자면에서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불질러 부숴버리자”라는 격문이 각 동리에 배포 되었으며, 첩자를 하루 전, 입수한 일제가 영등포로부터 순사 6, 헌병 7명을 무장시켜 파견
	4/4	군자면 죽율리(竹栗里) 김천복(金千福)이 죽율리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면사무소로 가라. 만약 불응하는 때에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고 하여 리민 30명을 구장 집에 모이게 한 다음 이들과 함께 거모리로 출발, 가는 도중 일본경찰이 발포한 총소리를 듣고 사방으로 흩어짐 김천복은 다른 주동자 2~3명과 함께 거모리에 이르러 합류 약 천 여 명이 모인 거모리(去毛里)의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만세운동을 전개. 강은식(姜殷植)과 김천복은 군중 속에서 구 한국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침 일본경찰이 총을 쏘아 해산
	4/5	일제는 수암면에서 주동자 일제검거 실시하여 류익수, 윤병소, 홍순칠,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 등을 체포
	4/6	군자면 장현리에서 권희가 대표로 자신의 집에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내일 7일 이 마을 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려고 한다. 각 주민은 구한국 국기 1기를 휴대하여 모이라”라는 ‘비밀통고(秘密通告)’인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장수산이 마을 구장들을 통해 배포 이날 권희, 장수산, 이종영, 이종진, 이종형, 이응수가 옷터굴 장발머리를 돌아나오다 주재소 순사 7, 헌병 7명에게 포위되어 체포됨 다음날 수원경찰서로 이송

연도	월/일	내용
	5/2	강은식과 김천복은 체포, 기소되어 경성 지방 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 사쿠치(有澤作治)에 의해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처해짐 항소하여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 판사 제4부 이토 준키치(伊東淳吉)가 기각, 재차 상고하였으나 7월 31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이시카와 마사시(石川正)에 기각되고 형이 확정
	5/15	권희, 장수산, 이종영 등 4인은 「보안법(保安法)」 위반혐의로 기소 경성지방법원 판사 가나카와 히로키치(金川廣吉)는 권희와 장수산을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이종영 외 2인은 무죄 석방 이에 권희와 장수산이 항소하여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 형사 제4부 판사 이토 준키치(伊東淳吉)가 기각, 재차 항소로 9월 15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와다나베 도루(渡邊暢)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
	5/27	수암면 3·1운동을 주도한 윤병소(징역 10월, 옥중 순국), 홍순철(징역 1년 / 6월), 류익수(징역 1년 6월 / 1년), 윤동욱(징역 8월 / 태 90), 김병권(징역 6월 / 태 90), 이봉문(징역 10월 / 6월) 등은 경성지방법원에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회부되어 5월 27일 1심 판결에서 판사 카가미(鏡一)는 모두 징역 형을 선고 이후 경성복심법원에 재심되어 형사 제4부 판사 이토 준키치(伊東淳吉)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감형(/)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조선총독부 판결(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www.mpva.go.kr,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김규성, 2016 「시흥의 애국청년 권희(權愷), 이제야 다시 찾다」,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4집,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청어, 이병권, 2015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3·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 『京畿郷土史學』 제20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안성의 장시문화(場市文化)

- 안성맞춤의 안성장시(安城場市) -

홍 완 표 (안성문화원 부원장, 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안성장시(安城場市)의 역사적 배경

1. 안성장시의 발달
2. 안성맞춤(안성마춤)과 안성장시
3. 안성맞춤(안성마춤)과 안성특산품(상품)
4. 안성장시의 쇠퇴

III. 맺는말

참고문헌

집필자

홍 완 표

안성문화원 부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1. 들어가는 말

지정학적으로 안성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이며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고장이다.

남북으로 펼쳐 내려간 차령산맥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안성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도 삼국이 서로 안성지역을 소유하고자 피나는 전쟁을 치룬 삼국의 각축장 이기도 했다.

그런 결과 삼국 즉,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점령하여 지배한 적도 있었으며, 고려 말에는 몽고군이 홍건적 복장으로 쳐들어와 죽주산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 졌으나 안성인 특유의 기질인 애국, 호국정신을 발휘하여 남진하는 몽고군을 섬멸하는 큰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 말 공민왕이 안성에 극적루(克敵樓)를 세우도록 하여 후세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안성인의 애국, 호국정신을 본받아 온 나라의 귀감으로 삼게 하였다.

조선조 중엽에 한반도의 교통 통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남로와 호남로다. 안성은 삼남의(홍성, 경상, 호남) 중심지로서 영남로는 부산 동래-대구-충주-용인-판교-한양으로 이어지고, 호남로는 영암-나주-정읍-공주-수원-한양으로 이어졌다. 안성은 바로 영남로와 호남로가 합쳐지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산업 농산물품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요충지로서 자연히 장시가 발달 되었다. 또한 역으로 삼북의(황해, 함경, 평안) 산업 물산품이 남부지역으로 가는데 안성지역은 경제유통의 집산과 경유지로 번창하여 조선조 중엽에는 유기와 더불어 꽃신과 한지 등도 크게 발달 하게 되었다.

특히 안성에서 만든 유기는 그 품질이 특히 우수하여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안성에서 생산되는 유기는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로 제작되어 그 명성이 전국에 떨쳤으며 임금님의 수랏상에 사용되기도 하고 모든 중앙부처의 대신들과 양반 등 상류층에서 애용 하였다.

이렇게 안성에서 만든 유기가 인기가 있게 되자 안성유기를 사려는 장사꾼들이 전국에서 안성으로 몰려오게 되어 당연히 안성의 장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성맞춤”이란 말은 유기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인데, 안성에서 맞추워 만든 유기는 그 어느 지방에서 만든 유기 보다도 정교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말을 의미한다.

안성유기의 명성과 더불어 안성장시를 발달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물품으로 꽃신(가죽

신, 미투리), 한지(창호지), 갓(삿갓, 방갓), 연죽, 복조리 등을 생산하여 상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

양반들의 중요한 필수품으로 애용하는 갓은 통영갓이 유명 하다고 하지만 고장 났을 때 수선하는 것이 갓을 만드는 것 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바, 고장 난 갓을 수선 하는 데는 안성인 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갓을 수선하는 수공예 기술은 수공업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손 기술의 발달이 장사하는 수단으로 까지 발전하여 안성시장은 전국의 3대시장의(대구, 전주, 안성) 하나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가끔 갓을 수선하고 받는 수선비용 때문에 손님들과 수선을 한사람과 비용 때문에 옥신각신 하며 말다툼 시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트집”이란 말이 안성에서 갓 수선 할 때 처음으로 생겨 났다고 한다. 상인과 소비자가 어떤 거래를 할 경우에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가격을 덜 주려고 일종의 말로 떼를 쓰는 것을 “트집 잡는다” 라고 한다. 이때 처음으로 생긴 “트집”이란 말은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II. 안성장시(安城場市)의 역사적 배경

1. 안성장시의 발달

조선조 영조때 연암(燕岩)박지원(朴趾源)은 그의 소설 〈허생전(許生傳)〉에서 안성장시가 안성의 장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게 발달 되었는지를 표현하는 말로 안성장에는 서울의 시전보다 2~3가지 물품이 더 많이 있다 라고 할 만큼 장시가 크게 발전 하였다. 그 2~3가지 물품은 모와 씨레를 말하는데 모는 벼씨의 어린 새싹묘목을 뜻하고, 씨레는 모를 심을때 물을 댄 논을 평평하게 고르는 나무로 된 농기구를 의미 한다. 따라서 전국의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안성장에 들려야 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었다. 그래서 안성의 상업적인 위치는 대단 하였으며 전국에서 다양한 물품들이 몰려 들어왔고 필요한 물품을 사려면 꼭 안성장에 가야만 구입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여기서 박지원의 〈허생전〉에 안성장시에 관해서 나오는 기사를 살펴 보면 안성장의 규모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허생(許生)은 안성에 내려와 농산물과 청과물 그리고 제수용(祭需用) 과일인 사과, 배, 밤, 대추, 감 등을 매점 매석 하였다. 이에 서울의 장안은 제수용품과 청과물들을 구입하려는 상인들로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명절에 조상의 제사상을 차리려는데 제수용 과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딱한 입장이 되었다. 이때 허생은 구입한 청과물들을 구입한 가격에 10여배 이상씩 받고 팔아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다. 물론 소설이 조금 과장된 점은 있어 보이지만 안성장시의 물품만 매점하면 서울 장안의 상품 유통이 휘청거릴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힐 정도로 안성장시가 대단히 발전 되어 있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안성장시를 배경으로 〈허생전〉을 쓰게 된 동기는 단지 안성장시가 전국 제일의 물산지로 번창한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지원과 안성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박지원은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우의정을 지낸 안성이 낳은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학자인 칙지헌 유언호((則止軒 兪彦鎬)와 남다른 교분을 맺어오던 사이였다.

유언호는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문예운동을 주도하면서 당시 이단시 하며 조정에서 못 마땅히 생각했던 실학자들을 옹호해주고 보살피 주었다. 연암과 유언호의 이러한 각별한 관계 때문에 당시 실학자들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박지원이 40세 전후하여 금천 연암리에 귀양을 가서 거의 죽게 될 즈음 유언호는 이조참의에서 개성유수로 자처하여 직장을 옮겨가며 박지원을 재기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말년에 유언호가 고향 안성에 은거하고 있을 때 연암이 안성으로 유언호를 찾아와 함께 지내면서 학문과 사상을 교류하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개선책 등을 논의 하기도 하였다.

유언호와 박지원은 안성에 함께 거주하며 남다른 교유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성장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심 깊게 경험하며 관찰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시대의 풍자소설 〈허생전〉을 쓸 수 있었다.

조선조 후기에 상업 활동에서 매점매석의 투매현상은 특이한 면 이기는 하나 대동법 시행 이후 관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 하는데 서울 주변의 지방물산 집산지에서 흔히 있던 일이다.

안성장시가 언제부터 개설되고 유명해 졌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안성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일찍부터 장시가 개설 발달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은 경상, 호남, 충청의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방보다도 일찍이 장시가 개설, 발달 되었을 것이다.

안성장시의 발달할 수 있었던 역사 지리적 잇점에 관해 조선 영조때 실학자 청담(淸潭)이중환(李重煥)은 그의 저서 〈擇里志〉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수원(水原) 동쪽은 양성(陽城)과 안성(安城)이다. 안성은 경기와 호남지방 바닷가 사이에 있어서 화물이 수송되고 상인(商人), 공인(工人)들이 모여들어서 한양 남쪽의 한 도회(都會)를 이룬다. 그러나 읍(邑) 밖은 비록 평지라 하여도 땅에 살기(殺氣)가 있어 살만한 곳이 못된다.

라고 지적 하였다.

장시가 발달하기 위한조건으로서 다수의 소비인구, 다량의 물자공급, 교통의요지 등이 요구 된다. 안성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모두 갖추었고 이중환이 지적한 것처럼 이곳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다. 따라서 농업생산으로 생계가 곤란하므로 다른 것에서 생활의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성이 큰 장시로 발전 할 수 있었다.

안성은 기호지방의 삼남의 관문(畿湖之交 三南之板館口)으로 표현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영남로(嶺南路)와 호남로(湖南路)가 합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안성은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다.

안성장시가 개설된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장시처럼 5일장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19세기에는 주변의 장시와 더불어 보통 5일장으로 운영 되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안성 장시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성장시가 발달한 모습은 이 지역 장시에서 매매 되었던 상품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임원십육지(林園十六誌)와 읍지(邑誌, 안성, 양성, 죽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안성지방의 장시 〈임원십육지(林園十六誌)에서 인용〉

군(郡) 현(縣)	장시명(場市名)	위치	개시일
죽산(竹山)	부내장(府內場)	관문리(官門里)	4일, 9일
	이보장(二寶場)	서이리(西二里),西南面	3, 8
	배감장(排甘場)	北30里,근삼면(近三面)	1, 6
	주천장(注川場)	東20리,남일면(南一面)	3, 8
안성(安城)	군내장(郡內場)	남리(南里)	2, 7
양성(陽城)	읍내장(邑內場)	읍내(邑內)	4, 9
	소사장(素沙場)	南30里, 구룡면(九龍面)	5, 10

〈표 2〉 〈읍지(邑誌)〉에 나타난 안성지방의 장시(場市, 1871년)

군(郡) 현(縣)	장시명(場市名)	위 치	개시일
죽산(竹山)	邑內場	邑 內	5일, 10일
	注川場	東20里, 川南一面	3, 8
	排甘場	北30里, 近三面	1, 6
안성(安城)	邑內場	邑 內	2, 7
양성(陽城)	邑內場	東2里, 禪院川邊	금폐(今廢)
	素沙場	南30里, 素沙院東	5, 10

위의 2개의 표를 비교해 보면 죽산(竹山)의 이보장(二寶場)과 양성(陽城)의 읍내장(邑內場)이 읍지(邑誌)가 편찬된 1871년경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되고 있다.

한편 안성장시는 죽산, 양성. 이외의 다른 지역의 장시와도 폭 넓은 연계를 맺어 계속 발전 하였다. 충청도 충주의 무극장(無極場 금왕 5일, 10일), 천안 목천(木川)의 병천장(井川場 1일, 6일), 직산(稷山)의 하장(下場 4일, 9일), 양지(陽智)의 개천장(介川場 4일, 9일)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하여 번갈아 가면서 개시일을 정하여 지역적인 시장권을 형성하여 각 지역의 특산물과 생활용품을 유통시켜 왔다.

2. 안성맞춤(안성마춤)과 안성장시

“안성맞춤”이란 말의 원래의 의미는 물건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든 것 또는 적시에 때맞추어 잘된 일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꼭 맞추어서 잘 맞는다’라는 의미로 국어사전의 한글 맞춤법상 올바른 표현이다. 안성맞춤은 일반명사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널리 애용 되고 있는 안성을 대표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예, 안성맞춤랜드, 안성맞춤박물관, 그거 딱 “안성맞춤이야”...등.

그런데 가끔 안성에서는 “안성마춤”이라고 써여 있는 상표의 물건들과 현수막에 광고문을 볼 때가 있다.

“안성마춤”이란 안성시의 농특산물에 대한 최초 브랜드 상표 등록시에 등록한 고유명사다. 한글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 이지만 상품에 브랜드로 등록해서 함께 쓰이고 있다. 예, 안성마춤 쌀, 안성마춤 포도, 안성마춤 배 ...등.

그래서 일반인들은 “안성맞춤”과 “안성마춤”의 표기를 보고 혼동할 수밖에 없는데, 엄격히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며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제시대에 동아일보 안성지국장을 하며 애국 청년운동과 사회, 교육활동을 열심히 한 안성지역 향토 교육자 추수 김태영(秋水 金泰榮)은 현재 안성의 안청학원(현 안청중학교)을 설립하고, 안성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역사책 “안성기략(安城記略)”을 저술하였다.

추수 김태영은 안성기략에서 안성마침을 “안성정주(安城定做)”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안성(安城)은 고래로 유기(鑄器)가 명산이요, 안성유기는 견고하고 정교하게 제조함으로써 전국에서 환영을 받아 왔나니, 차(此)에 인(因)하여 물품이 견고 하든지, 사기(事氣)가 확실 하든지 혹 홀치지물(忽致之物)이 불의지수(不意之需)에 가합(可合) 하던지 하면 안성마침이라 하여 전국에 통용(통용) 되나니라 라고 하였다. 즉 유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 것이다.

또한 궁중에서 경축행사가 있을 때면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토산품을 진상(進上) 하였다.

당시 안성에서 진상한 가죽신(꽃신)은 그 모양이 좋을 뿐 만 아니라 품질도 우수 하였는데, 누구나 신어도 그 발에 맞춘 것 이상으로 잘 맞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꽃신을 구하려면 안성에 가서 구입하면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맘에 꼭 맞는 꽃신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안성마침이 유래 되었다 라고 한다.

안성시장은 조선후기 이후부터 전국의 3대시장 (대구, 전주, 안성) 중에서도 물건의 거래 품목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의 장안 보다도 2~3가지 물건(모, 씨레)이 더 많았다고 하여 전국의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 하려면 반드시 안성장(安城場)에 들러야 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었다. 특히 기호에 맞는 물건을 원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안 성장에 들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안성마침 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안성맞춤하면 안성유기로 대표 될 만큼 유기는 안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현재는 유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안성지방의 가장 대표되는 특산물 이었다.

3. 안성맞춤(안성마춤)과 안성특산품(상품)

1) 안성유기 (安城鑪器)

유기는 우리말로 놋그릇을 말하며 생활용품이다. 놋그릇은 놋쇠로 만든 생활의 도구로서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거나,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든다. 놋쇠가 발명되어 놋그릇을 만들어 사용된 것은 오래 되었는데 아마도 BC10세기경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놋쇠는 불교가 번성하던 신라와 고려시대에 불상(佛像)과 범종(梵鐘) 중(鐘) 화병(花瓶)을 만드는데 널리 쓰였다. 주발 대접 제기(祭器) 순가락 젓가락 등 가정용품의 식기(食器)로도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사용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놋그릇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마련(磨鍊)”이다. 마련이란 주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놋그릇의 재질을 말하며, 안성에서 만든 놋그릇이 유명해진 것은 안성에서 만든 마련이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보다 품질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주발과 대접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마련

이 구리와 상납을 섞어 2근쯤 들어가야 상품(上品)이 된다고 한다. 이 합금의 비율을 정확하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관건인데, 안성유기는 이를 철저히 실행 함으로서 안성유기가 타 지방의 것보다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안성유기의 특징은 모양이 아름답고 크기가 약간 작은 식기류나 제기류 등이 주로 만들어 졌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조선시대의 역대 왕실과 양반가, 부호가를 대상으로 제작하여 공급되었다.

정조때의 실학자 겸 농정가인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矩)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誌)>에는

“호남의 구례지방과 개성 그리고 평안도의 정주지방 에서도 유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안성유기를 으뜸으로 친다. 안성과 용인 읍내장 및 장호원의 장터에 안성에서 만들어진 유기(놋그릇)이 나온다” 고 하였다. 이와같이 안성유기는 품질 면에서 타 지역의 유기들보다 월등히 우수하여 명성을 떨치며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안성에 안성유기 제작소는 50여곳이 넘었는데 한 작업장에서 주발, 대접, 함, 바리, 탕기 등 20여벌을 하루에 생산해 냈다. 이렇게 볼 때 한달 평균 24~5일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500여벌을 생산하는 것이다. 안성지방에서 일년에 생산되는 유기는 안성전체를 총 합해보면 30여만벌이 생산된다 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숫자는 대단한 것이며, 조선후기 안성이 유기 공업 발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성유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안성의 지리적인 잇점도 있지만, 안성유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독특한 기술과 안성인 특유의 상인 기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성인의 상인기질에 대해서는 다음의 속언(俗言), 속요(俗謠)에서 엿볼 수 있다.

경기 안성 큰아기 유기장사로 나간다.

한넙 팔고 두넙 팔아 파는 것이 자미라.

경기 안성 아기 손가락 장사로 나간다.

은(銀)동(銅)질이 반수저에 꺾기 손갈이 격이다.

안성유기(安城鑄器) 반복자(半福字)

연엽주발(蓮燁周鉢)은 시집가는 새아씨의 선물이라.

위의 안성에서 많이 부르던 속요(俗謠)에

“안성 큰아기 유기장사로 나간다”라는 구절에서 안성인의 왕성한 상인 기질을 엿 볼수 있으며, 성숙한 처녀가 유기를 들고 행상(行商)을 나갈 정도로 대단한 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 당시 상업에 천시하던 전통적인 조선의 폐쇄사회에서 여자들이 적극적인 상업활동,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변혁시대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여자들의 상업활동의 참여는 전통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었으며, 오히려 장려하는 경향까지 있어 남성중심의 전통적 신분차별의 직업관이 와해되고 있음을 반증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상업 활동으로 안성지방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제는 유기제품을 군수품의 원료로 쓰기위해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유기제품을 모두 징발해 감으로써 안성유기 공업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1945년 8.15일 해방과 더불어 잠시 안성유기는 수요가 급증하고 활기를 되찾자 옛 명성을 되찾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기도 잠시일 뿐 유기제품과 상극(相克)인 무연탄(無煙炭)의 등장, 생활에 편리한 스텐리스(stainless)의 출현, 포금(砲金)으로만든 탄피(彈皮)를 녹여 만든 조잡한 유기의 등장 등으로 안성유기는 안성맞춤(안성마춤)의 영광스런 신용을 점차 잃어가고 쇠퇴하기 시작 했다.

생활용기 제작은 수요가 줄어들어 제작을 중단하고, 단지 관광상품 용으로 마패(馬牌), 쏫대, 작은 장식용 종(鐘) 등을 만들었으나 이마저 모두 문을 닫고 폐업 하였다.

현재 안성에서 유기제품을 생산 하는 곳은 오직 한곳 뿐 만 남아있어 그 찬란했던 안성유기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안성시 봉산동에 위치 하고 있는 풍화유기공장 및 전시장이다. 이 공장의 사장은 안성맞춤(안성마춤) 유기의 전승자인 김근수(1916~2009)옹으로 안성유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온 장인(匠人)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1983년 6월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었다.

김옹(金翁)은 2009년에 고령으로 작고하여 현재는 그분의 아들 김수영이 부친의 대를 이어 유 기장 제77호가 되어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2) 안성의 한지(韓紙)

종이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BC105년 중국의 후한(後漢)시대의 채륄(蔡倫)에 의해 종이가 처음 발명한 후 부터이다. 이때부터 새로운 기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종이의 주성분은 마(麻)로 마의 껍질에서 뽑은 섬유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가 사용된 것은 통일 신라 성립의 전후인 7세기경 당(唐)나라로부터 종이 제작법이 전래된 이후부터 이다.

종이의 재질은 처음에 닥나무(楮)나, 삼지닥나무(三枝楮)껍질의 섬유를

원료로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한지의 독창적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종이의 제작술이 점점 발전하여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종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까지 했다.

안성지방에서도 한지(韓紙)가 생산 되었는데 생산된 곳은 안성시 보개면(寶蓋面) 기좌리(基佐里) 일대이다. 즉, 기좌리는 적재울이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부르는 시골동네로 안성읍에서 북동 쪽으로 10리(4km) 정도 떨어진 시골마을 이다. 이곳은 안성의 진산 비봉산 기슭에 동남향의 동네 로 입지조건으로 수질이 좋고 주변에 닥나무 혹은 닥풀이 많이 생산 되어서 질(質)이 좋은 안성한 지(韓紙)를 생산해 냈다,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조정에서 안성한지를 애용하였으며, 정부의 귀중한 역서(曆書)를 만드는데 사용 하였다. 본래 역서는 민간에서는 임의로 출판할 수 없고 반드시 정부 (담당관청은 관상감 觀象監)에서만 출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안성한지를 만드는데 관상감에서 관원이 파견되어 생산을 독려하고 감독 하며 직접 역서를 안성 현지에서 간행 하였다.

이것은 안성에서 만든 한지를 서울까지 운송하지 않고 생산지에서 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대한 물량의 운송에서 오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완성된 역서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안성에서 생산된 종이는 종류도 다양하여 백지(白紙), 초지(草紙), 마분지(馬糞紙), 창호지(窓戶紙), 역서지(曆書紙)등 종류도 다양 하였으며, 품질도 우수하여 안성유기와 함께 그 명성이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명성을 떨쳤다.

보개면 적재울이란 동네에서 언제부터 한지업(韓紙業)이 발달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조선조 초기때 부터로 그 기원을 보는 이가 많다.

안성한지는 역서(曆書)를 인쇄 할 때와 각종 고서적(古書籍)을 목판본(木版本)으로 발간하는데 널리 사용 되었으며, <천자문> (千字文), <동몽선습> (童蒙先習) 등과 같은 서당의 교재를 인쇄

했는데, 이런 책을 인쇄 할 때는 안성의 한지중에서 비교적 하급품(下級品)의 한지가 사용 되었다.

안성한지가 유명하였음은 다음의 속요(俗謠)에서도 나타난다.

“안성한지는 시집가는 새아씨의 빗집(楡入)감에 마침이다.”

이와 같은 속요가 유행할 정도로 안성한지는 상당히 발전 하였으며, 한지의 발달은 목판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인쇄 문화의 발달에 크게 기여 하였다.

각종서적과 역서까지 인쇄하여 보급하였음을 볼 때 안성에는 목판 인쇄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안성의 문화발달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 50~60년 전 까지만 하여도 안성시장에서 는 안성 적재울에서 생산된 한지로 인쇄해서 만든 〈고본 춘향전〉(古本 春香傳), 〈심청전〉(沈淸傳) (판본이 13종이나 발간 되었는데 그중에 안성본이 있음) 등과 같은 고전 소설책을 안성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대소설과 국문으로 된 신문학 소설 등을 많이 인쇄하여 출간 하였는데 이를 고본 적재울판 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장에서 구입한 고전 소설책 등은 시골마다 있는 각 동네 사랑방의 석유 등잔불 아래서 읽혀졌다. 겨울의 동지(冬至) 첫달 긴긴밤에 목청이 좋고 동네의 리더 되는 한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면 사랑방 가득 모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소설이야기 내용에 푹 빠져들어 공감하며 울고 웃곤 하였다.

이러한 특이한 독서생활 덕분에 안성은 문학, 문예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안성맞춤(안성마춤)과 꽃신(가죽신)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토산품)을 중앙정부에 공물(貢物)로 바쳐야 했다. 이러한 공물은 주로 중앙정부나 각 지방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수요에 충당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성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바치는 공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성유기와 꽃신(가죽신) 이었다.

꽃신이 안성의 공물로 포함 되었다 라는 것은 안성에서 만든 꽃신이 대표적인 특산물(토산품)이기도 하지만, 그 모양새와 품질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이다.

안성 꽃신은 안성을 서리(西里) (현재 서인동, 석정동, 대천동)를 중심으로 생산 되었는데 그 품

질이 다른 지방의 꽃신 보다 월등이 우수하여 전국에 널리 유명해 졌다.

“안성꽃신 반저름(半油름)은 시집가는 새아씨 발에 마침이다”

라는 속요(俗謠)가 안성에서는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안성에서 만든 꽃신은 누구의 발에나, 맞춘 것 이상으로 잘 맞고 편리하기 때문에 꽃신(가죽신)하면 안성에서 구입하라고 할 정도였다.

안성맞춤 유기, 안성맞춤 꽃신은 안성한지와 더불어 안성을 상징 하는 대표적인 안성의 특산품(토산품)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자기마음에 딱 들어맞고 잘 어울릴 때 안성맞춤(안성마춤)이라 하였다.

4) 갓 수선(修繕)과 도구머리(道基里)

조선시대는 반상계급(班常階級)이 뚜렷한 시대였기 때문에 양반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의관(衣冠)을 정제할 때 쓰는 갓 이다.

원래 갓을 만드는 명소는 경상남도의 통영(統營, 충무 忠武)인데, 이곳통영에서 만든 갓이 품질 면에서나 모양새 에서나 격식(格式)에 잘 맞고 예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갓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관모(官帽)의 하나로, 갓을 만드는 재료는 말(馬)의 꼬리로, 윤이 나는 새까만 색깔로 섬세하고 치밀한 정성을 다하여 만든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갓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어 수선 할 때가 있다. 갓을 수선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안성의 도구머리(道基里, 현재 道基洞)가 그 명성을 떨쳤다. 도구머리라는 동네는 안성시장을 들어가는 초입의 입구에 위치한 안성시 남쪽 안성천(강)변에 있는 마을로 안성장시가 번성할 때 항상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던 곳 이었다. 이곳에서 유명한 갓 수선 집으로 이씨가(李氏家)가 있었으며, 이씨가를 중심으로 마을의 몇몇 가구가 갓 수선 집단 협업을 형성하며 명성을 날렸다.

갓을 만드는 제작 과정은 수공업으로 과정이 복잡하고 섬세하며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데, 고장이 났을 때 그 수선 과정은 더욱 고도의 기술이 요구 되었다. 갓 수선 기술은 갓에 조그만 구멍이 났을 때, 고장 난 갓에 흠집을 크게 내어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원래의 모양새로 다시 만

들어 내는 것이다. 도구머리의 갓 수선 기술이 훌륭하다는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자, 전국 각 지역의 선비들이 고장 난 헌 갓을 수선하러 안성시장으로 많이 몰려 왔다.

그런데 안성장시가 번성할 때 갓 수선을 하러 안성을 찾은 가난한 선비들이 갓 수선비용 때문에 말 다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이런 때는 꼭 어떤 이유를 대며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트집을 하며 갓 수선비를 깎으려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안성 도구머리 갓 수선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선비를 반드시 받아 내고 말았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트집”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안성 도구머리에서 갓 수선비용을 받을 때 처음으로 사용한 말 이라고 알려졌다. 즉, “트집”이란 말의 원조는 안성 도구머리 동네 이다.

지금도 안성에서는 어떤 경우(이치)에 어긋나거나 억지를 쓰며 때를 쓸 때는 “이사람 도구머리에서 왔나” 라며 비아냥 거리는 속담도 있다.

5) 연죽(煙竹 담뱃대)

16세기 말에 담배가 들어온 이후 17세기 초에 일반 서민들이 잎담배를 피우던 시절, 금속제로 만든 담뱃대를 연죽(煙竹) 이라고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 널리 애용 되었으며 세칭 은동삼구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처럼 순 동(銅)으로 만든 담뱃대 대신 놋쇠와 백동(白銅) 같은 구리 합금제품으로 만든 담뱃대가 널리 애용 되었다. 그 중에서도 백동연죽의 경우에는 은(銀), 동(銅), 구리 황동(黃銅) 등으로 무늬를 놓은 독특한 기법이 특색 이었다.

안성의 백동연죽(白銅煙竹)은 각 지방으로 팔려 나갔는데 서울과 기호(畿湖)지방에 담뱃대의 주요공급원 이기도 했다.

연죽은 조선후기 남성들의 필수품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에게는 인기가 많았다.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나 양반들은 담배 피울 때 긴 장죽을 물고 있으면 그 자체가 큰 권위의식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인식 했다. 긴 장죽(長竹)은 노인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젊은이 들은 감히 긴 장죽을 물고 담배 피우는 것은 장유유서(長幼有序)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았다. 젊은이들은 긴 장죽 대신에 짧은 담뱃대를 이용하여 어른들 몰래 담배를 피우곤 했다. 긴 장죽은 담뱃대 기구로 사용된 것 이외에, 양반들의 사생활을 풍자하는 소설이나 마당놀이 등에서 긴 장죽(연죽)이 사용되기도 했다.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거드름 피는 양반들을 풍자(諷刺)하며 해학(諧謔)을 표현하는데 사용 했으며,

이와 같은 서민들의 해학, 풍자 등의 놀이에서도 긴 담뱃대는 인기가 많았다.

안성의교육자 추수 김태영((秋水 金台榮)은 그의 저서 <安城記略(1924)>에서

“연죽(煙竹)의 제조는 안성유기 다음으로 안성에서 중요한 공업품으로 거액에 달하더니 전매국(專賣局) 개시 이래 엽연초의 일반적 사용이 금지되어 큰 타격을 받았다” 라고 기록 돼 있다.

1925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 3면에

“전매국(專賣局)이 개시되어 안성 읍내면(邑內面) 동리(東里) 승릉동 일대 20여 호의 연죽상이 실업 참상을 맞았다” 라는 기사가 실려 있어 전매국의 등장으로 연죽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안성의 연죽공방이 승릉동(현재 송인동) 일대에 번창했음을 전해 주고 있다.

해방이후 안성유기와 함께 안성연죽도 성행 하였는데 안성의 동(東)쪽 봉산동과 연지동에 가내 공장 20~30개가 있었고 400 여명의 장인(匠人)들이 낫그릇과 연죽을 만들었다. 한국전쟁이후 담배도 권력으로 변하여 연죽이 필요 없게 되었다. 당시 연죽 만드는 장인(匠人)으로 유명했던 분들은 박석출과 임정석 이었다. 임정석 에게서 기술을 배운 양인석이 그 기술을 전승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인정되어, 현재 안성시 송인동에서 연죽을 제작,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4. 안성장시의 쇠퇴

안성장시의 쇠퇴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주변시장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후기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만들어 수도를 옮길 계획까지 세우면서 수원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1790년대 정조때 신임이 두터웠던 영의정(領議政) 변암 채제공(樊巖 蔡濟恭)은 수원 화성에 신도시를 만들어 백성들을 집단 이주하는 방법 등을 논의 했다. 그는 한달에 6번씩 장(場)을 열어 장(場)세금을 면제해 주고 교역을 허가하면, 전국의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전주, 안성 같은 큰 장(場)이 형성 될 것 이라 하였다. 이 당시의 안성장은 전국의 3대 시장에 손꼽힐 정도로 그 명성을 떨쳤다.

상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각 지방의 물산을 교류 시키면서 전국적으로 상권을 확대 시킨 보부상(褓負商) 들이다. 이 보부상들은 주요 상업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하루에 왕복 할 수 있는 30~40리의 거리를 두고 형성된 시장들을 순회하면서 각 지

방의 특산품을 비롯한 상품들을 유통 시켰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보부상의 구별은 보상(裸商)과 부상(負商)으로 구분 하였다. 보상(裸商)은 주로 정교하고 비교적 값이 비싼 금, 은, 포(布), 백(帛), 면(綿), 지물, 연죽(煙竹), 유기(鑰器), 문필구(文筆具) 등을 취급 하였고, 부상(負商)은 목기(木器), 토기(土器), 도자기(陶瓷器), 초석(草席) 등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상용하는 일용품(日用品)을 판매 하였다. 이와 같이 보부상들에 의해 안성유기 같은 특산품들은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안성장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던 많은 상인들이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화성으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서 안성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시대적으로의 변화를 보면 서양과의 개항(開港)이후 경제적인 면에 큰 개혁의 여파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04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면서 안성을 경유 하지 않고 안성을 비껴 수원, 평택, 천안을 경유하면서 안성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다 보니 안성장시도 점점 퇴색 되어 가게 되었고, 교통이 좋은 수원, 평택, 천안, 등지로 물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성장시의 쇠퇴한 모습을 추수 김태영(秋水金台榮)이 쓴 〈안성기략(安城記略)〉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고래로 안성시장에는 삼남지방(三南地方) (충청, 경상, 전라)의 물산(物産)이 집유(集有)하여 경성(京城) 이북(以北)으로 이출(移出)되었고 함경, 강원도 등 각도의 물산도 당지(當地)를 경유하여 경성(京城)으로 이출 된 관계로 상업이 크게 번성 하였다. 경부철도 개통이후로 일시(市況)이 쇠퇴 하였으나 근년에 당시 상인들이 시황(市況) 만회(挽回)에 전력을 경주한 결과로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지금에 경부철도 개통을 기하여 동(東)으로 이천, 음성, 북(北)으로 용인 남(南)으로 천안, 진천 등지의 산물이 당지(當地)에서 집산 되었고 당지 상인이 판로(販路) 또한 차등(此等)지방에 확장되어 수년을 불과하여 안성시장은 신면목(新面目)을 현출(現出) 할 지니라.

위와 같이 안성은 경부선 철도(京釜線 鐵道)의 부설로 교통의 사각지대가 되어 일시적으로 장시의 쇠퇴를 가져 왔다. 그러나 상인들의 노력과 내륙지방의 농산물을 교류시켜 점차 상권을 회

복하여 갔다. 그러나 일제의 한·일 합방으로 인한 민족 산업의 탄압으로 안성장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당시 일제시대에 상품거래 품목을 보면 농산물과 해산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수공업 제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안성장시의 쇠퇴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의 큰 변화 즉, 정부의 화성, 수원으로의 집단 이주정책과, 서양과의 개항(開港) 이후에 과학적으로 앞선 서양 신문물(新文物)의 집단 수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여기서 안성장시의 쇠퇴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1904년 경부선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사각지대로 전락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모든 도시의 발전여부는 교통 편리함의 여부에 달렸다. 경부선철도가 평택이 아닌 안성을 경유해서 통행 했다면, 아마 안성장시는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 했을 것이며, 더구나 안성인들의 상업적인 기질이 개성(開城)상인들 못지 않게 뛰어났기 때문에 안성맞춤(안성마춤)의 정신을 이어받아 큰 발전을 했을 것으로 상상해 본다.

지금도 안성인들은 경부선이 평택을 통과하게 된 것을 많이 아쉬워 하고 있다.

일설(一說)에 의하면 경부선은 원래 안성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시 안성군민들과 토호갑부(土豪甲富)들이 자기들의 논, 밭으로 철도통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란 말도 있는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후회 막심할 일이다.

III. 맺는말

안성장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중엽 이후이며 전성기로 명성을 떨친 것은 18세기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안성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이며 경기도에서는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 조건으로 안성은 한때 충청도에 편입되기도 했으나, 안성은 삼남지역(경상, 전라, 충청)에서 한양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자연히 삼남지역에서 한양을 가려면 안성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장시가 발달 하여 시장이 번성하게 되었다. 시장이 번성하게 되니 안성사람들은 개성상인들 못지않게 상업적 기질을 발휘하여, 안성인 특유의 “안성맞춤”(안성마춤)이라는 신조어(新造語)를 안성유기, 한지, 꽃신, 연죽 등을 생산 하면서 만들어 갔다. 반상

(班常)의 구별이 뚜렷했던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에서도 장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상업전선에 뛰어들은 것은 파격적인 일이며, 더구나 딸, 며느리, 새아씨나 처녀들까지 유기장사로 내 보내 한뼉, 두뼉 동전을 모아 장사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속요(俗謠)가 유행처럼 번진 것은 안성장시가 발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모습은 안성이 아니면 그 어디 에서도 볼수 없는 것으로 안성의 특산품과 더불어 자랑 할 만 하다.

안성인 들에게서 빼 놓을 수 없는 말 즉, 안성맞춤(안성마춤)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올 수 있게 좋은 공산품을 만든 것을 안성인들은 자랑으로 여긴다.

교통이 좋아서 발달하던 안성장은 정조의 화성 수원으로의 백성들 이주정책과 맞물려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개항(開港)과 더불어 많은 물류들이 인천항을 통해 해상운행 으로 운반되고 발전된 선진 과학 문명과 함께 서양문물이 들어와 수원은 발전 하게 되고 안성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인천 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 중국의 도자기, 그릇 등 질 좋은 서양 물품에 밀려 안성유기, 꽃신, 한지, 연죽 등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전매제(專賣制) 시행 등으로 염연초 등을 피우지 않게 됨으로서 안성의 백동연죽 등의 긴 담뱃 대 제품이 설 땅이 없게 되었다.

또한 안성의 명품중의 하나인 꽃신, 짚신 등의 인기 있었던 신발들도 서양제품들인 고무신, 양화(洋靴) 등에 밀려 점점 인기가 없어지게 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안성의 모든 수공업은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1904년 경부선철도의 개통으로 철도가 평택을 경유하여 통행함으로 안성은 정말 큰 타격을 맞게 되었다. 도보로 삼남지역에서 서울로 갈 때는 안성이 교통의 요지(要地)였는데, 경부선 철도로 서울을 갈 때는 안성은 제외되어 교통이 아주 불편한 오지(奧地)가 되었다.

전국의 3대시장(안성, 대구, 전주)을 자랑하던 안성시장이 이렇게 몰락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경부선철도가 안성을 경유하는 것을 안성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 이란 설(說)도 있고, 안성의 갑부(甲富)가 자기네 논밭으로 철도가 못 지나가도록 강력히 반대 했기 때문이 란 설 도 있다. 지금도 많은 안성사람들은 경부선 철도가 안성을 경유 하지 않고, 평택으로 통행하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안성사람들은 “안성맞춤”(안성마춤)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안성장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옛 영화를 되찾게 되기를 그리워하고 있다. 요즘은 전 국민에게 인기가 많은 농심라면의 “안성탕면”도 안성맞춤(안성마춤)이란 단어에 두 글자만 바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름 덕분에

대 히트를 쳤다고 한다. (농심라면 공장이 안성에 있음)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안성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은 제일먼저 주장하는 것이 안성시장의 전국 3대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자고 외치며 역설 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성은 철도, 지하철 교통노선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지하철이 없는 곳으로 안성이 유일한 도시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말로만 전국 3대시장의 옛 영화를 되찾자고 외친다고 될 말인가?

현직 국회의원인 김학용의원은 평택-->안성-->이천시 부발읍으로 연결되는 철도(강원도-->경기도)를 설치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사업(국책사업)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인구면에서 (현재 안성시인구: 18만명) 보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천안-->안성-->장호원 (안성선철도)까지 다니던 철도가 있었다. 그런데 인구가 적어 승객수가 적고 적자가 난다고 하여, 철도를 뜯고 폐쇄 해 버렸다. 기존에 있던 철도도 폐쇄하는 판에, 또 새로 철도를 신설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다. 오히려 안성시의원인 현 이기영의원이 적극 주장하며 노력하고, 충청북도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세종시-->안성-->동탄-->서울을 잇는 수도권연결 철도건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계획도 막대한 국가예산 관계로 쉬운 일은 아닐 듯 싶다.

철도, 지하철도 통과하지 않는 곳이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발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좋은 곳이 먼저 발전되는 것은 상식이며 순리다.

안성발전의 지름길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 지하철 유치가 급선무(急先務)라 생각되며, 그것이 평택--안성이든, 용인--안성이든 연결만 되면 좋을 것이다.

안성인들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 영조 말경 (1770년경)
광무3년(1899년)
- 안성기략(安城記略), (1925) 추수 김태영 (秋水 金兌榮)
- 안성군지, 안성군지 편찬위원회, 1990.
- 안성시지,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2009.
- 안성인물지, 안성문화원, .1998.
- 국사대사전,이홍직 편, 삼영출판사, 1987.
-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88.
- 선비마을안성덕봉리, 안성문화원, 2008
- 안성의 얼과 맥,오환일, 1993.
- 경기도사I,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 (1757~1765)
- 양촌집(陽村集),권근(權近), 조선 태조 7년 (1398)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중종25년 (1530)
- 동국통감(東國通鑑), 卷 47, 성종 16년 (1485)

여 백

양주의 장시

홍 정 덕 (경기도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목 차

I. 양주 지역 장시 형성의 배경

II. 문헌에 나타나는 양주의 장시

III. 양주의 장시(場市)들

IV. 양주지역 장시의 변천

V. 현재의 양주지역 장시의 현황

VI. 결론

※ 참고 문헌

집필자

홍 정 덕

경기도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I. 양주 지역 장시 형성의 배경

1. 장시 발생의 일반적 요인

장시(場市)는 지방에 열리는 정기시¹⁾로 이의 발생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성종 4년 조정에 올린 신숙주의 보고기사로 성종 원년인 1470년 호남에 기근이 발생하여 농민이 생계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시를 통하여 이문(利文)을 얻게된 농민이 전장(田莊)을 떠나 말업(末業)인 상업에 전문(專務)하는 현상에 대한 시비(是非)와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게 된다.²⁾

양주의 경우에도 장시의 발생원인은 이 범주(範疇)에서 벗어나지 않는듯 하다.

단, 양주에 기근이 들어 이를 면하려는 생계차원에서 장시가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타처 장시를 견문(見聞)하고 이문(利文)을 얻는 일에 동참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명확한 동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양주도 포함된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현재 확인되는 시기는 1770년대 초반이 상한이라는 사실이다.³⁾

2. 기전(畿甸)의 대읍(大邑)

1) 양주의 연혁과 역할

양주는 북방의 침입세력을 막아내는 관방의 중추가 되어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둘러싸고 말갈과 백제의 치열한 전역(戰役)이 펼쳐졌고 백제, 고구려, 신라의 투쟁에서 승리한 신라가 국토수호의 쇄약(鎖鑰)인 한강 하구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성](漢城)을 설치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한양을 호위하는 관새(關塞)인 수어청(守禦廳)의 중영(中營)으로, 배속된 인근 열읍을 통제하는 북기(北畿)의 본영이었고 호란을 겪은 후에는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방위의 본채(本寨)가 되었다 동시에 출사(出仕)한 품관(品官)들의 향저(鄉邸)와 별서(別墅), 장원(莊園)이 산재(散在)하고 종산(宗山)과 능원(陵園)이 많아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였으니 이에 따른 물화(物貨)의 수요가 커서 자연히 장시가 개설될 이유가 있었다.

1) 향시(鄉市), 허시(墟市)라고도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장>이라고 하였다.

2) 김대길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첫째마당 시골장, 장시의 출현>, 2000, 가람기획

3) 양주의 장시가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자료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편찬 시기를 참고하였다.

2) 교통의 중심지

양주는 고대로부터 임진강의 중요 도하점인 장단(長湍) [호로나루]를 건너 감악산을 거쳐 광진 나루로 내려가는 [장단로]와 한양에서 북진하여 대탄(大灘)을 건너 함경도로 들어가는 [삼방로], 그리고 한양에서 [서수라]로 이어지는 [북관대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중심이었으므로 왕래하는 보부상들의 행업(行業)에 편리하였고 물산의 집산(集散)에도 편리하였다. 더 불어 한강과 임진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3. 양주 지역 장시 개설의 개요

양주 지역의 장시가 나타나는 최초의 문헌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니 이 책은 영조 46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정조 연간에 《증정동국문헌비고 增訂東國文獻備考》로 정리되고 이후 최종적으로는 1908년에 최종 출간되어 보급된 바 주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 반영되었는데 이 책의 〈시적(市糴)〉 항목에 전국의 장시가 나타난다. 정조 연간에 이 책을 증보하는 작업에 서유구(徐有榘)가 참여하였는데, 서유구는 이 책과는 별도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사찬(私撰)하여 두 책의 동일 항목 기술을 비교할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시적고(市糴考)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예규지(倪圭志)〉를 비교하면 장시의 수에서 차이가 있고 임원경제지가 보다 초고(草稿)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나 기술 방식에서 거의 동일한 체제로 기재하고 있어 우리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나타나는 양주 지역의 장시가 대체로 정조 연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정조 연간에는 이미 양주 지역에 다수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문헌에 최초의 장시가 나타나는 것이 성종 원년, 즉 1470년이고 임진왜란 발발 당시의 기록인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에는 저자가 유배되었던 충청도 임천(林川)은 물론 인근 홍산(鴻山), 한산(漢山), 결성(結城) 등의 정기시를 이용하여 물화(物貨)를 구입하는 한편 본인도 스스로 만든 술과 떡을 장시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 실록의 기사에서도 종종 연간에는 이미 전라, 충청지역에 장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명종 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장을 통제하여 본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말업(末業)에 치중하는 폐단을 축소하는 구체적 방안이 자주 토의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역(畿域)의 중읍(重邑)이며 북관 교통의 요지인 양주 역시 이미 임란 이전에 장시가

4) 오희문, 『쇄미록(瑣尾錄)』 1593년 4월 21일, 5월 28일 조

개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헌 상 양주의 장시가 최초로 나타나는 정조 연간에 이미 양주에 7개 처의 장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성종 연간, 우리나라 최초의 장시 발생과 호남 일대로의 확산이 흉년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이유였다면 양주 역시 동일한 모멘텀이 부여되었다는 가정 아래 장시 개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대부였던 오희문(吳希文)이 비녀(婢女)를 시켰다고는 하나 기근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장시의 교역에 참여하였다고 자술한 것처럼 농경 위주의 산업사회였던 조선에서 기근을 장시를 통한 교역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면 양주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II. 문헌에 나타나는 양주의 장시

조선시대 후기 양주 지역에 개설된 장시를 문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770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가라비장(加羅非場)	3일, 8일
신천장(新川場)	2일, 7일
대탄장(大灘場)	4일, 9일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고주내장(古州內場)	5일, 10일
북도천장(北道川場)	1일, 6일
구곡장(仇谷場)	1일, 6일

2.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 권4 식화(殖貨) 8역장시(八域場市) 경기(京畿)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위치	비고
가라비장(加羅非場)	3일, 8일	주의 서쪽 10리 廣石面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조율(棗栗) 철물(鐵物) 목기(木器) 옹기(甕器) 지물(紙物) 인석(茵席) 우독(牛犢)
신천장(新川場)	2일, 7일	주의 북쪽 20리 陳畚面	
동두천장(東豆川場)	5일, 10일	주의 북쪽 40리 伊淡面	
마석우리장(磨石隅里場)	2일, 7일	주의 동쪽 80리 下道面	

3. 양주목읍지 경기지 1842(헌종 8) - 1843(헌종 9) 경기도에서 편찬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위치
가업장(加業場)	3일, 8일	주의 서쪽 10리 광석면
신천장(莘川場)	2일, 7일	주의 북쪽 20리 어등면
대탄장(大灘場)	4일, 9일	주의 북쪽 60리 청송면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주의 북쪽 40리 이담면
구곡장(仇谷場)	1일, 6일	주의 동쪽 100리 상도면
미호장(美湖場)	3일, 8일	주의 남쪽 60리 독음면

4. 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 1851-1856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가라비장(加羅非場)	3일, 8일
신천장(新川場)	2일, 7일
대탄장(大灘場)	4일, 9일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고주내장(古州內場)	5일, 10일
북도천장(北道川場)	1일, 6일
구곡장(仇谷場)	1일, 6일

5. 여도비지(輿圖備志) 1852년(철종 2) - 1856(철종 7)

김정호(金正浩)/ 최성환(崔星煥)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시방서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가라비장(加羅非場)	3일, 8일
신천장(新川場)	2일, 7일
대탄장(大灘場)	4일, 9일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고주내장(古州內場)	5일, 10일
북도천장(北道川場)	1일, 6일
구곡장(仇谷場)	1일, 6일

6. 양주목읍지 (경기읍지 수록) 1871년 고종 8)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위치
가업장(加業場)	3일, 8일	주의 서쪽 10리 광석면
신천장(莘川場)	2일, 7일	주의 북쪽 20리 어등면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주의 북쪽 40리 이담면
덕소장(德沼場)	1일, 6일	주의 남쪽 80리 와공면
광릉천장(光陵川場)	3일, 8일	주의 동쪽 50리 진벌면

7. 용구수전(龍區壽典) 고종연간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가라비장(加羅非場)	3일, 8일
신천장(新川場)	2일, 7일
대탄장(大灘場)	4일, 9일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고주내장(古州內場)	5일, 10일
북도천장(北道川場)	1일, 6일
구곡장(仇谷場)	1일, 6일

8. 양주목읍지(조선지지략 수록) 1888(명치 21)

장시(場市) 명(名)
가라비장(加羅非場)
신천장(新川場)
대탄장(大灘場)
동도천장(東道川場)
고읍내장(古邑內場)
북도천장(北道川場)
구곡장(仇谷場)

9. 楊州郡邑誌 광무연간 필사

장시(場市) 명(名)	개장(開場)	위치
가업장(加業場)	3일, 8일	주의 서쪽 10리 광석면
신천장(莘川場)	2일, 7일	주의 북쪽 20리 어등면
대탄장(大灘場)	4일, 9일	주의 북쪽 60리 청송면
동도천장(東道川場)	5일, 10일	주의 북쪽 40리 이담면
구곡장(仇谷場)	1일, 6일	주의 동쪽 100리 상도면
미호장(溱湖場)	3일, 8일	주의 남쪽 60리 독음면

이상 8종의 지리지에 나타나는 양주 장시 기록을 검토하면 각각 동일한 자료에서 인용한 2개의 유형으로 기사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편의상 A형과 B형으로 분리해서 정리해 보자.

A형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출전(出典)으로 하는 문헌으로 이에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 『여도비지(輿圖備志)』, 『용구수전(龍區壽典)』, 『양주목읍지(조선지지략 수록)』 『양주목읍지(楊州牧邑志)-광무연간』이 여기에 해당된다.

B형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모전(母典)으로 하는 문헌으로 이에는 『양주목읍지 경기지』 『양주목읍지(경기읍지 수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로 A형은 관찬 자료의 준비문헌이나 지도제작에 관련한 인문지 등, 전문성이 표출되는 자료임에 비하여 B형은 읍지(邑志)적 성격이 강하고 이전 읍지를 인용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자료에 따라서 양주의 장시는 명칭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이를 양주 지역 전체 장시의 변천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증보문헌 비고	임원경 제지	양주목읍지 (경기지)	대동여지 통고	여도비지	양주목읍지 (경기읍지)	용구수전	양주목읍지 (조선지리지)	楊州郡邑誌 (광무연간)
가라비	○	○	○	○	○	○	○	○	○
신천	○	○	○	○	○	○	○	○	○
대탄	○		○	○	○		○	○	○
동도천	○	○	○	○	○	○	○	○	○
고주내	○			○	○		○	○	
북도천	○			○	○		○	○	
구곡	○		○	○	○		○	○	○
마석우리		○							○
미호			○						
덕소						○			
광릉천						○			

이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9종의 지리지 모두에 나타나는 장은 모두 3처로 〈가라비〉, 〈신천〉, 〈동도천〉이다 이외에 〈대탄장〉과 〈구곡장〉이 7종의 문헌에, 〈고주내장〉과 〈북도천장〉이 각각 6종, 〈마석우리장〉이 2곳, 〈미호장〉과 〈덕소장〉, 〈광릉천장〉이 각각 1개의 문헌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시들은 각각 기재된 문헌의 출간 연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장시들의 출현, 소멸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즉 예를 들면 1700년대 후기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고주내장〉이 1800년대 전반기의 상황을 반영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고주내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800년대 중반의 상황이 반영된 『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와 『여도비지(輿圖備志)』에 다시 기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9종의 자료에 단 1회만이라도 등장하는 11개의 장시 모두가 비록 개설시기의 조만(早晚)은 있겠으나 모두 다 조선시대 후기의 양주 장시라고 보아야한다고 여긴다. 단지 견문과 정보의 차이에 따라 기재, 미기재 자료로 분류될 뿐인 것이다.

그러면 지리지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따라 위의 양주 지역 장시들의 각각의 모습을 추적해 보자.

Ⅲ. 양주의 장시(場市)들

1. 가라비(가래비)장

가업리(加業里), 가납리(加納里), 추교리(楸橋里)는 모두 ‘가래비’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다. 가래비는 ‘갈’에서 왔고, 이는 ‘갈림길’, ‘길이 갈라지는 곳’, ‘길이 나누어 두 갈래 길로 바뀌는 곳’, ‘삼거리’라는 뜻을 지닌다. 실제로 가래비는 양주 유양리 관아 거리에서 감악산 지역을 거쳐 파주로 나가는 길과 동두천, 은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나뉘는 삼거리 분기점이었어서 이런 지명이 생겨났다. 따라서 가래비는 서울의 갈현동, 의정부의 추동(楸洞)과 같은 계통의 지명이라 하겠다. ‘추교(楸橋)’의 추(楸) 역시 ‘가래나무’라는 뜻으로 우리말 ‘갈’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채용된 것이다.

가업장(加業場)이 처음 나타나는 문헌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로서 이 책은 1827년에 서유구(徐有鑣)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따라서 가업장은 적어도 1800년 중반 이전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가래비는 한강 하구와 개성 지역을 출발하여 임진나루에서 임진강을 건넌 후 감악산, 도락산을 지나 불곡산, 사패산으로 이어지고 의정부를 거쳐 서울 광진나루까지 연결되는 상행길, 즉 [장단로]의 주요 길목으로 양주 서부의 물산이 모여드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양주의 농산물과 파주, 장단으로 오는 개성, 황해 남부 지역의 물산, 그리고 유양리의 양주 주내와 남방리로 이어지는 의정부 지역의 물산들이 가업장에서 교환되었다.

경기 북부의 큰 장이었던 가업장은 3, 8일장인 가라비장(加羅非場)에서 가업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원선 개통과 함께 양주의 행정적 무게 중심이 의정부로 옮겨 간 뒤에는 가래비의 한자명인 추교장(楸橋場)이라는 명칭의 장이 5, 10일에 섰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현재의 명칭인 가납장(加納場)이라는 명칭의 1, 6일장으로 바뀌었다. 현재 명칭은 그대로 가납장인 채 장날만 4, 9일로 바뀌어 유지되고 있다.⁵⁾

2. 신천장

신천장(莘川場)은 양주를 관통하는 신천(莘川)에서 유래되었다. 신천은 양주군 남면 신산리(莘山里)에서 발원하여 남행하다가 회천에서 T자 형으로 돌아 북쪽으로 흘러 동두천 시내를 관통

5) 가업장 [加業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여 한탄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본래 동두천 지역의 신천은 삼국 시대부터 모래내, 즉 사천(沙川)으로 불렸고 현재의 정식 이름은 강화천(江華川)인데 양주 지역의 하천명인 신천이 항간에서 그대로 불리며 속칭으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른다. 신천을 북도천(北道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하천이 북류하기 때문이다.

신천장의 또 다른 명칭인 북도천장(北道川場)은 하천명에서 비롯되었고, 화천장(華川場)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하천의 정식 이름인 강화천에서 나왔거나 신천장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신천장은 삼방로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 장시가 형성될 만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회천읍 봉양리 지역에 형성되었다. 이곳은 양주 지역을 관류해 온 신천이 흐름을 바꾸어 북류하며 강화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시작 지점이자, 임진나루를 건너온 삼방로의 동두천과 덕계의 중간 지점으로 남북 방향 양쪽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었다.

『양주읍지(楊州邑誌)』에 따르면 신천장은 어등산면(於登山面)에서 열렸다고 한다. 어등산면의 위치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따르면 현재의 양주시 봉양동이다. 의정부(議情阜)~비선거리(碑立巨里)[4km, 갈림길 分岐]~어등산(漁登山)[8km]~가정자(柯亭子)⁶⁾[8km]~한탄나루(大灘津)⁷⁾[8km]~가사평(袞娑坪)⁸⁾[4km]~통현(通峴)[4km]~연천(漣川)[4km, 갈림길 서울에서부터 56km]이라는 노정표를 살펴보면 현재의 양주시 남방동인 비선거리에서 8km를 지나고 동두천시 봉암동인 가정자까지의 거리가 8km라고 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천장〉은 『경기지(京畿誌)』, 『경기읍지(京畿邑誌)』, 『양주군지(楊州郡誌)』에는 〈화천장(華川場)〉으로, 『여도비지(輿圖備志)』에는 〈북도천장(北道川場)〉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날은 1·6장 또는 2·7장으로 되어 있다. 〈신천장〉은 조선 말 이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경원선 덕정역이 생기면서 〈덕정장〉이 활성화되는 대신에 〈덕정장〉과 인접한 〈신천장〉은 이 〈덕정장〉에 합쳐지는 형태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⁹⁾

3. 대탄장(大灘場)

한양에서 함경도 삼방(三防)에 이르는 [삼방로](현재의 3번 국도)가 한탄강을 도하하는 나루인 지금의 전곡읍에서 열리던 장시로 [한탄나루를 한역(漢譯)한 〈대탄(大灘)〉이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나타난다.

6) 현재의 동두천시 지역이다.

7) “대탄(大灘)”은 “큰 여울”이라는 의미의 우리말 “한탄”을 한역한 것이다.

8) 현재는 은대리라는 지명으로 전곡읍의 교외에 해당한다.

9) 신천장 [華川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탄강, 임진강 수로를 이용하여 당시는 양주의 관할이었던 현재의 연천군 차탄천 이남 지역인 전곡, 신답, 은대, 통현 지역 주민과 한탄강 남안의 늘목, 양원, 고능, 간파리의 주민들이 물화를 교역하였다. 행정구역 변천으로 현재는 한탄강 북안 지역은 연천군에 편입되고 이후에 명칭이 변하여 <전곡장>이 되어 4, 9 일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광복 후 한탄강이 남북의 분단 경계선¹⁰⁾이 되고 북한군의 서부전선사령부가 전곡에 위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장시가 중단되었으나 그럼에도 동란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북어와 남한의 의약품 등을 주 상품으로 하는 밀무역이 공공연하게 진행되던 현장이기도 하였고 남으로 밀행하는 피난민들의 월경 도하지점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 월남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임시 수용소가 동두천에 설치되어 한때는 3천명이 넘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기도 하였다.

수복 후 주요 군 주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어 군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전곡은 읍으로 행정단위가 확대되었고 분단 이전의 장시로 회복되어 <전곡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른다.

4. 동도천장(東道川場)

동도천(東道川)이라는 지명은 소요산에서 발원하여 신천(莘川)으로 합류하는 작은 냇강의 이름으로 “동쪽에서 흘러오는 개울”이라는 의미이다 이후 이 냇강의 이름은 동두천(東豆川), 또는 동두천(東頭川)이라는 지명으로 변용되는 데 이 두 지명은 여러 문헌에서 혼용되다가 현재는 동두천(東豆川)¹¹⁾으로 확정되었다.

즉 냇강 동도천(東道川)이 북류(北流)하여 한탄강에 합류하는 신천(莘川)과 만나는 합류지점인 지금의 동두천시 보산동¹²⁾ 지역에 개장된 장시이다.

이 지역은 본래 “가정자”라는 지명으로 불려왔고 조선시대의 행정 명칭은 양주군 <이담면(伊淡面)>¹³⁾인데 이 이담면은 양주(은현면) 지역과 포천 왕방산이 동서로 연결되고 한탄강 양안과 파주 적성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므로 일찍이 장시가 개설되고 조선시대 후

10) 38분계선이 한탄강 바로 남안을 지난다.

11) <동두천>을 현지에서는 <동두내>라 부르고, 그 의미 역시 <동쪽에서부터 흘러 오는 개울>이라고 한다면 <동두천(東豆川)>의 두(豆)는 두(頭)라야 맞는다. 두(豆)는 두(頭)의 약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2) 보산동은 <보안>과, <유산리>, 즉 <보의 안쪽지역>과 <짜리말>을 뜻하는 두 지역의 지명에서 “보”와 “산”을 취하여 합성한 지명이다.

13) <이담면(伊淡面)>이나 <생연동(生淵洞)>을 현지에서는, 못골)이라 부르는데 이는 모두 연못을 의미한다. 남양 홍씨 일문의 저수지가 있어 이런 지명을 얻었다. 그 저수지를 매립하는 곳에 현재의 동두천시청을 지었다.

기는 물론 현재까지 그 명목이 유지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개설된 경원선 열차의 정거장으로 <동두천역>이 설치된 것은 소금강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소요산의 산색(山色)과 이에 더하여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가을 단풍의 절경¹⁴⁾이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소풍지로 각광받으면서 양주 북부의 명소로 성장하였는데 1919년 동두천장날에 장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에 1천여 명이 참가하였다는 기록을 보아도 장시의 규모가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분단 이후 동두천은 중부전선 방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대표적인 외국군 주둔지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 주둔군을 위요(圍繞)한 이질적인 병영문화가 정착하는 한편 특수 유흥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도시의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였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장시는 여전히 5일, 10일에 개장된다. 단, 본래의 장터였던 보산동이 아닌 생연동 <큰 시장> 주변 도로가 동두천 장시가 열리는 새로운 장터가 되었다.

5. 고주내장(古州內場)

고주내(古州內)는 <옛 주내>라는 의미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고읍(古邑)>이라고도 한다.

연산조(燕山朝)에 왕의 원유(苑囿)를 확대하라는 명령에 따라 녹양(綠楊)을 중심으로 양주 전역이 국왕의 유원지로 확정되어 양주라는 고을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다 왕의 금원(禁苑)이 된 옛 양주 지역은 기일(忌日)과 절기(節氣) 등 제한된 일시(日時)에 조상묘의 성묘, 제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이외에 거주와 경작, 수렵, 채취가 일체 금지되고 금표(禁標)를 세워 해당 지역의 출입 자체를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중종반정 이후 금령이 폐지되어 양주 고을은 다시 복구되었으나 읍치(邑治)는 원래 설치되었던 회천지역이 아닌 현재의 양주동 유양리로 옮겨 새로 설치된다. 따라서 회천의 옛 읍치를 <고읍(古邑)>, 또는 <고주내(古州內)>라 부르고 현지의 방언으로는 <고지내>라 하였다.

장시가 옛 읍치인 <고읍(古邑)>에 개장(開場)되어 이 명칭을 얻게 되었다.

현재 <고주내장>은 열리지 않는다. 고읍지구의 상권이 덕정역 쪽으로 옮겨 가면서 새로이 <덕정장>이 개장되었기 때문이다.

14) 김시습, 허목, 이이, 등 조선시대 내내 시인 묵객이 소요산의 절경을 노래하였다.

6. 북도천장(北道川場)

〈북도천장(北道川場)〉은 양주시 봉양동 지역에 개장되는 장시이다.

양주 지역을 관류해 온 신천이 흐름을 바꾸어 북류하며 강화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시작 지점이자, 한탄나루를 건너온 [삼방로]의 동두천과 덕계의 중간 지점으로 남북 방향 양쪽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 강화천, 또는 신천이 ‘북류’ 하여 한탄강에 합류하기 때문에 이 개울을 북도천(北道川)이라 불렀고, 이에서 장시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보여진다.

〈북도천장〉은 조선 후기 이후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경원선 동두천역이 생기면서 〈동두천장〉이 활성화되는 대신에 〈동두천장〉과 인접한 〈북도천장〉은 〈동두천장〉에 합쳐지는 형태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¹⁵⁾

7. 구곡장(仇谷場)

양주에 속한 6개의 역(驛) 가운데 구곡역(仇谷驛)이 있다 이에 관련한 기록이 다음과 같으니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경기 양주도호부에 “역이 6이니, 청파(靑坡)·노원(蘆原)·영서(迎曙)·평구(平丘)·구곡(仇谷)·쌍수(雙樹)” 라고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 양주목 역원(驛院) 부 발참(附 撥站)]에는 “구곡역은 상도면(上道面)에 있는데 동쪽으로 100리 떨어져 있고 춘천과 통하는 길로서 평구도에 속하며 말 5필, 이속과 남자 종이 17명, 여자 종이 1명” 이라고 전한다.¹⁶⁾ 라고 되어 있다.

〈구곡장(仇谷場)〉은 현재의 남양주시 지역인 옛 양주 상도면 구곡에 개장되었던 장시를 말한다.

필자가 장시관련 항목이 기재된 양주지리지 9종 중 a형으로 분류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 『여도비지(輿圖備志)』, 『용구수전(龍區壽典)』, 『양주목읍지(朝鮮지리지략 수록)』, 『양주목읍지(楊州牧邑志)-광무연간』 등의 기록에 나타난다.

위치는 양주 상도면(上道面) 구곡역(仇谷驛)이었고 현재는 남양주시 화도읍(和道邑) 구암리이다 근대 이후에는 〈마석장(磨石場)〉, 〈덕소장(德沼場)〉, 〈광릉천장(光陵川場)〉등이 새로이 대두되면서 소멸되었다.

15) 신천장[莘川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6) 구곡역[仇谷驛]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8. 마석우리장(磨石隅里場)

마석우천(磨石隅川)이 흐르며 송라산과 천마산이 마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마석우리는 땃돌이 많이 생산되어 땃돌머루라 하다가 이를 한역(漢譯)하여 마석우리(磨石隅里)가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계전, 머재 등이 있다. 계전은 풍수지리적으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지형이라 하여 아래 닭계 또는 계전이라고 불린다. 머재는 부락 중앙이 깊숙하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성같이 생겼고 사방에 문과 같은 고개가 있어 머재 또는 산성이라고 한다. 마석우리는 외촌과 내촌으로 구분하는데 외촌은 바깥쪽 마을이고 내촌은 안쪽 마을이다.¹⁷⁾

〈마석우리장〉은 양주 상도면 마석우리에 개장되는 장시로서 마석우리는 현재 남양주시 화도면의 읍치(邑治)이다. 화도면은 본래 양주 상도면과 하도면을 합하여 설치되는데 도(道)라는 명칭이 들어간 두 개의 면을 합쳤다(화(和))는 의미로 화도면이라 하였다.

본래의 명칭인 상도, 하도는 모두 “길”을 의미하는데 이 길은 한양에서 춘천으로 나가는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석우리는 육로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고 대개의 조선시대 장시가 그러하듯 〈마석우리장(磨石隅里場)〉도 한양과 춘천을 연결하는 강변 교통로에 개설되었다.

현재도 〈마석민속5일장〉 또는 속칭 〈마석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석 공용주차장에서 3, 8장으로 전통 장시가 개설된다.

9. 미호장(湑湖場)

미호(湑湖)는 양주에서 광주로 도강(渡江)하는 여러 나루 중의 하나로 나루 자체는 〈미음(湑陰 나루)〉라 불렸던 곳이다. 은진 송씨의 세거지인 이 지역을 〈별말〉이라 불렀는데 이를 한역(漢譯)하여 〈미호(湑湖)〉라 하였으니 대개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전망하는 아름다운 한강의 조망에서 비롯된 호칭이었다. 현재의 남양주시 수석동이며 미음나루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 설립된 석실서원(石室書院)은 김상헌(金尙憲)의 후손들이 경영하는 대표적인 노론 서원의 하나로 도봉서원(道峯書院), 청절사(淸節祠), 사천서원(沙川書院)과 함께 양주의 4 사액(賜額) 서원의 하나였다.¹⁸⁾

17) 마석우리 [Maseogu-ri, 磨石隅里] (두산백과)

18) 도봉서원(道峯書院)은 도봉구에 위치한 노론서원으로 조광조(趙光祖)를 주벽(主壁)으로 제향(祭享)하였고, 청절사(淸節祠)는 의정부에 위치한 소론서원으로 박세당(朴世堂)이 김시습(金時習)을 추모(追慕)하여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그 자리에 박태보(朴泰輔)를 제향(祭享)하는 〈노강서원(鰲江書院)〉이 이건(移建)되어 있고, 사천서원(沙川書院)은 동두천에 위치하여 본래는 정절사(靖節祠)라 하며 고려 절신 남을진(南乙珍)을 제향(祭享)한다.

위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호장(溟湖場)>은 한강 나루인 <漢湖津>에 개장되는 장시로 한강 양안 양주와 광주 지역민들이 물화를 교환하던 곳이었다. 경춘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상황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전통 장시가 소멸되었다.

10. 덕소장(德沼場)

덕소(德沼)는 본래 양주 와공면에 속한 한강변의 한촌이었다.

현재의 남양주시 와부읍과 조안면지역은 대한제국시기까지 양주군 와공면과 광주군 초부면, 동부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초부면을 양주군에 편입하고 와공면의 '와'자와 초부면의 '부'자를 따서 와부면이라 하였으나 옛 초부면 지역은 1986년 조안면으로 다시 분리되어 현재의 와부읍은 대부분 옛 와공면 지역에 해당한다.¹⁹⁾ 덕소는 와부읍의 읍치로 현지인들조차 와부라는 명칭보다는 덕소라는 명칭에 더욱 익숙하다.

<덕소장(德沼場)>은 한강변을 따라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이 가평, 양평을 거쳐 춘천으로 가는 통로의 길목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한양에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두 곳의 물화가 모이는 곳이었다. 해방 후에 덕소 지역에 한 신흥종교가 신앙촌을 건설하며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 되지만 이로써 오히려 전통 장시는 소멸되고 말았다.

11. 광릉천장(光陵川場)

<광릉천(光陵川)>은 속칭 <광릉내>라 부르며 조선 세조(世祖)의 능침(陵寢)인 광릉(光陵)의 앞에 흐르는 작은 개울을 말한다.

○ 일대에는 조선조의 능묘가 많이 보이지만 태조 묘가 있는 9릉(九陵)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다. 광릉(光陵)앞에 광릉천(光陵川)이라는 시장촌이 보이는데, 지금도 '광릉내'라는 마을이 있다.²⁰⁾

<광릉내장>은 그 <광릉내>에 개설되던 장시로 위치는 현재의 봉선사 앞 주차장과 상가가 들어선 공터였으나 이후 현재의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로 옮겨 운영되었다.

광릉내는 의정부에서 포천을 거쳐 함경도 영흥에 이르는 북관대로의 중간 큰 장이며 도집처(都

19) 위키백과 <와부면>

20) 1872년 양주지도 楊州地圖

執處)였던 <송우장>에서 남양주 지역으로 빠지는 샛길인 광릉내에 개설되어 북관대로를 통하여 수송되는 함경도, 북부강원도의 물화를 양주의 남부 한강가로 이매(移買)하는 기능을 가졌으나 한강 수로를 이용한 한양의 물산이 들어오면서 진접, 부평리로 이설되어 여전히 광릉내장이라는 명칭으로 장을 열었다 4, 9장으로 주로 채소, 의류, 생선이 거래되었으나 1985년 우시장이 폐쇄되면서 없어졌다가 1996년 재개되어 현재에 이른다.

IV. 양주지역 장시의 변천

1. 상로(商路)로서의 북관대로(北關大路)

1) 누원점(樓院店)

육의전(六矣廛)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관상체제는 양난 이후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은결(隱結)을 늑점(勒占)하는 한편 황전(荒田)의 개간을 통하여 토지를 점유(占有)한 부농(富農)들은 병작반수(竝作半收)라는 일종의 소작제를 확립하고 이양법(移秧法), 견종법(畎種法) 등의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외부에서 전래되어 온 담배, 옥수수, 호박, 고추, 인삼 등 환금(換金) 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농업의 상업적 경영을 확대해 갔다.

장시의 기원은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노력에서 시작되었지만 장시가 개설되면서 매매를 통한 물리(物利)를 채득한 농민들은 영농을 버리고 상업으로 환업(換業)하여 이에 전문(專務)하면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에서는 난전(亂廛)이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 보부상(褓負商)에 의한 장시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여각의 기능이 다양해지는 한편 장시의 거래액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정부는 장시를 축소, 폐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장세(場稅)를 징수하는 선에서 장시의 존재를 인정하다가, 1791년 정부 신해통공(辛亥通公)²¹⁾을 통해 사상(私商) 체

21) 1791년(정조 15)에 각 시전(市廛)의 국역(國役)은 존속시키면서 도가(都價)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금지시킨 조치.

1791년이 신해년이었으므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 상업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전상인의 도가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영세 사상인층(零細私商人層)의 부단한 공세와 세궁민(細窮民)의 반발 및 도가상업의 폐단으로 도가상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좌의정인 채제공(蔡濟恭)은 도가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육의전(六矣廛)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 금난전 전매권(禁亂廛專賣權), 즉 도가권(都價權)을 허용하지 말며, 설립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조선의 상업

제를 공식화 하게 된다.

수공업 역시 전래의 관영 수공업 체제에서 벗어나며 상업적 경영을 시작하는데 공방에 등록되어 배정된 일정한 액수의 수공업품을 제작하여 관납하는 대가로 토지를 허급받던 체제에서 스스로 독립하여 생산한 제품을 상인에게 도매하거나 자신의 공방에서 판매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自營)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각지의 장시의 규모가 확대되며 보부상들은 일정 지역의 장시를 순회하며 물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여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형태를 전개하게 되는데, 결국 여각은 숙박업에서 위탁판매, 창고, 중개, 금융 등 해당 장시의 운영 전반에 중심축이 되었고, 장시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한 보부상들은 상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게 된다.

송상(松商), 만상(灣商), 강상(江商) 등은 조미(粗米)의 운송, 인삼 등 특화상품의 전매, 국제무역업 등 각자의 전담 상권을 확보 유지하는 강력한 상인집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장시가 아닌 도봉산록의 작은 주점 거리에 불과하였던 누원(樓院)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전술한 바 난전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

누원(樓院)은 한양에서 영흥까지의 복판대로 중 한양을 떠나 처음으로 만나는 중화(中火)지였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누원에서 점심을 먹고 녹양역이나, 의정부점에서 숙박하는 것이 통례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함경도에서 생산되는 북어(北魚)의 수요와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오개(梨峴)나, 칠패(七牌)의 부상(富商) 도고(都賈)들이 누원에 중도아(中都兒)를 체류시켜 송우점(松隅店)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는 건어물을 매집하였다가 수요가 고양(高揚)되기를 기다려 고가(高價)로 독점 판매하여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누원의 상인들은 송파(松坡)에도 중도아를 두고 삼남에서 안성을 거쳐 한양으로 올라오는 물화(物貨)를 매집하는 한편 양주 다락원에서 도집한 어물은 송파는 물론 충청도까지 빼돌리게 되니 이로서 서울의 어물은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모자라 어물전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비변사가 아뢰기를,

“새로 들어온 어물전(魚物廐)의 백성들을 불러 원하는 바를 물어보니 이르기를, ‘누원점은 바로 어상(魚商)들이 왕래하는 요지에 있는데 본전(本廐)에 들어오는 어물을 누원점 놈들이 한꺼번에 독점해 버립니다. 이를 건방이라고 하는데 중도아(中都兒)들과 결탁하여 본전의 백성들로 하여금 국역(國役)에 응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니, 경기 감영에 분부하여 엄히 금

발전사상 한 계기가 되었다.
(신해통공 [辛亥通共] (두산백과))

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누원점의 백성들이 어물전의 이익을 모두 빼앗아서 전민들이 생업을 잃게 되었으니 놀랍기가 막심합니다. 누원점 건방의 명색을 우선 혁파하고, 이 뒤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형추(刑推)하여 정배하라고 기영(畿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하고 엄히 과조(科條)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도아에 대한 금령이 본래 지극히 엄한데 간사한 백성들이 몰래 강압적으로 차지하니 또한 지극히 교활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일체 금령에 따라 조율하여 엄히 다스리라는 뜻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희하고²²⁾

○ 누원점 거주민들이 새로이 장시를 열고자하는 욕심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대개 누원점으로 말하자면 동북지방의 어물 상인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요로(要路)에 있어 건방(乾方)이라 부르는 별창(別倉)을 상인(私商)들이 각각 차지하고 양로의 어물을 도집(都執)하여 서울시전(市廛)의 이익을 횡탈(橫奪)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집한 어물을 송파로 몰래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충청도까지 보내니 이로써(어물이 없어) 서울 도성의 매매는 수시로 단절되고 가격은 점차 뛰어 오르고 귀해져 시전의 운영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樓院店民之必欲新設場市者, 厥惟久矣, 蓋其店村, 處在東北魚商入京之要路, 別創乾房之名號, 各定商人之主客, 都執兩路之魚物, 橫奪京廛之利柄, 不但潛輸松坡, 又或派送湖中, 故都城之買賣, 時有間斷, 而價漸踊貴, 市廛之生理, 全無聊賴)²³⁾

이는 배오개²⁴⁾와 칠패²⁵⁾의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의 경쟁력이 확대된 결과인 동시에 양주를 통과하는 상로(商路)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2) 송우점(松隅店)

송우점은 한양에서 양주지역을 거쳐 포천, 철원 지경으로 빠지는 역(驛), 점(店)이 양주 지역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쉼 참에 해당된다.

○ 서울-보제원-누원-의정부-축석령-송우리²⁶⁾

22) 『일성록』 정조 6년 임인(1782) 8월 7일(신미)

23) 『비변사등록』 정조 6년 2월 29일

24) 현재의 광장시장으로써 한양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난전시장이었다.

25) 현재의 남대문시장으로 써 송례문을 통하여 입성하는 강상의 잡화와 젓갈, 어물 등이 대규모로 거래되었던 난전시장이었다.

26) 『대동지지』 [노정] <북관대로>

송우점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장시가 발달하면서 북관의 물산이 집결하는 곳으로 송우(松隅), 즉 “솔모루”라 불리던 작은 주막거리 <송우점>에, <송우장>, <송우역>의 기능이 추가되며 각각 ‘주막’, ‘역원’, ‘장시’의 기능을 종합하는 상로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송우점의 위치가 북관대로 상에 위치하는 동시에 북으로 양주와 이담을 연결하고 남으로 광릉천을 거쳐 노루재, 금곡으로 이어지는 4통의 분기점이었기 때문이다.

누원에서의 물산 매집이 문제가 되자 동시에 송우장이 함께 주목받았던 것은 송우 역시 누원과 같은 한양으로의 인후(咽喉)가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의정부에 새로이 장시가 열리고 북관에서 유입되는 물화가 북어(北魚) 등의 어물에서 쇠가죽(牛皮), 세포(細布)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송우장의 비중은 한층 커지게 된다.

3) 가래비장의 활성화

조선 후기 양주지역의 장시를 기재한 지리지 등에 일관하여 나타나는 양주 지역의 장시가 바로 <가래비장>이다. <가래비>는 갈림길, 분기점(分岐點)을 의미한다²⁷⁾, 양주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갈현>, <갈천(葛川)·가리내>, <갈곡(葛谷)·가래울>, <가리울> 등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가래비장>은 <가라비장>이라는 이름으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등장한 이래 조선시대 후기의 전 시기를 통하여 양주의 장시와 관련한 각종 지리지와 문헌에 바지지 않고 등장하는 양주의 대표 장시이기도 하다.

특히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양주의 장시 중에 이 <가래비장>과 관련하여서만 장시 거래 물목을 소개하고 있다.

○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조율(棗栗) 철물(鐵物) 목기(木器) 옹기(甕器) 지물(紙物) 인석(茵席) 우독(牛犢)²⁸⁾

위에 나타나는 <가라비장>의 주요 거래물목에는 조선 후기의 산업이 기존의 관상, 관수공업체제에서 벗어나 사상, 사공업체제로 이행하는 정형이 혁연(赫然)히 드러난다. 즉, 철물(鐵物) 목기

27) 양주 가래비는 실제 덕도리를 거쳐 감악산, 파주로 나가는 갈과, 상수리를 거쳐 연천으로 나가는 길이 분기하는 갈림목에 위치한다.

28) 임원경제지 예규지 팔역장시 양주 가라비장

(木器) 옹기(甕器) 지물(紙物) 인석(茵席)은 기존의 관업(官業)체제에서는 거래 물목이 될 수 없는 품목들이다. 임원경제지가 편간되는 1700년대 후반에는 이미 장시에서는 관영수공업이 아닌 사영수공업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가래비장의 거래 물목에 나타나는 특이 상품은 “우독(牛犢)”, 즉 “소”이다.

소는 조선시대에는 도축이 엄금되어²⁹⁾ 이의 도살(屠殺)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고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소를 도살할 경우에는 이를 중형으로 다스리는 이른바 우금(牛禁)이 법령으로 엄존하였기 때문이다.

○ 생각건대 우금(牛禁)은 명년 농정(農政)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일이다. 평년에는 혹 임시로 영절(令節)에 임시로 순찰 군관의 금패(禁牌)를 회수하여 부분적으로 금령을 완화하던 장패(藏牌)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는 풍년이 들어 풍예(豐豫)로울 때의 흥청거리는 정사이지 결코 흉년에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묘당에서는 시기에 앞서 미리 각 도(道)와 4도(四都)에 알려 전보다 갑절 엄히 단속하게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도 미리 단속함과 아울러 한성의 내외에 거듭 분명히 효유(曉諭)하여 금령(禁令)을 범하여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좌·우 포도 대장도 한결 같이 주지(周知)하도록 하라.”하였다.³⁰⁾

○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조휘림(趙徽林)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우금(牛禁)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벌이 가벼운 때문인데, 이제부터 무릇 도살(屠殺)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속전(贖錢)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³¹⁾,

위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소의 도축은 국가의 금령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였다.

물론 임원경제지 기사에 나타나는 우독(牛犢)은 식용이 아닌 경용(耕用)의 부림소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나 이후 가래비장에 포사(庖肆), 즉 ‘푸줏간’이 개설되고 이를 둘러싼 이권다툼이 쟁송(爭訟)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 물목에 나타나는 상품으로서의 소가 반드시 경용(耕用)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금(牛禁)에도 일정 부분 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일

29) 성균관 제사에 필요한 우육을 마련하는 도축권을 전유한 반촌(泮村)민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30)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년) 12월 1일

31) 헌종 6권, 5년(1839) 7월 13일(병오)

상적으로는 경우(耕牛)라 하여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농경(農耕)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의 허락을 받아 이를 도축(屠畜)할 수 있었거니와 그 외의 경우에도 도축을 허용하는 이른바 우금(牛禁)해제(解除)가 있었다.

○ 설날그믐날 하루나 이를 전부터 정월 초하루까지 법사(法司; 법 집행을 담당한 관청으로, 형조와 한성부를 말함)에서는 순찰 군관이 지니고 다니던 금패(禁牌)를 회수하여 우금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우금해제(牛禁解除) 또는 장패(藏牌)라고도 하는데 우금이 실시되고 있을 때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맞이하여 부분적으로 금령을 완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소의 도살과 함께 쇠고기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이것은 설을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평소 쇠고기 판매를 독점했던 헌방(懸房; 성균관 노비들이 소를 도살하여 판매하던 가게)의 불평이 높았다고 한다.³²⁾

그러나 가래비장에서의 소의 거래는 한말에 이르면 공식적인 포사(庖肆)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이를 확인하자.

○ 光武九年十一月七日

報告書第十五號

本郡楸橋場居朴基有가本院에告訴호內開에矣身이以石隅金政丞宅饌庖仍舊舉行事로請願于本院호와奉准題旨內에依訴營業호라호읍섯기還來本地호와陰九月十八日,場市에開業屠牛호와더니噫,彼黃致雲者가即入本郡호야率巡教以來호야捉去矣身호와庖肆을掇廢호고所屠牛肉을莫得放賣호오니損害不尠호읍고黃致云은同日場市에偃然屠牛放賣호오니究厥黃哥所謂호오면蔑視院令이已極無嚴無憚이오며矣身이捉去翌日에雖爲放送이오나擬圖照舊設庖이온즉黃哥與官屬이沮戲호야莫得爲之이오니豈不憤冤乎잇가前狀을帖聯仰訴호오니洞屬事狀호오서別般訓飭於本郡호시와嚴懲黃致云之悖習호와更無沮戲케호시며矣身에屠牛未賣之損害金을一一推給호시고使矣身無弊營業호와大宅宅饌供을無虧舉行케호심을伏望事告訴據,指令內開에既有題飭之地에所謂黃民之不遵作梗이極爲駭歎이라該黃民官屬無憚之習을一切嚴禁호고以朴基有로無弊舉行케호事等因이온바庖肆許設은爲民營業,而准許狀에既填其名호고亦定其地호니如非其人이면不可開設이오又非其地則莫可屠賣호는即章程所載이오니有違於此,則是私屠也요潛賣也라考其朴基有之所持文蹟,則一是前濟用司准許狀,而其定地,則上楸橋里也요其填名,則曹萬億이오며一是以渠之姓名으로請願

32) 우금해제 [牛禁解除]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於本院者, 而題旨에以金日範으로許施이시즉所謂朴基有는不當干涉於此庖이올거늘無難開庖於下楸橋里하고고他人營業을多般沮戲하고오니是는冒禁私屠也요設或渠受准許라도上下村名이懸殊, 則憑何以開屠於下楸橋乎잇가是는越界潛賣者也라下楸橋庖肆主人黃致云은即前日營業於該里者, 而濟用司廢止之後에准許狀을無處請願, 則告訴于京畿觀察府하고야受其帖文, 而惟待派員之下來納稅矣러니朴基有가曹萬億에准許狀과金日範에게許施하고新題旨을持來憑藉하고고屠賣於黃哥之字內上楸橋하고읍는디黃哥가禁止不得하고야呼訴請禁, 則其在聽理之地에不可仍循勿問, 故로送校禁斷矣러니朴哥가不惟不遵官令이라敢行抗拒之習하고야不當之曹萬億에准許狀과金日範에訴題을帖連於渠訴하고야肆然瞞告于本院하고니民之無憚이胡至於此極이리오冒禁潛屠가自有當律하고니微贖屬公도可也요牟利挾雜이亦有其罪하고니懲習杜弊도亦可也. 故로朴基有는爲先捉囚하고읍고茲에報告하고오니查照勸處하고시물伏望.

光武九年十一月七日

楊州郡守洪泰潤

經理院卿閣下³³⁾

위의 자료는 양주군수 홍태윤이 양주 가래비장에 포사(庖肆)개설을 허락받은 거민 박기유(朴基有)와 황치운(黃致雲) 사이에 이 포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권 다툼의 전말을 박기유의 소송 내용을 따라 경리원에 보고한 내용이다. 푸주간 경영을 둘러싸고 상대의 점포를 부수고 납치하여 가두는 한편 장시 관리인과 결탁하여 허위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장시에 포사가 개설되고 이를 허가하는 권한을 경리원에서 행사하고 있어 소의 도살, 판매는 한말 가래비장의 주요한 이권이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동시에 가래비장이 번영하는 일면을 알 수 있다.

2. 경원선 개통과 양주지역 장시의 변화

1) 의정부장의 발흥과 가래비장의 쇠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개통³⁴⁾된 경원선은 양주 관내를 통과하며 2개의 정거장을 지난

33) 京畿道各郡報告存案 2, 高宗42年 乙巳 [1905] 十一月 七日

34) 1910년 10월 서울 용산(龍山)에서, 1911년 10월 원산에서 각각 기공식이 열렸다. 1911년 10월 15일 용산~의정부 구간이 처음 개통된 후 1914년 8월 14일 세포(洗浦)~고산(高山) 구간을 마지막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경원선 [京元線] (두산백과)>

다. 하나는 의정부역³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두천역이다. 정작 양주의 읍치인 주내에는 역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양주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으니 양주의 전반적인 무게 중심이 의정부로 이동한 것이었다.

우선은 양주의 변두리 작은 면에 지나지 않던 의정부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주의 행정기구가 모두 의정부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 1895년(고종 32)에 전국의 팔도제가 폐지되고 23부 336군이 새로 설치되게 되어 양주목이 한성부 소속의 군이 되었을 때 의정부시는 양주군의 시북면(柴北面)·둔야면(菴夜面)지역에 속하였다. 1912년 행정구역개편 때 양주군 32개 면 중 시북면·둔야면지역으로 오늘의 의정부시의 모체를 이루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시북면과 둔야면이 시둔면(柴菴面)으로 병합되었고, 1922년에 주내면 유양리에 있던 양주군청사가 시둔면 의정부리로 옮겨오게 되어 의정부시는 양주군의 심장부를 이루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개칭되었고, 1942년 양주면이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³⁶⁾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양주읍치가 의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전후로 하여 기타 행정기관들도 모두 의정부로 이전되거나 주내가 아닌 의정부에 설치된다.

1907년 “우체국(郵遞局)”이 「의정부우편취급소(議政府郵便取扱所)」라는 이름으로, 1916년 5월 4일에는 “법원(法院)”이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京城地方法院 議政府出張所)」라는 이름으로, 1919년에 “경찰서(警察署)”가 「양주경찰서(楊州警察署)」라는 이름으로, 1909년에는 현재의 “의정부중앙감리교회(議政府中央監理教會)”가 「의정부교회(議政府教會)」라는 이름으로, 1913년에 “천도교(天道敎)”가 의정부 끝은골에 각각 개설되고 1896년에 주내에서 개교되었던 「양주소학교(楊州小學校)」가 1910년 양주군 시둔면 금오리(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로 이전해 왔으며 1937년 성봉영화사의 「의정부촬영소(議政府撮影所)」가 최신식 토키녹음시설을 갖추고 의정부 범골에 개설되었다 한편 의정부교회에서 개설한 “야학(夜學)”이 「동명학교」라는 이름으로 확대 운영되는 한편 동 교회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천도교에서도 청년회를 설립하여 계몽운동에 나서게 된다.

35) 일제는 침략 초기부터 교통의 요지인 의정부를 주목하고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이후 의병 진압과정에서 의정부는 일제 헌병대의 주요 주둔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36) 의정부시 [議政府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렇게 양주의 행정 중심축이 의정부로 이동하면서 의정부 역전을 중심으로 <의정부장>이 개장되었고 이 <의정부장>은 기존의 양주지역 장시들보다 더욱 커지는 단계를 지나 점차 이들을 압도하게 된다.

<의정부장>은 <송우장>과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북도에서 남하하는 어물을 비롯한 여러 물화를 새로 개설된 의정부역을 이용하여 서울로 철도 운송하는 동시에 경원선 철도를 통하여 전국의 공산품과 경기북부의 농산물을 양주 전역에 보급하는 보급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급속히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이로써 [장단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양주 서북부의 물화에 의존하던 <가래비장>은 새로 정비되는 양주지역 상로(商路)에서 소외되며 쇠퇴하다가 결국 장 그 자체를 접고 폐쇄되고 만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자동차와 철도가 양주 지역의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즉, 경의선과 경원선 철로를 통한 상품의 운송,보급은 임진나루에서 감악산을 거쳐 한양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장단로를 한적한 이면 도로로 전락시키며 <가래비장>을 쇠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주내에 개설되었던 양주소학교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³⁷⁾ 결국 의정부로 이전하게 되면서 비로소 동두천, 연천 지역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었다.³⁸⁾

<가래비장> 보다는 <의정부장>에 물화가 집중되고 가격이 저렴하며 교통이 편리해지자 심지어는 가래비장터에 인근한 지역에서 조차 상품을 의정부장에 나가서 구매하게 되었다.

○ 제관과 화주는 모두 4명이며 제사 전날 화주와 제관, 축관을 선출하고 나서 화주는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소머리 한 개, 백설기 한 말, 통북어 10마리, 메 한 술[2되 정도], 배, 사과, 귤, 포, 밤, 대추, 쇠고기 적 한 근, 조라술 등이다. 조라술은 산제사가 있는 날 아침에 산제를 지낼 곳에 천막을 치고 화주와 제관 일행이 함께 담근다. 이때 선화주는 소머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물을 의정부장에 나가 준비한다.³⁹⁾

○ 제관은 화주의 집에 모여 생활하며 근신을 한다. 제관은 산신제를 지낼 준비에만 전념하며, 산신제가 끝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화주 집에서는 제관 모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37) 양주소학교는 이전 양주 향교에 개설되었으나 학생 기숙 시설이 없어 인근 유양리의 학생들만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교세는 영세상황을 면치 못하였다.

38) 『의정부중앙초등학교 백년사』

39) 홍죽1리 안골 산제 [弘竹一里 - 山祭]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산신제가 끝난 다음에 그 비용을 돌려받는다. 유사는 제의 전날 의정부장에 가서 제물을 장만한다. 제물은 소머리 1개, 우족 4개, 백설기 3되 3홉[1시루 분량], 통북어 3마리, 조라술 등을 준비하며 과일은 따로 쓰지 않는다.⁴⁰⁾

1941년 당시 양주 지역에 개장되는 장시의 현황과 거래액을 정리한 다음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의정부장〉의 규모는 〈가래비장〉은 물론 새로이 개설된 여타 다른 장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⁴¹⁾

시장 이름	소재지	장날	연 거래액(원)
광릉천장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2, 7일	29,294
마석우장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3, 8일	124,039
의정부장	양주군 양주면 의정부리	3, 8일	232,356
동두천장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5, 10일	60,510
덕정장	양주군 회적면 덕정리	2, 7일	177,674
가납장	양주군 광주면 가납리	1, 6일	46,984
금곡장	양주군 계곡면 금곡리	기록 없음	기록 없음

결국 〈가래비장〉은 본래의 3,8장을 〈의정부장〉에 넘기고 5, 10장, 1, 9장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현재는 4,9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덕정장(德停場)〉

문헌에 나타나는 〈신천장〉, 〈북도천장〉이 변형되어 개설된 장시가 〈덕정장〉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 양주 지역에 개설되어 있던 시장은 7곳이었다. 이중 〈덕정장〉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나왔던 〈신천장〉의 다른 이름이다.

〈덕정장〉은 일제강점기 때인 1914년에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되어 [덕정역]이 생기면서 이름과 개설 장소가 바뀌었다. 교통의 중심지가 신내(莘內)에서 덕정역으로 바뀌었고, 시장 또한 덕정역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덕정장〉이 되었다.

덕정리라는 땅 이름은 18세기 후반에 문헌에 처음 등장한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서는 이곳을 천천면에 소재한 덕정리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천천면의 덕정리 일부와 어등산면의 2리·3리 전부를 합쳐 덕정리라고 불렀다. 한편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40) 경신리 산신제 [庚申里 山神祭]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41) 문정창, 〈조선의 시장〉 1941

[1937]에 덕정역은 경원선의 중요 역으로 주내역과 어수동역 사이에 있고 1911년 10월 15일 개통되었다고 나온다.⁴²⁾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이후, 행정구조와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장시에 부침(浮沈)이 있었는데 경원선 정거장이 추기로 설치되는 덕정리에 인근 봉양리 지역에 개설되던 <신천장>이 옮겨 개장되면서 철로를 이용한 각종 물화의 집산을 통해 크게 성장하게 된다. 문정창의 <조선의 시장>에서는 1941년 덕정장의 연간 거래액을 177,674원으로 산출하여 당시 양주에 개설되었던 7개의 장시 중 <의정부장>에 이어 그 규모를 2위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근 <동두천장>의 거래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로써 <덕정장>의 규모와 활력을 짐작하게 하는 동시에 양주에 새로이 떠오르는 회천 지역의 저력을 확인하게 해 준다.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덕정리에 영국군과 터키군이 주둔하면서 <덕정장>은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군대에서 흘러나온 군수물자의 거래가 활발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포목점이 호황을 누리며 장세를 유지했다. 한 때 우시장도 크게 열렸지만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다.

3) <갯바위장>

<입암장(笠岩場)>을 우리말로 <갯바위장>이라고도 부른다. “입암(笠巖)”이라는 말은 망당산 북쪽 기슭의 큰 바위가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입암리장>은 원래 <토교장(土橋場)>에서 유래했다. “토교(土橋)”는 흙다리라는 뜻으로 신산리 “흙다리”에 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토교장(土橋場)>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었는데 허씨 성을 지닌 사람이 살인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남면 입암리로 옮겨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입암장(笠岩場)> 또는 <갯바위장>으로 불리었다.

<갯바위장>은 하천 천변에서 열렸는데 홍수로 일대가 폐허가 되면서 남면 상수리로 장을 이전하였고, 1875년에 다시 대홍수로 시장이 수해를 입자 입암천 동쪽에 새로 장터를 구해 이전했다. 이후 시장이 번창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함께 개설되었던 우시장은 잦은 침수 때문에 1950년대 말경에 폐쇄되었다.

<갯바위장>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72년에 남면 신산리에 신산시장이 개설되자, 장세가 약화되면서 폐쇄되었다. <갯바위장>에서 많이 팔린 것은 약초와 곡물, 생선, 신

42) 덕정동 [德亭洞]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밭, 의류, 과일, 웅기 등이었다.⁴³⁾

V. 현재의 양주지역 장시의 현황

현재 양주시는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옛 양주목이 관할하던 광대한 지역을 모두 제금내고 그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 주지(周知)하는 바 옛 양주땅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행정구역이 형성한 지역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외에도 서울로 편입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강남의 〈잠실지구〉, 그리고 은평구 일부, 고양, 파주 일부, 연천의 차탄천 이남 등으로서 양주의 조선시대 기전(畿甸)의 중읍(重邑)으로서의 면모와 규모는 크게 상실되었다.

현재 양주시 지역에서 개설되는 전통 장시는 모두 3곳이다.

즉, 〈가래비장〉, 〈덕정장〉, 〈신산장〉이 그것이다.

이 중 〈가래비장〉, 〈덕정장〉은 기술하였으므로 〈신산장〉에 대하여만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본래 신산리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연천(漣川)에 속해 있었다. 해방이 되고 잠시 파주(坡州)에 속했다가 1946년에 양주군에 편입되었다⁴⁴⁾. 신산시장은 남면사무소 주변에서 2, 7일 장날에 장이 선다.

신산시장은 주변에 군부대가 늘어나면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전입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부대에 납품하는 부식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규모 또한 확대되었다. 또한 주변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을 유통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교통이 크게 변화하고 대형마트 등이 등장하면서 신산시장은 과거의 활기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4년과 2006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를 진행했다.

현재 신산장은 남면사무소 골목에 길게 장이 선다. 시장에서는 농산물과 의류, 잡화, 식료품 등이 주로 팔리고 있고, 계절에 따라 산나물이나 종자, 농산물 등이 함께 팔린다.

43) 양주덕정시장 (국내 시장백과)

44) 이지역이 연천에 속하였을 때에는 군의 가장 남쪽이었으므로 이름도 〈남면〉이었는데 양주로 편입한 이후에도 양주의 북쪽에 위치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명칭은 〈남면〉이다.

VI. 결론

양주지역의 장시 개장의 지리적 배경과 문헌에 나타나는 양주 장시의 모습, 그리고 변천(變遷)과 부침(浮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시대의 장시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은 타 지역과 흡사하고 운영 상황도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양주의 장시가 가지는 특이점은 양주의 지리적 여건에 있다. 양주 관내로 지나는 여러 갈래의 대로(大路)가 그것이다. 즉 한양에서 함경도 영흥에 이르는 <북관대로(北關大路)>와 역시 한양에서 함경도 남부로 나가는 <삼방로(三防路)>, 그리고 고대로부터 북방세력이 한반도로 진출해오며 사용하던 <장단로(長湍路)>가 양주에서 교차(交叉)하고 분기(分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은 양주의 장시가 부침하는 지리적 배경을 형성한다.

즉, 조선 후기에 들어 본격화되는 시전(市廛), 관상(官商)체제가 난전(亂廛) 도고(都賈)들의 도전을 받으며 수공업, 농업의 전반에 걸쳐 상업적 경영이 도입되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맹아(萌芽)가 양주의 장시, 특히 누원(樓院)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경영의 일환으로 시설되는 경원선 철로가 양주의 장시에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 두 번 째이다. 여기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분단과 동란, 그리고 이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와 외국군으로 인하여 다시 나타나는 전통 장시의 변화도 역시 본 주제와 관련하여 양주가 가지는 큰 특이점이 될 수 있다.

이를 누원(樓院)과 <의정부장>의 대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현(諸賢)의 질정(叱正)을 바란다.

참고자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 양주목읍지(楊州牧邑志)
- 경기지(京畿志)
- 경기(京畿)읍지(邑志)
- 여도비지(輿圖備志)
- 용구수전(龍區壽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각전(各廳)기사(記事)
- 대동지지(大東地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경기도(京畿道)각군(各郡)보고(報告)존안(存案)
- 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
- 한국세시풍속사전
- 양주군지
- 의정부시정 40년사, 50년사
- 동두천시정 30년사
- 김대길,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 홍정덕 〈양주의 고대 교통로〉 한복사학

인터넷자료

- 양주향토문화대전
- 두산백과
- 위키백과

여 백

경기동부 한강유역의 장시사(場市史)

-양평의 장시를 중심으로-

이 복 재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머리말

II. 양평의 연혁과 지리적 특징

1. 양평의 연혁
2. 양평의 지리적 특징
3. 경기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

III. 양평의 장시사(場市史)

1. 양평장시사의 시대구분
2. 양근 · 지평통합 전 양평장시
3. 양평통합후의 양평장시
4. 3.1운동사를 통해 본 양평의 장시
5. 현대의 양평장시
6. 장시별 약사(略史)

IV. 맺음말

※ 참고 문헌

집필자

이 복 재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머리말

경기 동부 내륙에 위치한 양평은 이른바 관동이라 부르는 백두대간의 동쪽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는 물론 강원과 충청 등 영서지방으로부터 서울과 경기도로 들어가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수로와 육로가 양평을 관통하여 서울로 연결되어 발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남한강과 북한강 등 두강이 관내를 통과하여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이 되어 서울을 향해 흐르고 그 유역에 30여개의 나루터가 있어 1930년대에 이르러 육상에 의한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 수로에 의한 원거리의 유통이 주를 이룰 때부터 교통이 활발했던 곳이다. 또한 1770년 신경준이 『도로고(道路考)』에서 조선의 도로망을 6대 대로로 정리한 이후인 18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간선로는 10대로로 확장되는데 김정호는 그의 저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동남지평해삼대로(東南至平海三大路)’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평해(지금은 경상북도 평해)로 가는 길, 즉 관동대로(關東大路)가 양평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그 분기로(分岐路)가 있음을 정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양평은 총면적이 877.81km²로써 경기도 총면적 10,175.13km²의 10.2%로 31개 시 군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이렇게 양평은 면적이 넓고 예부터 서울과 경기의 관문으로 인마와 물자의 교류가 많아 여러 개의 장시가 발달했던 곳으로 양평지역의 장시 연구를 통해 경기 동부내륙은 물론 한강 유역의 장시발달사와 변천사 일부를 살펴볼 수 있고 이 지역의 장시가 경기도의 장시 변천에 끼친 영향 등을 규명하여 지역의 장시사(場市史)를 정립하고자 한다.

II. 양평의 연혁과 지리적 특징

1. 양평의 연혁

본래 양평이 속한 한강 이남은 백제의 영토였다. 백제가 한강이북을 점유했던 해인 475년(개로왕 말)고구려의 장수왕은 남정(南征)을 감행하여 한수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새로 점령한 지역에 새로운 군현제도를 실시되었으므로 처음 양근군(楊根郡, 항양(恒陽) 또는 거

사참(去斯斬)이라고도 불렀다]과 지현현(砥峴縣)이 설치되었다.

551년(신라 진흥왕 12)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함에 따라 양근·지현을 비롯한 한강유역을 탈취했으나 다음해인 552년 신라가 동맹을 파기하고 한강유역을 점령하게 되어 신라에 속하게 되었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후인 747년(경덕왕(景德王) 16)에 양근을 빈양(濱陽)으로 고치고, 소천군(洑川郡 : 지금의 여주, 洑(소)를 沂(기)로도 썼으며, 후에는 기천군(沂川郡)이라했다)의 영현(領縣)이 되었으며 지현을 지평현(砥平縣)으로 바꾸고 삭주(朔州 : 지금의 춘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양근군은 고려 초에 빈양이라 쓰던 읍호를 옛 이름(양근군)으로 복구하였다가 1018년(현종(顯宗) 9)에 양근과 지평이 모두 광주목에 내속(來屬)되었다.

고려시대에 양근에는 1175년(명종(明宗) 5)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1257년(고종(高宗) 44)에 영화(永化)라고 불렀다. 1269년(원종(元宗) 10)에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자정(金自廷)의 고향(故鄉)이어서 승격시켜 익화현령(益和縣令)이 되었다. 1356년(공민왕(恭愍王) 5)에 왕사(王師) 보우(普愚)의 고향이므로 승격시켜 양근군(楊根郡)이 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보우가 미원장(迷元莊)의 소설암(小雪庵)에 우거(寓居)하므로, 미원장을 현(縣)으로 승격시키고,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얼마 후 땅이 좁고 인구가 적다고 하여 다시 양근현에 소속시켰다.

지평은 1378년(우왕 4) 우왕 유모(劉嫗) 장씨의 고향이라 하여 광주목 내속 360년 만에 승격되어 감무를 두었다가 다음해인 1379년(우왕 5) 12월에 장씨를 지평으로 유배시키면서 다시 폐현되었다. 1391년(공양왕 3) 현지경에 철장을 두고 감무를 설치하여 겸하게 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도 양근은 군이었는데 1658년(효종 9) 지평(砥平)에 편입시켰다가 1668년(현종 9)에 다시 설치하고, 1728년(영조 4)에 현으로 강등시켰다가 1741(영조 17)에 복구하였으며 1776년(정조 즉위)에 현으로 강등시켰다가 1785(정조 9년)에 복구하였다. 옛 치소는 건지산(乾止山 : 지금의 옥천면)에 있었는데, 1747년(영조 23)에 갈산(葛山 : 지금의 양평읍)으로 옮겼다. 1895년(고종 32)에 다시 군으로 고치고 10개 면을 관할하였다.

지평은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현감으로 고쳤으니 이는 고려조인 1388년(우왕 14)에 전국 여러 현에 감무를 두고 참외·권무·이전 등 모두 낮은 관직으로 임명하였던 것을 시정하여 현과 그 책임자의 위상을 높여주고자 예와 같이 복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685년(숙종 11)에 강상좌인 해옥의 일로 폐현되어 양근에 편입되었다가 1688년(숙종 18)다시 설치하였으며,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고치고 8개 면을 관할하였다.

1908년 양근과 지평이 통합하여 양평이 되기 전까지 두 고을은 가까운 이웃고을이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10년간은 지평으로 두 고을이 합해졌고, 3년간은 양근으로 합해져 두 번에 걸쳐 13

년간 합해졌던 역사도 있다.

대한제국기인 1908년(순종 융희 2) 9월 14일, 두 고을은 통합되었고 군호를 양근의 양(楊)과 지평의 평(平)을 따 양평(楊平)이라 하였다. 통합당시의 관할 면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양근군의 10면과 지평군의 8면을 합한 18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12년 5월 23일에 발간된 조선총독부편「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양평군은 19개면 354리를 관할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1914년 4월 1일자로 남종면을 광주군에 편입시키고 여주군 금사면(金沙面)의 전북(箭北), 용담(龍潭)의 각 일부와 같은 군 대송면(大松面)의 곡수(曲水), 산촌(酸村)의 각 일부와 대신면(大神面)의 전후곡(前後谷) 일부와 개군면(介軍面)의 공세리(貢稅里) 일부와 광주군 퇴촌면(退村面)의 영동리(嶺東里)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地正面)의 판대리(判垞里) 일부를 병합하였다. 1915년 5월 1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12개면 112리로 이때의 각면과 관할리는 갈산면 12개리, 양서면 11개리, 설악면 14개리, 용문면 13개리, 지제면 10개리, 청운면 9개리, 단월면 9개리, 강상면 7개리, 강하면 6개리, 양동면 8개리, 고읍면 4개리, 서종면 9개리이다. 1937년 8월 고읍면을 옥천면(玉泉面)으로 고치고 1938년 4월 1일 갈산면을 양평면(楊平面)으로 고쳤다. 1942년 10월 1일 설악면을 가평군에 이속시킴으로 11개면이 되었다.

광복후인 1963년 1월 1일에는 여주군이었던 개군면이 편입되어 다시 12개면이 되고, 1973년 7월 1일 서종면의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으로 이속되고,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 설악면에 이속되었다. 1979년 5월 1일 양평면을 양평읍으로 승격시켜 1읍11면이 되었고, 2006년 12월 1일에는 지제면을 지평면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양평의 지리적 특징

양평군은 한반도의 거의 중심부로써 경기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동쪽으로 강원도 홍천군과 횡성군, 원주시에 인접하고 남쪽으로 여주시, 광주시와 맞닿았으며 서쪽으로 북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용문산너머 북쪽으로 가평군과 맞닿아 있다.

면적은 경기도총면적의 10.2%를 차지하여 31개시군중 가장 넓으며 임야가 전체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서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루어 서울을 향해 흘러 남한강과 북한강이 관내를 통과하며 산자수명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백두대간의 오대산 두로봉에서 갈라져 남서진하는 산줄기가 양평에 이르러 금물산, 갈기산, 신당고개, 용문산을 지나 두물머리에 가라앉는 한강기맥이 양평의 뼈대산줄기가 되고, 남한강 건너로는 양자산에서 백병산에 이르는 한남정맥에서 분기한 산줄기가 강상·강하 2개면의 산줄기를 이룬다. 양평의 산은 이 두 산줄기를 중심으로 솟아있으며 특히 20여 봉의 산무리를 거느리고 군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용문산은 높이가 1,157m로 화악산(1,468m), 명지산(1,267m), 국망봉(1,168m)에 이어 경기도에서 4번째로 높으며, 웅반고대(雄盤高大)하여 경기의 금강산이라고도 부른다.

양평의 하천도 용문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 용문산의 서쪽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여주로부터 이어져 용문산의 서쪽, 양평의 서쪽을 휘감아 돌며 북서쪽으로 흘러 두물머리로 흐르는 남한강이 양평의 대표적인 하천이며 이 두강은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이 되어 서울을 향해 흘러간다. 용문산의 동쪽 금물산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남서방향으로 흘러 개군면 양덕리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유로길이 37km인 흑천(黑川; ‘거무네’라고도 부름)이 가장 긴 하천이다. 산이 많으면서도 물의 고장이라고 함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두 통과하는 지리적특징에서 비롯되었다.

3. 경기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

1) 관동대로(關東大路)와 분기로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주요 교통로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는 10개의 간선도로였다.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졌는데 동해안 쪽의 도로는 동남지평해삼대로(東南至平海三大路), 천리 길 이었다. 경도(서울,송인지문)~평구역~양근~지평~원주~강릉~삼척~울진~평해로 연결되었고, 이 노선 중 평구역에서 춘천을 거쳐 양구로 가는 길, 지평에서 홍천.인제를 거쳐 간성과 양양으로 가는 길, 원주에서 정선.영월.평창으로 가는 길 등의 분기로나 있었던 이 길의 별명은 관동대로(關東大路) 또는 평해로(平海路)이다. 대동지지의 관동대로 양근과 지평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監營[楊根]十里京一百二十里○南利川五十里越津○北北倉四十五里越津至加平四十五里○東南梨浦津二十里驪州四十里○西廣州八十里越津○西南龍仁八十里越津柏峴十五里 黑川店五里”.

“[砥平]十里○京一百五十里○分岐○南驪州五十里○西南利川六十五里○北加平六十五里 前楊峴二十里松峙二十五里安昌驛十五里冬橋夏船

左營○[砥平]東北○見二十六之十一行廣灘店十里分岐○白冬驛二十里神堂峙十里兩德元十里梧里谷二十里 中營 廣灘店東北○見二十七之九行葛峴店二十里於路峴十里古毛谷十里草院店十里“.

삼국시대에 백제에 속했던 양근(楊根)과 지평(砥平)의 두 고을이 1400여년이 지난 1908년에 통합하여 지금의 양평이 되었다. 양근에서는 여러 개의 분기로가 있었으니 남쪽으로 이천, 북쪽으로 가평, 동남쪽 여주, 서쪽에 광주, 서남쪽으로 용인에 닿는다.

지평에서도 양근과 같이 여주, 이천, 가평으로 연결되는 분기로가 있었음은 물론 동북방향으로 광탄·백동역을 지나 강원도 횡성이나 인제·원통을 지나 속초로 연결되는 분기로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에서 관동(關東, 강원도)을 잇던 관동대로(關東大路)가 통과하고 분기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되던 교통의 중심지이다.

2) 수로와 나루터

민족의 젖줄인 한강(漢江)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골 검룡소(儉龍沼)에서 발원해 양평의 양수리(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을 합친 다음 서울을 통과해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발원지에서 두물머리까지를 남한강이라고 부르는데 한강의 본류이다. 북한강(北漢江)은 한강의 대지류이다. 금강산 옥발봉에서 발원하며 양수리에서 본류인 남한강을 만난다. 이 두 강으로 인해 양평은 일찍이 수운(水運)이 발달하여 크고 작은 나루터가 30여개에 달해 물자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양평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10대로 중 하나인 평해로(平海路)가 서울에서 구리시와 남양주를 지나 북한강을 건너 양서면 두물머리~양평읍~용문~지평~구둔치~송치까지 관내를 지나고, 가평, 홍천·인제·고성, 횡성 등으로 길이 분기되어 경기 북동부내륙과 강원, 충청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남한강 상류로 여주와 충주로 하류로는 서울이 뱃길로 연결되었고, 강상과 강하에서는 광주와 이천 등으로 길이 연결되었으므로 남한강이 31.5 km나 흐르는 양평에는 나루가 여럿 있었다.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양근군 기사에는 서심탄(西深灘)·용진도(龍津渡)가,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용진도(龍津渡)·고량진(高浪津)·갈산진(葛山津)·세사진(洗司津)·상심리진(上心里津)·수청탄진(水靑灘津)·수여리진(水餘里津)·사참진(沙站津)·이포진(梨浦津) 등이 적혀있다. 1842년~1843년 간행된 『경기지(京畿誌)』와 1871년 간행된 『경기읍지』, 1895년 간행된 『기전읍지(畿甸邑誌)』 양근군 편과, 1899년 간행된 『양근군읍지』에는 진도 조에 용진도·갈산진·상심진·월루진(月樓津)·청탄진(靑灘津)·수여진(水餘

津)·수입진(水入津)·사참진(沙站津)이 적혀있다. 특히 『여지도서』 양근군편에는 도로 조에 이수두로(二水頭路)·갈산진로(葛山津路)·세이진로(洗耳津路)·상심진로(賞心津路)·수청진로(水靑津路)·용진로(龍津路)·수여진로(水餘津路)·이포진로(梨浦津路)·사참진로(沙站津路)가 적혀있어 나루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나타냈고, 화야리로(禾野里路), 분원로(分院路), 서심리로(西心里路)도 적혀있는 것은 나루와 연결되는 도로를 적은 것이다. 위에 적은 나루 중에는 북한강의 나루인 용진도를 제외하면 모두 남한강에 있는 나루들이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세사진(洗司津)으로 적고 『여지도서』에는 세이진로(洗耳津路)로 적어 이기(移記)나 필사(筆寫)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인다.

2005년 발간된 『양평군지』에는 남한강에는 상류로부터 상자포 나루(윗자진개 나루)·하자포 나루(아랫자진개 나루)·구미포 나루(후미개 나루)·양덕나루(전북리 나루)·심벼루 나루·가소 나루·양근 나루[갈산 나루, 예의 갈산진(저자 주)]·덕구실 나루(오빈 나루)·다루레기 나루[전의 나루, 예의 월루진(저자 주)]·상심 나루[예의 상심진(저자 주)]·한여울 나루(대심 나루)·구름개 나루·두물머리 나루 등이 조사·기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 어느 조사를 보면 반장리 나루(수청리 나루, 예의 수청탄진)·신원리 나루·월계 나루·검천 나루·용담 나루(능골 나루)·우천 나루(소내 나루) 등도 있으니 남한강에는 20여개나 되는 여러 나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평의 북한강에는 무드리 나루(수입 나루)·소구니 나루·무네미 나루(문호 나루)·수대울 나루(아양 나루)·용진 나루·돌데미 나루·자잠 나루·용문천 나루·고랭이 나루 등 10여개의 나루가 있었다. 이렇듯 양평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30여개의 나루가 있었다.

특히, 현재 양평읍내의 갈산진은 강 건너 강상과 강하는 물론 광주, 강원도 홍천·인제와 횡성·원주 등 영서내륙과 대관령을 넘어 관동지방을 잇는 분기점이었고, 강원과 충청에서 남한강을 통해 서울과 물자가 왕래하던 포구로 15세기 초에는 양근과 지평의 세곡을 거두던 갈산진창도 있어 수운과 육로의 거점으로 발전하였고 일찍부터 장시가 번창하였던 지역이다. 또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어 서울을 향해 흐르는 두물머리는 두 강의 상류지역으로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물자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를 서울에서부터 운반해 가는 수운이 교차하는 중심나루터임과 동시에 육로인 관동대로가 만나는 지점으로써 인마와 물자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다.

Ⅲ. 양평의 장시사(場市史)

1. 양평장시사의 시대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 생겨났고 이러한 곳을 장시(場市)라 했다. 요즘말로는 시장(市場)이며 상설(常設)로 매일 열리거나 5일마다 열리는 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인 전통시장을 장시라고 하는 것이다.

양평의 장시에 관한 기록은 양평이 양근(楊根)과 지평(砥平)으로 나뉘어 있던 조선후기인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향시(鄉市)조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이어서 1776년~1787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지승(地乘)』과 1787년~1794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여지도(輿地圖)』, 1800년대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광여도(廣輿圖)』 등의 고지도에도 장시가 표시된 것이 있으나 모든 군현(郡縣)의 고지도에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참고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가 1830년 서유구가 펴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가 본래의 책명 으로 이하 ‘임원경제지’라 한다)와 1842년 간행된 『경기지(京畿誌)』, 1863년 간행된 『대동지지(大東地誌)』, 1871년 간행된 『경기읍지(京畿邑誌)』 등 읍지류에도 장시에 관한 기록이 적혀있다. 그 이후인 1872년 간행된 『1872지방도(地方圖)』라는 이름의 고지도와 1894년 간행된 『기전읍지(畿甸邑誌)』와 『양근읍지(楊根邑誌)』에도 장시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함께 간행된 『지평읍지(砥平邑誌)』에는 장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참고할 수 없는 실정임은 앞의 고지도 등과 같다. 그러다가 1905년 간행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에도 양근과 지평의 장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따라서 위의 『동국문헌비고』로부터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까지의 기록을 토대로 양근과 지평으로 나뉘어있던 시기의 양평장시사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임으로 이 시기를 ‘양근·지평통합전 양평장시’로 구분하기로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지금의 개군면이 여주에 속해있을 시기이므로 구분의 이익이 더 있을 수 있다.

시기를 세분하고 효율적인 표현을 위하여 『동국문헌비고』를 인용할 때는 ‘동국기(期)’로, 『임원경제지』는 ‘임원기’로, 『경기지』는 ‘경기1기’로, 『대동지지』는 ‘대동기’로, 『경기읍지』는 ‘경기2기’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를 ‘토지농산기’으로 줄여 쓰기로 한다.

다음은 양근과 지평이 통합되어 양평군이 된 1908년 9월 14일 이후의 시기로 1909년의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 1911년의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22년의 『조선의 시장(朝鮮の市

場)』, 1925년의 『시가지의 상권(市街地の商圈)』, 1926년의 『조선의 시장경제(朝鮮の市場經濟)』, 1938년의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을 ‘양평통합후의 양평장시’로 구분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선산업지』를 ‘산업기’로, 『조선지리지자료』를 ‘지리지자료기’로,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을 ‘시장1기’로, 『시가지의 상권』을 ‘상권기’로, 『조선의시장경제』를 ‘시장경제기’로, 『조선의 시장』을 ‘시장2기’로 줄여 쓰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광복이후부터 6.25전쟁까지의 혼란기에 전국적인 상황으로 양평의 장시도 기능을 잃었다가 1960년대 들어와 국내 정세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기능을 회복하여 개시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현대의 양평장시’로 구분하기로 한다.

2. 양근 · 지평통합 전 양평장시

우리나라의 장시는 고려시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조선시대에 민간에 의하여 일정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여 점차 활성화하였다. 자급자족의 농경사회에서 자가소비를 하고 남은 쌀을 비롯한 잉여농산물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수공업품 등 거래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사회구조가 다원화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전국에 1,600여개의 장시가 열렸다.

사람들에게 장시는 비단 물건을 팔고 사는 곳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문물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지역 · 마을 · 이웃 간 정보교류와 사교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장터를 순회하며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 생업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억눌려 사는 민초들이 국가나 부당한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 결사체를 형성하고, 3.1운동과 같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도 장을 통해 벌였다. 이렇듯 장시는 인적 · 물적교역의 마당뿐 아니라 시간적 · 공간적 제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됨으로써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들고 그 지역 흥망성쇠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초기의 장시는 주로 인구가 많은 읍치(邑治)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대로변, 나루터인근에 위치했다. 서울에서 당시 강원도 평해(平海; 지금은 경상북도)까지 연결하는 약 1,000리길인 평해로(일명 ‘관동대로’)가 고을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관동대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분기하였음은 물론 남한강과 북한강가에 여러 곳의 나루터가 있던 양평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장시가 있었다.

1770년(영조 46)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시적고(市糴考)」에는 전국에

1,064곳의 장시가 조사·기록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양근에는 갈산(葛山) 1.6·좌곡(佐谷) 2.7·미원(迷原) 2.7·사탄(沙灘) 3.8·우천(牛川) 4.9·상심(上尋) 5.10 등 6곳이, 지평에는 노음평(老音坪) 1.6·읍내(邑內) 2.7·부연(釜淵) 3.8·곡수(曲水) 4.9 등 4곳의 5일장시가 적혀있으니 우리고장 장시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다[장시 명칭 뒤의 숫자는 장이 열리는 날짜 즉 개시일(開市日)임. 이하 ‘개시일’ 이라 한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 60년 후인 1830년 발간된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에 의하면 양근에는 가좌곡(佳佐谷) 2.7·미원리(迷原里) 2.7·사탄 3.8·심리(心里) 5.10 등 4곳, 지평에는 유평(遊坪) 1.6·전곡(田谷) 2.7·부연 3.8·곡수 4.9 등 4곳이 적혀있다. 또한 군소소재지로부터의 방향과 소재한 면의 이름이 적혀있고 양근의 사탄장과 지평의 전곡장은 거래되는 주요 품목을 소개하고 있어 이 두 장시가 두 고을의 대표적인 장시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사탄장에서는 미곡(米穀)을 비롯해 8개 주요품목이 적혀있고, 전곡장에서도 미곡을 비롯해 15개 품목이 적혀있다(표1 “임원기 양평장시의 주요 거래품목” 참조).

표1. 임원기 양평장시의 주요거래품목

군현명	장시별	거래품목	비고
양근	사탄	쌀(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물(魚物), 대추(棗), 밤(栗), 담배(煙草), 기직자리(茵席)	
지평	전곡	쌀(米穀), 콩(荳), 보리(麥), 차조기(水蘇), 담배(煙草), 면포(綿布), 삼(麻), 마포(麻布), 어염(魚鹽), 소(牛糞), 기름(脂), 철물(鐵物), 목기(木器), 옹기(甕器), 유기(柳器)	

〈자료:김필래, 2004, 논문「남한강변장시에 유통된 품목 고」, 307쪽〉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어 양평군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남종면은 광주에, 1942년에 설악면이 가평군에 이속되고, 1963년에 여주군이었던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됨으로써 양평지역장시의 변천사를 살펴보려면 광주에 이속된 남종면의 우천장과 가평에 이속된 미원장을 제외하는 대신 개군면에 섰던 장시는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군면(당시는 ‘개군산면’)에 섰던 장시로는 『임원경제지』에 신은천장(神恩川場) 5.10이 적혀있다. 신은천장은 “주북오십리 개군산면 오.십(州北五十里 介軍山面 五.十)”이라고 적혀있어 여주로부터 북쪽으로 50리에 있는 개군산면에 위치하였으며 개시일은 5.10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곡수장은 양근과 여주 두 곳에 모두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장은 두 고을에 걸쳐 섰던 큰 장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국문헌비고』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양평 장시에 관한 기록을 통해 60년 동안 장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지금의 양평장인 갈산장은 폐지되고 좌곡장은 장시명칭이 가좌곡장,

지금의 강하면 운심리에 섰던 상심장은 심리장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지금의 옥천면의 사탄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금의 청운면 비룡리에 섰던 노음평장은 유평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평의 읍내장은 없어지고 지금의 용문면 다문리에 전곡장이 새로 생겼다. 지금 양동면의 부연장과 지평면의 곡수장은 유지되었다.

지금의 양평물맑은시장(흔히 ‘양평장’ 이라고 부른다. 이하 ‘양평장’ 이라 한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규모가 큰 장시으로써 3.8일이 개시일인 5일장은 인근의 여주5일장(개시일 5.10) 못지않게 큰 장이다. 양평장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770년 이전에 생긴 장시로 처음 명칭은 갈산장이었다. 그러나 갈산장은 1830년에 발간한 『임원경제지』에는 적혀있지 않다. 1747년(영조 23) 양근의 읍치가 지금의 옥천면에서 양평읍으로 옮겨왔음에도 길게는 60년 동안 정작 양근의 읍치에는 장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863년 간행된 『대동지지』 여백에 “읍내 1.6” 이라고 적혀있고, 1871년 간행된 『경기읍지』에 “읍내장 재군내매3.8일(邑內場在郡內每三日八日)” 이라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양평장은 읍내장이란 명칭으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양평장은 사탄장과 병존하다 한동안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유는 두 장시간의 거리가 워낙 가까워 주민들이 읍내의 새로 생긴 장시보다 기존의 사탄장시를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전국의 장시간 거리가 보통 30~40리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두 장시간의 거리는 10리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1830년에 발간한 『임원경제지』 이후 양평의 장시가 적혀있는 문헌은 1842년경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잡지(京畿誌)』와 1863년이 발간 하한(下限)인 『대동지지(大東地誌)』, 1871년 발간된 『경기읍지(京畿邑誌)』, 1894.11~1895.2사이에 간행된 『기전읍지(畿甸邑誌)』(양근과 지평 중 양근군읍지만 잔존), 1899년 간행된 『양근읍지(楊根邑誌)』 등이 있다. 이 문헌들을 통해 1830년 발간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이후 1890년대 말까지의 70여 년간 장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양근의 장시는 『경기읍지』에는 우천장(牛川場) · 상심장(上心場) · 사탄장(沙灘場) · 미원장(迷源場) · 읍내장(邑內場) 등 5개장시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개시일이 적혀있다. 그러나 『기전읍지』 · 『양근읍지』에는 읍내장이 빠져있어 기록상의 오류이거나 읍내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리지보다 50년 이상 앞서 간행된 『경기잡지』에도 읍내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평의 장시에 관해서는 『경기읍지』에만 적혀있는데 읍내장(邑內場) · 곡수장(曲水場) · 상서장(上西場) · 상동장(上東場) · 북면장(北面場) 등 5개 장시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개시일 등이 적혀있다.

이들 문헌의 장시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양근에서는 지금의 양평읍에 읍내장이 1871년 이전에 3.8일을 개시일로 하여 부활하여 지금 옥천면의 사탄장과 한동안 병존하였

고, (가)좌곡장은 폐지되었다. 또한 우천장과 미원장은 이후 광주와 가평으로 각각 편입됐기 때문에 논의로 하고, 다만 지금의 개군면에 위치하며 개시일이 5.10일이었던 신은천장에 관한 내용은 여주의 장시에 관한 기록을 위에 열거한 지리지에서 찾아보았으나 적혀있지 않아 이 기간 중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금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볼 때 1893년 전후 양근에는 상심장·사탄장·읍내장 등 3곳의 장시가 있었고 두 장시간의 거리가 짧았던 사탄장과 읍내장의 개시일이 3.8일로 같았음은 소재지인 읍내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탄장의 폐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평에서는 읍내장이 개시일을 3.8일로하여 부활하였으며, 곡수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지금의 용문면 다문리의 전곡장은 상서장으로, 지금 양동면의 부연장은 상동장으로, 지금 청운면의 유평장은 북면장으로 각각 면의 명칭변경에 따라 장시의 명칭도 바뀌었다. 다만 읍내장은 “매삭3일8일개시금무(每朔三日八日開市今無)”, 상동장은 “재부연매3일8일금무(在釜淵每月三日八日今無)”라고 적혀있어 읍내장과 상동장은 1871년 『경기읍지』 발간 당시에는 명목만 유지한 채 서지 않고 있었었던 것으로 적혀있다. 상동장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수면상태였으며 읍내장이 부활되긴 하였으나 곡수장이나 상서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양근과 지평의 읍치 두 곳 모두에 장시가 부활되었음은 인구가 읍치를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양근은 나루터를 중심으로 3곳으로 줄어들어 배를 이용하여 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장을 이용했던 결과이며, 지평은 전체 숫자는 한곳이 늘었으나 개시하는 장시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장시의 규모나 이용거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조정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905년에 간행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에는 양근의 읍내장이 양근장(3.8)으로 명칭이 바뀌어 계속 개시하였고 5.10일 개시하던 상심장은 남중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개시일도 2.7일로 바뀌어 2개 장시만이 유지되었다. 동국기부터 100여년 유지되던 사탄장이 폐지되었음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구읍(옥천면)과 신읍(양평읍)의 장시까지 교체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평에는 곡수(4.9)·용두(2.7)의 2개 장시만이 적혀있어 양평의 장시는 모두 4개에 불과하여 장시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지평의 용두장이 개시일을 2.7일로 하여 새로 생기고 전에 노음평, 유평, 북면장 등으로 부르던 북면장이 폐지되면서 장소를 용두리로 옮기고 개시일도 달리하여 새로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장시의 주요 거래품목은 쌀을 비롯해 여러 가지 농산물이 주로 팔려나갔으며(수출품),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활필수품인 어물과 소금 등이 들어와(수입품) 거래 되었는데 이는 내륙지방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전통장시에서는 어느 시기나 같은 양상이었다. 1905년 당시 양평장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표2와 같다.

표2. 1905년 양평장시의 주요 수출입 품목

군현명	시장	품 목		비고
		수출품	수입품	
양근	양근, 우천, 남종	도라지, 버, 대두, 소두, 기름지게미	건어, 염어류	
지평	곡수, 용두	(기록없음)	소금, 염어	

〈자료: 농촌진흥청, 국역『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IV)』, 714쪽〉

앞에서 언급한 양근과 지평이 통합하여 양평이 되기 전 양평장시의 위치 및 개시일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근·지평통합 전 양평 장시의 위치 및 개시일

유역	군	현위치	장명	동	임	읍1	읍2	기	토	한	비고
남한강	여주	지평면 곡수리	曲水	4	4				5·9	4	
		개군면 공세리	新恩川		5						
	지평	지평면 지평리	砥平	2		罷無	今無			4	
		지평면 곡수리	曲水	4	4	4	4	4			
		양동면 쌍학리	釜淵	3	3	今無	今無				
		청운면 비룡리	遊平	1	1	1	1				동:노음평
		지평면 송현리	田谷		2	2	2				
		청운면 용두리	龍頭						2		
	양근	양평읍 양근리	葛山	1			3	3	3		
		광주 남종면 우천리	牛川	4	4		4	4	4		
		강하면 운심리	上尋	5	5		5		2		
		가평 설악면 신천리	迷原	2	2		2				
		옥천면 옥천리	沙灘	3	3		1				
		?	佐谷	2	2						

주). 동:『동국』(1770), 임:『임원』(1830), 읍1:『경기지』(1843), 읍2:『경기읍지』(1871), 기:『기전읍지』(1895), 토:『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1905), 한:『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탁지부 사세국, 1909)

〈자료: 김종혁, 2001, 논문『『동국문헌비고』(1770)에 나타난 한강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40쪽을 인용, 보완함〉

3. 양평통합후의 양평장시

산업기에 접어든 1909년경 양평의 장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면리제의 정착에 따라 크게 변화

하였다. 철도와 도로 등 육상교통의 발달에 따라 종전의 주 운송수단이던 배를 이용한 수상교통(水上交通)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나루터 인근의 장시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역과 도로분기로 등이 있는 교통결절점이나 면소재지에 새로운 장시가 열렸다.

양평장시변화는 1909년을 기준으로 1910년 야마구치(山口精)가 편찬한 한국에 관한 조사자료인 『조선산업지』에 이어 일제강점기인 1911년 간행된 『조선지리지자료』, 1922년을 기준으로 1924년 조선총독부 서무부 조사과에서 발간한 조선의 시장에 대한 서적인 『조선의 시장』, 1925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시가지와 상권』, 1929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시장경제』, 문정창(文定昌)이 1938년 펴낸 『조선의 시장』 등에 적혀있다.

양근과 지평의 두 군을 통합하여 양평군이 된 1908년 무렵과 1939년 4월 청량리~양평간의 중앙선철도가 개통되어 운행하기 이전까지 양평군내 장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기에 더욱 변동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산업기의 양평장시는 1908년 양평군으로 통합되면서 옛 양근지역에는 1905년에 양근의 상심장이 남중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개시일 또한 4.9일로 바뀌었다가 산업기인 1909년 기록에는 없어져 폐지되었고 양근시장이 홍문동(紅門洞)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때의 홍문동시장 주요 거래품목은 쌀을 비롯해 11개 품목으로 그 내용은 표4 “1909년 양평장시의 주요 취급 품목”과 같다. 한편 옛 지평지역에 남아있던 용두와 곡수외에 지평면에 월하리(月下里)시장이 개시일을 4.9일로 하여 새로 생겼다. 이로써 통합 양평군에는 홍문동(3.8) · 용두(2.7) · 곡수(2.7) · 월하리(4.9) 등 4개의 장시가 있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지리지자료기에는 산업기에 지평리에 새로 열었던 월하리시장이 적혀있지 않아 개시 2년도 못되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기부터 경기2기까지 100여 년간 이어 열리던 지평의 읍내시장은 경기2기와 토지농산기 사이에 폐지되었다가 월하리장으로 명칭을 바꿔 4.9일을 개시일로 하여 복설되었다가 다시 폐지되고 만 것이다. 1910년 당시 양평군수 정원모는 지평현의 소재지였던 지평의 옛 영화를 되살려 보려는 의욕으로 지평면 소재지에 월하리시장을 개설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곡수장의 4.9일 개시일을 빼앗아 월하시장의 개시일로 하고 2.7일로 변경까지 했다. 곡수장의 폐지를 유도하여 월하리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에서였다. 군수의 의도와는 달리 월하리시장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다.

지리지자료기에 양평에는 읍내(3.8) · 용두((2.7) · 곡수(4.9) 등 3개의 장시만이 열렸고, 그 후 1926년 시장경제기까지 약 16년간 3개장시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시장2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까지 유지되던 읍내장은 명칭이 양근장으로 바뀌고 용두와 곡수는 변화가 없었다. 양서면 양수리에 개시일을 2.7일로 하여 양수장이 새로 생긴 것이 큰 변화의 하나였다.

표4. 1909년 양평장시의 주요 취급 품목

군명	시장	품 목	비고
양평	홍문동시장 (紅門洞市場)	쌀(米), 대두소두(大小豆), 면(綿), 담배(煙草), 포류(布類), 지류(紙類), 미투리(麻鞋), 북어(北魚), 화포(和布), 도기(陶器), 마(麻) 등	

〈자료:山口精 編, 實文館, 1911년, 『朝鮮産業誌』, 804쪽〉

시장1기에는 직전기(直前期)인 조선산업기와 직후기(直後期)인 상권기와 같이 양평의 장시변화는 없었다. 다만 1922년 말 현재로 조사하여 1924년 발간한 『조선의 시장』에는 “양평읍 갈산면시”라는 소제목으로 시장의 설치경과와 수요공급의 구역, 시장출입상인의 행상구역, 시장거래품종별 수량 및 금액 등 양평읍내시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시장거래품종별 수량 및 금액은 표5 “1922년 양평장시의 주요 거래 품목 및 거래내용”과 같다.

표5. 1922년 양평장시의 주요 거래 품목 및 거래내용

시장명	품목 및 내역				비고
읍내시장	1. 주요품목:우(牛;牛) 곡물(穀物), 직물(織物), 잡화(雜貨), 목재(木材), 금물(金物)				
	2. 종별거래내용				
	품목	수량	금액(円)	비고	
	생우(生牛)	53頭	4,800,000		
	백미(白米)	7石	385,000		
	대두(大豆)	1石	20,000		
	소두(小豆)	5斗	20,000		
	우육(牛肉)		150,000		
	식료품(食料品)		80,000		
	잡화(雜貨)		580,000		
	간(荳)	70把	42,000	미나리, 묶음(把)	
	목면(木綿)	80尺	16,000		
	백지(白紙)	15卷	45,000		
	마혜(麻鞋)	80足	24,000	미투리	
	면화(綿花)	30근	9,000		
	금물(金物)		200,000		

〈자료:朝鮮總督府, 1924년, 『朝鮮の市場』, 74, 75쪽〉

시장1기 이후 1926년을 기준으로 1929년 발간된 『조선의 시장경제』에는 3.8일이 개시일인 양근장과 4.9일이 개시일인 곡수장, 2.7일이 개시일인 용두장 등 3곳만이 적혀있어 큰 변화와 함께 1930년대를 맞았음을 알 수 있다. 곡수장만이 1770년 이전에 개시한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양평의 큰 장시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문창정(文定昌) 편저인 『朝鮮の市場』은 부록에 「在來市場一覽表」를 실었는데 이는 1938년 말 현재의 상황으로 앞서의 상권기 및 시장경제기 이후 13년간 양평 장시의 현황과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이 자료에는 양근3.8, 양수2.7, 용두2.7, 곡수 4.9 등 4개 장시와 장시별 하루 평균 거래금액도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양근장이 1,10,882엔(円)으로 단연 많고 곡수장이 270,350엔, 양수장이 221,720엔, 용두장이 37,046엔 순이다. 군청 소재지인 양근장과 장이 서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시를 누리던 곡수장 등 2개 장시 외에 1900년대 초에 청운면에 용두장이, 1938년경에 양서면에 양수장이 새로 생기는 등 지역의 부침과 함께 장시의 변동도 컸다.

4. 3.1운동사를 통해 본 양평의 장시

양평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서종면을 시작으로 4월 11일 지평면과 개군면민들이 곡수장터에 모여 마지막을 장식했다. 2005년 발간된 『양평군지』와 2014년 발간된 『양평3.1운동사』 등에 의하면 일부 면단위에서는 장이 열리는 날 만세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시일 등이 앞에서 밝힌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

『양평군지』와 『양평3.1운동사』 등은 일제의 조선헌병대사령부 및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평관내의 각 읍면단위 3.1운동 만세시위 중 청운면과 단월면 합동시위가 3월 23일(음력 2월 22일), 양평읍이 3월 24일(음력 2월 23일), 양동면이 4월 7일(음력 3월 7일), 지평면과 개군면 합동시위가 4월 11일(음력 3월 11일) 이었다(표6. “양평3.1운동사와 장시” 참조). 그 중 청운면과 단월면은 용두장, 양평읍이 양평장터, 양동면이 양동장터, 지평면과 개군면이 곡수장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던 것은 일제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음력으로 개시일로 썼다면 만세시위가 장날과 일치하는 곳은 청운단월과 양평읍이고, 양동면과 지평면개군면합동시위일자는 장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동국기이후 부연장 또는 상동장으로 불렸던 양동장은 3.1운동이 일어날 시기까지 폐지된 적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달리 『조선산업지』에 적혀있지 않아 장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장시자체가 폐지되었거나 시장규칙에 의한 합병적 절차 없이 암암리에 열리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시장규칙이 시행되면서 조선총독부의 시장 감독과 파악이 일원화되어 장시는 제도화하였지만 장시의 개시일 의 변경까지를 강제하였는지는 밝혀진바 없어 읍면별시위 중 날짜가 장날이었다는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6. 양평3.1운동사와 장시

면 별	시위장소	시위일자	『조선산업지』상 개시일	비 고
청운 · 단월	용두장	3.23(음력 2.22)	용두2.7	장날
양평	양평장	3.24(음력 2.23)	홍문동3.8	장날
양동	양동장	4.07(음력 3.07)	(기록없음)	
지평 · 개군	곡수장	4.11(음력 3.11)	곡수2.7	

5. 현대의 양평장시

해방 이후의 양평장시에 관한 기록은 1961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해방에 이어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 전체가 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로 빠져들자 양평의 장시 또한 침체기를 맞았으며, 정전 이후 양평장 등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새롭게 개시되었을 것이지만 어느 장시가 언제 다시 생겼는지 알 수 없다.

6·25전쟁 이후 1960년대에는 1961년 9개, 1962년 11개가 양평군통계연보에 적혀있으나 장시 명칭이나 개시일은 적혀있지 않다. 그러나 1963년도 통계연보에는 양평, 양수, 곡수, 단월, 용두, 양동, 지평, 곡수, 용문, 개군, 옥천, 서종 등 10개면에 12개의 장시가 있다고 적혀있다. 양서면과 지평면에 2개씩의 장시가, 강상면과 강하면을 제외한 8개면에는 각각 1개씩의 장시가 적혀있어 사상 최고 많은 장시가 있던 때였다. 지평면에 오랜 전통을 가진 곡수장과 소재지인 지평리에 지평장이 있었고 양서면의 곡수장은 강 건너 강하면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생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강상면사람들은 강 건너 양평장을 주로 이용했다.

그 후 1970년대부터 양평의 장시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철도와 도로 등 육상교통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등 개인소유 운송수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현상이었다. 1970년대 초에 9개에서 말에 7개로, 1980년대 말에는 6개로, 1992년에는 4개로 줄어든 것으로 통계연보에 적혀있다(표7. “1960년대 이후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변화” 참조). 그러나 1992년 통계연보에 적혀있지 않은 양수장과 용두장은 지금까지 폐지된 적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으로 볼 때 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 1990년대 양평장시의 보다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7. 1960년대 이후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변화

연도	군내 시장수	개시상황 및 개시일											
		읍내	양수	국수	단월	용두	양동	지평	곡수	용문	개군	옥천	서증
1961	9												
1962	11												
1963	11(12)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¹⁾ (주4)
1964	9	3.8	1.6	폐지	1.6	2.7	3.8	1.6	4.9	5.10	5.10	폐지	폐지
1966	10	3.8	2.7	1.6	1.6	2.7	3.8	1.6	4.9	5.10	5.10		
1967	8	3.8	1.6	폐지	1.6	2.7	3.8	1.6	4.9	5.10	폐지		
1968	9	3.8	? ²⁾		1.6	2.7	3.8	1.6	4.9	5.10	5.10		
1969	9	3.8	2.7		1.6	2.7	3.8	1.6	4.9	5.10	5.10		
1970	9	3.8	2.7		4.9	2.7	3.8	1.6	4.9	5.10	5.10		
1971	9	3.8	2.7		1.6	2.7	3.8	1.6	4.9	5.10	5.10		
1978	7	3.8	1.6		폐지	2.7	3.8	1.6	4.9	5.10	폐지		
1988	6	3.8	1.6			2.7	3.8	1.6	폐지	5.10			
1992	4	3.8	폐지 ³⁾			폐지 ⁴⁾	3.8	1.6		5.10			

〈기초자료인용:편찬위원회, 2005, 『양평군지』 (중권), 431쪽〉

지금 양평에는 양평읍의 양평장이 시장 이름 공모전을 통해 2014년 1월에 양평물맑은시장(3.8)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용문면의 용문장이 용문천년시장(5.10)으로, 양서면의 양수장이 양수리전통시장(1.6)으로 이름을 바꿔 3곳이 등록시장으로 군내 대표적 5일장이 되었다. 또한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장터확장 이전과 주말장터운영 등 여러 가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상설과 5일장의 복합형태인 물맑은양평시장은 문화와 정(精)이 흐르는 문화 접목형 전통시장으로, 용문천년시장은 용문산 산나물과 한우를 연계한 산채 한우 특화전통시장으로, 양수리전통시장은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특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물맑은양평시장은 이미 수도권에서 성남의 모란장과 함께 알아주는 유명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미등록시장인 지평장(1.6)·양동장(3.8)·용두장(2.7) 등 3개 전통5일장은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언제 폐지

1) '무너미장' 이라고도 했음

2) 기초자료로 활용한 통계연보에 개시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 1.6인지 2.7인지 알 수 없어 '?' 표시

3) 주민들에 의하면 폐지된 적이 없었다고 함

4) 주민들에 의하면 폐지된 적이 없었다고 함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참고로 2015년 말 현재 양평군의 전통시장현황은 표8과 같다.

표8. 양평군공설시장현황

구분	시 장 현 황			이용상인수		관리주체		비고
	위치	면적 (㎡)	장서는날	상인	좌판	단체명	전화번호	
양평	166-9(잡) 168-9(대) 167-31(대)	68,167	3 · 8	391	305	양평물 맑은시장 상인회	771-2080	(등록시장: 2008.10.31)
						양평군 양평읍 양평장터길 15 tel:771-2080, fax : 771-0690		
	소계	68,167						
양서	1060(대) 1069(천)	573 704	1 · 6	10	57	양수리 전통시장 상인회	775-3110	(등록시장: 2013.3.19)
						양평군양서면양수리15 tel:775-3110, fax : 775-3110		
	소계	1,277						
용문	308-13(대) 308-16(대) 626-2외33	387 93 3,825	5 · 10	64	70	용문 천년시장 상인회	771-6172	(등록시장: 2008.10.9)
						양평군 용문면 용문시장7길 19-1		
	소계	480				fax : 774-6672		
지평	571-11(잡) 571-16(대)	1626 446	1 · 6	8	10			
						양평군 지평면 역말4길 8		
	소계	2,072				2015년 위탁관리 포기		
청운 (용두시장)	662-2(대) 1,437 717-2(대) 634 717-4(대) 3,274		2 · 7	20	15	※ 용두시장 장날상인 10인 이내 참여와 좌판별 매출액 저조로 상가번영회 위탁관리 부재		
	소계	5,345						
양동	213-4(대) 225-9(대) 226(잡) 229-6(대)	681 227 324 13	3 · 8	10	15	양동시장상인회		
						양평군 양동면 원삼산길 55-9		
	소계	1,245						

〈자료 :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6. 장시별 역사(略史)

양평의 장시별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자료일람/주제별연표/장시연표”를 인용하고 약사를

추가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별 장시의 시대별 변화를 부표로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1) 여주읍시장보다 5.2배나 거래규모가 컸던 양평물맑은시장

(1) 장시연표 : 갈산시장(葛山市場)

내용	갈산시장(葛山市場). 매월 1, 6일 (월6회) 개시. 1909년 조사에 3, 8일 (월6회) 개시. 1976년 조사에 양평시장(楊平市場)으로 개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 1909년 9월;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朝鮮經濟雜誌》165, 1929년 9월;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 1909년 9월;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朝鮮經濟雜誌》165, 1929년 9월;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전통시장. 양평장은 『동국문헌비고』에 ‘갈산’으로 적혀 있다. 현재명칭은 ‘양평물맑은시장’으로 2008.10.31.등록된 양평군내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동국기에 서던 장은 임원기와 경기1기에는 없어졌던 것으로 적혀있고, 대동기인 1871년 읍내장으로 다시 복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22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924년 간행된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善生永助, 74~75쪽)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一.시장의 설치 :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본 시장은 고읍면 옥천리로부터 갈산면에 이전되었다. 그 부지가 한강연안에 접하였으므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양근리 중앙을 공동으로 경영하지만, 명치 42년(1909년;저자 주) 본 군에서 시장부근에 거주하는 이범기라는 자를 시장관리자로 정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왔는데, 대정 3년(1914년;저자 주)12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71호로서 면장이 이를 경영하게 되었다. 시장부지는 국유이지만 곡물시장은 사유이다. 시장의 구역은 양근리에 시가지 일원으로써 읍내시장이라고 칭하며, 음력 3.8일에 개시한다. 주요 취급상품은 소, 곡물, 직물, 잡화, 목재, 철물(金物)이다.

一.수요공급의 구역 : 본군 갈산, 강상, 고읍, 강하, 용문, 양서, 지평의 각 면, 이천군, 여주군, 홍천군, 횡성군

一.시장출입상인의 행정구역 : 본군 지평면 곡수시, 청운면 용두시, 광주시 남종면 우천시, 양주군 와부면 평구시, 이천군 읍내시, 여주군 주내시

一. 시장취급품종별 수량 및 가격

품 목	수 량	금 액(円)	비 고
생우(生牛)	53頭	4,800,000	
백미(白米)	7石	385,000	
대두(大豆)	1石	20,000	
소두(小豆)	5斗	20,000	
우육(牛肉)		150,000	
식료품(食料品)		80,000	
잡화(雜貨)		580,000	
간(荳)	70把	42,000	(미나리) 묶음(把)(저자 주)
목면(木綿)	80尺	16,000	
백지(白紙)	15疋	45,000	
마혜(麻鞋)	80足	24,000	(미투리;저자 주)
면화(綿花)	30근	9,000	
금물(金物)		200,000	(철물;저자 주)

이후 1938년 말 현재로 조사 수록된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文定昌) 부록 「재래시장일람표」에는 장시별 연간취급고가 기록되어있어 당시 각 장시의 거래규모를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근시장(楊根市場;당시 시장의 명칭)의 연간 거래금액은 1,110,882원(圓)으로 양평관내의 양수·곡수·용두 등을 다 합해도 양근시장의 거래액에 못 미친다. 특히, 같은 자료에 따르면 여주읍시장의 거래액은 213,630원에 불과해 여주읍시장에 비해 5.2배나 규모가 컸던 큰 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장터가 확인되지 않은 전국 유일의 (가)좌곡장

(1) 장시연표 : 좌곡시장(佐谷市場)

내용	좌곡시장(佐谷市場).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19세기 초에서는 가좌곡시장(佳佐谷市場)으로 기록. 경기도 양평군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桀,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桀,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2) 약사

경기도 양평군에 있던 장시. 1770년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 「시적고」에 전국 장시가 처음으로 조사·기록되어 이 책에는 전국에 1,064곳이 적혀있다. 이중 한곳으로 양근에는 좌곡장(佐谷場)이 적혀있고, 『임원경제지』에는 가좌곡장(佳佐谷場)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혀있으며, 편찬시기의 하한을 1863년(철종 14)으로 보는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다시 좌곡장으로 적혀있으며 개시일은 세 문헌 모두에 2.7일로 적혀있는 좌곡장 또는 가좌곡장〔이하 ‘(가)좌곡장」〕이 있었다. 1700년대 후반에 생겨 1863년 이후에 없어졌다면 약 10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존속되던 장시였다.

양근읍내인 갈산에 갈산장이 처음생긴 것도 1,700년대 후반 무렵이다. 그러나 갈산장은 열리기 시작한지 60년이 채 못 되어 폐지되었던 적이 있었다. 갈산장의 10리 이내에 사탄장이, 15리 이내에 (가)좌곡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가까운 두 장을 이용하고 새로 생긴 갈산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가)좌곡장은 지금 옥천면의 사탄장과 함께 갈산장을 폐지시킬 영향력이 있을 만한 장시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좌곡장이 섰던 위치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장시를 조사하여 기록한 『동국문헌비고』 이후 (가)좌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렸던 장터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장시이다.

(가)좌곡장은 『임원경제지』에 “在郡南十五里(재군남십오리)”라고는 적혀있다. 군(郡;여기서 군은 양근군 소재지인 갈산을 말하는 것임)에서 남쪽인 지금의 강상면(당시 남시면, 이하 ‘강상면’)이나 강하면(당시 남종면, 이하 ‘강하면’)에 섰던 장시임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당시 강하면에는 상심장(上心場)이 섰고, 상심장은 “在郡南二十五里(재군남이십오리)”라 적혀있어 상심장과 읍내사이 25리 안에 또 하나의 장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시키기 어렵다. (가)좌곡장은 강상면 어디에 섰던 장시라는 추론이 가능해 지는 이유이다.

장시의 명칭은 그 장시가 열리는 마을의 이름을 앞에 넣어 불렀던 것이 원칙처럼 굳어 있었다. 그렇다면 강상면의 지명 중 ‘좌곡’ 또는 ‘가좌곡’을 찾으면 위치가 확인된다. 그러나 강상면 어디에서도 이런 지명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와 향토사학자들이 범위를 강상, 강하 2개면으로 확대하여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상면과 강하면의 지명의 변천내용을 세밀히 짚어보다 강상면 세월리의 세심(洗心)마을을 주목하게 되었다. 세심마을은 일명 ‘심벼루’라고 하며 세월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앞에는 파내탄(波乃灘)이라는 여울이 있다. 이 마을에는 ‘장터거리’라는 곳이 있다. 세심 동쪽마을로 예전 강벼루에 배를 대고 숙식을 하며 주막에서 물물교환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내려 온다.

파내탄은 심벼루 또는 켜벼루, 심바라라고도 부르는 세심마을 앞 여울로 하류의 대탄(大灘;한여

울)보다 더 위험한 여울이어서 심벼루나루는 강을 건너는 도선기능은 없었지만 항구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여 많은 배들이 쉬었다가 가던 곳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인근에서 벌채한 장작 등 땔감을 서울로 공급하는 나루 중의 한곳이었고 기름, 소금, 새우젓, 기타 가정에서 쓰는 물품 등이 들어와 하역되어 인근지역으로 이동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50여 년 전 인 1960년대 까지 만 해도 이어져 이 나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색시를 두고 술도 파는 주막집도 있었다고 한다(이상 『양평군지』, 2005, 중권 참조 및 인용). 자연발생적으로 장이 설만한 조건들을 갖추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마을이 (가)좌곡장이 열리던 곳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3) 고읍의 명예를 지키다 끝내 폐지되고 만 사탄시장

(1) 장시연표 : 사탄시장(沙灘市場)

내용	사탄시장(沙灘市場). 매월 3, 8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榘,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榘,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2) 약사

옛 양근군의 읍치인 지금의 옥천면 옥천리에 섰던 장시가 사탄시장이다. 1747년(영조 23)양근군의 읍치는 옥천면 옥천리에서 갈산(葛山, 지금의 양평읍 양근리)으로 옮겼다. 이읍(移邑)이후 동국기에는 갈산장(1.6)과 사탄장(2.7)이 공존했다. 그러나 임원기에 이르러 갈산장은 폐지되고 사탄장은 유지되었다. 이읍에도 불구하고 갈산장은 사탄장에 밀려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탄장은 동국기 이후 100여 년 간 유지되다가 토지농산기 이전에 폐지되었다. 읍내장 또는 양근장으로 부르던 양평읍내장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1960년대초 옥천장으로 개시(開市)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폐지되고 말았다.

4) 양평과 여주 두 고을에 장이 섰던 것으로 기록된 곡수장

(1) 장시연표 : 곡수시장(曲水市場)

내용	곡수시장(曲水市場). 매월 4, 9일 (월6회) 개시. 1909년 조사에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1928년 조사에 매월 4, 9일 (월6회) 개시. 《東國文獻備考》와 《林園經濟志》에는 지평과 여주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음.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2) 약사

양평군내의 장시도 인구의 집중도, 교통 등 접근성, 군이나 읍면소재지·두물머리·용문사 같은 관광지, 지역특산물 등 거래 품목의 다양성,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의 내방 유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평의 장시 중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성시를 이루던 큰 장시로 양평과 여주의 2개 고을에 걸쳐 열려 양평은 물론 인근의 여주와 이천, 강원도일부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여 유명했던 곡수장은 1988년에 폐지된 것으로 양평군통계연보에 적혀있다. 조선후기인 동국기부터 폐지가 확인되는 1988년까지 적어도 12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곡수장이었다. 1910년 당시 양평군수 정원모는 지평의 옛 영화를 되살리려 지평면 소재지에 월하리시장을 개설하면서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곡수장의 4.9일 개시일까지 빼앗아 월하리시장의 개시일로 하고 2.7일로 변경 당했던 수모에도 불구하고 월하리장을 폐지시키는 저력을 발휘하며 건재했던 곡수장이다.

곡수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평과 여주 2개의 고을에 각각 기록된 장시이다. 먼저 동국기에 이미 중복 기록되기 시작하여 임원기, 대동기, 1894년 간행된 『기전읍지(畿甸邑誌)』와 『양근읍지(楊根邑誌)』, 『여주읍지(驪州邑誌)』, 토지농산기 등에 각각 적혀있다.

이름이 같은 두 장시가 아니라 동일장이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동국문헌비고』의 오류이다. 그러나 곡수장이 경계선 상의 한 지점에서 두 군현에 걸쳐 열렸다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장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장시가 세원(稅源)의 하나였고, 주민에게는 흥리(興利)의 수단이었으므로 군현 간 이해관계가 여기에 개입된 듯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동시에 자신의 산물을 내다 파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익뿐 아니라 영리 추구를 위해서도 장시를 유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곡수장은 『경기지(京畿誌)』(1843)와 『경기읍지(京畿邑誌)』(1871)에 지평에서만 개시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1905)에서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 지평에서는 4일과 9일에, 여주에서는 5일과 10일⁵⁾에 장이 열렸다. 이후 자료인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

(1909)에서도 각각 2·7일과 4·9일에 개시, 장날만 바뀌었을 뿐 2일장 형태를 유지하였다. 20세기 초쯤에 곡수장이 두 개의 장시로 분설된 듯하다.⁶⁾

곡수장이 서던 위치가 양평과 여주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어서 정확히 어느 군에 속하는 지역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곡수장이 서던 위치는 양평 땅이 확실하며 양평과 여주로 분설된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1919년 4월 11일 지평면과 개군면민 3,000여명이 곡수장터에 모여 3.1만세시위를 벌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며 양평군내 3.1운동만세시위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시이기도 하다.

인근인 여주 대신면에 대신장이 1955년에 새로 생기고 이전과 명칭변경을 통해 복설을 거듭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던 지평장도 1963년도에 복설되어 활성화되는 등 곡수장시를 둘러싼 여건들이 거센 파도처럼 도도히 몰려오자 결국은 무릎을 꿇고 폐지되고 말았다.

5) 상심시장

(1) 시장연표 : 상심시장(上心市場)

내용	상심시장(上心市場). 매월 5, 10일 (월6회) 개시. 19세기 초에는 심리시장(心里市場)으로 기록.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榘,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榘,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에 섰던 장시. 『동국문헌비고』에 기록된 역사가 깊은 장시로 이 책에는 ‘上尋’으로 적혀있으나, 그 이후의 문헌에는 ‘上心’으로 적혀있다. 임원기에는 심리(心里), 경기1기 이후에는 상심(上心)이라 했으며, 1905년 토지농산기에는 면 이름을 따 남중(南中)이라 했고, 산업기에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06년 이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6) 옛 지평의 소재지에 섰던 읍내시장

(1) 장시연표 : 지평읍내시장(砥平邑內市場)

5) 원문에는 5일과 9일로 기록되어 있음. 5일장이 아닌 개시일은 유래를 찾을 수 없어 4일과 9일의 오기로 보인다.
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지리지종합정보/지리지이야기

내용	지평읍내시장(砥平邑內市場).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1909년 조사에 월하시장(月下市場)으로 개칭하고 매월 4, 9일 (월6회) 개시. 1976년 조사에 지평시장(砥平市場)으로 개칭하고 매월 1, 6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년 9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년 9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서는 전통시장. 지평은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어 양평군이 되기 전 지평군의 소재지였다. 『동국문헌비고』에 읍내시장으로 적혀있으나 임원기에는 적혀있지 않아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경기1기에 다시 읍내장으로 복설되어 경기2기까지 장이 섰다. 그러나 토지농산기에는 이미 폐지되었고 산업기에 양평군수 정원모가 곡수장의 개시일을 빼앗아 월하리시장으로 개시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는 곡수장의 성시에 따라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평장은 복설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1960년대 초에 지평시장으로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등록 전통시장으로 이용객이 적어 폐지위기에 처해있다.

7) 3000여 군중이 모여 3.1만세시위를 펼친 양동시장

(1) 장시연표 : 부연시장(釜淵市場)

내용	부연시장(釜淵市場). 매월 3, 8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소재. 1976년 양동시장(楊東市場).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에 서는 전통시장.

『동국문헌비고』와 『임원십육지』에 부연시장으로 적혀있다. 당시는 지평현의 상동면으로 부연, 석곡, 죽장리 등 3개리 중 부연리에 장이 섰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그 후 경기1기에는 '상동(上東)'으로, 경기2기에는 다시 '부연'으로 되었다가 그 후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의하면 상

동장(1908년 양평군통합이후에는 ‘양동장’)은 폐지된 적이 없다고 한다. 1919년 4월 7일 양동장터에서 3,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고, 양평을 향해 행진하다가 일제의 무자비한 강제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고 한다. 지금의 단석리 장대에 처음으로 장이 섰다가 석곡리 섬실로 이전했고, 1940년 4월 1일 중앙선철도 양동역이 쌍학리에 생기면서 장터도 함께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등록 전통시장으로 이용객이 적어 폐지위기에 처해있다.

8) 노음평시장(老音坪市場)

(1) 장시연표 : 노음평시장(老音坪市場)

내용	노음평시장(老音坪市場). 매월 1, 6일 (월6회) 개시. 19세기 초에는 유평시장(游坪市場)으로 기록.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소재.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東國文獻備考》, 1770;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에 서던 장시. 『동국문헌비고』에는 ‘노음평(老音平)’ 시장으로 『임원십육지』에는 ‘유평(遊平)’ 시장으로 적혀있다. 지금도 비룡장터길이라는 도로명이 있다. 경기1기에는 ‘북면(北面)’ 시장으로, 대동기에는 다시 ‘노음평’ 시장으로 적혀있고, 경기2기에는 또 다시 ‘북면’ 시장으로 적혀있다. 그 후 토지농산기에 청운면 용두리 현재위치에 용두시장이 생기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9) 장날 만세시위를 벌였던 용두시장

(1) 장시연표 : 용두시장(龍頭市場)

내용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년 9월;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朝鮮經濟雜誌》165, 1929년 9월;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년 9월;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朝鮮經濟雜誌》165, 1929년 9월;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1905년 간행된 『토지농산조사보고』에 처음으로 적혀있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서는 전통시장. 경기1기에는 ‘북면(北面)’ 시장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지금의 비룡리 노음평시장을 개칭하였다가 북면이 1914년 4월 1일 군면폐합에 따라 청운면으로 바뀌고, 소재지인 용두리에 장이 서며 ‘용두(龍頭, 또는 용머리장)’ 시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시의 위치는 현재위치를 신장터라 하고 구장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장터의 이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919년 3월 23일(음력 2월 22일) 장날 청운면과 단월면민 200여명이 이 곳 장터에 모여 만세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일본헌병에 의해 주도자가 체포되었다. 현재도 미미하게 장이 서지만 미등록 전통시장으로 이용객이 적어 폐지위기에 처해있다.

10) 늦게 개시하였으나 발전이 빠른 용문시장

(1) 장시연표 : 용문시장(龍門市場)

내용	매월 5, 10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전곡시장(田谷市場)

내용	전곡시장(田谷市場).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소재. (전곡시장의 소재지는 용문면 다문리로 보아야 함; 저자 주)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소재한 전통시장.

장시연표에는 전곡시장과 용문시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와 있다. 장시연표에 전곡시장은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소재”로 적혀있으나 이는 확실한 오류이다. 송현리에는 전곡역이 있었지 전곡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전곡시장이 있던 위치와 현재의 용문시장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 전곡시장의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장대로 흑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화전리에

걸쳐서 장이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임원십육지』에 전곡장은 “縣西十里上西面(현서십리상서면, 상서면은 후에 용문면이 됨)” 이라고 적혀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전곡장은 경기1기와 경기2기에 ‘상서(上西)’ 장으로 명칭이 바뀐 후 폐지되고 만다.

그 후에 용문장이 용문역주변에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중앙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였다. 용문시장에 관한 내용은 1963년도 양평군통계연보에 적혀있다. 용문시장은 늦게 개시하였지만 옛 지평군지역에서는 가장 큰 장시로 발전하였으며, 양평군내에서도 양평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장시가 되었다. 지금은 용문천년시장으로 명칭을 바꿔 등록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11)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양수시장

(1) 장시연표 : 양수시장(兩水市場)

내용	매월 2, 7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の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の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소재한 전통시장.

양수시장에 대하여는 1938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의 시장』에 “양수 양서면 양수리, 2.7, 221,720” 이라고 적혀있어 1930년대에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늦게 개시하였지만 거래액이 221,720원에 달한 것을 볼 때 당시 양근과 곡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장시였다. 이후 여러 문헌에 빠짐없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활발한 장시였음을 알 수 있다.

양수시장은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고 양수역이 생긴 영향과 북한강에 다리가 건설되고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서종면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았고 가까운 양서면 국수리에 국수장이 1960년대 후반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였다. 다만 1992년도 양평군통계연보에는 폐지된 것으로 적혀있으나 주민들에 의하면 양수장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다고 한다.

지금은 양수리전통시장이 공식명칭이며 등록된 시장이다.

12) 단월시장

(1) 장시연표 : 단월시장(丹月市場)

내용	매월 1, 6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소재. 1976년 조사에 폐시(閉市)상태.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에 소재하던 전통시장.

1960년대 초 개시한 전통시장으로 1976년 조사에 폐시(閉市)상태라고 적혀있어 짧은 기간 동안 열리던 장시이다. 인근 청운면의 용두시장과 늦게 개시하였지만 발전이 빨랐던 용문시장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개군면의 장시

(1) 장시연표 : 신은천시장(神恩川市場)

내용	매월 5, 10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 소재.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徐有渠, 《林園經濟志》, 19세기 초

개군시장(介軍市場)

내용	매월 3, 8일 (월6회) 개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주제어	장시(5일장)
출전	金成勳 外,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년

(2) 약사

신은천시장(神恩川市場)은 개군면이 여주관할이었던 때인 1830년 무렵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에 섰던 장시로 『임원십육지』에 적혀있을 뿐 다른 문헌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개군시장은 1963년 개군면이 양평군으로 편입되면서 개군면 하자포리 면소재지에 3.8일을 개시일로 하여 생긴 전통시장이다. 1978년 폐지되어 지금은 장이 서지 않는다.

14) 그 밖의 장시

위에 소개한 장시 외에도 양평군에는 양서면 국수리에 국수(菊秀), 서종면에 서종(西宗), 옥천면의 옥천(玉泉) 등의 장시가 있었음이 1963년도 양평군 통계연보에 적혀있다. 그러나 이 장시들은 다음해인 1964년도에는 폐지되었고 국수장만은 1966년 복설되었다가 다시 폐지되었다.

IV. 맺음말

양평은 경기 동부의 내륙 산간지역임에도 남북한강이 관내를 흘러 강 유역에 30여 곳의 나루터가 있었고, 수로를 통해서 서울과도 하루거리로 가깝고 서울에서 강원도 관동에 이르는 관동대로와 그 분기로 등 도로가 연결되어 수운과 육운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달하였다. 또한 양평군통합 이전에는 양근과 지평으로 나누어져 있어 두 읍치와 주요나루터, 역과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장시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가 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장시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서민들의 삶을 대표하는 만남의 장으로 물품은 물론 정보교환의 현장으로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장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과 거래되는 품목은 물론 그 장소와 시기가 바뀌고 부침(浮沈)과 성쇠(盛衰), 개시와 폐지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과 경기도로 통하는 동부관문인 양평의 장시사는 곧 지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장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자료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지역장시사를 정립하고,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앞으로 보완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표

양평군 읍면별 장시의 시대별 변화

통합이전 군현명칭			양근						지평				여주		
장시소재지 읍·면별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평	용문	개군 (곡수)	
조선 후기	양근·지평통합전	東國文獻備考 (1770)	葛山	佐谷	上尋		沙灘			老音坪	釜淵	邑內 曲水			曲水
		林園經濟志 (1830)		佳佐谷	心里		沙灘			遊坪	釜淵	曲水	田谷	新恩川	曲水
		京畿誌 (1842)			上心		沙灘			北面	上東	邑內/曲水	上西		
		大東地志 (1863)	邑內	佐谷	上心里		沙灘			老音坪	釜淵	邑內			曲水
대한 제국기		京畿邑誌 (1871)	邑內		上心		沙灘			北面	上東	邑內/曲水	上西		
		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1905)	楊根		南中					龍頭		曲水			曲水
		朝鮮産業誌 (1909)	紅門洞							龍頭		月下里 曲水			
일제강점기	양평통합후 (양평군)	朝鮮地誌資料 (1911)	邑內							龍頭		曲水			
		朝鮮の市場 (1922)	邑內							龍頭		曲水			
		市街地の商圈 (1925)	邑內							龍頭		曲水			
		朝鮮の市場經濟 (1926)	邑內							龍頭		曲水			
		朝鮮の市場(1938)	楊根			兩水				龍頭		曲水			
		『통계연보』(1963)	楊平			兩水/菊秀	玉泉	西宗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 (1964)	楊平			兩水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 (1966)	楊平			兩水/菊秀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 (1967)	楊平			兩水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 (1968)	楊平			?7)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 (1969)	楊平			兩水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 (1970)	楊平			兩水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 (1971)	楊平			兩水			丹月	龍頭	楊東	砥平/曲水	龍門	介軍	
대한민국		〃 (1978)	楊平			兩水				龍頭	楊東	砥平	龍門		
		〃 (1988)	楊平			兩水				龍頭	楊東	砥平	龍門		
		〃 (1992)	楊平			兩水				? ⁸⁾	楊東	砥平	龍門		
		〃 (2016)	楊平 ⁹⁾			兩水				龍頭	楊東	砥平	龍門 ¹⁰⁾		

7)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양수리시장은 폐지된 적이 없다고 하나 통계연보상에는 폐지된 것으로 기록됨

8)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용두시장은 폐지된 적이 없다고 하나 통계연보상에는 폐지된 것으로 기록됨

9) 지금의 시장명은 '양평물맑은시장' 임

10) 지금의 시장명은 '용문천년시장' 임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 신경준, 『도로고(道路考)』
김정호, 『대동지지(大東地志)』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지지(京畿誌)』
『경기읍지(京畿邑誌)』
『기전읍지(畿甸邑誌)』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
『여지도서(輿地圖書)』
편찬위원회, 2005, 『양평군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지승(地乘)』
『여지도(輿地圖)』
『광여도(廣輿圖)』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서유구
『1872지방도(地方圖)』
『기전읍지(畿甸邑誌)』
『양근읍지(楊根邑誌)』
『지평읍지(砥平邑誌)』
일본농상무성, 1906,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山口精, 1910,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
조선통독부, 1911,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 서무부 조사과, 1924,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
조선총독부 조사과, 1926, 『시가지의 상권(市街地の商圈)』
조선총독부, 1926, 『조선의 시장경제(朝鮮の市場經濟)』
文定昌, 1938, 『조선의 시장(朝鮮の市場)』
김필래, 2004, 논문「남한강변장시에 유통된 품목 고」
김종혁, 2001, 논문「『동국문헌비고』(1770)에 나타난 한강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양평문화원, 2014, 『양평3·1운동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여 백

우리나라 최초의 장터 수무수(櫛無櫛)장터

이 준 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I. 서론

1. 태상왕(太上王) 이성계는 어찌하여 이곳 왕징면에 머물렀을까?
2. 이성계의 휘하들로 구성된 보부상들
3. 보부상(裸負商)이란 무엇인가?
4. 이성계와 연천, 용궁정(龍宮亭)
5. 보상과 부상들의 기원
6. 보부상 조직
7. 역사적 활동

II. 맺는말

집필자

이 준 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I. 서론

‘수무수(橢無橢)장터’라는 곳은 오늘날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에 세워졌던 장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장터가 바로 조선시대 보부상(일명 등짐과 봇짐장수)의 시조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수무수장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터(오늘날의 오일장)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부상들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국가의 유사시에 동원되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해 왔다.

장사를 하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군사조직으로 돌변하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또 다른 군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말기 1882년에는 대원군에 반발한 민영익(閔泳翊)이 보부상을 이끌고 서울에 침입하려 한 적도 있었다.

조선 태종 2년(서기 1402년) 당시 태상왕으로 있던 이성계는 죽은 두 아들(방번과 방석)과 사위인 이제(李濟)를 위하여 불공을 드리기 위해 왕징면 무등리에서 7개월간 머무는 동안 정파도(澄波渡: 둔발나루, 오늘날의 북삼리 부근)에서 뱃놀이를 하고 각종 향연을 베풀던 곳이 있었으니 이곳이 용궁정(龍宮亭)이고 수무수장터는 태조 이성계의 북행을 돕기 위하여 전국의 보부상들이 모여들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장인 ‘수무수(橢無橢)장터’이다.



용기전

1. 태상왕(太上王) 이성계는 어찌하여 이곳 왕징면에 머물렀을까?

고려말 우왕 14년 팔도 도통사(八道 都統使)최영은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左軍 都統使),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右軍 都統使)로 삼아 요동정벌을 명하게 된다. 요동 출정은 본래 이성계의 본의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출정군은 음력 4월 18일 평양을 출발하여 음력 5월 7일 압록강 하류 위화도

에 진주하였다.

때마침 큰비를 만나 강물이 범람하고 사졸(士卒) 중 환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성계는 군사를 더 이상 진군시키지 않고 좌군 도통사(左軍 都統使) 조민수(曹敏修)와 상의, 요동까지는 많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장마철이라 군량의 운반이 곤란하다는 등 4가지 불가론을 왕께 올리며 회군을 청하였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팔도 도통사(八道 都統使) 최영과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속히 진군(進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이성계 등은 또 한 번 평양에 사람을 보내어 회군시키길 것을 청하고 허락을 구하였으나 평양에서는 역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이 이에 이르자 이성계는 마침내 회군의 뜻을 결심하고 드디어 음력 5월 22일 회군하였다. 이것이 조선의 개국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 위화도 회군이다.

이때 이성계와 조민수는 아래와 같은 4대 불가론을 펼치며 회군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할 수 없다. (以小逆大)

둘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夏月發兵)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다. (舉國遠征, 倭乘其虛)

넷째,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다.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이렇게 해서 회군을 한 이성계는 그 기세로 최영을 귀양 보내고 우왕을 폐한 후 창왕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데 창왕은 허수아비왕일 뿐 모든 군권과 정권은 이성계가 장악하게 되며 그나마 창왕도 폐하고 공양왕을 세웠으나 공양왕 4년(서기 1392년)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이때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를 따라 목숨을 걸고 회군을 감행한 장수 출신들이 바로 보부상이 되어 이곳 연천땅에서 장터를 연 것이다.

그러나 이성계는 즉위 6년만에 다섯 번째 왕자인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방번과 방석 두 아들과 사위 이제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로 인한 상심으로 왕의 자리를 둘째인 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나 앉는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사위를 잃게 된 이성계는 깊게 탄식을 하며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다가 두 아들과 사위의 극락왕생을 위해 처음에는 무학대사가 있던 양주의 회암사에서 불공을 드리다가 소요산의 자재암에서 염불을 하며 약 4개월간 지내게 된다.

그러나 이성계는 틈이 나는 대로 왕징면 징파도(현 북삼리)에서 뱃놀이를 하며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도 정각(亭閣)이 필요하다 하여 태종 이방원의 지원으로 정자를 지으니 이것이 바로 용궁

정(龍宮亭)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성계는 현재 신서면 보개산의 심원사(지금의 원심원사)를 다니며 죽은 아들과 사위를 위하여 역시 불공을 드리게 된다.

당시 태상왕이던 이성계는 왜 하필 이곳 연천땅 무등리에서 7개월간을 머물렀던 것일까? 그리고 왜 전국의 보부상들이 모여들어 이곳에서 장터를 열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 당시 함경도 안변에는 죽은 신덕왕후 강씨(방번과 방석의 생모)의 친척이었던 조사의가 태종 이방원에게 원한을 품고 반란을 도모하려던 시점이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사의의 반란 시점에 맞추어 연천의 신서를 거쳐 철령을 지나 조사의와 합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예비군과 같은 조직인 보부상들은 이러한 이성계를 돕기 위해 이곳 무등리에서 장터를 열며 이성계를 위해 연회를 베풀고 한바탕 놀이도 벌리며 이성계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성계의 명령에 따라 출전할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이성계의 휘하들로 구성된 보부상들

그러나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가 좁은 시골에서 불편하게 지낼 것을 염려하여 당시 왕사(王師)이던 무학대사와 국사(國師)인 돈오를 수 없이 연천으로 보내어 환행토록 간곡히 청했으나 이성계는 오히려 북행을 고집하였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보부상들은 이성계를 돕기 위해 모여들어 수무수장터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 보부상들은 이성계의 명이라면 죽음을 불사하는 결사대들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예비군들과 같은 성격인데 이성계는 이들에게 조선 개국 후 벼슬을 주려하였으나 이들이 벼슬대신 전국의 오조물건(五條物件) 즉 목기, 토기, 수철기 등의 전매권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성계는 이들의 요구대로 오조물건의 전매권을 인정하고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전국의 상권을 움켜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라도 이성계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이다.

3. 보부상(裸負商)이란 무엇인가?

부상(負商)은 무게나 부피가 크고 값이 비교적 낮은 상품을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등짐장수를, 보상(裸商)은 부피가 적고 가벼우며 비교적 비싼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



부상(負商)

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봇짐장수(보따리장사)를 말한다. 요컨대 부상과 보상(褸商)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운송수단에 의해 구분된다.

1899년의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에 의하면 부상의 취급물종은 어물·소금·미역·무쇠그릇[生水鐵]·토기(土器)·목물(木物)·담배·누룩·죽물(竹物)·노석(蘆席)·꿀·마소마리[于馬馱]·땃짐·삼[麻]이고, 보상의 취급물종은 포(布)·백(帛)·면(綿)·릉(綾)·지물(紙物)·주물(紬物)·저속(苧屬)·금·은·동·삼(蔘)·돈피(撒皮)·수달피(水獺皮)·면화·피혁 등이 있다.

태조 이성계가 아들인 태종이 환궁을 그토록 원했어도 왜 이성계는 이곳 연천의 왕징면 용궁정에 7개월간이나 머물러 있었으며 다시 북행을 고집했을까 하는 문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태종실록 2년의 기

록에 의하면 이 해 11월 5일 함경도 안변부사였던 조사의(趙思義)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사의는 이성계의 계비이자 조선 최초의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족속(친척)으로 태종 이방원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조사의는 1402년(태종 2) 11월 5일에 군사를 일으켰는데, 대호군 안우세(安遇世)가 동북면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호군 박순(朴淳)을 보내 이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박순은 함주(咸州)에 이르러 도순문사 박만(朴曼)과 주·군 수령을 회유하다가 군중에게 피살되었다.

호군 송류(宋琉)도 명령을 받고 함주에 이르렀다가 역시 피살되었다. 이 지역은 태조의 수하가 많은 지역이라 태조의 양위에 대한 지역민과 여진족의 불만이 결합하여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란 초기부터 태조의 행적도 심상치 않았고 조사의의 난에 이성계가 관련이 되었다는 설 때문에 진압과 사후처리에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12일에 토벌군을 편성하여 조영무(趙英茂)·이천우(李天佑)·김영렬(金英烈)·이귀철(李龜鐵) 등을 파견했다.

조사의의 군은 고맹주(古孟州)에서 이천우의 군사를 격파하여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들자 반란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김천우(金天祐)라는 자가 잡혀와 정부군의 수가 4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자 두려움이 극에 달해 조화(趙和)가 도망하려고 밤에 군막에 불을 지르고 소리쳐 결국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틈에 관군이 기습을 단행하여 반군을 진압하게 되었다.

이성계는 당시 이곳 용궁정에 머물며 반란을 일으키려던 안변부사인 조사의와 밀약을 했을 것

으로 보인다. 태종실록 2년의 사료에 의하면 징파나루를 떠난 이성계는 철령을 거쳐 안변에서 조사의와 합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킬 조사의와 연통하며 이곳 용궁정에서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태종 이방원은 후일 이성계와 조사의의 음모를 알았으면서도 차마 자신의 아버지가 반란에 가담한 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 조사의의 난이 평정되고 잠시 환궁을 했던 이성계는 또 다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원래의 고향인 함경도 함흥으로 가게 되는데 거듭되는 이방원의 환궁요청과 부탁에도 불구하고 함흥에서 은거하며 돌아오지 않는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서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사신들을 끊임없이 함흥으로 보내지만 이성계는 사신들이 오는 족족 죽이는 바람에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자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함흥차사란 태종이 사신을 보내어 이성계를 돌아오기를 간청했지만 이성계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신을 모두 죽여 버린다. 이러기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였으며 수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서 나온 함흥차사라는 말은 한 번 가지만하면 꺾임 무소식이라는 뜻으로 심부름을 가서 아주 소식이 없거나 더디 올 때 쓰는 말이다.

4. 이성계와 연천, 용궁정(龍宮亭)

태조 이성계가 약 7개월을 머물던 이곳 용궁정(龍宮亭)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태종실록에 이곳 징파나루에서 거(居)한 기록은 남아 있다. 연천향토사료집에는 수무수장거리(楡林場, 楡林洞, 楡淵津)를 화이트교 서쪽에 있는 큰 마을. 예전 마전군 때 임진강 옆 강 언덕에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스무나무숲이 무성히 우거져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부근의 지명은 느릅나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화이트교 위에 있는 큰 소(沼)를 '수무소(楡淵)'라 하였고, 진상리로 건너다니던 뱃터거리를 '수무수나루(楡淵津)', 수무수 위에 있는 임진강여울을 '수무여울(楡灘)'이라, 옛 마전의 여러 지리지에는 적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마전군 때에는 3일과 8일이 되면 큰 오일장이 형성되어 '스무스장거리(楡林市)'라고도 불리었으며, 지산팔경(芝山八景=마전팔경)중 하나로도 꼽혔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전국 의 보부상들이 모여 태조 이성계를 위해 각종 향연을 베풀고 수 없이 많은 잔치를 벌였으니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권흥의 여(女)를 정의궁주(貞懿宮主)로 봉하고 향연을 벌였으며 명나라의 사신 온전과 양령 등 주요 인사들의 잔치와 서울에서 보내온 기생들의 만수가(萬壽歌)와 벽란도(개성)에서 보내진 선단으로 구성된 징파도 뱃놀이, 보부상들이 꾸며 벌이는 농악과 연천 주민들의 농악 및 잔치가 연이어 벌어졌으며 당시 마전 현감의 수연(壽宴) 및 주민들의 특산물 진상 등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태상왕인 이성계를 모시는 동안 태상왕의 쌍용기가 왕징면 무등리에 찬란하게 휘날렸으니 당시 수무수 장터의 위용과 번창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이 갈만하다.

이렇게 왕징면 무등리에서 거하던 이성계는 태종2년 11월 청원군 심종과 예문제학 유경으로 하여금 시종케 하고 동북방면(함경도)으로 가기 위해 임진강을 건넜으며 당일로 용담(현 신서면 와초리)에서 1박(泊)한 후 조사의가 있는 함경도로 떠났다.

수무수장터와 용궁정! 우리나라 최초의 장터가 벌어졌던 곳이며 수무수장터는 각종 연회와 풍악으로 온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은 정자가 없어졌지만 한 시대의 풍운을 몰고 온 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용궁정을 그려보며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본다.

5. 보상과 부상들의 기원

부상의 기원은 고대사회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상단(負商團)이 조직된 것은 조선 초로서 조정에서는 국가대사나 국난위기 때 이들을 수시로 사역하였다. 보상의 조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전국적 조직이 형성된 것은 1879년(고종 19) 발표된 <한성부완문(漢城府完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전부터 지역적으로 정해진 규율과 접장(接長)이 있었고 산재한 조직을 전국적 상단(商團)으로 묶어 소규모 자본의 행상을 규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상과 보상은 별개의 행상 조합으로 성장하였으나 83년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여 통합되었다가 85년에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하면서 부상을 좌단(左團), 보상을 우단(右團)으로 구별하고, 역원(役員)만을 상리국에 통합, 단일화시켰다. 정부에 의한 보호와 관리가 시작된 것은 보부상이 강대한 조직체로 발전하여 정치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6. 보부상 조직



조선시대 장터

보부상조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민주적 투표에 의한 임원선거와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1) 보상: 현존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보부상단 중 상무사우사(商務社右社)의 경우 매년 음력 3월 3일부터 중점(中點)·공사(公事)라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전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였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보상의 성인회(成人會)라고 할 수 있는 요중(僚中)의 임원은 영위(領位)·반수(班首)·공원(公員) 등이 있었고 요중의 산하단체로 동몽청(童蒙廳)이 있었다.

상무사우사 위에는 각사(各社)들을 망라, 통할하는 도점장과 도반수가 있는데 중앙에서 임명하였고 중앙의 임원은 도점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각도 임원의 직인(職印)은 상리국 본국에서 만들어 위조를 예방하였다. 도점장은 소관 도내의 행상을 통섭하고 회원의 수를 파악하였다. 보상회 원끼리는 상부상조와 결속이 강하여 대내적 규율과 대외적 상권보장을 강화하였다. 보상단의 재정은 시장세금·벌금의 징수, 신표(信標) 대금수납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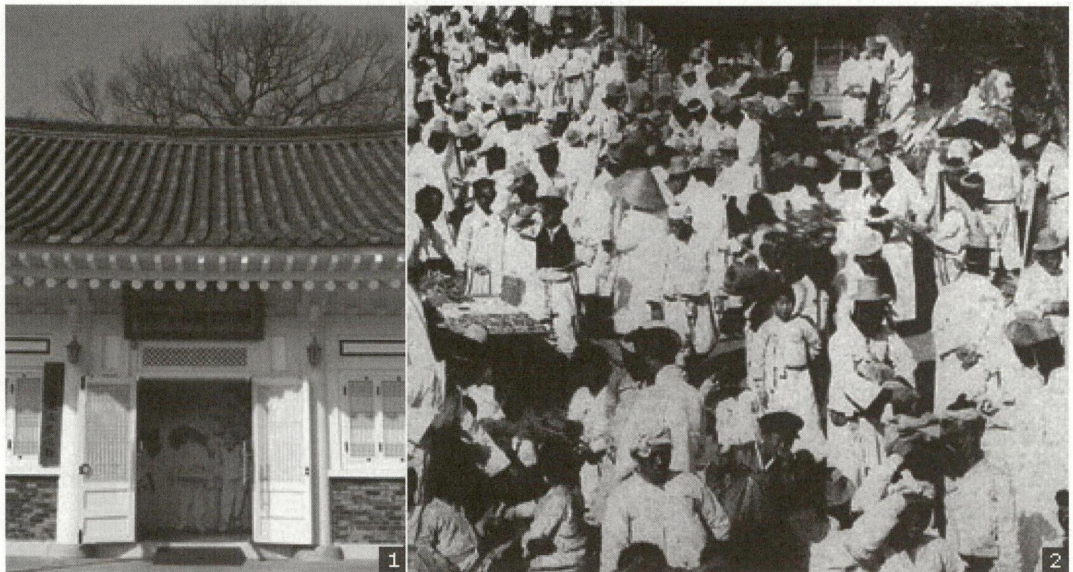
(2) 부상: 천민 출신인 부상은 내적 단결력과 친목이 절실히 요구되어 뒷사람은 아버지처럼 아랫사람은 아이처럼 보살필 것을 신조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도 보호와 대우를 받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어염(魚鹽) 등의 전매권을 주었다. 부상단은 이익공동

체적 상인단체이지만 혈연·정신적 공동체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부상의 임원은 중앙임원과 지방임원이 있는데 중앙은 팔도임방도존위(八道任房都尊位)를 비롯하여, 35명이 있었고 지방임원은 만수·접장을 비롯해서 11~18명이었다.

7. 역사적 활동

보부상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국가의 유사시에 동원되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해 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는 식량과 무기를 운반, 보급하고 전투에도 가담하였다. 정조 때의 수원성 축조 때에도 석재와 목재·철기를 운반, 제련하여 장안문(長安門)을 만들었으며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에는 전국의 보부상이 동원되어 프랑스군과 싸웠다.

1882년에는 대원군에 반발한 민영익(閔泳翊)이 보부상을 이끌고 서울에 침입하려 하자 보부상의 관할이 삼군부·해상공국 등으로 바뀌었다. 한편 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관군에 소속되어 동학군과 격전하였다. 그 뒤에는 황국협회(皇國協會)·공진회(共進會) 등으로 이속되어 통솔되



조선시대 보부상

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보부상 말살기도에 의해 전국의 보부상단이 소멸되어 현존하는 단체는 충청남도의 부여·한산을 일원으로 하는 충청우도 저산팔구 보부상단과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뿐이다.

여 백

오산장(烏山場)의 변천과 장세

남 경 식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목 차

I. 들어가며

II. 오산장의 역사성과 위치

III. 오산장의 거래품목과 장세

1. 오산의 농·어·축 생산물
2. 오산의 생산물과 오산장의 거래물품과의 상관관계

IV. 오산장 내의 지명유래와 전설

V. 오산장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

1. 오산장 독립만세운동
2. 김구 오산장에서의 흔적
3. 1960~70년대 오산장은 활황
4. 오산오매장터를 오랜 기간 지켜낸 업소

VI. 나가며

참고문헌

집필자

남 경 식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I. 들어가며

오산장(烏山場)이 개설된 시기는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 단지 문헌상에 오산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오산장 개시시기를 추정할 수 있겠다. 기록이 남았다는 것은 이미 활성화된 것을 의미하므로 기록 이전부터 오산장이 개설되어 장이 열렸을 것이다. 오산은 1989년 1월 1일에 오산시로 승격되며 독자적인 행정을 펼친다. 시 승격 이전은 화성군, 그 이전은 수원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오산은 독자적 행정단위가 되지 못함으로서 오산이 포함된 행정기록이 거의 없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오산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 자료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포함하며, 자료들의 연관성 속에서 유추가 가능한 것은 유추하며, 오산의 어르신들의 증언을 보태어 오산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오산장의 역사성과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거 오산장의 장세,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물품과 거래량, 상점 업소, 오산장 장소의 이동에 따른 오산장 구역의 변천, 오산장 구역 안에서 채록되는 지명과 유래에 대하여, 장터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 오산장의 미래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오산장의 역사성과 위치

오산장이 처음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1753년 이중환이 쓴 『택리지擇里志』에 나타나는 오산장(鰲山場)이다. 1792년(정조16년)에 발간된 『화성궐리지華城關里誌』에 실린 지도에도 오산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 시기부터 오산장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1863년(철종 14년)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 그리고 1899년 발간된 『수원군읍지』에 오산장이 나와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정식시장으로 개설되었다. 위 문헌 기록으로 유추하면 최소로 따져도 26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오산장은 5일장을 병행하는 상설시장이기도 하다. 장날은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이며, 1937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음력으로, 이후는 양력으로 장이 섰다. 오산뿐 아니라 수원, 평택, 화성, 용인, 안성 등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찾은 것이 오산장 상권의 특징이다. 1911년에 발간된 『한국수산지』에 의하면 그 당시 오산이 행정적으로 속했던 수원군에

는 수원성내장(4일 개시), 수원성외장(9일 개시), 오산장(3, 8일 개시), 발안장(5, 10일 개시), 안중장(1, 6일 개시) 등 5개의 장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오산장(烏山場)은 1900년 7월 8일에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1905년 1월 1일 서울-초량 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산에 시장영업이 개시된다. 경부선이 지나는 길에 수원역, 오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물자의 유통이 상당히 원활하였다. 이 오산장이 1914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는 경기도고시 제 71호와 시장규칙 제 27조에 의해 수원군 성호면에 ‘오산시장’의 명칭으로 성호면을 시장경영자로 지정하였으며, 이때를 시작으로 오산재래시장은 현재의 전통5일장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 오산재래시장은 2010년에는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오산중앙전통시장상인회는 또 다시 2013년 5월,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시장명칭을 ‘오산오색시장’으로 개명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소매시장인 이 오산오색시장은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통5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 오산장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100여m 이전되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본래 오산장 위치의 장세는 쇠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쇠락된 원 오산장터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을 200여 년 동안 불리어오던 지명 오매리(烏梅里), 오매천(烏梅川)에서 오매(烏梅)를 따서 오산



오산장의 오산오매장터와 오산오색시장의 구역

오매장터(烏山烏梅場터)로 재 명명하였다. 오산시는 2013년 8월에 옛 오산장터인 오산오매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공모형 사업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오매장터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를 가지며, 오산장은 260년 전통의 오산오매장터와 100년 전통으로 홍보하는 오산오색시장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오산오매장터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오산오매장터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며, 2018년도까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50억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되는 장터로, 도시 재생사업이 끝나면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젊음의 장터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오산오색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고객으로 활황을 맞고 있다. 마켓 기능을 넘어 관광형 시장으로의 성장이 엿보이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오산오색시장의 고객이 오산오매장터로 확산 이용하게 하고, 오산오매장터의 새로운 고객들이 오산오색

시장으로까지 이용하게 하는 계획이다. 각각의 특징을 장점으로 삼아 서로 윈윈하는 오산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산장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강변로(오산천 뚝방)로부터 남쪽으로는 성호대로까지, 서쪽으로는 오산로(구 1번 도로), 동쪽으로는 오산시민회관 정문부터 성호초등학교 동쪽 담을 경계로 하는 성호새싹길을 경계로 하는 4각형 안에 드는 공간이 오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Ⅲ. 오산장의 거래 품목과 장세

1. 오산의 농·어·축 생산물

오산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인 남부 즉 기전(畿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지역이다. 오산의 생산물이 오산장에서 주로 판매되었을 것이다.

오산은 제1의 농산지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후기인 1896년에 지금의 오산이 수원군 청호면으로 편제되었는데 그 전인 정조 20년(1796년) 청호면에 양향둔(糧餉屯)이라는 둔전을 설치한 것으로 봐선 삼남지역을 오고가는 교통의 요지로서 농사짓기와 수조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 시절 오산을 비롯한 수원 인근 지방의 주요 물산으로는 소금, 황조기, 농어, 진어, 뱀어, 황합, 굴, 낙지 등 수산물만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서해 지역이 인접해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륙지방의 농산물과 해안지역의 어물 교류를 위한 시장으로 장이 열렸는데, 오산장은 역사가 매우 길다.¹⁾

당시 오산을 포함한 수원지역의 한우는 우량역축으로 소문이 나고 고기 맛이 좋아 일본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이 13,000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하며, 당시에 농가 5~10호마다 한우 1마리를 사육할 정도로 축산 열기가 왕성할 때도 있었다.²⁾

오산의 양잠도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특히 오산의 독고리³⁾ 지역이 대단히 번성하였다. 지금까지도 뽕나무를 많이 재배했던 상골밭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며 오산동에도 상골밭이라는 지명

1)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77쪽.

2) 위 책. 479쪽.

3) 현재 오산시 수청동의 한 마을.

이 있었는데, 이곳 역시 오산천변 일대에 뽕나무 밭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오산종합운동장 위쪽과 청학동 주변, 초평들의 천변과 남촌동, 대원동 일대에 많은 뽕나무들이 잔존해 있었다. 그러나 양잠이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가내 주부들의 부업 형태에 머물렀다. 소비처는 오산장이거나 개인이 사용했을 것이다.

오산의 미곡 생산물에 대하여 알아보자. 1922년 당시 오산이 속해 있던 수원군의 전체 농가는 2만 2,581호, 농가 인구는 12만 3,031명으로 농가는 총 호수의 85.5%였는데 전업농은 83%이상, 소작농은 51.6%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중 오산(성호면)의 농가는 1,056호였고, 소작농 비율은 50.6%로 낮은 편이었다.⁴⁾

또한 오산은 전업농 비율이 73.3%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반면 겸업농 비율은 수원군 전체 15.7%에 비해 26.7%로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상업 등 타 업종에서 가게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대 중반 수원군에는 21개면에 277개리가 있었으나 정거장이 있는 곳은 수원면, 성호면의 오산리와 음덕면 화장리뿐이었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몇 곳이 작은 시가지를 이루고 대부분 농촌부락으로서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오산은 이 시기에 이미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1935년 당시 오산의 인구는 수원과 비교하여 불과 2,000여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1936년부터 시작된 오산 지역의 많은 인구 유출은 훗날 도시로의 발전 과정에서 인구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오산지방의 벼 재배 면적은 수원군 전체의 6.2%를 점하고, 당시 오산의 농사는 대부분 일모작이었고, 홍수에 의한 잦은 침수로 황폐된 땅이 많았다.⁶⁾

저지대의 침수와 오산의 낮은 지형인 구릉이 많은 관계로 까마귀가 유난히 많았다.

맥류(대맥, 소맥)도 재배 됐으며, 콩은 질이 좋아 일본의 오사카, 도쿄 등에 수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의 오산은 수원에 비해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작았지만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고장이었다. 화성군시기 화성군의 중심지⁷⁾로 각종 물자의 집산이 빈번해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이 많았는데, 1936년 한 해 오산의 기차 화물량을 보면 쌀의 탁송이 1,627톤으로 수원의 1,653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 이것은 바로 오산 지역에서 생산된 많은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4)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81쪽.

5) 현재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 오산시 인구는 22만 명이다.

6)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89쪽.

7) 화성군청사가 현 오산롯데마트 자리에 있었다.

위한 탁송으로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오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쌀의 중요한 산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산은 낮은 평야지대로 마을마다 벼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몇 개의 들판이름이 있을 정도로 벼농사를 많이 하였다. 인근 주변의 다른 면들도 벼농사를 많이 하여 오산장날이면 벼를 공출하거나 쌀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많은 우마차에 미곡을 싣고 다녔다.

오산 인근에는 우마차들이 쉬는 주막이 생기고, 미곡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싸전시장(미곡시장)과 쌀과 보리를 옮겨 담기 위해 가마니를 팔고 사는 가마니전(가마니, 포대시장)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장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파는 고수막거리가 생길정도였다.

1933년에는 오산곡물상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보리도 기차 운송을 할 정도로 오산 주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1950년대가 되면 오산에도 배와 사과를 비롯한 많은 과수원이 조성되었다. 오산의 소 축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917년 4월 1일에 성호면⁸⁾에 사는 이명삼, 박원서, 원거복, 나화정에게 일제는 보호우를 지정하여 사육토록 하였다. 이들이 사육한 소는 종우로서 오산 지역의 축산 개량에 사용되었다. 당시 오산의 축산은 농가의 부업으로 장려되고 있었는데 오산을 포함한 수원군 지역은 군 당국의 장려책에 의해 급속히 축우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수원과 오산지역의 소는 체격이 중간 정도로 농경과 운반, 식용으로 적당한 품종인데 당시에 고기 맛이 좋기로 일본까지 소문이 나서 일본으로 반출되는 수가 매년 늘었다.⁹⁾

1930년 11월 9일에는 오산에서 특자구우(特資購牛) 품평회가 열릴 정도로 오산 지역의 한우 사육이 번성하였다. 실제로 오산에는 일을 잘하는 소를 많이 기른다는 뜻의 지명인 우촌말¹⁰⁾(소마울)이 있었으며, 인근지역인 진위면에도 우촌말이라는 마을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로 오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한우를 많이 사육했음을 알 수 있다. 오산장에는 우시장이 따로 형성될 정도로 소의 매매 거래가 성했다.¹¹⁾

한편 가축시장의 매매 중개는 축산동업조합이 중개인을 지정하여 종사하게 하였는데, 1922년 4월 그 거래량은 수원시장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오산의 우시장(牛市場)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아주 먼 거리에서 오산 우시장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몰려드는 소들을 먹이고 재우는 마방간이 생겨났으며, 1960년대까지도 운영하였는데, 이곳이 마장터로 지금까지 불릴 만큼 오산지역의 가축 사육과 거래가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지도 농가마다 2~3마리 정도씩 사육되어 오다가 1920년대부터 개량종 버크셔, 요크셔 등을

8) 현 오산시

9)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95쪽.

10) 우씨가 많이 살아 생겼다는 설도 있다.

11)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95쪽.

보급하고 농가부업으로 적극 장려한 결과 오산을 비롯한 수원지역이 우량 돼지의 생산지로 인식되어 각 지역으로 반출되기 시작하였다.¹²⁾

양계업은 이때 급속히 발전하였다. 1914년 양계조합이 조직되고 계란과 닭고기의 개량종 보급에 역점을 두었으며 모범 사육농가에는 우량계를 예탁하고 기술지도 담당자를 두는 등 축산장려 정책에 의해 오산을 포함하여 수원군이 유명 닭 산지가 되었다. 전국 각지로 빠르게 보급된 오산의 닭은 수원군이 축산동업조합을 통하여 종란과 종계를 전국에 판매하여 양계산지로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아래 표). 1924년 11월 2일에는 수원양계조합의 가금품평회를 오산에서 개최하였으며 그만큼 오산 지역이 양계를 많이 하였다.

개량 닭 보급 증식상황¹³⁾

년 도	개 량 종	재 래 종	합 계
1918	3,884	40,898	43,782
1919	4,124	42,017	46,141
1920	6,475	47,386	53,861
1921	11,033	51,462	62,495
1922	23,833	47,128	71,051
1923	55,620	40,120	95,740

양잠도 성했었는데, 1913년 5월에는 청호면¹⁴⁾에는 오산양잠조합을 설립하였고, 그 후 오산지역에 오산공립농업보습학교와 오산공립농잠실수학교를 설립하여 농업은 물론 양잠 기술의 보급과 생산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당시 오산지역에도 양잠업이 상당히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1942년 3월이 되면 조선잠사업통제령을 공포하고 이 법령에 따라서 고치 값을 공정가격제도로 바꾸고 고치의 판매는 공출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니, 이 제도는 강제로 할당량을 과중하게 하여 양잠농가에 큰 부담을 주었고, 광복이 된 이후에도 남아 있어 뽕밭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오산지역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광복 직후 양잠산업은 감소하게 되고, 그 후 인조건의 출현으로 양잠산업이 완전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¹⁵⁾

12)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96쪽.

1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1073쪽.

14) 현 오산시

15)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498쪽.

광복이후 오산의 미곡 생산량은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1960년대 중반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 미곡 생산량은 1970년대 중반 통일벼 재배기간에 최고점에 달한 후 한동안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1989년에는 4,672톤을 생산하였고, 1990년대 전반까지는 절대량의 미곡 생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벼의 품종개량과 재배 기술의 향상에 의한 단위 면적 생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급격한 농지 감소로 쌀 생산량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오산의 벼 재배 면적은 585정보, 쌀 생산량은 2,662톤으로 줄었고 최근인 2013년 1,553톤으로 1989년의 4,672톤의 33.2%에 불과한 실정으로 3분지 2이상이나 줄었다. 현재 오산에서 생산되는 쌀은 세마쌀로 브랜드화 되어 판매되고 있다. 오산의 쌀 재배지도 주택지와 산업지로 바뀌면서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다.

최근 오산의 미곡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¹⁶⁾

연도	합 계			수 도			육 도		
	면적 (정보)	단보당 수량(kg)	수량 (톤)	면적 (정보)	단보당 수량(kg)	수량 (톤)	면적 (정보)	단보당 수량(kg)	수량 (톤)
1989	1,030	454	4,672	1,030	454	4,672	-	-	-
1991	1,030	440	4,532	1,030	440	5,532	-	-	-
1993	1,010	450	4,545	1,010	450	4,545	-	-	-
1995	980	-	4,410	980	-	4,410	-	-	-
2002	696	450	3,134	696	450	3,314	-	-	-
2005	585	458	2,662	577	458	2,642	8	248	20
2013	343	466	1,554	343	466	1,554	-	-	-

2. 오산의 생산물과 오산장의 거래물품과의 상관관계

1) 일제강점기 오산장

16) 오산시, 『오산시통계연보』 1990~2008.

1911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에 의하면 수원의 수원성내장, 수원성외장, 오산장, 발안장, 안중장 등의 5장사에서 이 가운데에서도 오산장이 그 중 물자의 집산이 다대하여 시황이 대단히 번성하였다고 한 것으로 봐선 오산장의 장세는 컸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1914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의 경기도고시 제71호와 시장규칙 제27조에 의해 수원군 성호면에 오산시장의 명칭으로 성호면이 시장경영지로 지정된 이후 상업 거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농업에서 나오는 출산물이 대부분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수원과 더불어 오산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상업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수는 늘어났고 상업종사자 및 거래액도 증가했으며 보험회사와 일반 제조업체가 들어서면서 오산의 경제 사정은 이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당시 상업의 종류를 보면, 금전대출업, 물품대출업, 제조업, 운송업, 창고업, 청부업, 요리점업 등이 상업 종류였다. 당연히 물품판매업의 매출액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의 매출액이 컸다.

수원의 상인 수 및 취급물품(1926년)¹⁷⁾

(단위:개)

집합장소	취급물품별 상인수						
	계	해산물류	곡물류	가축류	직물·사류	잡화	기타
수원성내시장	515	39	59	10	80	194	133
수원성외시장	530	41	63	10	83	196	137
오산시장반월시장	328	32	60	10	40	80	106
남양시장	25	2	5	-	5	5	8
신기시장	90	10	15	10	5	30	20
발안시장	90	10	15	10	5	30	20
발안시장	120	15	20	20	15	30	20
계	1,698	149	237	70	233	565	444

1926년에 조사된 수원지역의 행상인은 모두 1,698명이었는데, 그 중 31%인 530명이 수원성외시장에 몰렸고, 30%인 515명의 행상인은 모두 수원성내시장에 모였다. 그 다음이 오산장, 발안장, 신기장, 반월시장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을 취급 상품별로 나누어보면 잡화를 취급하는 행상인이 555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으뜸이고, 그 다음의 품목으로 직물·사(絲)류 상인으로 238명, 곡물 상인은 237명, 해산물 상인은 1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수원시장의 경제사정을 짐작해 볼 수

17)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587쪽.

있겠다. 수원시장 다음으로 번성을 누렸던 지역이 바로 오산시장이었다. 오산지역의 행상인 328명 중 가장 많은 물품을 취급한 것은 잡화이나 대개 단일 품종으로 보자면 곡물류가 가장 많은 물품이었고 다음으로 직물·사류다. 수원시장에는 직물·사류가, 오산시장에는 곡물이 다른 지역보다 번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지역의 시장상황(1926년)¹⁸⁾

(단위 : 圓, 명)

시 장 명	1년간 거래규모	1시장평균 출장자수	1시장평균 구매자수
수원성내시장	408,171	1,700	1,500
수원성외시장	503,422	2,000	1,700
오 산 시 장 반 월 시 장	238,564	1,000	800
남 양 시 장	21,270	100	90
신 기 시 장	30,360	500	400
발 안 시 장	24,329	400	300
	91,109	700	500
계	1,317,225	6,400	5,290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1910년대에 비해 이 시기에 이르러 신기시장이 더 증설되는 등 수원지방의 시장이 반월, 남양시장보다 상업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에 있는 시장별 연간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개 시장 가운데 오산시장이 23만8천원으로 수원군지역 전체 시장의 연간 거래규모 1백31만7천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성외시장이 50만3천원으로 38%, 성내시장이 31%로 전체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오산은 19%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경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와 금융회사 상황을 보자. 수원에 설립된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1912년에 창고, 금융, 운송업을 주 업무로 하는 수원상사주식회사를 비롯해 이듬해 전기 공급을 위해 설립된 수원전기주식회사 등 1926년 현재 9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점·지사·출장소·대리점들이 설치되었는데 징병보험회사 대리점 1개소, 생명보험회사 6개소 등 모두 14개가 있었다.

이외에 수원역, 병점역, 오산역 등 철도역 부근에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거나 화물보관 등 창고업을 경영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1927년 오산에는 성호면 오산리에 1만5천원의 자본금으로 변용환(邊容煥)을 대표로 하는 오산운수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

18)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586쪽.

1930년에 들어 수원에는 삼괴시장이 증설되었으나 여전히 수원 성내·외장이 가장 번성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오산시장과 발안시장이 버금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두 곳의 시장거래 물품의 60%이상이 가축류였다. 이는 오산장, 발안장, 남양시장이 가축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었다. 1934년 수원지방에 개설된 8개 시장의 소재지와 거래물품 규모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역 시장 소재지·거래물품 현황(1934년)¹⁹⁾

시장명	소재지	연간매매규모(圓)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기타잡품	계	개시일
성내시장	수원읍	29,651	13,000	35,600	404,510	46,500	526,261	9일
성외시장	수원읍	29,876	12,912	38,500	401,115	46,000	528,403	4일
오산시장남	성호면	40,850	5,470	9,160	388,536	25,800	469,816	3·8일
양시장	음덕면	7,570	4,800	12,500	30,005	45,200	100,075	3·8일
발안시장	향남면	20,800	2,560	16,500	111,025	10,100	160,985	5·10일
반월시장	반월면	6,360	480	4,356	181	10,862	22,239	1·6일
신기시장	송산면	3,600	8,940	44,640	44,208	82,560	183,948	2·7일
삼괴시장	우정면	6,500	1,800	4,500	11,200	28,000	52,000	3·8일
계		145,207	49,962	165,756	1,390,780	295,022	2,046,727	

1940년대에 들어서 수원지역의 상업 상태를 조선식산은행에서 발간한 『식산조사월보』에 의해 살펴보면 주요 거래품목은 곡물로 나타나 있다. 이 시기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인력, 물자, 경제력 등의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부문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이 당시에는 일제에 의해 철저한 통제 경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수원지역의 곡물배급은 생활필수품 소매상업조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0년 경기도 식량배급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석탄, 연탄에 대한 판매채규칙이 제정되었다. 1941년 5월 중 수원의 주요 물가동향을 보면 정율(精粟) 1석(石)이 도매가로 29.90원이었고, 조율(粗粟)은 16.50원, 대두는 30.80원이었다. 그리고 이즈음에는 미곡상인 중에서 미곡거래의 두절로 인해 제면업으로 전업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였다. 이때 수원의 제면업자는 12호였고 생산량은 약 12만관에 달하였다.²⁰⁾ 이 모든 거래가 오산장터에서만 거래되지는 않았겠지만, 오산지역의 상업적 거래인 것만은 확실하다.

19)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587쪽.

20)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587쪽.

2) 광복이후 오산장

1945년 이후의 오산은 일제강점기하의 어려움 속에서 광복을 맞았음으로, 우리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또 미군정 실시, 좌우익으로 대치된 정치 상황과 함께 경제사정 또한 혼란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특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곡물이 크게 부족하였다. 1945년에 수원물가운영조합의 결성이 추진되었으며, 1948년에는 매산시장이 개설되었다. 1949년에는 수원군 금융조합의 기능을 일신하기 위해 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수원경찰서에 경제계가 신설되어 경제사범을 단속하는 등 상업분야에 있어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1950년 한국전쟁으로 한순간에 와해되고 말았다. 1949년 8월 수원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이 된다. 이 화성군은 그 중심지를 잃고 또 다른 시장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1950년대는 결국 전후 복구를 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오산도 이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한편, 1952년부터 3월부터 시작된 오산시장의 분규는 1952년 4월 8일 먼저 위치해 있던 구(舊)시장터²¹⁾와는 달리 새장터²²⁾에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상권쟁탈이 시작되었는데, 1953년 4월 28일 쌍방은 새장터는 매 3일, 구시장터는 매 8일에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 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았고 구시장으로 집중되며, 새장터는 시장 형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 우시장만 새장터에 남게 되어 1988년 12월 오산시 승격²³⁾ 직전에 공매되어 남촌동으로 이전되고 끝내는 발안으로 완전 이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오산은 여전히 화성군의 한 읍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어려웠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성군의 상업 사정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 9개까지 개설되었던 시장은 1980년대에 들어서 5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5일장은 상설점포의 증가와 사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1987년 당시 화성군 시장분포 상황은 정기 공설시장이 오산, 남양, 송산, 우정, 향남 등 5곳에 개설되어 있었고, 일반 사설시장이 오산읍에 한 곳이 개설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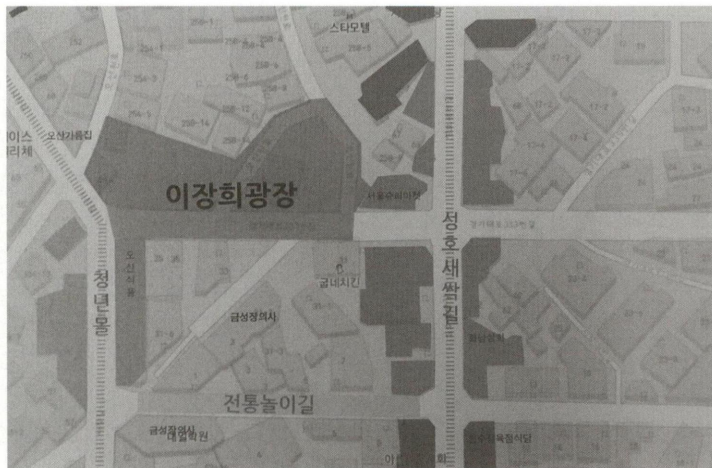
3) 2017년 오산장

(1) 오산오매장터(烏山烏梅場터)

21) 현 오산동의 오산장

22) 현 췌동에 설치된다. 그러나 상인들의 구시장으로 집중되며 와해되며, 우시장만 남았다가 이 우시장도 청학동으로 이전되고 현재는 발안으로 완전 이전되어 소멸되었다.

23) 화성군 오산읍이 1989년 1월 1일에 오산시로 승격된다.



오산오매장터는 시대별로 구축하는 재생사업으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오산시는 2013년 8월 옛 오산장터인 오산오매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공모형사업에 응모하여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과 오산오매장터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하였다. 오산동 354의 4일대 4만 9천977㎡를 대상으로 오산오매장터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설계가 나오고,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

쳐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도로를 정비하고 추억의 음식골목, 오매광장, 커뮤니티센터, 전망대, 공방촌(아티스트 레지스던스), tv미술세트장, 음식골목 등이 조성된다. 세부 사업내용은 앞으로 주민 협의와 실시설계과정에서 수정, 보완되며 정비구역 지정은 순조롭게 이뤄져서 2018년 완공 예정에 있다. 국·도·시비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정비사업은 공공시설물과 도로, 공원 등을 개량·정비하고 주택이나 상가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즉, 재개발, 재사업 방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영역만 개선하고 주택과 상가 정비는 주민들이 맡는 방식이다. 오산오매장터지구는 맞춤형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시작하는 재생사업이므로, 이후 주민과 민간단체, 관 등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0여 차례의 워크숍과 벤치마킹답사를 진행했다. 현재도 오산오매장터주민운영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오산의 지명에서 역사성 유래가 깊은 장터의 이름을 찾았던 것인데 오산오매장터는 이렇게 해서 명명된 것이다.

(2) 오산오색시장(烏山五色市場)

현재 오산오색시장 부지면적은 약 7,000㎡, 점포 수 350여개에 이른다. 시장 외에 아케이드와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데 총면적 750㎡, 지상 3층의 시설이다. 마켓 기능을 넘어 관광성 기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문화거점으로서의 시장이 되는 것을 꿈꾸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13년 1월 시장경영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평

가에서 전국 1,511개 시장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해 내기도 했던 오산오색시장은 전통 시장 평가의 우수한 성적에 의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5일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²⁴⁾

오산오색시장에서 판매 되는 상품은 크게 농산물, 축산물, 어류, 정육(육류), 공산품, 화훼·묘목, 음식류, 가방, 의류, 농약, 미용실, 화장품, 커튼, 기름집, 옷수선, 그릇, 건어물, 분식, 약국, 병원, 한의원, 건강식품, 가구, 화장품, 치킨·튀김류, 신발, 카페, 당구장, 노래방, 목욕탕, 공인중개사, 이불·커튼, 썬크대, 세탁소, 금은방, 슈퍼마켓, 난전 등이 성업 중에 있다. 오산오색시장상인회는 고객이 중심이 되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오산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5일장을 병행하는 상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색시장을 다섯 가지의 색으로 상권을 구분하고 빨강길, 녹색길, 노란색의 미소거리, 주황색의 아름거리, 보라색의 맘스거리를 오산오색시장이라 명칭을 붙였다. 또 식재료골목, 야시장골목, 의류·패션골목, 할인마켓·맘스마켓 골목, 맛집골목 등으로 다시 구분하는 전문화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오색 길별, 골목별로 파악되는 상점들과 오산오색시장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공방이다.²⁵⁾

* **빨강길** : KT, 참사랑약국, 오산가구갤러리, 다울, 초이스, 뭉치숙녀복, 이불개는남자, 파샤, 판따라(2층), 호남식당, 김가영헤어필, 생활용품DC마트, 만나식당, 대영쌍방울BYC, 우리약국, 살롱드공공, 행운식당, 원치과의원, 성모마트, 옷수선, 야호노래방, 용자카페, 발렌타인, 대박당구장, 전남상회, 상아미용실(2층), 황금참치, 황금어장, 연길양꼬치(2층), 듀크, 뭉치신발, 종합가방백화점, 아프리카, 아줌마건어물, 장터국수, 타이라, 쓰담쓰담, 큰곤해물칼국수, 두꺼비분식, 웰빙하우스, 오시날개, 자유시간, 화신상회, 본가금산인삼, 오산건강원, 주노, 가락지, 허흑오리, 소문난멋쟁이, 도깨비식품, 은지헤어투, 헤어센스, 메콩쭈꾸미볶음, 대한어머니회구관장, PINK뭉, 보화숙녀복 백색맛집, 느보아미, 엄지세탁, 청담한의원, 중국식품, 연변특색, 오색커피 치킨카페, 민아화장품, 명동청코너, 누네티네, 이불개는남자, 투엔타, 유미양행, 원경이네, 형제상회 쌍방울, 한양신발, 블랙라인, 모드모드, 한마음구제, 초희옷수선, 민한양행, 윌하우스, 오산떡집, 좋은사람들, 중국식품, 삼성커튼, 친절한상찬씨, 두발두발, 제일떡집, 한신이불, 소영이네수입코너, 연아상회, 서울마님죽, 울산상회, 웰빙먹거리오래, 진희상회, 동원썬크토탈할인매장, 대우떡집, 유니온헤어, 천안상회, 세기이불, BYC동탄란제리, 종합모자가방상사, 트레디, 대성식품, 미니뜨개방, 성애상회, 동희네식당, 김인곤공인중개사, 옷수선, 금적산뽕란, 경신상회, 옛날성신목욕탕, 흙토지, 제성의류, 피어리스, 제성의류, 형제남성복, 구제스토리, 중앙의류알뜰매장, 골목식당, 대성제분소, 평택양말, 보리밥, 힘찬낙지나라, 서울가방, 만나시골밥상, 칼라미용실, 오색시장문화관광사업단,

24) 남경식, 『오산역사문화』, 우리동네사람들, 2013. 238쪽.

25) 오산오색시장 MAP.

엄마손바지락칼국수, 발안패션, 정화웃수선, 대건만물산회, 백인포차, 철원개고기, 의류할인점, 싱크대한인, 영남기름집, 호성상회, 유신인테리어, 수선화다방, 오산쌀상회, 중안그릇.

* **녹색길** : 우천사, 중앙청과, 조아요DC마트(지하), 뽕뽕, 본가한의원(2층), 중앙치과(3층), 대박축산, 세광한의원2층, 데코라인, 제임스딘, 긴급처분, 키다리와총각네, 맛있는빵집, 우리생선, 뷰티라인화장품, 원두막청과, 우리잡곡, 춘가통닭, 털보네가마솔통닭, 부산야채어묵, 너우리순대국, 예사랑한의원2층, 토탈디자인싱크, 우먼로드, 꼭긴청바지, 문전대박닭강정, 오산종합화장품, 하나로축산, Try쌍방울, 장터만두, 두부명가, 한국인삼, 유가네떡, 삼대족발, 영일포장, 오쌀롱, 시장수산, 아담방, 장터순대국, 새서울떡집, 서울왕짬뽕, 옥천왕족발, 신발1번지, 태양수산, 대구상회, 웨미리위윈(2층), 오색할인마트, 대성축산, 남원공예사(오색할인마트 지하), 티각태각부산어묵, 오색축산, 태양축산, 일홍상회, 금강식품, 싱싱야채, 시장약국, 온누리조약국, 성호닭집, 천일상회, BYC, 조일축산, 두부마을, 낙원떡집, 월미도수산, DC아울렛, 창평건강원, 중앙푸드, 청해수산, 우리집밥도둑, 남원추어탕, 우리양념상회, 대광마늘, 생활용품할인매장, 강원정선특산물, 종현농장, 총각네가마솔두부, 용인고추방아간, 대원축산, 동국상회, 153분식, 오색타운, 광명홍두깨칼국수, 종현농장, 만물완구, 대원순대국, 인천상회, 주니어할인음반매장, 장성상회, 신호석커텐장식, 흥성상회, 평화상회, 나주상회, 영광미신, 장수상회, 3450토탈패션, 도씨네홍어, 신토불이, 만나반찬, 부흥청과. (노점은 주로 녹색길에 포함되어 있다.)

* **노랑색미소거리** : 송월타울, 경자네이블, 금옥당, 오산인테리어, 만두즉석김밥, 고향고추방아간, 삼성커텐, 아로마라이프, 윌하우스, 좋은사람들, 오산떡집, 중국식품, 꼬마족발, 거성반점, 시장손두부, 작업복백화점, 오색식당, 시장영동집, 용천각, 서산고추방아간, 두영할인마트, 두영할인마트(정육), 공주고추방아간, 성호열쇠평택고추방아간, 오쌀롱, 시장수산, 한마음의원, 대한민국의류도매센터, 태양유통, 오산수산물도매센터, 로벨로충북계란.

* **주황색아름거리** : 신협, 에이스돈, 제이제이, 민희상회, 정남사, 미소식당, 트레디, 종합모자가방상사, BYC동탄란제리, 천안인삼, 대성식품, 편키즈, 오복떡집, 오산제일김치, 오가사, 칠공주한방족발, 소문난순대국, 현웃수선, 동북건두부, 아름상회, 장터국밥 빈대떡, 개성왕족발, 한양생선, 명동순대국, 제일생선, 민속부침, 시장젓갈·생선, 영우농수산마켓, 미가순대국, 수원상회, 못난이파배기, 춘가통닭, 오산반찬, 진도식품, 오색축산, 금강식품, 등산복숙녀복할인매장, 시장약국, 싱싱야채, 온누리조약국, 일홍상회.

* **보라색맘스거리** : 화남당, 명미용실, 요리공방이구공,종묘농약사, 미용, 돈가스엔도시락, 고향촌, 강원도특산물더덕, 의류할인점, 제일세탁소, 싱크대한일, 철원개고기, 영남기름집, 오산순대국, 해룡국밥집, 보리보리, 촌정육점, 야채할머니네, 시장방아간, 양장웃수선, 진성뼈해장국, 다래

다방, 중국식품, 오색숙웃, 동양그릇백화점, 오색타운, 대원축산, 153분식, 광명홍두깨칼국수,

* **야시장골목** : 야시장골목은 오색시장의 정감 있는 정취 속에서 저렴하고 독특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일상의 먼지를 걷어내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을 판매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의류·패션골목** : 의류, 속옷, 신발 등 패션에 관한 물품들이 모두 있는 거리이다.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 **할인마켓·맘스마켓** : 한 달에 한 번 큰 폭으로 세일하는 할인마켓과 엄마들이 만드는 맘스마켓이 열리는 골목이다. 파격적인 세일 상품들과 오산 엄마들이 만드는 수공예품,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산의 엄마들이 주축이 된 먹거리, 수공예, 체험장터가 열리고 있다. 맘스마켓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마켓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맛집골목** : 아름답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맛집골목에서는 오색시장을 대표하는 국밥, 족발, 보쌈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오색시장 맛집골목은 오색돼지 먹방골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식재료골목** : 오산시의 주방적인 녹색길과 미소거리에서는 신선하고 저렴한 과일, 야채, 정육 등의 식재료들이 있다. 반찬거리를 준비하러 오셨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이다.

* **어서OSHOW** : 매주 토요일 광장 상설무대와 시장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예술공연을 진행한다.

* **야맥축제** : 오산오색시장 야시장에서 즐기는 수제맥주 축제로서, 매주 금·토요일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오산오색시장 빨강길 야시장골목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도 오색시장 야맥축제에 전국11개 부루어리 40종의 맥주와 야시장 음식, 12팀의 뮤지션이 어울리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위기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야맥축제에선 숯불양꼬치, 팟타이, 중국식 닭튀김 등 오색시장 야시장을 대표하는 20여종의 음식과 전국 11곳의 부루어리에서 생산한 40여 가지 다채로운 수제맥주를 선보였다. 뮤지션 12팀의 공연과 부루어리별 양조담당자(부루마스터)가 함께하는 부루어와의 대화, 비어투어프로그램, 전통놀이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 거리도 제공됐다. 야맥축제는 입장료가 없으며, 자유롭게 맥주와 음식을 구매하여 축제를 즐기면 된다.

참가한 국내 대표 크래프트 부루어리 11선은 다음과 같다.

— 까마귀브루잉(오로라, 까마귀)

— 와일드웨이브(설레임, 설레임 와일드, 벨라 IPA, 루비 세종, 올브렛 IPA, 오팔 세종)

— 부루어리304(플루토 블론드 에일, 플루토 페일 에일, 플루토 스타우트)

—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원더풀 IPA-Session IPA, 경이로운 세종-Belgian Saison, 쇼킹 스타우트-Imperial Stout, 판타스틱 페일 에일-American Pale Ale, 새콤한 유자에일-Yuzu Berliner

Weisse, 맑디맑은 바이젠-Weizen, 첫사랑-American IPA)

－ 레비브루어리(레비 위트, 레비 켈시, 레비 엑스트라 스타우트, 레비 레드 IPA, 레비 소라치 에이스, 레비 미 수원)

－ 플레이그라운드(젠틀맨 라거, 몽크 IPA, 마담 화이트 에일)

－ 크래머리(필스너, 바이젠, 싱글홉, 세션 IPA, 크래머리 IPA)

－ 고릴라 브루잉(블론드, 심코 페일 에일, 화이트 IPA, 투머릭 사우어, 고릴라 IPA, 다크 너트 브라운, 고릴라 스타우트, 체리 위트)

－ 굿맨 브루어리(굿맨 서울 라거, 굿맨 서울 포터, 굿맨 프렌치 세종-페퍼민트, 굿맨 IPA, 굿맨 프렌치 세종-레몬 그라스 & 히비스커스)

－ 사계(세종 들꽃)

－ 파이루스(봄비 세션 IPL)

* **이구공** : 이구공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요리와 수제맥주를 배우는 공방이다. 오산시민들과 상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연구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맥주교육과 요리교육을 상시 운영한다. 오색시장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IV. 오산장 내의 지명유래와 전설²⁶⁾

오산장터 안에는 다양한 지명이 존재한다. 오산장에 대한 문헌적 사료가 전무하다시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지명유래를 쫓다보면 오산장의 옛 모습과 장터의 원형을 떠올릴 수 있다.

■ 오산동(烏山洞)(법정동)

오산시의 중심지역이다. 법정동 오산동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동인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3개동에 걸쳐 나뉘어져 있으며 오산시청, 오산우체국, 오산전화국 등의 관공서가 밀집된 곳으로 행정의 중심지이다. 오산시장²⁷⁾을 중심으로 장터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있어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26) 남경식 편저, 『오산시 지명과 유래』, 오산문화원, 2017.

27) 오산장. 현재 오산장은 오산오매장터와 오산오색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수 있다. 예전에는 오매리(烏梅里), 천변동(川邊洞) 등으로 불린 것과 같이 오산천을 끼고 있는 곳이며,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성호면, 오산면, 오산읍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었다. 대원동 관할 오산동의 행정구역으로는 상가지역이 많은 오산동의 남쪽지역과 오산역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 오산천(烏山川)(천)

오산천은 용인시 보개산에서 발원하여 구흥천을 흐르다 화성시 동탄을 경유하여 오산으로 흘러 평택의 항곶포(亢串浦)로 흐르면서, 수원에서 발원하는 황구지천과 합류하여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예전에는 서해의 바닷물이 오산동 일대의 오산천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오산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깊이만 들어가면 갯벌 흙이 나오고 있다고들 전한다.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쯤이면 갈매기가 금오대교²⁸⁾까지 올라와 날며 오산천에서 고기를 낚아채 먹는 것을 필자는 매년 봐왔다. 특히, 옛 지명에 포구(浦口)를 표현하는 위포²⁹⁾, 초평동의 어인포(魚仁浦), 탑동대교 밑 황새포, 원동의 밀머리, 갈곶동의 갯변(강변), 가장동의 배문이 등의 지명이 있는 걸로 봐서 옛날에는 조금씩 정도의 아주 작은 배 정도는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배가 오산천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며 보기도 했다고 한다. 1970년대 초반 해도 오산천은 물이 맑고 깨끗해 먹 감고, 물고기 잡아 오산천 물 떠서 천렵찌개도 끓여 먹은 기억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다. 오산천에는 붕어, 모래무지, 피라미, 메기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했고, 한 가지 흙이라면 맑은 물에 산다는 거머리가 많았다. 장마가 질 때면 오산천이 범람할 것처럼 많은 물이 흘렀다. 한 번은 제방이 붕괴된다고 해서 오산시민들이 대피 명령에 따라 갈곶동으로, 또는 오산대가 있는 청학산으로 피난간 적도 있다. 이러한 오산천은 옛날에도 오산의 중심가를 흘러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산의 젖줄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오산장과는 연결해 있는 천이다.

■ 오산장(터)

오산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오산장이 처음 문헌에 기록을 보인 것은 1753년에 이증환이 쓴 『택리지』에 오산(鰲山)이란 지명이 나오고 또한 오산장이 3일과 8일(당시엔 음력)에 열린다는 기록이 보이고, 1792년에 발간된 『화성궐리지』에 화성궐리사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 오산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장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1863년(철종 14년)에 발간된 『대동지지』와 1899년(광무 3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에도 보인다. 장시(場市)편 청호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3일과 8일(당시 음력 사용)에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늘의 오산장과 같음을 알 수 있다.

28) 오산천에는 상류로부터 금오대교, 은계대교, 오산대교, 오산철교, 남촌대교, 탑동대교의 순서로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29) 은계동. 6.25한국전쟁 당시 미군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오산장의 역사는 최소 260년 이상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명칭은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 불리다 2013년 8월에 오산오색시장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오산오매장터와 오산오색시장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옷말(마을)

오산동의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 희망아파트(희망빌라)가 있는 곳 주변이다.

■ 뒗말(마을)

국도변을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이다. 현 오산장 부근을 말한다.

■ 새터말(마을)

새로운 터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탄말, 사택말, 섯터말, 새텃말로도 불렸으며 예전에 이곳에 참나무 숲이 많았는데, 이곳을 정지 작업하면서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불린 이름이다. 현 성호초등학교와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주변을 이른다.

■ 운암들(들)

오산동과 부산동 사이의 넓은 들판으로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에 의하면 양향둔(糧餉屯 在府南 晴湖面 田畝 36結 45負 5束)이 있는데, 현재의 평수로 계산하면 대략 22만평에서 30만평으로 보아 현재의 운암들로 파악된다. 운암들의 명칭에는 예전에 운암이란 사람이 오산천 제방으로 막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상골밭(밭)

예전에 오산천변 일대에 뽕나무밭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나 현재는 없다.

■ 선둑(마을)

오산천변의 마을로 현재 시민회관이 있는 강변로 위에 있던 마을이나 지금은 없어졌으며, 독방이라고도 불렸다. 오산장의 북쪽 시작점이다.

■ 마장터(마을)

현재의 시민회관 맞은 편 남쪽 마을로 예전에 마구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필자가 본 기억은 1960년대 오산장의 싸전시장 내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 만세거리(거리)

싸전거리 또는 미시장이라고도 한다. 대원약국 입구에서부터 KT오산지점 건너 앞 골목까지의 거리이다. 만세거리로 불리는 곳이다. 1919년도 당시에는 오산장의 우시장이었는데, 오산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발상지이기도 하다. 오산3·1독립만세운동 발상지 표식과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오산장의 싸전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 싸전골목(마을)

싸전시장(미시장)이라고도 불렀으며, 예전의 장터로 주로 쌀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 새터말우물(우물)

새터말의 공동우물로 국도변 새터말 가운데 있던 우물이다.

■ 구장터(장터)

오산의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궐동의 새로 생긴 장터(새장터)에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최근에는 시장의 형성으로 거의 소멸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부터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8년까지 재정비되어 오산오매장터로 다시 부활하는 곳으로 본래 옛 오산장이다.

■ 붓또랑(천)

현재 성호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흐르던 예전의 개천으로 지금은 복개되어 오산오색시장 중심길로 변했다.

■ 소방우물(우물)

국도변에 있던 우물로 예전 오산읍사무소(현재 금성아파트)에서 오산역쪽 200m위치에 있었으며, 주로 방화수로 쓰였고 평소에는 주변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이용되었다.

■ 진전골목(장터)

주로 기름집과 생선전이 섰던 장터 이름으로 현 오산오매장터에 있던 골목이다.

■ 고술막거리(장터)

오산오매장터 구역안에 존재했던 거리로 고수막거리라고도 하였으며, 장터가 좁은 골목에 있었으며 주로 술을 파는 주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골목 주막 또는 주점이 있는 좁은 골목 장터란 뜻이다.

■ 가마니전(장터)

오산오매장터 안에 있던 장터로 주로 가마니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 오산비행장(Osan Air Base 첫 위치)

현재 오산시민회관과 오산종합운동장 자리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의 경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 6·25한국전쟁 발발하고 미군이 물자 수송을 위해 임시 비행장으로 사용한 곳이다. 이때 붙여진 명칭이 지금 평택시 송탄으로 1952년 새로 활주로를 개설하여 이전한 오산비행장(K-55)의 명칭이 되었다. 1960년대 오산공설운동장은 토끼풀이 가득한 단단히 다져진 평평한 초지였다. 염소와 소가 방목되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 은계대교(다리)

1982년에 설치된 다리로 은계동에서 오산시민회관과 오산종합운동장 사이의 국도 1호선 다리로 길이 150.6m이다.

■ 오산대교(다리)

궐동에서 오산동을 이어주는 다리로 길이 136m이며, 1996년에 재 가설되었다.

■ 성호지하차도(차도)

중원사거리(성호대로)에서 경부선 철도를 통과하여 남촌동 성산초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로 연장 216m, 폭 25m로 다리로 1978년에 준공되었다.

■ 운동장사거리(거리)

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 사이의 네거리로 동쪽은 동탄면으로, 서쪽은 오산천을 따라 발안으로 남쪽은 중앙동주민자치센터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로, 북쪽은 수원으로 가는 네거리이다.

■ 군청사거리(거리)

현재는 롯데마트 사거리로 불린다. 롯데마트 자리는 2000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여 남양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화성군청이 있던 곳이다. 1970년에 화성군 청사가 수원에서 옮겨오면서부터 발달한 사거리로 북으로는 수원시, 서쪽으로는 발안, 남쪽으로는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의 변화가이다.

■ 중원사거리(거리)

옛 화성군청(현재 롯데마트)에서 서쪽으로 300m의 거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원시, 남쪽으로는 평택시, 서쪽으로는 발안으로 연결되는 사거리로 근처에 중원백화점이 있어서 붙여졌던 이름이다.

■ 오산동 지하보도(보도)

경부선 철도에 있는 지하보도로 오산동과 남촌동을 이어주는 지하보도이다. 길이가 37m, 폭은 4m이며 1994년에 준공되었다.

★ 운암들 전설(전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오산천에 제방이 없어 장마만 지면 물이 범람하여 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제방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고민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던 과객이 금암리 어느 진사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과객은 구척장신에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과객이 며칠 동안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다 하루는 진사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물어 진사가 오산천 범람에 대해 말하니 과객은 딱한 사정을 듣고는 내가 제방을 쌓아줄 테니 몇 월 며칠 보름날까지 큰가

래를 하나 준비하고, 통돼지 일곱 마리와 술 일곱 동이를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 진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과객의 인물됨이 보통 이상이라 사람을 시켜 수원 광교산에서 큰 물푸레나무를 하나 베고, 수원의 대장간에서 큰 가래 삽을 만들어 소로 끌고 오산으로 왔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에 과객이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는 저녁에 일어나 진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니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른다. 진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너무 궁금하여 마을 주민들과 몰래 숨어서 과객의 하는 짓을 보니 과객은 그 큰 가래를 한 손으로 들고는 오산천에서 일을 하는데 개천의 바닥의 흙과 모래를 떠서는 왼쪽에 쌓고, 또 떠서는 오른쪽에 쌓으니 순식간에 제방이 되더라. 한참을 그렇게 일을 하더니 통돼지 한 마리를 먹고는 술 한 동이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제방을 쌓는데 새벽이 되어 동이 틀 무렵에는 오산천의 제방이 다 쌓여졌다고 한다. 밤새 숨어서 구경을 하던 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피곤하여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산천의 제방은 완성되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더라. 한편, 과객은 밤새도록 오산천의 제방을 쌓는 일을 마치니 동녘에 붉은 해가 떠올라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진사에게 떠나겠노라 인사를 드리니 진사를 비롯한 주민들이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절하고 유유히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한다. 그 때까지 그 과객의 이름을 모르던 주민들은 과객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객이 오산을 떠나 한양을 향해 화성시 동탄면 미륵뎡이를 지나 영천리로 가다가 길 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있어 체격이 크고 몸집이 좋은 과객을 가로막자 돌아가지 않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고는 그 나무에 운암발목(雲岩拔木)이라 써놓아 주민들이 그때서야 그 과객의 이름이 운암(雲岩)인 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때부터 오산천변의 들을 운암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오산의 운암들은 오산동과 부산동 사이의 넓은 들판으로 이곳은 오산의 쌀 생산지 중의 넓은 곳 중의 하나였다. 현재는 운암들의 약 반 정도가 택지로 개발, 운암택지지구가 되어 오산의 중심 주거지로 변한 곳이다. 이곳에 오산시청,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중앙도서관, 오산문예회관, 오산스포츠허브, 오산종합운동장, 오산KT전화국, 대단위 아파트, 상가, 고속도로 나들목이 들어서 있다. 어찌 보면 건조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 때는 오산을 대표하는 쌀 생산지였다. 현재 운암들은 글자 그대로 아파트가 구름처럼 솟아올라 구름바위(雲岩)가 되어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의 오산천이 옛날에는 운암들을 가로질러 하류에서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독이 지금처럼 높고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물길은 지금처럼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전설이 생겨난 배경이다.

V. 오산장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

1. 오산장 독립만세운동³⁰⁾

오산장은 물건만 사고파는 곳은 아니었다. 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정보통의 역할도 했으며,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가능한 집회 시위도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오산장 우시장에서 일어난 오산독립만세운동이 대표적이며, 오산시민들의 애국심이 높게 발현된 자존적 시위이다. 그 당시로 들어가 보자.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일제의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민족말살정책, 수탈정책과 헌병경찰 제도에 맞서 한민족은 분연이 일어나 조국을 되찾기 위해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조선독립선언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 일으킨다. 이 현장을 목격한 오산의 세교동 출신 유진홍은 감격하여 오산에서도 이와 같이 실행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유진홍은 1919년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여하고자 상경해 있던 중이었다. 곧 오산으로 내려와 이성구, 김경도, 이규선, 정규환, 김용준, 안낙순, 공철보 등의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규합되자 의거할 것을 모의하고 각자가 비밀리에 각 동리로 연락을 취할 것을 정하고는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 준비하였다.

오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14일 오산장에서 시작되어 3월말까지 진행되었는데, 일경들의 감시가 심하여 결정치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3월 29일(당시 음력 2월 28일-당시는 음력으로 3, 8일에 오산장이 열렸다.) 오산장날에 거사 일을 정하고 동지들에게 각 동리에 연락을 취하게 하였다.

그러다 3월 25일 오산리의 만세운동이 젊은 학생들과 천도교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 가옥을 파괴하며 전개되었다. 이때 일경이 총을 발사하여 3명의 총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오산리에서 3월 29일 오후 5시경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오산장에 모여 있던 300여명의 군중들을 유진홍(兪鎭弘)과 안낙순(安樂順) 등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끌었다. 이들은 시장에서 출발하여 성호면 사무소와 오산경찰주재소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오산주재소의 순사 오오키(大木喜市)가 유진홍 등 3명의 주동자를 체포하자 안낙순을 위시한 시위 군중들은 석방을 요구하며 기세를 높이자, 이에 기가 꺾인 오오키는 체포한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30) 남경식, 『오산역사문화』, 우리동네사람들, 2016. 130-132쪽.

석방에도 불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의 수는 더욱 늘어 이성구(李成九), 이규선(李圭璇), 김경도(金敬道), 정규환(鄭奎煥), 김용준(金用俊), 유진홍 등이 다시 5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 유진열에게 “만세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니 죽여라.” 하며 투석전을 하였다. 이후 오산우편소를 파괴하고, 일본인 거주지로 몰려가 파괴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에 군중은 더욱 늘어 7~800명에 이르고, 오산역을 파괴한다며 이동하자, 일본 경찰과 보병이 합세하여 발포하자 무기에 대항할 수 없어 해산하게 되었다.

오산지역의 3·1운동은 식민지배기구였던 면사무소, 경찰주재소 앞에서 실력행사를 보여준 것으로서 당연한 우리의 주권을 공표한 것이다. 오산지역에서 야금야금 거주지를 확장하는 일본인들의 지배력을 부인한다는 실력행사였다.

오산3·1독립만세운동의 주모자로 몰려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이며 거의 대부분이 성호면(오산)에 살던 주민들이었다. 이들의 만세운동에 대해 일제는 징역 6월에서 1년 8월까지 형을 선고 했다. 이성구(수원군 일행면, 25세, 징역 1년 8월), 김경도(성호면 오산리, 34세, 징역 1년 6월), 공칠보(본명 공석윤, 성호면 켄리, 36세, 태 90), 이규선(진위군 북면, 25세, 징역 1년 8월), 정규환(성호면 오산리, 25세, 징역 1년), 유진홍(성호면 세교리, 34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낙순(성호면 세교리, 44세, 징역 6월), 김용준(성호면 금암리, 38세, 징역 6월). 이 분들의 직업은 모두 농업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오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처음에는 학생과 천도교도들의 시작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오산장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농민과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오산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빛나는 독립운동이었다.

이 오산장 시위는 발안장 시위와 함께 경기도 지역 전체로 만세 시위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오산의 만세운동이 벌어진 뒤 곧바로 다음날에는 권율의 세마대첩으로 유명한 곳인 독산성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오산지역의 양산동 주민, 산성면 주민 수백 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제히 불을 밝히고 만세의 함성을 소리 높여 일제에 항거한 것이다.

오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진 배경에는 오산지역의 교육열을 들 수 있겠다. 오산은 일찍부터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사립학교인 신명학교가 있었다. 일제는 이 학교를 폐쇄시키고 1913년 4월 1일 오산공립보통학교(현 성호초등학교)를 개교시킨다. 학교가 타 지역보다 일찍 존재한 것은 교육열이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배경은 천도교의 교세가 있었음을 배경으로 한다. 천도교인들이 만세운동에 많이 참여하였음은 이로 알 수 있겠다.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오산지역도 농업적인 경제침탈이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사안도 만세운동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다.



3·1독립항쟁의사추모비, 오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벌인 의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추모비로서 오산역 광장에 세워져 있었다가 현재는 오산대역 앞 아래뜰공원으로 이전되어 있음.

일제의 무단침탈과 억압은 민족의 자존적 존립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으며, 광복한 지금도 남북 분단이란 고착적인 민족의 대립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는 자세에는 이러한 우리의 반성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 기념일이 되어야 하겠다. 당시 오산독립만세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추모비가 아래뜰공원에 세워져있으며, 오산오매장터에는 오산3·1운동발상지 표식동판과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다.

2. 김구 오산장에서의 흔적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 「삼남견문록」에는 오산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날로 동적강(銅赤江)을 건너 삼남지방으로 향했다. 그때 내 마음이 매우 울적하여 승방(僧房)뜰에서부터 폭음을 시작했다. 밤낮으로 계속 술을 마셔대면서 과천을 지나 겨우 수원 오산장(烏山場)에 도착하자 한 짐이나 되었던 노자가 다 떨어지고 말았다. 오산장 서쪽 동네³¹⁾에 김삼척

31) 동네 이름은 잊었다한다. 필자는 오산장 서쪽 동네를 오산시 남촌동의 남촌마을로 보고 있다.

(金三陟)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주인 영감은 천에 삼척영장(領將)³²⁾을 지낸 사람이었다. 아들 여섯이 있었는데, 그중 맏아들³³⁾이 인천항에서 상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관계로 인천감옥에서 한 달가량 고생한 적이 있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몹시 사랑하였는데, 자기가 방면될 때에도 차마 헤어지기 힘든 마음에 뒷날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한 터였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 여섯 형제와 같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며칠을 보냈다. 약간의 노자를 얻어가지고 공주(公州)를 지나 은진(恩津) 강경포(江景浦)에 있는 공중열(孔鍾烈)의 집에 찾아 들어갔다.”

위 기사の内容은 백범의 나이 39세 때인 1914년 인천 감옥으로 이감되고, 40세가 되던 해인 1915년 8월에 가석방되어 출옥한 직후 이야기이다. 그가 가석방되어 오산에 머물던 내용으로 아마도 오산장에서 김동훈 형제들과 오산장 고수막거리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3. 1960~70년대 오산장은 활황

오산오매장터의 오산식품 최병훈사장(75세) 인터뷰 채록에 의하면, 오산장의 시장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한다. 오산천 뚝방에서도 장이 서고, 그리고 오산장 안에는 노점이 무척 많았다고 한다. 그 당시 인근 지역에서도 장을 보러왔는데, 당시 화성 마도면, 비봉면 삼화리, 정남면 문학리, 평택 서탄면, 송탄읍, 용인 천리, 남사면, 안성, 수원, 안양에서도 왔다고 한다. 시장이 너무 활황이어서 소매치기도 많았다고 한다. 소매치기끼리 하는 이야기가 “오산장에서 돈을 못 벌면 그건 소매치기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시장 장세가 좋았다 한다.³⁴⁾

4. 오산오매장터를 오랜 기간 지켜낸 업소³⁵⁾

오산오매장터에는 수십 년에 걸쳐 영업을 이어온 상점들이 있다. 이 업소를 경영한 사장님들은 오산오매장터의 산 증인이다. 오산오매장터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해 알아본다. 채록된 내용을 선별적으로 풀어썼다.

32) 영장은 감영이나 병영에 딸린 각 진영의 무관직 벼슬인 진영장의 준말이다.

33) 국사 원본은 김삼척의 맏아들 이름을 김동훈이라고 적고 있다.

34)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오산학연구2』, 오산향토문화연구소, 2016.

35) 『오매장터 보고서, 오매장터 이야기』. 오산시, 2015.

1) 오산할머니집

4대 전통의 설농탕집이다. 오산시의 맛집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설렁탕집(소머리국밥집)인 오산할머니집은 문을 연지 70년이 넘는 식당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질박한 짬배기에 뽀얗게 우러난 장터의 국밥은 바로 우리 전통시장인 오산오매장터의 대표적 식당이다. 오산과 이웃지역의 주민들이 5일에 한번 나와 물건을 흥정하고 사며, 장에 나온 김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잔 들이키면 허기진 속을 채우고 입담 정겹게 농치고 먹고 마시던 영락없는 시골잔치집에서 먹던 국밥인 것이다. 오산 할머니집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말경인 1943년 쯤에 1대 이일봉할머니 때 <신진옥>이란 상호로 식당을 연 이후 며느리인 조명분(1903~1987)할머니가 2대 할머니로 이어받아 본격적인 부흥을 이룬다. 이때 상호도 1970년대에 <오산할머니집>으로 변경했다. 조할머니는 음식 솜씨는 물론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걸쭉한 입담과 친근하면서도 회초리 같은 욱을 섞어 단골들을 휘어잡으며, 또, 손님들은 할머니의 이러한 입담과 욱을 구수하게 받아들이는 정감 있는 식당으로 모두들 기억한다. 이러한 조할머니의 며느리 송옥순 할머니가 3대째 식당을 운영하셨다. 지금은 고령이라 며느리인 박명희 여사가 4대째 식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경기도 지정 대물림향토음식점이기도하다.

2) 보건의약방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실향민 출신 김종연님이 운영하는 약방이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일 자리를 찾아 1945년 해방 무렵에 단신으로 월남했다. 이때 나이가 15살이었다. 서울에서 3년간 일하다 1948년 5월에 오산으로 내려왔다. 오산에서는 북한 사람으로 정착한 1호 실향민이었다. 6·25를 겪고 나서 1951년 화성군 보건소가 개소하면서 이곳에서 6년간 일했다. 그전에는 의료시설도 없고 약국도 없었다. 의료인도 부족할 때이니까 진료도 하고 예방의학도 했다. 1956년에 보건의약방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59년이 된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오산까지 왔는데, 분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는 생각도 못했단다. 어릴 때 배고프고 추워 고생한 아픔이 커서 이웃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으로 봉사와 나눔을 시작했다. 1975년부터 국제로터리 활동을 시작하고 오산로타리클럽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다. 한 150여명을 후원했다 한다. 이 후원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지금은 모두 잘 되었다고 한다. 해외에도 매달 기부하고 북한에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의약품 지원을 한다. 요즘은 밤 열한시나 열두시까지 약방문을 열어두고 추가 수익금은 기부하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산오매장터의 추억은 장날이면 약방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을 사갔다고 한다. 정남, 발안, 향남, 서탄, 영인, 태안 등 오산 이외에서도 환

자들이 줄을 섰었다. 소매치기도 많았다 한다. 장날이면 오산오매장터가 무척이나 붐볐기 때문이라 한다.

3) 정가네국수

정승영사장이 정가네국수 창업자이다. 1976년 송탄에서 오산으로 와 오산오매장터에서 국수 공장을 하게 됐다고 한다. 40여년의 역사를 갖는 업소이다. 현재는 아드님, 따님 이렇게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근면함과 정직함은 바로 정승영 사장의 인생관이다. 단골들이 주로 찾는 국수공장이다. 최고의 품질이기 때문이다. 단골도 대를 이어 사러오기도 한다고 한다. 원래 오산이 고향인 정사장은 송탄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 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 가까운 친척 분의 권유로 고향인 오산에서 다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오산오매장터에 처음 왔을 때에는 지금의 공영주차장, 이 자리에는 집들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노인정 자리³⁶⁾에는 상가들이 빼곡이 있었다고 회상한다. 정사장이 이사 왔을 당시 삼형제가계라고 포목점이 있었고, 포목점이 총 3군데나 되었다 한다. 금성상회라는 양복점도 있었다고 하며, 송씨네라고 고무신가게도 있었다고 한다. 이 부근 모든 지역이 상가로 꽉 찼다고 한다. 장날이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 많던 사람들이 없다며 아쉬워한다. 국수 공장은 1976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공장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는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아무 것도 없이 맨 몸으로 와서 무척 고생했다고 한다. 국수 공장이 자리 잡고 장사가 제법 되기 시작한 때가 1980년대부터였다. 이때는 주식이 국수일 정도로 밀가루 제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을 시간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한다. 그것도 지금은 쌀이 주식이라 매출이 확연히 줄어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라고 기쁜 미소를 보인다. 당시는 쌍용제면이라는 상호였는데, 쌍용그룹에서 운영하는지 알고 기부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도 한다. 지금은 현 상태에 만족한다고 한다. 사람 욕심이란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며 만족해한다. 처음 시작할 때 자부심은 없었지만 늘 열심히 만들었다고 한다. 언제든 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게 장가네국수 맛의 비결이라 한다.

4) 금성장 의사

한 세기에 가깝게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해 왔다고 한다. 금성장 의사 대표 김영호 사장은 평소에 취미로 아코디언, 색소폰, 기타 연주와 스포츠를 즐기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봉화 1

36) 오산오매장터 재생 사업으로 이곳은 이장회공원(세시봉공원)으로 편입되고, 노인정은 인근으로 이전된다. 노인정 자리는 한때 미시장이기도 한 곳이다.

봉송주자로도 활약하였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자와 오래된 미싱 등 오래된 물건들이 많다고 한다. 아버지가 1950년부터 가업을 이었는데, 김영호 사장은 1975년부터 돕기 시작했다고 한다. 40여년이 지나고 있다고 한다. 집안이 3대에 걸쳐 주단포목과 잡화 판매부터 시작해서 장의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3대에 걸쳐 근 10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노른자 땅이었다. 오산의 명동이다. 한 예로 예전에는 오산에 전화가 100번까지 밖에 안 나왔다. 전화교환사가 있었던 시절이다. 100번은 우체국 전용 번호였고, 1번부터 99번까지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 골목에서 살았다 한다. 부자들만 살았던 골목이었다. 그 당시 금성장 의사 전화번호가 43번이었다. 또 그 당시에는 여기 주변이 오산오매장터 빼고는 다 허허벌판이고 논밭이었다 한다.

5) 협동방앗간

오산오매장터에서 영업한 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 이 곳에서 영업을 해왔다. 그 이전에는 저 위쪽 편 노인정 자리에서 했다고 한다. 거기가 옛날 싸전이었다. 1970년도 일 것이다. 정직하게 운영하므로 손님들도 믿고 다 맡겨놓고, 다 만들어간다. 속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맡겨놓고 찾아만 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단골들로 잘 운영되고 있다. 시어머니 김윤석사장과 며느리 안현순님의 호흡으로 명성을 이어간다.

6) 생선가게 화신

옛 오산오매장터의 황금기 때 어물전은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 제사, 잔치 등도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시절이라 생선은 필수품이나 같았다. 화신의 조태복사장도 6·25이후부터 시작했다.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아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 6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이다. 그 당시 오산오매장터는 가장 큰 시장이었다고 기억한다. 오산오매장터 내에서도 뒷골목에 있던 진전 골목이 생선, 건어물도 파는 곳이었다. 진전골목은 노점이 서고 포장마차에서 국밥을 끓여서 팔고 그랬다. 그 당시 송탄, 서정리 그런데서 순대국을 파는 상인들이 부대의 소시지, 햄과 돼지 부속물들로 끓인 꿀꿀이죽을 포장마차에서 팔았다. 그러면 오산장에서 시장을 본 분들이 한 그릇씩 사먹곤 했다. 그 당시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었다. 그 당시 육류 섭취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에 한 번씩 꿀꿀이죽을 사먹고, 생선은 사가지

고 갔다. 그 당시 노인정 자리가 미시장, 즉 싸전거리였다. 첫 미시장 위치³⁷⁾는 현재 한흥철물 뒤 편이었으나, 그 후 노인정 자리로 이전된 것이었다. 이곳이 오산오매장터의 중심이었다. 생선장사 등 무슨 장사든 모두 옛날엔 모두 힘들었다. 그런데 생선장사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음공급도 원활하지 못했기에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는 판매량의 반은 변질된 것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소금이 있어 다행인 시절이었다. 물건이 변질되기 전에 소금에 절여 판매했다. 젓갈도 판매했다. 특히 새우젓은 모든 음식에 간 맞추고 하는데 썼다. 생선구이 냄새는 그 당시 시장에 시장 끼를 들게 하는 군침 나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이제와 돌아보면 꿈같은 시절인지라 짝하다. 그래도 오산오매장터는 참 좋은 곳이었다. 오산의 부지는 모두 오산오매장터에 살았어요. 부를 가져다 준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열악한 곳으로 바뀌었다. 상권의 변화에 따라 부의 이동도 함께한 것이다. 예전에 여기서 장사하고 살던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신다.

7) 한흥철물

한유석사장은 현재 한흥철물을 총괄하고 있다. 철물점을 시작한지는 한 50년 정도 되었다. 1960년대 말에 시작했다. 현재 이 자리에서만 30년이다. 아버님 것을 이어받고 아들까지 하고 있으니 3대째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장날에는 소매치기도 많았고, 사람들끼리 뽐벼서 서로 비비고 다닐 정도로 무지하게 많았다. 왜냐하면 오산에서 상가는 오산오매장터 밖에 없었다. 옛날에는 장돌림들이 마차에다가 짐을 꾸려 가지고 와서 물건들을 장터에 편다. 그때는 마차에 짐을 있는 대로 모두 싣고 마차를 끌게 해 말이 불쌍해 보였다. 말이 비틀비틀 거리며 가고오고 했다. 옛날에는 이 근방이 모두 논밭이어서, 가을이면 타작도 했다. 현재 운암지구가 그 당시에는 모두 논이었는데, 메뚜기도 많아서 많이 볶아 먹기도 했다. 논에 있던 물을 빼면 미꾸라지, 새우도 많던 시절이었다. 그것 잡아다가 된장, 고추장 넣고 끓여먹던 기억도 모두들 가지고 있었다. 오산오매장터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농사도 짓는 상인들도 많았다. 옛날에는 여기 오산오매장터 재건축택들이 미군지원을 받아 잘 지은 주택에 속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주택들이 2, 3층 건물들로 바뀌어 건축되면서 오산이 발전한 것이다. 오산에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도 점점 커져 현재는 오색시장 자리이지만 어시장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양복선씨가 운영하던 어시장이었고 도매업을 하였다. 그렇게 오산오매장터가 현재의 오색시장으로 옮겨 가게 된 것이다. 지금은 송탄으로 옮겨간 오산공군기지도 원래는 오산오매장터 북쪽 편 오산공설운동장에 있었다. 그런데 장마만 지면 자꾸 침

37) 1919년 당시에는 현재 한흥철물 뒤편이었다.

수되고 하니까, 현재 오산미공군기지(k-55 Osan Air Base)로 이전해 간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있던 활주로에 공군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그랬었다. 이 제방 뚝에서 헬기 같은 것이 추락해서 모래사장에 쭈셔 박히는 사고도 나고 그랬다 한다. 여하튼 장마만지면 잘 침수되었다.

8) 만복상회

만복상회는 오산오매장터에서 문을 연지 60년이 넘는 가게이다. 만복상회 박종선사장은 아버지가 6·25 후부터 오산오매장터에서 시작하신 어물전에서 오늘날의 만복슈퍼까지 오산오매장터를 지키고 있다. 장사를 시작할 당시 장터에는 6·25이전부터 어물전을 하고 있던 상인이 세 명 있었는데, 오산오매장터에는 가게라고 부를만한 점포를 가진 곳은 네댓 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오산오매장터 하면 3, 8일에 장이 서는데, 보통 넓은 마당에 장돌림들이 짐을 풀어 놓고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장터에 점포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국밥과 국수도 장날 장이 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만 했다고 한다. 장터의 국수는 비교적 저렴하여 많이 사먹었다고 한다. 1980년대까지 오산오매장터의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는 장날의 수입으로 나머지 날의 수입을 메웠다고 하는데, 장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상상이 간다. 오산오매장터는 예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장터였는데, 당시에는 길이 많지 않았기에 어물전과 싸전을 가르는 길이 오산오매장터의 중심이었다. 1978년에 착공한 산업도로(38)가 1981년에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자 1980년대부터 주변으로 길이 나기 시작했다. 또, 버스정류장이 새로 난 길에 생기면서부터 유동인구의 시장 유입이 분산되면서 오산오매장터 중앙로로 다니게 않게 된 것이다.

9) 오산식품

오산오매장터에서 3대에 걸쳐 가게를 운영하였다. 60년이 넘는 기간이다. 현재 어머님 최병훈님, 아들 김유훈사장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 오산식품의 시작은 원산에서 사셨던 할아버지가 6·25이후에 오산으로 이주 오산오매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다. 처음에는 노점형태로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지금의 오산식품이 되었다. 오산식품이 있는 곳은 오산오매장터의 중심이었다. 장날이면 대단했다. 오산식품가게에서는 전통잔치와 모든 상차림의 물품들을 판매했다. 장날이면 줄을 서서 사가지고 갔다. 김유훈사장도 아버지를 도와 소매부터 하다가 지금의 도매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제는 경조사 모두를 집 밖에서 치루면서

38) 현 1번국도, 경기대로.

식료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변하여 김유훈사장도 자식에게 물려주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곳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 3대째 가업이기도 하고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곳을 지키고 있던 분들이 한명, 두 명 자꾸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상황이 어려워져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10) 제일정미소

이경희사장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일정미소가 영업한지는 60년이 넘는다. 할아버지는 정남분인데, 오산으로 오셔서 정미소를 시작하였고, 그후 아버지가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는 이경희 사장도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오산 주변이 모두 논밭이었으므로 정미소가 여러 군데 있었다. 정미기도 예전에는 6, 7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3대만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벼방아로 시작했으나, 아버지부터는 떡방아와 국수도 시작하였다. 명절에는 떡하고 국수를 많이 했다. 정미기의 압축을 강하게 하면 떡과 국수를 만들 수 있다. 방앗간이 잘 되었으나 지금은 벼방아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미소의 운영이 어렵다. 주위 논밭이 없어져 주택지로 바뀌면서 찾는 손님이 적은 것이다. 요즘 전업을 고민하고 있다. 제일정미소는 정미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의 체험의 장소로도 좋은데, 영업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VI. 나가며

오산장은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수원의 수원장과 함께 큰 축을 이루는 수원 남부의 큰 장이었다. 일찍이 교통이 발달하여 삼남대로의 청호역이 있던 곳이며, 이러한 지리적인 유리한 점은 오산이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맞게 되는 계기로도 이용되어진다. 경부고속도로가 개설될 때에도 톨게이트가 우선적으로 설치된 곳인데, 이러한 사정은 바로 배후에 군사기지와 서해안 대외 교역의 큰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오산장이 문헌상 260여년이 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 오래전부터 장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산의 농산물 생산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축산물 등도 수출을 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생산물의 대부분은 오산장에서 소비되었을 것이다. 현재도 오산장은 경기 남부의 큰 장으로 장날이거나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는 마켓기능을 넘어 관광형 형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역사적인 스토리가 풍부한 상권이어서 체험의 장소로도 환영받고 있다. 또, 오산시 당국의 지원과 오산장 상인단체 등의 오산장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일층 더해짐으로 해서 오산장의 앞날은 매우 밝다. 특히 젊은이들이 오산장 상권의 판매주체로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창의적인 마켓 기법, 관광을 결들인 역사스토리가 있는 시장, 예술과 공연 등 문화가 숨 쉬는 상권으로의 확장, 상품 구입자를 위한 전문화 구역 구획 노력, 오산 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시민들도 오산장의 주 고객으로 하는 상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오산오매장터의 재생사업이 끝나면, 오산오매장터와 오산오색시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완전한 형태의 오산장이 되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는 오산장의 면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 인식을 반영하는 마케팅, 고객에 대한 친절, 정직한 상도의를 바탕으로 한 판매, 그리고 질서 있는 판매망 등을 두루 갖춘다면 오산장 미래는 탄탄한 번영을 이어가는 경기 남부의 최고 상설5일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2권』, 2009.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 남경식, 『오산역사문화』, 우리동네사람들, 2013.
- 남경식 편저, 『오산시 지명과 유래』, 오산문화원, 2017.
-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오산학연구2』, 오산향토문화연구소, 2016.
- 오산시, 『오산시통계연보』, 1990~2008.
- 남경식, 「향토사 이야기, 4대 전통의 오산할머니집」, 『오산문화62호』, 오산문화원, 2017.
- 오매장터주민운영회, 『오매장터 보고서, 오매장터 이야기』, 오산시, 2015.
-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2.
- 오산오색시장 MAP. 2016.
- 오산시 설치 지명유래 표지판.
- 사진, 남경식.

여 백

경기물산의 중심지, 의정부

-경기북부 물산 유통의 중심지, 의정부-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목 차

I. 들어가며

II. 지방장시의 형성과 발전

1.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장시, 5일장으로 발전
2. 보부상이 장시 연결 활동, 일부 상설 시장화

III. 의정부지역 시장의 역사적 발전

1. 조선후기 물산 유통의 중심지, 의정부 누원점
2. 전통장시의 체취와 현대시장
3. 경기북부 경제유통의 중심지-경기북부 상공회의소

VI. 끝내며

※ 참고문헌

집필자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I. 들어가며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수도 관문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교통의 중심지’라는 문구의 압축적이면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43만 시민모두의 정서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기 남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경기 북부의 여타주민과 시민의 시각도 함께 드러난다.

의정부시는 서울 북쪽의 관문 도시이자 경기 북부의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의 요지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현 의정부의 철도·국도·지방도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경원선 철도와 평화로가 시가지 남북을 가로지르고, 교외선 철도가 도봉산 서쪽 기슭을 감싸 돌며, 43번국도가 천보산 분수령을 넘어 포천과 철원 방면으로 연결되는 등 예로부터 한수 이북의 심장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왔다.

여기에 경기 북부에서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되었다는 점,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까지 감안하면 위의 문구가 과장이 아니라 실제적 조건에 기반을 둔 시민들의 자부심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시(場市)는 조선시대에 정기적으로 개설된 시장이다. 장시란 어용상인 시전과 구별되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한성에 천도한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시전 외에 여러 곳의 특정 지역에서 일반 물화(物貨)와 미곡(米穀)·우마(牛馬) 등의 교역을 위한 장시가 열렸다.

지방에서는 특히 삼남(三南) 지방에서 기근과 재난이 장시 형성의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는 과중한 부세와 군역을 피하여 이농(離農)하는 농민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장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게다가 농본억상적(農本抑商的)인 사상도 작용하여 국가의 금압을 받았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여러 소도시에서는 정기적인 장시가 개설되어 이 관행(慣行)은 법제화되었고, 지역마다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방장시의 형성과 발전사를 살펴보고, 경기북부 의정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시의 변천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 대한 이야기도 서술하고자 한다.

II. 지방장시의 형성과 발전

1.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장시, 5일장으로 발전

전통시장은 조선 시대의 상업형태로 알고 있지만, 실은 고려시대에도 시장의 기능이 있었다. 다만 서울의 시전과 난전을 비롯해, 중기 이후 각 지방에 개설된 장시로 인해 전통시장이 조선조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장에 서는 상설 점포 외에도 보상(褸商)과 부상(負商) 등의 행상과, 후기에 등장한 도고(都賈)와 명, 청과의 국제 무역 등의 다양한 장시가 있다.

우리나라에 시전이 처음 설치된 것은 조선 조 태종 때부터이다. 서울의 종로통에 행랑이라는 관에서 주도하는 상가를 만든 것이 시전의 효시로 본다. 관에서는 이러한 점포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대여해 주고, 그들에게서 점포세와 상세를 징수하였는데, 점포세는 행랑세, 상세는 좌고세라고 불렀다. 이 시전은 궁중과 관부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었는데, 주로 독점적인 상업이었다.

장시(場市)는 조선시대에 정기적으로 개설된 시장을 말하며, 장시란 어용상인 시전과 구별되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한성에 천도한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시전 외에 여러 곳의 특정 지역에서 일반 물화(物貨)와 미곡·우마(牛馬) 등의 교역을 위한 장시가 열렸다. 지방에서는 특히 삼남(三南) 지방에서 기근과 재난이 장시 형성의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는 과중한 부세와 군역을 피하여 이농(離農)하는 농민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장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게다가 농본억상적인 사상도 작용하여 국가의 금압을 받았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여러 소도시에서는 정기적인 장시가 개설되어 이 관행(慣行)은 법제화되었고, 지역마다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성종실록』 권 27에는 성종 4년 2월에, 「상설 상점의 설립은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경인년(1470년)에 흥년이 들었을 때 전라도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 상점을 열었는데, 그 이름을 장문(場門)이라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의존하였으니, 이는 바로 삼남 지방에 상점이 만들어질 기미였다. 호조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방 수령들에게 물었다. 그때 수령들이 그 이해관계를 잘 살피지 않고 전에 없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이를 막고자 했다. 나주목사 혼자만이 이를 금지시키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호조에서 금지시키고 말았다.」라고 적고 있다. 곧 전라도에서 흥년이 들어 처음으로 장시가 열렸다는 것이다.

『명종실록』 권6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명종 2년 9월에 이황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전에도 흥년이 든 해에는 장시를 금지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곳을 토대로 하여 생활하게 함으로

써 위급을 면하게 하였다. 지금 흉년을 당하여 장시를 모두 금지시키면 백성들이 입는 피해가 클 것이니 금지령을 철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적어 흉년에 백성들이 서로 장시를 열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백성들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장시의 형태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역마다 정해진 장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장시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는 5일장이 일반적 형태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10일장과 3일장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일장은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체로 하루에 걸어서 왕복할 수 있는 30리 내지 60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전국에 별집모양으로 흩어져 분포함으로써 거의 상설시 효과가 있었다. 장시는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서로 교환하고 보부상이 물화를 판매하는 교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산물의 집산지였다.

이는 한 군현에 평균 3-4개의 장시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려서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 등을 교환하였고, 보부상이라는 행상단이 먼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았다.

그러나 장시는 시장의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음식을 즐기며, 각종 놀이도 구경하는 축제 장소이기도 하였다. 장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가 상설시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 대형화해 가는 동시에 전국적인 시장권을 확대해 갔다. 특히 항구를 낀 장시에서는 대규모 교역이 행해져서 도고업과 위탁판매·창고·운송·숙박·은행업 등에 종사하는 객주(客主), 여각(旅閣) 등이 나타나고, 거래를 붙이는 거간(居間)도 생겨났다. 그리고 한양 부근의 송파·칠패·이현·누원(樓院) 등의 상인을 상대로 하는 중간도매상이 나타나 이들을 특히 중도아(中都兒)라고 불렀다.

1)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

근대적 의미가 아닌 옛날의 시장은 설비·조직·자본면에서 그 영세성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 시장이 있었기에 상업이 발달했고, 상업의 발달이 상공업의 발달로까지 연계되어 시장에 대한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옛 부터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상인)가 있었고 이들이 적당한 장소에 모여 물품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시장(市場) 또는 장(場)이라 했으며 또 다른 말로는 시장(市上)이라고도 불렀다.

이에 반하여 상설의 상점은 시전(市廛, 육의전)·전방(廛房)·전포(廛舖) 또는 전(廛)이라 했다. 한편 점(店)은 『속대전續大典』에 “제도산은처설점수세(諸道産銀處設店收稅)”라고 했듯이 금

점(金店)·연광(鉛鑛)·동점(銅店) 등은 제조소(製造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과 관계되는 객체의 명칭으로는 시장에 모이는 상인과 군중을 가르키는 장군(場軍)과 시장에서 행해지는 돈놀이를 장변(場邊) 또는 시변(市邊)이라 했으며 시승(市升)이라는 관의 검인이 찍힌 뒷박이 있었고, 요사이 자릿세와 비슷한 장세(場稅)와 시장을 감독하는 장감효(場監孝) 등이 있었다.

근대화되기 이전의 재래시장은 각자가 생산, 수렵하여 획득한 잉여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가지고 나와 서로 바꾸는 이른바, 물물교환의 공간이었다.

이 같은 원시적 거래방법은 고대 이래로 신라,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물물교환시대에 있어서의 거래주체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였고, 화폐는 아니었다. 이런 시대에 의정부지역에도 시장은 생겼고, 시장을 통해 생필품의 유통이 이루어졌다.

의정부의 시장에 관하여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이미 170여 년 전에 ‘의정부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장세야말로 영세했겠지만 의정부 상업이 이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볼 때 이 지역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친 공헌도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의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종상품으로는 고작 곡물과 축산물 그리고 땀감 정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상행위도 자연히 싸젠 또는 가축 매매 쪽으로 치우쳤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전국 소읍에서의 상행위가 아니었을 까 생각된다.

시장의 종류를 보면 와시(瓦市)와 향시(鄕市), 그리고 시(市)의 3종류로 크게 분류된다. 여기서 시(市)라고 하는 것은 도성에서 민간교역을 하던 곳으로 경사시, 읍내시, 성내시, 부내시, 주성시 등과 같이 소재지로 분별한 것이 있고, 위치를 시장명으로 한 남문시, 동문시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시(牛市), 마시(馬市), 시탄시(柴炭市), 약령시(藥令市)와 같이 그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붙인 곳도 있었다.

와시(瓦市)는 외국과의 거래 즉 교역이나 무역을 하던 곳이다. 향시는 1일, 6·2일, 7·3일, 8·4일, 9·5일, 10일 등과 같이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5일마다 장이 섰던 이른바, ‘5일장’인데 이 같은 장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는 월에 3회, 즉, ‘열흘장’과 월에 2회 즉, ‘보름장’도 있었다. 또 1년에 1회 서는 장이 있었는데 하면 약령시는 약재거래를 위해 특정기간에만 장이 서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에 합병되고 난 후에 생긴 「시장규칙」(1914년 9월, 총령 제 136호로 발표)에서는 1호시장(재래의 보통시장), 2호시장(시가지의 공설시장), 3호시장(경매방법에 의한 생선, 야채시장), 4호시장(곡물, 유가증권, 현물시장)으로 구분했지만, 경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으로 양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 소지왕 12년(490년)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초개경사시 이통사방지화(初開京師市 以通四方之貨)”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때 경사시(京師市)라 한 것은 당시의 서울이었던 지금의 경주를 말한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지방에 이미 시장은 존재해 있었을 것이었지만 문헌상으로는 이보다 앞선 것은 없다. 이어 지증왕 10년(508년) “치동시전설관이감지(置東市典說官以監之)”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장 또는 상업거래를 특별한 기관이 감독했음을 말한다.

이밖에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는 동시전(東市典), 서시전(西市典), 남시전(南市典)이라는 관어명(官御名)이 나오는데 동시전은 지증왕 10년에, 다른 2개 시전은 효소왕 4년(695)에 설치된 것으로 모두가 경사시를 감독하는 기관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경사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는 인종(1122~1146)때 송나라에서 온 정사 로윤적(正使路允迪)의 수행원 서경(徐兢)이 쓴 『고려도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려고사 매사인지 즉취위대시 나열백화 단칠회백개무화호 면금은기용실왕부지물 금시포진 공비기속연야(高麗故事 每使人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 丹漆繪帛皆無華好 面金銀器用悉王府之物 及時鋪陳恭非其俗然也)”

풀어쓰자면, “송나라사신이 올 때 특별히 경사시를 크게 열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진열하여 산물이 많은 듯이 보이려했으나 금은기물은 왕부의 것이었다.”라는 것이다. 또 동서(同書)에는 “상설점포는 없고 그저 해가 더 있는 동안 오늘날 각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시장이 있을 뿐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시장이 얼마나 초라했던가를 알 수 있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는 “경시서 거구검시전(京市署 舉勾檢市廛)”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신라의 3시전(市典)에 상당한 경사(京師)의 시전(市廛)을 감독한 기관이었다.

고려 말기의 우왕(1374~1388)때 개성의 물가가 급등하여 당시 집정하던 최영이 명령을 내려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우선 물가를 평정하고 상품에 세인(稅印)을 찍어 표시케 한 후 팔게 하되 세인이 없는 것을 팔았을 때에는 사형에 처하는 중벌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당시의 한양이었던 지금의 서울 거리에 관에서 설치했던 전포(廛舖)가 세워진 것은 태조(1392~1398)에 이은 정종(1398~1400)때로서 개성의 시장제를 도입한 것이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정종원년 시치시전 좌우행랑 팔백여간 목혜정교지우 창덕궁동구(定宗元年 市置市廛 左右行廊 八百餘間 目惠政橋至于 昌德宮洞口)”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혜정교는 현재의 광화문우체국 앞에 있었던 다리였다. 그렇다고 볼 때 서울의 중앙인 종로통 좌우에 마련한 행랑 즉, 지금의 연립상가는 당시 한양의 상업중심지가 되었고, 그 행랑은 여러 개의 점포로 나뉘어 각종 상품이 진열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육의전(六矣廛)’이다.

그러나 이 행랑은 보통의 시장이 아니었다. 육주비전 또는 육시전이라고도 불렀던 이 육의전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그 점포를 상인들에게 나누어 대여해준 상설점포로서 이들 시전상인들은 특정한 상품을 전매하는 특권을 가졌으며 그 대신에 왕실 또는 관부의 수요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를 지기도 했다. 주로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한양(서울) 양반계급의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기도 했는데, 왕실에서 쓰고 남은 물품을 불하받아서 처분하기도 했던 일종의 어용상점이었다. 이 육의전은 당시 한양의 유일한 상설시장이었으며 면포, 어물 등의 6가지 물품을 분담하여 전문 판매하였다.

한편 지방에는 장시(場市), 향시(鄕市)라는 상설시장이 있었으나 발전은 되지 못하고 ‘5일장’으로서 보부상에 의한 농산물과 수공업품이 유통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상업이 조선조에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농본주의를 내세우고 상공업을 경시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각종 생산품의 질과 양이 빈약하고 교통의 불편으로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1430년(세종 12)에 통신사로서 일본에 다녀온 박서생(朴瑞生)의 상계(上啓)가 실린 『세종실록』에는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비교한 기록이 나온다.

「일본 상가의 제도는 이러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각기 처마 아래에다 널빤지로 층층의 진열대를 만들어 물건들을 그 위에 두니, 먼지가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의 음식물을 귀천의 구별 없이 모두 사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물고기나 고기 등의 음식물을 습하건 마르건 간에 모두 흙바닥에 두고는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밟기도 합니다.

바라옵건대 윤종가 좌우의 행랑으로부터 동쪽의 누문(樓門, 동대문)에 이르기까지, 종루 남쪽으로부터 광통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마를 덧달아 내서 그 아래에 층층의 진열대를 만들고, 어느 집은 무슨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즉, 간판을 달아 놓아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세종실록 11년〈1429〉 12월 3일)」

그러나 육의전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나중에는 그 병폐도 많이 발생되지만 그 폐해로 인해 새로운 상인의 출현을 재촉하는 등 조선시대 상업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 조선시대 이후, 시전과 장시

조선시대 시전은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개설된 상설시장이다. 이미 신라 때인 6, 7세기에 동시, 서시, 남시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전이란 명칭은 고려 때부터 등장한다. 희종 4년(1208) 개성에 개축된 큰 시장은 남대문이 있는 네거리 즉 십자가에서 북쪽으로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길 좌우에 기다란 행랑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 건국 후에 도시 설계의 기본인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단을 만들었고, 전조후시(前朝後市)의 원칙에 따라 앞에 조정, 뒤에 시장을 건설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북쪽이 협소하여 시장을 앞에 내세우게 되었다. 중국은 평지라서 전조후시가 가능하지만, 산자락에 궁궐을 앉히는 우리로서는 궁궐 뒤에 시장이 들어갈 공간은 애초부터 확보하기 어려웠다.

조선 초기에는 운종가(종로)에서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장사를 하다가 급기야 개경처럼 일정한 구역을 정하였다. 1413년(태종 13) 5월에 완성된 장행량은 종루를 중심으로 동서로 경복궁에서 종묘 앞까지, 남쪽으로 남대문까지 뻗어 있었다. 군인이나 승려 등 2,641명을 동원하여 지은 1,360칸에 달하는 기다란 행랑이었다. 이듬해에는 동대문까지 확장했다.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간선도로 양쪽으로 T자형을 이루며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가에서 이런 행랑을 지어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해주고 세금을 받는 관설시장이 바로 시전이었다.

하지만 근대 시기에 와서는 상점에 깃발을 내걸었던 실물이 전해진다. 저포전에 걸었던 깃발로서 위에는 걸 수 있도록 끈 다섯 개가 달려 있는데, 1927년 유길준 등에 의해서 해외로 나간 것이라 한다. 시전은 서울 주민의 일상용품도 공급하였지만, 관청이나 궁궐,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숫자는 17세기 전반에 30여 개였던 것이 18세기 말이 되면 120여 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물건 하나에 가게 하나가 원칙이었던 것이 흐트러져 여러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파는 일물다전(一物多廛)으로 변하게 된다. 또 초기에는 서로 비슷한 규모였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열이 생겨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의무를 지는 큰 상점과 그런 의무를 갖지 않는 영세 상점으로 분화되었다.

그런 큰 상점을 대표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육주비전 즉 육의전(六矣廛)이다. 여기에는 중국 비단을 파는 선전(線廛), 무명을 파는 면포전(綿布廛), 국내 비단을 파는 면주전(綿紬廛), 종이를 파는 지전(紙廛), 모시와 삼베를 파는 저포전(紵布廛), 어물을 파는 어물전(魚物廛)이 있었다. 하지만 꼭 6개는 아니었고 시기에 따라 수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시전이 국가에 등록된 어용상점이라 한다면, 그 경계 밖에서 활동하는 무허가 상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법을 어지럽힌 상점이라 하여 난전(亂廛)이라 한다. 지금도 풍물 시장 같은 곳에 몰려든 상인들을 난전이라 부른다. 종로에 모여들던 난전의 모습은 한성부의 건의에서 볼 수 있다.

시전은 국가에 물품을 대는 부담 즉 국역(國役)을 졌다. 갑자기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해당 관청에서는 호조에 이를 요청하고, 호조는 시전에 조달시켰으니, 이를 공무(公貿)라 하였다. 시전은

이런 의무의 대가로서 17세기 무렵부터 난전을 단속하고 물품까지 압수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 받았다. 난전을 금하는 권한 즉 금난전권(禁亂塵權)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 금난전권이란 나라의 허락을 받아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이들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난전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들은 시전을 피해서 남대문 밖에 칠패시장을 이루고, 동쪽으로는 시전 지역으로 들어가 동대문 가까이 배오개 즉 이현(梨峴)시장을 이루어, 종로의 시전과 함께 3대 시장이 되었다. 다음은 이옥(1760~1815)의 글이다.

한성에 큰 시장 셋이 있으니, 동쪽에 배오개, 서쪽에 소의문, 중앙에 운종가다. 모두 좌우 양편으로 상점이 하늘의 별처럼 벌여 있다. 온갖 장인이며 장사치들이 저마다 가진 물건들을 내놓으니, 사방에서 화물이 구름처럼 몰리고 물처럼 흘러든다. 백성들은 관대(冠帶)와 옷, 신, 음식물을 여기서 얻는다(『이옥전집』 시간기市奸記).

칠패는 어영청의 일곱 번째 순찰구역을 의미하는데, 남대문에서 염천교를 지나 서소문(소의문)에 이르는 곳으로 여기에 난전이 모여든 것이다. 이 시장은 근대에 남대문 부근으로 옮겨서 남대문시장이 되었다. 배오개는 종로4가 부근에 있던 고개로서, 그 일대에 형성되었던 배오개시장은 1905년 최초의 사설 상설시장인 동대문시장이 되었다가 1960년대에는 두 개로 나뉘어 지금 광장시장, 동대문시장이 되었다. 광장은 원래 광고와 장교 사이를 복개하여 만들려고 해서 그 첫머리를 따서 지은 명칭이라 한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이 전통 시장에 기반을 두어 지금도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면, 백화점 등이 들어서 있는 명동 일대는 과거 일본인 상가가 밀집해 있던 곳이었다.

주단이나 종이, 삼베 등을 파는 큰 점포는 종로에 있어 궁궐, 관청, 사대부들이 주로 이용하였기에 낮에 거래한 반면에, 칠패시장과 배오개시장은 서민들이 주로 새벽에 이용하였다. 또 칠패시장은 어물이 많이 유통된 반면에, 배오개 시장은 근교에서 재배된 채소들이 거래되었다.

이렇게 난전이 확산되자, 시전상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해 매점매석을 하는 등 농간을 부리기도 했다. 사상들과 시전상인간의 마찰이 점점 깊어지자 정조는 1791년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난전권을 폐지 시켜버렸다.

이 결과 사상들은 시전상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양에서도 자유로이 상업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물건 파는 곳을 점방, 전방이라 불렀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물건을 늘어놓고 방에 앉아 팔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방(塵房)은 시전(市塵)과 점방(店房)을 합쳐 만든 말이다. 가게라고도 했으니, 이는 임시 건물을 의미하는 가가(假家)에서 나온 말이다.

2. 보부상이 장시 연결 활동, 일부 상설 시장화

조선 후기에는 사업계에서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본래 조선 왕조는 중농정책을 내세워 수공업과 광업뿐만 아니라 상업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활동을 규제하였다. 따라서 상업 활동은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시전 상인의 활동 외에는 거의 보잘 것이 없었다. 그런데 17세기 이래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이 활성화 되어 갔다. 이 시기 이후 확산된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는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을 보다 촉진 시켰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뿐 아니라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어 농촌으로부터 유리된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공인들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공인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나타난 어용상인들이었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빌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이들은 관청별로 또는 물품의 종목별로 공동 출자를 해서, 계를 조직하고 상권을 독점하였으며, 납부할 물품을 수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수공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에 이르러서 사상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행위를 벌여 종루·이현·칠패 등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종래의 시전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찍부터 상업을 독점해 왔던 시전 상인들은 정부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지기로 하고 금난전권을 얻어내어 사상들의 활동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상들은 정부와 결탁하여 새로이 점포를 창설하거나, 금난전권이 적용되는 도성을 벗어나 송파·노원 등 지방에서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상권을 확대하면서 상행위를 계속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사상들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도시에 사상들이 나타난 것은 17세기 초로서, 도시 근교의 농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지, 군졸 등이 직접 생산한 채소·과일·수공업 제품 등을 행상으로 판매하면서부터였다. 이어서 농촌에서도 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일부가 상업으로 삶을 이어가고자 하여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중도아가 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육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이로써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도고(都賈)로 성장하여갔다.

사상들의 도고 활동은 주로 칠패·송파·노원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평양·의주·동래 등 지방에서도 행해졌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화를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즉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사상 가운데서도 경강상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삼아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소금·어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하고 부를 축적하여 갔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범위를 넓히기도 하였다.¹⁾

조선 후기 사상의 성장은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지방민들의 교역장소로, 인근의 농민·수공업자·상인들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장시는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²⁾

18세기 말에는 장시 중에서도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 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역안의 시장권에서 또는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금속화폐, 즉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전의 보급은 상품의 유통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전황(錢荒)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동전을 많이 주조해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계속 동전이 부족한 현상을 전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축적하였기 때문이었다.

1)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874, p.91. 인용

2)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p. 141. 인용

Ⅲ. 의정부지역 시장의 역사적 발전

1. 조선후기 물산 유통의 중심지, 의정부 누원점

- 사상(私商)의 발전과 시전상인과의 대립

15세기까지 농본정책 및 억상정책에 따라 상업의 발전은 억제되었기 때문에 한양의 상업기관으로는 관부(官府)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전(육의전)이 있었고, 지방의 경우 장시 또는 향시가 있었다. 그러나 시전 즉 육의전의 횡포로 한양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지방의 향시 등도 보부상에 의한 5일장에 밀려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상(개인상인)이 출현하게 된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흉작에 농촌인구가 도회로 집결하는 이농현상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로는 임진왜란으로 농토가 황폐해졌고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생활수단을 찾고자 서울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한양)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시전으로는 상품의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토를 떠난 인구가 상업인구로 전환되어 상업인구가 증가하자 이들은 생활수단으로 개인상점(사전 또는 난전)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국가에서는 시전에 대립하는 난전을 엄중히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자 끝내는 일정한 장소에 상업구역을 정해 주고 그곳에서 장사하도록 했는데 이를 장시라 했고, 종가·이현(종로4가)·칠패(청파동)의 3대 장시를 중심으로 상행위가 발달하여 전국 각지의 산물이 이곳에 집산되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후기의 칠패·이현의 상인들은 지방상품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 광주·양주·포천 등지에 일종의 지점을 차려놓고 곡물·어물 등을 매점매석하였는데 이는 서울(한양) 일원에 한정되어 있는 금란전권(시전보호법)을 피하여 상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시전과의 충돌을 피하며 자기들의 상권을 넓혀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서울의 시전들은 상품매입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의 사상인(私商人)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송파·누원점(의정부 호원동)·송우점(포천) 등이며 오늘의 의정부시 다락원 부근에 있었던 누원점이 곧, 의정부상인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당시 서울(한양)의 어물전 상인들이 누원점 모리배의 폐해를 고발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상업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781년(정조 5) 어물전 상인들의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북면에서 들어오는 건어물을 양주 누원점에 사는 모리배들이 매점매 두었다가 칠패와 이현의 난전 상인들에게 서서히 공급하며, 게다가 수시로 값을 올려 장안 어물 값이 폭

등할 뿐 아니라, 어물전이 실업상태에 빠졌다.”

19세기 초 한양 부근의 손도강(孫道康)이라는 사람은 난전의 우두머리로서 다락원의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받아 원산에 가서 어선 전체를 매점하거나, 의정부·포천 등지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서울(한양)로 들어오는 어물을 매점하고 멋대로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 의정부 상인들은 단순히 서울 상인들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부를 쌓고 있었으며 폐해가 있긴 했어도 이들에 의해 의정부의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누원점 이외에도 전통 재래시장이 의정부에도 존재하였다. 의정부 시장도 양주에 속하면서 지금의 의정부 1동(제일시장 부근 비정)에서 매월 3, 8일에 열렸던 5일장으로서 곡물·땃감 등을 교환했던 타 지역의 장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축시장은 지금의 의정부 1동 231번지, 중랑천변에 있었는데 이웃이 주택가여서 가능 1동으로 옮겨 개장했다가 다시 1964년도에는 금오동 산 285번지 2필지 1,500평을 매입하여 가축시장 이전 개설허가를 받았다.

1) 조선 후기 의정부 상업 발달의 배경

시장(市場)은 물자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시장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갖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생활의 터전이자 삶의 저층(低層)에서 사회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였다. 술한 상품과 사람들이 들고 나는 동안 그곳에서는 깨알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으며 그 회로애락이 담긴 사연들은 그대로 역사가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각종 농수산물과 공산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에는 활기가 가득하다. 요즘에는 각종 가게들이 시장을 벗어나 도심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장이 서는 날이라야 그 삶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종 놀이와 공연, 진기한 산물과 먹거리가 차일 밀에 가득하고 거간과 흥정, 시비와 먹살잡이, 웃음과 울음이 저잣거리에 흘러넘쳤다.

시장은 본래 우리말로 ‘저자’라고 불렸다. 백제 가요 「정읍사」의 한 구절인 “전(全)저재너려신고요”의 ‘저재’는 저자의 고어(古語)이다. 따라서 그 뜻은 “온 시장을 다니고 계신가요”이다. 이후 시(市), 시사(市肆), 장(場), 장시(場市)등으로 불려오던 말이 19세기 말부터 주로 시장(市場)으로 사용되었다.³⁾

3) 박은숙, 『시장의 역사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8, 9쪽 인용.

의정부에서 상업이 활발해진 것은 시장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은 조선 후기 무렵이다. 의정부는 조선 후기부터 함경도와 서울을 잇는 상업의 중심지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한양(서울)의 온갖 물건이 의정부(당시 양주)를 통해서 한반도 동북쪽으로 올라갔고, 원산·함흥 쪽의 물산 역시 의정부를 통해 서울로 들어갔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과 물산이 의정부에 모였으며 활발한 흥정을 통해 의정부의 상업은 번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시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전(市廛)이 그 중심이었다. 국가로부터 건물을 빌린 시전 상인은 독점 판매권을 갖는 대신 공랑세(公廊稅, 국가가 지은 상가인 공랑을 빌리는 대가로 내는 세금)를 냈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상(私商)들의 허가받지 않은 업소인 난전(亂廛)이 생겨나자 육의전(六矣廛)과 시전 상인은 정부와 결탁하여 금난전권(禁難廛權, 난전을 금지할 수 있던 권리)을 행사하기도 하였다.⁴⁾ 하지만 금난전권만으로는 난전의 성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난전이 시전보다 가격이 싼기 때문이다. 난전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서울 세종로와 종로를 중심으로 난전 상인이 증가하였다. 국가는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끝내는 특정 구역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을 장시(場市)라고 한다. 당시 종가(種街)·이현(梨峴, 현 서울 종로4가 부근)·칠패(七牌, 현 서울 봉래동 부근)가 3대 장시로 꼽혔다.⁵⁾

이처럼 난전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상들은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매점매석을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사상도고(私商都賈, 대규모 민간도매상)로 성장하였다. 도고는 자기들끼리 유통망과 자본을 연결하여 더욱 큰 상업 세력으로 커 나갔다. 그들은 지방의 여각(旅閣), 객주(客主), 선주인(船主人)과 담합하여 지방 상품을 매점하기도 하였다.

사상도고인 칠패, 이현의 상인은 지방 상품이 올라오는 길목인 양주, 포천 등지에 일종의 지점을 차려놓고 곡물, 어물 등을 매점매석하였다. 이는 서울 일원에 한정되어 있는 금난전권을 피하여 상품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들은 시전과의 충돌을 피하며 자신들의 상권을 넓혀갈 수 있었다.⁶⁾ 한성부 밖에 있던 경강(京江), 송파, 누원점과 같은 상업 요충지는 도고의 주요 활동지였다.

조선후기 최고의 국정 의결기관으로 자리하던 비변사(備邊司)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비변사등록』에는 이러한 누원점 상인의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기록은 1782년(정조⁶⁾ 8월 7일 비변사에서 누원점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올린 계문(啓聞)이다.

4) 신기철, 『한국문화대사전』 제2권, 2008. 229쪽 인용.

5)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권, 5권, 2004, 589쪽.

6) 세종대학교 박물관 · 의정부시,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인용

○비변사의 계사에,

“경모궁의 방계(坊契)에 새로 들어온 민호(民戶)를 반드시 각별히 보살펴 주어서 영구히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묘당에서 여러 모로 의논해서 보고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전교에 의해 새로 들어온 어물전(魚物廩) 민인들의 원하는 바를 물었더니, 양주(楊州) 누원점막(樓院店幕)은 곧 어상(魚商)이 왕래하는 요충지입니다. 본전(本廩)에 들어오는 어물(魚物)을 점한(店漢)이란 자가 모두 모으는데 이름을 건방(乾房)이라 합니다. 안으로는 중도아(中都兒)와 체결하고 밖으로는 송파장(松坡場)과 부동하여 끊임없이 나누어 보내 통화(通貨)하는 문으로 만들어 한 세상의 어물에서 얻는 이문이 모두 돌아가도록 조종하는 바람에 본전의 백성에게 국역(國役)의 생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장차 전에 없던 장시(場市)를 열어서 이문을 독점하는 교묘한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 감영에 분부하여 엄격한 법으로 금단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체로 누원점(樓院店)의 백성들이 동북쪽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왕래하는 어물의 이문을 모두 빼앗음으로써 전민(廩民)이 생업을 잃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기 하기 때문에 전후 관문을 보내 신칙한 일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형장을 가하고 유배를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징계로 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함부로 독점을 하고 있으니 놀랍고 통탄스러움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돌보아주는 방안으로 특별 전교로 이와 같이 간절히 물으셨으니, 그 뜻을 우러러 체득하는 방도에 있어서도 마땅히 각별히 신칙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원점의 건방(乾房) 명색을 우선 모두 혁파하고 앞으로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엄형을 가해 정배하라고 공문을 경기 감영에 보내 분부하여 법 조항을 엄격하게 세우도록 하고 중도아에 대한 금령은 본래 지엄한 것인데 간악한 백성들이 오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미움을 피우고 있으니 역시 극도로 교활하다 하겠습니다. 일체 금령에 의하여 율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공문으로 한성부 및 평시서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난전(亂廩)의 폐해가 시민(市民)을 지탱하기 어렵게 하는 단서가 되고 있으니 조정에서 이를 들은 이상 엄격한 법으로 무겁게 다스려야만 하겠다. 도거리로 잡거나 빼앗아가는 등의 갖가지 범법 행위는 곧 매우 불량한 무리들이 극도로 무엄한 습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예사롭게 조처하게 되면 여기서 파급되는 폐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 중 락 -----

선조(先朝) 을미년에 처분이 있는 뒤에 본사의 관문 내용을 보면, 칙교(勅敎)를 받들어 신엄(申嚴)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특별히 분명히 해 두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실상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전에 말하여 거듭 다진 전의 일은 이른 바 누원에서 소란을

피운 민인 문제로서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 법 외의 명색은 즉시 혁파하도록 한 뒤에 또 다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으면, 단속하지 않은 감사와 두호한 지방관은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공문을 경기 감영에 보내고 거행 실태를 장문하도록 하라. 비록 저들이 말했을지라도 확실하게 들은 데가 있는 것이면 어찌 꼭 전례를 고집하여 즉시 조사하여 관에 보고하지 않아야 하겠는가. 그러나 저들도 백성인데 어찌 이것을 빙자하여 소란을 야기하는 단서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공시당상이 대신에게 품의해서 융통성이 있게 조절하여 일관된 논의로 제도를 정해서 저들에게 분부하고 이어서 해부(該府)와 해서(該書)에 공문을 보내어 이 규정대로 준행하게 하라.” 하였다.⁷⁾

이처럼 18세기 당시 누원점 상인들은 일대 사상들과 결탁하여 당시 기본 반찬으로 수요가 높던 어물의 수급을 독점하며 시전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막강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당시 함흥과 북청 등 함경도 일대에서 잡힌 명태 등의 어물은 기본 반찬으로, 그 수요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 공급과 유통을 독점한다는 것은 시전상인들은 물론이며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누원점 상인들의 활동은 당시 정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누원점은 일개 지방 장시의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어물 가격을 좌우하고 시전 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그 규모와 위세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의정부 호원동 다락원

(1) 원(院)과 점(店)

조선 후기에 양주에 속하던 의정부 호원동(虎院洞)에는 누원(樓院)이라는 공공 여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누원은 누원점, 누원점막, 혹은 다락원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점촌이 형성되어 각종 물산의 유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원(院)은 나라에서 육상 교통 요충지에 설치한 기관으로, 역참(驛站, 역말을 갈아타던 곳) 부근에 있었다. 즉 도로를 관할하면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교통상의 거점인 것이다. 이러한 역과 원은 대개 123km(약 30리)마다 하나씩 설치되었는데, 그 중에는 퇴계원, 조치원, 장호원 등과 같이 오늘날의 지명으로 남아있는 예도 드물지 않다.

누원이 다락원으로 불리게 된 것은 건물 구조 때문에 ‘다락 누(樓)’ 자를 써서 누원으로 이름 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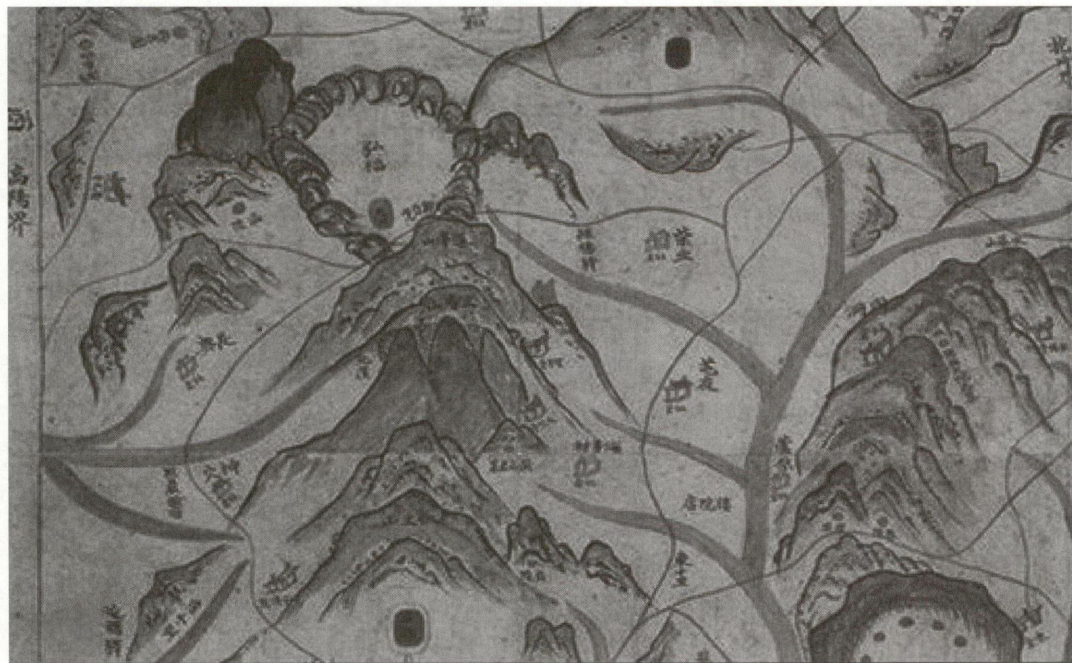
7) 『비변사등록』, 정조 6년 8월7일, 辛未.

인 것을 다시 우리말로 고쳐 부른 탓 일게다. ‘누’란 기둥이 층받침이 되어 마루가 높은 다락집을 말한다. 이처럼 높은 건물을 지었던 데는 상품 교역이 활발한 장시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오가기 마련이라 잠이나 도적의 통행을 감시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원이 다락원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누원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원’의 쇠퇴와 ‘점(店)’의 등장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원’이 전반적으로 폐허화되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란 이후 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실해졌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설은 방치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공무 여행보다 상인 등 민간인의 여행이 활발해져, 그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원’이 제 구실을 못하자 민간 숙박 시설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 ‘점(店)’이다. ‘점’은 일종의 주막이다. 주점, 여점(旅店), 점막(店幕) 등으로 불렸던 주막은 돈벌이를 위한 전문적 숙박업소로서 여행객들에게 술과 밥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였다.

누원이 있던 곳은 교통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숙박시설이라도 있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점촌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누원점이다.⁸⁾



양주목지도 부분도(1872년) [서울대 규장각본]

8) 최완기, 「조선 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175쪽 인용.

(2) 다락원이 왜 호원동에 있었을까

누원점이 호원동(虎院洞)에 위치한 이유는 호원동이 서울과 접하는 의정부 지역의 관문(關門)으로서 동(東)으로는 중랑천(中浪川)을 사이에 두고 장암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西)로는 도봉산(道峰山)이 펼쳐져 있는 의정부 지역의 최남단 동(洞)이기 때문이다.

호원동은 원래 호동, 누원리, 장수원리였던 것을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호(虎)’자와 ‘원(院)’자를 따서 시둔면 호원리로 개칭하였다. 1956년에는 당시의 둔야면 호동을 호원1리, 누원리와 장수원리를 호원2리로 분할하였다. 이후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조례 제19호)하여 같은 해 6월 1일 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호원1·2리를 합하여 호원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누원을 검색하면 주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곳은 두 개의 누원 중 한 곳일 뿐이다. 누원은 상누원(上樓院)과 하누원(下樓院) 두 곳으로 번창하였는데 상누원은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었고 하누원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었다.⁹⁾

같은 이름의 원(院)이 두 개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누원점은 그만큼 중요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1728년(영조 4) 4월 2일자 기사를 보면, 누원점과 검암점에 별장(別將)을 두어 적도(賊徒, 도둑의 무리)를 기찰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로 별장을 두어 감시를 하였다는 것은 누원점이 그만큼 큰 장터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겠다.

조선시대에 지금의 호원동이 속했던 양주목(楊州牧)은 수도 한성부(漢城府)와 인접해 있으면서 동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양주목을 거쳐 함경도로 통하는 길뿐만 아니라 평강(平康)의 삼방곡(三方谷)으로 통하는 길과 낭천(浪川, 강원도 화천의 옛 지명)의 주소령으로 통하는 길, 회양(淮陽) 법수현으로 통하는 길이 새로 개척되었다. 삼방곡로는 덕원(德源), 안변(安邊) 등 함경도 지역에서 한성부로 오는 지름길이었으므로 함경도 상인이 자주 통행하여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고 한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서 생산된 쌀이나 어물, 면포, 과일 등은 양주목을 거쳐야만 수도 한성부로 유입될 수 있었다. 또한 삼남(三南) 지방에서 생산된 면포(綿布) 등도 양주목을 거쳐야만 동북 지방으로 갈 수 있었다. 다락원의 사상인(私商人)은 관북(關北) 지방의 건어물을 주로 취급하였지만, 동북 지방에서 생산되는 북어(北魚)·마포(麻布)와 삼남지방의 면포 등이 활발하게 교환

9)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 2007, 51~52쪽.

되면서 전국의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⁰⁾

(3) 다락원을 거쳐 가는 멀고 먼 관북 행로

그렇다면 물자와 사람이 다락원을 거쳐 함경도로 가는 이동로는 어떠했을까? 이동경로는 다락원이 왜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다락원은 서울에서 원산과 함경도 경흥(慶興) 서수라(西水羅)로 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다.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도로고(道路攷)』에 의하면 한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경로는 한양-수유리점-누원점-서오측점-축석령-송우점-파발막-장거리-만세교-양문역-풍전역-가오개령-장림천-김화-금성-창도역-재오현-송포강-신안역-회양-청령-고산역-용지원-남산역-안유-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성부 밖의 첫 출발점인 누원점에서 각종 물산과 사람은 각처로 흩어져 나갔고, 또 관동 지역에서 출발한 각종 산물이 한성부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맺고 풀렸다. 더욱이 사신(使臣)의 행차 시에도 숙박은 서화랑(西花浪)·녹양(綠楊)·양주읍참(楊州邑站)에서 하면서도 점심만은 항상 누원점에서 먹은 사실로 볼 때, 양주 누원점은 물산의 집산처이면서 각처에서 모인 다양한 먹거리가 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¹⁾

한성부에서 다락원까지의 경로를 따라 다락원 상인들이 어떻게 물건을 운반하고 거래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김주영의 소설 『객주』를 통해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송파에서 뚝도나루(뚝섬의 나루터)를 건너고 왕십리 밖을 돌아서 영도교를 건너 인창방(仁昌坊) 안암동(安岩洞) 고개티 하나를 넘으면 혜화문(惠化門)에서 뺀어 나온 길과 마주치면서 곧장 무늬이골(水踰里)로 뺀어나간다. 무늬이골을 지나 도봉(道峰)을 바로 등 뒤에 두고 있는 다락원까지의 길은 송파에선 50리 길이 실하였다. …… 송파 쇠전에서 떠난 소몰이꾼들이 다락원까지 가서 기다리게 되면 관동(關東)의 장돌림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송파와 다락원은 경기 인근의 외전으로서는 손꼽힐 만하여서 삼개나 서강의 객주들과도 대적할 만한 도고상들이 많았다. 그런 객주들이 준비하라는 것은 물화 거래가 옛적부터 활발했기 때문이었다.」¹²⁾

서울 송파에서 다락원까지는 불과 20km 정도니 성인의 걸음으로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10) 이도남, 「상인들의 어물 매점매석으로 폐단이 심한 누원점」, 『상인과 상업활동』,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http://www.culturecontent.com>).

11) 이도남, 「누원점 상인」,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홈페이지(<http://yangju.grandculture.net>).

12) 김주영, 『객주』 제5·9권, 문이당, 2003.

다. 상인들이 짐을 지고 고개를 넘고 가축을 몰아오느라고 행보가 늦었다 치더라도 아침 늦게 출발하여 해거름 안에는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함경도 쪽으로는 마땅한 수로(水路)가 없었기에 육로(陸路)를 통해 교통·운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가까운 의정부에 상업의 거점이 설치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8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상품 유통권이 형성되면서 서울과 동북 지역을 잇는 도로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광범한 시장을 개척하고 보다 빠른 유통망을 형성하고자 했던 상인들이 여러 갈래의 지름길을 개척한 결과였다. 하지만 어떠한 길을 경유하더라도 한양으로 향하는 상인은 결국 누원점을 거쳐야 서울의 저잣거리에 물건을 출하할 수 있었다. 김화 또는 낭천에서 일동-광릉-궁동점(宮洞店)-퇴계원에 이르는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은 당시에 널리 이용된 것 같지 않다. 거의 모든 길이 누원점을 통하였다면 동북 지방의 물류 유통에서 누원점이 가지는 입지는 가히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원점에 상인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³⁾

다락원과 가까운 포천의 송우점(松隅店) 또한 한반도 동북 지방의 산물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주요한 집하장 구실을 톡톡히 하였다. 송우점은 솔모루라고도 불렸는데, 솔모루는 ‘소나무가 많은 모퉁이’라는 순우리말이다. 다락원에서 솔모루까지의 길 또한 김주영의 소설 『객주』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는 픽션이지만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소설은 신경준의 『도로고』에 기술된 경로에 입각하여 이를 좀 더 형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락원에서 장수원(長水院)까지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십 리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서 반 마장을 채 못 가서 파발막(擺撥幕)에 당도한다. 이곳에서 길은 삭녕(朔寧)으로 해서 평양 노정으로 이어지는 길과 원산포(元山浦)로 빠지는 길로 나뉜다. 파발막에서 축석령(祝石嶺) 고개티까지가 줄잡아 오르막길 이십 리이고 축석령에서 솔모루까지를 내리막길 이십 리로 잡는다. …… 날짜를 보아하니 송파 쇠전이나 평구 쇠전으로 내려올 상대들이 당도할 조금이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서른 명이 넘는 상대들이 다락원에 득달하였다. 평강에서 내려올 적에는 원산포의 강쇠가 주선해주는 원산 북어바리들을 저다가 다락원 여각에 행매하고 나서 평강으로 회정할 적에는 송파와 평구의 살찐 소를 넘겨받아서 평강 지경까지 물이해서 인근 저자에다 풀어먹이고 일부를 원산포 강쇠에게까지 중개(仲介)시키는 것이었다. 평강에서 내려올 적에나 원산포까지 회정하는 길목에는 상대들이 단골로 쓰는 마방 딸린 객점이 수두룩하고 또한 왈짜들이 끼어들지 않고 봉적할 일이 없으니 호랑이만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상대보다 이문을 두둑하게 남길 수가 있었다.」¹⁴⁾

13) 최완기, 「조선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 179쪽. 인용

14) 김주영, 『객주』 제5·9권, 문이당, 2003.

『객주』에 등장하는 파발막은 두험천참(逗驗川站)을 말한다. 두험천참은 현재 의정부1동 214번지 일대로,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경원(京元) 아오지(阿吾地)까지 가는 첫번째 파발막이었다. 예전에는 의정부1동 일대를 파발막리라고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둔면 의정부리(議政府里)로 병합되었다.¹⁵⁾

(4) 누원점에서는 어떤 상품이 거래됐을까

다락원을 오간 상인들이 주로 거래했던 물건은 북어(北魚)와 북포(北布)였다. 북어는 한자 표현 그대로 북쪽에서 난 물고기다. 요즘 명태 말린 것을 북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북쪽 지방에서 잡은 어물(魚物)의 뜻이다. 북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명태와 청어였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따르면 명태는 함경도에서 겨울철에 어망으로 잡으며 모두 원산포에 집하되었다가 배에 실어 동해를 돌아 운송되거나, 말바리에 실어 철령을 넘어 전국 각지로 공급되었다고 한다¹⁶⁾.

조선 후기에 와서 명태는 일상의 찬거리, 제수(祭需), 술안주로 소비되었다. 명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당시 명태의 집산지인 원산포에는 사방의 어상이 모여들었는데, 이는 당시 명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준다.¹⁷⁾ 명태와 함께 동북 해산 청어도 인기가 좋았다. 청어는 ‘비웃’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해역에서도 잡혔으나 동북 해산의 맛이 가장 좋다고 알려졌다. 명태와 청어는 건어물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예전에는 냉장 시설이 없어서 상인들에게는 물건의 보관이 큰 문제였다. 더구나 수산물은 부패가 빨라서 옮기는 동안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산물의 내장을 제거하고 겨울 바닷가 덕장에 널어 밤에는 찬바람을 맞게 하고 낮에는 햇볕에 말리는 것을 반복하는 동건법(凍乾法)을 고안해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어물 중 대표적인 것이 북어이다. 북어는 기온이 낮을 때 제조된 것일수록 육질이 부드러워 좋은 제품으로 평가되었다¹⁸⁾.

다락원에서 거래되던 주요 물품에는 건어물 외에도 삼베, 즉 마포가 있었다. 베를 짜는 주원료인 대마는 각처에서 재배되었으므로 부녀자들은 부지런히 길쌈을 해 옷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포를 부를 때 함경도의 것은 북포, 경상도의 것은 영포, 강원도의 것은 강포라고 하였다. 그러한 마포 중에서도 가장 애용되던 것이 섬세하기로 이름난 북포였다. 북포의 수요는 다양하였다. 백성들이 베옷을 널리 입었고 특히 여름철 옷감으로 인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삼베

15)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 2007, 47쪽.

16) 『林園十六志』 卷40, 佃漁志, 魚名攷, 海魚.

17) 『林園十六志』 卷40, 佃漁志, 魚名攷, 海魚.

18) 박구병, 「어업의 발달」, 『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237쪽 인용.

로 옷을 해 입게 되며 질감이 좋은 복판의 세포(細布)는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 또 삼베는 상복과 수의를 짓는 옷감이었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던 조선시대에는 고급 삼베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함흥, 원산이 집하장이던 북포는 철령, 추가령을 넘어 동북로를 따라 내려와 누원점을 통해 한양으로 공급되었다.¹⁹⁾

(5) 누원점의 옛 풍경과 오늘날의 다락원

도봉산 기슭에 형성되었던 누원점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각종 물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간 집하장인 이곳에는 어떤 풍경이 만들어졌을까

누원점을 무대로 활동하던 상인들은 동북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북어 등의 상품을 쌓아 놓고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이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서울의 상권을 흔들어 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누원점의 옛 풍경은 상대가 도착하고 떠나갈 때마다 수선스러운 활기로 가득하였을 것이다.

다락원의 건축물들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구조와 형상을 알 수 없으나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 관련 기록에 의지하여 대강의 풍경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서울의 내로라하는 객주에서는 다락원으로 차인 행수를 내보내 흥정을 붙였다고 하니,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들이 썸 빠른 눈빛으로 저자를 누비며 일을 만드느라 분주하였을 것이다. 또한 경향 각지에서 모여든 이러저러한 장사치가 많았으니 거래를 트고 물건을 사고파느라 거리마다 삼삼오오 부산하였을 것이다.

왜랭이를 쓴 자질구레한 일용 잡화를 파는 황아장수, 소금장수, 방물장수, 짚신장수가 저잣거리를 메웠으며 전을 굽는 냄새, 손님을 끌어들이며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값을 받는 여리꾼의 호객 소리, 파발막을 향하는 말과 쇠전을 들고 나는 소떼의 발굽소리, 주막 술청에 왁자한 행상들의 웃음이 있었을 것이다. 구걸을 하는 걸인들, 머릿기름과 분, 빗을 구경하러 나온 여인네들, 등 하나 가득 짐을 싣고 가는 지게꾼들도 장터 풍경의 한 부분을 연출하였을 것이고 놀이판의 풍물 소리도 없으면 서운한 일이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갈 때 ‘쇼핑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장을 본다’고 하였다. 장에는 온갖 물건이 넘쳐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단지 이채로운 상품을 구경할 목적만은 아니었다. 우리네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행위를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각종 공연과 놀이, 정보 소통, 집회,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규모가 큰 지역의 장터에서는 중범 죄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이루어졌다. 특히 장터의 분위기를 북돋고 사람을 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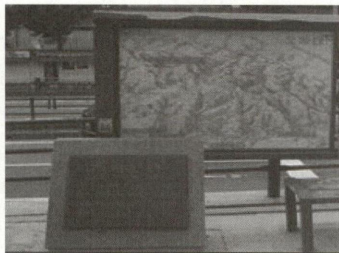
19) 최완기, 「조선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 197~202쪽 인용.

모으기 위해 벌였던 놀이판은 가히 장터문화의 진수라 할 만하다. 송파에서 산대놀이가 인기를 끌었다면 양주에는 별산대놀이가 있었다. 별산대놀이는 과거승, 몰락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늙고 젊은 서민들이 등장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탈놀이이다.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의 설명에 따르면 양주별산대놀이는 양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공연하며 남녀 노소가 어우러졌던 민중의 놀이였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양주 고을 사람들이 한양의 ‘사직골 딱딱이패’를 초청하여 놀다가 그들이 지방 공연 및 기타의 사정으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많아지자 여기에 불편을 느낀 고을 사람들 중 신명이 과한 자들끼리 사직골 딱딱이패를 본떠 직접 탈을 만들어 놀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²⁰⁾

풍악을 울리며 행진하는 길놀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재미난 놀이판이 벌어지는 장을 보기 위해 들뜬 마음을 안고 모여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운집하고 물산과 돈, 먹거리가 넘쳐나는 다락원 등의 점촌과 장터가 없었다면 신명나는 춤사위와 덕담, 익살이 어우러지며 민중의 한과 흥을 풀어내는 양주별산대놀이도 지역의 전통문화로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의정부 상인의 효시였던 다락원 사상들의 장터는 옛 영화를 간직한 채 기억의 저편으로 저물어



다락원(누원)터 표지석

갔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전철 1호선 도봉산역 건너편 계단위에 남겨진 다락원터 표지석과 서울과 의정부 경계에 있는 평화로변의 다락원 마을뿐이다.

다락원을 중심으로 한 장터는 현재 평화로에 위치한 서울과 의정부 경계표지 조형물인 해태석부터 미군 부대 캠프 잭슨(Camp Jackson)까지 700~800m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3) 또 하나의 원(院), 장수원

누원점, 즉 다락원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장수원(長水院)이 있었다. 이곳도 조선 시대에 국가가 설치한 원(院)이다. 함경도로 파견되던 관원, 군인, 역졸, 등 공무(公務)로 여행하던 사람들이 묵어가던 곳이었다. 의정대신(議政大臣)들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와 정무(政務)를 논하기 위해 지금의 의정부까지 오는 길에 이곳에서 쉬어 갔다고도 한다.²¹⁾

20)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홈페이지(<http://www.sandae.com>).

21) 김영복, 『신정증보 의정부지리지』, 성심출판사, 2004, 84쪽.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민간인의 여행이 활발해진 탓에 다락원을 거쳐 원산, 함흥으로 가는 상인이나 서울로 가는 동북 지방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 가면서 주막거리가 형성되었다. 누원점이 동북 지방과 한양을 연계하는 물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불과 4 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수원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동북 지방의 특산물, 즉 어물, 마포, 약재 등의 수요가 많으니 이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동북로를 분주히 오갔을 것이다.

당시 주막의 개설은 자유로웠다. 그리하여 한 곳에 여러 개의 주막이 생겨나 점촌이 만들어졌다. 주막의 크기도 커졌다. 주막은 잠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맡아주기도 하고 마구간에서 소, 말이나 당나귀 등에 여물을 주기도 하였다.²²⁾

서울에서 의정부 접경에 있는 다락원을 지나 의정부시와 철원군을 잇는 국도 3호선 평화로를 따라 북쪽으로 오르면 좌측에는 원도봉산이 우측에는 수락산이 펼쳐져 있다.

장수원은 원도봉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동쪽, 수락산 기슭에 동막골이란 마을이 있다. 포천 방면에서는 옛날에 주로 이 길을 이용하여 서울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곳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장수원이라는 지명은 도봉산 구바위소에서 흘러오는 물이 하류의 삼형제소(三兄弟沼)까지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 솟는 약수를 마시면 장수한다고 하여 원 이름이 장수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인지 인근에는 약수물로 유명한 약수선원이라는 아담한 암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약수물이 나오는 샘터 위쪽에 있는 석조약사불좌상이 볼만하다.

또한 약수선원 경내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목조보살입상이 있는데, 해충에 강한 행자목(杏子木)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다락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장수원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철 1호선 망월사역과 신흥대학교 주변 어디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장수원에 있었던 주막거리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윗다락원이 있던 도봉산역의 다음 역이 망월사역이니 옛 원을 따라 오늘날의 지하철역도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를 증명하듯 도봉산역은 1986년 9월 2일 누원역(樓阮驛)으로 영업을 개시하다가 1988년 1월 1일 도봉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다.

2. 전통장시의 체취와 현대시장

1) 5일장과 우(牛)시장

22) 최완기, 「조선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 175~176쪽 인용.

조선 후기 동북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북어, 북포(北布) 등 각종 산물의 유통을 장악하였던 누원점 상인은 점막에 물건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각처의 상인과 거래하였다. 이들이 의정부 상업의 효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누원점 상인은 단순히 서울 상인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의정부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³⁾

하지만 의정부에 누원점 상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08년(융희 2)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18세기 이전부터 의정부시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문(場門) 또는 향시(鄕市)라는 이름의 지방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5일장이라는 이름이 더 귀에 익다. 아직도 5일장이 열리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장은 매월 3·8일에 열리던 5일장으로, 곡물, 쌀감, 가축 등을 교환하던 타 지역의 장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역의 상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볼 때 이 지역 시장이 지역 경제에 미친 공헌도는 크다.²⁴⁾

더구나 누원점으로 각처의 물산이 모여들던 점을 감안해보면 전통 재래시장에도 다소간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장이 서던 자리는 구 장터와 새 장터로 나뉘어진다. 구 장터는 의정부3동 주민센터 일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곳은 장소가 좁아서 지금의 의정부1동으로 옮기고 새 장터라고 불렀다. 지금의 제일시장 부근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전까지 이곳에는 우시장(牛市場)이 있었는데 장날이면 영호남에서도 올라올 정도로 꽤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5일장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에 상설 점포로 발전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제일시장이다.

의정부1동은 조선 선조(宣祖) 때 설치한 두힘천참이라는 역참이 있던 곳으로 옛날에는 이곳을 파발막이라고 불렀다.²⁵⁾ 파발막은 교통의 요지에 세워지는 법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 시장을 세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현재 제일시장을 비롯한 큰 매장이 산재해 있는 중심 상업지역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각급 단체가 자리 잡고 있는 시의 중심부이다.

한편 가축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의 의정부동 231번지 중랑천변에서 열렸다. 하지만 바로 옆이 주택가여서 가능1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1964년 금오동 산285번지에 1,500평 규모의 땅을 마련하여 옮겨 앉았다. 과거 전화국 부근에는 한국전쟁 전까지 소를 도축하는 도살장이 있었으며, 도살장에서 한내(恨川)로 물이 흐르는 곳에 장못(長淵)이라는 긴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전통문화는 개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경제개발 계획을 거치면서 근대화 물결을 따라

23) 김영복, 『신정중보 의정부지리지』, 성심출판사, 2004, 57쪽.

24)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589쪽.

25)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 2007, 47쪽



가성동 우시장 (1963년)-『의정부의 어제와 오늘』 2007,36~37쪽,인용

급속도로 변해갔지만 전통 재래시장의 풍경은 아직까지도 면면히 이어져오는 몇 안 되는 친근한 정서로 다가온다. 누원점 상인의 활동은 한양의 상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왕성한 것이었지만, 이는 개항 이후로 시들어버렸다. 육로를 통해 말바리, 소바리로 실어 나르던 물자가 기차를 통해 운송되면서 그들의 입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락원, 장수원 등 유통 거점은 자연 마을의 이름으로만 남아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추억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초들의 삶 속에서 5일장의 형태로 소박하게 꾸려져오던 전통 재래시장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여러 차례 이전과 소멸을 반복하였고 5일에 한 번씩 열리던 장이 상설시장으로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재래시장 곳곳에는 예전의 정취가 배어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민중 생활문화의 끈질긴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의정부 경제·문화의 강자는 누원점이 아니라 5일장이었던 셈이다.

2) 한국전쟁 이후 의정부 현대시장

산업구조의 변화와 교통의 발달은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주도했던 재래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한일합방이후, 일본 자본의 상륙과 도시화의 추세에 밀린 재래시장은 그 실권을 잃어가게 되었으며 따라서 ‘5일장’ 등은 시장점포의 상설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의정부에 현대적 의미의 시장이 출현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9·28서울수복 이후였다. 난리통에 각지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지금의 제일시장 부근에 모여 장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속칭 ‘군단앞’에는 미군 전용 술집인 ‘홀’이 성시를 이루고 있었고, 중앙로

에 점포들이 생겨나면서 상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의정부가 한수 이북의 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금의 의정부농협 중앙지점 부근인 옛 시외버스터미널 자리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였다. 그 시기의 주요 거래 상품으로는 일용품 외에도 금과 은 등의 귀금속, 보석류 거래가 활발하였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귀금속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후 1959년 제1공설시장이, 1965년 제2공설시장이 설립되었고, 1972년 청과야채공설시장이 제3공설시장으로 만들어졌다. 제1공설시장은 제1시장으로, 청과야채공설시장은 청과야채시장으로 민영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제2공설시장은 발전하지 못하고 설립 10년 만인 1975년 문을 닫고 말았다.²⁶⁾ 1973년 시장 개설허가를 받았던 광흥시장은 1991년 1월 폐쇄되었다.

(1) 제일시장 - 경기 북부 상업의 중심지 제일시장

의정부 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의정부에 정착한 실향·이주민들에 의하여 의정부1동 160번지에 형성된 의정부 5일장을 모태로 한다. 당시의 의정부 5일장은 이 지역에 한국전쟁 후 미군 부대 주둔으로 도로망이 정비되고, 미군 군용 물자 및 경기 북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집결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병익의 101명의 상인들이 ‘시장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954년 10월 11일 의정부 ‘제1공설시장 조합’을 창설하여 5일장을 상설화하였다. 이처럼 제일시장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합도소매시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표상이자 상인을 비롯한 의정부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이다. 1954년 이후 의정부 제1공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제일시장의 상인들은 내무부의 공설시장 민영화 방침에 의거하여 1976년 3월 29일 정관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12일에 사단법인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320여 명의 번영회원들은 점포의 증가로 인한 시장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고자 같은 해 1만5,110.70㎡ (4,579평)의 대지를 의정부시로부터 4년 5회 분납 조건으로 구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건축하였다. 제일시장 공사는 1977년 9월 1일에 착공되어 1978년 7월 1일에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화된 도소매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제일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된 가·나·다·라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표’자 구조로 되어 있다. 연면적은 1만 7,555㎡로 임대 1만 4,654㎡, 분양 2,901㎡, 주차장 2,622㎡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는 의정부 일대 교통의 중심지로서 동편은 태평로, 서편은 중앙로, 남편은 퇴계로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로데오거리 및 녹색거리와 인접해있으며, 주변에는 각종 노점상이 산재하고 있다.

26) 의정부시,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591쪽



의정부 제일시장 기공식(1977년)

제일시장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때 경기북부 전 지역권은 물론이며, 서울과 강원도 철원에서까지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호황을 이루어 경기 북부 제일의 시장으로 알려졌다.

제일시장 일대에는 제일시장과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쇠퇴한 제일시장 건너편의 광흥시장과 최근 도로를 정비하여 새로 개편된 중앙로 상가 등 3개의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의정부의 중앙 상권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변에 2012년 4월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중앙로거리, 의정부로테오거리 등의 변화가 인접해 있어 사람들이 오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터전이자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시장이 존재하고 지탱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해 제일시장은 ‘시장’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문전성시’를 이루는 ‘마을의 광장’으로서 상인에게 더욱 활력 있는 일터를, 주민에게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거대한 ‘시장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제일시장은 작은 점포들이 마치 개미 군단처럼 운집해 있으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골목형 시장에선 청과와 생선, 고기, 2차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가형 시장에선 여성복과 주단, 잡화, 귀금속, 가구 등의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제일시장은 한때 의정부 유일의 재래시장에다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고 있다는 강점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반경 3km 안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고객 이탈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문을 닫는 점포들도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빈점포 비율도 2005년에는 20%에 육박할 정도였다.

위기감을 느낀 번영회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자가당



현 의정부 제일시장 남쪽 입구

착에서 벗어나 글로벌시대의 요구에 재래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밤을 낮 삼아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찾기 위해 부심하였다.

제일시장은 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날 정도로 비좁았던 통로를 정리하기 위해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노점상들을 한데 모아 상점 간 3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통로에 노란선을 그어 상점의 일정한 상품 진열을 유도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고객들이 원활하게通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좌판에는 이른바 ‘특화지구’를 지정해 생선, 야채 등 대형할인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1차 상품들을 모아 고객들이 한곳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아래 착실히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출은 본격적인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되기 전인 2005년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30~40% 정도 상승하였고 비어있던 점포도 거



제일시장 내부모습

의 다 들어치게 되었다.

아울러 제일시장 외곽 노점 정비로 추가진입로가 확보되었으며, 지상과 주차장을 연계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고객이 구매 상품을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인들 역시 물건의 상·하차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하고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의정부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자, 독자적 생존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자구책을 찾는 데에 시장의 생존과 존립의 성패가 달리게 되었다. 따라서 상인들은 각자 경영마인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2006년 10월의 동편 아케이트 준공과 28개 생선 및 야채 노점의 특화지구 설정 및 규격 좌판, 상·하수도, 원형간판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것, 그리고 대형냉장고 5대를 설치하여 신선한 생선 등을 공급토록 하고, 시장 내에 고객 쉽터 겸 장터마당을 조성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자구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일시장은 시설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의 정비뿐만 아니라 마케팅, 스토리텔링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정비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아케이드 설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다. 소비자 접근성이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오는 물리적 방법의 편리성을 의미하며, 둘째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와야 하는 필요성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의미한다.

전통시장의 발전에 현대적 시설이 전부는 아니나 시설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과 현대적 시설의 분리를 통해 시장의 기능과 소비자 유인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의 지역성과 지역문화, 그리고 전통·특산물 등 전통시장이 가진 전통적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 기능을 접속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시장이 순수한 전통적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흥밋거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오늘날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미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 시장의 원천은 고객, 즉 시민들로부터 발현되므로,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이 대형 자본을 통한 시장의 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했다면, 전통시장은 이와는 다른 창조적 시장의 기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창조적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접근이 가장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순 기능보다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커뮤니티 장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전통시장 소재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의 홍보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광과 추억을 상품화할 수 있는 연계 상품의 구상이 요구된다. 또한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족 현상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인접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의정부 현대시장



의정부역과 연결된 신세계백화점

제일시장 주변에는 먹거리, 쓸거리가 많은 로데오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맞은편 의정부역사 안에는 강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있다. 인접한 곳에 의류 중심의 중앙상가도 위치해 있는데, 규모는 작으나 중심 상업지역에 있어 상거래가 활발하다.

그 밖에 대표적인 의정부의 현대시장으로는 1989년 가능1동에 문을 연 가능프라자와 1993년 의정부1동에 문을 연 태영프라자, 1996년 의정부2동에 문을 연 의정부 지하상가가 있다. 대형 유통점으로는 2000년 용현동에 문을 연 롯데마트 의정부점, 2003년 금오동에 문을 연 홈플러스 의정부점, 2006년 장암동에 문을 연 롯데마트 장암점, 2013년 민락동에 문을 연 이마트 의정부점, 코스트코 의정부점 등 창고형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정부의 시장은 편리한 교통상의 이점과 역사를 도도하게 관통하는 상업 전통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누원점, 5일장, 제일시장으로 이어지며 사람과 물자가 들고 나던 누대의 경험은 곧 의정부의 경제사이자 문화사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근대화를 거치며 모든 것을 다 바꾼 한국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이름 아래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에 매진해왔다. 수백 년 동안 5일장을 메웠던 행상과

좌판은 재래시장의 상설 점포로 대체되었고, 또 그렇게 바뀐 지 반세기 만에 전통 재래시장은 화려한 대형 매장에 밀려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상인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험준한 고갯길도 완만하게 깎이고 아스팔트 도로가 놓여 그곳이 고개였는지를 알아보기도 어려워져 사람들은 땅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끌고 대형 유통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인 소비 패턴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져가고 있다. 재래시장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지만 갈수록 화려해지고 대형화하는 쇼핑센터의 물량 공세에 맞서 버티기에는 힘이 모자라 보인다. 서민의 생필품 구입처이자 삶의 체취가 깊게 밴 재래시장이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좌판 위로 에누리라 덤이 오가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장터의 인정마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버릴까 우려되는 바이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건물

3. 경기북부 경제유통의 중심지-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의정부시 추동로 140 (신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1974년에 설립된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종합 경제 단체로서 상공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종합 경제 단체이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정부에 경기북부지역의 종합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이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해 진력한 결과 기업의 업종 승계, 신·증축 허용 등 경기북부지역내의 기업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업계애로의 파악 및 공동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간담회, 토론회, 심포지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전 세계 150여개국 상공회의소가 가입한 국제상공회의소의 일원으로 전 세계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경제 협력과 통상증진을 선도하는 등 기업활동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개발방안을 연구하고 그 의견을 각 부처에 제시하는 한편 우리지역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내에 양주지회와 의정부지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새로 설립된 의정부지회는 특별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상공회의소법과 정관에 병원은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의정부지회만 별도로 특별분과를 만들어 병원, 변호사 등 5개 분과(섬유무역, 외식, 유통, 제조건설, 전문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상공인들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실업문제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 등 각종 증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상공회의소에서는 사무기능 보급 및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세히 소개하자면,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상설시험 안내

- 시행종목 : 워드프로세서(필기, 실기) : 1급, 2급 컴퓨터활용능력(필기, 실기) : 1급, 2급
- 접수방법 : <http://day.passon.co.kr/>(인터넷 접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접수.
- 시험장소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의정부시 호원동 454-7, 수내빌딩 4층)

IV. 끝내며

시장은 본래 우리말로 ‘저자’라고 불렸으며, 오늘날 시장(market)이라 부르는 것을 전통시대에는 장시(場市)라고 했다. 조선시대의 장시는 한성이나 개성, 평양 등의 대도회에 개설되었던 시전(市廛)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시전이 상설시장이라면 장시는 정기시장이다. 장시는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10일에 한 번 열리는 ‘10일장’이나 5일에 두 번 열리는 ‘2일장’도 간혹 있었다.

장시는 그 형태가 다르지만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고 고려시대에는 최소한 조선초기보다 훨씬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송나라 서경(徐兢)이 1123년(인종1)에 사신으로 개경에서 한 달을 체류한 후 돌아가 쓴 『고려도경』에 아래와 같은 글귀가 있다.

「고려의 고사(故事)에, 매양 사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큰 저자를 이루고 온갖 물화를 나열하는데, … (중략) … 대개 그 풍속이 사람이 살면서 장사하는 가옥은 없고 오직 낮에 시장을 벌여(惟以日中爲虛) 남녀·노소·관리·공기(工技)들이 각기 자기가 가진 것으로써 교역하되 돈을 사용하는 법은 없다. 오직 저포나 은병으로 그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 (중략) … 그러나 백성들은 오래도록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스스로 편하게 여긴다. (고려도경, 권3 무역)」

위 인용문 중 ‘허(虛)’는 허시(虛市), 즉 장시를 의미한다. 특정한 시설물이 없이 빈 터에 장이 섰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시라고도 하였다. 또한 오래도록 풍속에 익숙하여 편히 여긴다 하였으나 조선은 개국과 함께 역상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장시가 열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필요 물품에 수요가 없을 수가 없다. 이에 장시는 1470년경부터 전라도에서 다시 장문(場門)이라는 이름으로 대동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천 개가 넘는 장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장시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유통기구였다. 그러나 장시는 이러한 경제적 기능 외에 중요한 문화적 기능이 수행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 농민들이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전근대에 장시는 지역민들이 한 곳에 모이는 허브로서 문화교류가 실현되는 곳이었던 것이다. 장시는 윤음(綸音)이나 중앙정부 및 군현의 정령(政令)을 홍보하고, 패서(掛書)나 벽서(壁書)의 형태로 개인의 뜻을 호소하거나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다른 마을

주민이나 상인으로부터는 타지의 소식을 듣는 정보교환의 장(場)이고, 연회패들의 공연과 음주·투전·놀이판이 벌어지는 오락과 유희의 장이며, 친인척과 지인들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사교의 장이었다. 또한 의료행위나 생활용품의 수선이 이루어졌고, 때로는 민중운동의 집결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시는 인적·물적·문화적 풀(Pool)을 형성함으로써 총체적인 의미로서의 문화교류가 실행되었고, 이에 장시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장시망 형성의 기저에는 상품 유통을 담당한 수운이 있었다. 즉 유역권(流域圈)이 같으면 지점 간 거리가 멀더라도 하천으로 교통로[수로(水路)]가 열려 있으므로 지역간 교류가 활발하였고 지역문화도 비슷하였지만, 반대로 유역권이 다르면 비록 거리가 가깝더라도 장시권이 달라 지역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고 생활권과 지역문화도 달랐다. 수운권에 의거한 장시권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였고, 장기간 하천 상·하류지역 간 문화교류는 지역문화의 동질화 과정을 거쳐 동질의 문화권을 형성토록 하였다. 결국 유역권[수운권], 장시권, 생활권, 문화권은 같은 권역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문화권이 시장권에, 시장권이 수운권에 기초한다면 한국의 문화권은 하천유역권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근대에 장시는 하천, 여울, 진도, 포구, 대·중·소 도로망 등과 함께 전근대 문화권[지역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였다.

1970년대 5일장의 감소는 도로의 확충과 시내·외 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수단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1990년대에는 여기에 개인 소유의 자동차 보급이 가세하여 읍·면 단위의 장시도 폐지되었다. 여기에 5일장을 더 위축시킨 것이 1990년대 말부터 출현한 이른바 ‘마트’라는 할인매장이다. 이 마트는 5일장은 물론 상설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재 5일장은 거의 대부분 상설시장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연대하여 장이 열린다. 한때 ‘민속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변신을 꾀하며 상설시장과 협력하여 자생력을 높이려 노력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듯하다. 이처럼 5일장이 쇠퇴하는 와중에 새로운 형태의, 유럽형 정기시장이 나타났다. 그 이름을 ‘요일장’이라고도 부른다. 1990년대 이후 도시 내 대단위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같은 요일마다 개시되는 정기시장을 일컫는다. 7일 주기이므로 ‘7일장’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상〉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년(음희 2) 간행.
- 국역 『비변사등록』 165책, 1782년(정조 6) 8월 07일(음)辛未. 備邊司의 啓.
- 세종대학교 박물관 · 의정부시,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 의정부시, 『의정부 30년사』 하권. 1994.
-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권, 2004.
-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사』 제6권, 2014.
-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 2007,
- 『임원경제지』 권40, 전어지(佃漁志), 어명고(魚名攷), 해어(海魚).
-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홈페이지(<http://www.sandae.com>).
-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874.
-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 박은숙, 『시장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8.
- 신기철, 『한국문화대사전』 제2권, 2008.
- 최완기, 「조선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
- 이도남, 「누원점 상인」,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홈페이지(<http://yangju.grandculture.net>).
- 김주영, 『객주』 제5·9권, 문이당, 2003.
- 박구병, 「어업의 발달」, 『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 김영복, 『신정증보 의정부지리지』, 성심출판사, 2004.
- 김종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글 인용.
- 양훈도, 경기신문 논설위원 글 인용.
- Leechmania, 조선시대 이후, 시전과 장시(History of Shops and Markets).

용인 백암장과 백중문화제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I. 들어가는 글

II. 장시문화의 발달

III. 용인의 장시 현황

IV. 백암장의 어제와 오늘

V. 백중문화제

VI. 맺는 글 - 백암장 활성화 방안

※ 참고 문헌

집필자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경기학회 부회장

I. 들어가는 글

농민들은 꼭 사거나 팔 물건이 없더라도 구경삼아 장에 간다. 이것이 농촌시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씨오쟁이 짊어지고 따라간다.”라는 속담도 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농촌의 마을도 장날이 되면 활기를 띤다. 장터에 이르는 길은 손이나 어깨, 등, 머리위에 곡식자루, 닭, 계란, 채소 등을 이거나 지고 나오는 농민들로 북적거린다. 장에는 못 보던 새로운 물건이 있는가 하면, 자주 못 만나는 친척을 만나 주막에 앉아 막걸리 잔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곳이다.

장시(場市)는 조선 중기부터 각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시장으로¹⁾, 초기에는 10일이나 보름 마다 열리던 것이 조서 후기로 내려오면서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오일장이 일반화 되었다. 일제 강점기를 관통하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온 장시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및 교통의 발달로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도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라졌던 장시가 새로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장시의 주된 기능은 물건을 거래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전문 장사꾼들도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농업 등 생업에 종사하다 장날이 되면 생산물을 장에 나가 팔거나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장시는 오랫동안 농민이나 상공인들에게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장시는 물건의 거래 및 교환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기도 했다. 현재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지만 과거 이러한 매체들이 없었을 때에는 장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장시는 간혹 놀이패가 모여들어 공연을 펼치기도 하는 예술의 장이기도 했다.²⁾

18세기 및 19세기에 간행된 각종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용인현 소재지의 현내장(구성)을 비롯하여 김량장, 남사 지역의 도촌장, 그리고 양지 방면의 개천장(개나리장)과 배감장(백암장) 등의 장시가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이 1960년대까지 이어져 용인장(김량장), 백암장, 원삼장, 송전장, 모현장 등 용인시 관내 여러 곳에서 장이 서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면서 용인장

1) 향시(鄕市)와 같은 여러 형태의 시장이 그 이전부터 존재해오다가 15세기 들어 장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2) 우(牛)시장이 번성했던 백암장에는 남사당패가 자주 찾아와 놀이판을 벌였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백암농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암농악의 판제가 안성 남사당패의 웃다리 판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과 백암장만 남고 기존의 장시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가하면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용인의 오일장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용인장의 경우 상인들이 계속 증가하여 금학천을 따라 역북동 초입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라졌던 모현장이나 송전장, 원삼장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백암장 역시 전통을 살리자는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백중문화제를 개최하는가 하면 왜소해진 장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듯, 이는 용인 관내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과거의 장시와는 많이 다르지만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가는 장시의 다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전통 장시의 면모를 이어 오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백중장의 전통을 재현하기 위해서 백중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백중문화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장시문화의 발달

장시(場市)는 15세기 중엽 전라도 나주(羅州)와 무안(務安) 지방에서 처음 개설된 이래 16세기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개설되기에 이르렀다.³⁾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동법 실시와 동전 유통의 확대, 사상인(私商人)의 성장, 통공정책(通共政策)의 실시 등에 힘입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산곡간(山谷間)이나 외진 곳에서도 개설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하였으며, 각 지역사회의 문화, 관습, 생활정도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곳이다.⁴⁾

장시가 없었던 시기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조달하기 어려운 생필품들을 행상을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행상은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행상의 활동은 본격적인 농민교역 공간으로서 장시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지방민들에게 있어 거의 유일한 교역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역 수단은 농민들 사이에서 행해지

3)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35(4), 2012, p.89

4)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장꾼', <실천민속학연구> (6), 2004, p.295

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단순 교환이나 행상과의 교역이 전부였다.

중종 13년(1518)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장시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상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다. 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궁벽한 시골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장사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행상들의 활동공간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시에서는 행상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활동했다. 일반적으로 행상으로 불리는 보부상(裸負商)들은 장시를 돌아다니며 장사했고, 객주(客主)는 사람들의 물건을 보관해 주거나 거래를 연결해 주었으며, 감고(監考)는 곡식의 양을 측정해 준 대가를 받아 돈을 벌었다. 한강 포구 등 규모가 큰 장시에는 많은 양의 곡물과 소금, 어물 등을 사고팔면서 숙박업을 하던 여각도 있었다.

장시는 성립 초기에 한 달에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 열리는 보름장, 또는 10일장이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장시가 5일장으로 통일되는 시기는 18세기 이후였으며, 이 시기에도 10일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장시 수가 증가하면서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30-50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장시가 개설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1천 개 이상이 열리고 있었다. 주변의 다섯 개 지역을 하나로 묶은 뒤 날짜를 달리 하여 5일마다 열리는 장이다 보니 5일장 조직은 전국을 벌집 모양으로 연결했다.

장사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매우 다양했다. 곡물이나 옷감, 고기, 술과 같은 식품은 물론이고 농기구, 칼, 도끼 등과 같은 생활 도구 등 다양한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들이 장시에 나왔다. 그러나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특별한 물건을 파는 장시도 있었다. 가축 시장, 땃감 시장, 한약재를 사고 파는 약령시(藥令市), 고기잡이 철이면 열리는 파시(波市) 등은 한 종류의 상품을 주로 다루는 전문 시장이었다.

장터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상인과 주민들이 물화교역을 하는 곳으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민중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였다. 장시의 발달은 농민들의 상품 생산을 촉진하였고 생활경제의 패턴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지역간 상품유통과 문화의 전파, 교통로 개발 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Ⅲ. 용인의 장시 현황

1. 용인시 오일장의 형성과 규모

용인 지역에서 언제부터 오일장이 열리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나 『산림경제(山林經濟)』, 또는 각종 ‘읍지’ 류 등을 통해 조선시대 중기 이후 장시(場市)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오일장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17세기 후반에는 오일 간격으로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17세기 후반부터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정비되는데, 용인은 남교(南郊)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영남대로’와 ‘삼남대로’가 통하는 곳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로 인식할 정도였다.

특히 용인은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9대로’ 중 제4대로에 해당하는 ‘영남로’의 관문에 해당한다. 동래로의 중요 경유지인 낙생(樂生), 용인 현내(縣內), 김량(金良), 배관(排觀), 석원(石院) 등지에 장시가 열렸는데, 이들 지역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울과 수원, 안성 등과 연결되면서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들 장시 가운데 현내장, 김량장, 배관장(배감장, 백암장) 등이 모두 현재 용인시 행정 구역 안에 위치한 장시였다.

문헌		동국문헌비고 (1770)	임원경제지 (1830)	대동여지통고 (1834)	비 고 (현재지명)
지역(장)					
용인	현내장	*	2일	2일	기흥구 언남동
	김량장	5일	5일	5일	처인구 김량장동
	도춘장	1일	1일	1일	남사면 봉무리
양지	개천장	*	4일	*	양지면 제일리
죽산	배감장	3일	1일	1일	백암면 백암리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 19세기 중반에 간행된 『임원경제지』, 『대동여지통고』, 『용인현읍지』, 양지·죽산의 ‘읍지’ 등을 보면, 당시 용인에는 용인현 소재지의 현내장과 김량장, 남사 지역의 도춘장, 그리고 양지 방면의 개천장(개나리장)과 배감장(백암장) 등이 있었다. 이후 개천장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도춘장이 사라지고, 현대에 들어와

송전과 원삼, 모현 지역에 새로운 모습의 재래시장이 서기도 하였다.⁵⁾

2. 용인시 오일장 장세와 거래 품목

장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장세(場稅)를 거둬들였는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장시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 1794년 한 해 동안 총 216냥의 장세가 수납되었다. 그 중 현대 장에서는 봄과 여름철에는 매달 4냥 8전씩, 가을과 겨울에는 6냥씩 거둬들였고, 김량장에서는 각각 6냥과 9냥씩, 도촌장에서는 4냥 2전과 6냥씩을 거둬들였다. 배감장은 8월부터 2월까지 15냥 5전, 3월에서 7월에는 7냥 8전으로 책정되었다. 곧 용인시 오일장에서 거둬들이는 장세액은 거의 300냥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경기도에서 안성장(720냥)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액수다. 이를 통해 볼 때 용인 지역의 오일장이 경기도에서는 손꼽히는 장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용인의 오일장에서 거래되던 주요 상품은 미곡, 면포, 마포, 어염, 대추, 밤, 배, 감, 유기, 옹기, 사기, 연초, 소 등이었다. 양지의 개천장은 미곡, 면포, 마포, 어염, 대추, 밤, 연초 등이 죽산 배감장에서는 쌀, 콩, 보리, 무명, 면화, 과일, 소 등이 거래되었다. 용인의 경우, 서울과 안성, 수원이라는 대도시를 인근에 두고 있어 일찍부터 미곡의 생산이 활발하였으며, 면화는 용인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 20세기 초에 와서는 조, 콩, 보리, 옥수수 등의 잡곡은 물론, 목면, 참깨, 들깨, 아주까리, 연초, 백삼 등의 밭작물이 경작되었으며, 과수로는 감, 밤, 대추, 은행 등이 생산되어 오일장에서 거래되었다.⁶⁾

3. 용인시 오일장의 확장과 변모

19세기를 넘어오면서 20세기 중반(1968년)에 용인시에서 열리는 오일장은 모두 6곳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사면 봉무리에서 열리던 오일장이 소실되고, 왕산에서 열리던 모현장은 1960년대 말까지 월 6회에 걸쳐 열렸으나, 14일 장이 빠져 5회만 열리게 되었다.⁷⁾

그리고 1980년대부터 1982년까지 2곳의 오일장이 소실되어 4곳에서만 오일장이 열렸다. 그 후 1983년 이후에는 다시 2곳의 오일장이 소실되어 용인장과 백암장만이 그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하

5)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시사> 1, 2006, P.557~562.

6)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67~569쪽.

7) 용인장은 '열흘닷새장', 백암장은 '옛새하루장', 모현장은 '아흐레나흘장' 등으로 불렸다.

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개설된 상설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이 오일장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정기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원거리에서 열리는 오일장보다는 가까운 곳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60년대			1970년대		
	소재지	일시	우시장	소재지	일시	우시장
용인면	김량장리	5,10,15,20,25,30	1	김량장리	5,10,15,20,25,30	1
모현면	왕산리	4,9,14,19,24,29		왕산리	4,9,19,24,29	
남사면	봉무리	2,7,12,17,22,27				
이동면	송전리	1,6,11,16,21,26		송전리	1,6,11,16,21,26	
원삼면	고당리	3,8,13,18,23,28		고당리	3,8,13,18,23,28	
외사면	백암리	1,6,11,16,21,26	1		1,6,11,16,21,26	1

용인시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일장은 물론 용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용인장은 정확히 말하면 ‘김량장(金良場)’인데, 지금의 처인구 김량장동에 서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열리는 오일장이다. 김량천은 과거에 용인 고을과 양지 고을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으로, 현재의 자리에 오일장이 서기 시작하면서 교역의 중심이 되고 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1년 지금의 기흥구 마북동(옛 구성읍 소재지)에 있던 용인군청이 옮겨 오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명에서조차 김량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김량장의 발전과 성장은 오일장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현재 용인시의 전통적인 오일장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서 열리는 오일장이다. 백암장은 과거 농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시기에 용인은 물론이고 인근의 안성과 이천 일부 지역에서도 찾아왔을 정도로 규모와 위상을 자랑했던 장이다.⁸⁾

8) 정양화 · 최명환, ‘용인시 오일장의 형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과 시장 사람들〉, 2013, P.11-17.

IV. 백암장의 어제와 오늘

조선시대에 백암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경상도에서 한양을 가려면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를 지나고 죽산을 지나 백암을 통해야만 용인을 거쳐 판교-말죽거리로 갈 수 있었다. 이 길이 바로 동래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이다. 총 거리 960리로 부산에서 한양까지 보름 정도 걸리는 가장 빠른 길이었으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다.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큰길 주변에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막이 유난히 많았다. 원대 주막이니 별당주막이니 하는 유명한 주막들이 구한말까지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백암 사람들은 지금도 주막거리란 지명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이처럼 백암이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임진왜란 때는 왜적이 이곳을 통과하여 한양으로 들어가면서 온 동네를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보내는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가 이곳을 거쳐 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백암은 넓은 평야지대라서 비옥한 토지가 많았고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인구가 많고 생활이 풍족했다. 이러한 백암의 풍요를 상징하는 격언이 하나 있다. “신갈 처녀 백암 시집보내고 부모 얼굴 퍼진다.”는 말이다. 척박했던 옛 신갈 사람들이 물산이 풍부하기로 이름 높은 백암 사람들을 부러워했음은 물론이다.

조선시대부터 백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래하기 위해 1일과 6일에 백암장이 열려 성시를 이루었다. 특히 백암장은 우시장으로 유명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소가 필수적이다. 농업의 발달로 소를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시장이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시장이 열리면 수 백 마리의 소가 거래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경상도 안동이나 상주에서 소장사가 소를 팔러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 백암장은 백중날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음력 7월 15일이면 봄부터 여름까지 논밭 일을 하던 농부들이 바쁜 일손을 내려놓고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는데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백중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백암장에 모여 농악놀이, 씨름대회를 열고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을 다졌다고 한다.

특히 백중장에서 열리는 농악경연과 씨름대회는 유명했다. 백암 지역 각 마을 단위로 자웅을 겨루는 농악경연대회가 벌어졌고, 힘이 센 머슴과 농민들이 참여하는 씨름판이 열려 최종 승자에게 ‘장사’라는 칭호가 부여되고 송아지를 부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백암농악은 용인의 유일

한 옷다리 풍물로 전승되어 오고 있고, 백중장에서 벌어지던 씨름대회가 모체가 되어 오늘날 용인 씨름이 전국을 제패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의 각 초·중·고등학교 씨름단이 20여 년 동안 전국 대회를 석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인백옥쌀씨름단이 전국씨름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를 제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중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백암 지역의 유서 깊은 백중장이 산업화의 그늘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적인 전통이 잊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백암 지역민들이 백중놀이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바로 2011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백중문화제이다. 백중문화제는 백중장의 옛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농악을 비롯하여 씨름대회, 마을 대항 줄다리기 등 각종 민속놀이를 재현하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난해 5회째 행사를 열었다.⁹⁾

1. 백암장의 역사

백암장이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선 영조 때부터 문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200년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시적고(市糴考)〉 향시조(鄉市條)에 ‘배관장(排觀場)’이란 이름이 기록상 처음 등장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울과 수원·안성 등 경기 지역 상권과 연결되면서 주요 상업기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죽산현에 속했으며 배관장, 혹은 배감장(排甘場)으로 불리었다. ‘백암’이란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99년에 발행된 죽산읍지로 “백암 장터가 있어 매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배개미장’이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배관장-배개미장-백암장으로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백암장이 열리는 위치는 원래 주막거리였다. 과거에 백암장이 열리던 곳은 현재 백암리로 들어오기 전의 사거리 근처였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엔 그곳을 구백암이라 불렀는데, 지금의 장터 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변화하면서 신백암으로 불리게 되었고 장터도 옹기게 된 것이다.

백암장의 규모는 과거 60~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컸었다. 얼마나 컸는지 장날이면 백암 사람 반은 장에 나왔다고 할 정도로 장꾼들이 많았다. 유독 키가 큰 사람이나 큰 물건, 또는 넓은 지형을 보고 “배개미 진(진)장 같다”고 하는 격언이 지금도 전해질 정도다.

9) 김장환, ‘백암장과 백중문화제’, 〈시장과 시장 사람들〉, 2013, P.11-17. 203-220.

백암의 지리적 여건상 양지, 원삼뿐만 아니라 이천의 모가, 설성, 호법, 안성 일죽면 사람들이 백암장을 다녔고 이들은 백암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을 이루며 주민들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즉 백암장은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38년 당시 백암장에서 거래되었던 물품 거래액은 30만 2,737원에 달하였다.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이 7원이었으니 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우시장이 열리면 서 각지에서 의류, 생선, 막걸리, 과일장수 등이 몰려들어 크게 번창하였고, 돼지와 쌀시장으로도 전국적 유명세를 탔다. 1970년대 중반 고정 상인이 40명, 이용자가 6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산업화 바람에 밀려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일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장풀뱅이라 했는데, 1일과 6일 열리는 백암장을 시작으로 2일과 7일 열리는 안성장, 3일, 8일 열리는 광해원장, 5일, 10일 열리는 진천장을 옮겨 다니며 장사를 했다. 거기에 잡화를 파는 붓짐장사와 일용품을 짚어진 등짐장사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 다 장날이면 도로변에 물건을 벌려놓고 손님을 맞았다.

철따라 나오는 과일과 채소, 먹을거리들이 풍성하고 난전에는 농기구며 온갖 잡화들이 재미나게 펼쳐졌다. 농민들은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이거나 지고 나와 장에 팔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갔다. 또 자주 못 만나는 친척이나 이웃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곳이다. 이렇듯 백암장은 백암 지역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의 장이자 만남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2. 우시장과 싸전

과거 백암장을 대표하던 것이 보통 ‘쇠전’으로 불리는 우시장이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30년 전만 해도 백암 우시장은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1918년 말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우시장은 모두 655개소였고, 경기도에만 47개소가 있었다. 당시 단위시장으로 가장 큰 곳이 거래량이 2만 5천 두 이상이었던 함북 명천장과 길주장이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수원장과 용인 백암장으로 2만두 이상 거래되었던 곳이다. 장날이면 소장사가 전국에서 몰려든다는 수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1918년 당시 전국 도별 우시장 현황

도	경상북도	강원도	황해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경기도
시장	91	67	63	58	52	50	50	47

1918년 당시 거래량별 우시장 현황

거래량(두)	시장소재와 명칭
25,000 이상	함북 명천군 명천장, 길주군 길주장
20,000 이상	경기도 수원군 수원장, 양주군 삼패장, 용인군 백암장
10,000 이상	경기도 포천군 동교장, 파주군 춘일천장 외 12개소

소 거래가 활발하던 당시 경상도 영주와 상주 등지에서도 소를 사기 위해 상인들이 올라왔다. 당시 우시장이 열렸던 곳은 현재 장날 간이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의 백암경로당 앞쪽이었다. 우시장이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야채상과 의류상이 들어섰다.

900평이 넘는 쇠전 여기저기에 소를 묶어 놓으면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중개해 주는 거간꾼이 따라 붙는다. 거간꾼은 꼭 다문 소의 입을 벌려 나이를 짐작하고 멩에살을 검사한 뒤 걸쭉하게 목소리를 내갈기며 흥정을 붙인다. 눈만 멀뚱 하늘을 보는 소의 음메 소리에 아들 학자금 마련할 농부의 주름살이 엮보인다. 거간꾼에게 주는 수수료는 보통 1%였다. 집안의 최고 재산인 소를 팔면 농부는 다시 기를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몰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소 거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시장이 열리면 이동 상인뿐 아니라 소 몰이꾼, 중개상인, 도축상인 모두 활동했다. 게다가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소를 매매하는 소장수들을 위한 ‘마방’도 있었다. 마방에는 소를 맡아 관리하면서, 먹이도 주고 체중 늘리는 일까지 담당하는 마방꾼이 있었다. 당시 마방집은 우시장 옆에 있었는데 우시장과 함께 없어지고 지금은 야채시장으로 바뀌었다.

70년대 후반부터 농촌 가정의 재산목록 1호였던 소가 경운기와 콤팩트 등 기계가 보급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침내 우시장은 문을 닫았다.

백암장에서 쇠전 다음으로 유명했던 것이 싸전(쌀시장)이었다. 백암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품질과 양에서 인근지역을 크게 압도했다. 그래서 백암쌀을 사기 위해 멀리 수원이나 광혜원에서까지 장사꾼들이 찾아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쌀이 대형 유통업체들을 통해 거래되는 탓에

유통량이 크게 줄었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추청(아끼바리)쌀을 수매해 브랜드화한 백옥쌀이 인기를 끌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싸전이 있던 곳은 청미천 하천 옆으로 413번지, 428번지 일대에 이어지는 6층 건물 주변이었고, 그 옆으로 닭전 골목과 떡전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쇠전을 중심으로 싸전이 백암장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가운데 콩이나 깨 등 곡식과 파는 곡물전, 생선을 파는 어전, 무우나 배추 등 채소를 파는 채소전, 유기그릇을 파는 유기전, 인절미나 절편 등 각종 떡을 파는 떡전, 닭을 잡아 파는 닭전, 각종 씨앗을 파는 종자전, 소금을 파는 염전, 바늘을 파는 침자전, 철로 주물한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철물전 등 갖가지 물품이 거래되었다.¹⁰⁾

3. 백암순대

백암장이 쇠락하면서 우시장이나 싸전은 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백암장 최고의 명물로 그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백암순대이다.

백암은 용인에서는 드물게 너른 평야가 형성되어 비옥한 토지에 쌀농사가 발달했고 우시장과 함께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 한우와 돼지 사육두수는 면단위 전국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우가 80여 농가에 약 4,100두를 키우고, 돼지는 110여 호에서 무려 15만 5천여 두에 달했다. 이처럼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돼지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순대가 유명해졌고 백암의 명물을 넘어 지금은 용인의 특산물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순대하면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찰순대를 연상하지만 소창과 막창에 각종 야채와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것이 백암순대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 ‘풍성옥’을 운영하던 함경도 출신의 이억조(1909~1996)가 백암장이 설 때 순대와 국밥을 만들어 팔던 것이 시초이다.

현재 그 손녀가 5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순대전문 식당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순대집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백암순대가 체인화 되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백암순대는 돼지의 선지와 호박·부추·숙주·두부·콩나물 등의 채소를 다지고 섞어서 갖은 양념을 한 다음 돼지창자 속에 꼭 차게 집어넣고 실로 양 끝을 동여맨 후에 찐 음식이다. 일반 순대와 차이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다진 채소를 풍성하게 넣어 순대의 잡맛이 덜하고 담백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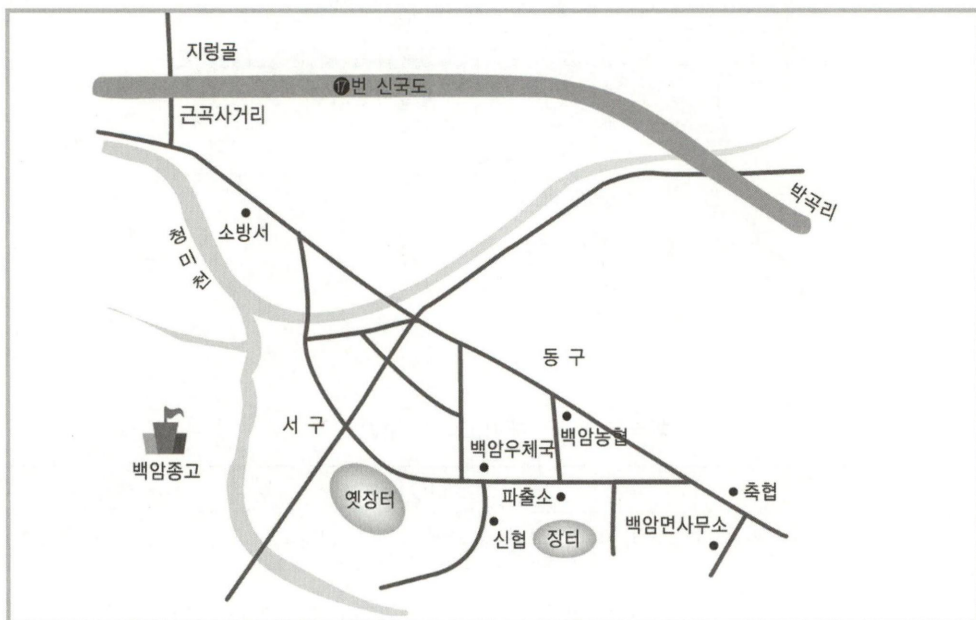
10) 용인문화원, 『백암면지』, 2006. p.518

영양학적으로 볼 때도 순대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순대의 기본 재료인 돼지의 내장과 선지에는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 속재료인 채소에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하다. 또한 함께 들어가는 당면·참쌀 등의 재료를 통해 탄수화물도 섭취할 수 있다. 돼지내장이나 당면, 참쌀 등의 산성식품을 알칼리성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섞음으로써 조화를 이룬 백암순대는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4. 백암장의 쇠락

우시장, 싸전, 백암순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백암장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광복 이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오일장은 1975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있다.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던 당시부터 농촌의 읍, 면 소재지까지 정기 시장이 들어섰고 상가 또는 상설시장으로 시장의 규모와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백암장이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것은 우시장이 사라지면서부터다. 1963년 6월 축협이 가축 직거래가 이뤄지고, 유통망의 발달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사라지고 만 것이다. 더구나 농협 유통망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조정되다보니, 싸전까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더욱 급격히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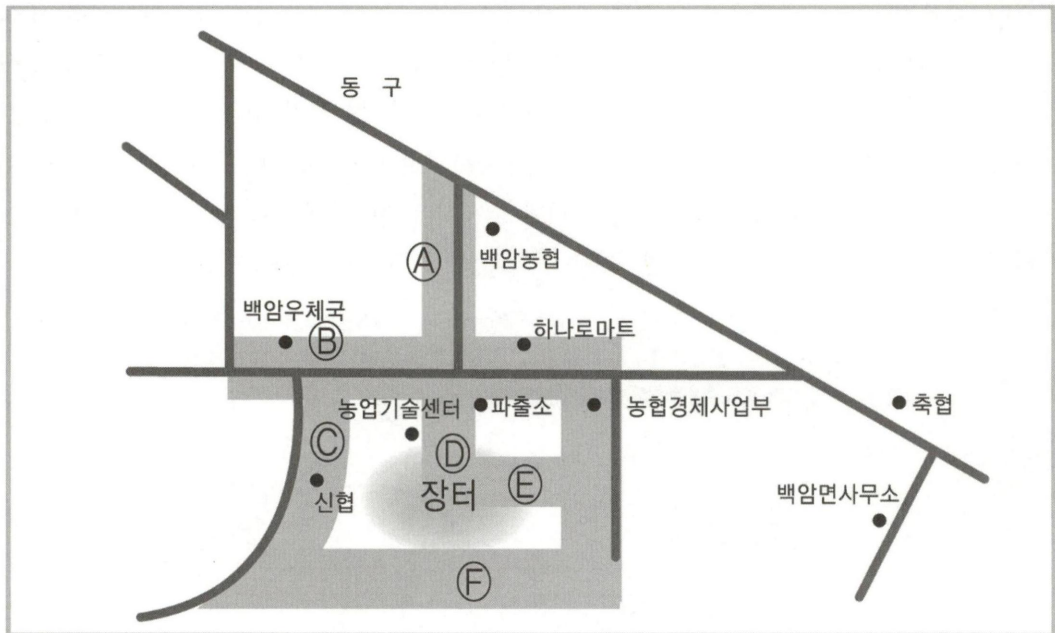


백암장의 위치도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던 과거에는 가까운 곳의 장날이라고 하면 닷새 동안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러 걸어 나오곤 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의 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이나 제사 제물을 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장에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승용차나 화물차는 다 구비하고 있어서 잠깐 시간만 내면 시내의 큰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백암만 하더라도 농협연쇄점과 00유통 등 큰 상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장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의 오일장은 상설시장 주변의 거리나 공터, 시장골목 등에서 장사꾼과 지역주민들이 벌이는 노점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1,000여 평에 100여 개의 노점들이 들어서는 다소 평범하고 아담한 장으로 변모되어 어느 시골의 장날처럼 한산하다.



백암장의 난전 배치도와 그 운영 실태

구 분	위 치	난전 배치 실태
A블럭	좌측열	과일, 과자, 냄비, 약재, 잡화(안경, 시계), 빵튀기, 잡화(버선, 양말), 먹거리(피자, 닭꼬치), 부식(계란, 번데기), 부식(양미리), 부식(파, 청국장)
	우측열	옷, 생선, 과자, 먹거리(닭발, 돼지고기, 술), 의류(아동), 미곡, 과일
B블럭	좌측열	차량(바나나), 의류, 미곡류, 가방

구 분	위 치	난전 배치 실태
B블럭	우측열	차량(채소), 화원, 미곡류, 의류, 가구(전통상, 문갑), 먹거리(오뎅)
C블럭	좌측열	여성의류, 채소, 잡화(생필품), 미곡류, 과일, 건어물
	우측열	(없음)
D블럭	좌측열	어물, 먹거리, 건어물, 마늘, 고추, 과일, 육류(내장), 가방
	우측열	의류(내의), 신발, 약재, 과일, 미곡류
E블럭	좌측열 우측열	건어물, 채소류, 잡화(가발, 모자), 의류(남성, 여성), 생활용품, 잡화(악세사리), 가축류
F블럭	좌측열	젓갈, 반찬, 생닭, 채소, 어물, 그릇, 잡화, 과자, 양말, 어물, 건고추
	우측열	생선, 의류, 빵튀기, 이불, 신발, 먹거리(붕어빵), 아동독, 건어물, 먹거리(막걸리, 순대, 오뎅), 남성의류

백암장이 비록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백암장은 백암면과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분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근 마을의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고, 철따라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공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백중문화제를 개최하는가 하면 요즘 다시 오일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백암순대 등 이색 상품을 내세우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V. 백중문화제

1. 백중과 백중장

백중(百中)은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논밭 일을 하다가 음력 7월 보름에 이르러 바쁜 일손을 내려놓고 비로소 휴식을 취하는 날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 던 농민들의 여름철 명절이다. 백중을 백종(百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백곡지종(百穀之種)의 줄임말로 백 가지의 곡식이 성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백중에는 여러 풍속이 전해온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제를 올리고, 궁중에서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천신(薦新)을 올리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과 일꾼들에

게 휴가를 주었다. 장터에서는 ‘백중장’이 열리고 각 고을 풍물패가 두레를 노는 가운데 씨름판이 벌어져 우승자에게는 송아지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백암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백중날이면 온 주민이 백암장에 모여 농악놀이, 씨름대회 등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1936년 전국의 민속놀이를 조사하여 〈조선의 향토오락〉이란 책을 펴내고 전국의 민속놀이를 금지시키면서 사라졌던 것을 광복 후인 1950년대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 부활시켰지만 안타깝게도 1970년대 말 산업화의 그늘에 밀려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농촌에서 백중 무렵이면 세벌 논매기가 끝나게 된다. 힘든 농사일을 한시름 놓게 되면서 호미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백중날을 ‘호미씻이’ 라고도 했다. 부잣집에서는 집안의 머슴에게 옷을 해 주고 돈을 주어 하루 쉬도록 배려를 했고 이들이 몰려가는 곳이 백중장이었다.

백암에서는 음력으로 7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백암장을 백중장으로 삼았는데 이날은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뤘다. 농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씨름대회가 열리고 사당패들이 들어와 한바탕 놀기도 하고 장터 곳곳에는 거하게 먹고 마신 주민들로 흥청거렸다.

평소 관이나 번영회 눈치를 보면서 쫓겨 다니던 야바위꾼들의 난장판도 이날만큼은 묵인되었다. 야바위 난장은 그 종류도 다양했다. ‘국산품 애용’ 이라고 해서 지금의 빙고게임 같은 것도 있었고, 육모로 깎아 만든 팽이를 돌려 나온 수의 배수만큼 가져가는 ‘오곱’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청미천 모래사장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졌다. 해마다 열리는 백중장 씨름대회에는 백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용인, 이천에서도 왔고 멀리 충북 음성에서까지 오는 사람도 있었다. 씨름대회에서 장원을 하면 상품으로 송아지 한 마리가 주어졌다. 송아지 등엔 거적이 덮여져 있고 그 거적에는 ‘장원’ 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장원을 한 최고의 장사는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녔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개천에 들려 송아지에게 물을 먹였다고 한다.

백중장의 또 다른 볼거리는 뜨내기 사당패들이었다. 광복 직전까지 이들 사당패는 전국 유명한 오일장을 찾아다니며 연회를 했는데, 당시 우시장으로 유명한 백암의 백중장은 그들의 단골이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는 장터를 돌면서 풍물을 치고 박첨지 놀이 등을 연행하면서 장터의 흥을 돋웠다. 또한 씨름판이 벌어질 때는 판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긴박감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이전에는 백암에도 농악이 왕성하여 각 마을마다 농기를 들고 장터에 나와 함께 놀기도 했지만 일제에 의해 금지되면서 농악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광복 이후에 다시 농악을 복원하게 되고 백중날이면 마을 대향 경연을 벌였다고 한다. 일부 마을에서는 백중장이 끝나면 마을로 돌아가 지신밟기를 했다. 먼저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축원하는 곳을 올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마당놀이, 대청굿, 우물굿, 터주굿 등 고사를 지냈다. 지신을 밟은 집에서는

돈을 내놓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이처럼 백암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놀던 때가 백중장날이었지만 여자들의 장터 출입을 금하는 마을도 있었다. 술과 야바위와 노름판으로 흥청거리는 장터가 자칫 여자들에겐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었다.¹¹⁾

2. 백중문화제의 현황과 과제

이처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백중날이면 온 주민이 백중장에 모여 농악놀이, 씨름대회 등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을 다져왔으나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수 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백중놀이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 백암 지역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존회를 결성하고 백중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지역에 면면히 이어오던 백중놀이를 오늘에 되살려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용인문화원은 지역민들의 이와 같은 노력이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백중문화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중놀이의 학술적 규명과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9월 17일 백암면사무소 강당에서 열린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공청회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백중의 역사성과 축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백중문화제의 기획과 운영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전통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역민의 의지가 한데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다.¹²⁾

백암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인 백암 백중제가 30여 년 만에 부활하여 마침내 2011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들 동안 백암장터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백암농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물놀이 공연, 여자씨름대회, 국악연주 등이 열리고 둘째 날에는 백암 웃다리 농악, 사물 판굿, 순대 기네스, 요가시연, 전통무용, 백중가요제 등이 진행되었다. 상설행사로 짚풀놀이, 떡메치기, 콩 탈곡하

11) 김장환, 앞의 책, 211-214

12) 용인문화원,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 공청회〉 자료집, 2011

기, 농특산물 할인행사, 벼 타작하기, ‘용인사람 용인품물’ 사진 전시회 등이 열렸다. 참가시민들에게는 백암 지역 순대국밥을 30% 할인해 주기도 했다. 첫 번째 행사로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고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행사였다.¹³⁾

2012년 개최된 제2회 백암 백중문화제는 ‘백암장터 가는 날’이라는 주제를 설정해 놓고 길놀이, 현감행차, 지경다지기, 씨름대회, 줄타기 등 전통문화 재현행사와 무용, 국악 관현악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¹⁴⁾

제3회 백암 백중문화제는 2013년 8월 25일부터 백암면주민자치센터 일원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 동안 개최하였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주제를 설정해 놓고 진행된 제3회 행사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백암면 석천리에 위치한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역에서 고유제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지경다지기, 백중씨름대회, 백암농악, 백암막걸리 시음, 백암순대 자르기, 제기차기, 가요제, 마을대항 줄다리기 등이 열렸으나¹⁵⁾ 행사 규모나 프로그램, 관객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시의 재정 악화로 백중문화제의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백중문화제 추진 기구의 내부적인 문제로 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이 초래되면서 오랜 기간 정상화되지 못한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적은 예산과 조직의 파행, 그로 인한 짧은 준비 기간이 제3회 백중문화제를 위축되게 만들고 말았다.

2014년에 계획되었던 제4회 백중문화제는 태풍으로 취소되면서 해를 넘겨 2015년 개최되었다. 테마별로 민속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농산물마당, 먹거리마당 등 6개 마당을 운영하면서 역대 최고의 관객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다만 테마별 프로그램 계획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파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행히 2016년 열린 제5회 백암 백중문화제에서는 백암 가창리에서 전해내려 온 농요를 재연해 나옴 백중문화제의 취지를 살리는 행사로 관심을 끌었으나¹⁶⁾ 백중이라는 절기에 백암지역 농촌에서 행해지던 호미씻이 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점 역시 백중문화제의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의 백중놀이와 백중장이라는 민속문화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신선한 소재를 발굴하여 축제를 특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콘셉트가 필요하다. 어느 행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식상한 프로

13) 용인시민신문(<http://www.yongin21.co.kr>), 2011년 11월 7일자

14) 용인시민신문(<http://www.yongin21.co.kr>), 2012년 9월 11일자

15) 용인시민신문(<http://www.yongin21.co.kr>), 2013년 9월 3일자

16) 용인신문(<http://www.yonginilbo.com>), 2016년 8월 16일자

그럼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산만하게 진행되는 지역축제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지역축제는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합의와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년의 짧은 연륜의 백중문화제가 아무런 제약이나 장애요소 없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유수의 지역축제들도 초창기에는 대부분 백중문화제와 같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백암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는 당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가 거시적인 눈으로 미래를 보고 대의(大義)를 생각한다면 합의와 통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섯 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열릴 제6회 백중문화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독특한 개성과 백암만의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축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VI. 맺는 말 - 백암장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백암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용인의 대표적인 장시인 백암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났던 큰 시장이었다. 특히 우시장과 싸전으로 유명했는데, 장날이면 전국에서 백암장으로 몰려들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축협이 가축 직거래가 이뤄지면서 우시장도 사라지고, 농협의 유통망을 통해 쌀 생산과 판매가 조정되다 보니 싸전마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백암 지역의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 정부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백암은 이런 문화콘텐츠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원형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백암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백암순대와 백암막걸리가 있고, 지리적으로 백암 지역에 들어서 있는 용인-MBC드라마아와 한택식물원, 예아리박물관 등이 있으며, 이미 문화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백중과 백암장을 결합하여 발전시킨 백중문화제가 5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백암면 내에 소재한 문화자원 및 관광지들의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인프라와 체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5회째 열리고 있는 백중문화제는 아직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영 목적인 재래시장이나 장시의 활성화 방향으로로는 제대로 연계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암장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한택식물원, 용인-MBC드라마, 예아리박물관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들을 백암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한택식물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용인-MBC드라마는 전통 건축문화 학습의 공간으로, 그리고 예아리박물관은 관혼상제 체험의 공간으로 연계시키되 백암장은 먹거리와 함께 값싼 농산물 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먹거리 및 상품 구매와 더불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즉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은 단순한 상품거래의 공간이 아닌 교류와 위락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방문객들이 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그 지역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상품이라면, 또 그 상품만을 사기 위한 목적이라면 교통이 불편한 백암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방문객들에게 관광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간적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백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특색이 없는 물품의 나열은 구매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시의 특화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먹거리는 백암순대가 있지만 지역 특산물이라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은 아직 없는 듯하다. 지역의 숨어있는 보물(자원)을 찾아내어 지역특화 요소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화를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방법으로 색다르게 재편한다면 장시의 활성화를 위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기호를 자극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거리가 멀어도 어디든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백중문화제의 활성화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체험과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비 대상도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문화적인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재래시장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축제를 통해 고유의 전통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높이고, 고유한 풍속, 관습, 행사와 볼거리에 대한 진기한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잠재적인 방문자들에 대한 간접적 홍보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백암장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관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 방안일 뿐 현지의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백암장시 활성화 방안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시 방문자들이 전통시장의 향수와 함께 잔칫집과 같은 흥겨운 분위기를 체험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흥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적 요소들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의 발달과 장꾼', 〈실천민속학연구〉 (6), 2004.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35(4), 2012.
정양화·최명환, '용인시 오일장의 형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과 시장 사람들〉, 2013.
김장환, '백암장과 백중문화제', 〈시장과 시장 사람들〉, 2013.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용인군지』, 1990.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시사』, 2006.
용인문화원, 『백암면지』, 2006.
용인문화원,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 공청회〉 자료집, 2011.
「디지털용인문화대전」 (<http://yongin.grandculture.net>)
용인시민신문(<http://www.yongin21.co.kr>) 2011년 11월 7일자 외
용인신문(<http://www.yonginilbo.com>) 2016년 8월 16일자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2011년 6월 16일자

여 백

파주지역 장시(場市) 변천사 연구

이 윤 희 (경기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파주지역 장시(場市)의 형성과 발달

1. 조선후기 파주지역 장시의 형성
2. 일제강점기 파주지역 장시
3. 해방이후 파주의 장시
4. 한국전쟁 이후 파주의 장시
5. 파주의 가축시장의 변화

III. 파주 공릉장(恭陵場)의 발달과 변천

1. 공릉장의 형성
2. 공릉장의 과도한 장세
3. 공릉장의 변화과정

IV. 파주지역 장시의 특징

V. 나오는 말

집필자

이 윤 희

경기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정기시장은 경시(京市)와 향시(鄕市)로 나뉜다.

경시(京市)는 왕궁이 위치한 도읍지에서 국가가 개설한 관설시장을 말하며 향시(鄕市)는 도읍지 이외의 전국 각 지방에서 백성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방시장을 말한다.

한양에는 이미 조선 초기에 시전(市廛-官設市場)이외에 장통장(長通場-貫鐵洞, 長橋洞 일대) 등 여러곳에 일반 물화(物貨)와 미곡(米穀) 및 우마(牛馬)등의 교역을 위한 장시가 열렸다.¹⁾

그러나 지방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에 대한 조정의 무관심과 금압정책(禁壓政策)²⁾으로 인해 오랫동안 장시(場市)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성종(成宗) 초기 전라도에 기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장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 전반기인 중종(中宗)으로부터 명종(明宗)대에 이르러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삼남지방(三南地方) 등지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숙종(肅宗) 초에 이르러서 장시의 존재가 승인되었고 그 후 장시는 출시(出市)의 날을 따로 정하는 정기시(定期市)로 발전하여 지역마다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장시의 변천과정을 보면 영조(英祖) 46년(1770) 홍봉한 등에 의해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전국에 1,064개소의 장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 후 60년 뒤 서유구(徐有渠)에 의하여 순조 30년(1830) 경에 저술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예규지조(倪圭志條)에 의하면 전국에 1,052개소의 장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임원십육지』와 거의 같은 시기인 순조(純祖) 34년(1834) 이만운(李萬運)이 편찬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전국 1,061개소의 장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고종(高宗)때 박용대(朴容大) 등에 의해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전국 1,075개소의 장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순종(純宗) 3년(1909) 대한제국 탁지부 사세국(度支部 司稅局) 자료에 의하면 전국 849개의 장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구한말에 이르러 장시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이미 고종때부터 밖으로는 일본, 러시아, 청국, 미국 등의 이권쟁탈을 위한 각축장이 되었고 안으로는 대원군(大院君)과 민비

1) 李載樂 外, 韓國史大系, 권 5, 1978, 84쪽

2) 장시에는 무거운 세금과 군역을 피하여 이농하는 농민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이농을 막고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에 힘쓰도록 하기 위하여 장시의 개설을 금압(禁壓)하였다.
-한국시장경제사, 1992, 조병찬, 동국대학교출판부-

(閔妃)의 권력다툼, 국고의 탕갈(蕩竭), 지방관리의 부정부패와 가렴주구 등에 의하여 산업이 쇠퇴하고 국민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시장경제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³⁾

이와같이 조선시대 향시는 초기에는 금압정책으로 인하여 그 발생과 발전이 억제되었고 후기에 와서는 시장정책이 전무한데다가 세제가 극도로 문란하여 화물의 운송과 상거래에 대해서도 가렴주구가 극심하여 향시, 즉 지방시장의 발전은 크게 저해되었던 것이다.

본 고에서는 조선후기 경기 파주지역의 장시의 현황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조선후기부터 경기 5대 장시의 하나로 손꼽혔던 공릉장(恭陵場)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파주지역 장시(場市)의 형성과 발달

1. 조선후기 파주지역 장시의 형성

파주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개성과 한양의 중간 길목에 위치하였고 임진강과 한강을 통한 수운 교통의 발달은 물론 조선 후기에는 육상 교통로도 개설되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지역이다. 개항 이후에도 파주에서는 수운과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가 1925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상인들이 지방행상을 나가는 범위는 주로 황해도 전 지역과 경기도의 장단, 파주, 연천 등지, 강원도의 철원, 평강, 그리고 충청남도의 예산, 천안, 강경까지였고 개성으로 행상을 하러 가는 외지 상인들은 주로 파주와 부산의 상인들이었다.⁴⁾

이런점으로 미루어볼 때 파주는 개성상인들의 중요한 활동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파주상인들이 상업의 본고장인 개성을 무대로 하여 누비고 다닐만큼 파주의 상업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조선시대 파주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설상점은 없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정기 시장이 발달해 있었다.

1830년 순조(純祖)대에 편찬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의하면 당시 파주지역에

3) 上揭書

4) 朝鮮總督府, 『朝鮮의 市場經濟』, 285쪽

는 봉일천장(奉日川場)⁵⁾, 문산포장(文山浦場)⁶⁾, 놀노장(訥老場)⁷⁾, 원기장(院基場)⁸⁾, 신화리장(新花里場)⁹⁾, 삽교장(鍾橋場)¹⁰⁾ 등 6개의 장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 후 약 30년 후인 고종(高宗) 당시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문산포장, 놀노장, 원기장, 신화리장, 삽교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봉일천장, 파주읍내장(坡州邑內場), 이천장(梨川場), 광탄장(廣灘場), 장파장(長坡場) 등 5개소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봉일천장은 조선시대에는 봉일천장이라고도 하고 공릉장(恭陵場)이라고도 불렀다.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가 편찬된 해는 1834년(순조 34)인데 이보다 26년 전인 1808년 왕명에 의해 심상규(沈象圭)와 서영보(徐榮補)등이 편찬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교하 공릉장이라 하였고 『임원십육지』 야규지에서는 파주 봉일천장이라고 하였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1808년부터 1834년 사이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봉일천장이 교하군 관하에서 파주군 관하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말 고종때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또다시 파주 봉일천장이라 함으로써 조리면 봉일천장에서 열리는 장시의 이름을 조선시대에는 공릉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봉일천장으로 부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공릉장은 1800년대 초에 이미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가장 큰 시장중의 하나였다.¹¹⁾

봉일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미곡과 면포, 주단 등 각종 직물과 어염, 목기, 웅기와 자기 및 유기, 고리짝, 왕골자리, 그리고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이었다.¹²⁾

문산포장(文山浦場)은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에 유일한 대량 수송수단인 선박이 임진강을 통해 들어와 정박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서해 또는 한양으로부터 파주는 물론 장단, 개성, 연천, 포천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과 평강 등지까지 화물을 공급하는 각종 물자의 중간 집산지였다.

놀노장(訥老場)은 오늘날의 파평면 놀노리에 위치한 장시로 북으로는 임진강 북쪽의 大市인 고랑포장(高浪浦場)¹³⁾과 서쪽으로는 문산과 임진강 건너의 장단 그리고 남으로는 원기장, 동으로는

5) 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로 파주삼릉(坡州三陵)의 공릉(恭陵)이 있어 공릉장(恭陵場)으로도 불림

6) 현 문산읍 문산4리 속칭 하동마을로 임진강의 지류하천인 문산천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며 조선시대까지 문산포가 위치해 수 많은 상선이 드나들었던 포구임.

7) 현 파평면 놀노리

8) 현 법원읍 대능리

9) 신화리(新花里)는 ‘새꽃’으로 현 파주시의 행정중심지인 금촌지역이며 오늘날 금촌시장의 기원이 됨

10) 삽교장은 ‘삽다리’가 위치한 교하지역의 동폐리로 현재는 운정신도시에 포함됨

11) 『萬機要覽』 財用篇5의 附鄕市에 의하면 전국의 場市數는 1,061개소 인데 그 가운데 恭陵場을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大市라고 하였다. 즉 “京畿之 廣州 沙坪場, 松坡場, 安城 邑內場, 交河 恭陵場....此其最大也”

12) 上揭書

13) 高浪浦場은 현재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로 임진강변의 고랑포구가 위치했으며 일제강점기까지 화신백화점 분점이 들어서는 등 커다란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적성의 읍내장과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1905년 일본인이 조사하고 일본정부가 보고서를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놀노장은 4, 9장으로 개시되었으며 외부로 팔려나가는 상품은 맥류 및 두류였고 외부에서 놀노장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목면과 기타 상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⁴⁾

원기장(院基場)은 과거에는 천현면 원기리였으나 1989년 천현면이 법원읍으로 승격된 후 법원읍 법원리로 행정구역명이 바뀌었다. 명칭은 한자로 ‘院基場’ 이지만 상인과 주민들은 ‘원터장’으로 불렀다. 현재까지도 법원리에는 옛날부터 5일장이 열렸던곳에 시장거리가 남아있으며 또 주막거리가 있었다는 원터마음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주막과 장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주막이 있었던 원터마음이 원기장이 열렸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화리장(新花里場)의 新花里는 오늘날 금촌2동의 새꽃마을이라 불리는 곳으로 새꽃마을은 공룡천을 향하고 있는 남서향의 마을이며 앞으로 공룡천이 휘감아 흐르고 지형상 新花滿發形의 형국을 지녀 신화리로 불렸다고 한다. 1945년 해방전까지만 해도 이 곳 공룡천에는 새우젓, 웅기그릇 등을 가득 실은 상선들이 새꽃마을 앞까지 왕래가 잦았다. 신화리장에서 거래된 품목은 미곡과 각종 어물, 과일, 인석 및 연초등이 있다.¹⁵⁾

신화리장은 당시 배편으로는 한강, 임진강 및 서해로 통하며 육로는 봉일천과 이어지는 길목으로 요지였다.

삽교장(插橋場)은 원래 석곶면 동패리로 현재는 운정신도시 동패동에 위치한 삽다리로 불리는 마을로 상인들과 주민들은 삽교장이라 부르지 않고 삽다리장이라 불렀다. 현재까지도 이 곳에는 삽다리 명칭의 교량이 남아 있다.

이처럼 1830년대 파주에는 6개의 정기시장이 있었다. 그 후 고종때와서 원기, 신화리, 삽교 장 등 3개의 장시는 없어지고 그 대신 파주 읍내장(坡州 邑內場), 이천장(梨川場), 광탄장(廣灘場), 장파장(長坡場), 적성 읍내장(積城 邑內場) 등 5개의 장시가 새로 생겨나서 모두 8개의 장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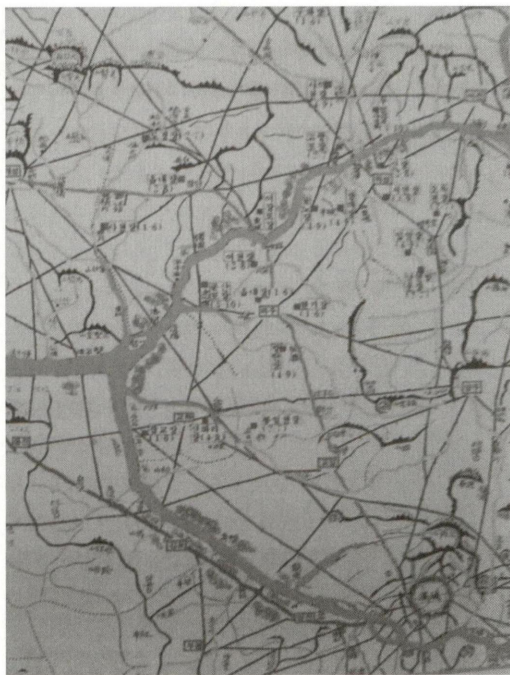
고종때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문산포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순조 당시에 있었던 문산포장이 고종때는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것은 기록의 누락으로 문산포장은 한말과 일제 강점기때까지도 매우 성시를 이루었던 대시였다.¹⁶⁾

고종때 기록에 새로 생겨난 파주 읍내장(坡州 邑內場)은 현재 파주읍 파주리에 개시된 장으로

14)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日本農商務省, 1905, 668쪽

15) 上掲書

16) 임진면장을 지낸 李永實의 증언(1993년 당시 68세), 부친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문산포장을 중심으로 장단, 개성, 고랑포, 영천 등지를 무대로 활약했던 상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1993년 증언자료, 1995년, 파주군지 하편, 530쪽



파주지역 장시의 입지와 분포

일명 ‘주내장(州內場)’으로 불려졌다.

이천장(梨川場)은 과거 파평면에 속하다가 1983년부터 문산읍으로 편입된 현재의 문산읍 이천리에 개시된 장시로 일명 ‘배내장’으로 불렸다.

광탄장(廣灘場)은 현재 광탄면 신산리 동거리에서 열렸던 장시로 상인들과 주민들은 ‘동거리장(東巨里場)’이라고 불렀다.

장파장(長坡場)은 현재 파평면 장파리에서 열렸던 장시로 일명 ‘장마루장’으로 널리 알려졌던 장시였다.

적성 읍내장(積城 邑內場)은 과거 연천군 관할이었던 곳으로 1945년 11월 파주군에 편입되었고 적성면 읍내리(현 舊邑里)에 순조 이후에 개시된 장시였다.

2. 일제강점기 파주지역 장시

일제는 한일합방 전인 1909년 한국 침탈을 위해 한국정부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시험적 측량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자 토지조사국을 총독부로 이관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꾼다음 본격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하여 1918년에 마쳤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침탈의 일환으로 실시한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사업과 병행해 시장조사사업을 시행했는데 1913년에 시작해 1917년까지 5년에 걸친 전국의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시장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제는 1914년 총독부령으로 「시장규칙」 총령 제136호를 발표하여 한국내의 모든 시장을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시장규칙」에 따르면 일제는 한국의 모든 시장을 제1호 시장, 제2호 시장, 제3호 시장으로 분류했다가 1920년 「시장규칙」을 개정하여 제4호 시장을 신설 하였다.

제1호시장은 한국내의 모든 정기시장, 가축시장, 땔감시장, 약령시 등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

라 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고 제2호 시장이란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일용품 시장으로 그들에 의하여 신설된 이른바 ‘공설시장’을 말한다. 제3호 시장은 어류, 채소류를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말한다. 신설된 제4호 시장은 곡물, 현물 및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상품거래소 및 증권시장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파주에는 제2, 제3, 제4호 시장은 개설된 기록이 없으며 「시장규칙」에 적용되는 시장은 제1호 시장인 정기시장과 가축시장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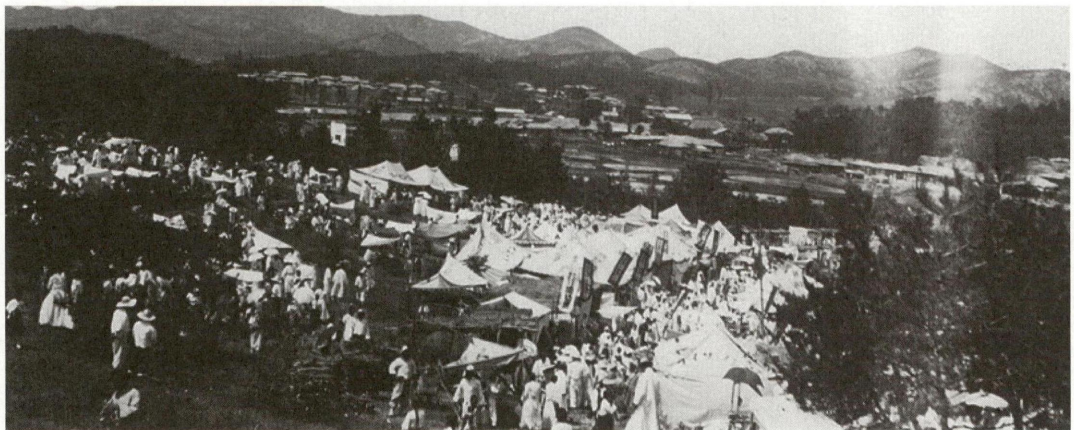
일제는 정기시장 중 일용품 등 각종 상품거래를 하는 상품시장을 보통시장이라 하였고 정기시장과 똑같이 개시 운영되어 온 가축시장은 특수시장으로 분류하였다. 일제는 「시장규칙」에 의하여 한국내에서의 모든 시장의 설치, 변경,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단, 제4호 시장의 경우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시장은 많은 대중이 운집하는 장소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억압하였다.¹⁷⁾

그러나 일제의 억압에도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장시들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내의 정기시장은 일제식민지 기간에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파주는 조선말 고종때까지 8개소에 달했던 장시가 일제강점기에 들어 6개소로 줄어들었다.¹⁸⁾

단순하게 장시의 수만을 보면 8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가 감소한것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면으로 보면 고종 당시 8개소의 장시 중 봉일천장, 문산장, 광탄장, 적성 읍내장 등 4개소만이 그대로



1937년 금촌역앞에 선 금촌난장의 모습

17) 봉일천 골릉장의 3.1만세 운동, 파주의 가장 대규모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28일 공룡장날을 기해 시위군중 3천여명이 만세운동을 펼쳐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였다. 파주 3.1 만세운동에 공룡장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18) 朝鮮總督府, 『韓國의 市場經濟』, 113쪽

존속해 있었고 파주 읍내장, 신화리장, 장과장 등 3개소의 장시가 없어졌으며 삼교장은 부활되었고 금촌장(金村場)이 새로 생겨났다.

문산장은 순조 당시에 있었던 문산포장이 부활된 것이고 순조 당시의 신화리장이 없어진 대신 금촌은 경의선 철도의 금촌역이 위치해 새로운 화물의 집산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어 금촌장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삼교장은 삼다리장으로 불리며 파주의 최남단인 고양군과 경계지역인 동패리 삼다리마을 도로변에 개설된 장시로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 파주의 6개 정기시장 가운데 가축시장이 병설되어 상품시장과 가축시장이 계속 운영된 시장은 공룡장과 적성 읍내장이며 일제 말기 즉 1938~1939년도를 전후하여 가축시장을 병설했으나 가축의 거래부진으로 2~3년간 유지되다가 가축시장만 폐쇄된 시장은 광탄 동거리장과 교하 삼다리장이고 문산장과 금촌장은 가축시장이 있는 상품시장 즉 일제가 말하는 이른바 보통 시장이었다. 당시 가축시장은 우전(牛廐-소시장)으로 불렸으며 가축시장에서는 소, 말, 돼지, 닭 및 기타 가축류와 가금류(家禽類)가 모두 거래되고 있지만 가축시장에서의 주거래 대상은 소이므로 농민들이나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를 알선, 흥정하여 매매가 성립될때까지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간(중개인)들까지도 가축시장을 으레 우전이라 불렀다.

파주의 6개 정기시장 중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대시는 공룡장과 문산포장이었다. 공룡장은 소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전국적으로 소시장으로서의 공룡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문산포장은 각종 물화의 집산지로서의 대시로 유명했다.

1918년 전국의 소 거래실적이 연간 1만 5천두 이상인 대시가 23곳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에 공룡장을 포함하여 4개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¹⁹⁾

1923년 공룡장의 연간 거래액은 24만 9,406원이었으며 시장의 면적은 4,850평, 주거래품목은 쌀과 축우, 쇠신 이었고 거래방법으로는 소매와 도매를 겸했으며 특히 소 매매의 경우 매매가의 1%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1926년 공룡장의 연간 거래규모는 36만 378원으로 이 거래규모는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포함하여 경기도내에 있는 정기시장 가운데 6번째의 거래규모에 달한다. 그리고 같은 해 공룡장의 거래금액을 상품종류별로 살펴보면 총거래금액 36만 378원 가운데 소의 거래금액이 31만 5,420원으로 87.5%를 차지함으로써 단연 1위이고 다음으로 잡품류가 2만 5,669원으로 7.1%, 농산물이 1만 2,673원으로 3.5%, 직물류가 5,760원으로 1.6%, 그리고 수산물이 856원으로 0.2%

19) 上掲書, 346쪽

를 차지하고 있다.²⁰⁾ 이러한 공릉장의 거래품목별 거래금액은 당시 전국 1,301개의 시장²¹⁾의 총거래금액별 구성비를 비교해볼 때 공릉장은 소시장 중심의 대시였음을 알 수 있다.²²⁾

공릉장과 더불어 상품시장으로서의 대시는 문산포장이었다. 1938년도 파주지역의 시장들에 대한 거래금액을 보면 공릉장이 65만 4,064원, 문산포장이 55만 4,250원, 금촌장이 3만 4,748원, 삼교장이 1만 899원, 적성 읍내장이 1만 10원으로 나타난다.²³⁾

당시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총수가 1,458개소 인데 그 가운데 경기도에 102개 시장이 있었다. 또 경기도 102개 재래시장 가운데 정기시장이 88개소이고 상설시장이 서울 시내에 7개소와 개성 시내에 5개소, 인천에 1개소 등 13개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 해 공릉장의 연간 거래규모 65만 4,064원과 문산포장의 연간 거래규모 55만 4,250원은 서울과 개성 시내의 상설시장을 포함한 경기도내의 102개 시장 가운데 공릉장이 10위, 문산포장이 11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공릉장의 경우 연간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가축거래 금액인점으로 볼 때 가축시장 없이 오로지 상품시장이었던 문산포장이 얼마나 대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문산포장이 개설된 문산포구는 서울과 인천 등지로부터 각종 화물을 가득 실은 배들이 한강을 거쳐 임진강 문산포구에 줄을 이어 드나들었고 파주는 물론 개성, 장단, 연천, 포천 및 강원도 철원과 평강 등지로 공급되는 화물의 대부분이 문산포장을 경유했다는 점이다. 문산포장을 경유하여 외지로 나가는 상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었고 외지로부터 문산포장으로 들어오는 상품들로는 생조기, 굴비 등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과 소금, 직물, 웅기류 및 기타 잡품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금촌장은 경의선 철도 개통 이후 금촌역이 위치한 교통상의 요지인 금촌역에 새로 발생한 시장으로 1938년도 연간 거래규모는 문산포장의 16분의 1이었고 삼교장은 문산포장의 50분의 1, 적성 읍내장은 문산포장의 56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 읍내장의 경우 일제강점기 가축시장을 병설로 운영하였다. 현재 적성면 구읍리에 개설된 상품시장과 우전이 병설된 적성 읍내장은 해방 후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병설시장이 존속 되었다.

삼다리장은 인근 교하지역 주민들과 고양군 송포, 덕이, 구산, 가좌지역 주민들까지 삼다리장으로 출시하여 그런대로 성시를 이루었으나 삼다리장 우전의 경우 1938년~1939년을 전후하여 춘계

20) 上揭書, 314쪽

21) 조병찬,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22) 朝鮮總督府, 『韓國의 市場經濟』, 326쪽, 전국의 시장 총거래금액의 상품별 구성비는 농산물 26.3%, 수산물 15.1%, 직물 14.9%, 가축 26.4%, 잡품 17.3%로 나타났다.

23) 文定昌, 『朝鮮의 市場』, 日本評論社, 1941

농번기를 지나 음력 7월경이면 우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약 3년간 운영되다가 거래부진으로 인하여 우전은 폐쇄되고 상품시장만이 지속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상품시장마저 폐쇄되었다.

광탄의 동거리장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우전도 함께 개설돼 존속되었으나 동거리장과 가까운 공릉장의 우전 장세가 위낙 컸기 때문에 역시 거래부진으로 3년여간 운영되다가 결국 폐쇄되고 상품시장만이 지속되었다.

3. 해방이후 파주의 장시

파주지역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존속되었던 공릉장, 문산장, 금촌장, 광탄장, 삼교장, 적성 읍내장 등 6개의 시장가운데 해방 이후 삼교장 1개 시장만 없어지고 5개의 시장은 계속 존속되었으며 조선후기에 개설되어 일제강점기때 폐쇄되었던 법원리장과 주내장이 해방 이후 부활되었다. 즉 조선후기 원터장으로 불렸던 원기장은 해방후에 법원리장으로 또는 천현장(천현장)으로 불리며 부활되었고 조선 후기 파주 읍내장은 해방 후 파주 읍내장 또는 주내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8.15 해방 이후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파주에는 봉일천장, 문산장, 금촌장, 주내장, 광탄장, 적성 읍내장, 법원리장 등 7개의 정기시장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개시되었다. 7개의 시장 중 봉일천장과 적성 읍내장 및 법원장 등 3개 시장은 가축시장이 병설되었으며 나머지 4개 시장은 가축시장이 없는 상품시장이었다.

시장별 개시일을 보면 금촌장은 1, 6장, 봉일천장은 2, 7장, 주내장은 4, 9장이었으며 문산장, 광탄장, 적성 읍내장, 법원장 4개의 시장은 5, 10장 이었다.

4. 한국전쟁 이후 파주의 장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개시가 멈춘 파주지역 시장들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발효된 이후 몇 달 뒤부터 금촌장, 봉일천장, 광탄장, 주내장, 법원리장 등의 개시가 서서히 재개되기 시작했으며 문산장과 적성장은 다소 재개가 늦어졌다.

휴전이후 3~4년이 지난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 전쟁전까지 개시되었던 7개 시장 중 6개 시장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재개되었으며 적성장의 경우는 수복후 면사무소가 구읍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지리에 자리를 잡음에 따라 적성 읍내장 즉 구읍리장은 열리지 못하고 대신 구읍리장은

마지리에서 재개하게 되었다. 이렇게되자 적성 읍내장은 읍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게 되어 그 후 부터는 적성장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파주지역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웅담리의 곰시장과 덕천리의 샘내장이 개시 되었다.²⁴⁾ 그리하여 파주의 정기시장 수는 9개소로 늘어났다.

1) 봉일천장(奉日川場)

봉일천장은 6.25전쟁 이후에도 2, 7장으로 개장 되었다. 그러나 봉일천장은 전쟁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과거 봉일천장(공룡장)이 전국적인 대시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결정적 공헌을 해온 가축시장이 금촌장으로 이전된 것이다. 봉일천장의 가축시장이 금촌장으로 이전된 것은 행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쟁후의 주변상황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봉일천장은 전쟁 후 상당기간 동안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 되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화약냄새가 가시지 않는 전시상황이 계속되었고 서울에서 문산간 좁은 국도는 군용차량의 빈번한 왕래만 있을 뿐 민간교통 수단이 없었다. 더구나 당시 이 국도(현재의 통일로)는 군용차 전용의 비포장 도로로 이 도로가 봉일천장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어 당시 봉일천장터는 위험할뿐만 아니라 군용차량으로 인한 흙먼지가 연일 연기처럼 자욱하여 마을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금촌은 대량교통 수단인 경의선 금촌역이 위치하고 있어 전쟁후의 가장 편리했던 기차가 왕래하는 곳으로서 전쟁후 정기시장의 재개와 더불어 봉일천장 보다는 금촌장으로 인파가 더 많이 몰리게 되었다. 그렇게되자 가축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 조차 봉일천장 보다 금촌장으로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가축시장은 자연적으로 금촌장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봉일천장의 가축시장은 자연스럽게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가축시장이 폐쇄된 봉일천장은 이후 상품시장 마저도 쇠퇴하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말까지 명맥만을 유지하던 봉일천장은 1990년대 들어 봉일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봉일천장은 일제강점기에도 공설시장 이었다. 그러다가 1971년 2월 13일자로 파주군청이 공설 시장으로 재허가 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명칭을 조리시장(條里市場)으로 바꾸었다.²⁵⁾

24) 웅담리의 곰시장과 덕천리의 샘내장이 개시된 것은 한국전쟁 후 이들 지역 주변에 미군부대와 한국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군부대 주변에는 군인가족과 군부대에 종사하는 민간인 및 군인들을 상대로한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97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다.

25)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도소매업체총람』, 1992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조리시장은 조리면 봉일천리 202번지이고 대지 560㎡, 연면적 1,500㎡, 매장면적 560㎡, 자영점포 47개에 종업원이 55명이며 시설구조는 목조스레트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문산장(文山場)

문산장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5, 10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문산장의 경우 장터 주변으로 소매상들이 밀집하여 상설시장 형태로 새로운 시장권역을 형성하면서 이들 상설시장의 상인들은 정기시장을 폐쇄할 것을 주장하여 1966년도부터 정기시장으로서의 문산시장은 폐쇄 되고 말았다.

문산장은 조선시대때부터 있었던 전통시장으로 일제강점기때는 일제의 「시장규칙」에 의한 공설시장 이었다. 1961년 「시장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일제의 「시장규칙」이 준용되었으며 「시장법」을 제정 공포함과 동시에 일제의 「시장규칙」은 폐기 되었다. 그 후 전국 각지에 있는 일제의 「시장규칙」에 의한 정기시장을 우리나라 「시장법」에 의한 정기시장으로 점차 정비해 나갔다. 「시장규칙」에 의해 폐쇄된 정기시장으로서의 문산장이 공설정기시장으로 존속하다가 「시장법」에 의한 정기시장으로 행정절차를 밟기도 전에 폐쇄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문산주민들에 의하여 정기시장 부활운동이 일어나 1989년부터 정기시장으로서의 문산장이 부활되어 오늘날과 같은 4, 9장으로 운영되었다. 문산장이 부활되면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 온 5, 10장 대신 4, 9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인근의 광탄장과 적성장이 5, 10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지역내에서 개장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금촌장(金村場)

금촌장은 1905년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 후 일제강점기에 들어 금촌역이 위치한 금촌리에 새로 개설된 시장인데 시장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1, 6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촌장은 6.25전쟁 이후 봉일천에 있던 가축시장이 금촌장으로 옮겨오면서부터 가축시장 병설의 정기시장이 되었다. 대시였던 봉일천장에 영세한 정기시장으로 전락한 반면 가축시장이 오게 된 금촌시장은 해가 거듭할수록 번성하였다. 금촌장은 일제강점기에도 공설정기시장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파주군에 의하여 1965년 4월 15일자로 「시장법」에 의한 공설정기시장으로 행정절차가

완료 되었다.²⁶⁾

파주군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정기식으로서의 금촌장의 위치는 금촌읍 금촌리 64번지이고 대지가 1,247㎡, 시장면적이 528㎡, 매장면적 528㎡에 32개의 자영점포, 종업원 46명이 있는 목조스레트 건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각종 소매상들이 시장시설을 임대해 상설시장화 된 곳으로 개장일에는 노점좌상들과 상설시장화 된 고정 점포 상인들이 뒤섞여 상행위를 벌이고 있다.

금촌가축시장은 일반 정기시장인 금촌장과 똑같이 1, 6장으로 운영되어 길으로는 금촌 가축시장이 마치 일반정기시장인 금촌장의 병설시장인 것처럼 보이나 각각의 법적 근거와 개설 운영주체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정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은 파주시장이지만 가축시장의 경우 개설 및 관리 운영권자는 파주축협이다.

4) 주내장(州內場)

주내장은 고종때까지 파주 읍내장으로 파주읍 파주리에서 1, 6장으로 개장 운영되어왔다. 일제강점기 동안 파주 읍내장은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4, 9장으로 재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주내장은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4, 9장으로 재개되었으며 1954년 3월 29일 파주군수에 의해 허가된 공설정기시장이다.²⁷⁾ 특히 종전후에는 대규모의 미군부대가 주내 인근(현 파주읍 연풍리 일원)에 주둔하여 주내장은 미군부대의 영향을 받아 매우 성시를 이루었다. 주내장의 호황은 1960~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주한미군 감축정책에 따라 주내 인근에 있던 많은 수의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주내장의 호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미군철수와 더불어 불황을 겪게된 주내장은 거래가 너무 부진하여 1980년대 초에 와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폐쇄되었다.

5) 광탄장(廣灘場)

광탄장은 고종 당시 동거리장(東巨里場)이라는 이름으로 4, 9장으로 개설 운영되던 시장이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 조사자료에는 광탄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제기간 동안 광탄장이 폐쇄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폐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으며 1938년경에는 가축시장까지 병설되었으나 동거리장의 가축시장은 봉일천장세에 밀려 2~3년간 유지되다가 폐쇄되고 상품

26)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도소매업체총람』, 1992

27) 전국소매시장협회, 『전국시장·백화점현황』, 1981

시장은 정기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

광탄장은 해방과 더불어 5, 10장으로 재개되었거 한국전쟁 후 노월에 이르기까지 계속 5, 10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탄장은 일제 강점기에는 「시장규칙」에 의한 공설정기시장이 아닌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55년 11월 4일 파주군수에 의해 공설정기시장으로 허가 되었으며²⁹⁾ 1971년 2월 13일에 재허가 되었다.³⁰⁾

파주군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광탄장의 위치는 광탄면 신산리 226번지이고 대지가 662㎡, 시장연면적이 1,000㎡, 매장면적이 662㎡인 목조스레트 건물에 20여개의 자영점포 및 26명의 종업원이 있는 시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의 시설내의 상인들은 시장시설을 임대받아 매일 영업을 하는 상설시장화된 시장의 고정상인들이다.

6) 법원장(法院場)

법원장은 해방 이후에 새로 생겨난 정기시장이다. 전쟁후에는 법원리를 비롯한 그 일대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어 법원리에는 미군부대를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법원리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창하게 되자 정기시장이 5, 10장으로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법원리는 조선 순조 당시인 1830년대에도 원기장(원터장)이 1, 6장으로 열렸던 곳으로 해방이후에 생겨난 법원장은 옛 원기장의 부활이나 다름없다.

법원장은 전쟁 후 정기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가축시장도 함께 열렸다. 법원시장의 최초 허가는 1952년 2월 7일이고³¹⁾ 그 후 1971년 2월 13일 재허가된 공설정기시장이다.³²⁾

법원장은 한국전쟁 후 한참동안 미군부대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호황을 누렸으나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

파주군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법원시장의 현 위치는 법원을 법원리 422번지이고 시설은 대지면적이 6,605㎡, 시장연면적은 1,600㎡, 매장면적은 600㎡의 목조스레트 건물이며 이 시설을 임대하여 자영소매점을 하는 점포수는 60개점에 종업원이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시설과 소매점들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설시장화된 시장시설이고 그곳에서 점포를 임대해 소매업을 하는 상인들은 상설시장에서 매일 소매영업을 하는 고정상인들이다. 그

28) 조병찬, 『파주군지』, 하편 현대사회, 546쪽, 1926년생 광탄면 출신 우준호(禹俊豪)의 증언자료

29) 전국소매시장협회, 『전국시장·백화점현황』, 1981

30)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도소매업체총람』, 1992

31) 전국소매시장협회, 『전국시장·백화점현황』, 1981

32)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도소매업체총람』, 1992

러므로 이들 고정상인들은 개장일이 아닌 평일에도 매일 소매업을 계속하고 한다.

법원장의 가축시장은 198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으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점차 자연 폐쇄되었다.

7) 곰시장(熊潭場)³³⁾

곰시장은 현 법원읍 웅담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으로 원래 이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지만 한국전쟁 후 이 부근에 대규모의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변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에따라 웅담리에도 법원장과 같은 시기에 상인들에 의하여 정기시장이 1, 6장으로 자연 발생 되었다.

전제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곰시장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다가 역시 미군들이 철수한 뒤로는 거래가 매우 부진함을 면치못한채 유지되었다. 곰시장은 1967년 10월 21일자로 파주군수에 의하여 허가된 공설정기시장이 되었다.³⁴⁾ 그러나 곰시장은 1990년 중반까지 1, 6장으로 개장되다가 거래부실로 인해 자연 폐쇄되고 말았다.

8) 샘내장(德泉場)

샘내장은 한국전쟁 이후 파평면 덕천리 111번지에 새로 생겨난 시장으로 한자지명은 덕천리(德川里)이며 우리말로는 샘내다.

샘내 정기시장이 전쟁후에 생겨나긴 했지만 조선 고종 당시 개장되었던 놀노장(놀노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옛 놀노장이 샘내로 옮겨 부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샘내장은 한국전쟁 이후 1956년 2월 28일자로 파주군수에 의해 공설정기시장으로 허가된 시장이었다.³⁵⁾ 샘내장에서는 가축시장도 함께 개설되었으나 거래가 부진하여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폐쇄되었으며 일반상품 거래를 위한 정기시장도 1980년대 초까지 유지되다가 역시 폐쇄되고 말았다.

9) 적성장(積城場)

적성장은 읍내리(현재 구읍리)에 개설된 시장으로 고종때부터 읍내장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를

33) '곰시'란 지명은 '웅담(熊潭)' 지명의 한글화된 이름으로 이 지역 '상서대(尙書臺)' 유적이 있어 이곳은 고려 윤관의 별장지로 이곳에서 윤관의 애첩 웅단이 몸을 던져 죽은 웅담이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34) 전국소매시장협회, 『전국시장·백화점현황』, 1981

35) 상계서

거쳐 해방후까지도 적성의 읍내장은 1, 6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연천지역을 포함하던 옛 적성지역은 1945년 11월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구읍리에 있던 적성면사무소는 현재의 마지리로 옮겨졌으며 구읍리에서 열렸던 읍내장도 면소재지인 마지리에서 재개되었다. 이로인해 적성의 읍내장은 더 이상 읍내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전쟁 이후부터는 읍내장 이름 대신 적성장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적성 읍내장은 일제 강점기에는 「시장규칙」에 의한 공설정기시장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마지리에서 재개된 정기시장은 1959년 12월 30일자로 파주군수가 개설한 공설정기시장으로 허가되었으며 1965년 4월 15일자로 재허가되어 현재까지 공설정기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성 읍내장은 조선 고종 당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는 가축시장병설의 1, 6장으로 운영되었으나 해방후에는 5, 10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전쟁후 마지리로 옮겨져 적성장으로 재개할때도 가축시장 병설의 5, 10장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적성장의 가축시장은 그 후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1980년대 초 폐쇄되고 말았다. 1990년대 말 파주군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적성면 마지리에 위치한 적성장의 규모는 대지 6,323㎡, 시장연면적 4,151㎡, 매장면적 4,151㎡에 시설구조는 목조스레트 건물이고 그 곳에서 시장시설을 임대해 자영소매점을 하는 점포수가 108개점이며 종업원 또한 10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적성장 또한 다른시장과 마찬가지로 목조스레트 건물내의 시장은 상설화된 시장이며 그곳에서 점포를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상설시장내에서 매일 소매업을 하는 고정 상인들이다. 그러나 개장일에는 다른 정기시장과 같이 평일에 볼 수 없었던 각종 외래 상인들과 농산물을 팔러 나온 농민들이 함께 시장입구의 도로변에 노점 좌상을 벌인다.

5. 파주의 가축시장의 변화

전통적으로 가축시장은 정기시장의 병설이었기 때문에 정기시장과 가축시장은 그 개시일을 똑 같이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 정기시장과 가축시장의 제도적 근거는 엄연히 다르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기간 그리고 해방후 1945년 1월까지 가축시장은 동일한 제도하에서 정기시장의 병설로 운영되어 왔다. 즉 조선시대에는 정기시장에 가축시장을 병설하여 지방관아에서 감고(監考)를 두고 시장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징세등을 규정케 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시장규칙」에 의하여 정기시장과 가축시장을 제1호시장으로 규정하여 그 개설과 관리, 운영을 시장,

군수가 함께 관장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간인 1938년도 전국의 가축시장수는 1,332개소였는데 그 중 96.3%에 해당하는 1,283개소는 정기시장의 부설이고 나머지 3.7%에 해당하는 49개소는 가축의 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가축전문시장 이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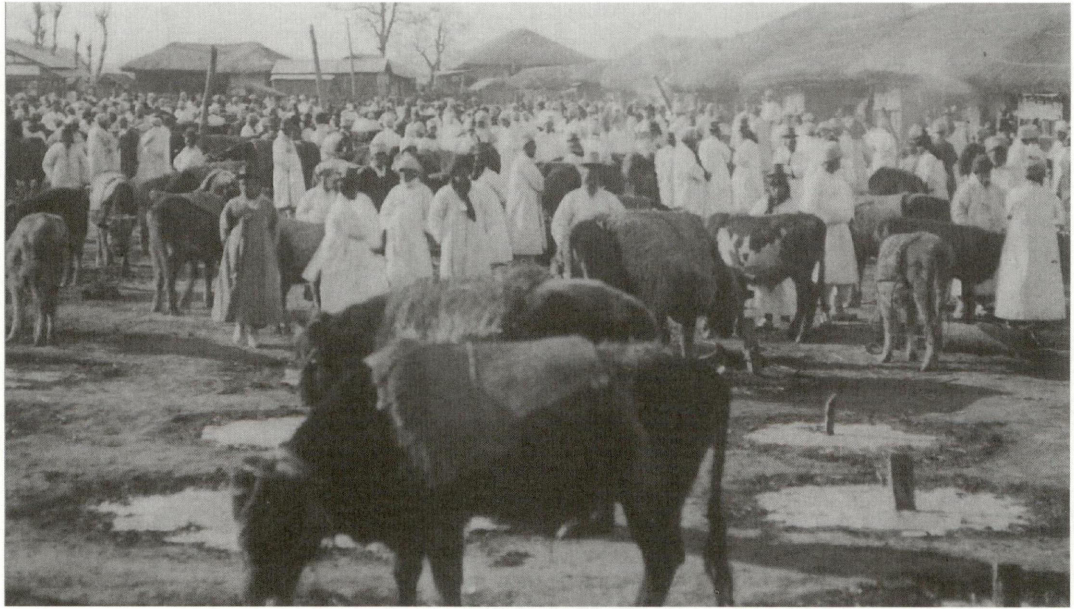
해방후에는 정기시장을 포함한 모든 소매시장과 가축시장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의 「시장규칙」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54년 1월 23일 「가축보호법」이 법률 제306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축시장은 모든 일반시장보다 가장 먼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가축보호법」에서는 가축시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관계할 수 없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54년 이후부터는 비록 정기시장과 가축시장이 똑같은 시장, 군수에 의하여 개설되고 또 똑같은 개시일에 나란히 개시,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정기시장은 일제의 「시장규칙」을 따라야 했고 가축시장은 「가축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시장으로 그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시장으로 운용 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 6월 26일 「가축보호법」을 폐지하고 「축산법」이 법률 제1363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가축시장의 개설권과 관리, 운영권이 이원화 되었다. 「축산법」에 의하면 가축시장의 개설은 「가축보호법」에서와 같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행하도록 하고 그 관리, 운영은 공익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축산법」에 의하여 축협이 발족되면서 가축시장의 개설은 시장, 군수가 하고 그 관리, 운영은 축협에서 맡게 되었다.

파주지역에서는 1963년부터 농협 파주군지부에서 가축시장의 운영, 관리를 맡아왔다. 그러다가 1972년 6월 공식적으로 축협파주지구가 조직되면서 1973년 12월 31일 이 조합이 농협중앙회 특수조합으로 가입된뒤 1976년 3월 9일자로 농협 파주군지부로부터 가축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인수 받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1월 1일자로 축협중앙회가 발족되자 파주지구 축협은 농협중앙회 특수조합에서 탈퇴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산하조합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7년 12월 4일 「축산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개설업무와 관리, 운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모두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였다.

이와같이 「축산법」의 개정에 따라 파주군수는 1989년 3월 21일자로 가축시장의 개설권을 파주군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종전에는 파주군수가 개설한 금촌 가축시장을 파주군수의 허가를 받아 파주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시장으로 행정 절차를 완료 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3월 21일부터 금촌 가축시장은 파주군 축산업협동조합이 그 개설과 관리, 운영을 맡게 되었다.

36) 조병찬, 『韓國市場經濟史』, 동국대출판부, 1992



〈일제강점기 봉일천우시장의 모습〉³⁷⁾

한국전쟁 이후 파주에서 가축시장이 함께 개시되었던 시장은 금촌시장을 비롯하여 광탄장, 적성장, 법원장, 샘내장 등 5개 시장이었다. 그러나 광탄장, 적성장, 법원장, 샘내장 등 4곳의 가축시장은 거래부진으로 인하여 자연폐쇄 되었고 1989년 3월 파주축협에서 가축시장의 모든 시설을 파주군수로부터 인수받을 당시 파주군에는 유일하게 금촌 가축시장만이 유지되고 있었다.

금촌 가축시장은 본래 봉일천 가축시장이 한국전쟁 이후 금촌으로 이전된 것으로 전쟁 후의 주변상황에 따라 기차역이 있는 금촌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봉일천 가축시장이 금촌지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금촌으로 옮겨 온 금촌 가축시장의 장터는 여러차례 장소를 옮겨가면서 유지되었는데 전쟁후에는 금촌사거리 북쪽 시외버스터미널 북쪽 산기슭에 자리잡았으나 그 다음 등기소 앞쪽의 넓은 공지로 옮겨졌으며 그 뒤 다시 파주경찰서와 도립병원 앞쪽 금능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축협 부지인 금촌리 437-4번지로 옮겨 2000년대 중반까지 개설되었으나 그 이후 금촌 가축시장은 쇠퇴의 길을 맞이했다.

금촌가축시장은 대지면적이 총 3,155평에 계류장이 2,141평, 주차장이 856평, 건물이 158평이 마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금촌 가축시장의 개설일은 1, 6장으로 개설되는 금촌 정기시장과 똑같이 1, 6장으로 하여 운

37) 사진은 일제시대 대시(大市)를 이룬 봉일천 우시장의 풍경이다. 사진속의 소와 소주인이 각가 수백명에 이를것으로 보여 당시 봉일천우시장 규모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금촌역으로부터 32정(三十二 町)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금촌역에서 약 3.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도 축협부지에서 개설된 가축시장-한우송아지 경매시장개설

영되었다. 1991년도 금촌 가축시장의 거래실적 기록을 보면 연간 총 7,592마리의 소가 출장하여 4,799마리의 소가 거래됨으로써 그 거래율은 63.2%였다.

Ⅲ. 파주 공릉장(恭陵場)의 발달과 변천

1. 공릉장의 형성

공릉장(恭陵場)과 관련해서는 19세기 초에 간행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은 당시 8개 도 327개 군에 개설된 1031개의 장시와 경기도의 장시 102개를 기록하면서, 이 중 전국에서 규모가 큰 15개의 장시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의 사평장 · 송파장, 안성의 읍내장과 함께 파주의 공릉장 즉 봉일천장이 전국 최대의 장으로 거론되고 있다.³⁸⁾

38) 『만기요람』 재용편, ‘경기도의 광주 사평장과 송파장, 안성 읍내장과 교하 공릉장(봉일천장), 충청도의 은진 강경장과 직산 덕평장, 전라도의 전주 읍내장과 남원 읍내장, 강원도의 평창 대화장, 황해도의 토산 비천장과 황주 읍내장 그리고 봉산의 은파장, 경상도의 창원 마산장, 평안도의 박천 진두장, 함경도의 덕원 원산장이 가장 큰 장들이다.’



봉일천장 인근의 공릉(恭陵)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큰 규모이며 경기지역의 5대 시장에 꼽혔던 공릉장의 형성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대부분의 지방 장시의 형성이 지역민들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형성과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파주 공릉장은 조선시대 영조 때 조정의 주도 하에 개설됐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종 32년에 기록된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英祖)가 공릉(恭陵) · 순릉(順陵) · 영릉(永陵)의 삼릉(三陵)을 행행(行幸 · 임금의 나들이)하면서 입구가 공허하여 동구 밖에 장시를 개설해 능침의 공허한 곳을 방어하게 하고, 그 장세를 취하여 장민(場民 · 그 곳 사람)의 민생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공릉장(봉일천장)은 영조의 명으로 처음 개설된 시장이었다. 당시 파주에는 여러 개의 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시장이 섰던 곳은 봉일천장과 고랑포장, 판문장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시장이 섰던 곳은 봉일천장으로 서울 북쪽에서도 가장 큰 우시장이었다. 파주지역에서 좋은 소를 사려면 반드시 봉일천장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한국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파주의 소뿐 아니라 강원도와 황해도의 소도 이곳에서 주로 거래됐다.

일제시대에 강원도와 황해도는 상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판로가 없어 소 값이 이곳의 절반도 안 됐기 때문이다. 봉일천장에서 파는 소는 서대문을 통해 바로 서울로 들어가 도축됐다.

매달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으며 기록에 의하면 1926년 봉일천장 거래 금액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총 거래 금액 36만 378원 가운데 소의 거래 금액이 31만 5420원으로 87.5%를 차지한 것은 일반상품 보다는 우시장 중심의 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치는 현재 파주 삼릉 입구 앞의 주거지 부근과 공릉천변 사이로 보인다.

봉일천장은 교하를 남북으로 나누어 양주에서부터 흘러 한강 하구로 빠져나가는 공릉천변에 입지해 교통도 뛰어난 곳이었다. 공릉천은 폭이 약 25~30m 정도로, 상품을 실은 배의 왕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충적평야가 형성돼 있어 산물과 인구가 풍부해 이를 기반으로 상품 유통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봉일천장의 가축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금촌장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국전쟁 후 봉일천장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이 됐기 때문이다.

2. 공릉장의 과도한 장세

영조의 명에 의해 개설된 공릉장(봉일천장)은 조정에 의해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따라서 개설된 후 봉일천장의 규모(規模)는 급격히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봉일천장이 규모나 세력면에서 확대, 발전하게 되면서 폐단도 발생했는데 과도한 장세(場稅)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1793년(정조 17) 경기도 암행어사 홍낙유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파주의 큰 장 봉일천장의 장세가 너무 가혹한 것을 알게 된 암행어사 홍낙유가 조정에 이를 보고 하여, 왕이 봉일천장의 세금을 개혁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793(정조 17) 암행어사 홍낙유가 봉일천장의 과도한 과세에 대해 조정에 보고한 내용〉³⁹⁾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조선 제1로변 파주에 흥청거리는 장시가 있다.

바로 봉일천장이 그것이다. 바로 옆에 공릉이 있어 일명 공릉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시장이다. 봉일천장은 2일과 7일마다 열리는 5일장으로, 장이 서면 인근의 떠돌이 장사꾼뿐만 아니라 멀리 의주와 개성, 아래로 한양과 삼남 지방의 장사꾼까지 몰려드는 곳이었다.

조선 제일의 길 위에 있다 보니 물량도 풍부하고, 조선 최대의 소비지인 한양과 가까워 물류의 흐름도 원활한 시장이었다.

그런데 정조 18년(1794) 봉일천장은 일대 위기를 맞았다.

1794년 가을, 임금의 명을 받고 급히 경기도 고양, 파주, 장단, 풍덕 네 고을로 암행길에 오른 홍낙유는 한양을 벗어나고 있었다. 벼슬길에 들어온 지 5년. 34세의 젊은 관리 홍낙유는 이번 암행길이 꿈만 같았다. 이번 암행은 홍낙유뿐만 아니라 많은 촉망받는 젊은 관리들이 대거 경기도로 파견되어, 한양 인근 민심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홍낙유는 자신이 이들 젊은 관리 사이에 끼

39) 과도한 장세를 개혁하라, 문화원형백과 암행어사, 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게 된 것이 뿌듯했다. 같은 날 파견된 암행어사들의 면면을 보아도 지금 가장 촉망받는 인재들이 아니던가. 연천으로 가는 정약용, 교하로 가는 채홍원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한양을 빠져나온 홍낙유는 이들과 헤어지면서 저들 못지않게 훌륭히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과연 의주로였다. 한양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조선 제1의 큰 길 의주로. 홍낙유는 다른 어사들 보다는 편만한 길로 접어들어 임무지로 가고 있었다. 조선 제1의 길답게 많은 수레와 장사꾼들이 오가고 있었다. 지금 홍낙유가 살펴보려 가는 곳은 상업 도시 개성과 한양 사이에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 사이에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이 묵어가는 파주며 장단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양 인근에서 송파장, 누원장과 함께 큰 장으로 꼽히는 봉일천장이 있어 이러저러하게 둘러볼 것이 많을 듯했다.

홍낙유가 사노 만득을 데리고 파주로 접어들 즈음이었다. 누원장에서 큰 장을 파하고 산을 넘어 파주로 들어오는 보부상 패거리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마침 무료하던 터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라도 귀동냥할 요량으로 홍낙유는 그들과 동행했다.

상인들은 홍낙유를 심심파적으로 평양 구경이나 가는 한량으로 여기고는 격의 없이 대했다. 길에서 그들이 들려주는 저잣거리 이야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책이나 중앙 관직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였다. 관리로 일한 지 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왔다. 홍낙유는 그들과의 여행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홍낙유는 파주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봉일천 장을 돌아볼 요량으로 보부상들을 따라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함께 온 보부상 중 반수 이상이 그대로 고양으로 내려가 다음날 장시에나 가겠다는 것이었다. 고양장이면 이미 홍낙유가 돌아보고 온 곳 아닌가. 고양장시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누원에서 산을 넘어 고양장으로 갔다가, 바로 노량진을 둘러한강을 따라가 송파장으로 간다는 것이다. 코앞에 경기도 최대 장시 중 하나인 봉일천 장을 두고 조그만 고양장시에 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이상했다.

반수가 고양으로 내려간 뒤 봉일천 장시로 떠나는 무리를 따라 나선 홍낙유가 궁금함을 참지 못해 그 우두머리 격인 박씨에게 물었다.

“봉일천장이 바로 코앞인데 고양으로 갈 건 뭔가? 게다가 고양장은 내일인데...”

“에구, 저들은 소인들보다 좀 여유 있는 자들입쎄. 저도 생각 같아선 봉일천장엔 안 가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요.”

“허! 그게 무슨 소린가? 봉일천장이라면 홍청대기로 유명한 장이 아닌가? 자네들 보부상은 매일 장에 나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큰 장을 빠뜨리고 가면 손해가 클 텐데?”

“봉일천 장이 크기는 큼쥬. 한테 요샌 예전 같지 않습니다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게… 거기서 장사를 해봤자 남는 게 있어야 말입쥬.”

“남는 게 없다니?”

“하루 온종일 소리치고 장사해 봤자, 장세 내고 나면 몇 푼 쥘까 말까 합니다요. 재수없으면 손해도 보는걸요. 우리같이 급한 사람들이야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봉일천장에 가지만, 좀 여유 있으면 차라리 하루 쉬지 거기선 장사 안 하려고들 합지요.”

“장세?”

“예.”

“장세가 얼마기에?”

“그게 참… 가보시면 압니다요.”

봉일천 장에 도착한 홍낙유는 적잖이 실망했다. 한양 서북쪽의 큰 시장으로 관서에서 넘어오는 중국 물건과 삼남에서 올라오는 곡식들이 흥청댄다던 봉일천장은 고양장시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것이다. 그리고 으레 장시에 나오는 자잘한 물건들을 팔러 온 인근 지방의 농사꾼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함께 온 장사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장판을 벌이자, 출출해진 홍낙유와 만득은 국밥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 국밥을 청했다.

그때였다. 국밥집 옆 잡곡전이 갑자기 떠들썩해지더니 사람들이 실랑이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철판덕, 사람을 패대기치는 소리며 몽둥이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도 애절했다.

국밥을 먹던 장사꾼들은 밥맛이 떨어진다는 듯 숟가락을 놓더니 일제히 혀를 쫓쫓 찼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가보려던 홍낙유는 주모의 행동이 이상해서 천막 휘장 앞에 섰다. 주모는 궁시령대며 쌀독에서 꽤 많은 양의 쌀을 퍼내더니, 자루에 담아 천막 휘장 옆에 세워두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홍낙유는 주모를 불렀다.

“그 쌀은 뭐가?”

주모는 통명스레 말을 받았다

“장세유.”

“장세?”

“예. 저 옆 잡곡전에 온 걸 보면 여기도 곧 들이닥치겠지요. 얻어맞기 전에 내놔야지 윈.”

밖에서는 몇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하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뭉둥이 치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홍낙유는 밖을 내다보았다.

관청의 하급 관리인 듯한 복색의 사람들이 몇몇 잡곡전 앞에 죽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에는 주인인 듯한 장사꾼이 잔뜩 부어오른 얼굴로 잡곡 가마를 벌리고 있었다.

“주모,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장세 받으러 온 사람들이지요.”

“대체 장세가 얼마기에?”

주모도 함께 밖을 내다보면서 설명했다.

“1태에 큰 바가지로 하나씩 퍼갑니다. 태는 그렇다 치고, 몇 되 안 되는 것도 일일이 다 채서 몇 홉이라도 거둬간다고요. 우리 같은 장사치들한테도 장세를 쌀값으로 계산해서 받아가니, 국밥을 만 그릇 팔아도 남는 게 없습지요.”

“주모가 내는 장세가 이렇게나 많은가?”

주모가 세워둔 쌀자루는 거의 한 말이 넘어 보였다,

홍낙유는 만득을 데리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함께 온 보부상들을 찾아가 장세를 얼마 냈는지 물어보니, 그들도 주모와 다름이 없었다. 세금을 거두는 곳마다 멀쩡이 따라가서 지켜본 결과, 장세를 바로바로 내놓지 않거나 속이려 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감고들에게 얻어맞았다.

잡곡전에 들러 콩을 몇 되 사면서 장사꾼 얼굴을 보았더니, 세금 걷는 이들에게 얻어맞았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주인장은 얼굴이 왜 그러시오?”

주인이 홍낙유를 흘끔 보더니 볼멘소리로 대답했다.

“아까 매맞는 거 못 보셨소?”

그러면서 멀리서 세를 걷고 있는 감고들을 흘렸다.

“저들이 누구요?”

“기로소 감고들입니다.”

“기로소 감고?”

“선대왕(영조) 때부터 여기 봉일천 장세는 기로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제 해마다 높아졌습죠. 다른 장들은 난전 하나에 얼마씩 받는데, 여긴 가마마다 세금을 매기는데다 조그만 것까지 다 따지고 드니... 저치들 무서워서 내 다음에는 다신 여기 오나 봐라.”

홍낙유는 기로소 감고들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로 잰 듯이 장세를 정확히 받기는 하였지만, 그 세가 너무 과도하였다. 창사에 까막눈인 홍낙유의 눈으로 보아도 이렇게 장세를 내다

가는 남는 것이 없을 듯했다.

홍낙유는 한양으로 올라와 임금께 봉일천 장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다. 하루 온종일 팔아봐야 남는 게 없는 장사꾼들이 봉일천장을 외면하고 다른 장으로 가면, 봉일천장에 오는 장사꾼들은 또 그만큼 더 많은 장세를 짊어져야 할 판이었다. 홍낙유의 보고에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다. 지방 장시의 세금까지 중앙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조정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임금은 홍낙유의 이야기를 듣고는 장사꾼들의 고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 곧 봉일천장의 세금을 개혁할 것을 명하였다.

위의 기록을 보면 정조 18년(1794) 봉일천장은 선대왕인 영조에 명에 의해 개설돼 호황을 누리던 장시였지만 과도한 장세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고 정조대에 와서 암행어사 홍낙유에 의해 그 실체가 보고됨으로 정조가 직접 봉일천장의 장세를 개혁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렀다.

3. 공릉장의 변화과정

조선후기 영조의 명으로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대시(大市)의 명성을 떨치던 공릉장(봉일천장)은 조정의 관심과 지원속에 호황이 지속되었으며 한말과 일제강점기에도 폐쇄되지 않고 유지된 정기시장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이후 봉일천장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맞게 된다.

1953년 휴전이 됐지만 파주지역은 여전히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전시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문산까지의 좁은 국도는 군용차량만이 왕래할 뿐 민간 교통수단이 없었다. 더구나 당시 이 국도는 군용차 전용의 비포장도로로 봉일천 장터 한복판을 관통했다. 군용차량이 봉일천 장터 한복판을 지날 때면 먼지가 자욱해서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점차 뜸해졌다. 반면 금촌장이 위치한 금촌은 대량 교통수단인 경의선 기차역이있고, 기차는 전쟁 직후 어느 교통편보다도 먼저 왕래했기 때문에 시장의 재개와 더불어 인파가 봉일천보다 금촌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가축을 사고팔 사람들도 1, 6일 열리는 금촌장으로 모여들어 봉일천장 가축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폐쇄되고 말았다.

금촌 가축시장은 처음에는 금촌 사거리 북쪽 산기슭 공지에 잠시 개설됐다가 현재 파주세무서 앞쪽의 넓은 공지로 옮겨졌다. 1976년에는 금촌도립병원 앞쪽의 금능리로 이전했다가 1982년 옛 파주연천축협 경제사업물류센터로 옮겨졌다. 그 후 2009년 파주연천축협이 축산종합지원센터를 개장하며 가축 시장을 함께 이전해 와 현재의 자리인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82번지에 정착하게

됐다.

우량 송아지 보급 위해 한우송아지경매 시장으로 파주연천축협은 지난 2006년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한우송아지경매시장을 개장했다. 56억여원을 들인 축산종합지원센터는 1만7000여㎡(5143평) 부지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시설과 농기계 임대센터, 한우송아지경매시장, 인공수정소, 동물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 이 중 한우송아지경매시장은 880㎡(266평) 면적에 송아지 100마리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1마리씩 개별 경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V. 파주지역 장시의 특징

파주는 한강, 임진강과 같은 대형 하천과 국도 1로인 의주로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입지, 그리고 도성의 위수지역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합해져 상업이 발달했고 이는 장시의 개설로 이어졌다. 또한 파주지역은 서해안과 관서지역의 산물이 서울로 운반되는 길목이었고 시전의 금난전권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도성의 사상도고들과 연계하며 상업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파주지역의 상업과 장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주에는 한강, 임진강 이외에도 공릉천, 문산천, 사미천 등의 가항 하천이 위치해 배를 통한 물류유통이 가능했다.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는 배가 대량 운송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들 하천을 기반으로 봉일천장, 신화리장⁴⁰⁾, 사미천장, 문산포장⁴¹⁾ 등의 장시가 개설될 수 있었다.

둘째, 파주지역 장시는 대부분 한강, 임진강이나 의주대로 주변에 입지해 있었다. 개항 이전까지 한강, 임진강변에 개시했던 장시가 7개소였고 의주대로변에 열렸던 장시가 6개소였는데 이는 전체 장시 개설수의 60%를 차지한다.⁴²⁾ 또한 남서부에서 장시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하천 상류로 갈수록 장시밀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강하구를 따라 축적평야가 펼쳐져 있어 인구와 생산물이 풍부

40) 봉일천장과 신화리장은 공릉천 하류변에 위치했다.

41) 문산포장은 임진강의 지류하천인 문산천을 끼고 형성되어 있었다.

42) 『파주시지』, 3권·파주생활, 「시장과 생활권」, 최동원, 2009

했기 때문에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수상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셋째, 파주지역은 왕의 잦은 행차로 조정의 간섭이 심한 농침주위에 장시가 개설되었다.

이는 파주지역의 상업발달이 조정의 상업 육성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공릉장(봉일천장)은 영조의 명령에 의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마지막으로 파주를 감싸고 있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는 서해안 조류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동절기에도 선박의 출입이 가능했다. 따라서 겨울철에 한강이 얼면 상선들은 교하, 부평등지에 정박해 수산물을 하역한 후 육상교통을 통해 도성으로 상품을 반입했다. 즉, 파주에서는 겨울철에도 상권이 유지되었고 이는 겨울철 상품의 구입을 위해 경강상인이 파주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상인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이와같이 파주지역 장시는 지역내 상품유통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관서지역과 서해안의 산물을 도성으로 연결시켜주는 중계지 역할도 담당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파주지역의 장시는 경기동북지역의 누원장, 송우장, 동남지역의 송파장, 남부지역의 안성장 등과 더불어 도성 및 경기지역의 물류유통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25전쟁이후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이 되면서 파주는 그 중심에 위치하게 돼 임진강 수로의 폐쇄와 안보문제 등으로 임진강 수계 지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고 말았다.

또한 상업활동의 위축은 시장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정시시장이 폐쇄되고 말았다.

2000년대 들어 파주지역은 신도시개발과 대규모 산업단지개발 등 외부 인구유입의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기하급수적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따른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최근 파주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남아있는 금촌장과 문산장, 적성장, 광탄장 등이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⁴³⁾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예전의 파주지역 장시의 영화는 요원(遙遠)하기만 하다.

43) 현재 금촌장은 ‘금촌통일시장’으로, 문산장은 문산자유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탄장에는 광탄경매시장을 개설해 시장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적성장 또한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시장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다.

V. 나오는 말

조선후기 전국적인 지방 장시의 개설과 더불어 파주지역에서도 임진강 연안의 수로교통이 발달한 소도읍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장시들이 개설되었다. 이들 장사들은 흥망성쇠를 이루며 여러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파주지역 장시의 개설과 변천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는 임진강과 한강을 연결한 수로교통의 발달과 국도 1호인 의주길, 1905년도에 개통된 경의선 철도 교통등 수운과 육상교통의 발달이 장시의 개설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또한 파주지역의 거점지역(읍면소재지) 이외의 소도읍(리단위)에서의 장시 개설은 근대 6.25전쟁 이후 휴전으로 인한 남북 분단과 파주지역의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소도읍 장시 개설의 원인제공을 한 미군부대가 1980년대 들어 미군철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도읍에 개설되었던 장시들은 대부분 폐쇄되었으며 거점지역의 장시들만이 오늘날까지 전통시장으로서의 명맥을 잇고 있다.

특히, 파주지역의 장시 변천사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후기 영조의 명에 의해 공릉 능침 인근에 개설된 공릉장(봉일천장)의 규모와 장세(場勢)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시(大市)로서 호황을 누렸으나 봉일천장의 경우에도 6.25 전쟁이후 철도교통이 편리한 금촌장으로 가축시장이 이전하면서 쇠퇴기를 맞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조선후기 파주지역의 장시 개설 상황과 파주지역 장시의 변화과정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파주지역 장시의 전체적인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포천장시의 발달 과정

최 창 근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포천의 옛 이름의 어원
2. 영평의 옛 이름의 어원

II. 본 론

1. 최초의 장시 형성 과정
2. 개장 중인 포천의 오일장
3. 시대별 포천 장시의 변천과정

III. 새로운 장시

1. 창수면의 개황
2.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다

I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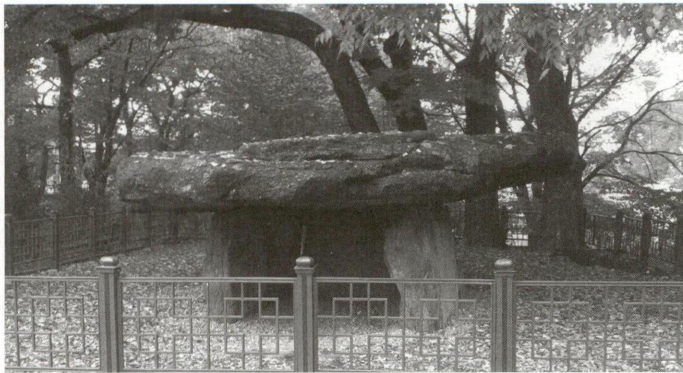
집필자

최 창 근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I. 들어가는 말

2003년에 시로 승격된 포천시는 포천 지역에 인구가 언제부터 거주하였는가 하는 것은 인근 연천 전곡지역의 선사유적지와 최근 영중면 영송리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지나 관인면 중리 한탄강댐 수몰지역 유적지로 보아 구석기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작동, 가산면 금현리, 일동면 수입리, 창수면 추동리의 고인돌과 포천1고등학교 부근에서 발견된 돌도끼와 화살촉 등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에는 이미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것은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 상석의 중량이 약 32톤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 상석을 통나무와 밧줄을 이용해서 석실 위로 올려놓는데 약 200여 명의 장정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여 명의 가용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의 인구는 적어도

1,000명쯤 되어야 한다. 포천시 자작동, 가산면 금현리, 일동면 수입리, 창수면 추동리의 고인돌을 중심으로 4개 집단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협력체나 강력한 지배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역사시대부터 포천 지방의 내력과 장시(場市)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古朝鮮)과 성읍국가(군장국가)의 하나인 진한(辰韓)의 전신인 진국(辰國)의 북방 경계지역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이후 이 지역에는 한(漢)의 분열책으로 유력한 정치집단이 없었다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기국가시대에 접어들어서 마한의 영향에 속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마한을 중심으로 한 백제(百濟)의 고대국가 발전과 함께 백제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어 진한 땅에서 흥기한 백제가 마한(馬韓)의 전 국토를 병합하고 그 세력을 북방으로 뻗쳐 한의 세력을 축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되자 백제의 통치력이 포천 전 지역을 세력 하에 두게 된다.

그 후 남진정책을 계속하던 고구려가 475년(장수왕 63년)에 백제를 공략하고 한강유역의 광범위한 지역이 고구려 판도에 들어감에 따라 포천도 이에 속하게 되면서 비로소 고유의 지명을 갖게



되었다. 즉 마홀군(馬忽郡)의 명칭이 붙여졌으며 명지(命旨)라는 별호도 이 때부터 생겼다. 최근 반월성지(半月城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홀(馬忽)이라 새겨진 기와장이 발견되어 이를 입증하여 준다.

신라 진흥왕(540~576) 때에 신라의 땅이 되면서 견성군(堅城郡)으로 개칭되었으며 757년(경덕왕 16)에 청성군(靑城郡)으로 바뀌어 신라말기에 이르러 중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각처에는 군웅이 할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진성여왕(眞聖女王) 즉위 후에 더욱 심하여 북원(北原 : 지금의 원주(原州))에 본거지를 둔 양길(梁吉)은 강원, 경기, 황해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포천은 양길의 세력권에 들어갔다. 얼마 후 궁예(弓裔)가 양길을 누르고 세력을 잡아 901년에 국호를 후고구려(後高句麗)라 하고 수도를 철원(鐵原)으로 정하여 포천은 궁예의 후고구려 세력권에 들어갔다.

918년 궁예가 쫓겨나고 그 부하들이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고장에는 궁예와 고려 태조 왕건에 얽힌 유적 및 일화가 많이 남아 있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에 포주(抱州)로 개칭하였고, 995년(성종 14)에는 십도제(十道制)를 채택하여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고 포천군이라 개칭하여 포천군의 이름이 처음으로 생겼다. 1005년(목종 8) 도단련사를 폐지하고, 1018년(현종 9) 양광도(楊廣道) 양주군(楊州郡)에 이속시켰으며, 1172년(명종 2) 양주군에서 분리하여 감무(監務)를 두고 포천군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후 200년간 큰 변동없이 내려왔다.

1413년(태종 13) 팔도제(八道制) 실시와 더불어 포천현(抱川縣)이라 하고 현감(縣監)을 두었다. 1618년(광해군 10) 포천, 영평을 합쳐 도호부(都護府)를 두고 감영(監營)을 설치하였다. 다시 1623년(인조 1) 포천, 영평으로 분리하고 양주진관(楊州鎭管)에 소속시켰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영평현을 포천현에 병합하고 군(郡)으로 승격시켰으며 1896년(고종 33) 포천군에서 영평을 다시 분할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의 강압적인 한일합방으로 일제치하에 들어갔다가 1914년에 영평군을 다시 포천군에 통합하였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미·소 양군의 진주와 함께 38선을 분계로 한국토 분단의 비극은 포천을 두동강으로 만들었다. 창수, 청산, 영중, 일동면의 일부와 영북, 이동면은 소련 군정하에 들어가고 포천군은 나머지 10개 면 67개리를 관할하며 미군정 치하에 있었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포천군청은 한때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9.28수복으로 10월

14일 복귀하였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공으로 다시 철수하였다가 6월 24일 복귀하였으나 청사가 전소되어 포천면 어룡리에 임시 청사를 두었다가 11월 14일 현 시청소재지인 신읍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포천군의 행정구역은 10개 면 67개 리로 구획되었다.

1951년 UN군의 북진으로 38선 이북 지역의 5개면을 탈환 수복하여 행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군 정하에 북포천이라 하여 북포천군수를 두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12개 면 88개 리로 구획되었다.

1963년 5월 10일 내촌면 화현출장소를 설치하고,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포천면 탑동리가 양주군 동두천 읍으로 이속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내촌면 화현출장소가 화현면으로 승격되고 청산면(삼정리, 갈월리, 덕둔리, 금동리 제외)이 연천군으로, 연천군 관인면이 포천군으로 편입되어 행정구역은 13개 읍면 89개리로 구성되었다.

2003년 10월 3일, 대통령령 6928호로 도·농 복합시로 승격, 포천읍이 포천동과 선단동으로 분리되어 행정구역은 14개 읍,면,동(1읍(소흘읍), 11면, 2동(선단동 포천동))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술된 포천과 영평의 변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디 고구려의 마홀(馬忽)인데 일명 명지(命旨)라 하기도 한다. 신라 때에 견성군(堅城郡)이라 고쳤으며 고려 초기에 포주(抱州)라 하였고, 그후 포천이라 개칭하여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고려 목종(穆宗) 8년에 이를 파하였다. 현종(顯宗) 9년에 양주에 예속시켰고, 명종(明宗)이 양주를 분리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에 현감으로 고쳐 만들었다. 관원(官員)은 현감, 훈도(訓導) 각 한 사람씩 두었다. 방리(坊里)로는 현내면(縣內面), 청량면(淸涼面), 화산면(花山面), 내동면(內洞面), 내북면(內北面), 외북면(外北面), 서면(西面)의 9개 면에 총 호수 2,494호이고, 위치는 동쪽으로 가평현의 경계까지 18리, 서쪽으로 양주 경계까지 30리, 남쪽으로 같은 주의 경계까지 36리, 북쪽으로 영평의 경계까지 26리, 경도(京都)까지의 거리가 97리이다.

영평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평은 원래 고구려의 양골현(梁骨縣)이었는데 통일신라의 경덕왕(景德王)때 동음(洞陰)으로 개칭하고 견성군(堅城郡)의 진현(鎭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9년 동주(東洲:철원)에 영속되었다가 예종(睿宗) 1년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원종(元宗) 10년 위사공신(衛社功臣) 강윤소(康允紹)장군의 내향(內鄉)이므로 영흥현령(永興縣令)으로 승칭(陞稱)되었으며 조선 태조

때 영평현으로 개칭하였다. 화주(和州)로 승개(陞改) 되었고, 문종 때 영평군으로 개칭되었다. 광해군 때 포천현과 합하여 영흥부(永興府)로 되어 감관(監官)을 설치하였다가 인조 때 다시 영평현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평현은 양주진관으로 관직은 현령(縣令)이며, 현북(縣北) 30리에 옛 이름은 유석향(乳石鄉)이고, 지금 이름으로는 화적연(禾積淵)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고 현동(縣東) 30리에 옛 이름은 용곡소(龍谷所), 이름은 와룡암(臥龍岩)이라 부르는 두 마을이 있었다. 방리(坊里)로는 현내면(縣內面), 하리면(下里面), 서남면(西南面), 조양면(助良面), 주침면(注沈面), 북면(北面)의 6개 면이 있으며 도합 호구가 1,435호이고 인구는 남자 3,014명, 여자가 3,067명이다.

위치는 동쪽으로 가평현과 경계가 되고 서쪽으로는 연천현, 남쪽으로는 포천현,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부와 경계하고 경도(京都)까지의 거리는 140리다.

1. 포천의 옛 이름의 어원

포천을 고구려 시대에는 마홀(馬忽)이라 하였는데 마홀에 대하여「삼지연(三地研)」에서는 물골[水城] 즉 ‘물이 많은 골(谷)’이란 뜻의 ‘물골’을 음차(音借)한 것이라고 하였다. 골 마(馬)는 물의 옛말 ‘물’ 또 이것의 옛말 ‘매’를 음차한 것이고, 홀(忽)은 ‘골’을 음차 하여 썼다는 것이고, 견성(堅城)은 통일신라시대 때 성을 튼튼하게 수축하고 공수(攻守)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연유로 명명하였으며, 청화(淸化)라 한 것은 고려 성종이 정한 별호라고 한다. 지금의 포천이라는 명칭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없고 외부로 흘러 나가기만 한다고 하여 안을 포(抱), 내 천(川)으로 이름하였다.

2. 영평의 옛 이름의 어원

영평의 옛 이름이 양골(梁骨)이었다고 한 것은「삼지연(三地研)」에서 ‘터것골’을 음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골 양(梁)은 터(基)의 음차이고 골(骨)은 ‘곧’이므로 ‘것’ (거칠다 즉 황(荒)의 어음)의 음차이다. 따라서 ‘터가 거칠다’는 뜻의 ‘터것골’을 한자를 빌어서 양골현(梁骨縣)으로 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사시대 포천의 연혁

시 대	연 혁
백제시대	전 지역 백제의 세력하에 있었음
고구려시대	마홀군(馬忽郡)
신라시대	신라의 진흥왕, 견성군(堅城郡) 별칭 명지(命旨)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청성(靑城)군. 양골현(梁骨縣)을 동음현(洞陰縣)으로
고려시대	태조23년(940)포주, 성종 포천군(995) 포천군 별칭 청화(淸化), 고려8대 현종 양광도 양주군으로 이속
조선시대	조선제3대 태종왕(1413), 포천현, 태조 영흥현(永興縣)을 영평현(永平縣)으로
1914년	3월 영평군이 포천군에 편입
1973년	행정구역개편, 포천면 탑동리가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분리, 12개면(1개출장소)87개리로 구획(대통령령 6452호)
1983년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연천군 관인면이 포천군으로 편입, 행정구역은 13개(2읍 11면) 88개리로 구성(대통령령 110027호)
2003년	도·농복합시로 승격, 포천읍이 포천동과 선단동으로 분리 행정구역은 14개 읍,면,동(1읍, 11면, 2동)으로 구성(대통령령 6928호)

II. 본 론

1. 최초의 장시 형성 과정 [오일장의 유래와 포천의 오일장]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지역에 인구가 거주하면서 이웃 간에 없는 것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원시 거래는 이루어 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시장의 기원은 삼국 시대로 보고 있고, 정기 시장이 발달한 것은 조선 성종조 대부터였다. 정기 향시(鄕市)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는 조선 후기 시대로 농업 생산력의 꾸준한 발전으로 거주 영역이 확대되고, 광범위한 지역에 인구가 분포하면서 정기 시장이 골고루 형성되었다. 조선 시대의 정기 시장은 처음에는 6일~7일 간격으로 서는 정기시가 많았으나, 이후 점차 5일 간격으로 줄어서 하루 왕복 거리인 30리~40리마다 교통의 요충지에 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선조때에 이르러 미약하나마 5일 간격으로 각 지역이 연결되는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이후 시장의 개설은 더욱 진전되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우리의 전통 시장은 개항을 전후하여 변질되어 갔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

서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침해하면서 왜곡되어 갔다. 우리 민족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를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 소식과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 정의가 교환되는 장소,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의 장소로 되면서 일제의 감시와 단속이 심해지기도 하였다. 해방과 6.25동란 4.19혁명 등을 거치면서 특별한 변화 없이 재래시장으로 번영과 애환이 이어져 왔다. 새마을 운동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고도성장의 경제 발전으로 농촌의 많은 정기 시장은 상가 또는 상설 시장 읍, 면, 동 또는 큰 마을에도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가 국민들의 주 생필품 유통 장소로 변해간다. 오늘날 포천 지역도 오일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포천 민속장·송우장을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오일장은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2. 개장 중인 포천의 오일장

포천 지역에서 개장되고 있는 오일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포천 민속장이다.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용정리 한내천 고수부지에서 개장되며, 5일과 10일에 열린다. 포천 민속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며, 포천이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철원군. 가평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 지역의 주민들이 포천장으로 장을 보러 온다. 예전에 비해 규모가 커져 현재는 400여 개의 점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유통되는 상품은 소농기구 수저 식기 생활 공구 등 공산품은 대부분이 수입된 저가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교자상 다과상 밥상 등 가정용도 전통 공예품이라기보다는 수입품이나 공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좌판을 점령하고 있는 식자재 부분도 시절에 맞는 농산품이 현지 생산품이 출하되는량은 소량에 불과하고 호남지역의 대량 생산되는 채소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값싼 수입농산품도 상당수가 거래된다. 해산물은 우리의 어장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다양한 활어 어종과 생물이 많이 거래되며, 건어물 장 건과류 시장도 성행되는 코너이다. 가장 찾는 손님도 많고 성행되는 화장품 의류품은 대부분 공산 중저가 품이 대부분이고 수입 싸구려 코너가 많이 차지한다. 생활용품 소도구 방물 등도 현지인 생산품은 전무하고 공장 제품 수입제품이 대부분이다. 가장 장꾼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먹거리 장이다. 장이 서자마자 막걸리 잔이 돌아가며 정담이 오가고 흥이 나면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 가락도 나온다. 먹거리 장은 늦은 손님이라도 만나면 10시에 파하기도 한다. 안주부분을 보면 떡갈비 돼지갈비 메추리 내장 곱창 순대 머리고기 등이 주류이고 낙지 해삼 명게 등의 해산물 코너도 몇 개 점포가 된다. 곤달걀과 막걸리를 먹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 않다고 하여 많은 남녀 장꾼들이 모이기도 한다.

구리시나 의정부시에서 29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20분 내에 장마당 부근에 닿을 수 있고, 서울에서 의정부를 지나 국도 43호선을 따라 오면 장터에 이를 수 있고,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와도 쉽게 장터에 이를 수 있다.

포천 민속장은 주말과 겹치는 장날은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주변에 산정 호수, 백운계곡, 아트벨리, 허브아일랜드, 베어스타운, 한탄강 지질공원(포천의 신팔경), 포천 국립 수목원, 일동온천 등 관광지가 많고 이동갈비, 신북오리촌, 두부마을, 버섯마을, 청정한우, 한돈 브랜드 등 수 많은 저렴한 먹을거리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나들이客이나 드라이브를 나온 가족들도 장을 많이 찾는다. 그 외에 포천에서 열리는 오일장을 살펴보면, 내리장[내촌면 내리]은 1일과 6일에 열리고, 송우장[소흘읍 송우리]은 4일과 9일에 열린다. 기산장[일동면 기산리]은 2일과 7일에 열리고, 이동장[이동면 장암리, 개설일은 1955년 3월 25일]은 3일과 8일에 열린다. 윤천장[영북면 윤천리]은 4일과 9일에 열리고, 관인장[관인면 탄동리]은 2일과 7일에 열린다. 영중장[영중면 양문리]은 5일과 10일에 열린다.

오늘날 오일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산물 수입의 개방화로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우리의 농산물을 지키려고 생산농가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온갖 기술의 보급과 지도,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형 할인점의 등장으로, 교통의 편리, 우수한 상품으로 가격차별화, 서비스 만족, 주차시설의 편리 등으로 많은 고객이 대형마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통 시장은 주차 불편, 수입 농산물의 무 차별화, 노점상품의 청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통 먹거리와 명품 먹거리 골목 등 매장을 청결하게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떠난 손님이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인정을 나누는 만남의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어 먹자 좌판은 항상 성황이다.

3. 사라져 가는 포천의 오일장

포천 지역의 오일장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1999년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사라져 가는 포천의 오일장을 살펴보면, 일동장[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의 개설일은 1955년 12월 17일이며, 2일과 7일에 장이 선다. 이동장[이동면 장암리]은 1955년 12월 17일에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3일과 8일에 장이 서고 있으며, 내촌장[포천시 내촌면 내리]의 개설일은 1953년 11월 12일이며,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관인장[관인면 초과리]

의 개설일은 1954년 10월 21일이며, 2일과 7일에 장이 서고 있으며, 영북장[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의 개설일은 1955년 3월 25일이며,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소흘장[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은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포천장[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용정리 고수부지]은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 가산장과 관인장은 관내에 대형 매장도 있고 인근에 활성화된 장이 있어 폐쇄되었으며, 내촌 일동 이동 영북의 장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점포수와 장을 보러 나오는 시민들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매출액도 전성기 1/3 수준도 못 미친다고 한다.

4. 시대별 포천 장시의 변천과정

1) 상품유통 경로의 유형별 분류

첫 번째는 객주가 장선(場船)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도고(都賈-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도매상인)에게 넘겨 파는 경우다. 즉 생산자->수집상(蒐集商 장선 또는 어선)->객주->도고->행상(소매상, 소규모 도매상)->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이다. 여기서 도고란 사상(私商) 도고로서 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도매상인을 말한다. 영조22년(1746)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칠패(七牌 - 지금의 서소문 밖에 있었다.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미 18세기 전반기에 이현(梨峴)·종가(鍾街 : 종로)와 함께 서울의 가장 큰 상업중심지의 하나로 발전하였다)에서 난전을 벌여놓고 하루 종일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그 결과 칠패는 이들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소, 말로 항시 붐볐다고 한다.

두 번째는 선인과 선주인이 객주의 역할을 하는 경우다. 즉 생산자->선인->선주인->도고->(장시)->소비자의 경로다.

세 번째는 시전인(市廛人)을 거치는 경우다, 즉 생산자->선인->선주인->시전인(장시)->소비자의 경로다.

네 번째는 도고와 도고가 연결되는 육로에 의한 유통으로서 생산자->원산도고(元山都賈)->통천민(通川民)->송우도고(松隅都賈)->소비자의 경로와 생산자->북상(北商)->시전인->(송우도고)->소비자의 경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도고들은 동북쪽으로는 도봉산 기슭인 누원의 주막에서 남으로는 동작 나루터에 사람을 보내 북과 남에서 서울로 오는 상품을 몇 백 마리씩 매점해서 칠패(七牌)로 싣고 갔다. 이 지역과, 삼전도 등은 금난전권(禁亂廛權)에 해당이 되었다. 금난전권은 육의전을 비롯한 한성내의 37개 시전들이 도성 안팎 10리(약 4km 이내)에서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조 15년(1791년), 정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첫째, 육의전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는 금난전권, 즉 도매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설립된 지 20, 30년 미만인 시전은 폐지한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은 국역을 지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이익을 독점케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로 시전을 만들어 일용품을 매점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값이 날로 오르지만 합니다. 마땅히 평시서에 명하여 20, 30년 이내에 설립된 작은 시전을 조사해 모조리 혁파하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자는 벌을 주게 해야 합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 옳다고 하여 따랐다.

① [우리나라의 화폐(貨幣)가 행용되지 않는 데에는 그럴 까닭이 있습니다. 경성(京城)이외에는 시포(市鋪)가 없으니 화폐가 있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화폐가 행용되게 하고자 하여도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는 백성을 소요하게만 하는 법이 될 뿐입니다. 화폐가 행용되게 하는 방법은 경외(京外)에서 시포를 열어 백성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게(유무상천(有無相遷)하는 것밖에 없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자면 물건을 날라 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돈의 유통(流通)에 힘입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화폐는 반드시 시포가 있어야 통용된다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시포를 설치하는 것은 인심의 소원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경인(庚寅, 1470)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라도의 백성이 스스로 서로 모여서 시포를 열고 장문(場門)이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힘입어 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방에 시포를 설치하는 기회였으나, 호조(戶曹)에서 수령(守令)들에게 물으니 수령들이 이해(利害)를 살피지 않고서 전에 없었던 일이라 하여 다들 금지하기를 바랐으니, 이는 상습만을 좇는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나주목사(羅州牧使) 이영건(李永肩)은 금지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호조에서는 굳이 금지하여 천년이나 한 번 있을 기회를 잃었으니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신이 전에도 이를 아뢰었고 지금도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큰 의논을 세우는 자는 아래로 민심(民心)에 순응하면 그 성취가 쉽습니다. 지금 남쪽 고을의 백성은 전에 이 때문에 스스로 보전하였으므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반드시 같을 것입니다. 이제 외방의 큰 고을과 백성이 번성한 곳에 시포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되, 강제로 시키지 말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여 민심이 향하는 바를 관망하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성종실록 권 27 성종 4년 2월 14일 임신(壬申)]

위의 내용은 화폐 통용에 관한 논의 중의 신숙주(申叔舟)의 견해이며,

② 호조에서 장시의 폐단을 진술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라도 무안(務安) 등 모든 고을에서 상인들이 장문(場門)이라 일컫고 여러 사람이 모여 폐단을 민간에 끼친다”고 하니, 장문을 폐해야 하느냐 두어야 하느냐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므로, 신 등이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이문(移文)하였더니, 김지경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인민이 그 고을 길거리에서 장문(場門)이라 일컫고 매월 두 차례씩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비록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고 하나,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르는 것이며, 물가(物價)가 올라 이익은 적고 폐가 많으므로, 이미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시켰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엄중히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7일 壬戌]

③ 난리 이후에 백성들이 정처가 없어 장사로 생업을 삼는 것이 마침내 풍속을 이루어 농사에 힘쓰는 사람은 적고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니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지 오래입니다. 흉년에는 의례 도적이 많으니 이 폐단 또한 미리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열읍(列邑)에 장시(場市)가 서는 것이 적어도 3-4곳 이상이어서 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또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으므로 간사함이 성행하고 모리(牟利)가 날로 심해지니 매우 염려됩니다. 해조로 하여금 사목(事目)을 마련해 계하여 행이(行移)해서 큰 고을은 두 곳, 작은 고을은 한 곳에 한 달에 세 번 모두 같은 날 개시(開市)하는 외에 일체 금단(禁斷)하여 민심을 진정시키소서. 선조실록 권 212. 선조 40년 6월 24일 을묘 위의 기록을 보더라도 임진왜란 이후에 빈곤한 백성들이 농업에는 힘을 쓰지 않고, 상업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군현마다 3-4곳에 정기적으로 장시가 열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수의 양반 층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였음을 나타낸다.

④ 형조판서 홍상한(洪象漢)이 이르기를, 근기(近畿)의 장시는 사평(沙坪). 광진(廣津). 누원(樓院). 검암(黔巖) 등과 같은 곳으로 사면에 나열해 있으며, 시민(市民, 市塵民)들은 그것을 혁파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대개 한 달에 6차례 교역할 뿐이어서 원래 서울의 시전에 폐를 끼칠 이 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파장의 경우는 거주민들이 서울 밖의 중간도매상인들(中都兒) 및 난전(亂塵) 무리들과 체결하고, 삼남(三南) 및 북도(北道). 영동(嶺東) 등지의 상인들을 유인하여 모두 이곳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으로서 난매(亂賣)를 업으로 하면서 단속하는 관리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또한 그 곳으로 갔습니다. 이름 하여 비록 한 달에 6차례라고 하지만 실은 각전(各塵)의 물품을 마을 가운데 쌓아두고 날마다 사고팔고 함으로써, 서울의 시전은 해마다 점점 이익을 잃어 만약 이 시장을 혁파하지 않으면 서울의 시전은 생업이 없어질 것입니다.(備

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송파장시(松坡場市)는 일찍이 평시 제조(平市提調) 홍상한(洪象漢)의 진달한 바로 인하여 혁파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유수(留守) 서명빈(徐命彬)이 장계로 도로 설치하도록 청하였으니, 그것은 대체로 송파가 바로 보장(保障)의 요진(要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시(京市)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문득 진변(津邊)의 교역(交易)을 혁파하게 하다면 질서 없이 모여 사는 주민들이 장사 이익을 잃게 되어 흩어지는 염려가 있을 터이니, 수신(守臣)의 청원은 정말로 이상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재상들에게 널리 물어서 처리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영조실록 권 83. 영조 31년 1월 12일 병술)

18세기 후반 양주목과 포천현의 장시

양주목(楊州牧)		포천현(抱川縣)	
장시명(場市名)	장 날	장시명(場市名)	장 날
가라비(加羅非)	3.8.13.18.23.28.	읍내장(邑內場)	3.8.13.18.23.28.
동도천(東道川)	5.10.15.20.25.30.	송우장(松隅場)	4.9.14.19.24.29.
신천(新川)	2.7.12.17.22.27.		
고주내(古州內)	5.10.15.20.25.30.		
대탄(大灘)	4.9.14.19.24.29.		
북도천(北道川)	1.6.11.16.21.26.		
구곡(仇谷)	1.6.11.16.21.26.		

양주 가라비장과 포천 송우장의 유통품목

가라비장(加羅非場)	송우장(松隅場)
미(米) 면포(綿布) 마포(麻布) 과물(果物) 어염(魚鹽) 우독(牛糞) 석자(席子) 옹기(甕器) 목물(木物) 지지(紙地)	미(米) 면화(棉花) 면포(綿布) 마포(麻布) 과물(果物) 우독(牛糞) 연초(煙草) 부정(釜鼎) 목물(木物)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대진대학교 박진태 교수의 「조선 후기 근기지역 장시(場市)의 발달과 樓院 松隅店」 논문에서 인용.

⑥ 성호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양반들은 실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관작을 얻는 일만을 목표로 삼으니, 그것은 관작을 얻어 관리가 되면 부(富)가 따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양반이라면 누구나 먼저 관리되기에만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 정치기구 밑에서 관리등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반면에 양반의 신분은 세습되므로 그들의 수는 늘어나서 관리후보자의 수도 늘어나게 마련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정례적인 과거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의 수만을 따져도 한정된 관리자리에 그들 모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이 관직을 차지하는 평균연한을 30년으로 본다면, 그 30년 동안에 정기적인 과거합격자의 수만도 2,330명이나 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명목의 특별시험의 합격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아진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직 수는 500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관직 수는 하나인데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8,9명에 이르므로 분분분당(分朋分黨)이 될 수밖에 없는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질화된 봉당의 폐풍을 고치고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인재 등용의 방법을 고쳐서 문벌이나 당색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기구를 개편하는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치한 소비생활을 하는 양반들의 생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관작이나 부귀를 몸에 지니고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천자로부터 일 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빈천하기는 매양 일반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하였다. 양반이라도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업에 종사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선비 중에서 효제(孝悌)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뽑아서 관리로 등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문장이나 시가에만 힘쓰지 말고 사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인재 등용도 종래의 과거제도 외에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채용하는 공거제(貢舉制)를 아울러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정기시험도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해마다 시험과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실시해 응시자가 과목마다 확실한 준비를 갖추 수 있게 하고, 조선의 역사도 과목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분제적인 사회구조를 고쳐서 점진적으로나마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사농의 합일과 같이 양천(良賤)의 합일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근대적인 직업관·신분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 준다.

Ⅲ. 새로운 장시 『蒼水야 놀자』

1. 창수면의 개황



창옥병(蒼玉屏)

포천시 창수면의 이름도 이 깎아지른 듯한 절경의 창옥병(蒼玉屏)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창수면은 동쪽으로 영중면(永中面)·영북면(永北面), 서쪽으로 연천군의 청산면(靑山面), 남쪽으로 신북면(新北面), 북쪽으로 관인면(官仁面)과 접한다. 기반암은 주로 대보화강암이며, 지형은 대부분 험한 산지를 이루어 하천 주변에 소규모의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창수면의 한 중앙으로 영평천(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그 북쪽에 이와 병행하여 한탄강(漢灘江)이 역시 동에서 서로 흐른다. 영평천을 경계로 강북(江北) 지방은 보장산(寶藏山:555m)을 주봉으로 하는 산지이고, 강남(江南) 지방은 영평천과 그 지류 일대에 전개된 평지로 농경지와 취락이 발달해 있다.

추동리에서 백의리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에는 1954년도에 세운 38도선 비석이 6군단 공병여단에 의해 세워 졌다. 이 38도선이 영평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창수면을 8.15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미군정하에 들어갔고 이북지역은 소련 군정 하에 속하다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쪽지역은 미군정으로부터 인수되었으나 북쪽지역은 공산치하에 속하게 되어 선 하나가 가족과 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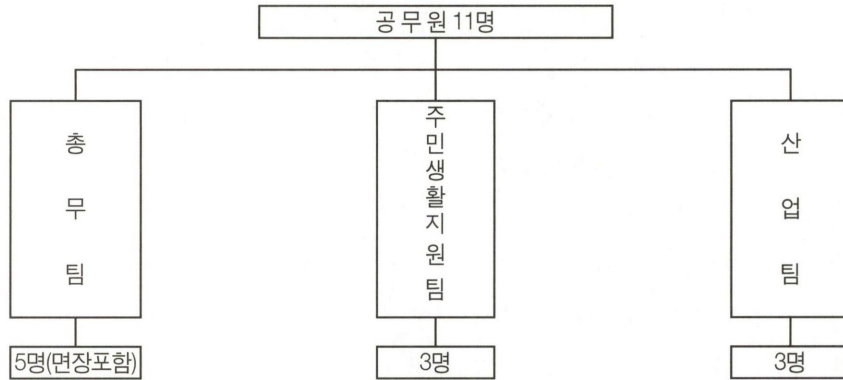
마을을 갈라놓은 것이다. 6.25 남침으로 주민들 대부분은 피란하였으며 우리 군이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휴전협정과 동시에 창수면 전 지역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법정리인 신흥리는 군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민간인이 살지 않는 마을로 존치하고 있다.

농산물로는 쌀·옥수수·콩·채소 등을 산출하는 외에 특용작물인 인삼이 널리 재배된다. 최근에는 사과수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이 귀농 농가와 원주민 농가가 합심하여 40여 농가가 재배하여 체험 농가 지정을 받아 주변 관광지와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산 농가는 총 154농가에 젖소가 31,437두 한우가 751두, 돼지가 52,272두, 닭 1,381,200수로, 닭 돼지 대규모 사육농가가 40여 호로 면단위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 최다 생산량이 될 것이다. 그밖에 석탄·금·규석·은·납·형석 등의 광석이 약간 생산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37번국도 85번국도와 325번·322번 지방도가 통과하나 산지가 많고 취락 마을이 산재하여 교통은 불편한 편이다. 거창 양평 가평에서 올라오는 37번 국도가 창수면 중앙을 관통해 파주 적성에 이르는 국도가 확 포장되어 준공단계에 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울 순환 외곽도로 역할도 하여 서해안이나 다른 고속도로 진입이 한층 편리해지면 무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하겠다.

예부터 영평 8경이라는 명승지가 오가리(五佳里)에 있는 금수정(金水亭 향토유적 17호)과 창옥병(蒼玉屏)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청흥군 이중로정사공신교서(靑興君李重老靖社功臣敎書:국가보물 1174호 원본 경기도 도립박물관 소장(所藏). 이지란. 이중로 선생을 모신 청해사에는 모사품 보존), 김중행묘(金仲行墓 향토유적 27호 사마감찰사로 단종 복위에 가담한 생육신. 증 영의정), 옥병서원(玉屏書院 향토유적 26호 영의정 사암 박순. 영의정 문곡 김수항선생과 동은 이의건. 촌로 김성대. 유심재 이화보. 존성재 윤봉양 선생 배향), 고소성지(古蘇城址), 금수정(金水亭), 청해사(靑海祠 향토유적 25호), 추동리(秋洞里) 지석묘군, 추동리 고분(古墳) 등이 있다.

창수면 기본현황

면적(km)	71.5
행정구분	15행정리(7법정리 45개반)
위치	경기도 포천시 북서부
행정관청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메치골로 178(주원리 249-1)
예산규모	583,964천원



총무팀	▶ 주민숙원사업, 회계, 청사관리, 환경, 보안, 체육 ▶ 주민자치, 위생, 선거, 기록물, 문화관광, 사회단체지원
주민생활지원팀	▶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제증명, 세무, 민방위 ▶ 기초생활보장, 묘지
산업팀	▶ 농지, 농정, 축산 ▶ 산림, 토목, 건축, 광고물, 재난관리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현황 【2017. 3. 31. 기준 단위 : 세대/명】

세대수	인 구			비 고
	계	남 자	여 자	
1,152	2,349	1,307	1,042	
외국인수	2	2	-	

면적 현황 【2017. 03. 31. 기준 단위 : km²】

계	농경지	임야	기 타	비 고
71.48	9.86	52.18	9.44	

저소득가구 현황 【2017. 03. 31. 기준 단위 : 명】

합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82	100	47	57	9	14	25	26	1	2

교육기관 현황 【2017. 03. 31. 기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유치원	창수초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창수초교	

의료시설 현황 【2017. 03. 31.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보건지소	진료소	의원	약국	비 고
2	1	1	-	-	-

유관기관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창수파출소	창수면 메치골로 174	
창수우체국	창수면 옥수로 103	
창수면대	창수면 메치골로 182	
영중농협 창수지점	창수면 전영로 1128번길 3	

농업 및 축산업 현황 【2017. 03. 31.기준 단위 : 개소】

농업	벼농사	과수	두류	특용	비 고
538농가	261ha	37ha	101ha	55ha	-

축산업	한우	젖소	돼지	닭	비 고
154농가	751두	31,437두	52,272두	1,381,200수	-

군사안보 요충지역 【2017. 03. 31.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군부대 훈련장	2개소	
군사시설보호구역	34.04km(면 전체 면적의 48%)	

공장등록현황

식 품	19
섬 유	7
금속기계	1
화 학	9
가 구	2
비금속	40
기 타	16

2. 『蒼水야 놀자』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다.



위의 개황과 기본 현황을 보더라도 인구 밀도가 낮고 임야면적이 75%를 차지하여 수려한 경관과 유명한 선현의 얼이 깃든 전통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어 면민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절반에 가까운 48%나 되어 개발에 제한이 되어 청정한 지역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대도

시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이던 이경훈 면장이 취임하면서부터 「포천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시로서 농촌에서 많은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16 Km 이상 떨어진 포천 장이나 포천농협 농산물 공판장에 싣고 나가야 하는데 소매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되는 현실을 보고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 공장도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창수면은 농축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청정지역으로 자체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농업인이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서로 상생하는 장터 문화를 키워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농축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창수장터를 개설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장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마을의 대표, 기업인 대표, 작목반 대표, 창수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과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종묘와 농기계, 공산품 제조사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50명의 위원



으로 창수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운규님을 선출하고, 매주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등 빈틈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오다가 지난 6월 3일 『蒼水야 놀자』 장마당 개장식에 앞서 창수면사무소 광장에서 시 단위 기관장 단체장 유지 창수면 면민 추진위원 기업



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蒼水야 놀자』 격주 간격으로 개설되는 직거래장터 성공기원 「시민 걷기대회」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2.5km 왕복 걷기대회 후에 경품추천에 500여점 2,0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에 참가자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 하였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창수면 부녀회에서 준비하여, 무한 제공하는 콩국수 비빔국수에 녹두빈대떡, 쫄 개떡, 냉 콩 국물, 손 두부와 막걸리는 땀 흘린 후에 맛보는 천하일미였다. 드디어 갈고 닦으며 준비해온 『蒼水야 놀자』 직거래 장터가 6월 10일 9시에 첫 장시(場市)가 열린 것이다. 시와 면단위 기관장의 축사와 유공자 표창이 있고 바로 개장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이 아침에 생산하여 출품한 애호박 가지 열무 등 싱싱한 농산물·대소(大小) 과일 과채류 과일즙·달걀과 축산물·창수면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시기에 맞는 각종 종묘까지 면사무소 광장 40여 좌판을 가득 채웠고, 순수하게 면민으로 구성된 애플 밴드(사과 영농회원)와 조선조 후기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오가리 가노농악대, 창수지역과 연고가 있는 배경숙 명창의 경(京) 서도소리 합창은 참석한 관 내외의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아침에 생산하여 출하된 농산물을 중간상 없이 직거래로 30%이상의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참석자 모두는 감동의 연발 이었다. 특히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운반에 어려



움이 있어 사기가 어려웠던 빨래판 돌절구 농기구 명품 당면과 국수는 출품한 량이 동나자 특별 보충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날 출하된 농산품 공산품과 좌판 진열 상황은 다음도표로 나열해 본다.

창수야 놀자 상점 배치도

오경택 (백년한우)	여성 낙우회 (치즈 요구르 트)	임선순 (사과,사 과즙)	배진숙 (팔빙수, 커피)	이흥선 (평화농 원블루베 리아로니 아)	손현경 (외플 비타민 꿀,화분)	표고,꿀 영지 숲속의 우산 장광수	우정식품 국수 당면	한아름 농장 문순덕 (고사리, 고비)	장금자(오이, 피클,김치) 안세권(양말)
박동섭(박동섭)	슬러시 블루베리 요목								이학기 (달걀,양배추, 비트,실파,감 자,마늘,가지, 토마토)
함희진(오디) 배경숙(오미자)									조복섭 (금,은세공,활)
강수경 (대파,마늘)									허당원, 유기농분말
이용복(고로케, 도넛츠)									윤봉순 (흑미, 찹쌀,현미)
민경숙 (간장,식혜) 수제빵(김순용)									이해역 (화감암,빨래 판 ,지압판)
변대철 (보리분말 즉석제조 고추장)									생활개선회 천연염색
권명철 (배즙,배말랭이)									이계숙 (표고,생표고, 웃나무)
절임오이 김석배(인삼)									

중앙공연장
-애플밴드
섹소폰, 트럼펫, 드럼
-오가가노농악
-서경도소리
-장구타령
-장터 노래자랑

가래울 영농 (참기름)
해실장

건강증진실
- 주민자치센터
- 뱀에 물렸을 때 치료법
- 고어텍스 앞치마

이정희 (번데기, 콩나물)
숲속의 대장 간 조수래
박춘희(손두 부블루베리)

『蒼水야 놀자』 장터를 개설한 이경훈 면장

창수면장 : 이 경 훈 (1962.04.02. 일생)

가족사항 : 배우자, 2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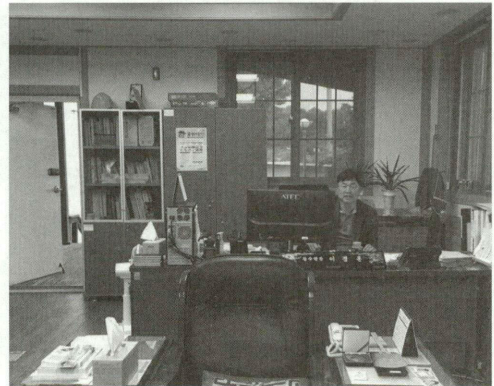
학력 : 김천중앙중, 김천중앙고, 건국대학교,
대진대학교

경력

- 1986. 03. 29. : 포천군 농촌지도소 (시보)
- 1987. 03. 29. : 포천군 농촌지도소 (지도사)
- 1990. 02. 01. : 포천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 1994. 03. 02. : 포천군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
- 1995. 01. 01. : 포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 2005. 02. 03.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
- 2008. 10. 06.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소득작목팀장)
- 2012. 03. 01.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채소화훼팀장)
- 2014. 09. 01.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장)
- 2017. 01. 01. : 창수면장
- 2017. 06. 10. : 『蒼水야 놀자』 매월 2-4주 장터를 창수면 광장에 개설하여 포천시민 재경시민
관객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음.

수상

- 1994.12. : 경기도지사(모범공무원) 표창
- 2011.12. : 경기도지사(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2014.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 축산 식품산업 발전유공) 표창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옮긴글

① 포천 창수면, 6월 10일부터 격주 토요일에 장터 운영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시골의 한 면사무소가 주말이면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장터로 변신한다.



포천 창수면의 한 사과농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은 오는 6월 10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면사무소 광장에 주말 장터 『蒼水야 놀자』! 직거래를 운영한다.

주말 장터는 창수면발전위원회(위원장 정윤규님) 주관으로 15개 마을이 부스를 운영,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과 면민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시중보다 20~30%이상 싼 가격에 판매한다.

② 『蒼水야 놀자』 네 번째 장터 열린다. 포천신문(지역신문으로 10일간격 1만부 발행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7일

청정지역인 포천시 창수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蒼水야 놀자』 네 번째 창수장터가 오는 22일 창수면사무소 앞 광장에 선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창수장터는 그 간 세 번의 창수장터로 당초 목표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중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터다.

창수장터에서는 창수면 부녀회의 녹두 빈대떡과 콩국수, 추동1리 부녀회장과 이장이 직접 장작 불 지펴가며 만드는 손두부, 국내 최대의 화강암 생산지 포천에서 직접 가공하는 화강암 빨래판 그리고 어제 낳은 달걀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청란이나 유정란, 오가리 정우화성의 고어텍스 앞치마, 평화농원의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추동리 우정식품의 국수 및 당면 등 다양한 농축산물 및 석재 가공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창수면 관계자는 장터는 매월 2,4주 토요일에 약 40여개의 부스가 날씨에 관계없이 운영되고 앞으로 『蒼水야 놀자』 창수장터 개장으로 창수면민들의 주머니에 썸지 돈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③ 『蒼水야 놀자』 시골장터로 변신한 면사무소

농민 특산품 판로 개척 위해 '시골 장터'로 변신한 면사무소

경기 포천 창수면 '창수야 놀자'
이경훈 민장, 주민들과 머리 맞대

하루 전날 낳은 신선한 달걀, 화강암으로 만든 빨래판... 경기도 포천시에서 한 시골마을 면사무소 앞 광장에 주민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파는 장터로 변신한다.

8월 포천시에 따르면 '창수야 놀자'라는 이름의 이 장터는 오는 10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창수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열린다.

장터에서는 밴드 공연과 민요 공연도 펼쳐진다. 무부 제조과정도 소개한다. 부녀회와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비빔국수와 콩국수·파전·손대 떡을 만들어 판매한다. 주민

자치센터에서도 나와 댄스 공연을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주말 장터는 창수면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5개 마을이 22개 부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직접 나와 자신들이 생산한 농축산물과 공산물 50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20~3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창수 주말 장터를 고안해 내 주민과 마을 대표 부임한 이경훈(55·사진 왼쪽 둘째) 창수면장이다. 그는 "지역의 우수한 생산품이 제대로 판로를 넓혀야 하고 있는 게 안타깝기 위 주말 장터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창수면은 미군 종합사격장과 접해 있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공해 등에 시달리는 데다 인구가 2400여 명에 불과한 낙후된 시골이다. 반면엔 장터도 없다. 이 면장은 "주민이 허전해질텐데, 한탄길 생대공원, 골짜기 등이 있어 주말 장터가 열리면 관광에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학기(63) 창수면발전위원회 이사는 "내년부터는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많은 마을 보살핌으로 대지를 구입해 관광 자원을 불리는 공역에 상설 장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신문 기자
jeon@donggong.co.kr

IV. 결론

창수면은 넓은 면적에도 미군 종합사격장과 LNG 발전소 2개소가 들어서 있으며, 인구가 2천 400여 명에 불과한 시골 지역이다.

그러나 깨어 있는 농민, 앞장서는 농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농민들과 정부와 경기도와 포천시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농촌진흥원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기술 지도로 한우사육두수 751두, 유우사육두수가 35,000마리,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가 140만 수에



포천시장과 창수면장

달하고 청정 돼지비육 두수가 35농가에 35만두가 사육되며, 지역 특산품인 화강암 석재 공장, 유명 백화점에만 납품한다는 정우식품의 당면과 국수공장 등이 있어 다양한 물건이 생산된다. 특히 위도 38도 선상에서 재배되는 농수 축산물에 가장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정평이 나 있어 노지 오이는 전량 대기업과 계약재배중이고, 단무지용 무는 전량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사과 재배 농가가 급증하고 낙농 농가의 치즈만들기 체험 등 근래에는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며, 고급기술로 최신 자동화 된 시설에서 치즈 우유 요구르트, 사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 등을 생산하여 체험농가로 지정이 되는 등 주변과 인근의 창옥병 금수정의 절경과 백운계곡 산정호수 아트벨리 허브아일랜드 등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도 농 협업 6차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수면 발전위원회에서는 장터를 운영하면서 백운계곡 산정호수 아트벨리 허브아일랜드 금수정 창옥병 백로주 청학동 낙귀정지 인평대군 묘 용연서원 옥병서원 등 주변관광지와 전통 문화재를 탐방하는 관광객에게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터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시중에게 거래되는 것보다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하면서 값도 싸 구매회자들이 모두 만족 해 하고 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흥을 잊지 않고 이어온 포천 시민은 애플 밴드, 가노농악, 배경숙 명창의 경 서도소리에 맞추어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곡을 무한 신청하여 열창할 기회가 매번 제공되고 있다.

『蒼水야 놀자』 장터에서는 갓 낳은 신선 달걀, 아침에 따 내온 아로니아, 블루베리, 오미자, 애호박과, 무, 배추, 상추, 쑥갓 등등의 채소, 과일, 된장, 화강암 빨래판, 고어텍스 앞치마 등 지역에서 생산한 30여 개 품목이 시중 구입가의 30%이상 싼 가격에 팔며, 사는 이 모두 만족해 한다.

포천시 창수면 관계자와 창수면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키운 농축산물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장터를 마련했다" 며 "장터 운영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 라고 말한다. 관계 기관에 바람이 있다면, 아직은 기초단계이고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영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창육병이나 금수정에서 가까운 곳에 넓은 광장을 마련하고, 특설무대도 설치하고, 누구나 원 매물(願賣物)을 내오면 바로 펼칠 수 있는매대(賣臺)설치와 포천시내에서 『蒼水야 놀자』 장터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 인근 유적지 탐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간 포천시와 창수면발전위원회의 노력으로 『蒼水야 놀자』 장터부지 5600평(18,480㎡)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중이다.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

1. 포천디지털 대백과
2. 인문학연구(2006년 2월 대진대학교 발행) 박진태교수의 조선후기 근기지역 장시(場市)의 발달과 루원(樓院)·송우점(松遇店)
3. 포천시(군)지.

여 백

화성의 교통과 장시(場市)

정 찬 모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목 차

I. 서론

II. 교통과 통신

III. 조선시대 화성의 교통촌

IV. 시전의 설치와 정기시장의 발달

V. 한말 이전의 유통업

VI. 일제 침략기의 장시의 변화

VII. 해방 이후의 화성 장시의 발달

VIII. 화성의 유통현황

IX. 맺음말

집필자

정 찬 모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I. 서론

인적·물적·시간적 공간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 교환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제도.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장시는 사람들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한 영역으로 존재하여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무릇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포괄적 개념들의 의미를 밝히기는 쉽지 않듯이, 장시의 뜻도 부족함이 없이 밝히기가 쉽지 않다.

장시는 우선 ‘모이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인적·물적·시간적·공간적 요소들이 한데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가 바로 장시이다.

이렇게 묘사된 장시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물화교역(物貨交易)의 장소를 뜻하는 구체적 장시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형성기능이 강조된 논리적 범주로서의 추상적 장시이다.

《만기요람 萬機要覽》 각전조(各塵條)에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는 물러가는 것을 장(場)이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장’이 구체적 장시의 한 예이다.

인류학과 역사학의 탐구대상은 주로 역사적 경험 속에 존재했던 이러한 구체적 장시이며, 이 경우의 장시는 ‘장터’ 또는 ‘장판’의 의미가 강하다.

전통적으로 장시를 장(場) 또는 장시(場市)·시상(市上) 등으로 불러왔는데, 이들 모두가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던 한정된 장소, 즉 장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장터로서의 국지적(局地的) 장시 개념은 장터들 상호간의 작용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커지면서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교통과 수송 수단, 그리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한 장터에서 벌어진 교역의 결과는 바로 다른 장터에서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터들 상호간의 구조적 작용관계를 종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게 되었다.

II. 교통과 통신

조선시대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였으며, 역(驛)은 바로 그들의 출발지와 종착지, 그리고 중간 기착지에 설치된 공공기관이었다.

동양에서 역전(驛傳)제도는 중국 고대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주(周)나라는 이미 기원전 10~9세기경에 마차와 도보에 의한 전거(傳遽)제도와 사신 접대를 위한 관사(館舍) 제도를 실시하여 교통과 통신의 기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나라의 전거제도는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더욱 체계화되고, 통일왕조인 진(秦)·한(漢) 시대에 정(停)·우(郵)·역(驛)·전(傳)과 같은 다양한 조직으로 정착되었다. 역은 소식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한나라 무제(武帝) 때를 전후하여 나타난다. 역은 대체로 30리마다 설치되었는데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었다. 진·한의 교통조직은 수(隋)·당(唐)을 거치며 점차 통합되어 우와 역, 관사를 포괄하는 역전제도로 발전하였고, 송(宋)의 체포제(遞鋪制), 원(元)의 참적제(站赤制)를 거쳐 명(明)의 역체(驛遞)제도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역을 두었는데, 그 기능은 대략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명(傳命) 기능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왕명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명의 방법은 고려시대에 확립되어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는 진상(進上)과 공부(貢賦)를 운송하는 기능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재정을 충당해야 하므로 국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이나 공물, 사신의 행차에 뒤따르는 짐을 운반하는 데 있어 역의 역할은 매우 컸다. 따라서 도로와 수레 등의 운반수단을 관리하는 역은 배를 이용하는 조운제(漕運制)와 함께 물자 수송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신을 접대하고 짐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말·수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조선시대에는 매 30리마다 역참(驛站)을 두어 중앙과 지방의 행정문서를 전달하고,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며, 국내의 사신의 왕래에 따른 접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역참은 여행자에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 통신 기관의 하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세종대에는 전국에 44개의 역도(驛道)가 있었고 그 예하에는 총 538개의 역(驛)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는 8개 역도에 60역이 소속되어 있다. 당시 수원에는 동화역(同化驛)과 장족역(長足驛)이, 남양에는 해문역(海門驛)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진위의 청호역(靑好驛), 양성의 가천역(加川驛), 안성의 강복역(康福驛)과 함께 동화도(同化道)에

속하였다. 동화도는 서울에서 동화도를 거쳐 충청지역의 성환도(成歡道)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종9품의 역승(驛丞)이 파견되어 관련 행정을 담당하였다.

Ⅲ. 조선시대 화성의 교통촌

육로망과 장시망

전통시대에 도로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시설의 하나는 장시였다. 장시는 흔히 5일장으로 불리는 정기시장을 일컫는데 18세기 중반부터 장시망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를 정도였다. 조선후기 장시의 역할과 기능은 이미 지역민들의 생활권을 규정할 만큼 일상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우선 조선후기 이후 화성시 장시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자. 향남면 발안장, 남양동 남양장, 송산면 사강장과 구 수원부에 속했던 평택시 오성면 안중장과 오산시 오산장 등은 조선후기 이래 현재까지 5일장이 개시되는 곳이다. 이밖에 송산면 사강장, 반월면 반월장, 우정면 조암장의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조암장은 장안면 사곡리에서 개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슬꽃장이 이설·부활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민속시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5일장은 대체로 상설시장 안팎에서 연접하여 난장(亂場)이 펼쳐지는데, 화성과 수원을 포함하여 수원의 성내장과 성외장이 가장 먼저 상설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동국」 단계 수원·남양에는 모두 11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이 가운데 수원읍내장은 제주로가 관통하는 곳에 입지하였으며, 신기장·오산장·석현장은 제주로에서 10~15리 사이에 위치해 가까웠다. 이 세 장시는 『동국』 단계에만 개시되다가 이후 모두 소멸하였는데, 정확한 문헌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새로 조성된 화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성 내의 시전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교통로 변의 요충지에는 일찍부터 일반 농촌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촌락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촌락을 총칭하여 교통촌이라 부른다. 조선시대의 교통촌은 교통로의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수상교통로 즉 하천 변이나 해변에 입지한 취락이며, 다른 하나는 육상교통로 즉 도로변에 입지한 취락이다.

먼저 수상교통로변에 입지한 취락을 살펴보면, 화성에는 상선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하천이 없으므로 하천변에는 별다른 교통촌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신 해변에 어선과 상선이 기항하여 물자를 내리고 실은 포구를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매송면 야목리 빈정포(濱汀浦)를 들 수 있다.

빈정포에 대해서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인근에 거주하였던 실학자 우하영(禹夏永)이 그의 저서 천일록(千一錄)에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충청도 면천(沔川) 이북에서 경기도 인천이남 수백여리 사이에 상선이 정박하는 곳은 오직 웅포(瓮浦) · 빈정포 · 송호(松湖) 세 곳뿐이다. … 빈정포는 이전에 부호(富戶)가 많이 살던 때는 전화(錢貨)가 넘쳐난 까닭에 어선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각처 상고(商賈)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점차 패촌(敗村)이 되면서 부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능히 선주인(船主人)이 될 만한 업자가 없다” 고 하였다. 즉 빈정포는 이미 18세기 중엽 이전에 서해안의 중요한 포구 중 하나로, 중부지방 일대에 어업을 비롯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전성기에는 상선의 출입도 잦고 자본을 갖춘 유력한 선주인들에 의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하나의 도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육상교통로 변에 들어선 교통촌으로는 역원취락(驛院聚落)이 있다. 역원취락은 마필과 역졸을 갖추고 관리 내왕시 편의 제공과 공문서 및 공물의 운송 등을 담당하던 역을 중심으로 한 역촌(驛村)과, 관리와 일반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원을 중심으로 한 원촌(院村)으로 다시 세분된다. 역촌은 역관을 중심으로 말을 관리하는 시설과 각종 수레를 보관하는 시설, 역리 · 역졸 · 역노 등 역의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가옥들로 이루어졌으며, 원촌은 여행객이 숙박하는 원집과 마방, 약간의 일반가옥으로 구성되었다.

시장촌이란 교통로의 결절점이나 연계지점에 농민들이 모여 잉여물을 판매하고 비자급품을 구입하는 장시(場市)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락이다. 그런데 시장촌은 교통촌과 그 입지나 기능 면에서 매우 유사하며, 교통촌이 시장촌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많다.

시장촌의 바탕이 된 조선시대 장시는 상설시장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농민과 상인이 모이는 정기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가 서울로 수송되는 물자의 중도지체를 막기 위해 장시개설을 강력하게 금지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장시 발달이 지체되긴 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급격히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조선후기 화성에는 모두 3곳의 장시가 있었다(표-79 참조). 이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부내장(府內場)은 남양의 읍취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신기장(新基場)은 과거 조수를 이용해 배가 드나드는 곳으로, 뱃길과 육로가 만나는 지점에 입지해 있었다. 즉 입지에 있어서는 도로의 결절점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부분에 주로 자리 잡아 교통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까지는 장시에 상설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공터가 되는 장터와 이를 둘러싼 몇 채의 주막으로 시장촌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조선시대 화성의역

군현: 역명 수원 동화역

위치: 부 서쪽 7리

현 위치; 봉담읍 동화리 역말

대마(大馬) 1필, 부마(負馬) 4필, 역노(驛奴) 8명

남양 해문역 부 동쪽 1리 남양동 역골

대마 1필, 기마(騎馬) 1필, 부마 3필, 노(奴) 11명, 비(婢) 2명

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조선시대 화성에는 표-1과 같이 동화역(同化驛)과 해문역(海門驛)이 있었으며, 이들은 ‘영남대로’ · ‘삼남대로’ 와 같은 대로변은 아니나 주요한 도로변에 입지해 있었다. 동화역은 수원도호부에서 남양도호부 또는 발안으로 가던 도로 변에 들어서 있었으며, 해문역은 조선전기에는 남양도호부 인근인 현재의 남양동 역골에 있다가 어느 시기남양도호부에서 화량진(花梁鎭)으로 가는 길목인 현재의 마도면 해문리 역골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역촌은 19세기 후반 이후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여 현재 그 형태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동화역촌의 경우, 도로 인근의 야산에 당집이 남아 있으며, ‘봉담역말 농악’이라는 민속놀이가 전승되어 오고 있으나, 농악과 역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원도호부 소속의 오산원(烏山院) · 사원(蛇院) · 대제원(大梯院), 남양도호부 소속의 진수원(鎭水院) 등 조선전기 화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 개의 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읍지(邑誌)들에는 원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거나 원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미 18세기에 원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위치의 비정도 어려운 형편이나, 일반적인 원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대부분 도로 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원촌이 일찍 쇠퇴하기 시작한 대신, 17 · 18세기 이후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변을 따라 주막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간단한 숙박설비를 갖추고 술과 식사를 파는 주막들이 여러 채 모여 형성된 주막촌은 대로변은 물론, 장터, 나루터, 읍내 등 사람이 많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곳에 들어섰다. 주막촌은 역촌이나 원촌에 비해 오랫동안 존속하였

고, ‘점(店)’, ‘주막거리’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표-2. 주막촌 지명의 분포

명칭: 병점

위치: 태안읍 병점리 1번국도(조선시대 삼남대로)변

점말 태안읍 황계리 1번국도(조선시대 삼남대로)변

점촌 봉담읍 왕림리 43번 국도변

점촌 팔탄면 가재리 43번 국도변

점터 팔탄면 구장리 39번 국도변/ 구 시장터 옆

점말 장안면 어은리 82번 국도변

점말 우정면 주곡리 선창부근

자료: 한글학회, 한글지명총람 18권, 1993.

표-2는 화성의 주막촌 지명들을 정리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 큰길가에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규모가 컸던 곳은 서울에서 해남을 거쳐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제 5로’ 인 이른바 ‘삼남대로’ 변의 태안읍 병점리 병점과 황계리 점말 이었다. 특히 병점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마을 옆으로 개통되고, 1907년 병점역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촌락의 형태에 있어서는 역원취락이 농촌과 마찬가지로 대개 가옥이 불규칙하게 밀집해 있는 괴촌(塊村)의 형태를 띠었던 반면, 주막촌은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 또는 한쪽으로 가옥들이 늘어서 있는 가촌(街村)의 형태를 띤 것이 많았으며, 사람의 이동량에 따라 그 규모가 다양하였다.

IV. 시전의 설치와 정기시장의 발달

정조대에 계획도시로 건설된 화성은 18세기 말 이후 상업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정조는 팔달산 아래로 신읍치를 이전하고 화성성역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신읍치의 백성을 늘리는 일에 착수하였다. 정조는 화성과 인근 지역의 백성들에 대한 신역(身役)과 호역(戶役), 환곡을 감면

해 주거나 현릉원에 행차하는 길에 수시로 문무과 별시를 시행하여 인재를 선발하였고, 각종 진흥책을 시행하여 화성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대민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수원부 구읍치의 호수가 244호에 불과하던 것이 신읍치로 이전한지 1년 만에 719호에 이르렀으며, 화성성역이 끝난 1796년(정조 20)에는 성내 1천호, 성외 1만 5천호를 헤아리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거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을 상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인을 모집하여 전방과 장시를 개설하고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앞서 보았듯이 1790년(정조 14) 2월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상인을 모집하여 시전과 장시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상업자본가를 화성으로 유치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에서 이들 상인에게 자본을 대여하여 기와집 전방을 개설하려고 한 것은 시전을 설치하자는 것이었고, 읍치와 인근 지역에 5일장을 개설하자는 것은 정기시장을 상설화하여 읍치의 상업적 번영을 도모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해 5월,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는 수원의 거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진흥책을 제안하였다. 그는 전국의 부호를 모집하여 전방을 개설하는 것은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부민(府民) 중에 자본이 있고 장사 물정을 아는 자에게 3년 기한의 무이자 자금을 빌려준다면 산업의 진흥에 유효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용주사의 승려들이 빈곤하므로 이들에게 자금을 주어 종이와 신발을 만들게 하자는 수공업 진흥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조심태의 제안은 즉시 수용되었다. 구역청 산하 진흥청에 있던 6만 5천 냥의 자금이 화성부에 대출되어 시전을 설립하고, 화성의 남북에 장시를 개설하였기 때문이다. 이 무렵 화성 내 관문(官門) 밖에 설치된 시전은 다음과 같다.

입색전(立色廛) : 관문 외로 북쪽에 위치. 비단 판매

어물전(魚物廛) : 입색전과 통방(通房)되는 곳에 위치. 생선 과일 판매

목포전(木布廛) : 관문 외로 남쪽에 위치. 백목(白木) 모시 목화 판매

염급상전(鹽及床廛) : 소금 밥상 판매

미곡전(米穀廛) : 관문 밖 동쪽에 위치. 백미 남초(담배) 면자(麵子) 판매

유철전(鑰鐵廛) : 북리 점(店)에 위치. 유기 철제품 판매

관곽전(棺槨廛) : 미곡전과 통방되는 곳에 위치. 장례용품 판매

지혜전(紙鞋廛) : 관곽전 아래에 위치. 종이 신발 판매

V. 한말 이전의 유통업

우리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형태의 상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즉 국가체제가 확립되고 현물재정 체계 하에서 각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경시(京市)가 출현하였으며, 지방에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향시(鄕市)가 등장하였다. 이런 형태의 교환조직이 고려시대까지 계속되다가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부터이다. 특히 지방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장시는 조선후기 상업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방에서 시작된 장시의 발달은 양란을 거쳐 17세기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었다. 장시가 개설되는 지역적 범위의 확대는 물론 개시 횟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시 개설을 금지하였던 정부에서도 태도를 바꾸어 장세를 징수하는 등 장시 개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문헌을 통해 조선후기 화성지역에 개설된 장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조선후기 수원부·화성유수부의 장시

東國文獻備考(1770)		道路考(1770)		林園十六誌(1830)		華城誌(1831)	輿圖備考(1850)		大東地誌(1861)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읍내장	1·6	읍내장	1·6	북문외장 남문외장 오산장	2·7 4·9 1·6	남문외장	남문외장	4·9	남문외장	4·9
오산장	3·8	오산장	3·8			오매장	오매장	3·8	오매장	3·8
팔탄장	5·10	팔탄장	5·10			팔탄장	팔탄장	5·10	팔탄장	5·10
석현장	2·7	석현장	1·6			석현장	석현장	1·6	석현장	1·6
안중장	1·6	안중장	1·6			안중장	안중장	2·7	안중장	2·7
사슬곶장	4·9	사슬곶장	4·9			사사곶장	사사곶장	4·9	사사곶장	4·9
오타장	1·6	오타장	1·6			세람장	세람장	1·6	세람장	1·6
신기장	4·9	신기장	4·9							

표-4. 조선후기 남양부의 장시

東國文獻備考(1770)		道路考(1770)		林園十六誌(1830)		南陽(京畿誌)(1842-3)		輿圖備考(1850년대)		大東地誌(1861)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남양읍내	2·7	읍내	2	부내장	2·7	읍내장	2·7	읍내장 구포장	2·7 1·6	읍내	2·7
구포	1·6	구포	1	용교장	1·6	구포장	1·6			구포	1·6
기지	4·9	기지	4	신기장	4·9	기지장	3·8			기지	4·9
						청산장	4·9				

VI. 일제 침략기의 장시의 변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화성의 정기시장망에는 변화가 생겼다. 표-5는 1938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조선후기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부내장 즉 남양장(南陽場)과 신기장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개시일이 변경되었으며, 춘교장(春橋場)은 없어졌다. 대신 우정면 조암리에 삼괴장(三槐場), 향남면 발안리에 발안장(發安場)이 각각 생겨났다. 삼괴장은 원래 장안면 사랑리에 열리던 것이 일제 초기 신작로의 개수로 교통이 편리해진 이웃한 우정면 조암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발안장도 같은 이유로 팔탄면 구장리에서 1913년 향남면 발안리로 이설한 것이다. 거래액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이들 시장촌의 규모는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 들어 시장촌은 점차 그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되는데, 대개 장터를 중심으로 중심가로를 따라 상설점포가 들어서면서 가촌(街村)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시장촌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제적 교환의 장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교·오락·정보교환 등 사회문화적 기능도 지니게 되면서 점차 지역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적 기능도 갖게 되어 사강리·조암리·발안리의 시장촌은 각각 송산면·우정면·향남면의 면소재지가 되었다. 이들 시장촌은 1970년대 이후의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화 등에 의해 큰 변화를 겪었다. 아직도 각각 남양장(1·6일)·사강장(2·7일)·조암장(4·9일)·발안장(5·10일)의 정기시장이 열리기는 하나 쇠퇴하고 있는 대신 상설시장화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외에도 각종 교육·문화·서비스시설들이 집중하여 그 구조와 형태가 복잡해 졌다.

각각의 시장촌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남양장은 과거 소금과 해산물, 소금 생산에 필요한 뿔감이 많이 거래되었으며, 한 때 상권이 축소되다가 최근 남양시청의 이전으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안장은 1960년대까지 발안천 서쪽에 장터가 있었으며, 양조장·방앗간 등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변부에는 우시장이 컸다. 그러나 그 후 장터를 더 서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점차 정기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시장촌이 있던 자리는 평범한 마을로 변모하였고, 대신 상설점포들은 발안천 동쪽으로 확장된 시가지에 들어서 있다.

국권 상실 1년 후인 1911년 화성지역에는 한말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성내장, 성외장, 오산장, 발안장, 안중장 등 5기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한편 1917년에는 안중장 대신 남양장과 반월장이 추가되어 총 6기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중이 평택으로 넘어가고 반월과 남양이 수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나타난 변화이다.

표-5. 일제침략기 화성지역 장시의 변화

1911	1917	1926	1934
성내장(4)	수원성내장	수원성내장	성내장
성외장(9)	수원성외장	수원성외장	성외장
오산장(3,8)	오산장	오산장	오산장
발안장(5,10)	발안장(5,10)	발안장	발안장
안중장(1,6)	남양장(3,8)	남양장	남양장
-	반월장(1,6)	반월장	발안장
-	-	신기장	신기장(2,7)
-	-	-	삼괴장(3,8)

자료 :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 괄호안은 개시일

1926년에는 신기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신기장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 새로 개설된 것이라기보다 누락되어 있던 것이 수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한편 1934년에 이르면 삼괴장이 추가되어 총 8기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삼괴장이 개설된 우정면에는 조선후기 이래 사사꽃장이 개설되어 왔는데 삼괴장도 이 사사꽃장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시의 개시일도 별다른 변화 없이 성내장 4일, 성외장 9일, 오산장 3·8일, 발안장 5·10일, 남양장 3·8일, 반월장 1·6일, 신기장 2·7일, 삼괴장 3·8일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 장시에서 주로 취급한 품목은 소·미곡·직물·엽연초(葉煙草)·어류 등이었다.

[표-6. 일제침략기 화성지역 장시의 변화]

(단위 : 엔(円))

구분	1917	1926	1934
성내장	179,299	408,171	529,261
성외장	165,830	503,422	528,403
오산장	174,307	238,564	469,816
남양장	9,151	30,360	100,985
발안장	37,264	91,109	160,985
반월장	2,422	21,270	22,239
신기장	-	24,329	183,948
삼괴장	-	-	52,000

자료 :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VII. 해방 이후의 화성 장시의 발달

1945년 이후 미군정 실시와 곧 이은 한국전쟁으로 화성지역의 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그 와중에도 1947년 수원물가운영조합의 결성, 1948년 수원 매산(梅山)시장 개설, 1949년 수원군 금융조합의 기능 일신을 위한 협동조합추진위원회 조직 등 상업 발달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4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성지역 유통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여 분리·독립하게 됨으로써 화성지역의 유통업은 다시 한 번 위축되기에 이른다.

1950년대 화성 유통업은 자료의 미비로 고찰하기 어렵고 여기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자 한다. 현재 화성시에 남아있는 통계연보에 의해 1960~1970년대 화성군에 개설된 시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1960·1970년대 화성군의 시장현황

1962			1973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오산시장	오산읍	3·8	오산시장	오산읍	3·8
남양시장	남양면	1·6	남양시장	남양면	1·6
사강시장	송산면	2·7	사강시장	송산면	2·7
매화시장	서신면	5·10	서신시장	서신면	5·10
조암시장	우정면	4·9	조암시장	우정면	4·9
발안시장	향남면	5·10	발안시장	향남면	5·10
발산시장	정남면	1·6	발산시장	정남면	1·6
-	-	-	사창시장	양감면	2·7
-	-	-	비봉시장	비봉면	3·8

1962년 화성군에는 오산 읍에 오산시장이 3일·8일, 남양면에 남양시장이 1일·6일, 송산면에 사강시장이 2일·7일, 서신면에 매화시장이 5일·10일, 우정면에 조암시장이 4일·9일, 향남면에 발안시장이 5일·10일, 정남면에 발산시장이 1일·6일에 개설되는 등 총 7기가 개설되어 있었다. 서신면의 매화시장은 이후로는 서신시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1964년부터 양감면 사창시장이 나타나고 1973년부터 비봉면 비봉시장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1973년에는 총 9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개시일에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1975년부터 비봉, 서신, 양감, 정남의 시장은 운영 및 관리사항 미비로 잠정적인 폐쇄 상태에 이르고 있

다. 양감면의 사창시장은 1970, 1971년도 기록에는 보이지 않다가 1972년부터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1975년 폐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1970년부터 이미 장세가 많이 약해져서 개시와 폐쇄를 반복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975년부터는 오산시장, 남양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발안시장 등 5기의 장시만이 개설되고 있다. 이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설점포 및 사설시장이 증가, 정기시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VIII. 화성의 유통현황

1980년대 이후 화성의 장시는 정기 공설시장이 오산·남양·송산·우정·향남면의 5곳에 개설되고, 일반 사설시장이 오산읍 1곳에 개설된 채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 화성지역의 시장은 크게 북부 지역권과 남부 지역권으로 나뉜다. 북부권은 사강장 → 남양장 → 수원장으로 연계되는 체계이며 주요 국도인 서신면 → 송산면 → 마도면 → 남양면 → 비봉면 → 매송면을 지난다. 남부권은 우정면 → 장안면 → 팔탄면 → 봉담면을 지나가면서 조암장 → 발안장 → 수원장으로 연계된다. 즉 화성지역의 시장은 사강·남양·조암·발안 4개의 시장과 그 집결지인 수원, 외곽으로서의 오산·안중장과 연계되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는 북부의 사강장, 남부의 발안장이 주요 시장이 되고 있다.

한편 오산읍이 1989년 1월 1일부로 오산시로 승격되어 화성시에서 분리되면서 오산에 있던 시장이 제외되고, 화성시에는 남양·송산·우정·향남면의 정기 공설시장이 남게 된다.

1990년대에도 정기 공설시장은 4곳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다만 1991년 반월에 일반 사설시장이 신설되었으나 1994년 화성군 반월면이 수원시·군포시·안산시에 각각 편입되면서 반월의 일반 사설시장도 제외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94년 태안읍에 일반시장이 개설되어 1995년까지 유지되다가 1996년 이후 기록에서 없어지고 1996년부터는 봉담읍에 일반시장이 개설되고 있다. 즉 1996년 이후 화성군에는 봉담읍에 일반시장 1개, 남양면·송산면·우정면·향남면에 정기시장 4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6년과 2002년에 화성시에 개설되어 있는 시장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표-8과 같다.

표-8. 화성시의 시장 면적

(단위 : m²)

연도	소재지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연도	소재지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1996년	봉담면	1,288	2,058	2002년	봉담면	1,288	6,650
	남양면	15,000	-		남양면	211,563	-
	송산면	15,000	-		송산면	328,680	-
	우정면	26,346	-		우정면	32,340	-
	향남면	130,000	-		향남면	32,340	-

봉담읍 일반시장의 건물연면적은 1996년에는 2,058m²이었으나 2002년에는 6,650m²로 약 3배가 증가하고 있다. 정기시장의 부지면적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남양면은 약 14배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향남면은 1.5배, 송산면은 약 1.3배, 우정면은 1.2배가 각각 증가하고 있다. 남양면 정기시장의 비약적인 면적 확대는 화성시 승격과 시청사 이전 등으로 남양의 소비 인구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상설 도·소매상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기시장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설점포의 예

도 불구하고 화성시 유통업에서 여전히 정기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각각의 시장촌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남양장은 과거 소금과 해산물, 소금 생산에 필요한 땀감이 많이 거래되었으며, 한 때 상권이 축소되다가 최근 남양으로 시청이 이전되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남양으로 시청이 이전되어) 발안장은 1960년대까지 발안천 서쪽에 장터가 있었으며, 양조장·방앗간 등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변부에는 우시장이 섰다. 그러나 그 후 장터를 더 서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점차 정기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시장촌이 있던 자리는 평범한 마을로 변모하였고, 대신 상설점포들은 발안천 동쪽으로 확장된 시가지에 들어서 있다. 소금과 해산물, 소금 생산에 필요한 땀감이 많이 거래되었으며, 한 때 상권이 축소되다가 최근 남양시청의 이전으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안장은 1960년대까지 발안천 서쪽에 장터가 있었으며, 양조장·방앗간 등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변부에는 우시장이 섰다. 그러나 그 후 장터를 더 서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점차 정기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시장촌이 있던 자리는 평범한 마을로 변모하였고, 대신 상설점포들은 발안천 동쪽으로 확장된 시가지에 들어서 있다.

IX. 맺음말

조선 전기에 보름 또는 10일장으로 개시되던 장시가 이후 5일장의 정기시장으로 발달하면서 농촌의 사회·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장시가 개설되는 곳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활동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8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장시는 한 달에 6회 개시하는 5일장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각 지역마다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장시의 정기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기가 장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수월한 기회가 장날이었다. 장시의 이용자들은 장터에서 친척의 안부나 시장거래의 동향, 물가의 추이, 출하물품의 특징, 계절별 상품의 출하 시기 등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장시는 상품가격이 결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했다.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장시도 급하게 변하게 되었다. 화성의 장시도 대중교통이 생기게 되면서 사창리장(요리장), 정남의 패랑리장이 오산장이나 발안장으로 흡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발안장이나 오산장은 더욱 활발한 장시가 되었다. 장시의 구성여건으로의 교통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현대에 들어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수원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의 쇼핑이 대중화 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 앉아서 통신구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지되고 있는 장시는 재래시장으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옛날의 향수를 느끼려고 재래시장을 찾는 경우도 있다. 화성지역은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을 위한 생필품을 파는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화성의 재래시장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단지 물건만 파는 시장으로의 기능을 넘어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상품을 구매하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참고문헌

화성시사 (화성시 2005)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김대길)

문화의 뜰(화성문화원 2016)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김종혁, 2001 고려대 박사논문)

일제시대 장시의 연구 (허영란)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임원경제지(1830년)

동여지도(1834년)

조선시대의 장시(중앙일보, 2007.3.20)

조선의 장시 연구(무라야마 지준 2014, 민속원)



사강장의 어시장



사창장(요리장)의 흔적



남양읍내장의 현재 모습



조암장의 모습



사강장(옛 신기장)의 입구



정남 쾌랑장의 흔적



비봉장터(구포장)의 흔적



조암장의 모습



발안장의 만세시장



발안장 모습

京畿郷土史學(第22輯)

경기향토사학(제22집)

경기향토사학(제22집)

발행인 : 염상덕

편집인 : 최영주

기획 : 박현미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17년 12월 31일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인쇄처 : 홍익문화사(02-2274-8110)

이 책은 2017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 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중오
남양주 장시(場市)에 대하여

이명수
동두천 5일장의 유래

양경직
소사우시장 고찰(素砂牛市場 考察)

이병권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홍완표
안성의 장시문화(場市文化)

홍정덕
양주의 장시

이복재
경기동부 한강유역의 장시사(場市史)

이준용
우리나라 최초의 장터 수무수(橢無橢)장터

남경식
오산장(烏山場)의 변천과 장세

최영희
경기물산의 중심지, 의정부

김장환
용인 백암장과 백중문화제

이윤희
파주지역 장시(場市) 변천사 연구

최창근
포천장시의 발달 과정

정찬모
화성의 교통과 장시(場市)